

구조의미론

— 방법상의 하나의 시도

Structural Semantics

— An Attempt at a Method

Algirdas Julien Greimas

주 권 역

주 근옥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겸임교수, 충북대학교 전 강사
저서: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시문학사: 2001), 「석
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2001)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시문학사: 1987), 「감을 우리며」(시문학사:
1988), 「번개와 장미꽃」(새미: 1998), 「바퀴 위에서」(시문학사: 2001),
「갈대 속의 비비새」(현대시: 2002)

번역:

A.J.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J.Greimas, On Meaning
Algirdas Julien Greimas, Jacques Fontanille, The Epistemology of
Passions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Warren Motte, Jacques Jouet's Soul
Stephen Crane, The Open Boat
Amy Hempel, In a Tub
Amy Hempel, In the Cemetery Where Al Jolson is Buried
Mary Robison, Kite and Paint
Ernest Hemingway, Hills Like White Elephants
Walt Whitman, Democratic Vistas
臼井吉見(うすい よしみ), 形式主義文學論争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환원적 다원성의 생동감
공저(김용직 송재영 홍희표 이승원 구수경 송기섭 송기한 장수익 최예열
금동철 김현정 남기택 윤종영 김윤정 김승민 김교식 민명자 박슬기 林陽子)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poemspace.net/>

프랑스어: <http://www.illustrer.net/>

영어: <http://www.clinamen.co.kr/>



한국문학의 판단중지를 위하여 나는 이 원고를 비매품으로 공개한다.
2013. 08. 12

이 책은 리투아니아 출생의 프랑스 기호학자 알지라스 쥘리엔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의 「Sémantique Structurale: Recherche de méthode(1966)」를 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 다니엘 맥도웰(Danniele McDowell), 앨런 벨리(Alan Velie)가 영어로 번역한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서언

주근옥

1917년 리투아니아에서 출생한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의 그레노블 대학,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어사의 대가 브뤼노(Ch. Bruneau)의 지도 하에 1946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46~1949까지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1962년까지 이집트 등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 후 프랑스로 돌아와 포와티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첫 작품 「구조의미론(Structural Semantic s)」은 1963~1964년까지 파리대학이학부(Institute H. Poincarre)에서 강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1966에 간행되었다. 언어학보다 오히려 문헌이론에 더 가까운 이 저서는 프랑스에서도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원인을 본문은 물론 각주에서조차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쉬르 야콥슨 엘름슬레우 등의 현대 언어학(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과 논리학, 현대수학, 화성학(和聲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형태심리학,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 롤랑 바르트의 신화학, 프로프(Vladimir Propp)의 민담형태론, 특히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그리고 메를로퐁티로 이어지는 현대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1992년 서거.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구조의미론」은 이미 언어학 분야에서 간략한 소개(원역이 아니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학 쪽에서 직접 그의 이론을 번역하여 수용한다는데, 역자는 의의를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론은 언어학에 속하지만, 폴 J. 페롱(Paul J. Perron)이 언급한 것처럼 엘름슬레우의 텀 “내포기호학(connotative semiotics)”이 텍스트의 양의연동의 적합한 기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존재하는 “외연기호학(denotative semiotics)”으로 변형된 그 총체성(totality)의 예문을, 보다 더 엄밀히 말해서 내포화(virtualizing)와 외연화(actualizing; 선언)의 종합·실현화(realizing; 연언)로서의 인식론차원의 예를, 시와 소설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레마스는 제11장

과 12장에서 프로프의 민담형태론과 유셀이 분석한 베르나노스의 소설을 예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적어도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을 가지고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먼저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을 식별하고, 구조의미론은 공통단자를 추구하는 바로 이러한 인간과학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 인간과학 사이에서도 시샘을 받고 있는 선구자로서의 이 언어학이 그러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역설적인 장면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역설적 장면이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한 장소에 이중의 복사가 방출되는 것(환원된 단자 같은 것)을 말한다. 이 이중 복사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추구했던 것으로서 전위적인 잡지에 확산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진부하고 뒤뜰린 것(은유와 상징 같은 것)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면서 그의 이론은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즉 메를로퐁티, 레비스트로스, 라캉, 롤랑 바르트 등의 영향을, 12장에서는 칸트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결합과 헤겔의 절대지, 결국은 후설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2장에서, 그는 전통적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전승(轉乘, transfer)을 연속적(통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비통시적이고 불연속적인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쉬르가 언어의 위치는 화맥 속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 혁명적인 성격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기본구조는 어느 한 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소와 같이 극은 극이 되 양극의 관계, 의미의 축($\text{figure} + \text{figurative} = \text{인식론적인 차원}$)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엘름슬레우의 용어를 빌려 형식과 실체(form과 substance)의 관계임을 밝히기도 한다. 언어와 담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3장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제2장에서 언급된 관계의 표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4장은 언어구축을 담화가 떠받치고 있다고 한다. 즉, 그 담화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모순적 위기와 커뮤니케이션의 방해와 그리고 타성과 역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력에 기인하여 의미작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장소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담화는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발판처럼 나타나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는 의미작용의 기술을 위한 구조로 제공하기에 부적당하게 보였던 분석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어휘소, 준어휘소, 결합어휘소라고 하는 것도 차원과 구조가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일 뿐이라

고 하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단위들은 종종 비교가 가능하고 때로는 동등한 것으로도 보인다. 제5장에서는 구조의미의 기호학적 레벨과 상징기호의 편차에 대해 언급한다. 의미세계를 반사운동, 외견상으로만 체계화된 상징기호적 표상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병존설(concomitance)과의 동치(同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며, 그 외견상만의 몸짓은 언어학적 접근과 일치할 수 없는 정신상태의 방법론적 교묘히 다루기(책략, 속임수, manipulation)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제6장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한다. 「만약 우리가 언어학적 활동의 병리적 양상(aspect, 은유 또는 상징과 같은 표현)을 무시한다면, 표출의 이러한 유형의 극단적인 예는 “현대시(modern poetry)”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의해 재연(再演)될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흔히 “통사론을 파괴하는 것(abolishing syntax),” 즉 함수적인 메시지의 수를 가능한 만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동류체(isotopy)의 지배와 함께 복합표출의 좋은 예로서 그 실현화의 어떤 무엇으로 나타난다. 단순 불가결의 최소한도에 실제적 동류체가 환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첫눈에 그것은 신화적이며 자질적인 표출로 동시에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살아있는 작품(life of work, theèse d'une vie)”으로서의 거대한 괴물의 설정에 의해서만 연기(실행)된 대파괴(havoc)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대파괴라는 용어는 해체라고 하는 용어와 치환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병리적 양상으로서의 독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형태소 또는 음소는 온전히 남겨둔 채 핵의미소를 파괴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핵의미소를 우주 밖으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캐내 것과 같이 변이의미소(변수)와 핵의미소(상수)의 치환이 이루어짐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는 이렇게 기술하기도 한다. 「만약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담화의 두 동류체간의 대당을 용어법적 강조에 의해 보다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텍스트와 메타텍스트의 용어는 표출측면과 잠재측면의 이것들보다 덜 타협적일 것이다. 텍스트와 메타텍스트의 이러한 편차는 오로지 작용적이거나 적어도 처음부터 아주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보통수준”의 식별에 의지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은 텍스트는 동시에 독해가 가능하거나 부조리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괴한 몽상가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는 다음처럼 독해가 가능하면서 부조리하다(readable and absurd).

The black sun of melancholy(우울의 검은 태양)

—네르발(Gérard de Nerval)의 “폐적자(廢嫡者)”

이에 반하여 메타텍스트는 독해가 불가능한 채 존속하지만 분석적 독자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독해가 불가능하면서 분명하다(unreadable and clear). 그 편차의 작용적 성격은 정의적 텀(tem)을 필연적으로 전도시키게 될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 신비주의자, 연금술사, 또는 어느 다른 비법전수자가 논리적인 독자를 대신하자마자 즉시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옛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에, 그가 뇌출혈로 인하여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동안 두 번째 동류체의 형식에 표시된 시적 의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비극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메타텍스트라고 하는 존재의 예리한 의식은 포착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한국의 경우 다음 시에서 메타텍스트의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산 뿔앞에 빗방울이 친다

뗏비돌기가 난다

나무등걸에서 자벌기가 고개를 들었다 뗏비돌기 권을 본다

—산비(백석)

그는 해변 가에 차를 대고

빗방울 흐르는 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옆에 앉아있는 늙은 개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어느 해변에서(최천득)

이러한 응축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도 한다. 「의미소 “계약·응축”은 처음에 동적 양상(Aspect)으로, 두 번째는 안정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약·응축”은 2개의 의미소(고체성 + “약동적 vs 안정적”)로 분해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take와 hold의 핵의미소의 대당은 다음처럼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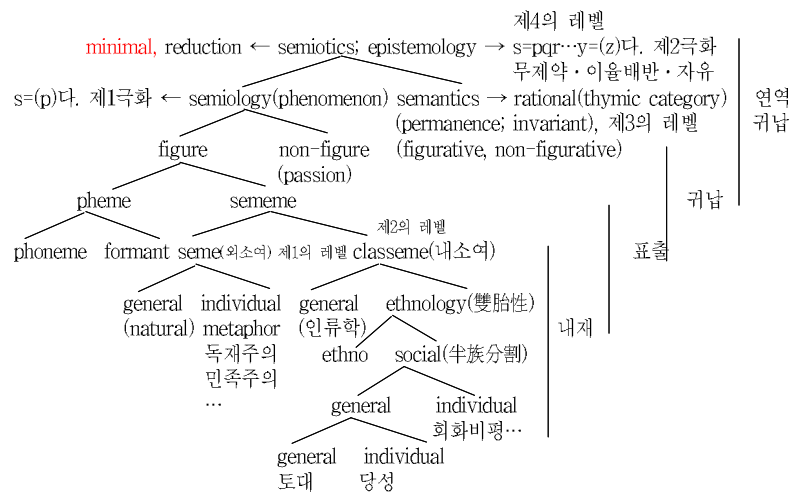
$$\frac{\text{take(얻다)}}{\text{hold(붙잡다)}} \approx \frac{(\text{확장}) + \text{고체성} + \text{약동성} + \text{기동성}(\text{inchoativity})}{\text{고체성} + \text{안정성} + \text{총체지속성}(\text{durativity})}$$

이러한 분석은 의미론적 기술 안에서 논리적인 구축의 탓으로 돌려야만 하는 어떤 장소를 명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분석이 주어진 자연언어로부터 출발하거나 제한된 목록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그 역할은 분석이 그 장소를 종합하는 것에 의해 심층에 존재하게 된다. 목록을 확대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단순하게 분석된 언어 안에서 몇몇 목록이 비교되고 있는 동안에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재언어의 구성을 관망하고 있는 몇몇 자연언어의 병치기술(또는 후소기술[後素記述], parallel description)을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될 때(기계적인 번역-전격이나 문헌자료인 것처럼) 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때 그 기술은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모순된 2개의 원리에 순종한다. 그것이 기술하고 있는 실재성(reality)을 확실하게 고찰하려고 하는 그 욕망(desire)의 견지에서는 귀납적이고, 구성모델의 결합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필연성의 견지에서는, 그리고 기술에 종속된 발화자료체와 동연인 보편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필연성의 견지에서는 연역적이다. 화해를 위한 탐구 상에 설립된, 그러한 기술절차의 개념은, 그것이 과학적 기술의 종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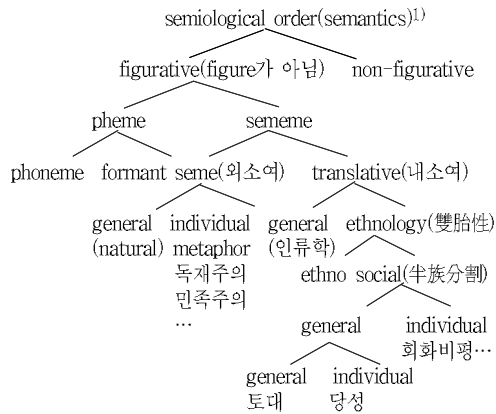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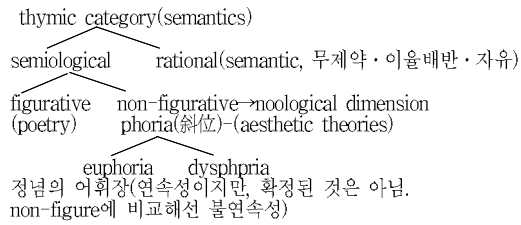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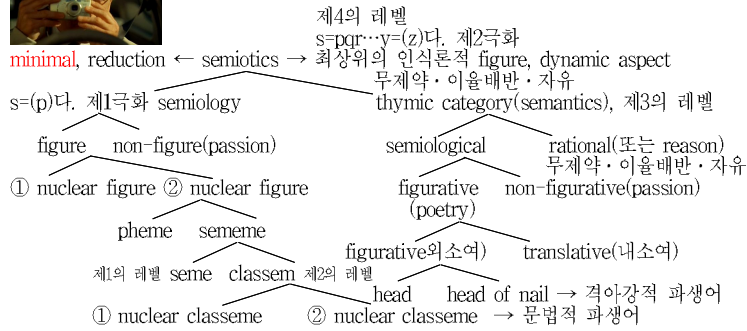
객관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식내용(주관)이기도 한 묘기(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의 이러한 언급은 후설의 지향성(intentionalität)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한전숙에 의하면, 지향성이란 의식이 정적으로 일대일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형성한다는 성격 다시 말해서 주객상관관계의 동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실재(은유나 상징과 같은 것)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아주 간단한 환원으로서의 사태만을 일컫는 것이다. 이 상관관계(형성작용) 중에서 관념적 대상 쪽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취질 때 수학자나

논리학자의 입장이 생기고, 그와 상관적인 주관 작용 쪽에 비취질 때 현상학의 입장이 생긴다고 한다. 이 현상학의 입장은 파악(auffassen)과 통각작용(Apperzep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상파악 즉 인식이란 체험된 감각 내용을 “무엇으로서,” 어떤 특정한 의미로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파악작용이란 비지향적인 감각(초재가 아닌 내재로서의) 또는 작용질료(Hyle가 아니라 Aktmaterie, 즉 표상과 판단 다시 말해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결합된 기호로서의 선빈사적[선술어적] 자연)를 다시 어떤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파악하여 활성화함(혼을 넣어 줌, 빈사적)을 일컫는 것이 되겠는데, 이 말은 곧 새로운 의미부여작용 또는 의미형성작용(광의의 noesis에 의한 noema의 구성)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이며 무제한적인 필연성의 선형 즉 초재(정적 a priori가 아니라 동적 transzendenz로서의 초재라고 해서 대상과 같이 초월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객관이면서 주관이기도 한 양의성을 가지고 있다)로서의 본질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판단중지에 의한 선형적 전환. 후설의 생활세계는 이 전환의 전환 세계).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은 바로 이러한 지향성과 상호주관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문학의 모더니티 또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요약한다면 다음 도표와 같을 것이다.



*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만을 현대시(현대시의 효시로 알려진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정형시집이다)로 또 초현실주의(일부에서는 이것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동어 반복적으로

1)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덧차원의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과 비교해 보라.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E=mc^2$ 이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이 정지에너지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져야 하므로 에너지는 항상 mc^2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디랙(Paul Adrian Maurice Dirac, 1902~1984) 방정식 $(i\gamma^\mu \partial_\mu - m)\psi = 0$ 을 풀 결과와 비교해 보면($E \geq mc^2$ 또는 $E \leq -mc^2$), 첫 번째 관계식은 상대성이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관계식인 $E \leq -mc^2$ 이다. 이에 의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야 한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정지에너지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보다 작아야만 한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E = mc^2 \quad \text{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quad \text{상대성이론과 일치}$$

$$E = 0$$

$$E \leq -mc^2 \quad \text{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quad \text{예상하지 못했던 음의 에너지}$$

디랙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디랙은 자신의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음의 에너지에는 우리 우주의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디랙은 과연 이 음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반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준비 작업으로 파울리의 배타원리(Pauli's principle; 1924년 W. 파울리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서 2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상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배타원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껍질 구조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자와 같은 초대칭을 상상하라)를 떠올려보자. 이에 의하면 전자는 한 상태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을 바꾸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예기이기도 하다.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겹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람으로 콤팩트 들어찬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예기가 전자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디랙이 알아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전 지식이 더 필요하다. 요점만 말한다면 전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애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대강 설명하면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낸다. 이것이 바로 빛이 났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태의 역현상, 즉 방출이 아니라 반물질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진동처럼 물질과 반물질 간의 진동도 가능할까? 적어도 언어의 세계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다. -김찬주,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참조. 2. 방향적 범주를 위 도표의 사진과도 비교해 보라. 사진을 찍는 남자의 오른 쪽 눈(figurative)은 카메라(figure)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역주)

로 사용한다) 시를 현대시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고골리의 “외투”와 같은 19세기 리얼리즘 또는 마르크시즘의 소설이나 희곡만을 현대문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뇌출혈적이거나 정신분열적인 한국문학의 현 상황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 사조를 우리는 어찌지 못할 것으로 믿어진다. 근본적으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이미 한국에 상륙하여 조형미술, 회화, 건축, 인테리어, 패션, 연극, 영화, 음악, TV 광고, 디자인, 심지어 요리 등 모든 장르에 걸쳐 점령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미니멀리즘(포스트모더니즘의 정도로 생각된다. 예: 코진스키의 “BEING THERE,” 체호프, 헤밍웨이, 조이스, 사무엘 베케트, 레이몬드 카버, 그리고 해롤드 핀터 등의 작품)보다 더 정교한 이 이론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수용을 거부한다면, 서구문학과 일본문학보다 100년 아니 300년 400년의 후진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2005년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결정과 같은 서구문학의 경향과 하이쿠(俳句)에 대해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스트 또는 이미지스트로 알려진 에즈라 파운드는 “지하철 정거장에서(In a Station of the Metro),” 즉 “군중 속에 문득 나타난 이 얼굴들/ 검고 축축한 나뭇가지의 꽃잎들(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이란 2행시를 써서, 홋쿠(發句)와 같은 시라고 하며, 전자의 시점에서 볼 때 거의 400년 전의 아라키다 모리타케(荒木田守武, 1473~1549)의 “落花枝に歸ると見れば胡蝶かな, 낙화 가지로 돌아간다 보았더니 나비로구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차대전 중 상호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깊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시의 입문으로 하이쿠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가르치는 그들을 매국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인터넷 엔진에서 검색해 보아도 하이쿠가 보편화되어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무성영화 “전함 포텐킨(1925)”의 감독 구소련의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Sergei M. Eisenstein, 1898~1948)의 몽타주론은 현대영화예술의 이론으로서 유명하지만, 그는 몇 개의 논문에서 하이쿠를 인용하고 있다. 즉 “뜻하지 않은 것(1928년)”에서는, 그 첫머리에 “廣(ひろ)き野をただ一呑(ひとのみ)や雉子(きじ)の聲, 넓은 들

관을 한 입에 삼킬 듯이 우는 꿩 소리 -야메이(野明)의 번역을 들고, “필름 언어(1934년)”에서는, “帆(ほ)をあぐれば岸(きし)の柳(やなぎ)の走りけり, 돛을 올리면 물가의 버드나무 달려가도다. -자쿠수이(若水)”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일본문화론이라 할 수 있는 “영화예술의 원리와 표의문자(1930년)”에서는, 카부키(歌舞伎)와 사라쿠(寫樂)의 배우그림(役者繪)과 하이쿠 및 탕카(短歌)를 언급하며, 일본의 전통예술에 몽타주의 기법이 현저하다는 것을 진술하고, “枯(かれ)枝(え)に鳥(からす)のとまりたるや秋の暮, 마른 가지에 까마귀 앉아 있네, 늦가을 저녁 -마츠오 바쇼우(松尾芭蕉, 1644~1694),” “明月(めいげつ)や疊(たたみ)の上に松の影, 중추명월에 다다미 위에 비친 솔 그림자여 -에노모토 키카쿠(榎本其角),” “夕風(ゆうかぜ)や水青鷺(みずあおさぎ)の脛(すね)をうつ, 저녁 바람이여 냇물이 왜가리의 정강이 친다. -요사 부송(与謝蕪村, 1716~1783),” “明方(あけがた)や城(しろ)をちりまく鴨(かも)の聲, 새벽녘이여 성곽을 둘러싸는 오리의 소리 -모리카와 쿄리쿠(森川許六)의 네 구를 열거하고 있다(위의 하이쿠의 예에서 17자가 넘는 구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아마리쿠[字余り句]”라고 해서 하이쿠도 자수의 여분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어느 좌석에서 일본어에 능통한 어느 노시인과 대화 도중 하이쿠는 17자로 고정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얽잡아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또 어느 국문학 연구논문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를 보았는데, 이것도 하이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와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 “物いはぬよものけたものすらだにもあはれなるかなや親の子を思ふ, 말을 못하는 온갖 짐승조차도 여여쁘구나, 자식을 괴는 부모 마음 한이 없기에”). 그는 하이쿠를 “집중된 인상과의 스케치”라고 한다.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의 상기한 여러 논문은 “필름형식(1949년)”으로 영역되어 있다. 그밖에 롤랑 바르트도 하이쿠의 모더니티를 상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미니멀리즘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미니멀리즘과 구조의미론은, 결국 후소(後素)와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후소는 후공(後功), 여백이라는 유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운, 톤온(tone), 신화체계, 심층구조, 빙산의 일각(tip of iceberg)²⁾과도 의미적으로 같다고

2) C. W. Hallett, 「미니멀리즘과 단편소설(Minimalism and Short Story-Raymond Carver, Amy Hempel, and Mary Robison)」(New York: The Edwin Press, 1999), p. 24. “만약 산문의 작가가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할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그리고 독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만약 작가가 진실로 충분히 알고 있다면, 작가가 충분히 진술했던 것만큼 강하게 이러한 것의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빙산 운동의 장엄함은 물 위에 존재하는 것의 1/8이 아니라 물 아래의 8에 기인한다.”의 헤밍웨이의 언급을 인용한 것 참조. (역주)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소는 회사후소(繪事後素)와 소이위현(素以爲絢),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에 근거한다. 소(素)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의 질(質)과 “소유현재야(素猶見在也)”의 보이는 것이 유예된 재(在), 그리고 “소부귀(素富貴) 행호부귀(行乎富貴)”의 “어떤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의 소(素)이다. 정사농(鄭司農)³⁾은 소(素)란 회화의 질(質) 즉 색채의 정신적 표현으로써 후공이라고 한다. 주희(朱熹)는 현(絢)과 대비하여 보이지 않는 질(質)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군자(四君子)인 매란국죽(梅蘭菊竹)은 현(絢)이며 진선미정(眞善美貞)은 소(素), 즉 매(梅)=선(善), 난(蘭)=미(美), 국(菊)=진(眞), 죽(竹)=정(貞)이다. 그러나 이것도 제1극화의 보편성이므로 보다 더 개별성이 있는 제2극화의 방향범주(thymic category)를 찾아야 할 것이다. 화가는 이 후소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소는 노자(老子)의 “곡신(谷神)의 현빈(玄牝)⁴⁾과 장자(莊子)의 “혼돈(渾沌)의 칠규(七竅)⁵⁾ 또는 선(禪)에서의 “견산지시산(見山祇是山)⁶⁾의 경지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3) 鄭衆은 字가 仲師이며, 東漢時代에 河南開封人으로 經學家인 鄭興의 아들이다. 章帝때에 그는 大司農財政業務를 管轄이란 관직을 지냈기 때문에, 經學家들은 모두 그를 鄭司農이라고 칭했다. 東漢末年에 이르자 鄭玄이라는 經學家가 출현하자 후인들은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鄭衆을 先鄭, 鄭玄을 後鄭이라고 불렀다. 그는 《易》 《詩》 《三統曆》을 망라해서 《春秋難記條例》라는 저작을 남겼는데 이는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책이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後漢書, 鄭衆傳》을 참고.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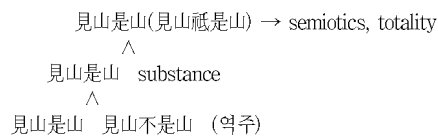
4) 南畹星 譯, 「老子道德經」(서울: 乙酉文化社, 1974), pp. 31~32.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絪縕若存 用之不勤(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玄牝이라고 한다. 玄牝의 門은 이것을 천지의 근본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써도 勞苦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통속적 연속인 것이 아니라, 비통속적 불연속의 총체성으로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non zero-sum game” 같은 결합세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5) 莊子の 第七篇 「應帝王」, 南海之帝爲儵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渾沌 與忽 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之鑿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하였다. 어느 때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 혼돈에게서 웅숭한 대접을 받았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했다. “사람에게는 일곱 구멍이 있다. 이로써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 것이다. 혼돈만이 이런 구멍이 없으니 시험 삼아 뚫어 봅시다.”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갔고 마지막 칠일 쯤에 일곱 구멍이 완성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즉, 숙과 홀의 판단은 지각의 일차원적 세계이고, 혼돈은 자연의 총체성 그 자체의 다원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역주)

6) 고흥근, 「선의 세계」(서울: 태학사, 1971), p. 16. 길주 靑原惟信禪師의 상당설법에 “노승 삼십년 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 뒤 어진 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 보니, 산이 산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로 깨치고 보니 이제 산이 의연코 그 산이요 물도 의연코 그 물이더라.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서로 같은 것이냐, 서로 다른 것이냐? 만일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노승과 같은 경지에 있음을 내 허용하리라.” 참조. 다시 말해서, 靑原惟信禪師의 설법을 통해 살펴보면 동일한 산과 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바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첫째 산은 산이요 물은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서구인의 사고방식은 합리적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인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양자의 합일을 통하여 세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문학작품은 물론, 기타의 예술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고골리의 “외투”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한국의 경우도 그 정도의 작가는 많다. 그레마스의 총체성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발레의 애티튜드(attitude)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양상들의 문체와 더불어 신기(新奇)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만 예로 들겠다. 마사이족 전사들이 한국의 무대에 섰다고 하자. 그 공연을 보고 우리는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독일에서 어떤 한국식당 주인이 외국인을 초빙해 추어탕 시식회를 갖는 화면을 본 일이 있다. 그 외국인은 슬슬 눈치를 보며 겨우 한 두 수저 혀끝으로 맛을 보는 것이었다. 신기일 뿐이다. 문화변동(acculturation)은 진화뿐만 아니라 전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정복에 의한 강제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는 쪽의 그들의 요구(need)와 그 결핍의 능동적인 지향에 의해 수용이나 접변, 그리고 동화의 방식으로 성립된다. 현 상태의 한국문학을 번역하여 서구무대에 내놓고, 그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자, 이 좋은 작품을 읽기도 왜 감동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그들을 향해 사대질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고슴도치의 새끼와 같은 또는 여우의 신포도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기에 대해 T. S. 엘리엇은 서풍 가치의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백만금의 광고비를 들여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며, 클리언스 부룩스의 경우 극적 표현의 역설과 애매성은 피상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신비한 수사(은

물이다(見山是山 見水是水). 둘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셋째 산이 역시 그 산이요 물도 역시 그 물이다(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대상의식, 즉 지각차원의 분별의식 속에서 본 산과 물이라면, 두 번째는 斷滅 또는 은유나 상징과 같은 정신분열적 파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며, 세 번째의 것은 똑같은 산과 물이라도 空性을 깨닫고 난 후 대상의식에 의한 주객대립이 사라지고 現前하는 일체를 어떠한 戲論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한 것이 된다.



유와 상징 같은 신기)를 구사해가면서 김빠진 스프램비를 휘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생각은 저급한 시인만이 하는 짓거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가수 비의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다. 한류의 열풍이 드디어 미국까지 상륙했다고 떠든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음악의 장르는 판소리나 민요, 또는 뽕짝이 아니다. 흑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힙합이나 록 같은 것이며, 한국의 고전 무용이나 탈춤이 아니다. 몸만 한국인일 뿐이다. 관객도 미국인보다 동양계의 중국인, 일본인 등이 더 많았다고 한다. 미국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라기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경우가 보다 더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미국 영토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몽고반점을 까맣게 잊고 있는 혈통주의자들과 극단민족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비와 비교하여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흑자의 말이 떠오름은 지나친 대비일까? 그는 “사이언스는 국경이 없지만, 사이언티스트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하면서 군중을 선동한다. 기호작용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에 고무되어, 즐기세포의 존재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논문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또 눈물까지 흘린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의 또는 민중의 일종의 열망과 열등감에서 발동하는 자존심의 자율적인 의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화가 흑자라고 하는 인물의 범주에 달라붙어 하위계열적으로 분열하면서 아티플레이션으로서의 의미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신화는 논리보다, 헌법보다 힘이 세다. 그러나 이러한 즐기세포의 선동은 카미카제(神風)의 선동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 솜씨가 서툴러 일종의 시물레이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또 그 수가 더 많다. 시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백남준은 “예술은 사기다. 진정한 예술은 조국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작품이 시물레이션임을 터놓고 야유한다. 그러나 이 야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맥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믿겠다. 그것은 초재의 물질과 생활세계와 하이퍼텍스트를 다루는 몽타주기법의 단순 행동(behavior)이 아닌 복합 실행(doing), 퍼포먼스(performance)로서의 사기지만(“TV 부치”의 TV도 부치도 조작이 가해진 일종의 신기로서

의 제로섬게임을 일부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레마스의 사기는 질료와 절대적 선택 또는 모나드를 다루는(노에시스와 노에마를 다루는) 인간과학으로서의 사기(실은 사기도 진리도 아니다)로서, 사기를 당하는 측의 청자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당하게 하는 사기수법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언어사기(처음부터 아예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그 자체로서의 사물과 생물을 다루는 논-제로섬게임이니까)의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실존의 경지에까지 도달하여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실증주의, 즉 A. 콩트와 H.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빠져있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짜낸 묘안이 고골리의 소설 같은, 초상화적인 사실과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의 물리적 결합 같은, 매직리얼리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독단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보다 덜 세련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법과 왜곡은 벌써 일본의 사회진화론자 토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가 군국주의를 위해 현정했던 바로 그 낡은 로망티시즘, 그리고 군사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서툰 시뮬레이션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물리적 결합은 아예 폐쇄된 세계이지 개방세계(페포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최상위 장(field)의 이가(二價, bivalence)·양면가치(ambivalence)로서의 상호주관적이며 환원적인 결합체적 차원(syntagmatic dimension)·복합동류체(complex isotopy)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즉 낱것 그대로의 다시 말해서 의미의 축이며 관계인 비-망각적(alethic) 양의 연동(兩儀連動, engagement)과 그것을 초월하여, 내포화(virtualizing)와 외연화(actualizing; 선언)의 종합·실현화(realizing; 연인)로서의 인식론(epistemology) 차원의 기호학체계(semiotic system)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아픔을 감내하여야만 할 것이다. 판단중지(Epoche)를 간절히 고대한다.



제1장 과학적 의미론의 조건

1. 의미론의 시추에이션(situation)

a. 의미작용과 인간과학

의미작용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성의 목록을 인류학으로 바꾸고 일련의 사건을 역사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의 의미 그리고 역사의 의미와 함께 그들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만 한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인간 세계는 본질적으로 의미작용의 세계로서 정의된다. 세계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하는 오직 그 범위 안에서만 “인간”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학이 그들의 공통단자(共通單子)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작용과 함께 행동하는 탐구 안에 존재한다. 사실, 자연과학이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을 해온다면, 인간과학은 그들 양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소간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바로 그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의미작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윤곽을 묘사하고자 하는 이렇게 공통적인 요망에 따라, 언어학은 가장 적합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언어학이 보다 완벽하게 발전되었으며 보다 더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경험과 방법을 다른 학문의 한 분야에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언어학은 인간과학 사이에서 시샘을 받고 있는 선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학이 이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역설적인 장면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 역설적인 장면이란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한 장소로부터 이중의 복사(輻射)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7) common denominator: 공통단자(共通單子), 공분모, 또는 명명자, 'denominator'와 'denomination'이 이후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단위 또는 단자(單子)로서의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직역하면 '공분모'와 '명명'이 되겠지만, 수학적 언어학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철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역주)

최초의 이중복사에게 이러한 역설적 장면의 창조자라고 하는 명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실은 사회학과 심리학도 언어학 이전에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학과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진부화(陳腐化, banalization)”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학문의 방법론적 구조의 뒤틀림(왜곡[歪曲])으로 성격이 지워지며, 그리고 여러 개념들 간의 대당(對當, 대립, opposition), 때때로 기본적인 대당의 중립화에 의해 성격이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빈약해지고 뒤틀린 언어학적 용법은 대부분의 전위적인 잡지들 간에 확산되었지만,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신생 하위학문(his own children)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시기에, 언어학은 하나의 특별한 방법론적 복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디서 차용해온 방법으로서의 복사가 아니라, 인식론적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즉 언어학이 모델과 탐구 절차로서 대부분 전용해온 그 인식론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라캉(Jacques Lacan),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같은 인물들의 고찰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⁸⁾ 진부한 사회학과 심리학이 적용된 분야로부터 이러한 인식론적 모델을 분리해냄으로써 발생한 간극은 오로지 그 사회학적·심리학적 왜곡으로서의 언어학을 오로지 개별화·특수화하는 방향으로만 안내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그로 인하여 귀착된 결과로서의 작용의 망상(importance)이 오늘날 “인류학의 프랑스학과”라고 하는 궤변적인 사람들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방법론적 촉매의 부재를 일컫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촉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언어학에 의해 사실로 여겨졌다. 그 사실은 해답을 요구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촉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전통 언어학자들과 사회적·심리학적 왜곡된 방법론을 차용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 과묵했고, 심지어 그 역할에 관한 모든

8) A. J. Greimas는 Maurice Merleau-Ponty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므로 Herman Parret의 「언어론(Discussing Language)」(The Hague: Mouton, 1974)을 보라. 그 또한 Claude Lévi-Strauss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므로, 그의 서론을 보라. Jacques Lacan과 Roland Barthes는 「구조의미론」 전반에 걸쳐 인용된다.

의미론적 탐구에 대하여 적대적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과묵하거나 적대적인 것에 대한 그 이유는 많다.

b. 통시적으로 뒤떨어진 분야⁹⁾(poor relation): 의미론

우리는 항상 의미론이 언어학에서 통시적으로 뒤떨어진 분야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의 막내(이 명목은 19세기말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에 아주 멀리 앞서 발전했던 것은, 먼저 역사언어학 중에서도 음성학이었으며 그것이 공들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이었다. 일단 명목이 부여되고 기초가 확립된 뒤에, 의미론은 어느 때는 고전수사학으로부터 어느 때는 내관심리학¹⁰⁾으로부터 그 방법을 계속 차용해왔다.

구조의미론은 그 발전정도가 같은 강류(class) 중에서도 뒤졌다. 아무튼 프라그 학파는 음운론의 기초를 확립했고, 곧이어 코펜하겐 학파는 문법연구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언어학이론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로 공을 들였다. 이와 같이 의미론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던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언어학자들 중에서 의미론이 하고 있는 연구의 대상이 단순한 것인가 어떤가, 또는 그 대상이 구조분석을 하는데 적합한가 어떤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론을 언어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가를 묻는 사람을 말한다. 의미론에 그리고 그 대상의 기본구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음소의 제한된 목록과 그들의 불연속적 성격(최초로 알파벳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최초로 과학혁명이 이루어졌을 때를 암시하는 발전)은 음성학과 음운론의 진보를 촉진했다. 의미론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대상의 전통적인 정의는 심리학과 사회학으로부터 의미론의 명확한 결정한계(delimitation)를 가로막는 “심적 실체(psychic substance)”로서 신중하게 고찰되었다. 의미론의 기본구조로서의 용어법적 무리(sememes, semiems, semantems 등)는 혼란과 곤혹스러움만 밝혀줄 뿐이다. 가장 의욕적인 언어학자라도 이러한 조건은 언어학을 스스로 암중모색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서 간주하게 할 뿐이다.

9) poor relation: 직역하면 “천덕꾸러기”가 되겠지만, 통시적으로 뒤진 것을 의미. (역주)

10) Wilhem Wundt(1832~1920)의 과학적 심리학을 말한다. 관념의 연합법칙에 근거한 그의 내관법은 Edward. L. Thorndike의 자극(stimulus, S)과 반응(response, R)의 연합으로 치환된다. (역주).

드디어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존하는 언어학의 어느 관점의 승리와 함께 최후의 일격(coup de grace)이 가해졌다. 언어기호에 대한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의 정의, 즉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성형식,”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Language, pp. 138, 162)고 하는 정의는 잘 알려져 있다.¹¹⁾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의 정향(定向, position)¹²⁾을 설명하면서, 의미론 스스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야콥슨(Roman Jakobson)은, “의미의 문제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그 사실이며, 의미의 문제는 의미가 충분하거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 프레이즈는 더 이상 의미를 만들지 못하는 것(Essais, pp. 38~39)”¹³⁾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이유(의미연구의 역사적 후진성, 연구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고유한 어려움,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의 동향)는 매우 중대하였으며 의미작용을 다루고 탐구하는 분야에서 언어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던 과묵성을 설명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의미론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으며, 의미론 문제의 위기를 깨닫고, 가능할 수 있는 의미작용의 과학적 연구의 여러 가지 조건을 탐구하고 싶어 했다. 야콥슨(Roman Jakobson)은 이론과 실제, 두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11) Leonard Bloomfield, 「언어(Language)」(New York: Holt and Company, 1933). A. J. Greimas는 Bloomfield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12) position(정향, 定向): 1. 언어학에서 정향은 원소가 결합체적 초끈(strings; super-string theory)으로 종사하는 위치(place)를 지시하며, 그 위에 어떤 부가적 자산을 부여한다. 그것은 일단 일반절차로 설치되고, 언어학적 원소의 정향(定向)의 전형이 블룸필드(Bloomfield) 학파의 성격과 만들고 있는 주연(周延)의 그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계열체적 관점과 결합체적 관점(형태론과 통사론)의 융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그의 언어학적 범주의 정의로 정향의 변역(notion)을 도입했다. 2. 시의 기호학에서, 제니나스카(J. Geninasca)에 의해 주장된 위치의 분석은 시니피앙의 정향적 아티클레이션(리듬, 리듬)의 인식에 기초된 텍스트의 의미론적 연구의 가능성에 조명을 비쳤다. 3. 화술기호학은 주체의 화술계도에서 그 정향과 함께 양태적인 투자로 행위주적 역할을 정의한다. 그 이유로, 불변과 거리가 멀거나 단호하게 단 한번 정의된 성격이 관계적인 것으로 제조된다. 영웅과 악당은 정의된 화술적 정향으로만 그렇게 존재한다. (역주)

13) Roman Jakobson, 「일반언어학시론(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Paris: Editions de Minuit, 1963).

이론적인 어려움은 숙고해볼 만한 모험적 차원(dimension)으로부터 생긴다. 의미론이, 만약 언어학의 일반적 조직의 한 장소를 발견하려고 하고 스스로 거기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스스로 공리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 도구적인 개념으로서의 발화자료체(corpus)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편성의 최적한 표현을 위한 표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정교하여야 할 것이며, 의미작용과 관련된 다른 탐구방법과 일치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의미론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어의인 세미올로지·과학적 의미작용의 일부이어야만 할 것이다.¹⁴⁾

실제적인 어려움은 반성(reflection)의 최후 수신인과 함께 하여야만 한다. 형식화의 필요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의 조화성(univocity, 여럿이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가 되는 하모니와 같은 일치성 또는 일의성)에 대한 주장은, 현단계로서는 오직 새로운 표현과 다른 과학보다 더 엄밀히 하려고 하는 과장적 정의로만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적 암증모색은 어문적 또는 역사적인 교양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는 현학적 또는 중복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학이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지지단체인 동시에 압력단체인 논리학자와 수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불충분하고 지나치게 “정성적(定性的, 또는 성질적)”인 것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상호 모순된 실제적인 요구 사이에 틈이 벌어져, 저자(발신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쾌감을 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양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오직 중도의 길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수리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조력 없이 나타났다면, 의미론 자신은 오로지 그 자신만의 일반적 개념의 기도(企圖)로 남았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의미론이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initiation)는 인간과학을 취급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제 위기에 처했을 것이며, 보잘것없는 습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었을 것이다.

노트: language, natural(langue, 자연언어); 1. 우리는 거시-기호학체계의 형태를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라고 부른다. 반면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 아종(亞種)의 특이성은 쉽게 만들어지는 정의가 아니다. 용어 “자연적”에 의해 한정된 언어(language)는 “인간본질(human nature)”의 특징을 만들고 있는 전자(자연적) 안에서 “인위적(artificial)”과 대당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인위적)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을 초월한다. 비록 그것(개

14)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상론을 위한 서론을 보라.

인이 구성하고 있는 그들의 힘 안에 있거나 그리고 인위적 기호학의 체계(언어)를 교묘히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자연언어)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발화주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재 구조적 조직으로 나타난다. 자연언어는 이중 아티콜레이션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에 또는 이탈과정에 기인하고 있는 그들의 결합적 힘에 의해 다른 기호학의 체계와 구별된다. 이것은 기호(sign)와 결합체적 단위(마치 큰 길이의 담화처럼[Louis Hjelmslev])의 구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탄력성 있는 규칙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예비제한적인 가능성으로 유도한다. 이중의 초월성은 이것으로부터 유래한다. 모든 다른 기호체계들은 불완전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연언어 안으로 전이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그 역은 진리가 아니다. 다른 한편, 자연언어는 그들의 시니피에와 마찬가지로 시니피앙과 함께 다른 기호체계(예를 들어, 인위적 언어[languages])를 위하여 기초로서의 함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성은 그들에게 명목이 부여되고 어구가 장황해질 수 있는 한도에 한해서만 존재하는 시니피에를 가정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바지한다. 그러한 정향(定向, position)의 획득은 다른 기호체계를 자연언어의 파생적 존재의 상태로 축소시킬 것이며, 예를 들어, 회화에 대한 담화분석으로 회화기호학을 변형시킬지도 모른다.

2. 소쉬르적인 전통으로서의 파롤(speech)과 대당관계가 되고 있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는 기호학체계(semiotic system)로서 기호학적 변화과정에서 제외된 것과 동정(同情)될지도 모른다. 형식적(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이러한 대상을 분리하는 것에 의해 언어학적 대상의 스스로 충분한 정의, 질료적(material), 더 일반적으로, 비구조적 우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목표와 함께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확립된, 이러한 차이는 조정적(措定的)이고 결정적인 공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자연언어(그때 그것은 순수 분류법에 종속된다)의 지나친 계열체적 개념을 나타내게 하고 있는 많은 언어학자들을 위해 그것을 공교롭게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그것은 능력과 함께 자연언어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화해는 자연언어의 정의 안에서 결합체적 구조의 명백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3. 그 특성이 위의 1항과 2항의 정의에 의해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연언어는 사회언어학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흔히 결합력이 부족한 파생언어(dialect, 같은 어족에서 갈린)와 구별되며 다음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자연언어(그것의 정의는 “파생언어”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그 공동체에 고유한 “언어학적 감수성”의 기초 위에서만 “자연언어”의 위계로 올려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언어,” “파생언어,” “지방적 파롤,” 등의 계층을, 자연언어 함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내포의미의 체계에 속하는 비과학적 분류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p. 169~170. (역주)

2. 의미작용과 지각

a. 최초의 인식론적 선택

의미작용에 관한 최초의 관찰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편재하는 성격을 다루어야만 한다.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다양한 형식으로 그에게 도착하는 메시지에 의해, 다방면에서 그에게 도전하는 의미작용에 의해 사실상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인간의 정

황이 반성되기 시작할 때 천진난만하게(naïvely) 놀란다. 비의미작용의 미학을 확립하기 바라는 어떤 문자의 주장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순진하게(비과학적인 단어로) 나타나는가. 만약 어느 방에 있는 두개의 의자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로브-그리에(Alain Robbe-Grillet)에게는 위협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자의 환기능력이 의자를 얼떨떨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서, 의자는 언어학적 계열체(paradigm)로서 오직 한 가지 의자로서만 함수(기능, function)¹⁵⁾를 연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와 동시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선택할 수 없는 부재의 추정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작용의 의미는 편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의미론은 그 의미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느 특별한 인식론에 굴복하여 따르기 위해 분투함으로써 지식론과 혼동하기 쉽다. 그렇게 불안정한 정황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는 많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이 주의를 기울여만 할 것이며,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고정적 의미의 포기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¹⁶⁾ 인식론의 전제는 필연적으로 그 수가 적고 가능한 한 일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식론의 위치를 불안정적인 의미작용의 포착이 자리 잡고 있는 비언어학적인 위치(place)로 지각하도록 생각할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특별한 지위·언어학적 의미의 자립적인 강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점(확립된 사전적 의미)과 확립될 수 없는, 따라서 언어학적 의미론과 소쉬르적 세미올로지 사이의 식별(구별)을 불안하게 하는 불편을 곧 해소할 수 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에 의해 발전된 지각이론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¹⁷⁾ 우리는 아직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를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인간과학 또한 그러한 것 같다. 따라서 특별히

15) $y=f(x)$; 변수 x 와 y 사이에 x 의 값이 정해지면 따라서 y 의 값이 정해진다는 관계가 있을 때, y 는 x 의 함수라고 한다. 또 x 를 독립변수, y 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P. G. L. 디리클레에 의한 정의이다. 함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G. W. F. 라이프니치였다. 함수라는 개념은 수학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16) Louis Hjelmslev, Francis J. Whitfield 편,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p. 15.

17) Maurice Merleau-Ponty, Colin Smith 역, 「지각 현상학(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New York: Harper and Row, 1962).

눈에 띄는 것만을 예로 인용하여 보면, 우리는 형태주의와 행동주의 심리학이 자력(資力)과 내관법(內觀法)의 심리학을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심미적 사실의 해석이 실제적으로는 작품의 지각 레벨에 더 가까이, 그리고 기풍 또는 상상력의 레벨에 더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정향이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나타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또 다른 기준의 타당성으로 상상하기가 어렵다.

b. 정성적 기술(qualitative description)

그러나 인간세계의 의미작용이 지각의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고 긍정(affirmation)¹⁸⁾하는 것은 우리의 탐구를 상식세계, 또는 소위 지각세계 안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의미론은 지각적 성질의 세계를 개시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식된다. 곧 정량적 방법(분량적 방법, 또는 외연적 방법, quantitative methods)이 언어학의 다양한 영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 결과(사용된 정량적 절차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이러한 빈약한 절차를 만들고 있는 정성적 개념화의 약점과 함께 존재하는)의 빈약함이 실현되지 않은 바로 그것을 통제수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의미론의 정향에 우리들은 놀랄 수 있다. 다른 한편, 보다 더 엄밀한 정성분석(또는 내포분석, qualitative analysis)은, 종종 외관을 혼동케 하고

18)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SEMIOTICS and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10. affirmation(긍정); 1. 일반적으로 전통문법은 절을 4개로 분류하여 구별한다. 즉 긍정(affirmative), 부정(negative), 의문(interrogative), 그리고 명령(imperative)이 그것이다. 반면에 의문과 명령은 대담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담자의(his/her) 축어적 그리고(또는) 신체적 실행(doing)을 유도하여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며, 긍정의 절과 부정의 절은 대담자에게 수신된 존재자(existence)의 단순한 그 사실과 관련되고 있는 진술문으로만 존재하며, 대담자의 간접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술절의 표제 아래 함께 놓여진다(긍정적 서술절로만 발생된 첫 번째의 일반문법, 기본문장의 성격이 되도록 고찰되고 있는 긍정의 절). 우리는 그들을 정보적(또는 비양대화된) 발화로, 즉 “내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들의 생산으로 고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2. 포르 르와이알(Port-Royal)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이러한 발화가 담고 있는 존재자(existence)의 단순한 그 사실과만 관련되고 있는 진술문이 빈술(賓述)의 단순 행위에 의해 표출되는데, 그 이유는 만들어진 그 한 쌍이 긍정을 만들기 위한 비병치적 진술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상태의 발화, 즉 이러한 기호학적 존재자(existence)의 집꾼 그리고 주체와 대상 간 접합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즉 단순한 진술문의 유약해진 의미 안에서의 “긍정-affirmation-”) 상태의 발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doing)의 발화(그의 두 모순 텅은 주장-assertion-과 부정이다)를 구별하는 것과 다소간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용어 긍정(affirmation)을 회피하여야만 할 것 같으며, 그것은 애매한 것으로 존재한다. (역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고찰된 자연과학과, 그리고 정성적인 것으로 존속하는 인간과학 사이에 나타난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평행과 역 방향의 동향은 자연과학의 안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The Savage Mind (야성적인 사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화학은 탄소, 수소, 산소, 유황, 질소와 같은 5원소가 결합될 때 여러 가지 그 고유의 맛과 냄새가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한다. 제 원소의 유무와 함유량, 그리고 감각역치(感覺閾値)를 나타내는 도표의 의미에 의하면, 고유의 맛과 냄새가 줄어드는 그 결합은 차이점과 유사점만 있을 뿐인 것으로서 옛날에는 “2차적 성질”이라고 하는 이유로 화학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¹⁹⁾

그 다음에, 정성적 기술은, 아마도 언젠가 정량과 정성,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킴으로써, 지각세계와 의미효과 세계 사이의 몽롱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다.

노트: 우리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로부터 인용한 예에서 본 것과 같은 화학과정의 결합어휘소는 화학체계가 아니라 세미올로지 체계의 최종원소와 상응한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c. 최초의 작용개념

작용적 용어법의 최초 원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각이나 인식의 레벨에 가능한 한 의미작용이 출현하도록 만들고 있는 원소 또는 원소의 그룹을 시니피앙(signifiant, signifier, 기표[記表], 능기[能記], 표상[表象])이라고 부를 것이며, 동시에, 그 시니피앙은 객관으로서 인간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용어 시니피에(signifié, signified, 기의[記意], 소기[所記], 의미[意味])를 우리는 시니피앙과 명백하게 나타난 것에 의해 커버되고 있는 하나의 의미작용 또는 복수의 의미작용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니피앙으로써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만약 그 “어떤 것”이 진실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니피앙의 존재는 시니피에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19) Claude Lévi-Strauss, 「야성적인 사고(Savag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 12.

한편, 그 시니피에는 오로지 의미되기 때문에 “시니피에”인 것이며, 즉 그것을 의미하는 시니피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니피에의 존재는 시니피앙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논리적인 개념으로 결코 정의되지 않은 이러한 상호 전제는 그것들끼리 서로 정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용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우리는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결합에 대하여 “표의총체(表意總體, signifying ensemble, ensemble signifiant)”²¹⁾라는 명목을 조심스럽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체(ensemble)”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정의 안에 포함되고 있으며, 당분간 정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존속하는 총괄의 개념을 암시한다.

3. 표의총체(ensemble signifiant)와 자연언어

a. 시니피앙의 강류(綱類, class)

이러한 최초의 정의에 따르면, 시니피앙은 인간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들의 지위로 지각되는 순간에 포착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적 성질의 레벨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자연세계 쪽을 향하여 자동적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시니피앙의 최초의 강류는 그들이 종속하고 있는 감각령(感覺領)의 범주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니피앙(그리고 표의총체)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시각적 목류(目類, 예를 들어, 흉내, 몸짓, 글쓰기, 가상경관, 조형미술, 교통신호)

청각적 목류(auditive order, 예를 들어, 자연언어, 음악)

촉각적 목류(예를 들어, 맹언언어, 예무)

20)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 47~60.
21) “전체(whole)”는 단일 대상을 지시하고, “총체성(totality)”은 통합된 앙상블(integrated ensemble)을 지시한다. 그러나 영역자는 앙상블(ensemble)을 “whole+ensemble”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다시 “그룹(group)”으로, “불가분의 전체(entirety)”로, 다양하게 번역했다. (역주)

이러한 강류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언어학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시니피앙의 성질(외연성을 말한다, *qualités signifiantes*)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니피에의 성질(내포성을 말한다, *qualités signifiées*)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실, 다양한 감각적 목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은,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시니피에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의미작용의 표시로서 지각세계를 확립할 수 있다.

b.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상관관계

이러한 시니피앙의 강류가 시니피에의 병치 강류와 상응한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몇 가지 상관관계의 유형(*type*)은 다음과 같이 생각될 수 있다.

1. 자연언어와 음악과 같은 동일 감각목류는 자율적 표의총체 확립에 조력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소음(소음의 표의총체를 구성하는)과 음악과 언어음의 구별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언어병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먼저 감각목류들이 시니피에와 함께 상호 포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감각의 아종(亞種)은 ‘소음,’ ‘음악,’ ‘언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구두언어와 표기언어와 같은 각기 다른 감각목류의 시니피앙은 동등한(최소한 유의어의) 의미를 압도할지도 모른다.

3. 파울과 몸짓과 같은 몇몇 시니피앙은 의미작용의 단순 포괄과정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시니피앙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시니피에의 강류는 시니피앙으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미작용은 표현되고 있는 시니피앙으로서의 성질과 독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화는 회화적 의미작용 또는 음악은 음악적 의미작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의미가 없다. 회화 또는 음악의 정의는 시니피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시니피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의미작용은 단순히 인간적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총체(*ensemble*)로서 포착된 시니피앙은 ‘회화’ 또는 ‘음악’의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c. “자연적” 의미작용과 “인위적” 의미작용

또 다른 구별은 우리가 인위적 표의총체로부터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으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하는 자연적 표의총체와의 아티큘레이션과 일치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위한 기반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시니피앙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서의 이산적 성질 안에서 그 기반을 찾아야만 할 것 같다. 인위적 표의총체의 경우에, 이산적 원소는 아프리오리(a priori)에 의해 확립될 것이며, 반면에 자연적 표의총체의 경우에는 오직 아포스테리오리(a posteriori)만이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원소의 이산적 구조를 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을 위한 이러한 기반은 지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들의 지각에 선행하는 지식(knowing)의 문제는 시니피앙의 원소가 이산되어 있는지 아니든지 또는 전달

2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7. articulation(아티큘레이션); 1. 음성학에서, 아티큘레이션의 첫 번째 의미는 “발음기관”의 생리적 함수다. 두 번째로, 그것은 표현층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언어발성”의 조합적 조정을 생산하는 이러한 발성기관의 능력이다. 진술된 음성자료의 특별한 영역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조음음성학(발산의 레벨), 음향음성학(전달의 레벨), 청취음성학(수취의 레벨)으로 구별하여 언급할 수 있다. 2. 아티큘레이션이 화자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기호학적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모든 형식의 기호학적 조직은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단위를 창조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은 충분히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즉 다양한 언어학적 이론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3.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용어 아티큘레이션에 보다 더 한정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해 체계의 분석을 지시함으로써, 대당이 된 구분처럼 분석과정을 지시한다. 4. 이중 아티큘레이션에 의해, 마르티네(A. Martinet)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비교된 자연언어의 특이성을 정의하려고 한다. 첫 번째 아티큘레이션은 기호(sign)의 형태소의 레벨에, 두 번째는 음소의 레벨에 정위되며, 그것은 형태소를 위한 포르만트를 구성한다. 결합조정의 원리에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해석은 부적당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부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그것은 통사론적이며 의미론적인 연구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에 선행하는 언어학적 상태와 상응한다. 브리태니커, 1999, articulation(조음; 調音); 음성학에서 발성기관(후두 · 인두 · 구강 · 비강)이 이루는 형태. 이 형태는 경직된 발성기관(예를 들면 경구개)과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발성기관(예를 들면 혀)의 위치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발성기관의 형태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독특한 말소리를 낸다. 주요한 조음기관은 혀 · 윗입술 · 아랫입술 · 윗니 · 윗잇몸 · 경구개 · 연구개 · 목젖 · 인두 · 성문(성대 사이의 공간) 등이다. 조음은 크게 제1·2차 조음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차 조음은 ① 하나의 자음을 내기 위해 폐착(閉塞)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식, ② 하나의 모음을 내기 위한 혀의 형태와 입술 모양 및 후두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제1차 조음은 그 발음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조음기관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혀끝 잇몸” 조음에 관여하는 조음기관은 혀끝이지만, 위·아래 입술과 혀뿌리도 발성기관 안에서 다른 조음기관에 어느 정도 쉽게 폐착할 수 있다. 이것을 제2차 조음이라고 한다. 주요한 제2차 조음으로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구개음화(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접근하는 것), 연구개음화(혀뿌리가 연구개에 접근하는 것) · 순음화(조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되는 것) · 성분화(성대를 완전히 또는 일부만 폐쇄하는 것) · 비음화(공기를 비강과 구강으로 동시에 내보내는 것) 등이 있다. (역주)

된 의미작용의 조건에 의존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논리로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논리를 허락할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시니피앙의 유형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 간주하는 지각의 더 엄밀한 레벨에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시니피에와 관련된 오로지 그 기준만을 또는 시니피앙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노트: 프레이징(phrasing)과 아티클레이션(articulation); 그레마스는 언어학의 용어를 음악의 용어에 초점을 맞춰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음 신현수(辛賢秀)의 언급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프레이징(phrasing)-흔히 동기(motive)는 2마디, 작은악절(Phrase)은 동기의 두 배인 4마디, 큰악절(period, sentence)은 작은악절 두 개가 합쳐진 8마디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전과 낭만과 음악은 대개 그와 같은 규칙성을 보여 줍니다. 큰악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중, 앞의 것은 테제(Thesis) 또는 앞작은악절(Antecedent Phrase)이라고 하며 뒤의 것은 안티테제(Antithesis) 또는 뒤작은악절(Consequent Phrase)이라고 합니다. 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은 흔히 “질의↔응답” 또는 “진술(statement)↔확인(confirmation)”의 대화형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은악절도 있습니다. 프레이징이란 바로 이들 프레이즈(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 또는 그 밖의 작은악절) 단위를 구분하여 연주하는 그루핑의 기법입니다. 흔히 프레이징을 「숨을 쉬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관악기 연주자나 성악가는 실제 프레이즈의 끝 음을 음가(音價)보다 짧게 끊고 음가의 나머지 부분을 호흡에 사용하는데, 이로부터 유래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생리적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성악가의 호흡을 모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이징 기법 중 하나입니다(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194페이지의 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글과 관련 악보 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에 몰입하여 연주하다 보면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악기인) 기타나 피아노 등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생리적 호흡과 프레이징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약하여 정의한다면, 프레이징이란 문장에 있어서의 쉼표(,)나 마침표(.)처럼 음악 어법에 있어서의 프레이즈(작은악절)라는 구문(構文, construction of sentences)적 단위를 표시하는 표현 방법에 해당합니다. 음악에도 말이나 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문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말이나 글에 있어서의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등의 문문적 요소들처럼 음악에도 동기(또는 부분 동기)와 그 발전, 작은악절, 큰악절, 그리고 문단(文段, paragraph)에 대응하는 악단(樂段, part)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문문적 구조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운율에 상응하는 리듬도 있어서 “음악 어법”이라는 표현이 과히 어색하지 않습니다.

2. 아티클레이션(articulation)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프레이즈를 보다 작은 단위의 그룹(아티클레이션·그룹 see. p. 26)으로 나누는 것(그루핑)을 뜻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잘못이긴 하지만,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프레이징이건 아티클레이션이건 모두 프레이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 버리는 경향이(용어 사용의 혼란이) 마치 관습이더라도 하듯 아직도 잔존(殘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프레이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프레이징을 의미할 수도 또는 아티클레이션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해서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문 음악가 중에서도 이들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관련 내용 see. p. 78, 참고: 프레이징이란 용어 사용의 혼란).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이란 용어의 나머지 한 가지 의미는 「음을 끊는 것」입니다. 즉, 스타카토(staccato)나 스타카티시모(staccatissimo) 논·레가토(non legato) 등, 음을 끊어 연주하는 것을 두루두루 통칭(通稱)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티클레이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음들을 이음줄로 묶는 것은 선율선을 “분절(分節, 마디로 나눔)”하는 것이며, 음을 하나하나 스타카토나 논·레가토로 끊어서 연주하는 것은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이나 “뚜렷한 발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의 이음줄 끝에 걸린 음을 끊는 행위는 음을 끊는 것 자체보다는 그루핑이 그 진정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의 마지막 음을 어떤 형태로든 다음에 오는 음(또는 그룹)과 단절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곧 [말]에 있어서의 ‘분절(分節)’과 일치합니다. 이로써 음악에서의 ‘아티클레이션’이란 용어 역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대체로 그대로 물려받아 “그루핑(분절)”과 “음을 끊어 소리 내는 것(유절 발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음악에서의 이러한 발음(發音) 현상은 언어에서의 그것(발음 현상)과 유사한 데가 있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언어, 즉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詩)와는 서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악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더라도 <말(가사, 시)→성악곡→기악곡>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누구든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이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시나 연애 감정을 담은 서정시 그리고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시 등을 노래한 것이 성악곡의 기원이며, 악기란 오랜 세기(世紀)를 노래 반주용 도구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던 터이며, 그런 연후에야 점차 그 기능과 연주법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되어 본격적인 기악곡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기악곡조차도 말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언어와 성악곡 그리고 기악곡. 이들의 관계란... 언어(가사)와 음악적 영감을 결합하여 만드는 것이 성악곡이라면, 성악곡이라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이리저리 가공하여 만든 레고 블록(LEGO block)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것이 기악곡이 아닐는지. 인간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먼저 배우는 것은 (기악이 아니라) 말과 노래입니다. 물론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국어의 발음 현상에 길들여진 소리에 대한 감각을 제2의 천성(天性)으로 하여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2의 천성을 가진 연주자들이 그것을 연주하고 관객은 듣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언어가 다르면 음악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히, 운율이나 구문법(構文法, sentence structure)적 구조 등을 반영하는 음악 어법에 있어서의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양음악의 아티클레이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서양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은 언어의 아티클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쩌면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티클레이션’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말(언어)의 발음 현상과 관련이 있음(see. p. 70)을 단지 우연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언어 중 하나인 영어를 말할 때의 아티클레이션, 즉 분절(分節, 그루핑)이나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 현상은 첫째, 악센트와 관련한 운율적인 것과 둘째, 단어 구절 등의 구문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 셋째, 감정이나 그 밖의 표현적 욕구 등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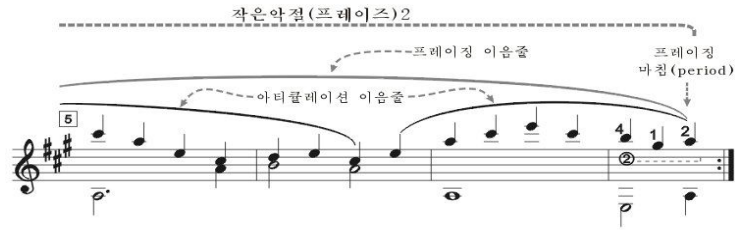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The book is on the desk.」라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을 법한 이 영어 문장을 말할 때, 지난 세기의 아동극이나 등장하던 원시 깡통 로봇이 아닌 한 여섯 개의 단어를 각기 구분하여(아티클레이션으로 끊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민(native speaker)의 말하는 품새를 들어 보면..., 「The book」은 「The-Book(ðəBúk)」으로 그리고 「on the desk」 역시 「on-the-Desk(əndəDesk 또는 좀 더 부드럽게 혀를 굴려 ənəDesk)」로, 마치 악센트가 'book'이나 'desk'라는 음절에 있는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is'는 약화되어 거의 발음하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 「「The-Book-is,」 「on-the-Desk」의 두 합성(?) 단어, 즉 두 마디(articulation)만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어 간의 연결 발음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쪽에 강세가 주어집니다. see. p. 88, 참고: 영어 단어의 품사별 강세). 이는 강세가 없는 단어들을 강세가 있는 단어에 연결, 하나로 그루핑함으로써 운율을 조성(組成, makeup)하여 발음하는 운율적 아티클레이션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문장을 「The book is」라는 “주어+동사” 부분과 「on the desk」라는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구분적 아티클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감도가 좋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Where?」라고 자꾸 되묻는다면, 「ɔn · thé · désk」라고 음절 하나하나를 끊어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표현적 아티클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루핑(grouping); 악보2는 코스트의 기타 연습곡 첫머리의 8마디로 된 큰악절 하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큰악절은 각기 4마디로 된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phra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악절은 아티클레이션에 의해 두 마디씩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바 있듯,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의 구분은 대개 이음줄로 표시합니다(흔히 아티클레이션의 이음줄만 표시하고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이음줄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티클레이션의 이음줄에 의하여 프레이징의 위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음줄이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음렬을 나누어 개별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을 그루핑(grouping)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를테면 악보2에는 이음줄에 의해 프레이즈·그룹과 아티클레이션·그룹들이 그루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곡만은 특이하게도, 시중에서 구입한 악보(see. p. 128, 참고: 코스트 기타 연습곡의 출처)에 아티클레이션(그루핑) 이음줄이 악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단, 회색의 프레이징 이음줄은 저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하, 이 책에서 이 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악보에 그려진 그루핑의 이음줄은 모두 저자에 의해 표시된 것입니다. 원전 악보나 출처가 된 악보에는 없는. 단, 기타(guitar) 악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guitar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first eight measures are shown. Above the staff, there are two dashed lines representing phrasing slurs: one spanning measures 1-4 labeled '작은악절(프레이즈)1' and another spanning measures 5-8. Below the staff, there are two solid lines representing articulation slurs: one spanning measures 1-2 labeled '아티클레이션 이음줄 (a slur-line for articulation)' and another spanning measures 3-4 labeled '아티클레이션'. There are also annotations for '프레이징 이음줄 (a slur-line for phrasing)' above measures 5-6 and '프레이징' above measure 8. Fingerings are indicated by numbers 1-4 above notes. Position markers '9 pos.', '2 pos.', and '9 pos.' are placed above the staff. A circled '1' is above the first measure, and a circled '2' is above the second measure.

제1장 과학적 의미론의 조건



4. 아래 악보1에서 볼 수 있는 나 와 같이 이음줄(slur) 아래에 스타카토 점이 표시된 기호를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 see. p. 71)라고 합니다. 음높이가 같은 음, 즉 동음(同音) 둘을 완전무결하게 레가토로 이어 연주하면 두 개의 음으로 들리지 않고 음가(音價)가 두 배인 하나의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는 동음 간을 이음줄(slur)로 연결하면 이음줄이 아닌 붙임줄(tie)이 되는 기보법의 이치와 일치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음 간을 (붙임줄이 아닌) 이음줄로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메조·스타카토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 음들을 이음줄로 연결하면서 그 내부에 연속되는 동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어 그것이 붙임줄인 양 보일 염려가 없는 한, 굳이 스타카토 점을 찍어 메조·스타카토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또한 기보상의 관습입니다.

악보는 「바이어(Beyer, 국내에서는 흔히 ‘바이엘’로 통함) 피아노 교본」의 제19번 곡입니다. 악보 중에는 이와 같이 슬러(slur) 또는 이음줄이라고 하는 호선(弧線, a curved line)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음줄들은 이음줄로 연결한 음들을 레가토(legato)로 잘 이어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즉, 이음줄로 연결된 “일련의 음들(= 음렬 see. p. 26, 참고: 음렬)”을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하고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은 적절하게 끊습니다. 흔히 가별게 끊습니다. 관악기 연주자가 텅잉(tonguing see. p. 26, 참고: 텅잉)을 하거나 숨을 쉴 때처럼,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의 방향을 바꾸거나 활을 선에서 떼어 낼 때처럼 그렇게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을 어떻게 끊느냐 하는 점보다는 레가토로 연결된 음렬(音列)이 한 번의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도록,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활로 그어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들을 결속시키는 데 더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음줄 끝의 음을 끊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음줄은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을 레가토로 연주함으로써 그들을 한 묶음 또는 한 그룹(group)으로 들리도록 하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see. p. 75, 참고: 악기에 따른 레가토의 차이)



악보1. 레가토 이음줄 — 바이어 피아노 교본, 연습곡 제19번

그리함으로써(일련의 음들을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이들 이음줄은 프레이징(phrasing)이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악기에 따라서는 악보에서 이와 같은 이음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타(guitar) 악보가 그렇습니다.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합니다. 한데, 그 이유를 기타 특유의 「슬러 주법」에 대한 기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라고 보기에선 무리가 있습니다. 하려고만 든다면, 「슬러 주법」을 의미하는 이음줄을 점선으로 한다든지 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講究)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타는 앞서 연주한 음의 여운에 왼손 운지 동작에 의한 울림을 더해 다음 음을 소리 내는 특유의 「슬러 주법」이라는 연주법이 있습니다).

이음줄(slur)은 현악기나 관악기 등의 「슬러 주법」을 표시하는 기호이기도 하며, 보다 범용(汎用)적으로는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루핑(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루핑이란 일련의 음들을 묶어서 그룹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항에서 설명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는 기존 악보를 재해석하여 프레이징 및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나 그 밖의 악상 기호 등을 상세하게 붙여 출판하는 풍조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악보를 원전판(原典版)에 대응하는 말로 해석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당시 기타 음악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고 있던 터여서 다행히(?) 그러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라고 한 까닭은 해석판 악보가 유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곡가가 표시해 놓은 얼마 되지 않는 아티큘레이션의 기호쯤은 무시해 버리고 교정·편집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음줄을 그려 놓은 것이 부지기수여서, 이후 애써 원전판 악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전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에 대한 내밀한 식견과 미학적 감각을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개의 기존 악보(원전판)에는 악상 기호라고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음악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던 일반 대중이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혜택으로 부(富)를 축적하게 되자 생활에 여유가 생겨 취미를 갖게 된 다수의 신흥 부유층이 악보 출판업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으므로 해석판 악보의 등장은 사필귀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의무교육인 양 받고 자라 음악적 교양이 풍부했던 귀족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기존 원전판 악보에 일반적으로 (다른 악상 기호는 물론이거니와)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희박했던 이유란 이처럼 기존 악보의 주 구매층이었던 당시의 귀족들이 전문가적인 음악적 식견을 상식(常識, common sense)으로 하고 있어서 스스로 해석하여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표시하는 데 인색했다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위한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전판 악보나 또는 기타(guitar)와 같은 악기의 악보라 해서(해석판 악보 역시 그 해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정이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만)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무시하고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은 문장에 있어서의 구두점이나 끊어 읽기, 또는 절 구 단어 음절 등을 구분하거나 운율을 표현하는 등의 어법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중국어나 일본어라 해서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을 (지난 20세기의 텔레비전 아동극에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진화가 덜된 강동 로봇의 말

투로 「패리! 패리! ~~~ 아·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고 아예 단어 구별조차 하지 않고 읽거나, 또는 「아버지V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식으로 틀리게 끊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문맥(context)에 의해 단어나 구문적 구조 그리고 운율 등에 대한 식별이 능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을 의미하는 이음줄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해도 곡의 문맥에 의해 연주자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으며 또한 당연히 그리 해야 합니다.

연주자 스스로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을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해석판 악보를 사용하는 상황에 비해) 딱히 불리한 여건으로 여길 까닭은 없습니다. 연주자라면 어차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이음줄이 그려져 있는) 악보라 해도 그것이 작곡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은 해석은 단지 참고 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티클레이션은 연주자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할 여지가 다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티클레이션에 비해 프레이징에 대한 해석은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음줄의 모양만으로는 그것이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티클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끊어 읽거나 억양(intonation)까지 일일이 표시되어 있는 연극 대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대본을, 강통 로봇이 책 읽듯 읽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사일지라도 배우마다 대사를 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끊어 읽기, 억양, 말투, 말씨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툰 배우의 잘못된 대사가 아닌 다음에야 관객이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현수(辛賢秀),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 -신현수, <http://www.musicnlife.com/books/b04mint/p002author.htm>.

5. 텅잉(Tonguing); 텅잉이란, 연주 시 음의 구분을 주는 방법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말하는 것처럼, 연주를 할 때도 한 음 한 음 발음을 하여, 음의 구분을 주는 것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가 없으면 그건 허밍이 되며, 연주를 할 때 텅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슬러이다(물론 슬러도 텅잉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텅잉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다). 텅잉은 어렵지 않다. 그냥 ‘투’라는 발음을 해주면 된다. 혀의 끝이 윗니 뒤에 위치해 있다가 투- 발음을 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숨이 나간다. 텅잉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텅잉과 동시에 숨을 내뿜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투’ 발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숨이 내뿜어진다. 긴 음의 경우엔 “투 우 -”처럼, ‘투’ 발음을 하고 정해진 박자만큼 호흡을 계속 내쉬면 된다. ‘투’라는 텅잉의 발음은 악기에 대고 말하기의 기본이다.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무조건 투투, 라고 발음을 하지는 않는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포박 포박 말하지 않듯이, 텅잉도 자연스럽게 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여러 방법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역주)

노트: order(目類); 목류(order)의 인식론적 개념은, 텅의 규칙적인 계열의 하나인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연속적 내재정도에 한해서만 상술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의미의 둘 중 에서 기호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1. 한편 목류는 현존재의 일정불변을 또는 비정의된 현상들의 초끈(string; super-string theory) 안에서 하나의 현상(실체의)의 출현을 지시한다. 만약 그것이 인식된다면, 이러한 일정불변은 시니피앙이 될 것이며 재발현상의 논리-의미론적 해석을 위한 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목류는 모든 담화의 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조직의 설명원리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일정불변(regularity)이 담화적인 출발과 동일시되기 위하여, 확실한 방식으로,

표상현상은 불연속으로 표출되어야만 하고, 불균형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텅과의 다동적 관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듬은 동일 현상이라고 하는 현존재의 일정 불변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다른 텅의 현존재가 다른 것과 대당관계가 되는 어떤 하나를 세목(respect) 안 연속(succession)의 비가역적 “목류(order)”로 정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단어의 목류(문장 안에서)라고 하며, 그것에 의해서 그 의미와 표의(significant, “Peter hits Paul” 안에서, 대상과 구별된 주체에 따르고 있는 표현 범주로서의 종속함수)를 타당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목류의 개념은 분포 분석의 기본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의 주된 비판은 논리적 정위(orientation)와 시니피에의 목류 사이에 지속하는 혼동이다. (역주)

d. 자연언어의 특권적 지위

다른 표의총체와 달리, 자연언어는 치환(또는 대입)과 번역-전격(轉格)²³⁾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 치환은 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단순히 시니피에로 고찰된 자연언어는, 두 가지의 의미 또는 다른 감각 목류에 속하는 더 많은 시니피앙으로 자신을 표현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는 음성과 표기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시니피앙의 어느 하나는 기본이고 다른 하나는 파생되거나 치환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야콥슨(Roman Jakobson)의 이러한 견해는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와 러셀(Bertrand Russell)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²⁴⁾

2. 하나의 표의총체로 포착된 자연언어는, 치환되거나 다른 감각목류로 전환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꿈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언어가 특별한 시각 목류(컬러와 흑백의 두 가지 아목으로 나눌 수 있는)로 치환된 것일 뿐이다. 결정적인 예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에게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영화언어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치환이 상관물이나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또는 서서히 취득할 수 있는) 허락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성싶다. 자신의 언어를 창출하려고 애쓴 1920년대 영화예술의 노력은 이러한 혼합적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사람들은 발성영화의 발명이후에 발생된 비사실적인 것으로의 퇴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23) 전격(轉格): ① 명사·대명사와 같은 실질 개념을 나타내는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 즉 주격·목적격 등의 격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② 삼단논법의 대소 두 전제에 있어 대개념(중명사)의 위치에 따라 생기는 추론식의 형식이 전치되는 것, 즉 제1격 제2격 제3격 제4격이 전치되는 것의 이중의미. (역주)

24) Roman Jakobson, 「음성과 의미에 관한 여섯 강좌(Six Lectures on Sound and Meaning)」(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 32~33.

번역-전격은 그들이 포착한 오로지 그 방향에 의해 치환된 최후의 유형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즉 자연언어의 방향으로부터 또 다른 자연언어로 만들어진 어느 표의총체는 다소간 정확하게 어느 자연언어로 번역-전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화와 회화비평에 의해 이루어진 번역-전격이 그것이다. 기본 표의총체와 그 번역-전격 사이에 나타나는 위치순환은 의미론에 있어서만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의미작용과 관련된 어느 학문의 한 분야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분리하고 있는 거리는 경제적-유기적 은유(economic metaphor)를 사용하는 전용의 창안자 또는 가치안정책의 창안자로 해석될 수 있다.

자연언어가 특권적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지위를 치환의 시발점으로 그리고 번역-전격의 종착점으로 알고 대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의총체가 곧 자연언어라고 생각하는 그 복잡성을 그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충분하다.

4. 언어의 계층적 레벨

a. 언어총체의 폐포성²⁵⁾

의미론의 목표는 하나의 표의총체로 고찰된 어느 자연언어(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개념적 의미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주된 어려움은 자연언어의 특권적 성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일반적으로 회화의 기술은 프랑스 표기언어의 번역-전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랑스어의 기술은, 동일 투시도법(透視圖法, perspective)²⁶⁾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로지 프랑스어를 프랑스로 번역한 것일 뿐

25) 폐포(閉包, closure): 1. 불완전한 모양, 사고, 상황 등이 완전한 적(積)으로 지각되는 것. 2. 위상수학에서, 어떤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S의 폐포(閉包, closure)는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부분집합이다. 이것은 X 안에 있는, S의 모든 포함집합(superset)의 교집합으로 구성된다. (역주)

2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29~230. perspective(투시도법); 1.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의 중재를 요구하는 투시도법은 언의화자/언의청자의 관계를 연기하면서도 축어화의 절차에 의지한다. 2. 화술적 구조의 직선적 강제를 고려하고 있는 화술 프로그램의 결합구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 선택 안에서, 언의청자를 위해 투시도법 안에 삽입되고 있는, 즉 논쟁적 구조로 구축된 화술적 담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총강도(hold-up)로서의 그 화술은 화술적 프로그램의 강도로서든지 또는 강도를 당한 사람으로서든지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강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정의됨으로써

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연구의 도구와 혼동된다. 즉 피고가 그 자신의 변호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성격은 어느 정도 사전편찬법에 의해 제공된다. 즉 어느 일개의 언어사전은 무한히 정의를 추구하는 단자(單子, 모나드, 또는 명명, denomination)²⁷⁾ 안에 폐포된 총체(a closed ensemble)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자의 무제한성을 단념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자연언어 안에 있는 고유의 의미작용과 관련된 어떠한 탐구도 언어의 프레임 안에 폐포된 채 머무르고 있으며, 그 탐구는 여러 가지 표현과 형식화, 또는 자연언어 안에 등장한 여러 가지 정의를 반드시 이끌며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세계의 폐포조건을 인정하는 것은, 의미작용을 기호(signs)와 사물(things)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언어학적 개념의 배제,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시대상(referent)의 보충적 차원의 배제를 차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소쉬르의 기호이론과 대당이 되고 있는 현실주의 의미론학자들에 의해 절충안으로 도입되었다.²⁸⁾ 그러나 소쉬르적 구조주의의 가능한 해석 가운데 오직 그 하나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화술은 악한의 희생보다 영웅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3. 업제가 반-주체(반대)의 이익을 위해 주체적 화술의 표출을 총체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투시도법은 두 개의 대당 프로그램을 보전하며, 반면에 그 프로그램의 화술에 선취권이 부여됨으로써(언의청자의 감수성이 예민한 영역에서 판단됨으로써), 따라서 그것은 매우 명확하게 표현되고, 주체의 희생을 치루고, 그것은 오로지 단편적으로만 표출된다. (역주)

27) denomination: 직역하면 명명, 명목, 단위가 되겠지만, 수학·언어학보다는 철학적 관점의 monad(monade), 즉 단자(單子)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이는 그리스어 monas에서 유래된 말로서, 원래는 단위의 하나를 뜻한다. 우선 피타고라스파에 의해 사용되었고, 플라톤(Platon)도 이태아에 이 말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다. 브뤼노(G. Bruno)는 자연의 최소 단위로서의 단자를 생명이 넘치는 개성적 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단자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을 계승한 라이프니츠(G. W. Leibniz)에 있어서는 연장을 가지지 않는 힘의 주체로서의 실체, 참된 실체로서의 개체를 단자라고 한다. 세계는 무수한 단자의 조화적 체계라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낱말의 단자는 또한 이 무한한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다. 단자 그 자신은 불생불멸이며 밖으로부터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 즉 창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다양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다양의 통일을 지각이라 일컫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추이를 욕망이라 일컫는다. 지각의 관명의 진행에 따라 단자는 세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무생물이나 식물을 구성하는 단순한 단자, 둘째는 동물적 생명에 있어서 기억을 지닌 단자, 셋째는 인간에 있어서의 이성적 정신.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세계에 속하는 피조(被造) 단자인데 대하여, 최후에 이것들을 창조하여 세계의 조화를 부여한 신이 근원적 단자로서 세계를 조율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체계는 후세에 단자론이라고 명명되어 1917년에 그가 체계의 요약으로서 기록하여 미발표인 채 남겼고, 표제가 없는 작품도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후설(E. Husserl)도 이 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근원적 단자≠신」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는 또한 후설(E. Husserl)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역주)

28) 예를 들어, Stephen Ullmann, 「의미론의 원리(Principles of Semantics)」(New York:

제1장 과학적 의미론의 조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기호(signs)를 해석하기 위하여 사물을 추리하는 것은 자연언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실행 불가능한 의미작용의 치환을 비언어적 표의총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상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하려는 것보다도 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트: 두 번째 어려움은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학적 화맥(contexts)의 존재와 관련된다. 우리는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몇몇 표의총체로부터 받게 되는 방해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에 때때로 세대교번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안에 약속된 표의총체의 모든 자율적 지위에 대한 선입관이라고 할 수 없다.

b. 의미작용의 논리적 레벨

현대논리학은 언어의 계층이론을 정교하게 만든 그 폐포된 언어세계의 실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얼마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입된 계층의 개념은 논리적 전체와 정의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책으로 감지한 결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내용의 두 방향 사이에 확립된 전체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전체의 관계는 두 표의총체(“회화비평”의 총체는 “회화” 총체를 전체로 한다) 또는 어느 두 아티클레이션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계층적으로 정위(定位)된 3개의 아티클레이션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즉 그 3개의 아티클레이션은 전체의 관계에 의해 각각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I am aware(나는 알고있다)
that I am saying(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that it is cold(춥다고)

노트: 이러한 예와 함께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레벨 또는 의식의 여러 가지 레벨의 비언어학적 문제를 도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레벨 가운데 또 하나의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을 뿐이다.

Barnes and Noble Press, 1971, 재판), p. 70을 보라.

의미작용의 여러 가지 레벨이 하나의 표의총체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은, 2개의 다른 레벨의 구별에 의해 우리의 탐구가 정위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레벨의 하나는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을 구성하고, 우리는 확립된 용어법에 따라서 대상언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우리는 대상언어를 의미론 연구의 언어학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대상언어는 먼저 관계 속에서 메타언어학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노트: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농후한 용어 랑가주(the term language[langage])는, 애매하며 하나의 총체 또는 표의의 하위총체와 상응한다. 우리는 오로지 “자연적” 총체 또는 하위총체를 가리키는 용어 랑그(the term langue)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그들은 위치를 잡게 될 것이다.

c. 언어로서의 의미론

이러한 메타언어의 새로운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번역-전격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비평가가 회화 또는 음악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그 사실의 가치(virtue)에 의해 회화와 음악이라고 하는 표의총체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의 말은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의 관계 속에서 메타언어를 구성한다. 따라서 시니피앙의 성질 또는 표의총체의 계층적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의미작용의 연구는 총체와의 관련 속에서 메타언어학적 레벨에 위치를 잡게 된다. 레벨에서의 편차는 자연언어가 관련될 때 더욱 명백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 또는 영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언어학적 메타언어 안에서 연구될지도 모르며, 그 역도 또한 같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형식화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사용(轉寫用) 또는 기술용 메타언어가 어느 표의총체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연언어로 사용될 수 있든지 간에 메타언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만약 의미작용의 메타언어학적 전제가 특별한 자연언어와 연결된다면, 어쨌든 간에 그 기술은 자연언어로부터 다소간 벗어난(removed) 메타언어에 의해 보다 더 좋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하면, 이러한 변별은 과학적 메타언어와 비과학적 메타언어 사이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한다.²⁹⁾ 비과학적 메

타언어는 대상언어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연적”이다. 예를 들어, 회화비평의 언어, 다시 말해서 예술비평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집합적으로 이룩한 비평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하위층체로 나타나고, 프랑스어의 표의층체 속에서 통합된다. 이에 반하여 과학적 메타언어는 구축되는 것이다. 즉 메타언어를 조립하고 있는 모든 텀(term, 어투, 표현, 항, 관계)들은 고정된 정의를 혼들어 간섭하는 발화자료체로 구성된다.³⁰⁾

그러나 발화자료체의 존재는 기왕에 대상언어로 나타났던 그리고 보다 높은 계층 레벨로부터 학습되었던 메타언어 자체 오로지 그 한 가지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단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의미론적 메타언어가 과학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텀들은 먼저 규정되고 비교 대조되어야만 한다. 그때 과학적 메타언어의 정의는 하나의 조건으로 고정되고, 따라서 메타언어 또는 제3의 언어를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의가 최초의 메타언어를 분석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3의 메타언어가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의미론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것은 오로지 두 메타언어의 상호 전제의 관계에 의해 형식화된 재결합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기술 또는 번역-전격 언어는, 대상언어의 의미작용으로 형

29)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 120을 보라.

3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338 term(텀); 1. 우리가 어느 기호학적(semiotic) 체계를 단순히 관계의 네트워크(또는 예를 들어, 오직 편차로만 존재하는 자연언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따라서 텀(term)은 다양한 관계의 교차적 관점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기본구조의 연구는 기호사각형의 어느 텀이 반대, 모순, 상보 관계의 교차적 관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더 나아가 그 나뭇가지도표 형식 안에서의 관계적 네트워크의 표상성(대표성)은 그 용어(the term)가 텀으로 표현된(함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Louis Hjelmslev의 함수), 계층적으로 상위레벨에서 고찰된 그 자체의 관계와 관계의 “최종=텀(end-term)” 양측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접합적 관점과 상응한다는 것을 폭로한다. 분류법의 종착역은 엄밀한 의미(sense)에서 오로지 단순하게 텀으로만 존재한다. 2. 관계의 교차적 관점으로서의 텀은 어휘화될지도 모르며(i.e., 소정의 라벨은 그들을 지시한다), 또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호학의 체계로서의 자연언어는 결함 조정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한 어휘화의 막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텀의 두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즉 텀은 관계의 교차적 관점(또는 관계적 네트워크 안에서의 교차)의 명목(라벨), 다시 말해서 어휘화의 절차로부터 초래된 명목이다. 3. 텀의 어휘화는 “자연적”(예를 들어, 에스노-분류법의 경우)이라고도 하고, 또는 “인위적”이라고도 한다. 후자의 경우, 라벨-텀은 메타언어학적 자연의 용어법으로 구성되든지, 또는 명명법으로 구성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구성된다. (역주)

식화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언어는 기술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내부결합(internal cohesion)을 입증한다.

d. 인식론적 레벨

만약 방법론적 언어라고 하는 존재가, 기왕에 주어진 자연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론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언어 위에 의미를 위치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과학적 메타언어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되는 이러한 제3의 레벨은 그 스스로 연역법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며, 귀납법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엘름슬레우적 공리(postulate)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법적 기술의 적용에 의해 증명된다.³¹⁾ 예를 들어, 어느 형태론적 개념·프랑스어 반과거의 개념은 그 주연(周延, distribution)을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정의될지도 모른다. 그 개념 '반과거'는 그 스스로 기술적 언어의 레벨에서 명목이 부여될 것이다. 일단 그것이 방법론적 언어 안으로 전승(轉乘)되면, 그 정당성은 프랑스어의 시제, 양상(樣相, aspect), 서법의 범주 안에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다른 자연언어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어의 반과거를 분석하는데 명백한 판단력으로서의 사전적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은 오로지 비교형태론 또는 일반형태론의 기초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연역적 공리총체를 구성하는 문법적 개념의 발화자료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된다.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방법론적 가치의 검증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계층적으로는 고차원의 레벨에, 언어학적으로는 제4의 레벨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는, 하나의 자연언어 안에 두 가지 개념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는 내부결합으로 간주되는 진실이고, 그 둘은 실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 진실이다.

실제로, 기술의 의미가 대상언어를 기술적 언어로 번역-전격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번역-전격은 반드시 적합하여야만 하고, 그것은 대상언어인 그 실재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31)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p. 11~13.

다면, 귀납적 방법은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귀납적 기술이 기왕에 주어진 표의총체의 한계(limits)를 결코 초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 방법론의 레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 방법론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하나의 언어이며, 그 공리는 제4의 레벨에 위치가 정해지고, 당연히 연역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실재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학적 모델 사이의 상응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동종의 문제들을 의미론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모델과 표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론적인 때로는 실제적인 분할은 항상 존재한다. 과학은 이러한 이중의 근본적인 방법론적 양상이 고려된다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진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납법을 연역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도 진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두 가지 준비된 추리방법, 즉 귀납법과 연역법의 존재와 정당성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벌이고 있는 논쟁은 명백하여, 이미 제 4의 레벨에 위치를 잡고 있으며, 동시에 독자적인 자연언어로 나타난 그 총체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 아래에 어느 표의총체를 기술하는 일반의미론의 능력으로서의 조건을 갖게 되는데, 그 조건은 기술을 위해 판단력의 일반적·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편의성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먼저 이러한 조건이 바로 제4의 레벨 그 존재이며, 그것은 인식론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며, 다음은 반드시 그곳에 위치를 잡아야 하는 의미론적 기술의 정당성과 그 조건의 해석을 말한다.

과학적 의미론과 의미론적 기술(의미론은 계층적·개념적 구조를 사용하는 관습일 뿐이다)은 대상언어의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만약(if)이라고 하는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며, 그것들은 기술적 언어, 방법론적 언어, 인식론적 언어라고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레벨의 논리적 존재에 위치를 잡고 있는 세 가지 언어의 기술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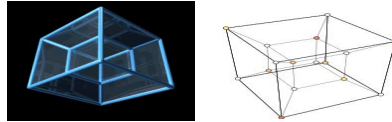
e. 논리기호 표기법(Symbolic notation)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ical) 성격의 관점이 남아있다. 그것은 논리기호 표기법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위해 꽤 중요한 것이다. 수학뿐만 아니라 기호논리학과 최근의 언어학의 예는 우리가 동일하지 않게 정의된 개념의 개념적 발화자료체

를 정렬하면서 “만약(if)”에 대한 판단작용의 정확과 작용의 편의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으며, 문자기호와 숫자의 조력을 받아 논리 기호적으로(symbolically) 이러한 개념에 특별히 유념하기 위하여 “자연적” 언어를 단념한다.

그러나 도입된 이러한 표기법을 위하여, 논리기호적(symbolic) 언어로 번역-전격된 개념의 목록은 보다 더 제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목록이 가능한가 어떤가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 그것은 의미론 스스로가 제안하는 목표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논리기호 표기법은 그 스스로 발견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러나 기왕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가능성은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See. Hans Reichenbach, *L'Avènement de la philosophie scientifique*, pp. 187~95.)

노트: 투시도법(perspective)은 다음의 하이퍼큐브(hypercube;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을 n 차원으로 확장한 polytope이다. 이는 서로 평행이거나 직교하는 선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닫혀 있고 볼록한 콤팩트 공간을 이룬다), 4차원 입방체의 3차원의 그림자를 참조할 것. (역주)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1. 연속과 불연속

전통적 언어학자들은 언어현상의 성격을 연속적인 것(그 시대에는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이라고 제멋대로 주장했다. 예를 들어, 라틴어 'mar'로부터 프랑스어 'mer'의 /ε/로 전승한 것은 무의식적(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갈로-로망(Gallo-Roman) 지방의 언어가 한 지방의 방언(patois)에서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한 지방의 파생 언어(dialect, 같은 어족에서 갈린)가 다른 지방의 파생언어로 이어지는 전승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언어적 감정”의, 다시 말해서 심층의 불연속적인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³²⁾임에도 불구하고 표층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이라

32) 1. “permanence”는 수동적이며 강요적인 도크사(doxa, urdoxa)로서의 “연속성”의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2. 한진숙, 「현상학」(서울: 민음사, 1996), pp. 88~269. “permanence”는 본래 수동적이며 강요적인 도크사(doxa, urdoxa)로서의 “연속성”의 의미지만 “단속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속성이 되기도 한다. 3. 이 단속성이 총체지속성 안에 투입되고 나면,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 지향성(intentionalität)의 단기지속성의 신화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치 점두사(un-wise), 점미사(kind-ness)와 같이 불변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을 그레마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Roland Barthes, Annette Lavers 역, 「Mythology」(New York: HILL and WANG, 1972), p. 109. “그러한 생각들이 신화적 대상들을 질료의 범주 속에 넣고 식별해내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면 완전히 착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일종의 파멸이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담화에 의해 운반된 공급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는 메시지를 운반하는 대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를 발설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결국 신화에는 형식적 한계가 있을 뿐이며, 질료적 한계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주는 끊임없이 암시 속에서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속의 모든 대상들은 폐포된 침묵의 실재로부터 사회에 의해 충당되도록 열려있는 구술영역으로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연적이거나 아니거나 대상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참조. 4. 본서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170~173. 그의 「구조의미론」 제9장의 “이질적 모델의 폭주를 예증하고 있는 행위주적 구조의 선택은 어느 발화자료체의 성격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강조할 기회를 이미 가졌었다. 파멸의 어느 표출이 3초의 간격에 의해 또는 300년의 간격에 의해 조만간 식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관계의 통시적인 성격 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의미작용의 표출 안에서의 통시적인 모든 것은, 비통시적으로, 몽땅 의미작용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는 우리의 습성에 의해 고찰된 의미작용 그 자체를 배제한다. 다시 말해서, 민담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소설로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작용 범주의 화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이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는 단기지속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고 생각했다. 역사언어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는 될 수 있는 한 멀리 거슬러 올라가 여러 가지의 편차와 유사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에 있었다. 반면에, 우리는 언어의 위치가 화맥(contexts) 속에 정위되어 있다고 하는 소쉬르

그것은 약간의 기본적 과장구조 때문에 단기지속성을 명시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구조와의 관계 속 두 번째 구조의 하위계열적 아티클레이션을 통해서 통시적이다. 어떤 통시적 자료는, 집합적이든지 또는 개인적이든지, “프랑스 언어사”의 표상이든지 또는 “말라르메(S. Mallarmé)의 생애의 표상이든지, 계층적 발판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단기지속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래에서 위까지 덧붙여진 구조적 단층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irreparable tempus)의 상징기호인 화살표와 함께 제공된 수평축에 전개된 어떤 통시적 발화자료체는 다소간 총체지속성(duration)의 장기·중기·단기로 분할되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단순한 상호관계는 구조의 계층적 단층과 총체지속성 사이에 확립된다.

통시적 발화자료체

구조(structure)	총체지속성(duration)			
문체론적(stylistic)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역사적(historical)	중기(average)		중기(average)	
기본적(fundamental)	장기(long)			

따라서 위의 도표는 통시적 발화자료체 안에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계층적 단층, 즉 기본적, 역사적, 문체론적 단층, 그리고 브로델(Fernand Braudel)에 의해 확인된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하는 총체지속성의 세 가지 유형을 식별한다. 그 상호관계는 그 자신의 상대적 총체지속성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구조는 조만간 정위될 것이며, 역사는 구조화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원리는 사학자로부터 차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통시적 집합적 발화자료체의 예는 과장처럼 보인다. 이러한 도표를 개인사의 측면에 이항시킴으로써, 우리는 기본적 구조와 구성적 범주 사이의, 예를 들어, 역사적 구조와 “어떤 개인사”의 통시적 변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본성”의 고전적 개념과 상응하는 것을 확립할는지도 모르며, 반면에 그 문체론적 구조는 구조적 반향을 가지고 있는 “긴장의 장면”에 기인한 변이를 고찰케 할는지도 모른다.”를 보라. 5.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칸트(I. Kant)의 “자유·의지=이율배반=가상세계”가 지향적으로 구성해가는 관점이다. 즉 물자체가 수동적으로 표상(경험론적) 되지만 다시 연역적(합리론)으로 구성해가는 구성설(構成說)의 관점이다. 또 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적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permanence는 “대자(주인)가 될 것이고, 표상 그리고 fundamental과 historical은 “타자(노예)”가 될 것이며, duration은 이 대자와 타자가 상호 인정하는 순간의 총체가 될 것이다. 즉 소위 신이 강림하는 “절대지”의 세계가 될 것이다. 6. 이는 또한 심리학과 논리학을 종합하고 있는 후설(E. Husserl)의 판단중지와 동시에 구성해가는 묘기의 지향적(자발적), 다시 말해서 빈사(술어)적인 환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12장에서 “history(중기지속성) vs permanence(단기지속성, 신화)”로 대비하고 있으므로 “단기지속성, 또는 신화”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이 신화는 공통단자, 본질직관(우연성 또는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의 자유변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반적이며 무제약적인 필연성의 선형 즉 순수조제(정적 a priori가 아니라 동적 “transzendenz”로서의 본질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판단중지에 의한 선형적 전환).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은 바로 이러한 지향성의 선형적 전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주)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Ferdinand de Saussure)의 혁명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자명하지 못하다. 우리가 “실재성(reality)”에 머무르고 있는 한, 음의 실체(substance)적·개인적·우발적인 면에서, 음소의 진술이 가능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포화(砲火)와 비교되는 산포영역보다 더 나아가 언어적 사실(그 유명한 “모든 것은 스스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또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언어)에 있어서 불연속성의 포착이 가능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현시점에서 의미작용의 문제에 접근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각의 단계(연속성의 단계)에서 불연속성의 존재가 나타나는 그 편차의 간극(가령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야성적인 사고」에서 화학과정의 결합을 예로 언급한 것처럼)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편차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 우리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가운데 의미작용을 창출한다.

노트: 우리가 아직 정의하지 못한 불연속성의 개념은, 의미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학에도 불연속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인식론적 목록 안에서 분석하지 못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는 하나의 전제이다.

2. 구조의 최초의 개념화

우리는 편차를 지각하며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형식을 취한다”고 하는 그 지각에 감사한다. 그러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편차를 지각한다”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1. 편차를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타난 두 대상의 텀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편차를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그 텀을 무언가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의 개념화(the conception of structure)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두 텀의 현존재(the presence of two terms)와 그 텀 간의 관계가 적용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시 2개의 결과가 생긴다.

1. 단 하나의 텀은 어떤 의미작용도 소유하지 못한다.

2. 의미작용은 두 텀 간의 관계의 존재자(the existence of relationship)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두 텀 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작용의 필요조건이다.

더 나아가 구조의 변덕(the notion of structure)에 관한 연구는 그 정의에 대한 원소분석을 요한다. 따라서 관계의 개념과 대상 텀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고찰할 필연성이 있다. 현존재(現存在, 또는 개시존재, presence³³⁾)라고 하는 표현은 이 레벨에서 분석될 수 없다. 실제적으로 그 현존재는 지각하게 되는 대상 텀의 존재자모드(the mode of existence)를 그 안에 포함한다. 그리하여 현존재는 지각의 바로 그 성질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분석은 최소한의 인식론적 원리에 따르면, 더 이상 언어학에 속하지 않는다. 현존재는 동시성의 개념과 동일하다. 비록 속세적인 성격을 제거한다 해도, 현존재는 인식론적 연속성과 동정(同定; identity, 동일률 또는 정체성, 또는 항등식; $3x=x+2x$ 는 x 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이와 같은 등식, -역주)에 가까운 비논리적 중복으로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3. 연언(連言, 또는 회합, conjunction)과 선언(選言, 또는 이접[離接], disjunction)

관계에 대한 이중의 진술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만 한다.

3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42~243. presence(현존재); 1. 현존재의 개념은 인식론에 속하며, 강력하게 형이상학적으로 함축(지각 “안”의 현상, 또는 지각에 의해 “노출된,” “정신 안”의 현상, 등등)된 사실에 의해 운반된다. 현존재의 존재론적 정의는 기호학 이론으로부터 제외된다. 2. 기호학적·투시도법적 실존재(“being-there”)는 인식론적 개념에서의 지식의 대상으로 변형된, 실재물(entity)에 귀속된 결과로 고찰된다. 근본적으로 작용적, 인식의 개념과 지식 대상 사이의 번역-전격관계의 이론적 구조로 확립된, 그러한 의미는 확장적(extensive, 광범위)이다. 가능한 모든 지식 대상은 이러한 경우 안에 나타난다. 그리고 실존재는 기호학적 존재자(semiotic existence)의 개념과 동정(同定)된다. 3. 그때 범주적 대당관계 “현존재(presence)/부재(absence)”는 두 개의 기호학적 존재의 모드의 구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계열체의 인식은, 계열체의 다른 구성 텀의 부재존재(an absent existence, in abséntia)를 포함(결합체-syntagme-적 연결고리 안에 나타난 in praeséntia- 텀 결에)한다. 계열체 축의 특성을 나누고 있는 부재존재는 내포적 존재(virtual existence)와 상응한다. 반면에 “현존재(praeséntia, praeséntia) 안의” 결합체적인 것은 사실상 일종의 현실적 존재이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그것은 분명히 존재 단위와 결합체적 강류 모드의, “실재적인” 단어 발생의 모드가 아닌, 예를 들어, 오로지 그 시니피앙의 실체로서의 철자(spelling)의 형태 안에 나타난 문제일 뿐이다. (역주)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1. 두 텀이 동시에 지각되기 위하여, 그것들은 공통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이것은 동정의 외연의 한 부분에 의해 만들어진 유사성의 문제이다).

2. 식별된 두 텀을 위하여, 그것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되어야만 한다(편차와 비동정의 문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지만, 무언가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금의 관계는 이중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언(連言)과 선언(選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기본구조

관계의 이러한 이중의 양상은 모든 언어학적 레벨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 α) interstate highway(국도) vs state highway(지방도)

bas(낮은) vs pas(걸음)

β) /b/(voiced, 유성) vs /p/(unvoiced, 비유성)

large(큰) vs small(작은)

처음의 두 예는 아무런 말썸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하고 있는 각 텀은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highway, -as)는 구조를 연언(連言)시키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interstate vs state, /b/ vs /p/) 구조를 선언(選言)시키고 있다. 마지막 두 예는 매우 단순·천진난만하고(simplicity) 지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다 더 미묘하게 나타난다. 만약 두 텀 사이의 관계의 존재자(the existence of relationship)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두 관계의 양상(연언과 선언)은 즉각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관계의 유형을 기본구조라고 부를 것이다. 사실, 더 이상 단독으로 의미작용을 보유할 수 없는 대상의 텀은 원소의 레벨이 아니라 구조의 레벨이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작용의 단위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호(signs), 구성단위, 기호소(moneme)라고 하는 것은 의미작용을 탐구하는 프레임 속의 오로지 이차적인 것일 뿐이다. 언어는 기호(signs)의 체계가 아니다. 그러나 의미작용 구조의 집단(명기된 유기적인 조직)이다.

5. 의미론의 축

기본구조는

bas vs pas의³⁴⁾

대당의 레벨에서가 아니라,

/b/ vs /p/의

대당의 레벨에서 구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러한 대당 관계가 음소의

“유성 vs 비유성”의

성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의 지위를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b/와 /p/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두 음소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위가 하나 또는 동일축의 유성성에 위치를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 유성성의 텀은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두 텀 가운데 한 텀의 속성(property)인 “유성”만을 추리하고, 반면에 다른 한 텀의 비유성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메타언어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결국 격상(格象, figure)³⁵⁾ 또는 문자의 표기에 의해 치환될 수 있는 기술 용어

34) 프랑스어 원본은 bar vs par가 아니라 bas vs pas로 되어있다. (역주)

35) 서구어에서는 “representation vs sign vs figure”의 의미적 식별이 분명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식별이 애매하다. 특히 “representation vs figure”의 식별이 더욱 애매하다. “figure”는 형상, 표상의 의미로, 그러면서도 시적 비유로서의 변형 등 여러 가지로 번역-전격될 수 있으나, “표상(representation) vs 형상(figure)”과 같이 그 번역을 대비해 놓고 볼 때 의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어가 서구어에 비해 철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아직 발달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에스키모족이 눈의 종류를 다양하고 미세하게 구별하는데 비해 한국어에는 그렇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득이 조어(造語)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논리학 용어와 언어학 용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사실 A. J. Greimas는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언가 하나의 진기한 시점이, 대당의 텀 스스로가 명시하는 그 내부에 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동일축의 양극으로서 스스로 표출된다.

그것은 의미론의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다음의

black(검은) vs white(흰)
 large(큰) vs small(작은)과 같은

대당은 우리에게 양쪽 텀에 공통의 시점을,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색채 부재의 시점을, 다른 한편에서는 물체 측정의 시점을 형식화하도록 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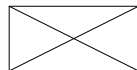
우리는 의미작용의 아티클레이션이 나타난 배경으로부터 나온 두 텀의 공통단자를 의미론의 축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 의미론의 축은 그 내부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아티클레이션을 총괄하고 포섭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figure”를 철학적으로 보다는 논리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직접추리는 대당관계(對當關係)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언삼단논법은 다시 식(formula)과 격(figure)으로 이루어진다. 식은 대전제 4개(A, E, I, O)×소전제 4개(A, E, I, O)×결론(A, E, I, O)=64개의 종류가 가능하며, 이것이 다시 4개의 격과 결합하여 256개가 된다. 격은 정언삼단논법의 3개의 개념 중 중명사(中名辭, 또는 매개념, M; Mean)의 위치에 따른 구별이다. 이러한 추리법에 따라 일종의 대전제와 소전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총체로서의 “격식(格式)”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연언(conjunction) 또는 선언(disjunction)에 의한 일종의 변형(transformation)으로서의 다른 형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즉 표출 면에서는 그 외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격상(格象)”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당관계는 모순대당, 대소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 등 네 가지가 있다. (역주)

1격(figure)	2격	3격	4격
M-P	P-M	M-P	P-M
S-M	S-M	M-S	M-S
∴ S-P	∴ S-P	∴ S-P	∴ S-P

AFFIRMO(긍정)	NEGO(부정)
첫 번째 모음 A, 네 번째 모음 I	두 번째 모음 E, 네 번째 모음 O

A명제 반대 E명제



I명제 소반대 O명제

/ 사선은 모순

6. 관계

의미론의 축의 적당한 단자를 찾기 위하여(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예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두 텀의 관계의 추리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론적 내용의 관계의 추리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A와 B로 대상 텀을 나타내고, S로 의미론적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A /...와의 관계(S)가 존재한다/ B

A와 B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1. 두 텀간 관계(r)의 존재의 긍정(affirmation)인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와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시퀀스(sequence).
2. 우리가 전에 의미론의 축이라고 추리한 의미론적 내용의 관계(S).
그 형식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 / r(S) / B

이제 이 형식이 여러 가지로 논리기호화하고 있는 언어학적 지위를 확실하게 하자.

대상 텀 A와 B가 대상언어와 담화(discourse)의 전개에 속하고, 지각행위로 포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의미론의 축 S는 A와 B에 공통된 유사와 편차를 동시에 재결합시키는 총화기술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S는 기술적 의미론의 메타언어에 속한다. 관계(r)로서, S는 최초로 해석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r)은 방법론적 언어에 속하고, 오로지 인식론의 레벨에서만 분석될 수 있다.

7. 의미소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우리가 관계의 내용(S로 추리된)을 메타언어학적으로 고찰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의미론 축의 작용적 표현은 관계 안에 포함된 또 다른 대상의 텀으로서의 의미작용의 많은 원소 안에서 방법론적인 걱정 없이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 그러한 원소들은 대상 텀의 속성처럼 고찰된다.

같은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성축(S)는 유성원소(s_1)과 비유성원소(s_2) 사이의 관계(r)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상의 텀 A(음소 /b/)는 속성 s_1 (유성)을 갖게 될 것이며, 반면에 대상의 텀 B(음소 /p/)는 원소 s_2 (비유성)를 속성으로 갖게 될 것이다.

/b/(유성) r /p/(비유성)

이것은 더 일반적인 형식

A(s_1) r B(s_2)의

오로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다.

따라서 이 형식은 어떤 유형의 관계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대상의 텀 사이의 관계

girl(소녀) r(성) boy(소년)는

다음과 같이 번역-전격될 수 있다.

girl(femininity, 여자다움) r boy(masculinity, 남자다움)

이렇게 선발된 의미작용의 여러 원소(s_1, s_2)는 야콥슨(Roman Jakobson)에 의해 변별적 특징(distinctive features)³⁶⁾으로 추리되었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었다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단지 변별적 원소(differential elements)라는 용어로 다시 번역되었을 뿐이다.³⁷⁾ 용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36) distinctive features: 특유의 소성(素性). (역주)

이것을 의미소(semes)라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본구조는 의미론 축의 형식으로, 또는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형식으로 파악되고 기술됨을 알 수 있다.

의미소기술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형식화된 단순성의 원리에 따르면, 실제적인 효율 면에서, 의미론 축의 목록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하고 또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 지적해야만 한다.³⁸⁾ 그래서, 야콥슨(Roman Jakobson) 자신의 예를 차용하면, 고대 아라비아어의 음운론적 기술로부터, 칸티노(J. Cantineau)의 계산에 의하면, 325개의 대당관계의 목록(우리는 오로지 축의 형식으로 기술된 대당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다)이 주어진다.³⁹⁾ 북 팔레스타인의 아라비아어 방언은 31개의 음소를 가지고 있고, 오직 9개의 2원 대당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See. Roman Jakobson, "Mufaxxama': The empathic Phonemes in Arabiac," in Studies Presented to Whatmough[La Haye]' pp. 105~115.)

8.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모드(modes)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존재자모드(또는 기술의 모드)는 오늘날 언어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종논쟁 중의 하나이다. 야콥슨(Roman Jakobson)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2원대당론(논리적 또는 작용적)의 지지자들은, 의미론의 축을 2개의 음소로 아티클레이션이 되고, 다음과 같이 애매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추리한다.

유표 vs 무표

37) Ferdinand de Saussure, Wade Baskin 역, 「일반언어학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New York: McGraw-Hill, 1959), p. 121. Roman Jakobson · Gunnar Fant · Morris Halle, 「파롤분석입문(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Cambridge, Mass.: MIT Press, 1961), pp. 1~4.

38)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 18.

39) Jean Cantineau, 「Cours de Phpnétique arabe suivi de notions générales de Phpnétique et de Phnologie)」(Paris: C. Klincksiech, 1960).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그러나 아티클레이션의 편차는 이미 이 레벨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유성 vs 비유성”을

우리는 유표의 경우(즉 양극의 한쪽에 나타난 의미소), 그것은 무표의미소(다른 극에는 부재)와 함께 관계 안에 존재한다고 취급하고 있다.

s vs \bar{s} ⁴⁰⁾

그러나 이 도식(schema)은 다음과 같은 2원 대당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소년(남자다움) vs 소녀(여자다움)

왜냐하면, 대상의 텀 소녀(이 텀은 그 자신의 바로 그 의미소 “여자다움”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다) 안에 의미소 “남자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때 아티클레이션은

“s vs 비s”로 표현될는지 모른다.

이것은 야콥슨(Roman Jakobson)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2개의 주요한 유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당의 경우

“large(큰) vs small(작은)”에서

40) 1966년의 “Sémantique Structurale”에서는 부정부호를 “-s”와 같이 표기했으나, 1970년의 “Du Sens I”부터는 “ \bar{s} ”와 같이 바꿔 표기하고 있다. 본 역은 그레마스기 이와 같이 표기를 전환한 그 취지를 살려, “-s”의 방식을 버리고 “ \bar{s} ”의 방식으로 소급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역주)

우리는 제3의 대당 텀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브뤼달(Vigo Brøndal)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본구조의 공리 안에서,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투로 해석될는지 모른다. 즉 양극의 의미소

“s vs 비s”를

다시

“조정적(措定的, positive)⁴¹⁾ vs 부정적(negative)”으로

추리하고 있는 브뤼달(Vigo Brøndal)은 제3의 의미소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s도 비s도 아닌 것으로 정의될 것이며, 그것을 그는 중립적(neutral)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의 아티큘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될 것이다.

조정적(措定的) vs 중립적 vs 부정적
(큰) (평균) (작은)

4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39. positive(조정적); 반대 축의 두 텀 s_1 과 s_2 는 각각 조정적(措定的)과 부정적으로 불려진다. 비록 이러한 자질이 방향적 인위지의(thymic connotations)인 행복감 또는 불쾌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속하고 있는 두 개의 직시(deixis)는 구별할 목적으로 단순하게 조정적(措定的) 직시와 부정적 직시로 지시된다. 더 나아가, 다른 직시에 각각 속하고 있는 소반대는, 그들이 소속된(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직시에 따라 그들이 모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시에 따라 조정적(措定的) (s_2)와 부정적 (s_1)로 불릴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조정(措定, posit)은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서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규정함.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어떤 규정성에 있어서 고정하는 일. 판단력을 통하여 어떠한 물건을 타당한 것, 존재하는 것, 현실적인 것, 참다운 것으로서 잠정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또는 가상적으로나, 결정적으로나, 상정(想定) · 규정(規定) · 고정(固定) · 긍정(肯定) · 주장하는 일. 정렬. 판단(분량, 성질, 관계, 양태) 가운데 성질(quality)은 다시 긍정적(affirmative), 부정적(negative), 무한성(infinite)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negative)”과의 대립인 ‘긍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affirmative’가 아니라 ‘positive’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조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positive(陽)=negative(陰)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역주)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다른 경우에, 삽입의미소는 s든지 비s든지 양극 중 어느 한쪽(그때 이것은 복합체라는 명목을 얻게 될 것이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다음의 관계대명사의 예

who vs that vs which에서

아티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는지 모른다.

조정적 (인칭적)	vs	복합적 (인칭적, 비인칭적)	vs	부정적 (비인칭적)
--------------	----	--------------------	----	---------------

다음에, 브뤼달(Vigo Brøndal)은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별도로 가능한 유형을 고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정적인 복합체와 부정적인 복합체는 그 의미소 복합체 안에서 하나의 의미소가 다른 의미소를 지배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2개의 이론적 입장(야콥슨[Roman Jakobson]과 브뤼달[Vigo Brøndal]의)은 먼저 일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모순은 오로지 겉모양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아티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오로지 브뤼달(Vigo Brøndal)의 공리(그 안에 함축된 의미소의 수는 계속 남아 있다) 안에서 합성되기 때문이다. 브뤼달(Vigo Brøndal)의 구조는 야콥슨(Roman Jakobson)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2원 대당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남아있기 어려운 혼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미작용, 즉 내재로서의 의미작용과 표출로서의 의미작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쌍의 포박(apprehension)과 개념화의 두 가지 다른 유형 사이의 편차를 예견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체로” 고찰되고 기술된 기본구조, 즉 어떤 화맥의미의 표면은 2원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론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명될 수 없으며, 언어의 인식론적 레벨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히려 언어학적 직감(present consensus) 때문이다. 그것은 2개의 의미소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다.

s vs 비s

그리고 우리는 의미소범주의 표현이라고 하는 추리에 의해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그것은 의미론의 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정밀하게 정의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브뢴달(Vigo Brøndal)의 중립의 텀과 야콥슨(Roman Jakobson)의 \bar{s} (의미소의 비존재는 의미소가 아니며 오로지 표출의미작용의 레벨에 등록될 수 있을 뿐이다. 2개의 일치하거나 편차 있는 의미소의 화맥은 제1의 화맥에서 의미소 s의 현존재에 의해 해석될 수 있고, 제2의 화맥에서 동일한 의미소 s의 부재(the absence)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그 부재를 관습적으로 우리는 \bar{s}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존재자(existence)를 이러한 레벨에서 합리적으로 도입하거나 공리로 전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상대적 구조로부터 구성된 의미작용의 단위로 고찰된 의미소의 존재자(the existence of semes)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표출 의미소의 텀은 의미소와 혼동되지 않고 있음이 틀림없다. 다음의 대조 도표는 보다 더 분명하게 편차를 설명할 것이다.

의미소의 텀	의미소의 내용
조정적 s	의미소 s의 현존재(presence)
부정적 비s	의미소 비s의 현존재
중립적 \bar{s}	s와 비s의 부재
복합적 s + 비s	의미소범주 S의 현존재

노트: 표출 복합의미소의 텀의 경우, 눈앞에 나타날(present)할 수 있는 2개의 의미소는, 브뢴달(Vigo Brøndal)에 의하면, 균형을 이루든지 또는 다른 쪽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든지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뒤에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인식론의 레벨에서 의미소범주와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 사이의 편차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기술절차의 레벨(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기술은 비교 가능한 화맥 안에 의미소의 텀을 등록하려고 하는 주연분석[周延分析]과 비교할 수 있다)에서, 의미소범주와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 사이의 기술을 명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연분석의 경우처럼, 의미소의 텀을 탐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찾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의미소 (s)의 비존재는 먼

저 우리가 그 의미소를 실존자(existent)인 것처럼 위치시키든지 아니 시키든지 하는 것만으로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복합체로 인식된 의미소의 텀은 이미 선언(選言) 의미소로 분석된 의미소범주의 지식(the knowledge)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 그 복합의미소의 텀은 어느 단일 의미소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의미소범주가 그것의 아티클레이션보다 우월하다고 언급하는 것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 그 기술이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기술은 아프리오리로 공준된 의미소범주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든지 또는 반박할 뿐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의미론적 기술은 메타언어의 구축이다.

9. 형식과 실체(Form and Substance)⁴²⁾

4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322. substance(실체); 1.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용어 중 실체(substance)는 의미작용의 목적을 위해 기호학적 형식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요지(purport)” 또는 “의미(meaning)”로 이해된다. 사실, 요지와 의미는 덴마크 언어학자들에게는 동의어이며, 기호학적 실체로서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좌하다(support)”의 의미로서, 그들 관점중의 하나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2. “의미”는 랑가주의 두 측면에 상응하고 있는 2개의 명백한 형식 안에서 그들이 아티클레이션을 만든 결과로서의 의미작용을 성취한다. 따라서 표현의 측면은 하나의 표현형식(an expression form)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표현된 실체(expression substance), 즉 내용의 측면(the content plane)은 내용의 형식(content form)과 내용의 실체(content substance)를 포함한다. 3. 기호학적 형식은 상수(invariant)이며, 기호학적 실체는 가변적인 것으로 고찰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몇몇 실체(예를 들어, 음성 또는 문자를 포함한 그림)에 의해 출현될 수 있는 형식을 언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음성 또는 그림과 같이 명백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inverse)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오해를 풀음으로써, 우리는, 예를 들어, 단순한 음성적 요지(의미)가 몇몇 형식(예를 들어, 문자 그대로의 또는 음악적 랑가주)을 가지고 있는 기호학적 실체로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할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몇몇 형식 스스로에 유용한 하나의 실체를 위하여 실현성을 배제한다. 4. 지식의 대상으로 주어진 실체는 판단과 분석의 약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현된 실체는 생리학적 아티클레이션의 레벨, 음향적 레벨, 또는 정신생리학적 청각의 레벨 어느 면에서든지 포착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용의 실체를 위하여 진실하고,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발음하는 사람(언외화자)의 레벨 또는 발음대상(언외청자)의 레벨에 지리가 잡힌 것으로 고찰될는지 모른다. 5.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있어서, 만약 형식이 기호학적 도식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관습의 한 세트”로 관측된 실체는 기호학적(또는 언어학적) 사용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내포언어의 엘름슬레우적인 개념의 최종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내포는 오로지 주어진 실체의 기호학적 아티클레이션일 뿐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표현된 실체, 예컨대, 우리가 이른바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로서의 “모음의 상징체계” 또는 “문장의 구조”를 발음할 때, “해석(interpretation)”으로 고찰할는지 모른다. 6. 그러나, 형식과 실체 사이의 특성은, 결국, 분석을 위하여 적절하게 선택된 레벨에서, 깊이 관계하고 의존한다는 것이 강조(엘름슬레우 [Louis Hjelmslev] 스스로가 이 점을 강조한다)되어야만 한다. 틀림없이 다산적인 이러한 대당관

어느 때는 의미론 축의 텀으로 또 어느 때는 아티클레이션 안에서 의미소로 고찰된 이러한 관계의 분석은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구조관계를 초월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재 그 유명한 색채 스펙트럼(Prolegomena, p. 53)의 예를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로부터 빌려오기로 하자. 의미론의 축(이것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은 보편성이 매우 높다. 즉 우리는 무색의 문명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자연언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역설할 수 있다. 그 축(English와 Welsh)에 있어서 2개의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의 비교는 다음 도식으로 표현된다.

	gwyRDD
green	glas
blue	
gray	llwyd
brown	

이러한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물론 그것은 색채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의미론의 축에 성격을 부여한다)은 세계의 서로 다른 범주일 뿐이고, 그것은 그들의 아종적인 특이성(specificity) 안에서 문화와 문명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언어아티클레이션에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내용의 형식(form of the content)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내용의 실체(substance of the content)로 포섭하고 있는 의미론의 축을 추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니다.⁴³⁾

계가 실체화(hyponatize)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는 형식에 다른 하나는 실체에 기초한 2개의 융합할 수 없는 미분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역주)

43)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p. 47~60. 한국어 번역으로는 김용숙·김혜련 역, 「랑가주 이론 서설」, 동문선 현대신서 77, (서울: 동문선, 2000), p. 71. “여러 언어들의 색깔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열체 이면에서, 우리는 편차를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이러한 후자의 변덕(notion, 내용의 실체)은 무언가 명확하게 아티클레이션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실체가 의미하고 있는 세계 안에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된 어휘화의 조력을 받아 접근될 수 있어야만 하거나 또는 포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한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우리는 이미 의미론의 축에 대하여 언급했을 때 이 점을 강조했다)이다. 그때 내용의 실체는 언어의 외적 실재(심리적 또는 물리적)로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형식과 다른 레벨에 위치한 언어적 표출의 내용으로 고찰되어야만 한다.44)

그때, 형식과 실체의 대당은 전적으로 내용분석의 내부에 위치를 잡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기 바랐던 19세기의 오랜 전통으로서, 시니피앙(form)과 시니피에(content)의 대당이 아니다. 형식은 실체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의미적이다. 이러한 엘름슬레우적 형식화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제거함으로써 무정형의 연속체를 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언어는 자의적으로 색깔의 스펙트럼의 경계를 세울 수 있다. 의미 구역이 현재 유럽의 주요 언어들에서 거의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웨일즈에서 '초록색'은 부분적으로 gwyrdd와 부분적으로 glas이며, '파란색'은 glas와 대응하고, '회색'은 glas 또는 llwyd에 '갈색'은 llwyd와 대응한다. 그것은 프랑스어의 초록색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의 영역이 웨일즈에서는 프랑스어의 파란색에 포함되는 구역에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선을 통과하고, 프랑스어의 초록색과 파란색의 경계를 웨일즈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파란색과 회색을 가르는 경계는 웨일즈에서 찾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에서 회색과 갈색을 대립시키는 경계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프랑스어에서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웨일즈에서는 둘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반은 프랑스어의 파란색과 다른 절반은 프랑스어의 갈색과 관련된다. 경계들의 상반을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도표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그리고 소쉬르와 엘름슬레우의 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역주)

	기 호	
소쉬르	청각영상(image acoustique)	개념(concept)
엘름슬레우	음성표현(expression phonique)	의미내용(contenu sémantique)
소쉬르	시니피앙(signifiant)	시니피에(signifié)
엘름슬레우	표현(expression) { 표현의 형식 표현의 실체	내용(content) { 내용의 형식 내용의 실체

44) 김종택·남성우, 저, 「국어의미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9), p. 10. 아래 도표 참조. (역주)

한국어	영어	말레이어
兄	brother	sudara
弟		
姉	sister	
妹		

하는 지지자들을 아직 갖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의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이 형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에 의미론 축의 총체는 실체를 시사한다. 따라서 분석초기에 제안된 어느 표의총체의 기술은 2개의 다른 측면(의미소적 또는 형식적 측면과 의미론적 또는 실체적 측면)에서 실행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는지 모른다.

형식과 실체가 분석의 선택된 레벨에 의지하고 있는 2개의 작용적 개념이 어야만 한다고 덧붙일 필요는 없다. 어느 레벨에서는 실체로 추리되는 것이 다른 레벨에서는 형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노트: 여기서 의미작용의 최소단위로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의미론 축에 적용될 의미소별주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의미론의 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구조로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내용의 실체적 단위”의 작용적 의미로 계속 사용할 것이다.

노트: Form(형식); 1. 형식(form)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양하고 변화 있는 용법은 실제로 서구사상의 전 역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기호학적 이론(semiotic theory. 또는, 좀 더 제한된 방식으로, 언어학적 이론들)에 이러한 개념을 귀속시킨 지위는 인식론적 기초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서 유래한 지식론의 저명한 지위를 물려받았다. “형식의 내부(in form)”에 있는 질료(matter, 그것은 형식을 부여한다)와 대당이 될과 동시에, 인식대상인 형식으로서의, 그 형식은 인식대상의 항구성과 동정을 보증한다. 이러한 기초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형식은 구조의 개념과 유사하다(cf. Gestalt).

2. 형식의 개념이 “도야(반성)된 사유로서의 대상(thought object)”이 될 때, 형식내부(informs)의 질료(matter)는, 매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따라서 둘로 분기하는, “의미(meaning)”와 “내용(content)”으로서의 의미론적 표류를 거쳐, 해석되고 확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의어가 된다. 불변성으로 고찰된 “기본 의미(base meaning)”는 음성학, 구문론, 또는 문체적 측면에 종속된다. 반대로, 의미가 아무것도 말하여질 수 없는 것과 관련된 것만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고찰될 때 (Leonard Bloomfield), 형식은 인위적으로 지정된다. 그것은 오로지 언어학적 분석으로만 종속된다(cf. 미국 구조주의).

3. 언어는 이러한 화맥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두 개의 실체 단위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Ferdinand de Saussure는 긍정(affirmation)하고 있다. 물질적 실체도 심령적 실체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들이 집합하는 장소로서, 형식은 의미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이다(Merleau-Ponty). 따라서 긍정된, 존재론적으로 독립된, 기호학적 형식은 언어학적(언어학은 이러한 형식의 응집성과 철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자율성의 지위가 부여된다.

4. 형식의 소쉬르적 개념에 대한 Louis Hjelmslev의 해석은 기호학적 메커니즘의 정체를 허용하며, 그 메커니즘은 인식론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을 모두 수용한다. 의미하고 있는 형식의 일원론적 형식화(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자연언어의 작시법적 범주만을 적용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반면에, 그것은 두 개의 실체의 각각에 적합한 형식의 존재자(existence)를 공리화하고 있는 것에 의해 폭이 넓혀진다. 다시 말해서, 표현형식과 내용형식은 따로따로 인식되고 분석되어야만 하며, 그들이 결합하기 전에, 그것은 기호학적 도식을 생산한다.

5. 언어가 가지고 있는 두 측면의 각각에 적합한 두 형식의 인식은, 일반 이론적 구조 안에서, 음운론과 표현형식 그리고 음성학과 실체의 연구 두 측면이 다시 위치를 잡는 것을 허락한다.(cf. -emic-언어·문화 현상 등의 분석·기술에 있어서 함수 면을 중시하는 관점에 관해서 말함-, -etic-언어·행동의 기술에서 함수 면을 문제 삼지 않는 관점에 대해 말함-). —A. J. Greimas·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21~122. (역주)

10. 의미소와 어휘소

구조의 바로 그 개념과 궁극적으로 동정된 관계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그 개념의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 안에서 동시에 관계로 제안(지각의 레벨에서)된 존재자를 대상의 텀에 할당할 수 있는 역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의미소로 분석될 수 있었던 관계를 보았다. 그것을 우리는 대상 텀의 속성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 귀착시키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rac{s(\dots \text{의 자산으로 존재한다}) A}{(\text{여자다움}) \quad (\text{소녀})}$$

반면에 러셀(Bertrand Russell)은 그것을 명사의 뒤에 위치한 것까지 포함하여 엄밀하게 만들어진 의미의 명목으로 분석함으로써,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물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물(things)은 상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⁴⁵⁾ 그러한 개념화의 내부에서, 사물은 여러 가지 속성으로부터 자립하고 있다. 그것은 물자체(thing in itself)로 그리고 불가사의(unknowable, 여러 가지 속성의 분석이 그 본질을 결코 자세하게 구명할 수 없다)한 것으로 존재한다.

45) Bertrand Russell, 「의미와 진리의 연구(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e)」(New York: Norton, 1940), p. 121.

그러나 사물(용어의 비언어학적 의미에서)을 기술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뿐이다. 따라서 러셀(Bertrand Russell)은, “만약 ‘이것은 붉다(this is red)’라고 하는 문장이 어떤 실체(substance)⁴⁶⁾에 성질(quality, 내포량, 명제의 질)을 할당하고 있는 명제(proposition)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실체가 그 할당된 성질 이외의 빈사(predicate)⁴⁷⁾가 합치된 총계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것과 저것은 별개의 것이 동정된 존재(being identical) 없이 각각 동일 빈사를 정확하게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Meaning and True, p. 120). 다시 말해서, 동정의 원리는 당해(當該)의⁴⁸⁾ 그 자신을 재발견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실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심리적 실체”의 기술을 가장하고 있는 의미론의 본질 쪽으로 우리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현상학적 측면

46) “things=thing in itself=unknowable=substance”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칸트(I. Kant)의 관점이다. (역주)

4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41~242. predicate(빈사, 賓辭); 1. 빈사는 전통적으로 발화를 구성하는 통사론적 함수 중의 하나로 고찰된다. 통사론적 강류로서, 빈사는 다소간 언외지언(verb, 형태론적 강류로 정의된) 또는 언외지언적 결합체(결합체적인 강류로 고찰된)와 상응한다(계다가 동정된 존재[being] 없이). 언어학의 이러한 세 형태가 서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은신처는 모든 문법이론을 위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2. 빈사와 발화의 경계성(실리)과 일치된 그 장소는 주어진 언어학적 이론이 진리로 자명하게 표명하는 기본발화구조의 개념에 의지한다. 가장 완강한 그 이원개념은 용어법적 변이(variation, 주제/빈사; 주제[theme]명인[rheme]; 화제 또는 대체[topic]/명인[comment], 등)를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그것”과 “그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의미론적 대당관계의 집합체 안에 안주시키는 대신에 옛것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결과 발화(언외발언[enunciation]을 근거로 취하지 않는)의 모든 문법을 위하여 빈사(predication)는 파롤 행위의 본질적 원소의 하나로 나타난다. 3. 다른 가정과 매우 흔하게 동반되는 발화의 이원적 성격의 선험적 선택은 다소간 함축적이며, 기본발화의 단일성, 즉, 모든 발화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단순 기본형식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확신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논리학은 오직 하나의 한정적 형식(“Peter가 잠을 자고 있다”)으로 발화의 집합을 축소한다. 좀 더 최근의 언어학이론(언리학[glossematics]과 마찬가지로 주연주의(周延主義, distributionalism[일반문법으로 추구된])은 결합체적 강류 상에 기초된 통사론을 구성하는 것으로든지 또는 주체에 빈사를 연결하는 끈의 반의미론화에 의하든지, 즉, 유일한 전제조건을 추상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의하든지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4. L. Tesnière와 H. Reichenbach에 따르면, 우리는 발화의 인식론적 관계로, 즉 행위주인 마지막 텀을 함수로 이해한다. 계다가 우리는 두 가지의 기본발화 형태(이러한 발화의 빈사-관계의 두 가지 형태), 즉, 실행(doing)의 발화와 상태(state)의 발화를 식별한다. —빈사(賓辭); 명제에 있어서의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 예컨대, “소는 동물이다”에서 ‘동물’ 같은 것. 빈개념(賓概念), 객어(客語)↔주사(主辭). 주연(周延, distribution); 형식논리학에서, 판단의 주장이 그 개념의 외연의 전부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개념의 상태를 이르는 말. 예를 들면, “모든 등변삼각형은 등각삼각형이다” 등에서 ‘등변삼각형과 등각삼각형’은 주연되어 있다고 함. (역주)

48) in question: 당해(當該)의, 문제의. (역주)

에, 즉 언어학적 측면에 머무르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리고 성질이 사물을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의미소 s 는 대상의 텀 A 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의 하나이며, 속속들이 그리고 남김없이 분석한 끝에 그 A 는 의미소 s_1, s_2, s_3 등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대상의 텀에 대해서 어휘소(lexeme)라고 하는 명목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어휘소는 대상언어에 속하고 파롤 안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대상언어는 별도의 체제에 속하는 언어단위로 존재하며, 기본구조의 정의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11. 구조의 제2의 정의

구조의 정의로부터 대상의 텀(어휘소)을 배제하는 것은 새로운 조정(調停, arrangement)⁴⁹⁾을 요구한다. 선행논고에 따라 언급하면, 구조는 2개의 의미소간에 아티클레이션이 된 관계의 현존재(presence)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의미작용의 존재자 모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의미소범주는 대상언어 안에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오로지 대상언어 밖에서만 형식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첫눈에 우리를 놀라게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과 그다지 멀지 않거나 적어도 우리의 작용방식과 그다지 멀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가 명령법, 직설법, 가정법의 세 가지

49) arrangement(조정, 調停): 1. 순열·조합(permutation; combination);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른바 수학으로서의 순열·조합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12세기의 인도의 수학자 A. 바스카라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인데, B. 파스칼, G. W. 라이프니츠, J. 베르누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체계가 수립되었다. 2. 사전적인 의미는, 순열-주어진 물건 가운데에서 몇 개를 취하여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 일, 조합-여러 개 가운데에서 몇 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열은 순서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전이 2개 있는데 앞뒤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앞, 앞) (뒤, 뒤)=3가지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뒤, 앞) (앞, 앞) (뒤, 뒤)=4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조합이고, 후자가 순열이다. 전자는 (앞, 뒤) (뒤, 앞)이 같은 경우로 보고, 후자는 (앞, 뒤) (뒤, 앞)을 다르게 본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조정(調停)과, 순열·조합 모두를 엄두에 두고, 'arrangement'를 사용하고 있다. (역주)

서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s와 비s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2개의 의미소로 표현된 프랑스어의 서법의 축을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다.

$$\frac{\text{명령법}}{s} \text{ vs } \frac{\text{직설법}}{s\text{도 비}s\text{도 아닌}} \text{ vs } \frac{\text{가정법}}{\text{비}s}$$

이러한 의미소범주는 프랑스어(각각의 의미소는 수많은 의미소로 실현된다) 안에 본래부터 존재한다.

노트: 우리는 프랑스어 서법의 범주의 해석에 대한 어떤 근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전체와 부분

그러한 구조의 개념화는 아직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우리는 의미론의 축이 다소 분석적으로 그 의미로부터 벗어난 의미원소를 포섭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역설했던 기회가 이미 있었다. 우리는 의미소범주에 관하여 전체라고 언급할 수 있고, 그 의미소는 부분으로 고찰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 전체와 그 구성단위가 구조 그 자체의 정의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이 관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 같다.

우리는 현대 언어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태도의 관계를 오히려 역설적 애티튜드(paradoxical attitude)⁵⁰라고 특별히 언급할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그의 언어학 이론의 질서 안에 그가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정향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지 않고, 그의 구조에 대한 정의(Prolegomena, pp. 28~29) 안에서 부분에 대한 전체의 관계를 통합하고 있다. 임브스(Paul Imbs)와 같은 문법학자는 분석 안에 전체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⁵¹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기체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욕망으로서의 불완전한 의욕(velleity)으로 의심받을 위험

50) attitude: 발레에서 한 발을 뒤로 든 자세. 즉 그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환원의 원리, 또는 격상(figure)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결합구조(syntagmatic structure)와 다르지 않다. (역주)

51) 예를 들어, Paul Imbs, 「Analyse linguistique, analyse philologique, analyse stylistique」(Strasbourg: University of Strasbourg, 1958)를 보라.

이 있다. 요컨대, 인간과학은 일반가치의 해석적 개념으로 고찰된 전체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나쁘게 악용하고 있다. 그것의 신화적 성격은 명백하다.

이러한 종류의 오해를 피하고 동시에 개념적 도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정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전체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의미소와 그 의미소가 속하는 의미소범주 사이의 관계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의미소의 단일범주 간 반대의 관계(선언과 연언) 안에서, 의미작용의 기본구조가 정의되고, 게다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개개 의미소 사이의 하위개념적(hyponymic) 관계 그리고 전체의미소범주에 의해 정의된다고 언급할 것이다.

노트: 이러한 관계의 실제적인 사용은 정위(定位, orientation)라는 용어의 도입을 요구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의미소로부터 출발하면, 그 관계는 하위개념적(hyponymic, hyponymique)으로 추리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범주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상위개념적(hypernymic, hyperomique)으로 부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본구조 안에 위치한 관계를 하위개념적이라는 용어로 계속 유지시켜야만 한다는 것에 유념할 것이다. 그 자체 안에서 고찰된 동일한 관계, 즉 그것이 한 가지 또는 오로지 단일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의미소의 여러 가지 원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고찰된 동일한 관계는 하위계열적(hypotactic, 또는 상위계열적 hyperotactic)으로 호칭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개념화가 단일성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환유개념의 이법(理法)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트: orientation(정위, 定位); 1. 아마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메타논리 또는 내포기호학적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관적 개념인 “정위(orientation)”는 다소간 이행성(移行性)의 또는 제사법(制辭法, 直, 正의 의미로 rectitude-진정, 청렴, 정확-와 같이 연결형으로 사용되는)의 언어학적 개념을 떠올리며, 인식론 안에서 지향성의 개념과 상응한다.

2.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Louis Hjelmslev의 은유적 표현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는 지배하고 있는 텀으로부터 지배받는 텀으로 이행하고 있는 “논리적 활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활동”은 두 텀 사이의 관계의 비대칭적 그리고 비역행적 성격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행은 주체로부터 대상 “쪽으로” 또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해석은 “정위(orientation)”의 인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결정한다. 반면에 그 논리로부터 부여된 해석(첫 텀의 심리학적 “강도”에 의해, 또는 뇌 속의 “흔적”의 충격에 의해-B. Russell)은 모호하게 유지되고 또 Louis Hjelmslev의 은유보다 더 낮지는 않다.

3. 한 예는 어떤 무엇의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조력이 될 것이다. 수직 축 상에 위치한 두 개의 실제 x 와 y 는 그들을 결합하고 있는(그것은 대칭관계이다) 위상관계(位相關係,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종류의 집합족)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그 실재는 그들 관계의 성격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두 실재가 발설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y 위에 있는 그 x 라고 하는, 두 텀 사이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 관계는 비위상적이다. 실재 y 는 소재 정위된 관계(x 쪽으로 정위된)의 시발점이 된다. 반면에 그 담화 순서는 x 로부터 y 쪽으로 간다. 따라서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위상관계에 첨가된 추가적 그리고 한정적 투자를 구성하는 정위라고 언급될 수 있다. 같은 의미서, 비-정위된 변형(non-oriented transformation, 그것은 두 체계 또는 두 변화과정에 속하는 두 단위 사이의 상호관계이다)은 정위된 변형(oriented transformation, 발생론적 또는 역사적)과 구별되는 것이며, 그것은 뒤집혀지지 않는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pp. 221~222. (역주)

노트: 'orientation'의 어원도 참고하라. 정위 또는 정향(定向, orientation): 'orientation'은 "떠오르는 해"라는 뜻의 라틴어 'oriens' 또는 'orientum'에서 유래. 건축에서 동서 방향의 축과 관계되는 건물 위치.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 신대륙으로 발견되기 전의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입구나 통로 등 건물의 중요부분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정향은 종교적이나 실제적인 이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이슬람교도들은 어느 방향에 있든지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이에 따라 기도소인 미라브(mihrab; 모스크의 네 벽 가운데 Qibla, 즉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기의 벽에 있는 기도 벽갑[壁龕], 즉 장식을 위하여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으로서 등간이나 조각품 따위를 세워 둔다)가 메카를 향하도록 모스크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보통 제단과 에프스(apse, 後陣; 보통 교회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가 동쪽에 있지만 항상 이 방향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설계에서는 로마에 있는 구(舊) 성베드로 대성당과 같이 교회가 서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건축계획에서는 흔히 하루 중의, 그리고 계절중의 일사량(日射量)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 정향을 고려하므로 구조물의 적정한 정향이란 결국 건물의 기능, 위치와 열 · 빛 · 습도 · 바람 같은 중요한 환경요소간의 절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역주)



제3장 언어와 담화

1. 의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것처럼 의미작용의 구조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표출된다(즉 지각과정 중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의 표출조건을 모두 통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즉 시니피에가 시니피앙을 재발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사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접합(또는 덴마크적 용어법을 채택한다면, 표현측면과 내용측면의)은 음소와 어휘소로 나타나는 담화의 최소단위의 원인이 된다. bas(ba, low, 낮은, 유성음)의 표출 안에서, 그것은 표현되지 않은 pas(pa, 한 걸음, 무성음)의 존재를 포함하고,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이중전체는 실현된다. 왜냐하면 /b/는 시니피앙의 이산적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bas vs pas의 화맥 안에서 /p/와 대당이 되고 있는 /b/는 의미편차의 창조자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as(low)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b/ vs /p/의 대당이 먼저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시니피앙의 분석은 시니피에와 관련 없이 불가능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은 그들 결합의 최종논쟁(ultima ratio)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개의 서로 다른 관측은 형식화되고 또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1. 먼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두 측면 간 동형성(isomorphism)의 부재(두 측면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는 동일차원이 아니다)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두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단위는 동치(同値, equivalence)가 아니다. 그것은 어휘소에 상응하는 음소가 아니지만, 그러나 음소의 결합이다. 따라서 두 측면의 분석은 개별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같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언어의 두 측면(two plane)을 위한 최소단위(minimal unit)인, 다시 말해서 언어의 두 측면을 위한 최소단위인 시니피앙을 위한 격상소(格象素, pheme⁵²)의 존재자

5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32. pheme(격상소); 1. Bernard Pottier는 용어 격상소(pheme)의 용법을, 의미소(seme)와 대비해서, 내용측면(the content plane)의 생김새, 즉 표현측면의 특색 있는 생김새를 지시하는 것으로 시사했다. 이 새로운 명목은 보다 더 단순하고 언어의 두 측면의 단위 사이에 확립된 유용한 특징을 허락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상소는 격상소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의 마지막 텅일 뿐이다. 그것이 메타언어의 측면(이것은 구성된 것이다)에서 최소 단위의 예외로 고찰될 수 없는 이유이며, 그

와 시니피에를 위한 의미소(eme)의 존재자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구성음운의 대당이 보다 큰 단위 내에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의미는 대개 부정적 의미일 뿐이며, 오로지 의미의 가능성일 뿐이다. 부연하기로 하자. 만약 bas vs pas의 대당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표출될 것과 포함되어 남아있게 될 것 사이에 선택된 모든 것이 위치를 잡게 된 장소) 중 의미의 출현을 bas(low)에 귀속시킨다면, 우리는 화자에 의해 만들어진 bas(low)의 선택(Le ciel est bas[하늘이 낮다]/Le plafond est bas[천장이 낮다])은 어느 가능한 방법 안에서 또는 그것과의 관계 안에서 어휘소 bas(low)의 제한적인 현존재(restricting presence)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언급할 수 없다. 반대로 bas(low)의 표출은 pas(한 걸음)가 아니라 그 안에 haut(high, 높은)를 감추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어학과 병행하고 있는 분야(정보이론과 같은)로부터 차용한 개념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의와 함께 이미 설명했다. 그것은 자연언어로부터 부호가 전환된 시니피앙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로 오로지 간주할 뿐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은 삼입구적 의미작용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어의 길이와 정보량 사이에 확립되기 원할지 모르는 유의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노트: 그레마스[A. J. Greimas]가 사용한 예는 bas vs pas[음소로서]와 어휘소로서의 bas vs haut[low vs high]이다. 우리는 이 단락 안에서 그의 펀[pun]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하여 영어 pale과 bale을 선택했다. 그러나 다음에 그의 관자놀이-공간적 형용사들은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영어역자)⁵³⁾

리고 어느 실체(substance)에도, 어느 실재(reality)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격상소의 범주는 표현측면(또는 더 정확하게, 그 form)의 구성의 관점으로 사용된 의미론적 범주와 다른 것이 아니다. 3. 격상소 범주의 이러한 추상적 성격은 R. Jakobson이 음운론적 세계(이러한 범주의 계층적 구조와 마찬가지로)의 존재자를 공리화 하도록 허락한다. compact(빽 차다)/diffuse(흩어지다), grave(저음 악센트)/acute(예음 악센트) 등등과 같은, 12가지 이원 대당적 격상소의 범주는 모든 자연언어의 표현측면의 아티클레이션을 고찰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R. Jakobson의 공리는 우리의 관점에 유용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시사(그 범주는 필연적으로 이원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되었다. 만약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조건명제의 명석 판명한 전제라고만 한다면, 주어진 기호학적 조직으로 보이는 원리의 보다 더 나은 이해를 허락할 것이다. (역주)

53)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프랑스 원본에 따라 bas vs pas, bas vs haut를 선택했다. (역주)

따라서 일단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현된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접합은 언어의 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의 분석 안에서 적어도 진전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분해 되고 마는 운명에 처해진다.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시니피앙의 연구를 위해 시니피에를 그리고 시니피에의 연구를 위해 시니피앙을 이용하고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necessity)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의 텀에 할당한 역할이다.

2. 의미소의 체계

따라서 어휘소 bas(low)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생기는 대당으로서의 대당 어휘소 pas(한 걸음)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bas vs pas는 식별구조(음소구조)이며 의미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

1. 보다 넓은 총체 안에서, 우리가 전에 연구했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아티클레이션이 되는 것일까?

2. 어휘소로 또는 일반적으로 담화라 불려지고 있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소의 결합(combination lexemes)으로 실현된 표출의미소의 측면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구조의 지위는 어떤 것일까?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bas(low)와 대당이 되고 있는 pas(한 걸음)가 실은 haut(high)와 대당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bas와 haut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시차적(視差的) 간극(the differentiating gap)은 시니피앙의 측면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bas vs pas의 경우와 같은 음운의 대당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항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즉 표현 레벨에서의 시차적 간극의 기술은 체계의 배제를 확고하고 철저한 것으로 구성할 것이며, 의미작용의 측면에서 가장 최소한의 처신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작용의 편차는 시니피앙의 편차로부터 추론되지 않으며, 의미의 기술은 다른 레벨에 위치를 잡고 있는 메타언어활동에 의존한다. 그리고 일종의 내재적 언어논리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의미작용의 구조적 아티클레이션의 법칙에 종속한다. 다른 모든 가능한 논리와 관계에서 우월한 이 논리는 오로지 검증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즉 그것은 시니피앙의 편차를 기술하

고 있는 것에 의해 구성된 체계의 배제와 함께 그 발견자에 의해 확립된 조정적 의미작용의 체계를 상호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예들은 모두 그들의 독단적인(arbitrary) 성격 때문에, 그리고 검증절차의 결여에 기인하여 불완전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예기할 수 있는 반론은 대개의 경우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론적 기술 가능성을 숙고한 후에, 우리는 의미작용의 기술절차에 집중하든지 검증절차를 간과할 위험을 소유하든지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즉 의미론적 기술 그 자체를 정착시키고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공리와 개념적 기초를 위한 일반 인식론적 조건을 통하여 본질적인 것을 일제히 망각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우리는 그들이 의미 분야에, 그리고 음운 대당의 기술, 주연분석(周延分析) 등의 방법에 적용되면서 순서를 바꾸어놓는 방식으로 고쳐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그 예는 생각을 명시하기 위하여 선택될 뿐 다른 무엇도 입증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외삽법(外挿法)에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맡고 있는 제한 영역 안에서 “진리(true)”까지도 필연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bas와 haut 간 의미의 대당으로부터 출발하는 다음 표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표현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대당의 명사 안에 생긴 것과 같은, 명확하고 직증적(直證的)인 아티클레이션을 우리의 고찰로부터 배제할 것이다.

le haut vs le bas

형용사적 양상(aspect) 안에서, haut vs bas의 대당은 2개의 의미소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관계정량(關係定量, relative quantity)”의 조력을 받아 해석될는지 모른다. 분별력의 2원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대정량(大定量, large quantity)” vs “소정량(小定量, small quantity)”은 다양한 의미소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상적인 명사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화자에 의해 운반된다. 그러므로 동일 범주와 동일 의미소의 텀은 다음과 같은 어휘소적 결합으로 표출된다.⁵⁴⁾

haut vs bas
 long(long) vs short(court)
 wide(large) vs narrow(étroit)

범주 “관계정량”의 의미소적 분석을 책임질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2개의 대당 어휘소로 추리된 의미소 “대정량”을 몸에 지니고 있는 단일어휘소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의미소적 대당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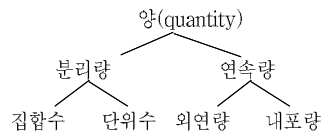
이렇게 이탈함으로써, 대당관계를 견지하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의미작용의 축에 대한 문제가 보다 더 단순하게 된다.

high(haut) vs long(long) vs wide(large) vs vast(vaste) vs dense(épais)
 (높은) (긴) (폭이 넓은) (면적이 넓은) (밀집한)

이러한 축에 “관자놀이-공간성(spatiality)”이라는 명목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최초의 이분법적 분할이 2개의 양상을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추리될 수 있는 간격(space, espace)과 넓이(compass, étendue) 사이의 어휘화된 대당관계에 의해 프랑스어 안에 나타난다.

차원성 vs 비차원성
high vs long vs wide vs vast vs dense

54) 양(quantity)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역주)



- ① 외연량: 넓이, 길이, 무게, 부피, 주사(主辭)의 양, 직관.
- ② 내포량: 온도, 농도, 명도, 비중, 명제의 질, 범주,

예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비1차원성의 분석을 중단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의미소 “1차원성”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아티클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의미소의 축으로 고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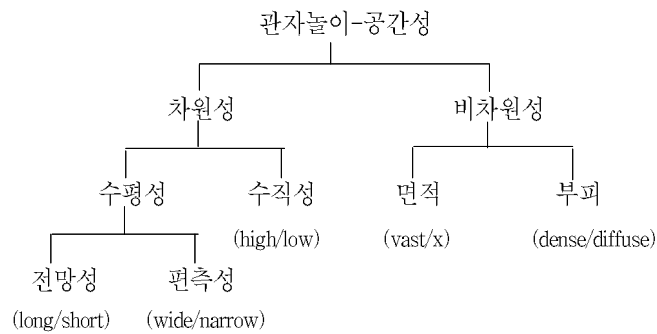
$$\frac{\text{수직성}}{\text{(high)}} \text{ vs } \frac{\text{수평성}}{\text{(long vs wide)}}$$

하나의 축으로 고찰된 의미소 “수평성”은 다음처럼 추리될는지 모르는 새로운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frac{\text{전망성}}{\text{(long)}} \text{ vs } \frac{\text{편측성}}{\text{(wide)}}$$

노트: 적어도 프랑스어에서, 우리는 화자가 이탈리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망 안에” 위치를 잡고 있는 치수로서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long의 이탈리아(수많은 다른 것들과 필연적인 것들 사이의)을 신출할 수 없다.

모든 이러한 아티클레이션은 다음 도표로 요약된다.



이러한 도표는 의미체계의 관자놀이-공간성이라 호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비차원성은 매우 불완전하여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제3장 언어와 담화

1. 만약 진화가 허락된 사고의 연속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고가 프랑스어의 언어라고 하는 표의총체 안에서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자연”에 대하여 다소간 의식적으로 추측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단순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아프리오리로서의 자연은 모두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측이 기술 안에 주관적 원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반론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2. 방법론상의 두 번째 단계는 시니피앙의 시차적 간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주적 아티클레이션의 행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짓 없이 검증절차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명백한 사실(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은

high vs vast vs dense의

어휘소적 대당관계가 시니피앙의 레벨에서 표출된 대당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최초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형식화하도록 허락한 시니피앙의 시차적 간극의 존재자를,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소의 대당관계의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다.

차원성 vs 면적 vs 부피

노트: 토게비(Knud Togeby, 어휘론 논총 VI, Cahiers de lexicologie VI에서)는, 그의 논고에서, 여기서 취급한 관자놀이-공간적 어휘소의 특수행위와 관련된 얼마간의 추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검증절차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당연하므로 우리는 그의 관점에 전적으로 찬성할 것 없이 진행할 것이다.

3. 우리는 그 획득된 결과가 의미론적, 즉 메타언어학적 기술이라는 사실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그 명목이 프랑스어로부터 차용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소와 의미소범주는 파롤 안에 표출된 어휘소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노트: 우리는 한 부분도 남김없이 기술된 체계를 방해하고 있는 의미소범주의 “관계정량”의 존재를 처음부터 설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뒤에 다시 돌아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의미소와 어휘소

의미소체계와 그 원소들의 어휘소적 표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의 도표적인 조정을 다음의 도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휘소 \ 의미소	관자놀이-공간성	차원성	수직성	수평성	전망성	편측성
high(haut, 높은)	+	+	+	-	-	-
low(bas, 낮은)	+	+	+	-	-	-
long(긴)	+	+	-	+	+	-
short(짧은)	+	+	-	+	+	-
wide(폭이 넓은)	+	+	-	+	-	+
narrow(좁은)	+	+	-	+	-	+
vast(면적이 넓은)	+	-				
dense(밀집한)	+	-				

이 도표는 다음의 관찰을 암시한다.

1. 보는 바와 같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어휘소는 약간의 의미소의 존재자와 또 다른 의미소의 부재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 그 부재는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휘소로부터 주어진 어휘소를 시차적(視差的)으로 구별 짓고 있는 공통의 의미소의 기저 안에 그 의미소들의 대당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표출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휘소 high/low는 어휘소 long/short, wide/narrow 안에서 의미소의 부재와 대당관계가 되어 있는 의미소 “수직성”의 존재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 후자(long/short, wide/narrow)는 의미소 “수평성”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의미소의 대당관계는 어휘소간의 선언(選言)을 달성한다.

2. 다른 한편, 상단 6개의 어휘소는 의미소 “차원성”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거기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미소는 두 어휘소간의 연언(連言)관계를 확립한다. 이어서 선언(選言)의 수반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언급은 담화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미소적 서스펜션(semic suspension)”⁵⁵⁾의 현상(現象, phenomenon)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든다. 다음의

“소정량 + 관자놀이-공간성 + 차원성”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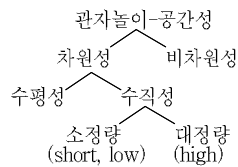
연언(連言) 의미소의 존재자는 다음과 같은 “수직성 vs 수평성”이라고 하는 의미소의 대당관계의 어중간함을 허락한다.

short legged(court sur pattes) ≠ high-waisted(haut de taille)

3. 만약, 이 도표를 종적 비교에 의해 분석하는 대신에, 횡선상의 의미소 사이에 존재할지 모르는 관계를 비교한다면, 그 어휘소는 의미소가 집적(集積)된 것(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비교하는 도표의 흐름에 따르게 된다면, 즉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읽어 나간다면, 의미소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휘소는 일련의 상위개념적(hyperonymic) 관계로 해석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의미소를 읽어 나간다

55) “suspension, 현연법(懸延法); 이야기의 결말을 질질 끌어 독자의 기대(불안)를 고조시키는 것.” 또는 “긴장”으로 번역되겠지만, “서스펜션”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낫겠다. (역주)



면, 다시 말해서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의미소의 관계가 하위개념적(hyponymic)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 결과는 이러한 관찰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a. 한편으로는, 그 어휘소가 단순 의미소의 집적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계층적 관계에 의해 함께 연결된 의미소의 총체로 나타난다.

b.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휘소 안에 등록된 의미소간 관계의 동일유형은 또한 담화의 보다 큰(보다 더 복잡한) 단위의 어휘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적 차원(vertical dimension)과 같은 담화의 시퀀스 안에서, 어휘소 차원과 어휘소의 종축(vertical)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의 관계는 상위개념적 관계이다.

4. 담화의 측면

지금까지의 관찰은 대부분 의미작용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존재자모드(mode of existence)의 보다 더 충분한 이해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행위 안에서 이러한 구조적 현존재모드(mode of presence)의 문제를 간신히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대부분 일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작용하고 있는 의미세계의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의미작용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운동 그러나 제약적 자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의 속박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그 자체로 완벽하고 또 충족한 행위로 고찰될 수 있는 발화(utterance)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형식화된 것으로서의 그 자유가 제약으로서의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오로지 시제적·양상적(aspectual)·서법적 범주의 제약적 구조 내에서만 고찰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미론적 범주 안에서 자유는 의미소적 선택의 총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명백하게 의미론적으로 피복(被覆)된 발화를 구성할 것이다.

다른 한편, 화자를 에워싸고 있는, 실현된 메시지의 사상(事象) 안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조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적 그리고 “자연적” 세계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자유는 관습에 의해 제약되고, 언어학적 측면에서, 그것은 반복에 의해 표현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메시지는 그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그 주어진 장면에서 적응한다. 라캉(Jacques Lacan)의 부연에 의하면, 우리는 두 종류의 광기가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고양된 총괄적 자유로서 결국은 비커뮤니케이션으로 귀착하는 정신분열증, 다른 한편으로는 크노(R. Queneau)의 “너는 말한다, 너는 말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정,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정보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 담화이다.⁵⁶⁾

전적으로 평범한, 이러한 고찰은 담화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휘소의 내부조직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표출문제가 보다 더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지금까지의 예들은 어휘소 high/low, long/short, 등의 의미소적 합성을 매우 불완전하게 반성했을 뿐이다. 어휘소로서, 그들은 특권적 경우(case)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언급한다면, 그들은 의미작용의 구조에 너무 가깝게 접근되어 있다. 그들은 의미소 체계의 조직을 너무 잘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정량적 인식이 아티클레이션의 관자놀이-공간성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질적 원소의 존재자에 의해 이미 방해받고 있다. 관자놀이-공간성과 정량성 이 두 가지 의미소 체계를 방해하고 있으며 또 동일 어휘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자, 아니면 반대로, 어휘소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두 예는 어휘소의 의미소적 조직의 어떤 양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어휘소의 의미소적 분석을 제안하고 있는(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것에 의해 의미론적 기술의 문제를 묘사하려고 하는 포티에(Bernard

56) Jacques Lacan, Anthony Wilden 편역, 「대자(對自)의 언어(Language of the Self)」(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9), pp. 42~43에서 “심리학에서의 언어의 함수,”를 보라.

Pottier, Recherchs l'analyse sémentique en linguistique et en traduction mécanique)로부터 차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어휘소 안락의자는 다음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안락의자 { 등이 있는(vs 등이 없는 의자)
 팔걸이가 있는(vs 팔걸이가 없는 의자)
 앉기 위한(vs 입식 테이블)

전적으로 그와 동의하지 않지만(특히 “등이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앉기 위한”이 의미소로 고찰 될 수 있는, 즉 최소 단위로 고찰 될 수 있는 사실에), 우리는 2개의 이질적인 의미소체계(관자놀이-공간적·시각적 체계와 “함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확인의 뜻이 분명치 않은 의미작용의 분야)의 집합점을 명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포티에(Bernard Pottier)의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의미소적 원소들은 하나의 단일 어휘소 안락의자와 함께 일반화할 것이다.

두 번째 예는 프랑스어의 형태론에서 얻어진다. 관사 la(the)라고 하는 형태어휘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미소로 분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몇 형태론적 범주의 혼합주의로 고찰된다.

단수 + 여성 + 한정(限定)

이번에는, 이러한 의미소들이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미소범주의 텀이라 호칭될 것이다.

수(數) + 성(性) + 결정

형태어휘소 les(the[복수어])의 분석은 오로지 의미소 “수”와 “결정”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법학자들이 동의하도록 강제한다. 반면에 의미소 “성”은 표출로부터 결여되어 있다. 무언가 다르게 감지하고 있는 이것을 형식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존재 “성”이 현존재 “수”와 “결정”을 전제하고 있는 특별하고 제한된 경우라고 또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어휘소 안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의미소체계

에 속하고 있는 의미소간 계층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이전의 언급을 완성하도록 그리고 어휘소의 좀 더 정밀하고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도록 허락한다. 그 어휘소는 서로 다른 범주와 의미소체계로부터 분출되고 있는, 그리고 계층적·하위계열적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의미소의 표출과 충돌의 장소이다.

그러나 그 어휘소는 역사적 충돌의 장소이다. 사실, 고착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휘소는 사건의 상위목류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자격으로 역사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의 진행으로 어휘소가 새로운 의미소와 함께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단의 경우에, 다른 것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한 행위(통시성은 5세기 동안에 일어나는 것과 단 5초 안에 일어나는 총체지속성[duration]과 동일하기 때문에)를 분리하고 있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역사는 어휘소가 소유하고 있는 얼마간의 의미소를 비우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다락방의 행복감을 지하실의 고뇌에 대조시키면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적 담화는 잠정적으로 그래서 의미소적인 허약함으로, 그러나 약간의 중복적 의미소범주를 강력하게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⁵⁷⁾

그때 그 어휘소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불변적(immutable) 단위는 아니다.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안정성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폭넓은 단위 안에 위치를 잡고 있는 의미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는 이러한 단위를 제안하도록 허락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단위가 다음처럼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다.⁵⁸⁾

57) Gaston Bachelard, Maria Jolas 역, 「공간시학(Poetics of Space)」(Boston: Beacon Press, 1969), 제1장.

58) 영역본에는 "pomme de terre=pineapple, pain de seigle=lily of vally"로 표기하고 있다. (역주)

<i>lexème</i> (어휘소)	<i>paralexème</i> (준어휘소)	<i>syntagm</i> (결합어휘소)
(<i>abricot</i>) (살구)	(<i>pomme de terre</i>) (대지의 사과·감자)	(<i>pain de seigle</i>) (호밀의 빵·흑빵)

융합화(amalgamation)⁵⁹⁾에 있어서 정도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 함수의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이러한 단위의 의미소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관계)는 의미론적 관점과 동일한 성질로부터 기인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어휘소 안의 의미소간 존재하고 있는 관계는 특이한 어휘소적 위치에 의한 것 이외에는 표출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산출을 혼합주의적(syncretic)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이어서 준어휘소 또는 결합어휘소의 경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열거한 최후의 예의 경우에서처럼, 전치사 of(de, ~의)에 의해 표현된 관계를 고찰할지는 모르다. 그런 경우에, 관계는 표출의 그 순간에 어휘화된다.

5. 관계의 표출

관계의 표출형식의 다양성은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우리가 의미작용의 구조 안에 본래부터 있던 것으로 고찰했던, 그리고 서로 이질적인 의미소이지만 용접된 원소로 어휘소 안에서 재발견할 수 있었던 관계가, 지금 담화의 전개로 그것과 상관없이 표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첫 번째는 표출형식의 다양성이며, 두 번째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에 대한 관계의 자율성의 표출이다.

1. 언어의 표출로 고찰한 담화가 언어 안에 본래부터 있던 의미작용과는 달리 특이한 정보의 출처라는 것을 알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담화를 대상 언어와 일체감을 가졌던 그 최초에서부터 이러한 이유가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가 구축한 모든 메타언어학적 개념의 텃(또는 언어학적 활동으로 우리 앞에서 “발견”되었던)은 담화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형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언어학적으로 고찰되었던 언어 안의 다른 구조와 동일하

59) amalgamation: 수은과 금·은과 같은 금속의 합금. (역주)

다. 논리학자들이 그들의 논리적 언어의 개념을 확립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구성에 사용될 단어의 다소간 완벽한 목록을 확립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담화에, 예를 들어, 대상언어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될 연언(連言)의 강류에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학자들은 논리학자들보다 좀 더 신중하다. 언어학자들이 경험했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또는 오히려, 시니피앙의 시차적 간극과 시니피에 안에서 창조하고 있는 편차 사이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을 얻어낼 수 있다. 형태어휘소 and는 접속관계를 잘 표현한다. 그러나 "John, Peter, and Paul" 안의 어휘소의 시퀀스는 그것을 동시에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적 의미소는 자율적 포르만트(formant)⁶⁰의 존재로부터 혼합주의로 이어가는, 시퀀스와 정향과 그리고 융합화를 관통하고 있는 시니피앙의 시차적 간극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속의 기술(문법책이 흔히 그 털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은 만약 그것이 어휘화된 목록만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불완전할 위험성이 명백하다.

우리가 의미작용관계의 지위문제를 불러일으킬 때에도 그와 같은 신중성이 필요하다. 사실, 종속접속사의 강류가 비교적 풍부한 의미소로 피복된 어휘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어휘소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치사 of 또는 at, 예를 들어, 두 어휘소 사이의 오로지 단일 계층의 관계만을 확립하고 있는 "빈약한" 관계원소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의미소 총체 내부에 발생한 관계로서의 동일함이 어휘소라는 것을 쉽게 허락할 수 있다. 그중 어떤 관계는 단순히 계층적(프랑스어 관사 la, les 안의 "수"와 "성")인 반면에 또 어떤 것은 보다 더 복잡한 것(안락의자의 경우 "앉기 위한")이 될 수 있다.

60) formant: 일반적으로 모음의 구성소음(構成素音), 어간 형성사(determinative), 파생 접사(接辭),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중에서, 특히 울림이 강한 주파수대(帶)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24. formant(포르만트); 포르만트는, 이 연구에서, 내용측면의 단위에 상응하는 표현측면의 연쇄 고리의 일부분으로 이해되며, 그것은(기호현상의 순간) 기호(형태소[morpheme] 또는 단어)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허락한다. 따라서 포르만트는 그 자신(예를 들어, 격상소[pheme], 음소[phoneme], 또는 음절-syllable-처럼) 안에 고찰된 표현측면의 결합단위(syntagmatic unit)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의 포르만트(the formant of...)"이며, 용법에 속하는 것이지 구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Louis Hjelmslev는, 언어학에서 음소론이나 형태론과 독립된 "포르만트 이론"을 위하여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예견했다. (역주)

2.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문제, 즉 관계가 연결되도록 가정된 구조의 텀에 관한 자율적 관계의 문제로 되돌아오자.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에 관해 우리가 고찰할 때, 관계의 개념은 적어도 두 텀(제2장을 보라)을 동시에 파악하는 필연적 원소로 나타난다. 그 동시성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연언(連言)과 선언(選言)의 상호전제로 또는 단독적인 전제로 표출(하위개념적 관계가 전체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상위개념적 관계가 분할 가능성으로 그 한계가 정해졌을 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동일내용의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왜곡된 방법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관계 그 자체가 계층적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내용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결과, 우리는 담화 안 의미작용의 표출이 동시에 두 측면을 작용시킬 수 있었다(내용의 진술과 독자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표출형식의 이질적 의미소의 텀 간 관계의 망 짜기)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관점의 이러한 언급은 동종과 이종 양자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담화의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a. 그 둘은 지각적인 면에서 동차(또는 상동)적인 것으로(homogeneous) 존재한다.⁶¹⁾ 즉 독자적으로, 약간수의, 또는 약간의 부호화된 수준에, 구조적 다양성에, 나타난 의미소와 의미소적 총체 사이에 확립된 관계로서의 고찰로 간주된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어휘소, 결합어휘소, 또는 발화)는 동차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면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단일 어휘소 안에, 또는 예를 들어, 팽창하고 있는 결합어휘소 안에 연결된 의미소는 서로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소체계에 속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또는 실제로 속할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의미소의 이질성은 담화 안에서 동차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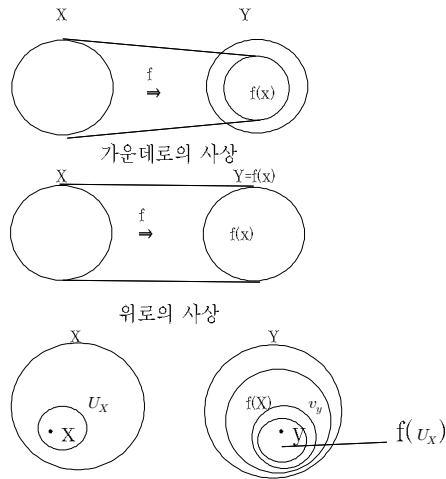
그러나 담화를 잘라내어 “단어”로 고착시키고 있는 투시도법(우리가 의미론적 분석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확장)은 더 이상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것을 결합어휘소 또는 발화로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적절한 관계가 될는지 모른다.

b. 우리가 담화 안에서 그들을 어휘화된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그 관계는 크거나 작은 의미소적 복잡성이 될 수 있다.

61) homogeneity(同次性); 수학과 논리학에서는 동차(同次), 또는 상동(相同)이라고 한다. 혼마 다쓰오(本間龍雄), 임승원 역, 「위상공간으로 가는 길-직관적 토폴로지의 세계」(서울: 전파과학사, 1995), pp. 15~28.

제3장 언어와 담화

그들의 분석(처음에 포티에[Bernard Pottier]에 의해 받아 들었던)은 의미론에 있어서 일정한 흥미를 제공한다.⁶²⁾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순수 원소관계로 고찰하는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Y=f(x)$ 란 X의 점 x에 대하여 Y의 점 Y가 대응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x와 x'가 상이한 점이라도 그 상 f(x)와 f(x')는 일치해도 지장 없다. 특히 x와 x'가 다르다면 f(x)와 f(x')가 다를 때 1대 1의 사상이라 한다. X에서 Y로의 사상 f에서 X의 상 f(x)가 Y를 덮어버릴 때 f는 “위로의 사상”이라 부르고 보통의 사상은 “가운데로의 사상”이라 부른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위로의 사상일 때 f를 1대 1의 대응(변환)이라 부르기로 한다. $y=f(x)$ 가 1대 1 대응이면 y를 옮기는 사상도 1대 1의 대응이므로 이것을 역사상(逆寫像)이라고 말하고 f^{-1} 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에 있어서 X의 각 점 x의 충분히 작은 근방(近傍)의 상은 x의 상 y의 근방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X의 각 점 x와 그 상 y의 임의의 근방 v_y 에 대하여 x의 충분히 작은 근방 U_x 를 선정할 수 있고 U_x 의 상 $f(U_x)$ 가 v_y 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말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대응이고 f도 역사상 f^{-1} 도 모두 연속일 때 f는 동상사상(同相寫像)이라 부르고, X와 Y는 동상(同相)이라 한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라보자. 우리나라의 각 지점에 대해서 지도상의 한 점이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응은 분명히 1대 1의 대응이다. 근방이라 해도 크기가 전적으로 다르지만 한쪽의 근방이 딱 곳의 근방 안으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상사상이다. 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산이나 분지(盆地)가 있는 뾰족의 우리나라가 한 장의 평평한 종이의 일부(우리나라지도)와 동상이라는 것이다. (역주)

위상공간 {

- 리니어(linear) 그래프(그래프의 장)
- 다양체 {
 - 곡선-(곡선의 장)
 - 곡면-(곡면의 장)
 - 역사의 장
 - 고차원의 다양체-(고차원의 장)

62) Bernard Pottier, 「Systematique des éléments de relation」 (Paris: C. Klincksieck, 1962).

문제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들이 관계적(즉 메타언어학적)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리하여 제공된다면, 그들은 어느 어휘소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의미소로 분석될 수 있는 기술내용을 그 위에 추가하여 매우 흔하게 소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테니에르(Lucien Tesnière)는 순수 번역-전격 원소(예를 들어, 그것이 접속표현법 parce que[... 때문에], alors que[...때에, ...동안], avant que[...하기 전에] 안의 que[그]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가, 종속접속사가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2의 부사적인 내용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⁶³⁾

한편, 그러한 분석은 연언(連言)과 선언(選言)의 관계(만약 통사론적으로 이미 획득된 용어가 아니라면, 우리가 추리하고 싶어 할지 모르는 그것)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가 처음에 하위계열적(hypotactic) 또는 상위계열적(hyperotactic)으로 고찰된 용어로 호칭하기로 기왕에 제안했던 계층적 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기본구조 안에서 확인된 기본관계에 대응하는 두 유형으로 담화 안에 표출된 관계의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담화의 측면은 전적으로 이러한 이질성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의미소, 어휘소, 그리고 발화가 이들 사이의 연언(連言)과 선언(選言)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일 원소가 하위계열적 관계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그 결과 최초의 관계는 담화 안의 계열체적 차원(paradigmatic dimension)에 위치를 잡게 된 단위를 표출할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의 관계는 같은 담화 안에서 결합체적인 차원(syntagmatic dimension)을 확립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된 관계의 유형에 따르면, 담화의 측면은 어떤 때는 계열체적 존재자모드를 그리고 어떤 때는 결합체적 모드의 존재를 확립한다. 이러한 사실은, 만약 언어학자들(언어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비언어학적 사용자일지라도)이 담화의 측면과 결합체적인 측면 사이에서 만들고 있는 매우 다발적인 혼동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때에 그 혼동은 2개의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만드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되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실인 듯하다.

63) Lucien Tesnière,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C. Klincksieck, 1965), p. 80.

제3장 언어와 담화

노트: 발성의 음향학: 성대가 낸 부저와 같은 소리가 성도에 적용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성도는 사실상 공기로 차 있는 관이며, 공기가 차 있는 모든 관과 마찬가지로 공명기로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은 성도는 어떤 고유 진동주파수가 있으며, 다른 주파수의 소리보다는 공명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의 음파에 더 즉시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대가 그림 15(a)와 같은 일련의 진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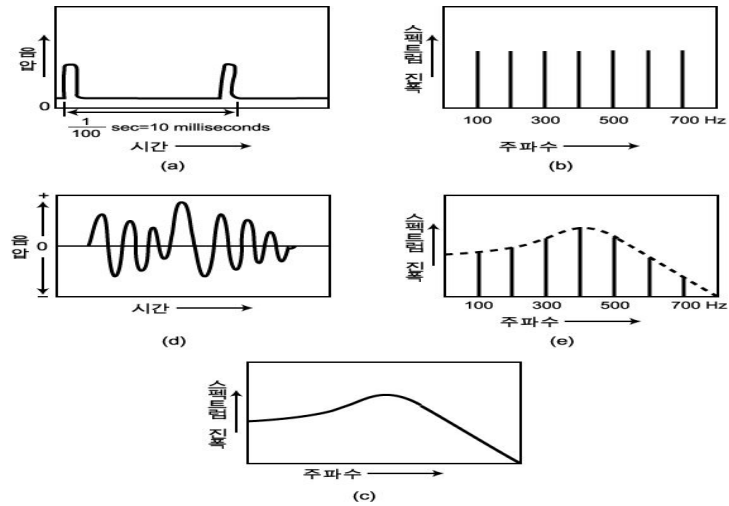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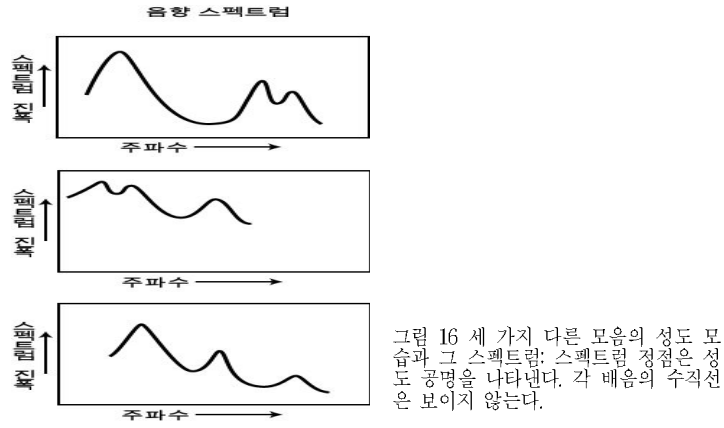


그림 15 formant 설명: (a) 연속 진동의 파형 (b) 연속 단진동의 스펙트럼 (c) 단순 공명기의 주파수 반응 (d)와 (e)는 (a)에서와 같은 여러 개의 진동이 (c)에 나타나 있는 주파수 반응을 보이는 공명기에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음파의 파형과 스펙트럼

그런 소리의 주파수에는 많은 수의 성분음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대체로 같은 진폭을 가지며, 기본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다. 기본주파수는 스펙트럼의 최저주파수 성분, 즉 성대의 진동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 기본주파수는 스펙트럼의 최저주파수 성분, 즉 성대의 진동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 성대의 진동이 성도의 한쪽 끝(성문쪽)에 작용되어, 입술을 향해 전파된다. 성도가 그 고유 공명주파수 주위에 해당하는 성대 진동 성분에 더 잘 반응을 하게 된다. 이 성분소들은 강조되고 입술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스펙트럼은 성도의 고유(공명)주파수에서 '정점'을 보일 것이다. 성분에 적용된 기타 성분음은 그 주파수들이 공명주파수에서 멀면 멀수록, 그 결과 생기는 양 입술에서의 강도는 낮아진다. 그림 15는 이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5(b)는 성대의 출력에 대한 스펙트럼이고, (c)는 단순 공명기의 주파수 반응을 보인다. 그림 (d)와 (e)는 (a)가 (c)의 공명관을 통해 전파되었을 때 생기는 음파의 파형과 스펙트럼이다.

그림 15(c)의 공명기는 한 개의 공명주파수만 있지만, 성도는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성도 공명기는 많은 다른 주파수에서 성대파형의 배음을 강조하고, 음성파의 스펙트럼은 각 성도의 공명주파수의 각각에서 정점을 보일 것이다. 성도의 공명주파수의 값은 그 모양으로 정한다. 결국 스펙트럼 성분의 진폭은 성도모양을 바꾸면 다른 주파수에 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16은 세 가지 다른 성도 모양에서 생긴 소리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성도의 공명은 formant라 부르며, 그 주파수는 formant주파수라고 한다. 성도의 모든 모양이 특징적인 formant주파수의 짝을 갖고 있다. 그림 15에서 보았지만, 공명주파수는 스펙트럼의 배음의 주파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formant의 주파수는 일치할 수 있지만, 배음의 주파수와 똑같지는 않다. 결국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공명주파수(formant)는 성도에 의해 정해지며, 배음주파수는 성대에 의해 정해지고, 성도와 성대는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성대와 formant의 독립은 그림 17과 18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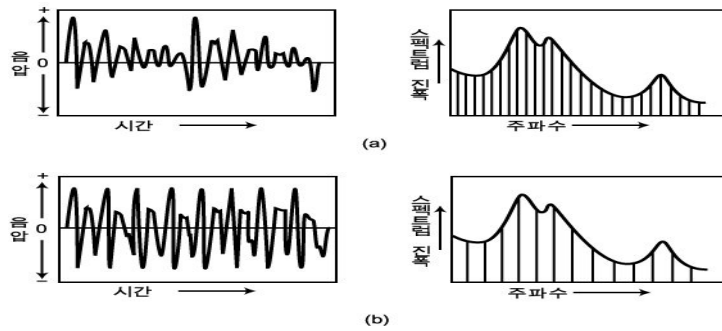


그림 17 두 가지 다른 성대 진동으로 발생된 모음 [ah]의 파형과 스펙트럼: (a) 성대 주파수 90cps (b) 성대 주파수 150c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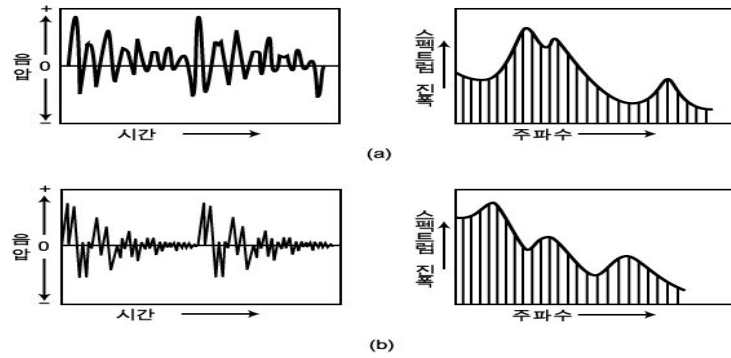


그림 18 90cps 성대 주파수로 발생한 모음 [a] 및 [uh]의 파형과 그 스펙트럼: (a) [a] 음 (b) [uh] 음

그림 17(a)는 90Hz로 진동하는 성대로 발생한 [a]소리의 파형과 스펙트럼이고, (b)는 똑같은 소리를 150Hz로 진동하는 성대로 발생한 파형과 스펙트럼이다. 비록 배음의 주파수는 변했지만, formant주파수(스펙트럼 봉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 모양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림 18(a)에서는 90Hz의 [a] 음의 파형과 스펙트럼을 들고, (b)에서는 성대 진동은 90Hz이지만, 성도 모양은 [uh] 소리를 내도록 바뀌어졌다. 그림 18(a)와 (b)에서 성대 진동의 주파수는 배음의 주파수와 똑같다. 성도 모양은 formant 위치(스펙트럼 봉우리)에서 이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림은 분명히 성도가 배음의 주파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그 자체의 공명주파수와 유사시 생기는 배음의 진폭을 강조하기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성대가 내는 음성스펙트럼은 그림 15(b)에서 나타난 것처럼 항상 규칙적이지 못하다. 성대스펙트럼은 그 자체의 정점과 계곡이 있다. 성도 formant는 더 많은 불규칙성을 더한다. 그래서 음성스펙트럼은 성도공명에 의해 생성되지 않은 정점을 가지기도 한다.

소리의 물리학에서 공명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다른 주파수를 지닌 진동체에 노출되었을 때, 진자, 용수철 및 공기가 든 관들에 진동하는 특징으로서, 그런 체계는 고유 진동수 근처의 자극 주파수에 보다 쉽게 반응함을 보였다. 두 번째로, 공명체를 소리를 내게 했다가 그냥 두면, 자체의 고유 주파수로 계속 진동함을 보였다. 물론 이런 설명은 똑같은 사건을 두 가지로 다르게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성생성에 있어서 성도공명의 영향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지금까지는 공명체가 자체 고유 주파수나 그 근처의 자극에 보다 쉽게 반응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우리는 한 공기 덩어리가 성도 공명체를 칠 때마다, 성도는 고유 주파수를 계속 '울린다'는 견해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림 15(c)의 간단한 공명체에서, 성대에서 나오는 공기 덩어리마다 공명체의 고유 주파수에서 정현파 진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진동은 감폭에 의해 정해진 속도로 감폭할 것이다. 이것은 그림 15(d)에 보인다. 그러한 감폭된 정현파의 스펙트럼은 그림 15(e)에서 이미 논하면서 보였던 스펙트럼이다. 성도는 많은 공명주파수를 갖고 있다. 성도는 모든 고유 공명 주파수대에서 동시에 울릴 것이며, 각 공기 덩어리의 영향에서 생긴 진동은 많은 감폭 정현파의 합이 될 것이다. 그림

19(a)는 모음의 파형을 보이고 성대음의 때 공기 덩어리에 대해 어떻게 똑같은 진동을 되풀이하는가를 보인다. 그림 19(b)는 그러한 파형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림 17(a)의 [a]의 스펙트럼과 똑같이 이는 같은 사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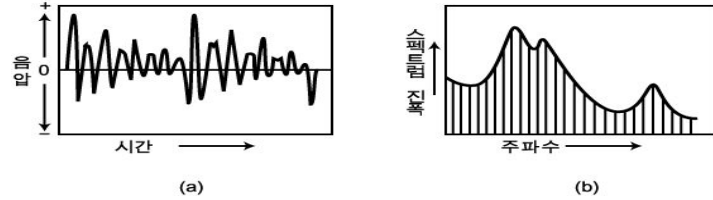


그림 19 모음의 파형과 그 스펙트럼: (a) 파형 (b) 스펙트럼

formant 주파수 값은 성도의 모양에 달려있다. 연구개가 올라지고, 비강을 닫으면, 성도는 성문에서 입술까지 약 7인치(17cm) 정도 되는 관이 된다. 그러한 관에 대해(전 길이를 따라 균일 단면적을 지닌) 기본적인 공명은 500Hz, 1,500Hz, 2,500Hz, 3,500Hz 과 4,500Hz 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단면적은 길이에 따라 상당히 변한다. 그 결과, formant 주파수는 균일관처럼 규칙적 간격으로 되어있지 않다. 일부는 주파수가 높고 다른 것들은 낮다. 가장 낮은 formant 주파수는 제1 formant, 다음으로 높은 formant를 제2 formant 등등으로 각각 부른다.

연구개를 내리고, 기관을 입에 연결시키면, 다른 성도 모양이 생긴다. 성도는 인두에서 단일 관으로 시작되어, 연구개에서 코로 가는 길과 입으로 가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비강은 입술로 이동하는 음파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것은 감폭을 증가시키고, formant의 진폭을 감소시킨다. 또한 비음은 나름대로의 formant를 가지며 그 주파수가 음성스펙트럼을 억제하곤 한다. 발생된 음성파는 다른 음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혀와 입술의 조음적 이동으로 구강의 어느 부위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음파의 음향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은 formant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음성파의 다른 중요한 특징을 밝히게 되었다. —<http://www.aistudy.co.kr/physiology/phonation.htm> (역주)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1. 어의소(語義素)

a.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와 의미작용의 단위

호모 로쿠엔스(homo loquens, 말하는 인간)로서의 인간조건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기술이 존재자모드와 의미구조를 표출하고 있는 모드를 밝힐 수 있는 언어구축에 필연적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언어구축을 담화가 떠받치고 있다. 그 담화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모순적 위기와 커뮤니케이션의 방해와 그리고 타성과 역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력에 기인하여 의미작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장소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담화는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발판처럼 나타나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는 의미작용의 기술을 위한 구조로 제공하기에 부적당하게 보였던 분석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어휘소, 준어휘소, 결합어휘소라고 하는 것도 차원과 구조가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단위들은 종종 비교가 가능하고 때로는 동등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그것은 형태통사론적 범주의 조력을 빌려 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에 비교할 수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그룹과 다른 의미론적 단위에도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표출되기 전에 고찰된 의미작용이라고 하는 존재자모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축된 소수의 개념을 이미 벌써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담화 내부에서 현존재모드를 고찰하려고 했다. 더 정밀하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어휘소가 커뮤니케이션의 내부에서 의미작용을 잉태(또는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담화의 이질성분은 이제 의미작용의 착란적인(총잡을 수 없는, discursive) 커뮤니케이션과 표출 따위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의 확립을 시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재고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방향으로 탐구의 진행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의미소의 정의에 도착하기 위하여 의미소에서부터 출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우간 어휘소를 분석하여 볼 목적으로 이탤의 관점을 취할 것이다. 물론 그 관점은 의미소의 구조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 아티클레이션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정보를 모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분석실험을 위하여 선택된 예는 어휘소 tête(head, 머리), 또는 오히려 리트레(E. Littré)의 사전(프랑스어 사전)에 있는 어휘소 tête 아래에 포함된 절(節) 또는 결합어휘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한 어휘장 (lexematic field) 안에 위치를 잡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적합한 예를 얻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발화자료체를 분리해보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b. 어휘소: 문체론적 성좌(星座)

최초의 기본적인 정의는 또 다른 모든 의미(단어의 또 다른 모든 “의미”)로부터 유래한다. 예를 들어 리트레(E. Littré)의 사전이 tête에 부여한 의미는 “부분(신체의)……목에 신체가 결합된”으로 표현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의는 “실재적”이며, 신체의 비언어학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말이 나온 김에, 리트레 [E. Littré]의 사전이 단어 tête를 신체의 일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예가 아닌, 전통적인 사전편찬법의 성격이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자)

이러한 기본적 “이미지”로부터, 우리는 리트레(E. Littré)의 사전에 의해 정의된 “의미”를 조금씩 재편성하면서, 다소간 “격아강적인(格亞綱的; figurative)”⁶⁴ “의미”의 방출 진원지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어떤 문체론적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2개의 구조적 관계는 다름 아니라 의미의 재료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재편성하도록 허락한다.

1. 상위계열적 관계(hyperotactic relationship)

사실 리트레(E. Littré)의 사전에 의하면, tête는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덮인 부분 또는 단지 뼈만 있는 부분인 두개골로 고찰될 수 있다.

a. 첫 번째의 경우에, 단어 tête는 다음과 같이 추리한다.

머리카락으로 덮인 부분:

la tête nue(bareheaded, 모자를 쓰지 않은)

64) more or less figurative: thymic category가 아닌 classeme을 의미한다. (역주)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laver la tête(to wash one's hair, 머리를 감다)

tête de fou ne blanchit pas(a madman's hair doesn't get white, 미치광이의 머리는 희지 않는다)

또는 머리카락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얼굴):

faire une tête de circonstance(to act the part, 흥내를 내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tu en fais une tête(what a long face you have, 너는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다)

b. 두 번째 경우에, 단어 *tête*는 단지 뼈만 있는 부분인 두개골을 추리한다:

fendre la tête quelqu'un(to make a headsplitting noise, 누군가 머리를 쪼개다)

se casser la tête(rack one's brains, 머리를 깨다)

tête de mort(skull and bones, 해골)

노트: figurative: 격아강적인(格亞綱的) 1. 격상(figure)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식어 “격아강적인(figurative)”은 그 내용이 자연적 기호학체계(the natural semiotic system; 또는 자연세계의 기호학)의 표현레벨의 무엇인가와 상응하고 있을 때 주어진 내용(예를 들어, 자연언어)과의 관련 속에서 사용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담화의 생성적 궤도의 화맥 안에서, 담화적인 의미론은 주제적(thematic; 어간형성모음적인, 또는 abstract) 구성요소와 함께 격아강적인 구성요소(figurative component)를 포함한다.

2. 이러한 동일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격아강적인 궤도는 주어진 주제와 상관된 동류체(isotopy)적 연결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격상의 연합(결정된 문화세계와 적합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연결은 부분적으로는 자유롭고 부분적으로는 강요되며, 다소간, 최초의 격상이 설치될 때 다른 모든 것에 배타적인, 어떤 다른 격상을 도출해낼 뿐이다. 격아강적인 것과 동일 주제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는 다른 격아강적인 궤도를 잠재시킬는지 모른다. 따라서 상수(invariant)는 밝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cared(겁에 질린)”의 주제는 몇몇 격상, 이를테면, “priest(신부),” “sacristan(교회직이),” 또는 “beadle(교구직원)”과 같은 격상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시퀀스의 격아강적인 표명은 격상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초에 선택된 격상을 확립할 때마다 시퀀스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시간과 장소와 연기의 모드는 동일 조화 속에서 서로 다르게 존재할 것이다. 역으로, 위치가 잡혀진 최초의 격아강적인 다의성은 그와 다른 주제(어떻게 다의의 동류체 현상이 단순 담화 안에서 서로 포개어진 의미작용으로 발전하는가)에 상응하는 몇몇 격아강적인 궤도로 어찌면 가능성 있게 개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17~118. (역주)

figurativization(격아강화): 1. 격아강화가 모든 담화를 2개의 큰 강류(classes; figurative 그리고 non-figurative-또는 abstract 담화)로 분류하는 것의 과업을 떠맡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즉각 거의 모든 텍스트가 격아강적인 담화의 강류에 속한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구별(특징)이 다소 “관념적인(ideal),” 분류형식(figurative와 non-figurative)을 탐색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금이 안 된(unalloyed)” 형식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렇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했다. 사실, 기호학자들(semiotician)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담화의 그리고 텍스트의 격아강화(담화적인 의미론의 하위성분)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발화를 격아강화하는 언외화자(enunciator)에 의해 위치(place; 자리) 안에 삽입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생산 모델의 구축(우리가 생성케도라고 호칭하고 있는)은, 그것이 작용적인 그리고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내접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안의 보편적인 프레임의 구성을 허락하기 때문에, 실효(失効)와 재구축, 다시 말해서 최초로 중립적인 그리고 추상적인(abstract) 것으로 포즈를 잡게 된 담화의 격아강화의 절차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으로도 유용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2. 그것은 아마 우리가 격아강화를 의미하는 것의 간단한 예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담화-발화의 최초에,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체는 그것에 의해 탐색된 결승점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토록 하자.

SUO

이러한 대상은 통사론적인 정향(position)으로만, 즉 가치로 투자된 일습(stands; 一襲), 예를 들어, “힘(power),” 즉 존재-능력(being-able; to do/to be)의 양태성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SUO_o (: power)

거기서, 담화는 전동장치(傳動裝置)로 구동될 수 있다. 그 화술적인 프로그램은 그것이 탐색하고 있는 가치와 함께 주체를 결합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설화를 발설하는 무한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 담화는, 통사론적인 대상(O)이 그것을 “격상(figure)으로, “기민한 인자(因子; automobile)”로, 인식하고 있는 언외청자(enunciatee)를 허락할 것인 의미론적 투자를 수용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격아강화가 된다고 언급된다. 예를 들면, SUO(automobile) vs (: power).

그 기민함, 그 발휘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최후에 표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힘의 또 다른 것으로의 인식을 위해, 주객치환응집(the quest)⁶⁵⁾을 표현하는 그 담화는 격아강적인 담화일지도 모른다.

3. 그러한 단순·천진난민할 대신에, 이러한 예는 격아강화가 단지 단순한 관점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수사법의 격상이 어휘소의 또는 발화의 골조

65)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인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인)와 상응한다.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인)	실현화(realizing; 연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骨組) 안에서 작용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격아강화가 된 화술주체의 전체 체계로도 매우 흔하게 존재한다. 격상 “기민한 인자(因子; automobile)”의 장치는 그들을 능동성으로 바꿈으로써, 변화과정의 세트에 영향을 주고, 연기가 된 주체 위에 격아강적인 윤곽을 그리고, 관자놀이-공간적 정박(anchoring), 등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그것은 격아강화가 격아강적인 체도를 설치하고, 이것들이 담화의 차원과 함께 동연(同延)이 될 때, 그것은 격아강적인 동류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4. 격아강화의 연구는 오로지 발단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어느 조금한 개념화는 위험하다. 그 최대의 난국은 모든 기호학적 체계(semiotic system; 예를 들어, 문학 또는 회화)가 세계의 “표상(representation)”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주어진 그것의 정화(精華)로서의 이상성(iconicity)을 갖추고 있는 것에 따르고 있는 함축적인 선형성 안에 들어있다. 문학적인 담화가 비록 “허구(fiction)”로 고찰된다고 할지라도, 그 허구적인 성격은 단어(그것은 사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단지 최초의 위치(place)에서, 기술된 능동성의 조정(調停)으로 존재할 뿐이며, 따라서 그 담화 안에 내접된(세겨진) 어휘소는 그곳에 기호학적 격상(semiotic figure)을 설치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왕에 만들어진 “세계의 이미지”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화보적인 기호학과 동일하며, 그곳의 그림은 자연히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세계에 되돌려 보내고 있는 유명한 이상의 컬렉션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언의지언화 된 것으로서의 세계로도 간주된다. 반대로, 그 텍스트가 그것의 구조와 기호학적 격상(semiotic figure)의 행로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속적인 수법으로, 위치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의 점진적인 생산의 결과로 고찰될 때, 이 모든 것은 바뀌며, 그곳의 담화는 저속한 이상성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 추상적인 형식으로든지, 격아강적인 편제(formation)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표출 쪽으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격아강화의 절차 안에서 적어도 2개의 레벨로 구별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 2개의 레벨의 첫 번째는 격아강화, 즉 기호학적 격상(일종의 음운론적 레벨)의 조립이며, 두 번째는 일종의 이상화가 될 것이며, 그것은 세계의 이미지로 변형시킬지도 모르는 지시적 환영을 생산하기 위하여 격상을 남김없이 그리고 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5. 바로 지금, 우리는 격아강화의 절차 안에서, 고유명목적인 하위성분이 연기로 호칭되는 그 특별한 역할에 주목할 수 있다. 격아강화는 그것이 심층구조 안에서 포착되는 한에 있어서는 추상적 담화의 이중화와 특별화에 의해, 그리고 연기어(anthroponyms)⁶⁶⁾의, 공간어(toponyms)의, 그리고 시간어(chrononyms; 담화적인 통사론의 측면에서 연기화·관자놀이-공간화·관자놀이-시간화의 3가지 담화화의 절차구성과 상응하고 있는)⁶⁷⁾의 도입에 의

66) Ibid., p. 14. anthroponyms: 연기어(고유명목에 의한 연기자의 지시로서)는 격아강화(figurativization)의 고유명목적 하위 그룹의 일부이다. 공간어(toponyms)와 시간어(chrononyms)에 의해 조립된 그들은 역사적 정박(anchoring)을 허락하며, 그것은 외재적 지시물의 시물테이 크러를 구성하는 것과 “실재성”의 의미 있는 효과의 생산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hroponyms(엔트리포니미; Anthroponymy, 또는 Anthroponomatics)는 언어의 표준어휘로부터 탈락된 어휘성분으로 흔히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 “Fishburn(영국의 북부 Durham 주의 한 시골 마을 명칭이다. 잉글랜드 북부 Cleveland주의 항구 도시-Hartlepool의 서부에 약간 산재해 있다)”은 고어 “bourn”로부터 “-burn”을 유지하는데, 이 앵글로색슨 말(Anglo-Saxon)은 일반표준영어의 사용법으로부터 탈락된 “brook(시내)”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Anthroponyms는 언어의 기원으로부터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서 무관계한 언어로 쉽게 이동한다. 불충분하게 입증된 언어의 경우, 비록 이것이 언어의 특징의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 비교하는데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Anthroponyms는 흔히 그 성질과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천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세분하면, Surnames(별명, 이명), Clan names(씨족, 一門, 閥族·특히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의 별족, 당파, 도당, 파벌), Exonyms(외국어 지명, 한 지명에 대해 각국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 Nickname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역주)

해, 성격이 만들어지며, 그것은 발생적(유전적; king, forest, winter)인 것으로부터 아종적인 것(고유명목, 관자놀이-시공간적 지표, 연대 등)으로 목록화될 수 있다. 그 자체 그것만으로, 격아강화는 텍스트 그 이상이 되어 실제적인 것의 생산의 매력적인 단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Ibid., p. 118~120. (역주)

노트: figure(격상); 1. 격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비기호(non-signs), 즉 표현의 측면이나 내용의 측면을 따로따로 구성하고 있는 단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Louis Hjelmslev에 의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엘름슬레우적 의미에 있어서는, 음운론과 의미론은 격상의 기술이지 기호의 기술이 아니다.

2.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면, 단어 격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우리가 최소 단위로서의 격아강적인(pheme과 seme) 범주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두 측면을 고찰한다면, 격상이라고 하는 명목은 음소(phoneme) 또는 어의소(sememe)가 격상소(pheme) 또는 의미소(seme)의 결합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며,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음소와 어의소가 격상소와 의미소를 계속 지켜나갈 수도 있다. 용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언어학적 기호체계를 다룰 때, 어의소, 특히 음소라고 하는 명목의 사용은 아무래도 온당치 못한 것 같다. 따라서 그것은 내용의 격상(figures of content)과 표현의 격상(figures of expression)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이다.

3. 담화적 의미론에서, 격상의 정의는 자연적 기호체계(또는 자연세계)의 표현측면의 격상과 상응하는 내용의 격상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러한 털을 남겨두는 것에 의하여 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핵격상(nuclear figure)은 재현하는 화맥적 의미소(또는 강류의미소)의 독점적인 의미소의 격아강적인 부분만을 떠맡는다. 이러한 격상의 개념은 게슈탈트 심리학(the Gestalt)에서의 형태이론(form theory)의 개념과 그리고 바슐라르적 비유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기호학적 격상은 격아강적인 범주의 털인 이 단순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의 단위로 고찰된다.

4. 총체로서의 생성적 궤도의 관점에서 보면, 담화의 격아강적인 레벨은 추상레벨과 격아강적인 레벨 위에 덧붙여지고 있는 새로운 투자(내용격상의 설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영역으로 나타난다. 비록 강류의미소적 수사학의 비유목록을 조금도 소모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정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털의 두 의미(기호학적 그리고 수사학적)와 다른 성질을 보여준다. 사실, 그러한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며, 예를 들어, 그것은 Bréal이 자연언어 안에서의 의미론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의 체계 안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처럼 언어의 격상으로부터, 수사학적 비유(그것은 다소간 발음하는 사람의 상투적인 절차와 상응하고 있는 문체일 것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격상이 어휘소적 레벨(그때 문장의 주어진 단어에 한정된다), 또는 전환적, 담화적 레벨에서 고찰(비유의 경우)에 되든지 어떻든지 그에 따라서 격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번째 경우(격아강적인 레벨)에, 격상은 동류체적 연결자 또는 넓은 의미에서,

67) Ibid., p. 29. 어떤 의미론자(G. Combet)는 공간어(toponym)·연기어(anthroponym)와 함께 마치 “하루(day),” “봄(spring),” “차 마시는 시간(coffee break)”처럼 시간의 특별한 길이를 지시하는 용어 시간어(chrononym)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 단어는 연기어와 공간어와 함께 “피리어드(period; 기간)”를 유리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지시대상의 시물레이크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역사적 정박(anchoring)을 확립하도록 돕고, “실재성(reality)”을 성취하는 의미를 생산한다. (역주)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그들의 문체적 특성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상실되고 있는 텃과 레벨 사이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수사학적 비유로 주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언어 문체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시네마의 사실은 담화, 기호학적 일반 줄거리 속하는 격상 그리고 표현의 특별한 실체 안의 어느 표출에 선행하는 생성 궤도의 구조 안에서 적어도 은유와 환유를 보여주고 있다. —Ibid., pp. 120~121. (역주)

노트: 위를 요약하면 "figurative"는 semiotics의 thymic category의 차원이고, "figure"는 그보다 하위인 semiology의 차원이다. (역주)

2. 하위계열적 관계(hypotactic relationship)

그러나 신체의 일부분을 추리할 때, 단어 tête는 또한 하나의 개체로 이산된 전체 또는 어떤 "격아강적인(figurative)" 부속물로,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 또는 인간으로 고찰된 유기체로 귀착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진실로 의미소적 분석을 더 추진할 생각이 없으므로, 우리는 단순 목록으로 만족할 것이다.

a. 이산된 단위로서의 유기체:

ce troupeau est composé de cent têtes(there are a hundred head of cattle in our herd, 이 무리는 백 마리의 소[tête]가 모여있다)

vous aurez à payer tant par tête(you will pay so much per head, 당신이 일인당 [tête] 지불해야할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b.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

mettre la tête de quelqu'un à prix(put a price on somebody's head, 누군가의 머리에 상금을 걸다)

il paya de sa tête(he paid with his head, 그는 그의 머리에 대금을 지불했다)

c. 인간:

une tête couronnée(a crowned head, 왕관을 쓴 머리)

se paya la tête de quelqu'un(to make fun of someone, 누군가를 조롱하다)

c. 어의소의 정의

여기서 이러한 문체론적 분석을 끝내기로 하자. 우리는 이미 한 마디 언급하도록 허락했던 제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서 우리는 약간의 화맥 내부에 위치를 잡고 있는 어휘소 tête를 제시했다. 어휘소 tête가 “신체의 부분,”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하위계열적 또는 상위계열적 관계의 망 내부의 tête=“신체의 부분”이라고 하는 전제의 주변에 편성된 “의미”의 성좌를 밝혀주고 있는 어떤 유형 안에 수집한 화맥을 의미하는 그 전제와 함께 출발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화맥적 변이(또는 변수, variations)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찰된 내용으로서의 변이가 존재한다. 그 변이는 특정한 경우에,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골격 안에 한정될 수 있는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고찰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어휘소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먼저, 어휘소 tête가 부정적 내용(negative content)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제(행동의 근거, theme), 배경(ground), 테제(thesis: 안티테제와의 대칭. 또는 악보 페리오드의 앞 프레이즈, 즉 질문↔대답의 질문), 그밖에 다른 단어들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그래서 그 어휘소 tête는 또한 필연적으로 의미소의 하위계열적 배치가 가능한 조정적 내용(positive content)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각 가정할 수 있다. 우리들 지식의 현 입장에서, 그 어휘소 tête가 단기지속적인 의미소의 최소량을 거느린, 즉 하나의 상수(常數, 불변량, invariant)로 나타나는 것을 가정하면서, 그 조정적 내용을 핵의미소(noyau sémique, semic nucleus)로 고찰하자. 그리고 그것을 Ns로 추리하자.

그러나 만약 Ns가 상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관찰해야만 했던 의미의 변이는 오로지 화맥에서만 유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맥은 특별히 언급될 수 있는 의미효과의 변화를 유일하게 설명할는지 모르는 의미소적 변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 의미소적 변이를 잠시 화맥적 의미소(sémes contextuels, contextual seme)로 간주하자. 그리고 그것을 Cs로 추리하자.

그것은 모든 의미소적 변이를 속속들이 규명하는 그 가능한 화맥발현의 총체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로, 화맥의미소의 수는 화맥발현의 총체적인 수보다 훨씬 적다고, 우리는 언급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화맥:

fendre le tête(머리를 쪼개다)
se casser la tête(머리를 깨다)
la tête de mort(해골)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효과에 대응한다. 그것을 우리는 “머리의 뼈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동일한 의미효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화맥에 의해 구성될는지 모르는 화맥적 강류로 화맥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우리는 화맥 의미소가 화맥의 전체 강류와 동격의 공통 단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정의된 화맥 의미소의 내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므로, 우리는 화맥 의미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소, 즉 의미작용의 최소단위와 항상 동정된다고 주장(assert)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아마 그것은 단어의 엄격한 의미 내부의 한 의미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맥적 강류의 공통단자일는지 모른다. 즉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명백하게 할 여차여차한 강류로서의 구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작용적 개념에 있어서의 최소의 합성은 필연적으로 표출단위의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화맥적 강류가 오로지 한 가지 화맥 의미소에 의해 정의된 가장 단순한 경우라고 고찰하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하다고 인식하자. 실제로, 우리가 방금 부여했던 핵의미소 Ns와 화맥 의미소 Cs의 정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미효과를 어의소(Sememe)로 고찰하도록, 그리고 Ns와 Cs의 결합으로 정의하도록 허락한다.⁶⁸⁾

어의소 $S_m = N_s + C_s$

2. 핵격상(核格象, The Nuclear Figure)

a. "tête"의 제1의 핵: 선단성(先端性)

이렇게 어의소를 순간적으로 정의한 후에, 우리는 잠시 왼쪽에 보류해두었던 핵의미소의 분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언급했던 화맥 의미소

68) 엄밀히 말해서 'seme'은 질료에 1차적으로 지향된 noema의 “성분의미소”이고, 이것 'sememe'은 2차적으로 지향된 noema의 “구조의미소”이다. (역주)

와 함께 결합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의미효과를 어의소라고 불렀던, 담화의 측면에서 핵의미소는 도출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련의 새로운 발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의 의미소범주 내부에서 임시로 분류할 수 있다.

α) 선단성 + 상방성 + 수직성

la tête d'un arbre(the top of a tree, 나무의 머리, 우듬지)

être à la tête des affaires(to be on top in business, 사업에서 우두머리로 있다, 직장의 상관)

avoir des dettes par-dessus la tête(to be over one's head in debt, 빚을 머리에 이고 있다)

β) 선단성 + 전방성 + 수평성 + 연속성

tête de nef(head of the nave, 교회의 머리, 교회의 회중석)

tête d'un canal(entrance of a canal, 운하의 머리, 운하의 기점)

tête de ligne(head of line, 선의 머리, 기점)

γ) 선단성 + 전방성 + 수평성 + 불연속성

fourgon de tête(the lead car of a train, 화물차의 머리)

tête de cortège(head of a procession, 행렬의 선두)

prendre la tête(take first place, 선두에 서다)

이러한 목록이 약간의 연언(連言)적 특징과 선언(選言)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먼저 일반적으로 인식된 단어 tête는 이 목록의 어떤 발현화맥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이 목록의 최초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발현 안에서 의미소 “선단성”의 현존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는 의미소 “선단성”이 인간적인 또는 동물적인(또는 어류적인) 특징을 만들어내는 “수직성” 또는 “수평성”과 결합된 약간의 관용어구적인(idiomatic) 표현 안에 매우 교묘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첨가할는지 모른다.

- a. de la tête aux pieds(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cf. de pied en cap[from top to toe,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 b. un tête-à-queue(cutting in too closely when passing a car, 급회전)
ni queue ni tête(neither head nor tails, 꼬리도 머리도 없는)

3. 상기 목록의 제2의 의미소를 “상방성” 또는 “전방성”으로 추리했다. 2개의 선단성 중의 하나로서 tête가 다른 선단성을 나타내고 있는 pieds(feet, 발) 또는 queue(tail, 꼬리)와 대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2개의 다른 추리 하에 오로지 하나의 의미소만을 언급하도록 허락한다. 의미작용의 “최초의 선단성”은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 “수직성 vs 수평성”에 의해 굴곡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2개의 텀이 서로 반대인 “상방성 vs 하방성” 또는 “전방성 vs 후방성”이 함께 고찰될 때, 오로지 1개의 관자놀이-공간적 비명존설의 특별한 경우를 구성하는 어떤 장소(位相論, 語彙論叢 V, Les Topologiques, in Cahiers de lexicologie V, 1964)라는 것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추리된 2개의 텀을 대신함으로써, 그들보다 “우위성(優位性)”이 있는 단일 텀, 즉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목록으로 자명해진 이 핵의미소는 제2의 의미소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분석의 구절로 나타나게 된다.

$$Ns = s_1(\text{선단성}) + s_2(\text{우위성})$$

4. 목록의 세 번째 원소는 단순 의미소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두 의미소를 포섭하는 의미소의 축으로 나타난다. 담화의 측면에서, 그것의 선언(選言)인 “수직성(s_3)”과 “수평성(s_4)”은 2개의 화맥강류를 구성한다. 사실, 심층 분석은 이 화맥의미소가 동일 결합구조(la tête d'un arbre[the top of a tree, 나무의 머리, 우듬지]에서의 “수직성”, tête d'un canal[entrance of a canal, 운하의 머리, 운하의 기점]

에서의 “수평성”에 속해있는 또 다른 핵의미소들의 구성원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5. 우리는 네 번째 목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즉 화맥강류 β 는 의미소 “연속성(s_5)”을 포함하고, 강류 γ 는 의미소 “불연속성(s_6)”포함한다. 그에 반하여 강류 α 는, 말하자면, 선언(選言)에 무관심하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선” vs “점선”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의미소의 축이 tête(tête de ligne[head of line, 선의 머리, 기점] vs fourgon de tête[the lead car of a train, 화물차의 머리])에 가장 가까운 핵의미소 내부에 그 의미소를 실현시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강류 α 만이 의미소 아티클레이션의 중립 텀(“연속성”도 아니고 “불연속성”도 아닌)을 표현한다.

핵의 의미소적 상수를 식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전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두 의미소의 상수(invariance)에 의해 이러한 핵의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구 대상이 되었던 핵들과 함께 밀접한 의존관계 내부에 나타나는 핵의미소의 가장 가까운 영토를 어쩔 수 없이 침범하도록 하는 “화맥적”이라고 불렀던 그 의미소의 분석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소적 선언(選言)을 표시하기 위해 대각선(/)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우리는 첫 번째 분석의 결과를 형식화할 수 있다.

$$N_1 (s_1 + s_2) + C [N_2 (s_3 / s_4) + (s_5 / s_6)] + \dots$$

이것은 핵의미소와 화맥의미소 양측의 의미소함수를 다 부여받은 것이다. 화맥의미소의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애매성은 뒤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b. “tête”의 제2의 핵: 구체성(球體性)

격상(figure)의 목록과 병존했던 또 다른 목록은 동일 발화자료체로부터 끌어낼지 모르고, 실제적으로 명백한 의미소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근사 강류의 형식 아래 나타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소를 갖게 될 것이다.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a) 구체성

la tête d'une comète(head of comet, 혜성의 머리)

la tête d'épingle, de clou(the head for a pin, nail, 핀, 못의 머리)

[cf. 콩, 레몬, 양파—등, 영어에서 머리(head)를 콩(bean)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프랑스 속어]

β) 구체성 + 고체성(固體性)

se casser la tête(to break one's head, to worry, 머리를 깨다, 고민하다)

avoir la tête dure(to be hard-headed, 머리가 딱딱한, 머리가 나쁜)

tête fêlée(to be crack-brained, 금이 간 머리)

γ) 구체성 + 고체성 + 용기(容器)

se mettre dans la tête(to put into one's head, 머리 속에 넣다, ~할 것을 결심하다)

une tête bien pleine(a head full of knowledge, 지식이 가득 찬 머리)

se creuser la tête(to rack one's brain[by emptying it], 머리를 쥐어짜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의미소 분해의 결과는 어휘소 tête가 하나 또는 2개의 독립적인 핵을 책임지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하거나 의심할는지 모르는 첫 번째 핵의미소를 분석한 이러한 것들과 첫눈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로지 두 핵의 세심한 비교만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답을 얻기 전에, 주어진 목록 안에서 그 핵의미소 자체를 식별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구체성”은 다른 의미소의 모든 화맥강류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고체성”과 “용기”는 오로지 화맥적으로 변하기 쉬울 뿐이다.

c. 공통의 핵의미소

그러나 두 번째 목록의 발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인용된 그 모든 화맥들은 다소간 맹목적으로 이미 기술된 핵의미소를 포함시킨다. 실제로 강류 β

와 γ 내부에서, 단어 tête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신체의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tête는 먼저 “우위적 선단”으로 포착되어야만 한다. 즉 tête(머리)는 부분(副本)으로 pied(발)를 소유해야만 한다. 강류 α 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혜성이 머리(tête)이외에 꼬리(queu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핀의 머리는 다른 끝의 첨단과 대응한다.

선단성 + 우위성

첫 번째 목록의 핵의미소로부터 도출해낸 위와 같은 도식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목록의 공통부분을 구성한다. 우리는 우리의 분석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true)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새로운 핵의미소 “구체성”과 통합해야만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획득하여 가지고 있는 비교분석방법이 우리에게 조력을 줄 수 있다. 사실, 의미소 “구체성”의 현존재는, 최초의 기술에서 의미소표기 부재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찢찢때때 했던 것처럼, 그전의 의미소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간의 차원적 성격을 밝히지 못했던 분석의 처음 단계를 고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소 “구체성”의 현존재 때문에 암시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충만한 또는 채워질 만한 영역으로서의 공간의 개념을 전제한다. 순수차원으로 구성된 빈 공간으로 취급하든지, 또는 반대로, 면적(평면)과 체적(입체)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팽창으로 취급하든지, 선단성 그 자체는 이따금 여차여차한 차원에 의해 부과된 제약으로, 또 때로는 넓게 퍼진 공간 안에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선(연속된 또는 불연속된)과 관련된 점으로, 또는 체적 세계의 구체(회전 타원체)로 표현될 것이다.

그때 “점” vs “구체”의 이러한 대당은, 때로는 조정적 텀 또 때로는 부정적 텀을 나타내고 있는 복합구조로 형식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한 구조는 핵의미소들 안에서 보다 자주 발견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언어의 체계적 레벨에 속해있는 범주 또는 담화의 레벨에 실현된 아티클레이션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체”(See. “에메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응용언어학연구 1」, Comment définir les indéfinis, études des linguistique appliquée I, 1963)라고 하는 범주의 정의를 우리가 이러한 아티클레이션의 유형과 최초로 만나는 것의 예로 인용할 수 있었으며, 브뤼달(Vigo

Brøndal)에게서 영감을 얻어, 이산단위와 마찬가지로 구성단위로서의 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애매한 정량으로 되어있는 2개의 식별단위가 연결된 총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d. 단순격상과 복합격상

tête라고 하는 핵의미소의 예비분석이 정확한 한, 그것은 우리가 어휘소의 핵을 어쩌면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을 그 구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의 특정한 예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핵은 하나의 고립된 의미소 또는 의미소의 단일한 세트도 아니다. 그러나 기본구조의 여러 가지 가능한 표출로부터 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집단화에 가담하여 방황하고 있는 의미소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독립체계에 속해있는 의미소 그 자체 안에 연결된다.

따라서 “선단성”과 “우위성”은 자율적인 의미소이다. 즉 필연적으로 각각 서로 겹쳐지지 않은 두 의미소범주에 좌우된다. 핵 내부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 또한 두 의미소와의 관계 안에서 “자율적”이다. 즉 그것은 단순 논리적 전체에 의해 정의되었던 하위계열적 관계이다. 만약 우리가 왼쪽으로부터 오른 쪽으로, 종속시키고 있는 의미소로부터 종속된 의미소로 진행하고 있는 화살표에 의해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선단성” (s_1)과 “우위성” (s_2)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Ns = s_1 \rightarrow s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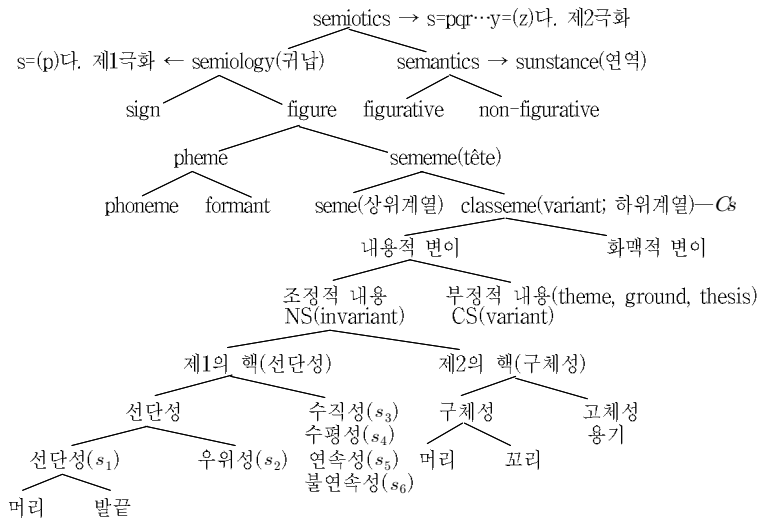
우리는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 사이의 계층적 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핵의미소를 이렇게 추리할 것이다. 그리고 어휘소의 차원을 초월하지 않는 단순 핵격상으로 추리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의미소 사이의 계층적 관계가 둘 또는 결합구조의 더 많은 어휘소로 펼쳐지게 된다면, la tête d'un arbre(나무의 머리, 우듬지) 유형의 시퀀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Ns = (s_1 \rightarrow s_2) \rightarrow s_3$$

e. 내용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cal) 레벨을 향하여

우리가 방금 검토했던 격상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는 우리로 하여금 공간의 일반적 개념으로 모두 되돌려주게 하고, 또 그 때문에, 보다 총괄적인 의미소 체계에 속하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익하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내용을 최소구성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의미소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에 따르고 있는 가언(hypothesis)이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수없이 많은 어휘소적 표출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작용개념을 도입함에 있어서, 핵격상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자연의 의미소체계를 반성하고 있는, 표출에서의 의미소, 즉 그들의 결합은 의미세계의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구성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노트: 위에서 기술된 아종의 의미소에서 세미올로지 또는 semiotics에 이르는 경로를 도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역주)



노트: 그레마스(A. J. Greimas)가 본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semiology'는 1970년대 이전, 즉 "semiotics/semiology"의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용어가 혼용되던 시기에, 그가 채택한 것이다. 그는 "semiology vs semiological(semiotics)"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semiology(세미올로지); I. 용어 'semiology'는 용어 'semiotics'와 동시에 사용되며, 언어의 이론과 다른 의미작용 세트와의 적용을 지시한다. 그것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기호의 체계(system of signs)"에 관한 일반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일컬었을 때 이러한 라벨을 사용했던 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두 용어가 떠맡고 있는 그 지식의 장(또는 wanting-to-know)에 관해 말한다면, 먼저 그들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후계자들에, 다시 말해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와 보다 아래 단계의 야콥슨(Roman Jakobson)에 의해 언어학의 영역 안에서 영향을 받았던, 다시 말해서 프랑수아즈 구조주의(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뒤메질[Georges Dumézil] 등)로 호칭되었던 그 프레임 안, 1960년대의 프랑스에서 구성되었다. 두 용어(어느 정도 오랫동안 교체해가며 사용되었던) 중에서, “기호학(semiotics)”이 최종적으로 선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기호학연구를 위한 국제협회의 명목이 유래되었다(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Sémiotique). 이러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용어 “세미올로지(semiology)”는 프랑스(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제자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마르티네[A. Martinet]의 제자들 사이)나 다른 라틴어 계 국가들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폭넓게 계속 사용되었고,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 세미올로지(semiology)의 그리고 기호학의 방법론적 내용은 두 호칭 의미 사이의 특징을 만들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2. 세미올로지(semiology)적 투기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정의(그리고 그 시대의 인간과학의 인식론과의 연결이 먼)의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거의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빠르게 환원되었다. 이러한 투기 안에서의 “체계(system)”의 개념은 기호학(semiotic)의 변화과정과 동시에 매우 다양한 의미작용의 실행을 배척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안에 명기된 “기호(sign)”의 연구는 “언어학적 기호(sign)” 등의 모델의 가장 기계적인 적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세미올로지(semiology)는 약간의 인위적, 보충적, 부호의 분석(cf. Prieto와 Mounin의 분석)으로 환원되었으며, 세미올로지(semiology)를 만드는 것은 언어학에 덧붙은 하나의 분야로 나타난다.

3. 세미올로지(semiology) 연구의 발전상에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일으킨 그 현혹적인 충격의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전술한 협의의 형식화가 아닌, 절대적으로 그 전체성 안에서 고찰된 언어의 이론(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윤곽을 그렸던 기초차원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은 프랑스 세미올로지(semiology) 안에 들어가 훌륭하게 관계를 맺은 소쉬르주의의 엘름슬레우적 형식화(cf.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원소”와 그레마스[A. J. Greimas]의 “구조의 미론”)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용어를 지키면서도, 세세하고 엄밀하게 정의를 부여한다. 그에게서의 세미올로지(semiology)는 과학적 메타-기호학을 의미하며, 그것의 대상-기호학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는 내포기호학의 체계(connotative semiotic systems; 내포 즉 언어지외의 언어)를 기호학(semiology)의 영역에서 배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기호학의 체계(예를 들어, 논리적 언어)를 그들의 대상-기호학의 체계로 받아들인다.

4. 이렇게 용어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정밀함은 무익한 것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들이 세미올로지(semiology)와 기호학 사이의 발전적 구별로 나타났던 기초선택권으로 정위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지시적 관점으로 기여함으로써, 필연적인 것 같다. 따라서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엘름슬레우적인 정의의 관계와 함께,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원소” 바로 이전의 최초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불충실(disloyalty)”은 언어의 내포적인 영역(connotative dimension; 그의 “신화학”), 즉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정의로부터 배척된, 그러나 사회-기호학(사회적인 내포를 위한)과 심리-기호학(개인적 레벨에서의 내포를 위한) 안에 정위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그의 관심으로 존재했다. 분명히 이것은 불충실의 행위는 아니었지만, 기호(sign)와 언어를 중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애타튜드(attitude: 발레에서 한 발을 뒤로 든 자세)이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거의 즉각적인 결과 —그러한 세미올로지(semiology)적 확립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근의 독창성에 의해 생산된 충격적인 효과를 상기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어를 향한 이러한 빛각적인 접근은 기술자(또

는 “원본작성자”)의 직권과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내포언어의 시니피앙은 어느 명백한 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담화의 전체 범위에 널리 살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오로지 시니피앙의 예비행위와 자율적인 가정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엄밀한 개념적 원리에 종속된 상상력에 의해 오랫동안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심리학의 어떤 형식(분석되지 못한 대상-기호학의 체계가 정신분석가를 위한 시니피앙이 될 때)에 서든지, 또는 어떤 사회학(세미올로지가 나중에 정당화의 요인이 된 그 때)에서든지 하여간 어느 곳에서든지 기초를 찾지 못하면, 내포적적인(connotative) 성격의 세미올로지(semiology)적 분석은 상투어의 여분을 생산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우리가 시니피앙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시니피앙(모순 없이 견실한 내포적인 접근은 다른 방법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을 선택하도록 하자마자, 우리는 기호학의 기초 공준 —기호학의 힘과 이중적인 특이성(specificity)을 구성하고 있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상호관계를 단념한다.

5. 대상-기호학의 체계의 메타-기호학의 관심으로 존재했던 불충실의 역 “불충실”(더욱더 세미올로지의 엘름슬레우적인 정의와 관계하고 있는), 즉 충실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논리학자와 수학자에게 일임했던 영역, 즉 과학적 기호학의 체계(즉, 과학적 담화와 형식적 언어)로 즉각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두 그룹의 장소(비록 기호학적 그리고 논리적 관점 사이의 편차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보충성을 폭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획득의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즉 어떻게 기술적 메타언어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 논리학의 빈 학파와 영국계-미국인의 연장(그것은 두 구성원소의 결합, 즉 통사론과 의미론의 결합으로서의 기호학을 정의한다)과, 마찬가지로 수학의 폴란드 학파(메타언어의 계층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했던)와의 조우는 오로지 “과학적” 메타언어학적 기술의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요구조건을 확증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기호학(우리가 이러한 용어에 부여하기 시작하고 있는 제한된 의미 안에서)이 의미론의 문제에 결코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피앙의 기술은 단지 부연설명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입증할 수 없는 주관성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고, 시니피앙에 측면의(기호학의 체계의) 부연 설명적 기술은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 기술이 구성으로 인식된다면, 그 분석은 응집성과 적절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세미올로지(semiology)를 초월한 언어학의 정당화된 영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외침이 실행되고 있는 어느 능동성 하의 보편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간극이 세미올로지(semiology; 자연언어가 기호학적 대상의 기술 안에서 부연 설명의 도구로 기여하는 것을 위한)와 기호학(semiotics; 그것의 주요한 과업은 특유한 메타언어의 구성이다)을 분할한다.

6. 결국 논쟁의 최후의 관점은 언어학과 “semiology/semiotics” 사이의 검토에 달려있다. 세미올로지(semiology)는 기호(sign)의 특이성과 비언어학적 기호학의 체계로 인식될만한 조직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장에 의해 언어학의 지상권(至上權)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호학은 언어학적 방법과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 고찰된다. 사실(그리고 이것은 시각 기호학의 장에서 특히 분명하다. 평면적, 즉 2차원의 기호학을 보라) 기호학은 비언어학적 기호학의 체계(사진, 회화, 건축양식 등)에 속해있는 시니피앙의 독해과정 안 자연언어의 중재(화해, mediation)를 다소간 명백하게 가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학은 이러한 중재에 도전한다. 모드의 체계와 함께 출발함으로써, 가장 우수한 엘름슬레우주의자들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의상의 기호학을 기술하기 위하여, 그는 “문자로 쓴 패션”의 중재(그러나 편의상 단순한 것으로 고찰하고 있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화의 세미올로지

(semiology)는 회화에서 결국 담화의 분석으로 고찰된다. 그 견해 차이는 마치 야콥슨(Roman Jakobson)과 같은 언어학의 이론가들이 언어의 “도구”로 표현된, 이러한 두 “실제물”의 분리할 수 없는 상호결함으로 솔직하게 긍정된, “사고(thought)”의 심리주의자들과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었던 때의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사고 없이는 언어가 없고, 언어 없이 사고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언어를 오로지 “사고”의 저장소로만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또한 비언어학적 다른 기호학의 체계도 언어, 즉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그 감각과 경험(우리가 지시하는, 예를 들어, 건축 양식적 형식이 우리를 초월하는 그 파악에 의한 용어)은 이러한 형식의 단지 시니피에에 불과하며, 구성된, 다소간 적절한, 그러나 자율적인 메타언어는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pp. 282~284. (역주)

3. 강류의미소(綱類意味素, classeme)

a. 화맥의미소

이 장의 모두(冒頭)에서, 우리는 어의소를 핵의미소와 화맥의미소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더 나아가 이 정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의미소를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했으며, 거기에 핵격상이라고 하는 명목을 부여했다. 우리는 아직 어의소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화맥적 여러 가지 원소의 지위를 규명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한 가지 예는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개가 짖는다 (Le chien aboie, The dog barks)”라고 하는 담화의 매우 단순한 시퀀스를 선택해 보자. 기왕에 추구했던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핵의미소를 도출해내도록 허락하면서, 그것이 barks(aboie)와 결합되어있을지 모르는 2개 강류의 “주체(subjects)⁶⁹⁾”의 존재를 우리에게 시현(示現)되게 하고 있는 Ns_1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음음의 종류”에 귀착하고 있는 오로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으로 추리할 것이다. 한편, 그것은 동물의 범주이다.

69) “subject vs object”는 “주관 vs 객관,” “주체 vs 객체,” “주체 vs 대상,”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subject”의 경우 “주사(主辭) vs 빈사(賓辭, predicate)”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레마스 는 여기서 어느 한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천과 직접추론의 아티클레이션(화성학에서 음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음표를 이음줄로 묶은 것과 같은 기호사각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체”와 “주사”의 의미가 보다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the dog(개)
the fox(여우)
the jackal(자칼)

다른 한편 인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the man(인간)
Diogenes(디오게네스)
that ambitious one(야망가)

우리는 이러한 2개의 범주가 전체 범주에 공통된 의미소의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언급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 그것은 의미소 “동물”(Cs₁), 두 번째 경우에는, 의미소 “인간”(Cs₂)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소들의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담화 내부에 나타나는 화맥발현 하나의 조력을 받아 표출되며, 핵 Ns₁과 함께 이루어진 그 결합은 2개의 다른 어의소를 구성한다.

Sm = Ns₁ + Cs₁(동물의 울음)

Sm = Ns₂ + Cs₂(인간의 울음)

이번에는 어휘소 chein(dog, 매우 단순화하고 있는)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2개의 다른 화맥의 유형 내부에서 그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화맥발현의 첫 번째 범주는 핵 Ns₂와 함께 어의소 Sm₃를 구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le chein aboie(개가 짖는다),
gronde(으르렁거린다),
morde(물어뜯는다) 등⁷⁰⁾

70) 영역자는 어휘소 stud를 사용하여 아래의 문장을 예로 들고 있지만, 원문을 살렸다. (역주)

그리고 공통의미소 “동물”(C_{s₁})을 시현한다. 즉 “Sm3 = N_{s₂} + C_{s₁}”을 시현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le chein aboie(개가 짖는다)”고 발화하고 있지만, 청자의 관점에서는 내부적으로 “Diogenes가 소리친다(운다)”고 상상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의 어의소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범주의 화맥 “갈고리의 일종(kind of revet, sorte de grappin),” “통장이의 도구(upright wall frame, outil de tonnelier),” “갱도에서 사용하는 손수레(a solid button, chariot à bras dans mines)” 등도 우리에게 공통의미소 “대상[물체]”(C_{s₃})을 전제하도록 한다. 즉 내부적으로 “갱도의 손수레가 소음을 낸다(Sm4 = N_{s₃} + C_{s₁})”를 전제한다.

(노트: 여기서 그레마스[A. J. Greimas]의 예, 즉 이 단락의 예와 일관된 chie[개]는 “dog[개]”와 “pushcard[천공카드]”와 총의 “hammer[공이]”를 의미한다. 그의 동사—“barks[aboie, 짖다],” “growls[gronde, 으르렁거리다],” “bitel[mord, 물다]”는 앞 단어 어느 것이든지 간의 효과에 의해 지배받을 수 있다. 그레마스[A. J. Greimas]의 용어에서, 포르만트[formant] chien과 stud[종마, 말뼀]은 2개의 다른 어의소를 떠맡는다. [VI. 1. b]—영역자)

b. 어휘소와 어의소

이런 유형의 분석결과는 2개의 약간 다른 방법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 각각의 어휘소의 격상을 선택하거나 그 격상을 상수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격상과 함께 모든 화맥의미소를 격상에 첨가시킬 수 있다. 어휘소 aboie와 chien[chien(+C_{s₁})/pushcard(+C_{s₃})]을 위하여, 우리는 2개의 다른 형식을 갖게 될 것이다.

$$L_1 = N_1 + C(s_1/s_2)$$

$$L_2 = N_2 + C(s_1/s_3)$$

따라서 이렇게 진술된 화맥의미소는 선언(選言)관계에 의해 의미소범주의 유형으로 재결합된다.

the stud neigh
kicks
falls

동물 vs 인간
동물 vs 대상(물체)

이런 방식으로, 담화 내부에 화맥의미소가 발현하기 전에 속속들이 규명됨으로써, 모든 가능성은 분석된 그 어휘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첫 번째 형식은 어휘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형식은 주어진 포르مان트에 의해 떠맡게 된 의미작용의 격상의 전체 함수를 총괄하는 잠재적 모델로 나타나지만, 담화 내부에 어떤 발현이 있기 전의 그 자체는 특별한 어의소를 생산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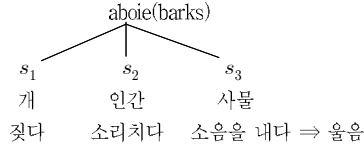
포티에(Bernard Pottier)가 그의 연구를 우리들의 연구와 병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즉 그 형식을 아마 어휘소의 이러한 개념일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견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⁷¹⁾ 잠재적 모델의 덩 내부에서 형식화된 어휘소의 사전은 기계적인 번역-전격에 의해 생긴 의미론적 문제의 해결에 실제적인 공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휘소적 의미론은 우리를 위하여 표현의 측면에서 유의성의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내용의 참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아티클레이션에 너무 많이 연결된 채 남아있다.

반대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어휘소가 형식화되는 것 대신에, 만약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담화의 시퀀스를 두 어의소의 만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현된 의미소의 선택이 이미 달성되었던 표출의미작용의 측면에서 즉각 위치를 잡게 된다. 따라서 aboie(barks)는 어의소로 구성되고, 화맥 chein(dog) 안에 담겨있는 의미소 s_1 을 담화가 실현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거꾸로, 화맥 aboie(barks)의 현존재는 어의소 “개-동물”의 외관을 위하여, 의미소 s_1 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퀀스는 의미소 s_2 와 s_3 를 배제하고 화맥의미소 s_1 만을 오로지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 오로지 가능한 어의소 결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71) Bernard Pottier, 「Systematique des éléments de relation」, p. 95.

$$Sq = [N_2 + Cs_1] + [N_1 + Cs_1]$$

노트: aboie(barks)는 다음과 같이 아티클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역주)



그 각각의 핵은 인접 어휘소에 속해있는 화맥의미소와 함께 논리적으로 결합된다. 우리가 2개의 화맥의미소를 위하여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일하며, 그리고 인접 의미소 내부에서 주어진 의미소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이미 그 자체 안에 전유(專有) 되어있을 때,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쉽게 나타날는지 모른다. 실제로, 어휘소의 시퀀스의 하나를 대체함으로써, 다음 문장을 얻어낼 수 있다.

The commissioner barks(서장이 소리친다)

이때 우리는 의미소 s_2 를 표출하고 있는 aboie(barks)의 새로운 화맥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핵 $N_3(\text{commissioner})$ 의 화맥의미소는 필연적으로 의미소 s_2 가 될 것이다.

$$Sq = [N_3 + Cs_2] + [N_1 + Cs_2]$$

이러한 기본적인 연습은 우리가 뒤에 실험할 약간의 일반적인 언급을 순간적으로 형식화하도록 허락한다.

c. 강류의미소의 정의

이제 어휘소를 초월하여 담화단위로 고찰된 화맥에 의해 실행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화맥은 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아티클레이션의 독창적인 레벨을 구성한다. 사실, 담화 내부에서 실현되는 그 순간에, 화맥은 결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핵의미소 사이의 일치(두 핵의미소가 동일 화맥의미소와

결합될지 모르는 그 사실에 존재하고 있는 일치) 또는 상반의 체계로 함수역할을 연기한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동일현상(the same phenomenon)을 고찰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맥의미소의 반복적인 표출을 이끌어내는 어느 한 핵의미소보다 더 많은 담화 내부의 표출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두 의미소의 결합으로 정확하게 기술했던 담화 *Le chien aboie*(The dog barks, 개가 짖는다)의 시퀀스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동등하게 형식화될는지 모른다.

$$Sq = (N_2 + N_1)Cs_1$$

만약 이것이 오로지 한 화맥의미소만을 의미하면서 2개의 의미소격상을 포함한다면, 이 새로운 형식은 부여된 화맥 시퀀스를 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렇게나 표출된 핵의미소 내부의 어휘소보다 더 폭이 넓은 커뮤니케이션, 결합어휘소 또는 명제의 이러한 단위들과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화맥의미소가 의미소격상으로부터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기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화맥의미소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적으로 애매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장의 모두에 행했던 화맥분석은 그 의미소를 밝혀줄 것이며, 반면에 고찰된 핵과의 관계 내부에서 “화맥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인접 핵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반복적 화맥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핵의미소에 대비해서 화맥의미소가 마땅히 강류의미소(classemes)로 호칭되도록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노트: 용어 의미소(eme)에 이어서, 우리는 포티에(Bernard Pottier)로부터 용어 강류의미소(classeme)를 차용할 것이다.⁷²⁾

d.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을 향하여

담화조직의 내부에서 기본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의미소의 자율적 강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중성이 필요하다. 사실, 만약 아직도 매우 애매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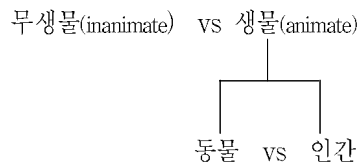
72) Bernard Pottier, 「Systematique des éléments de relation」

다시 말해서, 아직 메시지에 의해 또는 엘름슬레우적 의미에서의 해석소(lexia, lexie)에 의해 진술된 의미총체(totalité de signification)의 논리적인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설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반복성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그러한 강류의미소의 개념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또는 몇 개의 강류의미소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메시지 또는 담화의 시퀀스가 동류체(同類體, isotopy)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메시지의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동류체의 개념 때문에 텍스트 전체가 어떻게 보다 더 많은 동차적 의미론의 레벨에 위치를 잡게 되는가, 아프리오리(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제안한 것처럼⁷³⁾를 진술하는 대신에 어떻게 표의총체의 포괄적인 시니피에가 언어학적 표출의 구조적 실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나타내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사용했던 예에서 우연히 전에 알게 되었던 약간의 강류의미소를 대강 훑어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핵의미소와 관련된 강류의미소의 자율성은 최초의 확증을 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사유(思惟)를 자극하고 있는 전제일 뿐이다. 우리는

대상 vs 동물 vs 인간

이와 같은 강류의미소가 하나의 의미체계 내부에서 오렌지의 낭중분절(囊中分節)과 같은 음표의 아티쿨레이션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면, 아마 그것은 보다 더 명백할지도 모른다.



73) Louis Hjelmslev,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pp. 44~45.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일반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는지 모른다. 만약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의미소격상은 포괄적 의미론 레벨에 의존한다. 그들은 오로지 강류의미소나 담화 내부에 부여되거나 준비된, 또는 다른 성격의 체계 내부에 구성된 특별 아티클레이션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포괄적 의미론 레벨에 속하며 그 표출은 메시지와 텍스트의 동류체를 보증한다.

4. 도구적 개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의미작용의 어떤 기술에 필요불가결한 구성의 조성단위를 목표로 삼았던 개념화의 첫 번째 시도의 결과를 여기에 요약하는 것이 유익할는지 모른다. 이 도표는 이전의 토론에서 다소 엄밀하게 정의되었던 용어를 나타낸다. 우리는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존속시켜야만 할 것이다.⁷⁴⁾

내재	표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미올로지 레벨</p> <p>의미론 레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의미소 체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미올로지 범주</p> <p>의미소</p> <p>강류의미소 범주</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의미소 텀</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0 10px;"> <p>{</p> <p>핵격상</p> <p>}</p> </div> <p>어의소</p>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p>{</p> <p>강류의미소 기저</p> <p>}</p> </div>

노트: semiotics(기호학); 용어 기호학은, (A) 연구의 결과로 표출된 존재자르든지, (B) 그것이 줄곧 그리고 기술 후에 나타남으로써 지식의 대상으로든지, (C) 이렇게 가능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만들고 있는 방식으로서의 집합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지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A) 대상으로서의 기호학

1. “기호체계(system of signs)”로서의 기호학의 기본적인 정의는 의미 (A)를 위해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호(signs)의 인식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작용의 체계(system of signification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의미작용”의 폭넓은 개념을 도입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체계(그것은 한정적이며, 정밀하며, 그리고 사색적인 관념이다)”의 반제에 의해, “세트”에 의해, 우리는 적어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74) 세미올로지 레벨(semiologic level), 의미론 레벨(semantic level), 의미소체계(semic system), 세미올로지 범주(semiologal categories), 강류의미소 범주(classematic categories), 의미소(emes), 의미소의 텀(semic terms), 핵격상(nuclear figures), 강류의미소 기저(classematic base), 어의소(sememes). (역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소정의 기호학을 의미작용 세트로 정의하도록 할 수 있고, 적어도 가정적으로, 조직 즉 자율적인 내재적 아티컬레이션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어떤 무엇이 분석에 종속되도록 제안되자마자 어떤 의미작용 세트가 대상-기호학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의는 가연적이다, 그 이유는 기술적 투기의 구조 안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둘러싸는 메타기호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의미작용 세트의 개념과 대상-기호학은 동연(同延)이 아니다. 때때로 분석의 결과는, 구성된 기호학의 체계로 둘러싸인 또는 역으로 때때로 후자가 최초로 의미작용 세트(의미장을 보라)의 일부인 이러한 생각보다 더 실재물들(entities)을 떠맡고 밝히며 의미작용 세트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2. 이러한 서언은 언뜻 보기에 무익하며, 우리가 소위 자연적 기호학 체계를,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구성된” 것 간의 이분법의 타당성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는 전체로서의 기호학이론을 포함한다.

자연적 기호학 체계에 의해 우리는 두 개의 방대한 의미작용 세트, 즉 한 편으로는 자연언어, 다른 한 편으로는 자연세계의 기호학으로 고찰하는 “여분-언어학적 화맥”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연적”이라고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에 몰두되는 것에 의해,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보편의미”의 세계로 투기되는 것에 의해, 구성된 존재보다 더 좋은 인간존재로 자기 자신을 떠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과의 경계는, 뚜렷하지가 않다. 문학적 담화는 소정의 자연언어를 사용하고, 논리학은 자연언어에서 그 기원을 발견한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진짜의 구성이다. 공간(space)의 기호학은 “구축된” 공간과 “자연적” 공간 사이의 뚜렷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 곤란을 두드러지게 경험한다. “자연적”의 일부는 문화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인간에 의해 형성된 공간과 관계된 오로지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으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하면 자연언어는 그들 사이의 기호학 체계로 존재한다. 즉 자연언어와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기호(sign)의 방대한 저장소로, 많은 기호학 체계가 표출된 장소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구성의 개념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되고 거듭 주장된다. 구성이 구성하고 있는 주체의 존재자를 포함하고 있는 한, 공간(room)은 개인적 주체와 나란히 집합적 주체로 만들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예를 들어 에스노-문학적 또는 에스노-음악적 담화는, 발생적 인류학의 지위가 되든지, 그러한 담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주체에 귀속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 되든지 담화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것은 대당 “자연적/구성된(또는 인위적)”으로, 대당 “과학적 기호학의 체계/비과학적 기호학의 체계”로 치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여기서 과학적 기호학의 체계(“과학적”의 광의의 의미 안에서)에 의해 우리는 기호학이론 바로 이 프레임으로 간주된, 명백한 또는 함축적인(explicit or implicit), 대상-기호학을 이해하게 된다(예를 들어, 기록언어의 구성은 비록 그것이 오로지 사실만의 과학일지라도 이론상에서 구축된다).

3. 따라서 그것은 마크로-기호학의 체계의 지위를 정의하는데 불가결하며, 그 안에 특별한 기호학의 체계가 조직된다. 이러한 마크로-체계, 즉 자연언어와 자연세계는, “자연”이 “문화”를 통해서 지각된다고 하는 오로지 그 의미 안에서만 “자연적”이며, 그것은 그들과 관계적이고 복수 사용을 허락한다. 제1의 위치(place) 안에서, 그것은 두 세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기록하는데 필연적이다. 따라서 자연세계가 자연언어로 번역-전격될 수 있는 것은, 기호학의 체계 바로 이 두 유형으로부터 분기하고 있는 단위 사이에 확립될 수 있는 상응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자연세계의 격상소[pheme]는 격아강적인 측면에서 자연언어의 의미소[seme]와 상응한다. 육체의 연기는 언어학적 변화과정 등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 측면에서 인식될만한 두 기호학의 체계로부터 분기하고 있는 오렌지와

같이 낭중분절(囊中分節, segment)의 어떤 상호관통이다. 언어학적 직시는 자연적 화맥이라 부르고, 몸짓의 낭중분절은 말에 관한 결합 등을 반제한다. 제2의 위치(place) 안에서, 자연 언어는 번역-전격될 수 있는(반면에 반대는 불가능한) 다른 기호학의 체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오직 그 언어로만 존재한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의 첫째는 자연세계의 격상이 자연언어 안에서 의미론적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이며, 둘째(그리고 특별히)는 자연언어만이 어휘화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기호학의 체계 안에서 함축적으로(implicit) 남아있는 추상적(다방면적) 의미론적 범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4. 우리를 위해, 매크로-기호학(자연언어와 자연세계)은 모든 다른 기호학의 체계가 표출되는 중심지이다.

(B) 기호학의 유형학

1. 반면에, 의미 (A)에서, 용어 “기호학”은 기술에 선행하는 의미작용 세트를 지시하는데 기여하며, 다른 어의에서 그것은 존재(being)라고 하는, 이미 구성된 것으로 존재하는, 지식의 대상으로 불리는 것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투기로든지, 또는 이미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든지, 또는 끝으로 구성된 대상으로든지,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고찰된 대상-기호학을 취급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상-기호학과 그것을 포착하는, 그 형식을 부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드는 기호학이론 간 만남의 관점에서만 비로소 기호학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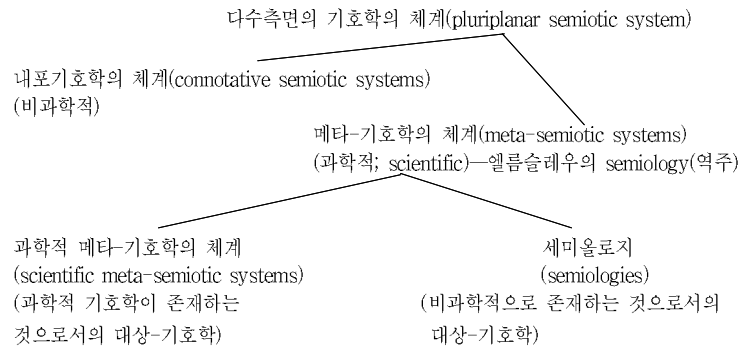
2.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전통에 의하면, 그는 최초로 결합(coherence) 기호학 이론을 제안했으며, 우리는 그가 기호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그 정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는 계열체적이며 결합체적인(따라서 그것은 기호학의 체계 또는 변화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호현상을 구성하는 것의 결합, 즉 적어도 두 개의 아티클레이션 측면(표현과 내용)이 준비되어있는 존재자의 이중모드를 타고난 계층(즉, 계층적으로 조직된 관계의 네트워크)으로 고찰한다. 담화의 그리고 기호학의 실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의 탐구는 결합체적 추과 기호학의 변화과정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확립된 결과의 체계화에 내맡겨진 탐구의 뒤의 단계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3. 이러한 공통 성격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즉 기호학의 체계 바로 이 유형학을 위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보다 독특한 특징을 첨가하기로 하자. 현재 분류의 두 유형은,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관에 기초한, 다른 한편 인식된 기호(sign)의 성격에 기초한, 기호학의 체계의 주연(周延)은 단순하게 또는 암암리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어느 것도 기호학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상응하지 않는다. 기호(sign) 전송의 도관에 따르고 있는 (또는 그 의미의 목록에 따르고 있는)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우리가 표현실체에 대한 숙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의지한다. 그러나 표현실체에 대한 숙고는 기호학의 정의(즉, 우선 먼저 형식)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기호(sign)의 성격에 따르고 있는 주연은 이러한 기호(상징, 아이콘, 색인 등)가 지시대상과 관여하며 주장하고 있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표준(특정)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확립된 기호학적 조직의 자율성의(또는 내재성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또한 그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 우리는 기호학적 탐구의 현재 상태가 주어진 것인가, 어느 그러한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이 시기상조는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4. 서론에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제안됨으로써 기호학의 체계의 유형학은 매우 다른 성격으로 존재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것을 간결하게 진술할 것이며, 나중에 우리 자신의 재유표로서의 인지(remark)를 첨가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학은 분류의 두 개의 표준 상에 기초한다. ① 과학(기호학은 그것이 경험적 원리에 순응시키고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있는 기술일 때 과학적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⑥ 소정의 기호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언어) 측면. 따라서 그것은 과학적이거나 아닌 단일측면의 기호학의 체계(또는 Louis Hjelmslev의 용어법에서 상징의 체계), 그리고 기호학을 구성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이중측면의 기호학의 체계(대상-기호학으로 불리는)로 존재하는 다수측면의 기호학의 체계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두 측면의 오로지 하나만의 경우는 대상-기호학이 매우 여러 번의 반복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다수측면의 기호학의 체계는, ④ 그들이 과학적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⑥ 그들의 대상-기호학이 과학적이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에 따라 세분된다. 다음 도식은 이러한 주연을 표현한다.



이러한 분급(分級, classification)에는 두 개의 다른 범주가 첨가된다. 즉, 세미올로지와 내포기호학을 따로따로 고찰하고 있는 메타-세미올로지(meta-semiology)와 내포기호학의 메타-기호학(meta-semiotic of connotative semiotics)이 그것이다.

5.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유형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재유표로서의 인지가 필연적이다. ④ 위에서(in par. 3) 소정의 분류와 관련하여,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그것은 먼저 과학의 표준의 도입에 의해, 즉 그것을 떠맡고 있는 명백한 이론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기호학을 언급할 때), 구별된다. 부가해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분류는 앞의 것과 의견이 다르며, 표준으로서 언어측면(전체로 획득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활용에 의해, 표준은 지금 곧 기호학의 정의와 따라서 그것(반면에 실체와 지시대상은 보충적 그리고 이중의 변수를 도입한다)과 함께 동차(homogeneous)를 분할한다. 이것은 전체로 획득된 이론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제안된 유형학을 고찰하도록 강제한다. 그것은 전체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분류가 되지는 못한다. ⑤ 동차 용어법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호학(semiotics)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유형학에서 세미올로지(semiology)라고 호칭했던 메타-기호학(meta-semiotics)과 상응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호학(기호학 이론)에 의해 표현된 모든 의미작용 세트는 기호학의 체계가 된다. ⑥ 과학적 메타-기호학의 체계는 메타언어와 관련되고 있는 논쟁, 즉 논리학, 수학, 언어학, 그리고 기호학 이론과 공통된 논쟁과 연결된다. ⑦ 단일측면의 기호학의 체계를 위한 독립범주의 창조에 대해,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문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호학”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징의 체계로 고찰한다. 그가 단일측면의 기호학의 체계에 부여한 정의(그들은 두 측면의 일치에 의해, 그들의 구조 동일성과 동류성에 의해, 그들 단위의 일대일 상응에 의해 동일함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그들이 오로지 언어의 단

하나의 측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 않지만, 그들은 의미작용의 형식(소쉬르적인, 그리고 엘름슬레우적인 것이 아닌, 의미)으로 표출된다. 더 나아가 식별은 인식된 일치의 유형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단일측면의 기호학의 체계 사이에 확립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형식적 언어(또는 상징의 체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획득된 각각의 기초가 표현측면에서든지, 또는 내용측면(이 경우 “해석할 수 있는”으로 일컬어진다)에서든지, 하여간 어떤 측면에서든지 인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구분이 판별력(이것은 표현측면에서 단독으로 이러한 언어를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보다 다른 아무 것도 없는 것 위에 기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 언어와는 반대로, 고립된 원소의 일치에 의해, 단지 범주의 일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질량상의” 또는 준 상징적 언어이다. 예를 들어, 작시법적 또는 몸짓 범주(정언)는, 추상미술 또는 어떤 음악적 형식으로 인식된 범주와 마찬가지로,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형식(우리의 문화적 화맥 속에서, “예”와 “아니오”가 대당 “수직성/수평성[머리를 끄떡이는 것 vs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과 상응한다)이다.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단일측면의 기호학의 체계와 의미작용하고 있는 이것 사이의 식별에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㉔ 과학의 장을 떠난 내포기호학(외연기호학[denotation]과 연결된)의 처리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내포의 이러한 언어의 엄격한 기술의 어려움이 그들의 표현측면으로부터의 진행에 의해 그것을 사실로 존재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내포를 예언하기가 불가능하다(그것은 발음의 특성, 또는 어휘소의 선택, 또는 프레임즈의 통사론적 전환 등을 시니피앙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내포(즉, 내포기호학의 체계)의 계층적 주연을 제안하기가 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롤랑 바르트(R. Barthes)의 신화학은 그들이 교묘하고 정제되어있을지라도, 단지 내포적인(connotative) 과편일 뿐이며, 근원적인 체계를 암시하고 있을지라도 연속적이지 아니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직접적인 대당이 내포언어와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측면에 기초되고 떠맡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내포체계의 기술로부터, 내포이론의 확립에 의해 시작될는지 모르는 것으로 시도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겨우 이러한 이론의 윤곽을 잡았고, 사회적 내포를 취급함으로써, 그것은 에스노-기호학 안에서 내포적(comnotative) 분류법(taxonomies; “독신”과 “신성한” 언어, “내부의”와 “외부의” 언어, “남성의”와 “여성의” 언어)의 형식으로, 또는 사회-기호학 안에서 내포적(connotative) 통사론(담화의 유형학과 상응하는)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장(field)에서의 탐구는 가까스로 시작되었다. 사회적 내포에 부가해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또한 거기에 개인적 내포(고대와 현대의 성격학과 다소간 상응하고 있는)가 존재하며, 그것의 내포를 우리는 막연한 관념으로 가까스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㉕ 언어학적 기호학의 체계와 비언어학적 기호학의 체계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현재의 용법을, 기호학의 표출의 두 개의 특권이 부여된 중심지를 지시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마크로-기호학의 체계, 즉 자연언어와 자연세계라고 부른다(어쩌면 부적당하게). 이것은 마크로-기호학을 위한 독립적이며 특별한 지위를 공준하는 것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반대로, 그들을 위해 자연언어는 다른 것과 같은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그러나 특권이 부여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크로-기호학의 체계는 포함의 능력과 자율적 기호학의 체계의 발전으로 고찰되어야만 한다(예를 들어, 이러한 최후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종교적이며 법률적인 담화와 관련되고 있는 최근의 많은 분석들).

그러나 곧 다른 문제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우리가 방금 확립했던 경계의 위반이 그것이며, 혼합주의의 기호학의 체계의 형식 안에서, 그것의 존재자는 동시에 명백하다. 이러한 체계의 표현측면은 몇 가지 이종의 기호학의 체계에 속한 원소에 의해 구성된다. 만약 오페라와 영화가 최초로 혼합주의적 담화의 특권적인 예로 표현된다면, 어떤 것은 어떤 것

하나만을 구성하는 자연언어(그리고 특히 구술담화)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본질적일지라도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혼합주의적이다. ⑥ 또한 다른 구별은 생성적 계도의 근거를 수용하고 있는 대당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격아강적인·비격아강적인(또는 추상적인) 기호학의 체계로 대당시킬지도 모르며, 그리고 동시에, 축어화된 그리고 표출된 심도의 레벨 상에 의지하고 있는 격아강적인·비격아강적인 기호학의 체계로 대당시킬지도 모른다. 담화와 기호학의 체계의 차이는 담화가 변화과정으로서의 후자의 판단보다 달리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

그들이 비록 때때로 기호학의 장 안에서 혼란의 기원일지라도, 이러한 모든 구별과 재조직화는 탐구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탐구로서 양측 모두를 제안하는 기호학을 위한 건강과 생명력의 기호(sign)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C) 기호학이론

1. 정의 (B)에서, 기호학은 대상-기호학과 기술언어의 적당한 겹쳐놓기로 고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절차에 정성을 들이기 위한, 모델의 구성을 위한, 그리고 기술적 레벨을 통제하는(즉, 방법론적 메타언어학적 레벨), 표상체계의 선택을 위한 “중심지 (a)”로 뿐만 아니라, 동차성의 확증과 이러한 절차와 모델의 응집성을 위한, “중심지 (b)”로, 마찬가지로 막연함의 그리고 이러한 전체 이론적 구성적 근거의 명확화(공리적 형식으로)를 위한 “중심지 (c)”로 조망한다(이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인식론의 레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호학은 보편적 기호학으로 획득될 것이며, 따라서 부과된 필요조건 상에서 단언하며, 그것은 존재자와 모든 특별한 기호학의 체계의 함수로 고찰하거나, 또는 그것이 어느 이론에 적합한 과학의 충족조건에 합당하다고 일컬어지는 한, 그리고 그것이 정의되는 한, 따라서 메타언어인 한(Louis Hjelmslev의 용어법에 의하면, 과학적 메타기호학과 메타세미올로지 양측 모두), 기호학이론으로 고찰한다.

2. 원칙적으로, 몇몇 기호학이론들(마치 몇몇 생성문법처럼)은 정교하게 만들어질는지 모른다. 오로지 그들의 형식화만이 비교되고, 어떤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검토된 그들을 허락하는 것만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비교접근은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기호학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작용적 절차가 없는 직관적 이론을 발견하고(흔히 신념의 독단적인 “공인”에 의해 반제된), 또 다른 한편, 때때로 그 절차는 형식화되지만, 어느 명백한 이론상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호학적 이론의 일반조건으로 고찰된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바로 그때에 우리자신을 제한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반면에, 동시에 우리의 이론적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3. 기호학이론은 먼저 존재하는 무엇에 대해, 즉 의미작용의 이론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첫 번째의 관련은 의미의 판단과 생산을 위한 조건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적 구성의 형식 안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소쉬르적인 그리고 엘름슬레우적인 전통(그것에 따르고 있는 의미작용은 “차이”의 판단 and/or의 창조이다) 안에 정위됨으로써, 그것은 이러한 모든 개념을 함께 가져와야만 할 것이며, 반면에 막연한 그 자체의 존재(being)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명백화는 그 이론에 의해 유보된 개념의 형식적 표현을 떠올린다. 관계의 네트워크로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기호학이론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유형학(전제, 모순 등)으로 표현될 기호학의 공리로 형식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공리는 형식적 정의의 줄기의 구성,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의미론적 범주(최소 단위)와 기호학 그 자체(최대 단위)와 같은 것을 허락할 것이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하면, 기호학은 체계의 논리적 정의

(“either...or”의 관계)와 변화과정의 논리적 정의(“both...and”의 관계), 내용과 표현의, 형식과 실체 등의 논리적 정의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는 최소의 형식적 언어의 세팅으로 존재한다. 상태로서의 관계(예를 들어, 모순)와 작용으로서의 관계(예를 들어, 부정) 사이의 구별은 상징-털과 작용-털을 공리로 간주하도록 허락하며, 따라서 발화의 예상을 위한 방도를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절차와 모델(예를 들어, 기호사각형 또는 기본적인 발화)이 형식화되지 않으면 안 될 그 안에서 표상체계의 선택(또는 자유선택)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론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간의 재유표로서의 인지는 기호학이론의 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접근의 보편적 관념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기호학의 투기의 원소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흠뻑러진다.

4. 기호학이론의 이러한 보편적 특징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보다 특별한, 총체적이며 경제적-유기적인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것의 아티클레이션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또 다른 것을 첨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선택권의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전개를 위해 적당한 생성형식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매우 폭넓은 의미에서, 생산모드의 초점으로부터 관찰된 기호학적 대상의 정의를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안내하는 이러한 접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언어학적 이론으로부터 확립된 상당량의 항목을 도입하도록, 이를테면, “랑가주(Benveniste)” 또는 “언어능력(Chomsky)”과 관계된 논쟁을 도입하도록, 그러나 또한 그들의 존재자모드(내포적[virtual], 외연적[actual], 실현된[realized])에 따르고 있는 레벨로 구조의 아티클레이션을 도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의 기호학적 생성은 많은 레벨과 구성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생성체도의 도표의 형식 안에 표현되고, 그 구별은 아마 단지 순간적이며 작용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것과 관계된 기호학적 능동성의 활동의 다른 장에 정위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5. 우리의 선택권의 두 번째는 언외발언의 문제를 기호학이론으로, 언어의 정작을 담화로(Benveniste), 그리고 미국의 화용론에 의해 비록 다르게 다루어진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둘러싼 특별하고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의 정작을 담화로, 도입하는 것 안에 존재한다. “언어” 안에 정위된 그리고 “언어능력”이 그 기원을 발견한 그 안에 정위된 심층 기호학적 구조를 위하여, 우리는 보다 작은 심층으로 존재하는 담화구조를 첨가했으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언외발언의 현상에 의해 구성된 여과기를 통하여, 구성되었다.

기호학이론은 발화의 이론(생성문법을 위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보다 더 좋게, 그리고 언외발언의 기호학보다 더 좋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먼저 대답으로 나타난 것을 보편적 기호학이론으로 통합하여 화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pp. 287~293. (역주)

노트: 털(term)은 안정적(stable)이고, 위치(자리, place)는 역동적(dynamic)이다. 즉, 털 $2x-(4+2)$ 일 때, x 가 8이라고 한다면, $16-6=12$ 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위치의 경우는, ... 4 3 2 1 0 -1 -2 -3 -4 ...이라고 한다면, 양수 1자리; 1~9, 2자리; 10~99, 3자리; 100~999, 4자리; 1,000~9,999 등의 변수가 발생한다. 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주)

제5장 세미올로지적인 레벨(Semiological Level)

1. 접근과 개요

a.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자율성(autonomy)

앞장에서, 우리는 세미올로지적인 레벨(semiological level)과 의미론적 레벨(semantic level)이라고 하는 언어의 두 자율적인(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레벨을 식별하려고 시도했다. 그 원소로서의 내용의 건축술적인 배합은 담화를 만들어내며, 그 자신이 의미작용의 표출 단위를 구성한다. 이제 이러한 두 언어학적 레벨을 따로따로 고찰할 때로써, 그들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자모드를 될 수 있는 한 상술하려고 한다. 특히, 그들의 윤곽과 배치 상태를 추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도를 목표로 삼는 것만이 의미론을 연구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보다 더 사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미세계를 분할할 때 의미작용의 두 레벨을 도입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담화 안에서 그들이 구성원소의 표출에 대한 원리와 함께 고찰된, 의미작용의 내재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레벨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과정과 체계의 이러한 대당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식되기가 어렵다. 더욱이, 세미올로지적인 영역(semiological domain)은 실제로 몇몇 인문학을 위하여 회동하는 장소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그 영역은 논리적인 선재(先在)와 우리에게 병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학·발생론적 심리학에 의해 고무된 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구조의미론의 정향을 아중으로 상술하기 위한 세미올로지적인 구조(semiological structure)의 자율성을 강조하기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상징기호(symbolism)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저서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발생론적이다. 특히, 뒤랑(Gilbert Durand)이 쓴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 구조(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를 만들고 있는 총체적인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⁷⁵⁾ 우리에게 분배된 수없이 많은 문제들

75) Gilbert Durand,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 구조(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3)

이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저서는 우리와 대당이 된 방법을 사용하고 해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뒤랑(Gilbert Durand)과 깊이 관련된 상징기호의 강류는 발생론적 강류의 표준에 속한다. 그것은 베흐테레프(V. M. Bechterev)⁷⁶⁾적인 반사학과 의태적(postural), 소화적(digestive), 결합적(copulative)이라고 하는 세 가지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반사운동(dominant reflexes)의 기본적인 구별에 의존한다.⁷⁷⁾ 발생론적 제1원리로 고찰된 그 반사적 레벨은 외견상으로만 체계화된 육체적 몸짓을 낳는다. 뒤랑(Gilbert Durand)에 의하면, 그 외견상으로만 체계화된 몸짓은 상징기호적 표상과 “아주 밀접한 병존설(concomitance)로”⁷⁸⁾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존설의 레벨로부터 나타난 몸짓이 상징기호적인 것은 아니며,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병존설의 이 몸짓은 상징기호와 격상(figure) 또는 복합적으로 상위계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분급(分級, classification)⁷⁹⁾ 양측을 그 스스로가 도식(schemas)으로 그리고 원형(archetypes)으로 확립한다. 그 행위들(그들은 할 수 있고 제1의 원리로 고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은 마땅히 도식이라고 하는 명목을 부여받을 만하고, 그들 스스로 원형을 발생케 한다. 소화적인 그래서 딸림음 같은 지배에 상응하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강하시키는, 무엇을 삼키는 반사적 레벨의 행위와 유사하게 병존설의 원형적인 행동사 “높은” vs “낮은”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딸림음처럼 지배적 몸짓(dominant of posture)”⁸⁰⁾에 의존하고 있는 수직화의 행위는 원형 “포함하고 있

76) V. M. Bechterev, 1857~1927, 러시아 신경정신병학자. (역주)

77) Vladimire Bechterev, C. Bonne 역, 「Anatomie du système nerveux, systematisation, histologie」 (Lyons: Storch, 1902).

78) in narrow concomitance: 성체 특히 뱀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병존한다는 신앙. (역주)

79) 분급(分級, classification): 1. 도태(淘汰)라고도 한다. 매체(물이나 공기 등)의 유속(流速)이 일정해서 퇴적작용이 천천히 진행된다면 분급이 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물·공기 등의 유체 속에서 중력에 의해 침강하는 고체 입자는 주위의 유체로부터 그 침강에 저항하는 힘을 받는다. 이 저항력과 중력과의 균형에 의해 정해지는 입자의 평형침강속도(침강종말속도)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입자의 크기(지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퇴적물은 자연히 입자의 크기나 모양별로 따로따로 형성된다. 이것이 분급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가루나 알갱이를 다루는 광업·요업·화학공업에서 원료 선별에 응용된다. 2. 기호학에서의 분급은 taxonomy와는 달리 상위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역주)

80) 딸림음(제5음, dominant); 1. 으뜸음에 이어 중요한 음으로 속음 또는 도미넌트라고도 한다. 본래는 지배적인 음이라는 뜻이며 유럽의 장·단조에서는 으뜸음의 5도 위의 음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도 5도 위의 음이 딸림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으뜸음에서 아래 5도가 되는 음을 비급딸림음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이것을 위 딸림음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조성음악의 확립

는” vs “포함되고 있는”을 만들어낸다. 한편, 그 동일 도식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한편으로는 “색채(color),” “용기(receptacle),” “형식(form),”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체(substance)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저서가 절충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외견상으로만 체계화된 몸짓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언어학적 접근과 일치할 수 없는 정신상태의 방법론적 교묘히 다루기(책략, 속임수, manipulation)와 함께 과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일 것이다.

1. 비록 외견상으로만 체계화된 몸짓이 순수 가언보다 다른 무엇이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징기호의 기술이 격상의 기술을 위한 기준으로 언어학 영역 밖의 레벨의 실재성에서 성취된, 다시 말해서 독단적인 식별(구별)을 제

과 함께 이 위아래 5도의 움직임은 멜로디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고, 카덴차를 형성하는 것으로 화성진행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cadenza: 악곡·악구(樂句) 등의 마침이나 단락에서 그 과정을 형성하는 음 진행의 정형(定型).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인 카덴차(cadenza)로 불리며, 종지형(終止形)이라고도 한다. 처음 이 말은 종지형을 뜻하는 단순한 음악용어였으나 16세기경부터 악곡이나 악장의 마침 직전에 삽입하는 즉흥적인 기교적 솔로 패시지(solo passage: 독주 부분)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같은 기교는 18세기의 오페라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특히 A. 스카를라티를 비롯한 나폴리아파(樂派)의 오페라에서는 거의 양식화(樣式化)의 기미마저 보였다. 한편 바로크시대는 악기의 용성을 배경으로 G, 토렐리, A. 비발디 등의 독주협주곡에도 카덴차가 엮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의 카덴차는 고도의 기예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짙었으나 고전주의·낭만주의에 이르러서는 특히 협주곡에서 악곡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주제의 동기형(動機型)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1음(으뜸음; tonic), 제2음(위 으뜸음; supertonic), 제3음(가운음; mediant), 제4음(비금딸림음; subdominant), 제5음(딸림음; dominant), 제6음(비금가운음; sub-mediant), 제7음(이끌음; leading tone). (역주)

1) 딸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위의 조



2) 비금딸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아래(완전 4도 위)의 조



안하고 있는 것에 그 책임을 떠맡길 수는 없다. 의미론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언어처럼 지각 안에서 인식될 수 있고, 오직 사실과 반대되는 의미의 변별적 아티클레이션인 표현의 형식으로서 그 스스로 판명한 외부의 실재성에 빛을 지고 있다.

2. 더욱 더 복잡하게 증가하는 상징기호의 발생론적 설명도 거짓 인과율적 추론(reasoning, 즉 삼킨다[swallowing]고 하는 것은 “연장되는 것”과 “내용”을 창조하는 것이다)도 아닌 이것은 의미소체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담화의 핵격상에 일어날 수 있는 제2 세대의 생성과 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유와 같은 비언어학적 추론과 대당이 되고 있는 “상승(ascend)”과 “하강(descend)”의 선언(選言)으로서의 상징기호의 2개의 커다란 외형적 경계를 긋고 있는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격상의 제2 세대의 생성과 유사하게 악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용하는 그들에게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명목이 주장될 수 없다. 담화 안에서 그들의 다양한 어의소적 표현에 선재하고 있는 의미소구조의 공리만이 내용의 구조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단순하게 나타날지라도 그러한 개념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깊이 확립되어있는 사고의 관습과는 반대이다.

b. 인간중심적 어의소 체계

이러한 방식으로 사진편찬상의 오랜 전통은 사진의 어휘소적 표시를 떠맡을 뿐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계층을 또한 떠맡는다. 인간과, 인간의 환경과, 공통의미세계와의 의미관계는 최초인 것처럼, 따라서 독창적인 것처럼 항상 암시적으로 고찰된다. 사실상 “신체의 일부”는, 어떻게 간에, 단어 tête의 “자연적” 의미이며,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처음 “어떤 것의 속령(屬領)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다. “prendre(붙잡다)”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소적 레벨은 다음과 같은 의미소 “확장(expansion)”과 함께 나타난다.

Cet arbre prend bien(the tree thrives, 이 나무는 잘 자란다)

Le bois prend(the wood catches fire, 장작에 불이 붙는다)

또는 다음과 같이 의미소 “응축(contraction)”으로 나타난다.

La rivière a pris(the river has frozen, 강이 얼었다)

Le lait prend(the milk curdles, 우유가 응고한다)

이것은 단어의 다양한 문체론적 가능성 중 표출의 하나일 뿐이다. “본래”의 의미는 분명히 “손으로”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를 가지고” 정말 무는 행위 자체로서의 도식 “mordicant(물어뜯는) [즉 “이의”]”에 관해서 뒤랑(Gilbert Durand)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도식은 본래의 의미소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의미작용의 레벨을 인정하는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인 것을 그리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간의 척도에 맞게 잘라내는 것이며, 또한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다른 영역으로, 즉 신화적 상징기호, 시학(poetics), 꿈의 현사법(現寫法, vision)으로 탐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격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상징기호적 대상의 목록으로서의 “꿈의 열쇠”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된, 그리고 우주론적 직관(epiphany, 엘리아데[Mircea Eliade]⁸¹⁾의 기술로 요약되어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의 형식으로 계속된, 상징기호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천상적 상징기호, 지상적 상징기호 등등의 무리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은 항상 밀집한 기술단위로서의 상징기호(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느 때에는 어휘소가 되고, 또 어느 때에는 물질적 대상 [material object]이 된다)를 생각한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적 상징기호(the symbolism of matter)의 가연적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혁신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흙과 공기와 불과 물이라고 하는 4대의 정성적 물리학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비 일반적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 스스로 단순하거나 일의적이 아닌 이러한 물질의 분급상의 원소, 즉 지구상의 물질적인 “흙의 부드러움”은 “바위의 견고함”과 대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액체”로서의 잔잔한 물의 상징기호는 격렬한 물과 대당이 된다는 것을 지각한다.

81) Mircea Eliade, Philip Mairet 역, 「이미지와 상징기호(Images and Symbols)」(New York: Sheed and Ward, 1961). epiphany는 동방의 세 박사의 베들레헴 내방이 상징하는 예수 공현(公顯)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역주)

이러한 인식은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를 마치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소 분석의 입구까지 안내한다. 그 대당

부드러움(softness) VS 견고함(hardness)
안정적(static) VS 약동적(dynamic)

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물의 상징기호적 어휘소 이전의 필요조건으로 먼저 인정된다. 우리는 욕망된(desired) 의미소 기술의 최초의 원소와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을 사용하는 시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찾기 위하여 「공간의 시학(Poetics of Space)」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⁸²⁾

c. 제한된 영역: 상징기호(symbo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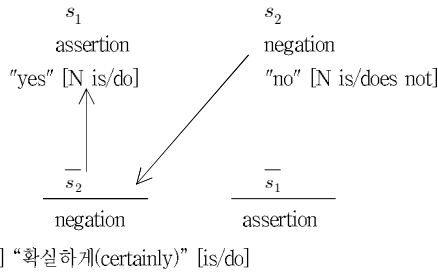
위와 같은 모양으로 전도된 언어의 문제는 시, 꿈, 그리고 무의식의 상징기호적 성질로 향하고 있는 고찰을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그 스스로 발견한다. 상징기호(symbols)의 애매성, 설명적 개념으로 고찰된 애매성의 실체(the hypostasis of that ambiguity), 그리고 신화학적 상징기호의 무진장한 풍요 그 시적 언어에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ineffable)” 성격의 주장(assertion)⁸³⁾ 앞에 나타나는 일종의 경탄은, 의미작용의 기술에 가치판단을 도입하고 있는, 진정한 파롤과 사회적 파롤 사이의 그리고 인증된 의미체계와 저속한

82)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Poetics of Space)」

8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9~20. assertion(주장); 1. 주장은 변형범주 안에서 부정과 함께 있는 두 텀 가운데 하나이다. 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마치 그것이 “causing to be” 또는 “causing to do”로 표현되는 것처럼, 사실의 추상적인 형식화로 간주된다. 2. 주장은 사실상 단순하게 정보로서의 기호학적 존재의 획득된 특징인, 그리고 접합관계(연언과 선언)에 의해 상태발화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긍정(affirmation)과 구별된다. 반대로 변형(즉, 주장 그리고/또는 부정)은 상태발화의 한계를 초월해서 결정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또는 “causing to do” 형태의 양태구조이며 교묘한 숨겨진, 실행(doing)발화의 함수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에 조정된(posited) 내용만이 주장되고 부정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assertion과 affirmation(s_2 의 being을 감동시키는 s_1 의 doing)을 위해 특별한 주체(subject)를 공리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3. 계열체적으로 주장은 부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통사론의 레벨(또는 기호사각형 상에서 작용된 기본 작용의)에서, 주장은 정의된 결합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소재가 정위된(oriented) 작용으로 나타난다.

세미올로지(vulgar semiology) 사이의 식별(구별)을 확립하고 있는, 라캉(Jacques Lacan) 또는 뒤랑(Gilbert Durand)만큼 머리가 명석한(clear-minded) 사람을 만들어 낸다.⁸⁴⁾ 그러나 인간과학인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의미론은 기술가치의 탈취를 시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변호(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내세(afterward)의 표출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미올로지적인 기술(semiological description)로부터 출발했던 어느 한 단어가 왜 그렇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한 단어가 어떻게 어느 한 대상(thing)과 그 반대(아랍의 문법가와 철학자들은 <addad>,⁸⁵⁾ 즉 “동일한 것과 대당이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단어의 존재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를 의미할 수 있는가 묻는 대신에, 그 문제는 만약(if)이라고 하는 특유의 어투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기까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는 고도의 시



s_2 를 \bar{s}_2 로 변형시키는 부정의 작용에 따르면, 주장은 텀 s_1 을 유발시키는 것과 반대로, \bar{s}_2 를 s_2 로 재전환시키는 대신에 텀 \bar{s}_2 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결합체적인(syntagmatic) 주장의 효과는, s_1 이 전제된 텀이라고 하는 그리고 \bar{s}_2 를 전제하고 있는 텀이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대소대당(大小對當, 또는 함축관계, 만약 “certainly”라고 한다면, 그때는 “yes”이다)을 실제화한다. 그때 단순 주장(simple assertion, 고전적 논리학의 주장)은 결합체적인(syntagmatic) 주장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단순 주장은 또한 부정적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두 텀 사이의 보충적 관계를 확립한다. 단순과 결합체적인 주장 사이의 차이는 반대의 범주가 관련된 한 형식화 안에만 위치하며, 그 범주가, 예를 들어, 텀 non-death와 life의 상보성을 특별한 내용으로 활동시키고 있는 반대 축에 의해 구성될 때 분명하게 된다. (역주)

84) Jacques Lacan, 「대자(對自)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Self)」, p. 130. “Anthony Wilden의 “노트”를 보라. Gilbert Durand,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 구조(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를 보라.

85) 아랍어 addad(addad)는 “상반되는 2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가르키는 술어”로서, 이러한 말은 엄밀히 따져 보아도 100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didd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과 “반대의 것”을 의미하며, manin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과 “강한”을 의미한다. (역주)

적 상징기호(poetic symbol)는 예를 들어 tête와 같은 자연언어로 사용된, 또 다른 함수역할을 할 수 없는, 어느 어휘소와 결코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언어 영역의 모든 것은 언어학적이고,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학적 구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적용할 수 있는, 언어학적 결합이 확정된 체제 때문에 표현된, 함수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인 진실(truth)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언어 안에 신비시대와 명석 판명한 시대가 존재함에 따라서 “비신비화(demythifying)”와 동시에 현대의 신비한 신화에 도착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됨으로써 언어의 현상(phenomenon) 자체가 신비로울지 모르지만(그것은 철학적인 문제이지 언어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언어 안에는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신비롭지 않다고 해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밀랍조각”과 같은 것이 달의 상징기호(symbol)보다 신비로움이 부족한 것 또한 아니다.⁸⁶⁾ 밀랍조각의 기본합성을 설명하는데 성과를 거둔 화학적 성질은 단순하다. 그것은 구조의 미론이 속행하여야만 하는 동일유형의 분석 쪽으로 향한다. 양쪽(밀랍과 달)의 경우에 효력이 있는 의미의 효과는 진리(true)이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적 측면의 그 실재성(화학 안에서이든지 또는 세미올로지 안에서이든지)이 신비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합리성이 부족한 것 또한 아니다.

d. 언어학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제기된 최후의 난점은 상징기호 기술의 특별한 측면의, 더 일반적으로, 흔히 상상적인 것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의 전략상의 중요한 선택으로 존재한다. 그 언어학적 측면은 오로지 가능한 기술의 측면인가? 그것은 작용적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최상의 것인가? 또 다른 기술의 측면은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용된 언어 측면과 병행할 수는 없는가?

시적 상징기호에 관해 말하자면, 스스로 자명한 대상이다. 시는 일종의 언어이며, 더 정확히 말해서, 언어로 자리가 잡혀있다. 모든 시가 비언어학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만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기술은 쓸모

86) René Descartes, John Veitch 역, L. Levy-Bruhl 편, 「성찰(The Meditation)」(La Shalle, III: Open Court Publishing, 1955), p. 36. “Meditation II: Of the Nature of the Human Mind.”를 보라. 밀랍은 불에 가까이하면 색깔과 형태와 크기 등 모든 것이 변화하므로 신비적인 물질의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역주)

없다. 그 은유와 같은 비언어학적 기술은 신화학적 상징기호와 같은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술로서의 어떤 처지의 대상과 “자연적”인 행동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응축·연동되어 견고한 어휘소처럼 또는 착란적인 시퀀스처럼 다시 말해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고,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신화학적 기호와 동일한 상징기호적 함수(symbolic function)를 소유하고 있는 듯하다.⁸⁷⁾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혼동을 창조한다. 특히 만약, 그 혼동이 자주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기술 측면의 동종(혼동)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상투적인 예로 남근의 상징기호를 들기로 하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이래, 우리는 정신분석학에서나 신화학에서나 거의 모든 것들이 남근(폴, 나무, 물고기, 가공품 등의 모든 것 안의 인간의 신체 전부 또는 신체의 일부)의 상징기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남근의 은유는 일종의 개시된 강류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반드시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적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제3의 유사품 다시 말해서 일종의 골동품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언어학적, 시각적, 또는 “자연적” 대상이 된 강류, 즉 관계, 다시 말해서, 강류의 모든 개체에 공유된, 그리고 일종의 강류로 정확하게 구성된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발현은 의미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러나 의미 아티클레이션 또는, 기껏해야, 시니피에의 강류에 의존하고 있는 핵격상일 뿐이다. 사물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차용해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미작용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결과 의미작용의 세계는 언어학에 의해 정교화 된 기술절차에 그 자신을 빌려준다.

이러한 경우가 비록 매우 자주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남근적인 대상의 상징기호적 성격이 항상 이러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지탱된 담화로부터 오고, 그것이 상징기호적 의미작용의 표출에 필요 불가결한 화맥과 함께 그들을 설치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의해 사칭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택된 예는, 우리가 모두에 주장했던 것, 즉 의미작용은 사용된 시니피에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연적” 대상에 의해, 음소 또는

87) A. J. Greimas는 Claude Lévi-Strauss, Claire Jakobson · Brook G. Schoepf 역, 「구조인류학(Structural Anthropology)」(New York: Basic Books, 1968)의 “Structural Study of Myth”를 따르고 있다.

문자소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시니피앙은 의미작용의 절차 안에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니피앙으로 사용된 일반상식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에 근거한 내용의 분석은 이론상으로 합리적이고 아마 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언어학적 측면의 커다란 우월성은 어느 다른 언어(확장, 즉 상징기호적 대상[symbolic object]에 의해 포함되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자연언어로 번역-전격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은 진리(true)가 아니다. 즉 우리는 말라르메(S. Mallarmé)의 시가 어떻게 사물의 언어로 번역-전격될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이것은 시각적 시니피앙과 자연언어의 기술적인 시니피앙의 동치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언어 교육의 시경각적 방법의 정교성에서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만약 스크린이 행위주들[actants]⁸⁸⁾의 표현에 상대적으로 꽤히 자신을 빌려준다면, 빈사[predicate]와의 관계의

88)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5~6. actant(행위주); 1. 행위주(actant, 行爲主辭의 약어, 行爲素가 아님)는 모든 다른 한정과 독립적으로 어떤 행위를 경험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를 차용한 L. Tesnière의 말을 인용하면, “행위주는 어떤 형식(form)이든지 간에 그 변화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being) 또는 사물(things)이며, 그것은 오로지 단역의 일부 그리고 가장 수동적인 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는 성격상 마땅히 공식적인 하나의 통사 단위의 형태를 지시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론적 “그리고/또는”과 같은 관념적인 투자에 선행한다. 2. 용어 “행위주”는 기본적인 발화(utterance)의 함수와 상관된 통사론의 특별한 개념과 연결된다. 이러한 함수는 마치 주체, 대상, 빈사(predicate)를 결합체적 단위(예를 들어, 명목 또는 축어적 결합) 안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규정된다. 이러한 통사론은 또한 발화의 핵으로서의 속성이라고 하는 포즈를 취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행위주가 함수로 인식된 관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텃으로 고찰된다는 것을 말한다. 행위주의 이러한 개념은 격문법(Fillmore)의 프레임으로 해석되는 것 같으며, 그 각각의 격은 어떤 행위주의 정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 문법(actantial grammar)은 성질상 기호학적이며, 격문법의 보다 더 추상적인 형식화처럼 보인다. 심층 레벨에서, 언어학적 형식(form)으로서의 무의미한 프레임에 지배를 받지 않는(not subject) 행위주 문법은 화술적 통사론(표층레벨이라고 일컬어지는) 레벨에서 화술적 담화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고찰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구조의 관점에서 숨김없이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함수적인, 통사론적 범주(주체, 대상, 속성 등등)에 감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형태학적 분류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범주문법, 그리고 주연분류(distributional class)에 의존하고 있는 결합체 문법과 구별된다. 3. 행위주의 개념은,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동물, 대상, 또는 개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체의 이점, 특히 문학의 기호학에서, 등장인물(V. Propp)과 같은 성격의 텃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 텃의 성격은 또한 연기자(actor, 행위주의 혼합주의가 발생할지 모르는 곳)와 부분적으로 상응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으로 존속하며, 그것은 통사적·의미론적으로 투자된 빈 장소의 “그리고/또는”의 격상(figure)으로 규정된다. 4. 유형학적으로, 다음은 발화된 담화 안에서 식별된다. ㉑ 커뮤니케이션(또는 인위발언)의 행위주는 화자와 청자뿐만 아니라 절의자와 피절의자(대화에서 두 번째 단계의 절의 구조에 관여하고 있는)이다. ㉒ 내레이션(또는 발화의)의 행위주: 주체/대상, 발신자/수신자. 문법의 관점에서, 주체의 지위와 주체의 실행(doing)와 같은 통사론적 행위주(주어진 화술문법에 새겨진)는 여기서 함수적인(결합체적인) 행위주와 대당이며, 결정된 화술적 궤도 안에서 행위주적 역할을 포섭한다. 담화 안에 인식된 두 개의 차원을 명시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 화용론적인 주체와 인식론적인 주체를 식별한다. 그 통지자의 경

시각적 표현의 문제는 묘사되기 어렵고 아직 분석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자연언어는 이미 분석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니피앙을 소유한다. 비록 의미작용의 구조가 논리적 절차의 가언적인 결과로 먼저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보다 더 확실한 그리고 의미작용의 간극으로부터 검증의 보다 더 다양한 기법의 정교성을 허락한다. 이러한 기법의 가치(비록 우리가 그들의 내용분석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말을 더듬거리고 있을지라도)는 자연과학의 대수학적 형식화에서 보는 것이나 인간과학에서 보는 것이나 동등하다. 그리고 구조언어학의 방법론적 우월성은 흔히 영감을 받은, 거의 다른 인문학연구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관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2. 세미올로지적인 것(semiological)의 지위

a. 상징기호적인 것(symbolic)과 세미올로지적인 것

어떤 형식으로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상징기호는 의미작용의 다른 표출로부터 그 성질에 의해 식별되지 않고, 그 기술은 동일한 방법론에 의존한다. 이제 그 상징기호가 어느 면에서 비록 다른 관습적 표출과 근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세미올로지적인 구조(semiological structure)의 존재자 모드와 융합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술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함수역할을 한다면, 상징기호는 그것이 다른 무엇인가, 즉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다른 언어 레벨과

우에, 예를 들어, 인식론적인 주체는 혼합주의 안에 화용론적 주체와 함께 나타나든지 또는 자율적 연기자로 나타나든지 한다. 또는 관찰자로서의 행위주의 경우에, 그들은 적어도 함축적인 정향으로 인식할 만하다. 담화적 의미론의 레벨이기 때문에, 행위주는 전의(轉義 또는 번역) 절차에 의해 충전된다. 따라서 개인적이든지, 이원적이든지, 집합적이든지 하여간 어느 것이든지 말투가 만들어진다. 5. 어떤 행위주는 기호사각형 위에 투기(投企)될는지 모른다. 따라서, 적어도 네 개의 행위주적 정향(행위주-actant-, 반행위주-antactant-, 비행위주-negactant-, 비반행위주-negantactant-)로 아티쿨레이션이 될는지 모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티쿨레이션이 될 때, 행위주는 최초의 행위주(proto-actant)로 인식된다. 그리고 행위주적 범주로 변형된다. 6. 화술적 담화가 진전함으로써, 행위주는, 내레이션(통사론적 규정)의 논리적 시퀀스 안 행위주의 정향에 의해 그리고 양태(modal)의 목록(형태학적 규정)에 의해 규정된, 행위주 역할의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영웅은 화술의 어떤 부분에서만 오로지 영웅일 것이다. —그(그녀)는 전에 영웅이 아니었으며, 후에도 영웅이 아닐는지 모른다. (역주)

항상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올로지적인 레벨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세미올로지적인 것(semiological)은 어느 신비적 단계 안에 충전된, 상징기호적 시니피에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분화된 의미작용의 망을 구성하는 일종의 시니피앙을 구성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표현의 측면은 내용의 측면이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대성운(大星雲, great cloudiness)”보다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형식(the form of the content)의 아티클레이션은 그것을 분화시키고 있는 것에 의해 내용의 실체(the substance of the content)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른 한편, 세미올로지적인 구조의 영역은 어느 특정한 상징기호보다 폭이 넓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정한 세미올로지적인 공간과 상징기호 사이에는 동치성이 없다. 즉 세미올로지적인 것은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에 무관심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과 그와 같은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서로 다른 상징기호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공되고 또 제공되어야만 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남근 이미지의 예로 돌아가면, 그것은 무수한 문체론적 변이를 특별한 의미작용의 레벨이, 즉 성적본능(sexuality)의 레벨이, 모든 화맥적 발현 사이의 연결자로서 기여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핵격상을 세미올로지적인 측면에서 공리화한(어떤 것을 대신한 것이 아니다. -역주) 그 사실인 어느 단순한 상징기호적 상수로 환원하도록 허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니피에의 선택은 다른 시니피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보여주었던 것처럼(Essais linguistiques, 1959), 문법상 성의 범주는 의미소의 대당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확장(expansion) VS 응축(condensation)

“여성(female) VS 남성(male)”이라고 하는 두 쌍은 강류의미소 “생물(animated)”과 함께 핵의미소의 결합에 의해 획득된, 이러한 세미올로지적인 대당의 특별한 표출만으로 동등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기술은 자율적으로 과업을 연기하는 체질이 되며, 그것은 어느 특정한 상징기호의 고려 없이 연기되어야만 한다.

b. 귀로(Pierre Guiraud)의 “원의미체계”

상징기호적인 것과 세미올로지적인 것의 비교는 우리가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가능한 정의의 최초의 원소를 대강 훑어보도록 허락하였지만, 그것은 어느 특정한 신비적 레벨의 정의 때문에 이러한 것의 출현 또는 특정한 상징기호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내용의 형식(the form of the content)일 것이다. 세미올로지적인 것(semiologial)과 내용의 형식의 개념은 동연(同延)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세미올로지적인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내용의 형식에 속한다면, 그것과 대당이 되고 있는 것은 진리(true)가 아닐 것이다. 강류의미소와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은 내용의 형식 안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구성(그것은 신비적 동류체의 기원이다)할 것이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내용의 형식의 개념이 형식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혁명적인 것임에 반하여, 그것은 언어의 레벨 사이의 실제적인 편차를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바처럼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 단독 표출의 형식으로 고찰된 소쉬르적인 언어개념은 내용의 실체와 동화할 수 있는 의미효과의 출현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선은 의미론으로부터 세미올로지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지, 실체로부터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예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것 같다. 언젠가 귀로(Pierre Guiraud)가 형태의미장이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 이끌렸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유익하다. 그의 최근 연구(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57, fasc.7) 중 하나에서, 귀로(Pierre Guiraud)는, 병행하고 있지만 동일구조가 아닌,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과 상응하는, 어휘소 차원을 가지고 있는 음운변이의 모습(matrices)의 존재에 조명을 비추고 있다. 약 400개의 어휘소의 목록에 기초한 그 연구는 “frapper(strike)”를 의미하는 중핵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지고 기저자음 [t-k]와 함께 하고 있는 어근에 의해 떠맡겨진 의미장(意味場)을 만들어낸다. 먼저 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그것은 몇 가지 관점에서 흥미를 자아낸다. 어근에 의해 떠맡겨진 의미의 두 변이는 2개의 명료한 범주 안에 무리를 짓게 될는지 모른다.

1. 그 첫 번째는 포르만트(formant)와 연결된다. 따라서

[t-i-k]	vs	[t-o-k]	vs	[t-a-k]
tiquer		toquer		taquer
(twitch)		(strike)		(plane down)
(쉴룩거리다)		(두드리다)		(높삐이를 꼬르게 하다)

위와 같은 대당 안에서 모음변이의 모음(matrix)은 다음처럼 변이의미소 coup(beat, 타격)와 상응한다.

[pɛti]		[gro]		[pla]
petit(작은)	vs	gros(큰)	vs	plat(평평한)

이때, 이러한 모음원형은 자음성질의 다른 변이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과 상응할 것이다. 따라서 삼입음소 [-r-]은

[t-r-i-k]	vs	[t-r-o-k]	vs	[t-r-a-k]
triquer		troquer		traquer
(때리다)		(교환하다)		(추적하다)

위와 같이 모델에 보충의미소 “반복(frequentative)”을 추가한다. 마찬가지로, “tricher(trife, 속이다), toucher(tufe, 만지다), tacher(tafe, 더럽히다)”를 대신할 수 있는 변이 음소 [ʃ]는 다음과 같은 의미소의 대당관계를 구성한다.

[tuʃe]		[tʃke]
touche	vs	toquer
(만지다)		(두드리다)

2. 다른 한편, 의미론적 모델은 음운원형의 변이로부터 독립한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을 포함한다. 귀로(Pierre Guiraud)가 호칭했던 원의미체계는 실명사와 마찬가지로 언외지언을 떠맡고, 그것은 이러한 명사형의 coup(ku, blow)와 마찬가지로 언외지언형의 frapper(strike)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동종의 포

르만트는 어떤 것이 때리는 것(pelles · shovels[삽], fourgons · pokers[부지깥이], maillets · mallets[나무망치])으로서의 대상을 추리하는 것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맞는 것(그것과 다른 종류의 taque · slabs[주철판])으로서의 대상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포르만트는 첫눈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과 같은, 반점(tache · stain), 얼룩(macule · spot), 딱지(croûte · crust)를 의미하는 의미소를 구성하는 것에 이바지한다.

먼저 하나의 모델 안에 축적된 의미소의 아티클레이션은 교묘하게 2개의 그룹으로 분할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고, 그 기준은 표현의 측면에 따르는 것이지 내용의 측면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1. 어떤 변이는 음운원형의 변이와 관련된다. 그들은 계층적으로 구별된 2개의 층을 구성한다.

a. 촉각목류의 핵, 접촉(attouchement · touching)은 자음 기저 [t-k]에 상응하는 것이지, 귀로(Pierre Guiraud)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아니다.

b. 포르만트의 교환 가능한 원소와 상응하는 여러 가지 감각목류의 의미소 변이. 따라서

petti(coup)	VS	gros(coup)
[작은(타격)]		[큰(타격)]
tiquer		toquer

위와 같은 대당은 내포성(intensivity)이라고 하는 축의 분극화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로(Pierre Guiraud)의 taquer(plane down, 높낮이를 고르게 하다)에 의해 획득된 세 번째 텀이, 다음처럼, 접촉된 면의 관점으로부터 앞의 두 텀과 대당이 될지도 모른다.

면(surface)	VS	점(point)
------------	----	----------

변이체 [j]와 마찬가지로 삽입사 [-r-]로서, 이번에는 그들이 보완적인 양상적(aspectual) 한정을 도입한다. 따라서 세미올로지적인 모델은 촉각, 관자놀

이-공간, 양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각목류와 상응하는 의미소범주를 포함한다.

노트: 여기서, 우리는 감각목류 안에서 세미올로지적인, 다시 말해서, 언어학 이외의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화용론적 분류(pragmatic classification)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분류는 작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언어 레벨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 체계가 기술된 후에 오로지 확립될 수 있다.

2, 이어서, 이러한 포르만트와 함께 어떠한 병존관계도 없이 이밖에 다른 의미소변이들은 독립적이다. 따라서

실명사(substantive) vs 언외지언(verb)⁸⁹⁾

위와 같은 대당은 핵 아티클레이션과의 관계 안에서 이차적으로 나타난다.

발신자(sender) vs 수신자(receive)
(때리는 물체의 명목) (맞는 물체의 명목)

노트: 이러한 최후의 대당을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미 뒤랑(Gilbert Durand)에 의해 상세하게 취급되었던, 몸짓을 “연장하는(prolong)” 도구와 관련된 레로와-구랑(André Leroi-Gourhan)과 함께 취급하고 있는 그 문제에 조명을 비취보았던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자.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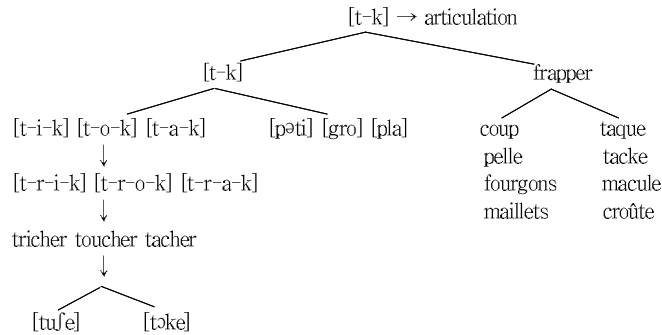
89) “verb”는 “verbal”로 보아야 문맥이 통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역, op. cit., p. 366~367. verbal(언외지언, 言外之言); 1. 계열체적 실행(doing)과 상보적인 것이 그리고 대당적인 것이 될으로써, 그것은 세계의 대상과 함께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적 실행은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포함하며, 계열체적 대상으로든지 또는 인식적 대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연거한다. 후자의 경우에, 그리고 사용된 채널 상에서, 그것은 언외지언(言外之言) 또는 신체적 형식(몸짓, 흉내, 자세, 등)을 획득한다. 계속해서 언외지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실행은 사용된 시니피앙(음성과 문자)에 의존하고 있는, 구술과 표기 커뮤니케이션으로 세분된다. 2. 화술적인 답화에서, 예를 들어 대화로 형식을 획득하고 있는 언외지언의 측면은, 인식차원의 격아강적인 표현으로 고찰될 수 있다. 김치수 · 김성도 · 박인철 · 박일우 저, 「현대기호학의 발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 17. ““말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말(verbe)과 비슷한 말을 대화자의 마음속에 상기시키기 위해 말이나 감각적 기호들을 사용한다.” 언어로 분화되기 이전의 말과 그것을 알게 해주는 언어기호가 구분된다. 말이란 모든 인식대상과 함께 정신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어떤 언어에도 속하지 않는다. 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음된 말이다. 이러한 말을 대화자에게 알리려면 기호들에 의존해야 한다.” 참조. (역주)

90) 뒤랑(Gilbert Durand)은 André Leroi-Gourham의 「Les Familles préhistoriques」(Paris:

귀로(Pierre Guiraud)의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먼저, 통계적 방법의 주창자로서, 어휘소 단위를 교묘하게 다루었던 저자로 하여금, 따라서 엄밀한 의미소분석보다 더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그 방법은 이러한 유형의 분석(그리고 사실, 그 연구를 용이하게까지도 할 수 있다)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어원적 연구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계다가, 그 예는 이 점에 대해 이바지하여야만 한다), 음운론적 원형의 변이 사이에 관측된 병존과, 한편으로는 세미올로지적인 원소의 변이, 다른 한편으로는 강류의미소적 변이를 취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병존의 부재가 강류의미소로부터 핵의미소, 다시 말해서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로부터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분리하고 있는 선을 첫눈에 우리에게 허락한다.

노트: 여기서 그것은 언어의 기원 문제를 엉뚱하게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도입하고 있는 음운론적 그리고 세미올로지적인 모델의 인식에 주의할 기울 이도록 하자. 지금까지 그것은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노트: 귀로의 원의미체계는 다음의 도표 참조. (역주)



c. 세미올로지적인 것(semiological)과 생체 신비적인 것

모든 이러한 변이는 이중의 핵(음운론적 자음도식 [t-k]의 형식과 세미올로지적인 frapper[strike]의 “원의미체계”와 함께 존재하는)이 존속하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핵의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를 인용하고 있다.

미소를, 리트레(E. Littré)는 그의 설명에서, 시대를 달리해서 그리고 프랑스 파생언어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적 텀의 아티큘레이션보다 더 교묘하게 나타나는 “발작적 행동”으로서의 경련(the tic)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의미소가 대당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공격적 접촉 vs 발작적 반응

다음에 의미소가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격상이 생물학적 레벨(살아있는 세포의 외부 자극과 반응)에, 그렇지 않으면, 뒤랑(Gilbert Durand)이 열망했던 것처럼, 인류의 개념 산출(ontagenic level, ontogénique)의 레벨에 위치를 잡게 된 특수행위를 약간 함축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낸다고 쉽게 주장할는지 모른다. (어의소 tache[stain, 반점], macule[spot, 얼룩], croûte[crus, 딱지], 그리고 부속물 teigen[scurvy, 기계충], rogne[mange, 움], gale[sca-bies, 습진], 그리고 lèpre[leprosy, 나병]는 이러한 레벨에서 침범을 당한 표층작용에 의해 아마 설명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러한 레벨(예를 들어,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개성적인 문체는 오로지 육체의 장식적인 목소리일 것이라고 제안한 것처럼⁹¹⁾)에 인간 개성의 세미올로지적인 아티큘레이션을 밝히기 위하여 포괄적인 시니피앙을 안치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기적인 인력과 척력의 체계”로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언적이면서도 권력을 장악한 반사작용을 추종하고 있는 상징기호를 분류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상징기호적으로는 타당(즉 생물학적 레벨은 심층 시니피앙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할는지 몰라도 세미올로지적인 것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사실, 적당한 강류의미소와 결합하고 있는 어의소 “plaquette(plaket)”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의미소 격상을 증명하고 있는 그 얇은 판대기(plaquette, thin slab) 유형의 어의소의 존재는 의미소 “유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당 “유기적(organic)” vs “무기적(inorganic): (“생물, animate” vs “무생물, inanimate”과 비교해 보라)”은 핵의미소 밖에 위치가 잡혀지고, 아마 세미올로지적인 레벨 밖에 위치가 잡혀질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는 그 유기적 환경으로부터 핵 격상을 추출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순수지각으로, 촉감의 체계적 아

91) Roland Barthes, Stephen Heath 역, 「이미지의 수사학(Rhetoric of the Image)」(London: Fontana, 1977)에서의 “이미지-음악-텍스트”

티클레이션의 일부인 의미소범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단어의 기지의 인간 중심적 의미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핵의미소 tête를 관자놀이-공간성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존재자모드는 어떤 단계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위치가 잡혀진 그리고 지각의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는, 뤼이에(Raymond Ruyer⁹²)에 의해 환기된 조류의 도식화된 시각적 지각과 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범주의 총체이며, 그것은 다음의 대당처럼 그들의 동족과 적을 식별하도록 허락한다.

cou long	/	queue courte	vs	cou court	/	queue longue
(long neck)		(short tail)		(short neck)		(long tail)
(긴 머리)		(짧은 꼬리)		(짧은 머리)		(긴 꼬리)

지각과정 안에 위치가 잡혀진 세미올로지적인 범주는 의미의 탄생에 외면, 다시 말해서, 외부세계가 공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세미올로지적인 범주는, 감각세계의 성질과 같은 듯하며, 예를 들어, 구성된 육체언어의 형태음소와 비교된다. 그런데, 우리가 시니피앙의 두 번째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독립했던 의미론을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언어 레벨에 귀속시켰던 세미올로지적인 것이라고 하는 단자를 우리에게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할 듯하다.

3.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cal) 기술의 가능성

a. 응용언어학에서의 언어의 구축

언어의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의미소 분석은 구조의미론의 최초의 과제로 나타난다. 일단 그 자신을 위하여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자연언어 안에서 고유의 독특한 상징기호의 함수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 안에서 독특한 과제에 잘 이바지할지도 모른다.

92) Raymond Ruyer, 『L'Animal, l'homme, la fonction symbolique』 (Paris: Gallimard, 1964)

즉 그것은 자동번역-전격에 이바지할지도 모르며, 그것이 보다 쉽게 언어 구축 단위의 결정한계(delimitation)를 만드는 것에 의해, 보다 더 쉽게 포착된 그들의 미늘 달기⁹³⁾의 모드를 만드는 것에 의해, 고도의 확실성과 사실기록 언어의 구축을 성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막대한 다양성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은 첫눈에 보았던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여전히 지나치게 분리되었던 그들 기술의 기존강류는 어떤 곳에서든지 거의 동일하다. 만약 언어의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에서의 우리의 반성이 첫눈에 상징기호의 문제 주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영역 안에서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인 번역-전격과 관련된 그 즉석에서 첫눈에 만족시킬 것이며, 담화의 어휘소적 레벨의 시발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밑바닥 생활에 앙갚음하는 경향이 있으며, 흔히 같은 결말로 안내한다. 포티에(Bernard Pottier)가 자동번역-전격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과 유사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새로운 경향은 이러한 점을 나타낸다. 그것은 퀴리앙(Ross Quillian)의 시도와 동일하며, 우리의 의미소와 보다 더 가깝게 닮은 점진적 변화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전적으로 구축된 언어로 번역-전격하는 것에 의해 의미론적 우주를 기술하도록 제안한다. 우리는 언어 안에서 의미론적 문제를 포함한 그 이론의 개요에 귀착시키는 것에 의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1961년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정신상태의 특징으로서의 의미론에 관한 토론보고는 기계적인 번역-전격의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일련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최근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Semantic Problems in Language, p. 150)의 있음직한 차원을 답사 방식으로 추리하고 있는 도표에서, 우리는 자기소여(proprioceptif, proprioceptive, 自己所興)와 내소여(intéroceptif, interoceptive, 內所興)⁹⁴⁾적 감각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퀴리앙(Ross

93) 기와(또는 갑옷)나 비늘 모양으로, 위쪽의 아래 끝이 아래쪽의 위 끝을 덮어 누르게 달다. (역주)

9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58. interoceptivity(내소여); 1.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이 동연(同延)이 되는 의미세계를 아티플레이션으로 만드는 의미소범주의 한 무리는 자연계의 기호체계 안의 원소와 상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범주 외소여와 내소여(exteroceptivity/interoceptivity)의 형태로 분류될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이러한 범주의 명목은 “세미올로지적/의미론적”(semiological/semantic)으로 대치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어떤 애매성을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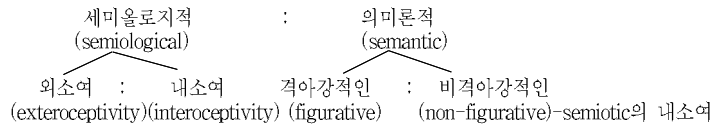
Quillian)은 어떤 25개의 의미소를 뒤에 구축하기 위하여 남겨놓고, 그 외소여(外所與)의 단계(échelles extéroceptives, exteroceptive scales)를 우리는 복사(영어로 출판된 *Sémantique structurale*)하고 있다.

- a. 5개의 추상적 단계: “수(실제 수의 연속),” “상관관계(통계적 의미에서),” “구성(전체에서 일부 또는 전체에서 양상[aspect]으로서의 개념),” “유사,” “파생적(수학적 의미에서)”
 - b. 시각적 단계: 색조, 광도, 채도
 - c. 시간적 단계: 시간, 길이
 - d. 존재자의 단계, 지각의 단계
 - e. 청각적 단계: 소리의 고저, 소리의 강도
 - f. 미각적 단계: 단맛, 신맛, 짠맛
 - g. 후각적 단계: 아직 결정 되지 못했다
 - h. 촉각적 단계: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 } 25개 의미소의 최고정점

노트: 우리가 번역-전격하려고(그 화백에서 이끌어낸 각각의 텀은 애매한 듯하고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시도도 못할 이러한 분류는, 그 아티클레이션뿐만 아니라 제안된 판단력(이성) 때문에 흥미를 자아내지 못한다. 이것은 의미론 탐색을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는 마음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조짐(symptom)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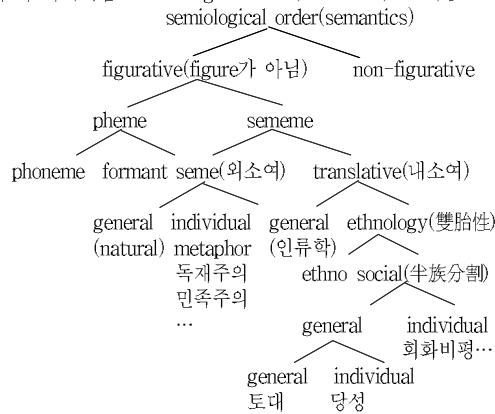
그러한 목록은 이미 그 투기(投企)의 명백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가 자인하고 있는 a의 예외와 함께, 퀴리안(Ross Quillian)이 첫 번째 단계에서, 지각적 성격의 네트워크 안에 어휘소의 총체성으로 집중하고 있는 아프리오리의 존재인 것처럼 고찰하는 것으로 의미론적 기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때,

위와 같이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범주들이 비표상적(또는 추상)으로서의 내소여라고 한다는 것을 추리하도록 제안한다. 2. 따라서 내소여의 텀에 의해 에워싸인 의미론적 분야는 언어 세계의 이론적 쟁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이다. Ibid p. 248. proprioceptivity(자기소여); 강류의미소적인 범주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텀,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지각작용(perception)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론의 특성을 연역하는 의미소적인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는데 조력한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텀은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인의지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芳香; thymia)에 의해 반제된다. (역주)



이러한 첫 번째 도표는, 100을 넘지 못하는 켈리안(Ross Quillian)의 언급에 따라 그 총체성의 기술로 사용된 여러 개의 원소와 함께, “자기소여적”과 “내소여적” 감각목류에 속하는 명확성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또한 마스터맨(Margaret Masterman)이 국제어(op. cit. pp. 6~14)의 구축을 위해 정한 100개의 의미론적 분류원소(classifiers, 아마 화학적 원소의 한정된 수의 향수적인 암시일 것이다)이다. 그러나 그녀의 분류원소는 의미작용의 최소단위(공기, 추운, 주다, 웃다, 하나, 기호[sign], 가다, 육체, 먹다, 어떻게, 좀 더, 반복해서, 예, 너, 등등—영어로 출판된 구조의미론)가 아니다. 여기서 만약 이러한 두 번째 시도에 대해 언급한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의미론적 기술의 여러 단위가 존재하는 또는 제한되어야만 하는, 많은 언어학자들의 은밀한 신념을 기록하는 것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술 언어의 선형적 구조의 합리성을 글자 뜻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자마자 폭로되고 마는 독단적 존재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트: “semiological level(division) ← semiotics; epistemology → s=pqr·y=(z)다. 제2극화”의 하위개념—“semiological order(semantics)”는 다음 도표 참조.



b. 보편성의 레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술이 구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필연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또한 어떤 과학적 심증-윤리를 위하여 필연성을 포함한다.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선형적 구조의 사용이 결코 독단적이지 아니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존재자의 언어학적 차원은 사회적 현실이며, 그 기술은 오로지 기술된 자연언어에 적절한 언어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구축의 자유는 시니피앙의 미분(파생)적 간극의 존재에 의해 제한된다. 모든 기술은 구조를 조직화하기 전에, 또는 필연적으로 논리적 기술을 성공시키고 있는 검증 단계에서, 귀납적 성격(전환실험, 주연분석)의 절차의 사용에 의해 밝혀져야만 한다.

한 가지 예는 우리에게 보다 더 상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개의 어휘소를 취하도록 하자. give(주다)와 take(얻다)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대당으로 분명히 공리화 될 수 있는 준(準, semi) 핵의미소를 제안했었다.

확장(expansion) VS 확장 + 계약·응축(expansion + contraction)

분석의 단계에서, 그 목록이 두 어휘소에 제한되어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확장(expansion)”과 “계약·응축(contraction)”이 의미소, 다시 말해서, 의미작용의 최소단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고찰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어휘소 hold(붙잡다)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목록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만 할 것이다.

1. take와 hold의 핵의 특징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휘소 “계약·응축”은 다른 의미소의 대당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한다.

$$\frac{\text{take(얻다)}}{\text{hold(붙잡다)}} \approx \frac{\text{계약·응축+기동성(inchoativity)}}{\text{계약·응축+총체지속성(durativity)}}$$

2. 의미소 “계약·응축”은 처음에 동적 양상으로, 두 번째는 안정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약·응축”은 2개의 의미소(고체성 + “약

동적 vs 안정적”)로 분해 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take와 hold의 핵의미소의 대당은 다음처럼 나타날 것이다.

$$\frac{\text{take(얻다)}}{\text{hold(붙잡다)}} \approx \frac{(\text{확장})+\text{고체성}+\text{약동성}+\text{기동성}(\text{inchoativity})}{\text{고체성}+\text{안정성}+\text{중체지속성}(\text{durativity})}$$

이 단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분석이 의미작용의 최소단위의 레벨에 도착했는지, 또는 그것이 정확한 것(이러한 예 안에서 “약동적”과 “안정적”은 중복적?)인지 전혀 믿지 못한다. 즉 목록의 새로운 확대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재 순응해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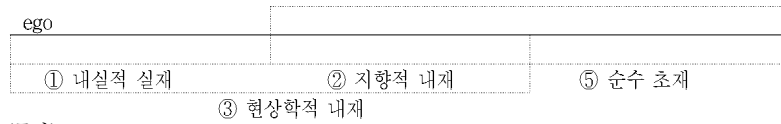
이러한 의문을 잠시 보류해 놓고 보면, 이러한 분석은 이러한 의미론적 기술 안에서 논리적인 구축의 탓으로 돌려야만 하는 어떤 장소를 명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분석이 주어진 자연언어로부터 출발하거나 제한된 목록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그 역할은 분석이 그 장소를 종합하는 것에 의해 심층에 존재하게 된다. 목록을 확대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단순하게 분석된 언어 안에서 몇몇 목록이 비교되고 있는 동안에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재언어의 구성을 관망하고 있는 몇몇 자연언어의 병치기술(또는 후소기술[後素記述], parallel description)을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될 때(기계적인 번역-전격이나 문헌자료인 것처럼) 보다 더 가치가 있다.⁹⁶⁾

95) Martin Heidegger,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서울: 시간과 공간사, 1992), pp. 485. “현사실적인 실존은 탄생을 포함하면서 실존하고 또 탄생을 포함하면서 죽음과 관련되는 존재하는 의미에 있어서 재빨리 사망하는 중에 있다. 2개의 ‘종말’과 그 ‘사이’는 현존이 현사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더구나 그것들은 다만 관심으로서의 현존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방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피투성(彼投性)과 죽음으로 관련되는 도피적 내지는 선구적(先驅的)인 존재와의 통일에 있어서, 탄생과 죽음은 현존에 적합하게끔 ‘서로 연관돼 있다.’ 관심으로서의 현존은 ‘사이’인 것이다. 그러나 관심의 기구 전체성은 그 통일의 가능적 근거를 시간성 속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연관’의 존재론적 해명, 다시 말하면 현존의 종별적인 신장성(伸張性), 동성(動性) 및 지속성의 존재론적 해명은 이 존재자의 시간적 기구의 지평 속에 발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실존의 동성은 사물적 존재자라는 것의 운동은 아닌 것이다. 실존의 동성은 현존의 신장성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다. 신장되면서 스스로 신장한다는 종별적인 동성을 우리는 현존의 ‘발생’이라고 부른다. 현존의 ‘연관’에 대한 물음은 현존의 발생이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인 것이다. 발생의 구조 및 이 구조의 실존론적 시간적 가능조건들로부터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은 역사성의 어떤 존재론적 양해내용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참조. (역주)

96) parallel description: 병치기술, 또는 후소기술(後素記述), 한전숙, 「현상학」(서울: 민음사, 1996), pp. 172~174.

④ 내실적 초제

그때 그 기술은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모순 된 2개의 원리에 순종한다. 그것이 기술하고 있는 실재성(reality)을 확실하게 고찰하려고 하는 그 욕망(desire)⁹⁷⁾의 견지에서는 귀납적이고, 구성모델의 결합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필



(중략)

“후설은 내재(①) 속에 질료(Hyle)와 노에시스의 두 성소를 들고 이 둘의 교직(交織)으로 노에마(②)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노에마는 인식작용에 내실적으로 내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상학적 의식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노에마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다. 이리하여 주관에의 귀환이라는 현상학적 태도는 선형적 전환이전에는 내실적 내재(①)로의 귀환이던 것이 그 후에는 현상학적 내재(③)로의 귀환으로 뜻이 확대된다. 이것은 또 현상학적 환원이 <현상학적 잔여>에의 제한<판단중지의 단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대상을 구성하는 <생산적> 기능으로 눈을 돌린다(선형적 태도의 단계)는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선형적 태도에 들어서면 앞서 초월적이라 하여 배제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지향적 대상, 의미구성체로서 다시 현상학적 영역 속에 들어오며 따라서 총칭적인 현상학적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와 그 모든 대상이 현상으로서 경험되는 이런 경험을 후설은 현상학 경험(「위기」, 156)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도달하는 주관이란 독일의 고전적 관념론에서와 같이 원리의 영역이 아니라 노에시스의 순수 작용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즉 순수 주관성이란 무슨 신비로운 가정이나 논리적 요청 또는 속이 빈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선형적 경험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체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Erfahrungsfeld)>이다. 이 주관은 후설에 의하면 본시 이중적이다. 즉 주관은 심리학적으로는 객관적 세계 내에 실재하는 정신물리적 주관이지만 동시에 선형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선형적 주관이다(「심리학」, 338 참조). 후설은 이렇게도 말한다. (중략) 이 두 주관, 그리고 각 주관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경험과 선형적 경험을 후설은 서로 <평행(parallel)>이라고 한다. 그것은 서로 <대응한다>(「심리학」, 342)는 뜻인데 이것은 대응하는 두 항이 서로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대응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것 속에, 말하자면 함축되어 있다>(steckt sozusagen implizit, 같은 책, 343)는 뜻이다.” 이하 참조. 이것은 결국 후소(後素)와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후소는 후공(後功), 여백이라는 유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운, 토운, 신화체계, 심층구조, 빙산의 일각(tip of iceberg)과도 의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소는 회사후소(繪事後素)와 소이위현(素以爲絢),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에 근거한다. 소(素)는 문질彬彬(文質彬彬)의 질(質)과 “소유현재야(素猶見在也)”의 보이는 것이 유예된 재(在), 그리고 “소부귀(素富貴) 행호부귀(行乎富貴)”의 “어떤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의 소(素)이다. 정사농(鄭司農)은 소(素)란 회화의 질(質) 즉 색채의 정신적 표현으로써 후공이라고 한다. 주희(朱熹)는 현(絢)과 대비하여 보이지 않는 질(質)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군자(四君子)인 매란국죽(梅蘭菊竹)은 현(絢)이며 진선미정(眞善美貞)은 소(素), 즉 매(梅)=선(善), 난(蘭)=미(美), 국(菊)=진(眞), 죽(竹)=정(貞)이다. 그러나 이것도 보편성이므로 보다 더 개별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가는 이 후소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소는 노자(老子)의 “곡신(谷神)의 현빈(玄牝),” 과 장자(莊子)의 “혼돈(渾沌)의 칠규(七竅),” 또는 선(禪)에서의 “견산지시산(見山是山)”의 경지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9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76. desire(욕망); I. 욕망은 중중 의지(will)와 대당된 정신분석학적 용어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 그것은 기호학적 용어

연성의 견지에서는, 그리고 기술에 종속된 발화자료체와 동연인 보편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필연성의 견지에서는 연역적이다. 화해를 위한 탐구 상에 설립된, 그러한 기술절차의 개념은, 그것이 과학적 기술의 종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c. 기술절차

그 기술이 첫눈에 과도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 전체 안에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기술하려고 하는 욕망은 위치가 잡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척도 위에서이다. 그 발화자료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프랑스 언어의 보전 또는 리트레[E. Littré]의 사전)를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수의 의미소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깊이 있게 기술된 발화자료체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한, 그 어느 언어구조도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발견된 의미작용의 보다 작은 단위를 항상 허락하고, 도달했던 보다 큰 보편성 때문에 이러한 단위의 수를 동시에 감소시킨다.

그 기술절차는 그들에게 떠받쳐질 장(章) 안에서 따로따로 연구될 것이다. 이제 격상(figure)으로부터 의미소체계(semic systems; figure의 sememe)로, 그리고 격상으로부터 세미올로지적인 목록(semiological order)로 가기 위하여, 기술은 목록과 적응과 구조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장소에 의해 구성

법에 속하지 않는다. 의미론적 투시도법에서, 그것은 공포 속에서 non-wanting이 아니지만 wanting과 반대인 공포와 함께 반대의 짝(R. Blanché에 의해 호칭되었던 범주 “philia[~병적 애호]/phobia[공포증]”)을 구성할 수 있다. 격아강적인 측면에서 두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욕망은 앞으로 일어날 동작(forward movement, 대상가치를 위한 탐색)으로 표현되며, 반면에 공포는 역행행위(backward movement, 달아나기)로 표현된다. 2. 욕망의 “실재성”을 부정하기는커녕, 기호학은 그것을 wanting의 양태의 어휘화 가운데 하나로 고찰한다. 따라서 기호학적 탐색은 wanting의 논리적 발전(의무논리학과 병치)을 포함하며, 그 안에서 욕망과 의지(will)는 요망(wanting)의 변수를 지시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것은 보다 더 복잡한 의미론적 구조와 서로 관련될지도 모른다. 철학사전에 의하면, 그리스 이래 욕망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 이성에 대하여 정신이 뒤떨어진 것, 진지(眞知)로부터 멀리 해야 될 것으로 여겨왔으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연 충동을 가진 경향이라고 여겨진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있어서는 영혼을 행동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 하여 다소 적극적인 파도스의 뜻을 갖는다. 윤리학 상 욕망은 세 가지 점이 문제시된다. ①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선이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설(목적표준파)의 시발점. ② 이성과의 대립에 있어서, 이성에 의한 욕망의 제어 또는 억압을 도덕으로 보는 설(범칙표준파, 금욕주의)에서는 반이성적, 감성적이라 여겨진다. ③ 욕망이 어떻게 의지작용을 규정하는가에 대하여 “자유지의론 대 결정론”의 논쟁점이 된다. 심리학에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규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구성을 소질(素質)이라 하고 소질은 이것이 현실적 활동이 되어 나타나려고 하는 면에서 경향(傾向)하는데 경향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특히 요구(need)라고 하며, 요구가 의식에 반영된 것을 욕망이라고 한다. (역주)

된 어떤 분석에 적합한 절차를 도입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주목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제6장 담화의 동류체

1. 담화의 이질성분

a. 메시지의 동류체

내용의 의미론적 레벨과 관계하고 있는 문제들이 보다 더 좋게 위치가 잡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의미작용의 표출로 되돌아가야만 하며, 그리고 담화함수의 구조적 조건을 탐색여야만 한다. 사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자마자, 담화는 모순된 원소를 분명히 허락한다.

인간정신의 빈사적인 힘으로 인하여, 또는 형편에 따라서는 보다 더 현대적인 형식화 하에서의 화자의 지향성으로 인하여, 메시지(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연속)의 유기적인 조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설명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유심론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해석이 메시지 방출의 레벨에 위치가 잡혀져 있기 때문이다. 발신 또는 수신자의 레벨에 위치가 잡혀져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최후의 관점으로로부터, 담화는 선형적인 성격(linear character)임에도⁹⁸⁾ 불구하고 전개되어, 결

98)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선형 방정식(線形方程式, linear equation); 상수와 1차인 변수의 곱으로 된 각 항들의 합인 1차다항식이 0으로 주어진 식. 특히 n개의 변수를 갖는 1차방정식은 $a_0+a_1x_1+\dots+a_nx_n=0$ 으로 표현되며, 이때 x_1, \dots, x_n 은 변수이고 a_0, \dots, a_n 은 계수(scalar)이다. 1개 이상의 변수를 갖는 방정식은 선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정식 $x+y=3$ 은 x 와 y 에 대해 선형이지만, $x+y^2=0$ 은 x 에 대해서는 선형이나 y 에 대해서는 아니다. 2개의 변수 모두에 대해 선형인 방정식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직선이며, 상수항이 없으면 원점을 통과한다. 공통해를 갖는 방정식들의 집합을 연립방정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 $2x-y=1$, $x+2y=8$ 은 공통해로 $x=2$, $y=3$ 을 갖게 되며, 점 (2, 3)은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크라머 법칙). 선형 미분방정식은 종속변수와 그 도함수에 대해 1차이며, 간단한 예로 $dy/dx+Py=Q$ 에서 P 와 Q 는 상수이거나 독립변수 x 의 함수이지만, 종속변수 y 를 포함하지 않는다.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재래식 모터와 같이 회전이 아니라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동력원. 지상의 고속 수송차량에 유용하다. 철도차량에서 이용했던 한 형태에서는 연속된 정상전도체(定常傳導體 stationary conductor)가 노반(路盤)에 고정되고, 2중고정자(二重固定子)는 정상전도체 위에 놓인 차량 중앙의 바퀴 사이에 매달려 있다. 전기 에너지는 차량에서 발전하거나 트롤리(trolley: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전기가 흐르는 가설선으로부터 전기를 얻기 위해 가설선과 접촉해 구르면서 이동하는 쇠)를 선로와 나란한 가설선과 접촉시켜 얻는다. 이 에너지를 2중고정자에 공급하여 앞으로 나가게 한다. 리니어 모터는 벨트컨베이어, 방직기의 북, 그리고 선형운동하는 다른 장치를 구동시킨다. 전자기 펌프에는 고체전도체 대신 액체금속과 같은 전도유체를 사용한 리니어 모터가 있고, 전도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펌프작용을 한다. (역주)

정(determination)의 연속으로, 그리고 그 때문에 통사론적 계층의 창조자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따라서 동류체적 메시지를 산출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계층적 총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위에서 담화의 분석을 시작하든지, 의미의 단위로 규정된 해석소(lexia, lexie)와 함께 시작하든지 함으로써, 또는 최소 구조단위로부터 보다 큰 통사론적 단위(syntactical unites)의 지위를 떠맡든지 함으로써, 메시지 단위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 의미작용의 전체(tout de signification)로 명백히 파악되었다.

덴마크 언어학자들의 제안에 의하면, 그 문제는 형태학적 범주(morphological category)⁹⁹⁾의 중복 위에서 메시지의 동류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통사론적 단위는 본래부터 계층적이며, 동시에 형태학적 구조의 반복으로 위치가 정해진 계층 안의 프레임으로 이바지한다. 동차(同次) 원소(homo-elementary)¹⁰⁰⁾는 전통적으로 합치(agreement)라고 하는 후소(後素)적 반복(repetition), 즉 동차범주(homo-category)에 의해 규정되며, 그들은 제사법(制辭法, rection)¹⁰¹⁾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문법적 중복은 메시지의 의미론적 동류체를 이해하는 모델로 이미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측면의 견지에서, 형태학적 범주가 강류의미소의 제한된 무리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비록 그들이 통사론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메시지의 동류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확장일지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동류체 또는 담화(또는 그 총체로서의 담화)의 커다란 문체 단위의 동류체적 변이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 중복은 그들이 앞으로 존재할는지 모르는 것(반드시 형태학적 범주는 아니다)으로, 그리고 먼저 통사론적 영역 안에 닫히지 않은 동류체의 이러한 변이를 고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직면하게 된 그 곤경을 보다 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해석은 확장적(extensive) 동류체의 존재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99) Louis Hjelmslev, 「Prolegomena」, pp. 26~27.

100) 프랑스어 homo(om): semblable(s äblabl), “~와 비슷한(유사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주)

101) “rection”은 프랑스어로서, 라틴어 rectio(다스림, 통치, 관리, 지도)가 어원이다. (역주)

기묘하게도 그것은 펀(pun)이라고 하는 분야로부터 기인한다. 그 문학 장르는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학적 절차(우리가 동류체적 변이와 상수의 예를 도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던)를 자발적으로 과시한다.

b. 동류체의 변이

아주 평범한 농담을 예로 들자.

엄선된 초대 손님들이 모인, 찬란하고 매우 우아한 사교의 밤이다. 도중에, 두 명의 초대 손님이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걸어 나간다.

“아, 아름다운 밤 아닙니까? 멋진 식사…그리고 멋진 복장(toilet, 그렇죠?

하고 한 사람이 만족스럽게 말한다.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왜요?”

“글쎄요, 전 화장실(toilet를 lavatory로 이해하고 있다)¹⁰²에 간 일이 없거든요.”

[Point de vue(관점), 23 February 1962]

수없이 많은 다른 장르의 설화처럼, 농담은 얼마간의 향구적·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그것은 2개의 필연적인 부분, 즉 화술-표현(the narrative-presentation)과 대화(또는 대사, dialogue)를 가지고 있다.

2. 그 표현은 설화를 준비한다. 즉 그것은 최초의 동류체로서, 동차의미작용의 레벨을 확립하고 있는 짧은 화술(話術, narrative)이다.¹⁰³

102) toilet: 화장실, 화장, 몸단장, 옷매무새, 복장. lavatory: 화장실, 변소, 세면장. attire: 차려 입히다. 성장시키다. 옷차림새, 복장, 의복. 손님 A는 “toilet=복장”, B는 “toilet=화장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역주)

10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03. narrative(화술, 話術); 1. 단어 사용의 일반 관례에 의하면, 용어 화술(narrative)은 격아강적인 성격의 화술담화(연기가 성취된 인물을 포함하고 있는)를 지시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된다. 따라서 이미 담화 안에 삽입된,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의해,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등위 안에 명기된, 화술도식(또는 아티클레이션의 어느 하나)은 함수의 관자놀이-시간적인 연속(연기의 의미에서)으로 화술(V. Propp에 따르고 있는)을 정의하는 어떤 내포기호작용을 취급하는 존재(being)이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방식(격아강적인 것으로 그리고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으로)으로 고찰됨으로써, 화술성은 오로지 담화의 강류하고만 관계한다. 2. 화술형식은 변화가 다양해서, 그것이 단순화술로 정의되는지 아니 되는지 의문이 대두된다. 최소한 단순화술은, 이전의 상태(먹기 이전의)로부터 이후의 상태(지금 먹고 있는 동작에 따르고 있는)로 이행하는 추이로 분석될 만한, 실행(doing, 또는 변화과정)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진, “아담이 사과를 먹었다(Adam ate an apple)”로서의 문장

제6장 담화의 동류체

3. 대화는 설화를 극화하는 변화과정이며 최초의 동류체와 두 번째 동류체를 감각스럽게 대당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단위(불변성, unity)가 폭파된다.

4. 두 동류체는 공통 결합 텀에 의해 연결된다. 보다 단순한 경우에(편, 익살 등등), 동정 또는 포르만트의 외형이 단순할지라도 두 동류체(2개의 다른 어의소를 떠맡고 있는 포르만트 toilettes[복장/화장실]가 공통의 핵의미소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정신적인 만족은 아마도 동차 화술 안 2개의 동류체의 발견으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담화 동류체의 변이를 의식의 레벨에 떠올리고 있는 문학 장르로 고찰된 편으로 나타난다. 그 변이는 외관상으로는 동시에 결합하고 있는 텀으로서의 현존재에 의해 은폐된다.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코미디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주(actants)의 선택은 직면한 동류체의 이질성분을 강조하고 있는 보완과정을 구성한다. 사실, 최초의 표면적인 강류는 편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대당이 되고 있음을 먼저 보여준다.

성인(adult) vs 미성년(children)
다수파(majorities) vs 소수파(minorities)
정상인(normal people) vs 미친 사람(madman)
인간(human) vs 동물 또는 사물(animals or things)

두 동류체의 대비는 대당이다. 이러한 경우, 2개의 시퀀스는 동류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담화의 이러한 일부분은 그들 내용의 관점으로부터, 이질성분의 정신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그것은 이러한 설화 내용의 기술이 사회적 강류의 집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형학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다른 설화이다.

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화술은 화술프로그램의 개념과 밀접하다. 3. 담화구조의 레벨에서 보면, 용어 화술은 등장인물 안에서 격이강적인, 프로그램의 차원 안에 정위된, 그리고 발화적 이탈(자유)의 절차에 의해 획득된, 담화단위를 지시한다. (역주)

c. 동류체적 화맥의 차원

만들고 있는 편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술-표현은 그의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화자에 의해, 담화의 동류체적 레벨을 확립하고 있는 고체성에 의해, 그가 새로운 동류체를 도입할 수 있는 그것의 안에서 하나의 보다 더 폭넓은 화맥을 최초로 주장하는 것에 의해, 느꼈던 요구(need)¹⁰⁴를 벌써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알고 있거나 그들이 믿고 있거나,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로, 위트가 있는 대화는 병치와 동시에 몇몇 동류체의 성공적인 이용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동류체의 분리 문제와 동류체적 화맥 차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그것이 말썽이 많은 다툼 차원의 어떤 것을 구성할지라도 아직 기계적인 번역-전격 차원의 한 분야로 분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다음과 같은 화맥 동류체가 있다고 한다면,

개가 짖는다(The dog is barking)

서장이 소리친다(The commissioner is barking)

104) 요구(要求, need): 욕구라고도 한다. 생활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무사히 영위하기 위하여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물질을 교환하며 사회적 접촉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생활체의 생리적 기구 내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어느 한계 내에서 변동한다. 이 변동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극단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구 내부 환경의 적절한 균형상태가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작용이 생긴다. 이와 같은 평형상태를 미국의 생리학자 W. B. 캐넌은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고 불렀다. 요구는 호메오스타시스로부터의 이탈이나 생리적 불균형으로 직접 발생하는 1차적(一次的) 요구와 어떤 경험에 의하여 1차적 요구로부터 파생한 2차적(二次的) 요구로 구분된다. 생활체가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일정량의 산소·수분, 기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생활체의 생리적 요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리적 요구는 호메오스타시스 유지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생명유지를 위한 생활체의 자기조절기능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 요구는 생리적 1차적 요구와 심리적 1차적 요구로 구분된다. 생리적인 1차적 요구는 공기에 대한 요구, 수분(水分)에 대한 요구, 식물에 대한 요구, 성적 요구, 육아(育兒)를 갈망하는 모성의 요구, 피로에 대한 휴식의 요구, 수면의 요구 등이다. 심리적인 1차적 요구는 유해자극으로부터의 퇴피(退避), 적을 만나 경계하고 도망치려는 위급요구(危急要求), 적에 대한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적 요구에 의하여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습득되는 각종 요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경험적 또는 습득적 2차적 요구라고 한다. 습득적인 2차적 요구로는 지위·명예·권력·독립 등에 대한 요구, 애정·집단소속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1차적 요구는 생명유지, 종족의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족, 개체의 공통적인 것이지만 2차적 요구는 이러한 공통성이 없으며 인간의 경우, 문화·역사·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위와 같은 화맥은 기본적인 발화의 프레임으로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 화맥은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장의 개가 짖는다(The commissioner's dog is barking)

그 시퀀스-언의발언(the sequence-enunciation)은 강류의미소 “인간”과 마찬가지로 강류의미소 “동물”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더 폭넓은 화맥만이 주어진 발현 안에서 개의 문제인가 또는 보좌역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확립된 화맥의 목적과 함께 변별적 기준을 탐색하고 있는 의미론적 분석은 다른 무엇이 삽입된 화맥의 계층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적어도 2개의 의미소적 격상이 모여 있는 결합체(syntagme)는 최소의 화맥이 하나의 동류체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발화는 구성하고 있는 결합체의 동류체를 검증하도록 허락한다. 이어서, 그것은 문장 안에 삽입되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그 기술은 이미 인식된 비교 또는 전환 차원과 함께 통사론적 단위의 존재자로 인하여 특권이 부여된다. 계속해서, 그 기술이 문장 차원을 초월하자마자 말썽이 많은 다툼은 발전한다. 즉 그 문장보다 더 큰 파롤의 비통사론적 단위(단락, 일절[화술, 장면, 대화 등등, 끝으로 장]를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질차는 거기서 엄격하게 사용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식적 기준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주어진 사실로서의 이러한 비통사론적 단위는 아직 내용의 단위를 남겨놓고 있다. 그것은, 의미론적 연구가 동류체적 구조의 인식을 허락할는지 모르는 식별의 다른 원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인가 어떤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2.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작용

a. 확장과 정의

현대 언어학은 그것이 인식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고 자연언어 “확장”이 하고 있는 작용의 중요한 양상 가운데 하나인 그 도구적 개념의 발화자료체로 통합하고 있는, 그때 그 날부터 새로운 발전을 체험했다. 이러한 방식으

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phenomenon)에 부여한 명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현상은, 다른 차원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단위가 동시에 동치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사실에 의해 자신 안에 그 계층의 부정적 진술(비실재, negation)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에 적용시키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계층단위로 고찰된, 담화를 서술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동치적 단위의 동치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는, 다른 어떤 것(영어 “potato[감자]”가 프랑스어 “pomme de terre[감자, 대지의 사과]”에 상응하는 자동번역 안에서 현저하게)과 함께 자연언어와 비교해서 사용될 때, 그들 각각의 관념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 원리가 언어 안에 위치가 잡힌 사실에 적용될 때, 그것은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때에 나타나는, 담화 작용의 메타언어학적 양상을 밝혀준다. 자연스럽게 표현된 이러한 원리는 어떤 사물이 복잡하게 뒤얽혀 만들어진 것이지만 단순한 거동처럼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단순한 단어는 보다 큰 시퀀스에 의해 설명될는지 모르며, 반대로, 그 단순한 단어는 하나의 합성된 모습을 최초로 상상했다는 것을 추리하는 것으로 자주 발견될 수 있다. 확장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된 텀을 의미하는 것에 의해 성공적인 결정의 부가물을 허락하고 있는 담화의 통사론적 성격이 아니다. 확장은 담화의 전형적인 함수 연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확장에서의 시퀀스가 그 자신보다 통사론적으로 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단위의 동치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꼭 찬 의미작용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동치는,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작용을 규정하는 구조적 편차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항상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반적으로 보다 더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언어학 안에, 오로지 진기한 의미론의 처지 안에 배치한다면, 확장이 문장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통사론적 단위의 프레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 단어의 폭넓은 의미(우리는 어떤 애매성, 즉 착란적인 정의를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컬을는지 모른다. 사실, 사전편찬법은 그것이 떠맡고 있는 어의소의 수에 종속되면서 단순하게 가치를 만들고 있는 어휘소를 위해 하나 또는 몇몇 시퀀스를 대신하고 있는 탐색의 큰 단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의 안에서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시퀀스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어휘소보다 통사론적으로 큰 동치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사전은 이러한 동치체계 작용의 무수한 예를 제공한다.

물다	≈ “붙잡다, 특히 이와 턱으로”
(to bite)	(to seize, esp. with teeth or jaws)
붙잡다	≈ “소유하다 또는 힘으로 취득하다”
(to seize)	(to possess or to take force)
소유하다	≈ “들어가서 확고하게 관리하다”
(to possess)	(to enter into and control firmly)

그것은 정의하고 있는 시퀀스가 다음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정의된 텀처럼 동일한 통사론적 함수를 가지고 있는 확장으로서의 결합체(여기서 예지적·빈사적 용법과 함께 존재하는 결합체).

2. 일반적으로 동치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첫 번째 텀 또는 첫 번째 텀을 결정하고 있는 두 번째 텀으로 조립된 시퀀스.

따라서 착란적인 정의는 동정된 존재자 없이 접근되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논리적 정의는 유사 유개념과 다른 종개념을 통하여(per genus proximum et differentiam specificam, through the like genus and different species) 만들어진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후자(종개념)처럼 속박되거나 단조로운 존재자이기 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자유롭고 대략적이다. 그것은 2개의 언어학적 측면에 위치가 잡혀진 아티클레이션 사이의 동정을 확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병치되어있는 아티클레이션에 공통된 하나 또는 몇몇 의미소의 존재자 위에서 발견된 순간적인 또는 하루살이 목숨의 동치를 확립한다.

노트: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동치의 개념은(부연하면, 다소간 함축적인) 결코 정의되지 않는다. 그 정의는 인식론적 메타언어의 레벨에 의존한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원소만을 끌어당겨 오도록 회색할 뿐이다.

만약 사전편찬적 정의가 아직도 논리적 정의에 상대적으로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형식화는 흔히 할 수 있는 크로스워드퍼즐에서의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모방한 것일 것이며, 다른 한편, 자연언어의 표준적 작용의 보다 더 적합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France-Soir」¹⁰⁵⁾에서 선택된 보통의 퍼즐은 무작위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공한다.

105) 파리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 (역주)

경기(competition)≈“스포츠 시험(sporting test)”
 낮은 집(lair)≈“초라한 주거(miserable dwelling)”
 발레(ballet)≈“상징적인 춤(symbolic dance)”
 욕망(desire)≈“항상 만족하지 못한 욕구(longing not always satisfied)”
 바다(sea)≈“물의 확장된 영역(extended area of water)”

그것이 비록 그 어의소와 공통된 약간의 의미소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의소의 의미목록을 결코 다 소모하지 못했음을 정의하고 있는 어의소의 동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확장 시퀀스로 나타난다.

b. 응축과 단자(Condensation and denomination)

인용된 크로스워드퍼즐에서, 우리는 텀을 임의로 전도시켰다. 실제로, 만약 크로스워드퍼즐 작성자들이 주어진 어의소로부터 그 퍼즐이 시작되도록 준비하였다면, 그리고 그 정의를 찾는다면, 독자(즉 수신의 레벨)에게 주어진 문제는 정의된 텀을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으로부터 정의의 발화자료체가 조립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확장 안에서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작용모드 중의 하나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결론을 갖게 될 것이며, 확장 메시지의 압축적 해독체계의 유형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당신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신도 이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화 상대는 장황한 진술을 종종 응축할 것이다. 또한 확장이 통사론적으로 한계가 정해진, 즉 정의(그것의 논리적·과학적 연장부분은 중요하다)의 형식화를 종종 갖게 됨으로써, 응축의 효과는 대개 단자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단자의 생생한 질차를 포착하기 위하여, 특산품점이나 철물점에서 일상적인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과 같은 구매자의 자유로운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 a gadget for(...을 위한 도구)
- a type of(일종의...)
- a thing used for(...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
- a sort of thingamajig which(일종의 뭔가 하는 것)
- a whatchamacallit(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위의 예는 세일즈맨의, 어떤 때는 적합한, 어떤 때는 오로지 탐색적인 단자와 상응한다.

어떤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성공적으로 변이하면서, 계속 몸을 뒤치고 있는 담화의 이러한 메타언어학적 작용은 확장과 응축, 정의와 단자 사이의 왕복운동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완전히 폐쇄된 언어체계(부연하면, 어휘소는 어의소와 동정될 것이며 가래[spade]¹⁰⁶는 항상 가래로 불릴 것이다)에 있어서, 이러한 메타언어학적 게임은 부동(不同)적이거나 불균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만약 그 체계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N개의 덩에 의해 정의된다면, 정의의 결합가능성은 주어진 덩의 수가 적어도 알맞게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반작용(단자)은 항상 동일 덩에 되돌릴 것이다. 부연하면, 이와 같다. 사이비 소쉬르적인 전통에 의하면, 파롤(parole)의 자유는 랑그(langue)의 폐포성과 대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랑그는 아예 폐쇄된 체계가 아니며, 정의와 마찬가지로 단자는 언제나 다수 또는 몇 가지로 실행된다.

여기서, 이러한 절차의 기술을 시도할, 또는 단어의 형성(또는 변형)에 관한 보고서의 요약을 제시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재 시도된다. 왜냐하면 단자의 논리는 폭넓게 믿어지는 것으로서(아마 그것은 이 영역에서 탐색의 상대적인 포기를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통시언어학에 의해 전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자주 그리고 특히 언어의 공시적 함수의 연구에 의해 잘 취득된다. 그 현상(phenomenon)의 폭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은 주요한 형식(form)을 추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 이러한 절차의 어떤 것은 쉽게 인식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이며 함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본질상 단자로서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a. 따라서 그것은 파생어(문법적 파생어가 아니다: 역주)로 존재하며, 대부분 강류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동시에, 단순한 단자의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문적(기술적·기교적) 활동으로서의 사전 전체는 18세기 프

106) 프랑스 원전은 “chat(고양이)”로 되어 있다. (역주)

랑스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도구의 명목 또는 가공원료의 명목으로부터, 단자체계는 스스로 생산자, 생산활동,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지를 추리하는 빈 프레임을 제공한다. 최근의 저서에서, 뒤부아(Jean Dubois)는 그 문제를 면밀히 고찰했으며, 여기에 우리가 얼마간 더 부가해서 언급한다면 그것은 사족이 될 것이다.¹⁰⁷⁾

b. 그것은 차용의 우연한 이용과 같다. 그러나 특히 일반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차용의 질차와 함수는 서구문명의 전 언어공통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라틴의 유산에 속하는 어휘적 원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소에 의해 제공된, 과학적 언어의 일의적 정의에 의해 고정된 비교적 단순한 가능성은 현대 과학적 용어법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단자라고 할 수 있는 어의소의 합성을 십분 활용하였다. 뒤부아(Jean Dubois)에 의해 연구되었던, 합성이 파생될 때 포착하기와 결정하기의 어려움은 그들을 파생어와 비교하고 있는 그들의 조성어근의 의미소적 내용의 상대적인 단순성에 의해 설명된다.

2. 특별질차는 우리가 확실하게 추리했던, 불연속의 포르만트를 사용하고 있는 단자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가 잡혀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포르만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자와 정의를 동정하는 질차라기보다 오히려 언어의 단자적인 측면에 의해 정의가 충전되고 있다.

그것의 예는 많다. 예를 들어, 평반 인쇄기(flatbed), 백합의 골짜기(lily of valley), 초산(acetic acid) 등이 결합체적 혼합물의 여러 가지 단계로 표현될지라도, 그들은 모두 동일 양식으로 해석된다. 사실, 둘 또는 그 이상의 핵의미소를 단지 하나로 통합하는 핵격상의 확장이든지, 또는 약간의 의미소적 부유물(정의와 관련된 단자는 항상 의미소적으로 허약하다)을 동반하는 유일무이의 강류의미소적 프레임이든지, 그 착란적인 정의는 단자로 변형되며 이어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3.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차는, 단자적인 성격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를 생산하는 존재자로서의 어휘소의 자료(파생어로서 아직 문법적 레벨에 체계화되지 않은)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다.

a. 이러한 질차의 첫 번째는 격아강적인 단자로 추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 범위의 단자적인 의미소적 모델로서 프랑스어에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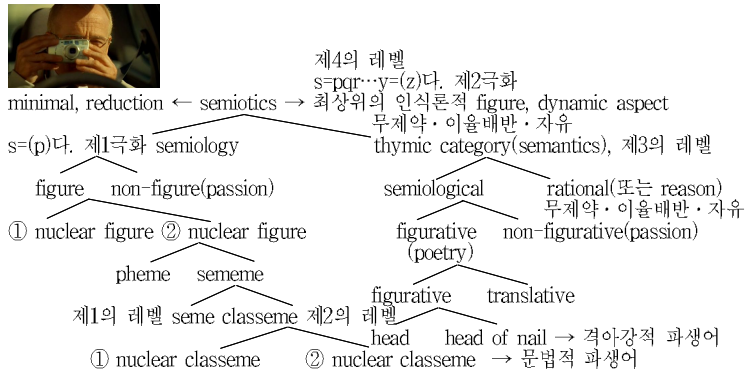
107) Jean Dubois, 「Étude sur la dérivation suffixiale en français moderne et contemporain」 (Paris: Larousse, 1962)

했던, 그리고 하나의 원형 다시 말해서 파생어(head of nail[못대가리], of a pin[핀의], of a mast[돛대의], of a pair of compasses[콤파스의], of a hammer[망치의]; head of poppy[양귀비꽃대가리], of an artichoke[송영경귀의], of cabbage[양배추의], 등등)의 개시된 강류로서 직분을 떠맡았던 핵격상(예를 들어, tête[head]의 핵의미소치림)을 보았다. 여기서 그것은 진짜 파생어로서의 핵격상 함수를 나타내며, 오로지 그 포르만트의 통사론적 행위에 의해서만, 그것과 한눈에 구별된다. 그러나 의미소적 결합의 관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핵격상이 또한 파생어와 구별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만약 문법적 파생어가 강류의미소의 원리 안에서 형성된다면, 격아강적인 성격의 파생어는 내용(content)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이어야 할 것이다. -역주¹⁰⁸⁾ 레벨에 의지하는 의미소적 모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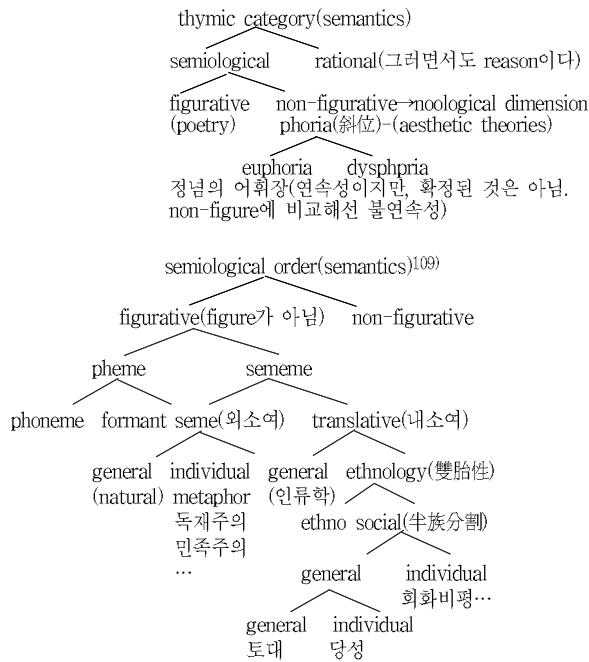
귀로(Pierre Guiraud)는 형태의미장(morpho-semantic fields)에 관한 연구에서, 따라서 이러한 격아강적인 모델의 임시적인(preliminary) 목록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파생어의 세미올로지적인 강류의 이러한 개념을 지원하는 많은 예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질질 끌지 않을 것이다.

b. 만약 격아강적인 단자가 파생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다른 절차(그것은 단자의 관점과 함께 어느 한 동류체에서 다른 동류체로, 즉 핵과 강류의미소적 성격으로 모두 충전된 담화 시퀀스의 번역-전격으로 존재한다)는 차용과정을 번갈아 일깨울 것이다.

노트: 아래 도표를 보면서, "cosmological dimension"과 "noological dimension"은 "제8장 의미작용의 기술, I. 표출과 담화, a. 표출세계의 이분법"을 참조하라. (역주)



108) 1970년 이전의 A. J. Greimas는 semiology와 semiotics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역주)



109)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3차원의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과 비교해 보라.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E=mc^2$ 이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이 정지에너지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져야 하므로 에너지는 항상 mc^2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디랙(Paul Adrian Maurice Dirac, 1902~1984) 방정식 " $(i\gamma^\mu \partial_\mu - m)\psi = 0$ "을 풀 결과와 비교해 보면($E \geq mc^2$ 또는 $E \leq -mc^2$), 첫 번째 관계식은 상대성이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관계식인 $E \leq -mc^2$ 이다. 이에 의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야 한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정지에너지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보다 작아야만 한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E = mc^2 \quad \text{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quad \text{상대성이론과 일치}$$

$$E = 0$$

$$E \leq -mc^2 \quad \text{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quad \text{예상하지 못했던 음의 에너지}$$

디랙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디랙은 자신의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음의 에너지에는 우리 우주의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디랙은 과연 이 음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반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

*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c. 번역-전격(轉格)적 단자(Translative denomination)¹¹⁰⁾

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준비 작업으로 파울리의 배타원리(Pauli's principle; 1924년 W. 파울리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서 2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상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배타율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껍질 구조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녀와 같은 초대칭을 상상하라)를 떠올려보자. 이에 의하면 전자는 한 상태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을 바꾸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겹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람으로 콕콕 들어찬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자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락이 알아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전 지식이 더 필요하다. 요점만 말한다면 전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얘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대강 설명하면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낸다. 이것이 바로 불이 났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태의 역현상, 즉 방출이 아니라 반물질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진동처럼 물질과 반물질 간의 진동도 가능할까? 적어도 언어의 세계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다. -김찬주,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참조. 2. 방향적 범주를 위 도표의 사진과도 비교해 보라. 사진을 찍는 남자의 오른 쪽 눈(figurative)은 카메라(figure)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역주)

11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351~352. translation(번역-전격); 1. 번역-전격은 동치로 고찰된 하나의 주어진 발화로부터 다른 발화로 이행하는 인식활동을 의미한다. 2. 번역-전격력은 기호학의 체계의 기본 계산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의미론적 접근의 바로 그 초석으로 존재한다. 사실, 번역-전격은 존재에 관한 판단으로서의 “의미하는 것”과 의미에 대해 무언가 언급하고 있는 실현성 사이에서 일어난다. “의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번역-전격하는 것과 의미를 생산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 3.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언어가 다른 기호학의 체계에 대하여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기호학의 체계가 번역-전격될는지 모르는 자연언어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언어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언어는 대기호학의 체계라고 언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또 다른 대기호학의 체계(자연언어)는 번역-전격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세계(마치 회화, 음악 등과 같은)로부터 구성된 기호학의 체계를 위하여 잘 지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언어는 서로 번역-전격됨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메타언어학적 구성을 위하여 필수자료를 또한 제공한다.(cf. paraphrase) 4. 이러한 고찰은 그러나 공리 안에 있을는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언어를 인성화(人性化, hypostatization) 시켜야만 하며, 또 어떤 때는 긍정(affirmation)적이면서 다소간 명백하게 하여야만 한다. 만약 자연언어가 시니피에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사실, 이러한 시니피에는 다른 기호학의 체계로부터 전이된 시니피에로서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오직 순수 시니피에(예를 들어, 그때 시니피에가 언어화될 수 있는 한 세계와 회화는 오직 의미작용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일 뿐일 것이다. 자연언어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구조적 의미”의 그 장소에서 시니피에가 구상화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작용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존재하기 전에 일어나는 최초의 활동(또

일찍이 거론했던 크로스워드퍼즐의 정의의 예문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언급(“rosary bead[장미꽃밭의 구슬, 묵주]는 Ave[Avé Maria, 천사축사,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에 대응하는 단자와 상응할 것이다”)을 빠뜨렸다. 이러한 단자의 유형은 단자와 정의 사이의 동치적 관계를 결정하는 일반조건과 상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air(낡은 집)≈“dwelling(주거)” 또는 ballet(발레)≈“dance(춤)”가 나타내는 것처럼, bead(외부세계의 대상)와 Ave(기도의 유형) 사이에는 동치가 없다. 형식적 절차의 관점에서, 그러한 단자는 우리가 검토했던 어느 단자적인 강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느 한 의미론적 영역으로부터 전자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어느 다른 영역으로 담화의 아티클레이션(어휘소 또는 결합체)이 번역-전격하는 것처럼, 일종의 내부 차용으로 이러한 단자를 고찰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러나 번역-전격적 단자(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도록 제안한다)는 매우 많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는 리트레(E. Littré) 사전의 tête 항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tête de loup(head of wolf, 여우의 머리)≈“type of feather-broom, 깃털 비의 일종, 긴 자루가 달린 먼지떨이”

tête de Turc(head of a Turc, 터키인의 머리)≈“type of anvil, 모루의 일종,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

tête de nègre(head of a Negro, 흑인의 머리)≈“color, 색, 짙은 갈색”

tête á tête(head to head, 머리에 머리)≈“tea set, 티세트”

거기에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유형의 50개의 식물, 패류, 어류, 조류의 명목을 첨가할 수 있다.

는 번역-전격작용)이다. 5. 의미작용은 번역-전격이 시발점(ab quo)으로서의 텍스트의 해석적 실행과 종착점(ad quem)으로서의 텍스트의 생산적 실행으로 인하여 불완전해결되는지 모르는 기호학적 활동으로서의 그 역할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두 현상을 구별함으로써, 그것은 시발점으로서의 텍스트(또는, 이러한 텍스트의 함축적 또는 명백한 분석)가 그것을 고찰하려고 시도하는 구조적 메타언어에 이를 수 있는지, 또는 최초로 두 격아강적인 세계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다소간 동등한 종착점으로서의 텍스트의 생산(이러한 텀의 문자 상의 의미 안에서)에 이를 수 있다. (역주)

제6장 담화의 동류체

tête d'âne(donkey-head, 당나귀의 머리)	┌	식물의 명목
tête de coq(rooster-head, 수탉의 머리)		
tête d'araignée(spider-head, 거미의 머리)	┌	패류의 명목
tête de serpent(snake-head, 뱀의 머리)		
tête d'âne(donkey-head, 당나귀의 머리)	┌	어류의 명목
tête de lièvre(hare-head, 산토끼의 머리)		
tête de chein(dog-head, 개의 머리)	┌	뱀의 명목
tête noire(black-head, 검은머리)		

용어 번역-전격적 단자는 논리적 전제가 여기서 해석의 최초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이러한 유형의 절차에 적합한 것 같다. 사실, “인체의 일부”로서의 “tête de négre(head of a Negro, 흑인의 머리)”는 “color(질은 갈색)”로서의 “tête de négre”에 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격아강적인 단자와 대비됨으로써, 어의소적 단자의 표현은 아마도 반드시 적합할 것이다. 그것은 “인체의 일부”로서, 즉 2개의 핵의미소(단순 확장격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전에 화맥적 분석에 의해 유리되었던 것처럼 강류의미소의 전체에 의해 가장 잘 구성된 결합체로서 존재하며, 그 “tête de négre”는 어떤 갈색 또는 회색의 명목(그것은 tête de canal, head of canal, 운하의 기점과 전혀 다르다)으로 선택되었다. 비록 “tête de négre”가 메타언어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아래 우리가 더욱 상술하여야만 할지라도, 즉 어떤 색깔의 동치로 위치가 잡혀있을지라도, 틀림없이, 이런 경우, 그것은 어의소 안에 있으며, 번역-전격 절차의 시발점이 자리 잡혀야만 하는 텀으로서의 격상 안에 있지 않다.

노트: 격아강적인 단자와 번역-전격적 단자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그것이 아직도 2차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원학자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조력을 주고 있다. 만약 격아강적인 단자가 구체성으로부터 추상성으로 향하고 있다면, 번역-전격적 단자는 역방향(Ave “prayer[천사축사]”>Ave “rosary-bead[장미꽃밭의 구슬, 묵주]” 참조)에서 동등하게 발생될 것이다.

만약, 발신의 레벨에서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작용을 고찰하는 대신에, 우리가 메시지 수신자의 관점 그리고 전송된 텍스트 분석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것은 새로운 강류의미소 (C_1s)가 제공되어 통합된 번역-전격 어의소로서의 새로운 화맥이다.

2. 그 독창적인 어의소는, 공통단자로서 이바지하는 것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핵의미소와 그 강류의미소와 함께 새로운 단자적인 어의소(denominative sememe)를 위하여 새로운 격상 " $(N_s + C_s) = N_1s$ "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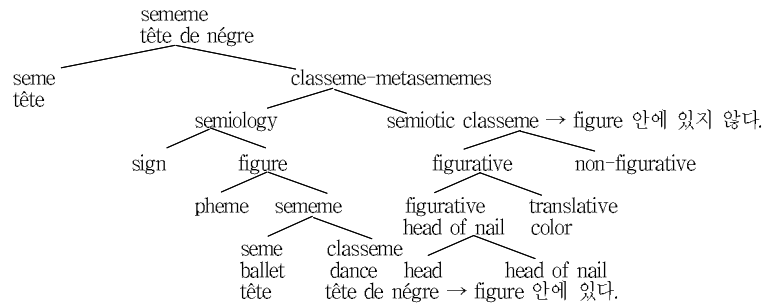
이후에, 번역-전격된 단자적인 어의소는 다음 형식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

$$Sm(t) = (N_s + C_s)C_1s$$

노트: 번역-전격 어의소의 독창적 의미소는, 부연하자면, 조직 안에서 중대한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명기해도 무용하지 않다. 의미소의 어떤 것은 오로지 이러한 메타언어학적 함수로만 사용될 것이며, 반대로, 다른 것들은 일시 보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시보류는 그들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한정된 조건 하에서 그들의 재출현 없이, 담화의 다차원 작용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제기된 최후의 문제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전송의 번덕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충분히 자율적인 기호학적 영역의 발휘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강류의미소의 성질과 역할 상의 심층 반성만이 이러한 질료 위에 빛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트: 아래 도표 참조.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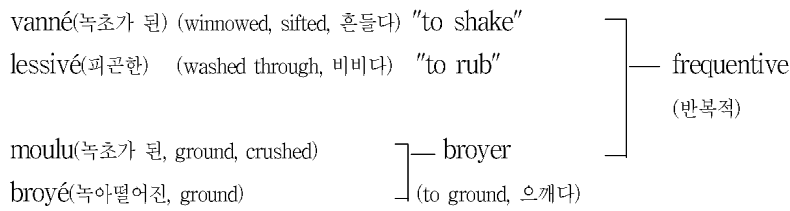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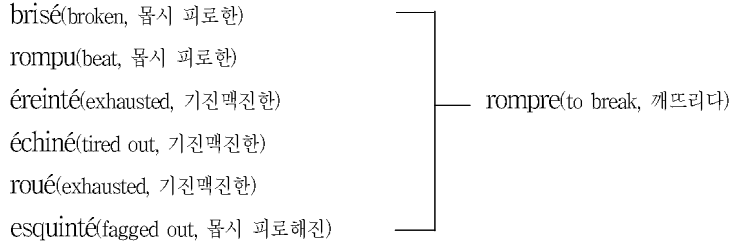
d. 강류의미소의 이중함수

앞장의 어느 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반복성과 그들의 결합체적 확장에 의해 강류의미소를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어휘소보다 폭이 넓은 그것은 담화의 상대적 동차적 의미론적 마치 수꽃술이 몇 갈래로 갈라져 나오는 것 같은(또는 친구의 필라멘트가 열전자를 방출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설명한다. 우리가 현재 고찰하고 있는 것은 담화의 “융통성(elasticity)”의 또 다른 양상을 상술하려는 것이며, 확장과 응축의 변용된 표출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은 의미론적 우주라고 하는 조직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강류의미소에 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 즉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고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길이의 두 담화 아티클레이션이 내용의 단일 단위의 정의와 단자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몇몇 동정적인 의미소의 공동 재산(possesion)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종류(species)의 의미소의 새로운 분류상 함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기다.

우리는 fatigué(tired)의 유의어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유의어의 문제에 대하여 낸시 연구소(Centre de Nancy)에서 행한 최근의 연구 세미나에서 밝힌 바 있는 마르탱(R. Martin)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함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예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어휘소 fatigué는 약 50개의 유의어 또는 오히려 준유의어의 현대 프랑스어 안에 있다)이다.

e. 격아강적인(figurative) 단자의 분석

목록의 첫 번째 아강(亞綱, subclass)¹¹¹⁾은 화맥과 어휘소적 격상의 양방향에서 실행된 예비분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11) subclass: 생물 분류법상의 한 단위. 생물분류법은 다음과 같다. 즉, Kingdom(Regnum) 계(界), Division 문(門), Subdivision 아문(亞門), Class 강(綱), Subclass 아강(亞綱); 강(綱)과 목(目)의 사이. 곤충강을 무시(無翅) 아강과 유시(有翅) 아강으로 나누는 것 따위. Order 목(目), suborder 아목(亞目); 목과 과의 사이. Family 과(科), subfamily 아과(亞科); 과와 속의 사이, Genus 속(屬), Species 종(種);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종의 정의로서는 개체 사이에서 교배(交配)가 가능한 한 무리의 생물로서 더욱이 다른 생물군과는 생식적(生殖的)으로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명쾌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생물은 형태적으로 색채를 포함하여 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슷한 종이라도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두 종의 중간형이나 잡종이 생기는 일은 없으나, 그 중에는 암수 또는 개체 사이에 상당히 현저한 형태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남기는 종도 있다. 또, 매우 비슷하며 외견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종도 있다. 종의 분화에는 지리적인 격리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지방적으로 분화하여 많은 아종(亞種)을 형성하며 두 극단적인 아종 사이에서는 종에 해당하는 분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Subspecies 아종(亞種); 생물분류학상 종(種)의 하위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주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이 인정될 때에 사용된다(地方變異). 명명규약에서 다루는 최저 계급으로 아종을 나타내는 데는 삼명식 학명(三名式學名)을 사용하여 속명·종명·아종명의 순으로 기술한다. 아종명 다음에 명명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역주)

제6장 담화의 동류체

vidé(기진맥진한, empty)	} vider (to empty, 비우다) (꼭 차있는 것을)
crevé(기진맥진한, punctured: i.e. to work) [(an animal) to death, 어떤 동물이 죽은]	
pompé(pumped out, 기진맥진한) (cf. coup de pompe, 맥이 빠진) (속어: to be pumped out, 기진맥진하다)	
épuisé(exhausted, drained, 기진맥진한)	
époumoné(having one's lungs tired out, 숨이 찬)	
claqué(기진맥진한, snapped out) (associated with bursting noise, 파열음과 결합된)	

이러한 목록(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아강)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이 실제적인 레벨에서는 명백히 분별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limitation)는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예를 그때마다 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그 목록은 철저한 방법으로 이행된 분석적 이중 절차의 결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1. 한편, 그것은 상수(invariant) 화맥(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간의 보완적 화맥) 안에 위치가 잡혀진 전환 어휘소의 강류로 그 목록을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주연적(distributional) 분석을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분석은 어휘소의 구성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약간의 강류의미소로 표기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 화맥으로부터 추출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어휘소에 의해 선택된 의미소 결합의 결과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fatigué(tired)의 경우,

After a day of work, I feel...
(일과 후, 나는 ...을 느낀다)

위와 같은 화맥은 그 강류의미소에 유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함과 동시에, 전체 아강(亞綱, subclass)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므로, 그것은 그 화맥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적으로도 동일한 동류체이다. 즉 그것은 “생물”(vs “무생물”)과 “피발생원인(caused)”(vs “발생원인[causing]”)과 같은 강류의미소를 말한다. “생물”의 동류체는 주어 “I”와 “work” 안에서 이러한 의미소의 중복적 현존재, 즉 과거분사의 굴절과 전치사 “after”에 의해 만들어진 “피발생원인(caused)”의 중복적 현존재에 의해 확립된다.

노트: 이러한 발현의 어떤 것은 심층 강류의미소적 분석을 아마 요구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crevé(어떤 동물이 죽은, 기진맥진한)는 강류의미소적 대당 “동물” vs “인간”의 이탈을 필요로 한다.

2. 다른 한편, 추출된 아강(subclass)의 목록은 개별적으로 취득된 어휘소 각각의 핵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분석을 전제로 한다. 즉 또 다른 형식의 주연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것은 가변성으로서 어휘소 각각의 모든 가능한 화맥을 고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상수적 핵인 각각의 어휘소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그것은 획득된 핵으로서 적종곡(適從谷, subsequent)¹¹²에 필적하는 비유일 뿐이며, 그 핵격상은 공통으로 하나 또는 약간의 의미소를 소유한다는 것에 유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핵격상에 어떤 목록을 가져오기 위하여 목록의 여백에 방금 유념했던(가언적으로 어떤 무엇에) 바로 이러한 공통의미소이다. 따라서 “rompre(to break, 깨뜨리다)”와 “vider(to empty, 비우다)”는 비교적 상위 항목의 격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역으로, 다른 핵은 “반복성(iterativity, frequentive)”의 핵격상의 경제적-유기적 조직(economy) 속에서 상대적으로 2차적 의미소의 공통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강(subclass) 전체는 우리가 강조하려고 했던 의미소를 추리하고 있는 언외지언형식의 무의식적 사용의 사실로부터 단순하게 공통의미소를 나타낸다. 사실, 모든 목록화 된 격상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동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중히(우리는 실제로 언외지언의 강류를 특징짓고 있는 의미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격상

¹¹² “subsequent valley(적종곡),” 즉 연한 지층 부분을 따라서 선택 침식이 작용한 결과 생기는 골짜기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의 이러한 약동적인 성격을 변화과정(process)¹¹³⁾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명목으로 추리하기로 하자.

f. 번역-전격적(translative) 단자의 분석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약간의 강류의미소를 마련할 수 있다.

변화과정(process) + 생명이 부여된(animated) + 피발생원인(caused)

이것을 우리는 모든 목록의 발현과 강류의미소적 기본적 공통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반증이 있을 때까지)하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강류의미소적 기초는 새로운 아강(subclass) 목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종속시킴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것은 번역-전격적 단자의 질차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따라서 일군의 새로운 발현을 들면 다음과 같다.

à plate(점점 엮어지다[기진맥진해 있다], flat out)
sur le flanc(털오로, 저장되어[기진맥진하다], on the side, laid up)
sue les genoux(무릎을 꿇고[지쳐있다], on the knee)
sur les rotules(술개골 위에[기진맥진하다], on the kneec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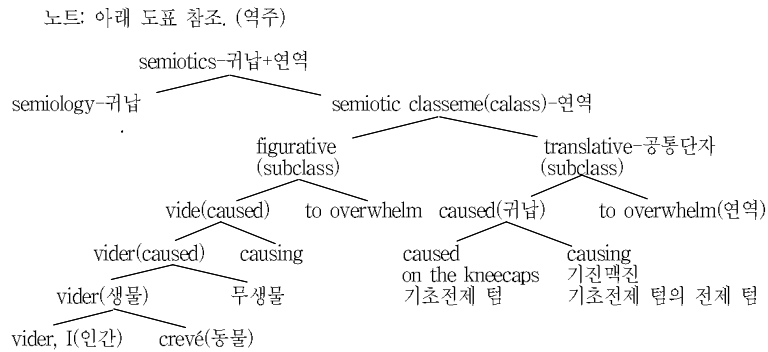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강류의미소적 구성의 조정이 그 스스로 단자의 질차 이전에 이미 장치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발현은 아강(subclass)의 번역-전격적 단자를 구성할 것이다.

11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44. process(변화과정); 1. 자연적 랑그/파롤의 소쉬르적인 이분법을 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체계로서든지 또는 변화과정으로서든지 하여간 그것을 구상함으로써 지식 주체가 대상을 결국 알게 되는 것에 의해 보다 더 일반적인 접근의 특별한 경우로 해석했다. 기호학적 변화과정(semiotic process)은 지시된 파롤의 매우 모퉁한 개념의 결정 중에서 오직 일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며, 그때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용어법에서, 기호학적(semiotic) 체계와 대당이 된 랑그의 결합체적 축은 계열체적 축을 표현한다. 2. 기호학적(semiotic) 담화에서, 털 변화과정은 실행(doing)의 화술적인 함수의 전환의 결과를 지시하며, 그 실행된 전환은 r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그리고 주로 양상적인 범주의 보충적 투자에 감사한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과정은 응축된 형식(예를 들어, 단순 동사)으로든지 또는 확장된 형식(확장, 문장, 단락, 장 등)으로든지 하여간 그 아래 어휘화된다. (역주)

부연하자면, 우리는 그 강류의미소 “피발생원인(caused)”이 이러한 아강의미소(亞網意味素, 과거분사의 활용형식 안 전의 목록에서, 다시 말해서, 특히 그 강류의미소적 표출로 나타나며, 반대로, 그것은 아강의미소의 2차적 핵격상에 단지 텀으로서 여기에 나타난다)의 구성 안에서 연기하고 있는 특별역할을 즉각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보다 더 일반적인 성격의 두 가지 관찰은 다음과 같다.

1. 강류의미소 “피발생원인(caused)”에 의해 가정된 특별함수는 우리가 방금 확립했던 강류의미소적 기초의 내부조직 위에 어떤 빛을 투기(投金)한다. 사실, 그 강류의미소 “피발생원인(caused)”은 이러한 기초전제 텀이며, “발생원인(causing)”으로서의 강류의미소 “변화과정”은 기초전제 텀의 전제 텀이다. 따라서 그 핵격상은 공통단자로서 이바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며,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전제하고 있는 강류의미소 “피발생원인(caused)”에 의해 통합되며, 의미소 “변화과정”은 의미소 “압도하다, to overwhelm(“to overwhelm”의 전제과정 뒤에서만 “flat out” 또는 “to one’s knee”이다)”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의미소적 격상과 핵 레벨에 상응한다.

2. 강류의미소 “피발생원인(caused)”에 의해 이러한 최후의 아강(subclass) 안에서 연기했던 역할은 전자(핵격상) 안에서 연기하고 있는 강류의미소 “변화과정”과 다르지 않다.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영역 안에서 분류법(taxonomy)의 원소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핵격상을 분류하는데 양측 모두 이바지하고 있다.



g. 정의 분석

마르탱(R. Martin)에 의해 제안된 유의어적 목록은 제안된 분석절차에 어렵게 자신을 빌려준 어휘소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강류의미소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화맥적 분석이 용이한 것같이 보이거나 이미 획득된 결과를 확인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핵의미소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분석과 설명은 자명하지 못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정녕 우리가 어원을 찾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fatigare(피곤한)”의 본래의 핵의미소를 밝혀내기 위하여, 하찮은 통시차원 또는 라틴어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거도 증거도 없이 핵격상의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을 역설하고 있으며, 융(C. G. Jung)과 그의 동조자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이면서도 비통시적(achronique)인 것처럼 보인다.

두 계기적인 절차는 이러한 유형의 경우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1. 기술이 어의소적 관점에서 담화의 동류체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관련되고 있는 한, 목록의 환원은 정의의 탐색을 위하여 유의어의 발화를 대신하고 있는 사전편찬학적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이 다음과 같은 정의 안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을 때,

rendu(기진맥진한) ≈ 피곤한(fatigué)과 기진맥진한(harassé)
 fourbu(기진맥진한) ≈ 기진맥진한(harassé)
 recru(기진맥진한) ≈ 피곤해서 기진맥진한(harassé de fatigué)

우리는 5개의 어휘소의 목록이 2개의 어휘소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그것에 한계를 정한 것처럼 분석의 화맥 안에서 우리 스스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fatigué(피곤한)
 harassé(기진맥진한)

2. 따라서 종속된 아강(subclass)을 기술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과정이 제안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정의를 통하여 단자의 분석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중결과는 이러한 방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a. 2개의 결합체적 형식화에 공통하는 약간의 의미소의 현존재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단자와 정의에 동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정의의 분석이

단자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소(그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 중 얼마간이라도)의 성질에 대해 우리에게 통지할 것이라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종류의 발현의 강류의미소적 기초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의하고 있는 원소의 분석에 대한 흥미는, “추상(abstract)”으로 고찰된, 즉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내용이 결여된, 다시 말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못한 단자의 핵격상의 배일을 벗길 수 있는 가능성으로 대개 존재한다.

b. 그렇게 정의된 원소의 탐구는 폭이 넓은 목록과, 동치 원칙에 따라, 그 목록 안에 포함된 어휘소적 발현의 모든 가능한 정의를 그곳에 도입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그리고 이것은 중요하다).

정의하고 있는 원소와 피원소(어떤 이겨낼 수 없는 기술적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사이의 이러한 동치원칙에 대한 적용은 기계적인 문헌의 영역 안에 정치되어 남아있는 상당수의 문제들을 아마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르댕(Jean Claude Gardin, 프랑스의 고고학자, 정보분석의 방법을 고고학에 적용했다, 1925~)에 의해 제시된 예를 사용하면, 우리는 마치 단자가 임시로 의미소를 부호화함으로써 생긴 것처럼 기록된 모든 시퀀스(arrest[체포하다], provoke by-[~에 의해 야기된]와 같은 유형의)를 단자적인 텀 “금지(inhibition)” 아래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⁴⁾

그러나 목록의 마지막으로 환원된 강류의 정의적 분석으로 돌아가자. 동반하고 있는 도표는 이러한 절차가 포함하고 있는 단계의 고찰을 보다 더 간결하게 설명할 것이다.

단자 “Fatigué(Tire, 피곤한)”

114) Jean Claude Gardin, SYNTOL, Syntagmatic Organization language(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5), p.33.

제6장 담화의 동류체

절차	적용		
최초의 정의	to knock down(때려눕히다)	by(~으로)	the expenditure of force(힘의 소비)
최초의 정의의 아티클레이션의 정의	to knock down someone standing(by giving one or several blow)(스탠딩 다운시키다(한 번 또는 몇 번의 타격으로))		“causal activity(인과적 활동)”
의미소의 동치	“to overwhelm(압도하다)”	“caused(피발생원인)”	(“process[변화과정]”+“animated[생명이 부여된]”)+“발생원인(causing)”

단자 “Harasser(To exhaust, 기진맥진한)”

절차	적용				
최초의 정의	to crush(무게다)	with(~으로)	fatigué(cf. 앞의 도표)		
최초의 정의의 아티클레이션의 정의	to make something succumb under a weight(어떤 것을 무게로 굴복시키다)		to knock down someone standing(스탠딩 다운시키다)	by(~으로)	the expenditure of force(힘의 소비)
의미소의 동치	“to overwhelm(압도하다)”	“caused(피발생원인)”	“to overwhelm(압도하다)”	“caused(피발생원인)”	(“process”+“animated”)+“causing”

노트: 프랑스어 일반사전으로부터 직접 인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사형이 아니라 부정사형의 분석을 여기에 제시했다. 분사적 혼합은 중복의미소 “caused(피발생원인)”를 다시 한번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이 간단한 분석은 정의(담화의 중복 동류체를 확립한) 안에서 모든 강류의미소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핵격상의 원소를 발견하도록 허락한다. 전에 연구했던 강류의미소 중의 하나로서 동일한 의미소 “to overwhelm(압도하다)”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그 사실은 아마 우연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면서 나타나는 핵 원소의 발견 바로 그 가능성이다.

일단 절차가 확립되면, 우리는 그 안으로 목록의 새로운 발현을 통합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동일 분석을 추적할 수 있다. 그 표시는 다음 도표처럼 간략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단자	정의		
to be ragged(기진맥진되다)	to wear out[(<i>excéder</i> , 낡게 하다)]	with(~으로)	<i>fatigué</i> (피곤한)
to overwork(과로하다)	to wear out(a horse)... too swiftly or too long(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오랫동안)	with(~으로)	<i>fatigué by making it go...</i> (달리게 해서 피곤한)
to wear out(지쳐버리게 하다, by excess: <i>excéder</i>)	...beyond a limit(한계를 초월하여)		to go...
의미소 동치	to go beyond(a norm, 표준)	“피발생원인(caused)”	“process”+“animation”

노트: 강류의미소 “caused”가 정의 안에서 어휘화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과거분사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분할분석이 새롭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러나 그 양상적(aspectual) 의미소 “to go beyond(a norm, 표준을 초월하다)”는 담화의 아티클레이션의 정교성 안에서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레벨과 관련된 바로 그 목록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것은 어의소의 일반조직 안에 핵격상으로 귀속된 장소를 점령한다.

h. 어의소의 구축

비록 이러한 목록의 분석이 그에게 주어졌던 목표를 위하여 너무 장황하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단자 절차를 예시하고 최초의 어휘소적 목록 안에서 정의의 통합조건을 상술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 같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큰 발현강류가 어떻게 하나의 단순 어의소(우리가 발현어의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축된 어의소라 호칭할 수 있는)에 종속될 수 있는지 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의미론적 개념화 안에서 획득된 방법론적 진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다. “구축된 어의소”의 개념은 착란적인 표출을 보유했을

는지도 모르는 최후의 속박으로부터 내용의 기술을 해방한다. 따라서 진술된 어의소는 어휘적 차폐(遮蔽)와 화맥적 프레임으로부터 독립된 내용의 한 단위이다. 다른 한편, 강류의미소적 범주와 동시에 의미론 레벨의 언어의 이중지위는 우리가 어의소의 개념화로부터 출발할 때 명백하게 나타난다. 한편, 강류의미소적 범주는 의미작용 표출의 결합체적 동류체를 확립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의미세계의 강류의 일반 계열체의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 도표는 구축된 어의소의 내부의 아티클레이션을 보다 더 상술하게 될 것이다.

담화에서 나타나는 방식	구축된 어의소	
	단자	강류의미소적 기초
정의	일반적 원소	특정원소
예: fatigué의 준유의어 목록	“변화과정”+“생명이 부여된”+“피발생원인(caused)”	“깨뜨리다” “비우다” “압도하다” “초월하다(표준을)”

이 도표의 설명은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하도록 허락한다.

1. 불균등의 통사론적 차원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단위 안에서, 정의의 일반적 원소와 동정되고 있는, 즉 일반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단자의 강류의미소적 기초는 위치가 잡혀지며,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진동(振動)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텍스트 분석의 가능성을 걱정 없이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2. 이어서, 구축된 어의소는 발현어의소와 함께 부분적으로만 동정이 된다. 만약 구축된 어의소가 원칙적으로 모든 강류의미소를 자세하게 구명(究明)한다면, 역으로 그것은 최소한의 그러나 충분한 수의 의미소에 의해 안정될 것이며, 동시에 정의의 특별한 원소로 그리고 핵격상의 구성적 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론적 분석이 필연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실체(semiological substance)의 상실이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하고 의미세계의 강류의미소적 조직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세미올로지적인 원소(semiological elements; semiotic이어야 할 것이다. -역주)의 역할은 또한 명확하다. 그들은 강류, 아강(subclass),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어의소적 발현의 종류로 이바지하는 것에 의해 강류의미소적 프레임의 너무 지나치게 큰 보편성을 환원시키는 함수를 소유하고 있다. 만약 전체 핵격상의 고찰로부터 이루어지는 최고도의 종류가 어의소 각각의 단순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제의 새로운 원소는 우리가 고찰하였던 것처럼 핵의 집단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몇몇 단자 또는 몇몇 정의에 공통하는 의미소의 형식 아래 이미 표출되어 있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문체론적 체제의 새로운 분석 형식은 그 다음부터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동류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핵격상의 강류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모른다. 그 순간, 우리 자신을 이러한 방향에서 속박하고 있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축된 어의소 안에서 동일한 역할을 연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핵(첫눈에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의 선택을 정당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명확한 원소의 전체 강류에 단자의 텀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i. 격상의 동형성(isomorphism)

그러한 단자의 텀은 존재한다. 그것은 의미소범주의 일종으로 고찰된 의미소의 특별한 유형이다.

행복감(euphoria) VS 불쾌감(dysphoria)¹¹⁵⁾

115)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op. cit., p. 15. aphia(비사위); 비사위(非斜位)는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의 아티클레이션이 된 방향적 범주(thymic category)의 중립 텀이다. Ibid. p. 109~110. euphoria(eu[horie): 행복감(euphoria)은 방향적 범주의 조정적 텀이며, 그것은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변형시켜 가치론으로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행복감은 불쾌감(dysphoria)과 대당이다. 게다가 방향적 범주는 중립 텀 비감증(aphoria)을 포함한다. Ibid. p. 346. thymic category: 1. 방향적 범주(芳香的 範疇, thymic categorys)는 마음과 의지의 조건(Webster의 The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인 어근 thymia(향 그릇)의 의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명목으로서의 강류의미소적 범주이다. 방향적 범주는 인간이 그 자신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지각에 직접적으로 속박되고 있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갈등(또는 중립) 텀으로서, 그것은 의미론적 우주의 의미소범주의 세트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된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를 계층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범주의 아티클레이션에 종사한다(enter into). 2. 이어서, 방향적 범주는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중립 텀으로서의 비사위(aphoria)와 함께-”의 아티클레이션이 되며, 의미론적 초미우주가 가치론적으로 변형된 그 변형 안에서 근원적인 역할을 연기한다. 행복감, 그리고 그 대

사실, 그것은 그들이 불쾌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오직 단자적인 전승에 의해 정의를 상실하거나 또는 목록화된 어의소의 강류적 동치를 풍성하게 한 “rompre(to break, 깨뜨리다),” “vider(to empty, 비우다),” “to overwhelm(압도하다),” “to go beyond(a norm, 표준을 초월하다)—see. 프랑스어 부사 trop(too, 너무, 지나치게)—”와 같은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원소인 것 같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것이라고, 즉 우리는 이러한 격상의 위치를 정하여 놓은 지각의 레벨에서, 주관적·자기소여적 범주가 지각 스스로 통합된 “주어진 것(given, a priori, 선행)”의 일종으로 그들을 2원화하기 위하여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언급할는지 모른다. 인식론적 성찰(공리)이 무엇이든지 간에, 프랑스 구어로부터 얻어낸 예는, 고구(考究)된 어떤 핵의미소에 매우 가까운데,

팽창된(inflated, gonflé) vs 수축된(deflated, dégonflé)

위와 같은 그 대당은 단순 의미소 불쾌감(dysphoria)이 어의소 “피곤한(tired, fatigué)”으로 표출된 2분법적 성격의 범주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강류의미소적 조정(調停) 때문에 피곤한(tired, fatigué)과는 명료하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 “팽창된(inflated, gonflé) vs 수축된(deflated, dégonflé)”에 따라서 아티클레이션이 된, 두 어의소의 최후의 예를 나타낸다. 초미우주를 의미하는 안정된 조직 안에서 이러한 자기소여적 범주의 망상은 강조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노트: 환위의 단순 절차만을 따르고 있는 분석의 불완전한(incomplete) 성격은 강류의미소적 기초(의미소 “수축된[deflated, dégonflé]”에 의해 유일무이하게 결정된, 그리고 활동의 불쾌한 결과를 추리할 수 있는)가 적절한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기여에 대해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온전함 속에서 어의소 “피곤한(tired, fatigu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충분한가 어떤가 언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3. 동류체 확립의 조건

당관계가 불쾌감을 지시함으로써, 방향적 범주는 의미의 기본구조에 각각의 그 텀의 조정적 또는 부정적 안정책을 야기한다. (역주)

a. 간접적 정의

이제까지 우리의 관심은 비동치 차원의 담화의 시퀀스 사이에서 동치찾기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졌다. 방금 제안된 절차는 의미작용의 동류체적 레벨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에 의해 모든 종류의 “격아강적인” 것과 에두른 말투, 또는 완곡한 표현의 담화 안에서 존재자와 관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확장 따라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정의의 다른 유형은 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확장의 유형은 우리로 하여금 동치확립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할 것이다.

1. 잘 알려진 보쉬에(J. B. Bossuet)의 일람표를 예로 들기로 하자.

That one(자)	and	who reigns in the heavens(하늘에 군림하는) from whom all the kingdoms depends (모든 나라가 의지하는), to whom only glory, majesty, and independence pertain s(오직 영광과 위엄뿐이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the only one (독생자)	is also	who glorifies himself by making the law for kings(왕을 위해 율법을 지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광으로 여기는)
	and	(who glorifies himself) by making them, when it pleases him, great and terrible lessons(위대하고 혹독한 율법의 가르침이 왕들을 기쁘게 할 때, 왕들이 지어진마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광으로 여기는)

이러한 정의(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의이므로)는 신(God)이라고 하는 단자의 형식으로 응축될 수 있다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응축은 기술 이전의 기독교적 또는 군주제적 어떤 문명의, 다시 말해서 “축적된 의미세계”의 지식을 전제했던 범위 안에서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용기술의 전형적인 조건은 그렇지 않으며, 분석의 다른 절차는 정의에 의해 선험적 지식의 조직 형식을 만들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스스로 고찰되고, 선택된 그 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a. 한편으로는 자(that one)와 독생자(the only one)라고 하는 동치의 일반적 추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강류의미소 “행위주(actant)”와 “단일성(unicqueness)”에 등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이러한 정의로부터 형식화된 단자를 위해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b. 다른 한편, 그것은 약간의 자질(資質, 또는 한질(限質), qualification)이 귀속됨으로써 일반적 원소를 야강적인 것으로(specify) 상술하도록 고찰된 일련의 확장 형용어구(epithets)로 구성된다.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단자와 함께 동치를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반면에 강류의미소적 기초는 단순한(또는 거의 단순한) 특정 원소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

2. 두 번째의 예는, 선행하는 의미론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 아래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의 성격을 보다 더 분명하게 기술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크로스워드퍼즐로부터 정의를 도출해내자.

A slip of the tongue bring to a close for him a rather intimate chat.¹¹⁶⁾

(한 번의 혀 놀림이 그로 하여금 보다 친밀한 담소를 중단하게 하다)

사전에 일어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응축하고 있는 단자의 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의와 방법을 분석해 낼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 정의의 형식상의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나타나게 된다.

함수 F: brings to a close(중단시키다)

그리고

세 행위주 $\left\{ \begin{array}{l} X: \text{for him}(tui, 그) \\ Y: \text{a rather intimate chat(보다 친밀한 담소)} \\ Z: \text{a slip of the tongue(한번의 혀놀림; 일격의 발언)} \end{array} \right.$

116) A slip of the tongue: 언어연기 상의 실수. (역주)

a. 정의의 구조적 모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약간 전승시키기로 하자.

단자로 동치를 확립하면서 충전된 일반적 원소는 지시조용적(또는 대응어적, anaphoric)¹¹⁷⁾ "for him"의 형식의 정의로 나타나며, 강류의미소의 "행위주(actant)"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된다. 함수 "brings to a close(중단시키다)"가 의미소 "작위적(factitive)"¹¹⁸⁾을 불러들였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우리

117) 라틴어가 어원으로서, "① 천체의 상승, 떠오름 ② 첫 머리말의 반복 ③ 음악의 악절 반복 ④ 동방전래의 미사 제2부"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②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어 반복인 것이 아니라 대응어가 사용된 반복을 의미.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3. anaphora(지시조용); 1. 지시조용은 담화에 있어서 결합체적 축 상에 확립된 두 용어 사이의 부분적인 동정(identity)의 관계이며, 따라서 두 발화, 두 단락 등을 연결하는 데 기여한다. 2. 지시조용은 어느 자연언어(예를 들어: 대명사, 실행동사) 문법의 명백한(explicit) 프레임의 일부인 의미론적 범주를 동정화(identification)의 증명사(means)로 사용할 때 문법적인 것이 된다고 언급된다. 3. 지시조용은 응축된 텀 또는 명목이 명확한 결합체적 확장을 재 표현할 때 의미론적(좁은 의미에서)이다. 용어법적 관점에서 보면, 편차는 지시조용화된 것(발화에서 그리고 확장에서 첫 번째 위치에 오는 텀)과 지시조용화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응축된 형식 안에 다시 채택된 텀이다. 이러한 동일관계는 그 텀이 담화 안에서 확장되어 존재하고 있는 텀(역행지시조용된 것)보다 선행하면서 재 표현될 때(역행지시조용하고 있는 것) 역행지시조용(cataphora)이라고 일컬어진다. 4. 인식 또는 동정화(identification)에 의해 확립된 동정(identity)은 두 텀 사이의 형식적 지시조용관계이고, 그것들 중의 하나는 나타나거나 실재적이며, 다른 것은 부재 또는 과거 어떤 곳든지 간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인식적 지시조용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5. 지시조용화는 담화적 동류체, 즉, 상호표현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언외화자(enunciator)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역주)

118) *Ibid.*, pp. 115~116. factitiveness(작위); 1. 전통적으로 작위적 양태성은 어떤 "실행원인(causing-to-do)"으로서, 즉 동일 빈사("causing"은 "doing"의 한 유형이다)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체("doing과 다른 것은 does이다")를 가지고 있는 하위계열적 관계 안에서 두 개의 발화("causing" vs "doing")에 의해 구성된 양태구조로서, 임시로 정의된다. 2. 그런 정의는 노골적으로 부적당하다. 양태화된 발화(양태화된 주체로서 "다른 것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doing]")와 양태화하고 있는 발화(양태화하고 있는 주체에 의해 연기된 "존재원인[causing to be]"), 그 두 개의 발화를 계속 고찰하기로 하자. 양태화된 발화는 단순발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언어 연기(other로서의 이러한 주체에 의해 연기된 "causing-to-be")와 언어능력(논리적으로 모든 doing에 의해 전제된, 그리고 자의적이며 양태적인 투자를 담고 있는)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결합체이며, 주체의 화술적 궤도이다. 양태화하고 있는 발화("causing to")에 대해 말하자면, 그 실행(doing)은 다른 실행을 겨냥하지 않지만(적어도 직접적으로), 두 번째 주체의 화술적 궤도의 확립과 결국 그 주체의 언어능력의 확립을 겨냥한다. 간단히 말해서,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무엇을 실행하는," 즉 이러한 "실행(doing)"의 결과로서, 그 양태적인 주체는 하나의 언어능력이 있는 주체로 설치된다. 따라서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의 실행(doing)은 "causing-to-do"이며, 게다가 그것은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 그 자체의 인식적 언어능력(그 언어능력은 결국 양태화된 주체의 언어능력의 내포성 위에 덮치고 있는 지식 안에 존재할 것이다)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언어연기(그러나 사실상 직접적으로 인식적인)이다. 3. 이렇게 해서, 발화된 작위는 두 주체 사이의 계약·응축적 커뮤니케이션(양태적인 투자의 전달을 포함하고 있는)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 현장(locus)을 실행하고 있는 것(관습이 제창하는 것으로서)으로서의 두 발화 간 단

제6장 담화의 동류체

는 가짜 수신자 X를 주체-발신자(subject-sender)로 전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 불완전 발화는 다음을 얻게 된다.

X close Y(X는 Y를 중단시키다)

그러나 다시 함수 X의 전승, 즉 “작위적”으로부터 “비작위적”으로의 전승이 만약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처음에 주체(주사[主辭])로 나타났던 행위주 Z를 보조-환경으로 전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X close Y with the help of Z

(X가 Z의 조력을 받아 Y를 중단시키다)

노트: 이 예에 있어서의 흥미는 전승에 대한 규칙의 형식화를 위하여 스스로 전력투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승된 정의는 간접 정의의 새로운 변이임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불충분한 강류의미소적 기초는 자질로서 여기서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으로 상술된다. 그러나 빈사화(predication)로서 함수역할을 연기한다.

b. 간접적 성격과는 별도로, 제안된 정의는 또 다른 특수성을 나타낸다. 그 변이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소들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일의적 아프리오리를 말한다. X의 발언 없이도, F가 동시에 몇몇 동류체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오리로서의 Y와 Z도 동시에 발견되어 살아남는다. 따라서 “a slip of the tongue”와 “a rather intimate chat”는 확장 속의 단순 결합체이든지, 또는 번역-전격된 단자이든지,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의 정의이든지, 어느 것이든 될 수 있다. 계속해서, “to close(clore)”

순상위계열적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그 자신의 화술적 궤도와 함께 자질이 부여된다. 그것은 작위적 양태성의 문제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것을 위요(圍繞)하는 것처럼 관찰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설득력 있는 실행(doing)과 해석적 실행에 의해 각각 성격이 만들어진 언의발언의 두 영역을 우리가 고려해보도록 요구한다. 양자는 작위적 전달을 위해 필연적이다. 따라서 작위의 발휘(exercise)의 언뜻 보기에 단순한 것 같은 구조(예를 들어, 한 별을 만들고 있는)는 교묘히 다루기의 복합 형태(configuration)로 드러난다. (역주)

는 "to stop(to bring a chat to a close)"이든지, 또는 "to shut(to close one's mouth)" 이든지를 의미한다.

그때 그러한 시퀀스에 대한 독해의 어려움은 두 종류가 있다.

α. 화맥으로서의 그 정의는 동류체적이 아니다. 발화의 구조적 원소의 부재는 변하기 쉬운 것으로 획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수처럼 발화의 안정(rest)을 자명한 것으로 가정하는 어느 한 장소 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중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때 강류의미소의 등록은 불가능하다.

β. 동치를 위한 탐색 안에 질차가 없음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텀 Z가 그 일의성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 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일 것이다.

X closes Y(a rather intimate chat)with the aid of a slip of the tongue

(X는 Y를(친밀한 담소) 중단시키다, 한 번의 혀 놀림으로)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빈술적(predicative)일 것이다. 즉 간접적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Y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은 "rather intimate chat"의 단자의 텀이 "펼치"로 되어있음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X closes the letter with help of a slip of the tongue

(X는 한번의 혀 놀림의 조력으로 편지를 단절시키다)

위의 예문은 아마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노트: 정의의 이러한 유형이 지나치게 특수하고 그다지 폭이 넓지 않은 전형적인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이며, 그것의 크로스워드퍼즐이라는 것에 쉽게 의미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담화의 일반적인 작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과 반대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시적, 신화적, 몽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며, 그리고 다른 초미우주가 그들의 의미작용을 오직 간접적으로만 매우 빈번하게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을 마법으로 쫓아버리는 것보다 어려움(난해함)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을 밝혀내기 위하여, 크로스워드퍼즐 자체는 그에게 보조 작용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독자의 보조자가 된다. 그것은 전지(全知)적 격자(grid, 格子), 다시 말해서 구조적 아프리오리 안의 단자의 텃적 총체(ensemble)의 교차이기 때문에 소위 단자를 재발견하는 문자소의 점진적 발견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임무를 넘겨받는 것에 의존함으로써, 이러한 격자는 시니피앙의 레벨과, 축적된 의미세계와, 시니피에의 레벨과, 전제로 삼았던 보쉬에(J. B. Bossuet)의 글을 독해하는 모든 것과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자는, 그리고 그 점진적인 재구축은 기술절차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반복한다.

b. 세계에 대한 주석

담화의 동류체를 위한 탐색과 관련된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문화적 격자의 필연성은, 간접적 정의와 대비시키려고 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며, 객관적 의미 분석의 바로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후퇴시킨다. 왜냐하면 그러한 격자가, 우리의 지식현상 안에서, 기계분석의 의도가 기술 스스로 대부분 분석자의 주관적 이해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상하는 어려움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누군가(특히 우리는 바힐렐[Yehoshua Bar-Hillel]을 생각하고 있다)¹¹⁹를 포함한 어떤 전문가는 전자메모리 안에 세계에 관한 모든 주석의 등록이 가능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역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도의 박진성(迫眞性, fidelity)의 기계번역-전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결코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문제가 문헌정보언어의 구축 영역에서 부닥치게 된다. 사실, 코요(M. Coyaud)의 문헌정보언어에 관한 최근의 논문은 현재 구축언어 중 가장 우수한 것도 벗어날 수 없는 내부모순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¹²⁰ 그들의 구조는 사실상 서로 각각 차단되어 나타나는, 그리고 두 질차가 정량적인 측면에서 비동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의해 표출된 두 원리에 순응한다. 그 중의 하나가 선택된 세계의 문화적 또는 과학적 격자를 나타내고 있는 선형적

119) Yehoshua Bar-Hill, *Language and Information*(Reading, Mass.: Addison-Wesley, 1964), pt. 3.

120) Maurice Coyaud, 「문헌정보언어연구입문(Introduction à l'étude des langues documentaries)」(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6).

분류법에 메모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상상 속에서(in imagining) 정의, 그보다 더 특별히 간접적인 정의의 통합을 통하여 메모리 스스로가 풍성하게 되는 질차로 존재한다. 그 결과는 거의 항상 개념적 중복, 의미론적 강류의 오버랩, 더 간략히 말해서, 논리적 일관성의 부재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불안전한(defective) 문헌정보언어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담화 자체의 함수의 모드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것은 때로는 동치성의 진술에 의해, 때로는 간접적 접근에 의해 작용한다. 실제로, 만약 어떤 어의소가 그 표현을 변경하는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부가를 용인할 수 있는 의미소적 수집(collection)으로 정의된다면, 그것은 또한 가능한 한정(확정)의 전체성에 의해, 다시 말해서, 그것에 귀속될 수 있는 자질의 총체에 의해서이든지 또는 그것이 허락하는 한정(확정)의 총체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세계의 상징기호적 대상에 관한 주석은 실제적으로 무한하다. 만약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네로에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의 크로스워드퍼즐의 정의는 오직 다수의 형용어구(별명)에 상응할 수 있는 자질 폭군(tyrant)에게로 우리를 되돌려 보내는 것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네로에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 동치의 확립이 가능한 그 보편성의 한계 안에 위치가 잡힌 사건 발생적 정의로 추리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 보편성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네르발(G. de Nerval)의 부호화된 메모리 “포도덩굴이 장미에 뒤엉킨 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것을 위하여 제안된 상징기호적 레벨에서 이러한 정의를 포착하는 것에 의해 구원될 수 있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성격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한 사건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즉 삼위일체의 하나인 그리스도처럼 실체화(hypostasize)될 것이며, 따라서 어느 누가 “하이드 공원에서 오늘 그의 손에 타조 알을 쥐고 산책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리고 900만 명의 런던 사람 중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c. 텍스트의 폐포성

이러한 투시도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계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느 내용 기술도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히 정의 그 스스로(크로스워드퍼즐, 수수께끼 등과 같이 약간 특별하고 형식적인 장르를 제외하고)는 결코 나타나지 않지만,

텍스트 안에 통합된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아마 의외일 것이지만 결코 근거 없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로부터 한 예(위트와 무의식과의 관계)를 든다면 그것은 어려움의 정도와 찾아야만 하는 해법(또는 이산)의 방향추리를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내 줄 것이다.

어떤 말 장사가 손님에게 승마용 말을 팔려고 내놓는다.

“만약 손님이 이 말을 탄다면, 그리고 새벽 4시에 출발한다면, 손님은 아침 6시 반에 프레스버그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먼, 도대체 아침 6시 반 프레스버그에서 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설화 속에서, 거의 융통성이 없는 두 번째 동류체는 융통성이 있는 첫 번째 동류체의 존재를 분명히 전제(이것은 정신적 충격의 바로 그 조건이다)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평균적으로 교양 있는”(리파테르[Michael Riffaterre]) 청자(게임의 형식적 규칙을 받아들이는 한)는 첫 번째 동류체를 포착하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건으로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레스버그가 브라티슬라바의 옛 명목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알거나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다. 한편, 추측된 메시지가 교환될 때 말 장사와 그의 손님의 위치(location)는 절대적으로 그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두 위치를 분리하고 있는 거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그 거리가 길며 그 말은 두 위치를 가로지르고 또 반시간은 틀림없이 빠르다는 것을 즉각 포착한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자연발생적” 지식은 문제의 시퀀스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의 지식으로부터 그에게 획득(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다)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포괄적 화맥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간결한(brief, 무뚝뚝한) 표상으로만 주어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어느 말 장사가 손님에게 승마용 말을 팔려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있어서, 화맥은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의 총계를, 통사론적 문자소(콜론, 또는 근원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초분절 음소)의 이용을, 그리고 높은 가능성을 피력할 것이다.

a. 심층의 메시지

- b. 그 화자는 말 장사가 될 것이다.
- c. 그 주체-물체는 승마용 말이 될 것이다.
- d. 그 속성은 나타나는 발화의 주체에 대한 조정적 성질의 어떤 유형에 귀속될 것이다.

우리는 기대했던 정보가 화맥의 동류체에 의해 예상되었던 대로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승마용 말의 가능한 조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류의 가변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텀 “출발하다(leave)”와 “도착하다(arrive)”의 현존재에 의해 실제로 표출된 것으로서의 메시지는 오직 장소의 예상된 변경만을 말에게 귀속시킨다. 이러한 메시지의 진리(true) 함수는 그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장소의 예상된 변경, 그리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계열체 안에서 스스로 일치할 수 있는 일반 텀의 조력으로 명기하고 오직 선택하면서 존재하며, 끝으로 전체 사건발생의 시퀀스는 오직 다음과 같은 간접적 단자로만 존재한다.

“그 말은 빠르다(The horse is [a] fast [horse])”

이제 우리는 인식의 변화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연역적(어떤 말이 빠르고, 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길다는 것이 틀림없으니까)이라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관련된 사건의 실제적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제 그것은 의미론적 기술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의 방법론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의 하나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짐을 발견한다. 그것은 확실하게 보증된 동류체의 확립으로부터 출발하며, 게다가 가장 진기하고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격상으로 자리가 잡혀질 것이다.

간접적 단자가 비록 관련된 사건일지라도, 따라서 단자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조건에 따라 그들은 비동류체적 시퀀스의 강류의미소적 프레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충분히 밀집하거나 충분히 긴 동류체적 텍스트로 위치가 잡혀질 것이다. 다른 한편, 유셀(Tahsin Yücel)의 연구 논문, 「베르나노스의 몽상(l'Imaginaire de Bernanos)」은 어휘소 “죽음(death)”을 결정하고 있는 형용어구의 수와 따라서 텍스트의 독해가 빠르게 변경되는

것과 일치하며, 그 목록이 급히 최종적으로 닫힌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새로운 작용은 다음처럼 시작할 수 있다. 즉 만약 적어도 동일한 형용어구가 텍스트를 통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들은 안정된 화맥적 환경으로 인하여, 마치 진흙(mud), 권태(boredom), 고독(solidity)과 같은, 새로운 죽음(death)의 단자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따라서 동류체의 확립을 위해 더욱 더 확실한 절차가 점진적으로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동류체적 성격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 폐포하는 경향에 의해 의미세계를 탐구하는데 제공된 가능성은 실어증 환자들의 파롤의 전개와 관계가 있는 뒤부아(Jean Dubois)의 관찰에 의해 확립된다. 낸시 연구소 주최 국제 응용언어학 세미나(1964)에서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 그는 결합체적 다의(多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속된 텍스트의 관찰된 특이성을 주장한다. 확장됨으로써, 텍스트는 더욱 더 과분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를 차츰 줄여나간다. 그러나 선취권이 있는 구조의 중복으로 인하여, 그것은 동시에 자율적 하위 부호를 발전시킨다.

정보의 자세한 구명(究明)에 의한 텍스트의 폐포는 개인 특유의 언어사용적 성격(ideolectical character)을 부여한다. 사실 텍스트 안에 담겨진 단자는 거기에 그리고 그들 자신에 의해 표현된다. 그래서 그 텍스트는 그 스스로 폐포된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구성한다. 담화의 이러한 의미론적 속성(property)은 종결된 텍스트와 폐포된 의미세계 사이의 방정식(equation)의 유형을 확립하면서, 그러면서도 분할적인 기술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유입되는 정보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개시의미세계의 기술을 위한, 정의적 해법(또는 이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d. 개인적 텍스트에서 집합적 발화자료체로

개인 텍스트에 나타나는 개인 특유의 언어사용적 성격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탁월한 사회적 양상을 잇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동차성(homogeneity)을 보증하고 있는 비언어학적 표준에 따르기 위하여 선택된 조건에 따라, 약간의 개인적 텍스트는 발화자료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화자료체는 충분히 동류체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집합적 동류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관념을 소유하기 위하여, 포와티에 대학의 프랑스 공시언어학 전공학생들이 슈타인 투영 테스트(1963, 인격검사의 일종, 단문을 완성하게 하는 테스트)에서 완성된 문장의 서두에 대한 답에 의해 구성된 소규모의 발화자료체를 예로 들기로 하자. 그 귀납적인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나의 운명은...(My fate is...)

그 답, 다시 말해서 운명의 정의적 보완자료는 강류의미소에 따라 분류된다.

$$\begin{array}{c} \text{좋은(10)} \qquad \qquad \qquad \text{vs} \qquad \qquad \qquad \text{나쁜(11)} \\ \text{결정된(9)} \text{ vs } \left\{ \begin{array}{l} \text{결정되거나} \\ \text{결정되지 않거나(4)} \end{array} \right\} \text{ vs } \text{결정되지 않은(9)} \end{array}$$

노트: 남은 답 (7)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 발생적 정의로 나타나든지

공시언어학을 가르치는 것(to teach philology)
프랑스어로 살아있는 것(to live France)

또는 다음과 같이 기묘한 답으로 나타난다.

악마가 되는 것(to be evil)
우문우답으로 배우는 것(to take stupid tests)

이것은 분류하기가 쉬운 것이지만, 표시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옆으로 제쳐놓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15개의 문항으로 된 다른 귀납적 시퀀스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형식화된다.

John은 그의 미래가 ...라고 생각했다(John thought that his future...)

이러한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 쉬운 답을 부여한다.

제6장 담화의 동류체

좋은(12) vs 나쁜(25)
결정된(9) vs 결정되지 않은(6)

노트: 게다가 “결정된”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vs “타인에게 의지하는”으로 더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그 미래가 운명과는 반대로 어느 “기묘한” 답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할 기율이자.

e. 동류체와 변이

우리는 발화자료체의 비언어학적 동차성에 의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대략 50개 정도의 개인적인 답이 집합적 발화자료체로 축적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일종의 피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의 총체이다. 즉 동일한 언어공동체, 동일한 연령층, 그리고 동일한 교양수준, 동일한 피험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이러 언어학적 측면에서, 나중에 모든 답을 축적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과 동류체적 강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의로 그들을 고찰하는 것은, 귀납적 시퀀스 안에서, 단자의 텀(fate 또는 future)으로부터 유리시킨 “미래(future)”와 “판단(judgement),” 그리고 빈사의 텀(is 또는 thinks)이라고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강류의미소 “미래(future)”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된 계열체 “결정된(determined)” vs “결정되지 않은(nondetermined)”에 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강류의미소 “판단(judgement)”은 답 “좋은(good)” vs “나쁜(bad)”을 암시한다.

여기서 고찰된 절차가 단자의 텀으로부터 정의의 텀으로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전에 연구했던 크로스워드퍼즐의 문제를 푸는 절차의 경우에도 알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단자의 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크로스워드퍼즐의 작성자는 동일한 수의 정의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흔히 불가해하다고 하는 “good 또는 bad가 될 수 있는”의 단자의 텀은 크로스워드퍼즐 운명(fate)의 전형적인 정의이다.

이렇게 승인함으로써, 집합적 동류체 내부의 개인적인 변이는 계층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얼마간의 선택을 구성한다.

1. 강류의미소적 기초의 내부에서
 - a. 강류의미소적 범주간의 선택

결정된/결정되지 않은(determined/nondetermined) VS 좋은/나쁜(good/bad)

b. 이미 선택된 범주 내부에서, 아티큘레이션이 된 강류의미소간의 선택

조정적(positive) VS 중립적(neutral) VS 부정적(negative)

2. 이러한 강류의미소 또는 강류의미소의 그룹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구성어소 내부에, 어느 특별한 어의소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쁜(bad)”으로서의 미래(future)를 분류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어의소에 의해 표출될 수 있다.

compromised(더럽혀진)(15인의 답)

spoiled(나빠진)(1)

broken(파괴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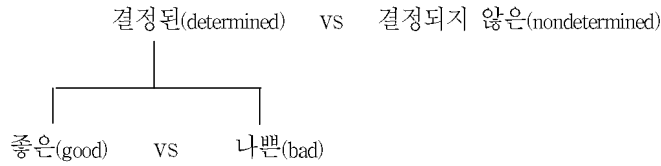
somber(어둡침침한)(1)

joyless(쓸쓸한)(1)

다른 한편, 이러한 예는 발화자료체의 동류체 또는 메시지의 변이(개인적 또는 집합적)가 당면한 절박한 사정이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변이는 우리에게 알려진 의미론적 레벨과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레벨이라고 하는 두 레벨에 최종적으로 위치가 잡혀진다.

1. 의미론적 레벨에서의 변이: 만약 그것이 각각 2개의 강류의미소적 범주에 의해 구성된다면, 즉 의미론적 레벨 내부에서 서로 다른 강류의미소 체계에 속하게 된다면, 강류의미소의 덩어리가 마치 이렇게 명확한 예의 내부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단위의 일반화가 가능한 계층적 강류의미소의 다발로 나타난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좋은(good) 또는 나쁜(bad)”이라고 하는 성질을 예단하는 것은 “결정된(determined) 또는 결정할 수 있는(determinable)”으로 고찰된 한도 내에서일 뿐이다. 따라서 강류의미소의 기초는 마지막에 하위계열적 구조로 나타난다.

제6장 담화의 동류체



이것은 텍스트의 동류체에 의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추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즉 계층적 강류의미소의 기초는 단기 지속성(permanence, 신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류의미소적 범주가 개시적 계열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류체를 파괴하는 대신에 표출단위의 변이를 허락하며, 반대로 그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만든다.

2. 세미올로지적인 레벨(semiological level; semiotic)에서의 변이: 텍스트 안에 유보된 장소에 어느 특별한 어의소가 표출될 가능성은 어느 특별한 의미소의 격상을 제어하는 선택에 의해 조절된다. 우리는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원소의 아종적인 특이성(specificity)이 내용의 동류체적 관점에서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정도(격아강적인 강류로부터 공통의미소를 유리시키며 또 자기 자극에 감응하는 범주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를 또한 보았었다. 그러나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변이는 이러한 어떤 세미올로지적인(semiotic) 또 다른 동류체의 존재자의 문제를 이미 일으키고 있었다.

4. 다의적 담화

a. 복합동류체의 표출

지금까지 우리는 담화의 다양한 왜곡을 통하여 그 표출의 동류체적 측면의 탐구에 전념했다. 이러한 탐구는 어느 정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일의적이거나 단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왕에 소개했던 예를 다시 들어보기로 하자.

서장의 개가 짖는다(The commissioner's dog is barking)

만약 이러한 시퀀스가 등록된 그 내부의 광범위한 화맥이 선언(選言)에 의해 또는 1개나 다른 2개의 제공된 동류체 안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의해 서장의 개가 가지고 있는 “동물” 또는 “인간”의 성격을 항상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제3의 해답 또한 가능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개일까 비서일까 선택할 수 없는 부재가 유지되고 있는 다소간 긴 화술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비록 화술이 의도된 범위 안에, 오직 수사적 절차로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애매성(즉각적으로 고골리[Nikolai Vasilievich Gogol]의 “코”를 생각할 수 있다)¹²¹⁾은 자연언어의 전형적인 함수로서의 특징과 동일하다. 따라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남자는 사자다(That man is a lion)

위의 문장은 사회적 화맥 안에서 일의적으로 존속하며, 사자는 강류의미소 “인간”의 중복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동류체이기 때문에, 오직 “용기”

121) 브리태니커 CD 2000 멀티미디어판(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Nikolay (Vasilyevich) Gogol,” 1809. 3. 31(구력 3. 19)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타바 근처 소로친치~1852. 3. 4(구력 2. 21)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소설가·유머작가·극작가. 초기생애와 작품: 고골리는 다채로운 농민생활과 카자흐 전통, 풍부한 민속문화가 전래되어오던 우크라이나의 시골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소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2세 때 네진의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때부터 이미 풍자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시와 산문을 써서 잡지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 연극에서 우스꽝스러운 노인이나 여자 역을 훌륭히 연기하기도 했다. 1828년 관리가 되려는 꿈을 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으나 돈과 연줄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배우가 되려고도 했으나 채용심사에서 떨어졌다. 이처럼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시인으로 이름을 빛내겠다는 야망으로 고등학교시절에 썼던 평범한 감상적 전원시를 자신의 비용으로 출판했다. 그러나 그 또한 실패하자 시집을 모두 사서 태워버린 뒤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생각했다. 그는 농장을 지당 잡혀서 어머니가 보낸 돈을 갖고 독일의 항구 뤼베크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나 미국에 가지는 못하고 독일을 여행했을 뿐이었고 곧 돈이 떨어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거기에 형편없는 봉급을 받고 관리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도피삼아 가끔씩 글을 써서 신문과 잡지에 보냈다. 기억 속의 화창한 전원풍경과 농부들, 떠들썩한 마을 아이들, 우크라이나 민속에 등장하는 도깨비와 마녀들 및 환상적이고 마력을 지닌 정령(精靈)들을 다룬 이야기를 썼다. 지난날의 낭만적 이야기가 현재 벌어지는 실제 사건들과 한데 어우러지고, 장난스럽고 때로는 악마적인 고골리의 방향이 나타나 있는 8편의 이야기는 1831~1832년에 「디칸카 근교 야화(夜話) Vechera na khutore bliz Dikanki」라는 제목의 2권짜리 단편집으로 나왔다. 간간이 구어체를 섞어 쓴 생생한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에 신선함과 새로움을 더해주었다. 우크라이나 토속어에서 배어나는 풍부한 민속적 정취는 저자의 변덕스러운 억양변화와 더불어 러시아 문단을 사로잡았다. (역주)

의 의미소적 가치를 명시할 뿐이다. 다른 한편, “사자-인간”의 강류의미소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퀀스는 오로지 인간과 사자의 동치를 확립할 것이며, 그 폭이 넓은 화맥은 인간존재를 사자처럼 용맹한 존재에 귀착시키고 있는 의미소적 반복을 명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이가(二價, bivalence)¹²²⁾의 유형은 “고대(archaic)” 사회에서 행해졌던 담화에 적합할 뿐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일상적·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안에 넘쳐흐르고 있는 확산신화(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설득력 있게 논증했던 것과 같은 불규칙 변화 안의[우리는 “스테이크와 프랑스식 튀김”을 먹고 있을 뿐이지만, 동시에 불변화사 “프랑스적인 것”을 흡수 병합한다])는 틀림없이 기본적인 담화와 다른 내용을 소유하고 있다.¹²³⁾ 그러나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존재는 흔히 표출의 다선적(多線的) 특징을 확립한다.

따라서 내용의 분석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존재의 인식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담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동류체적 측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그 이중가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그 이중가치는 담화 안에서 그들이 표출되고 있는 동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강류의미소적 범주의 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평소와 같이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간헐적으로 우리는 강류의미소적 범주(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 양측의)의 복잡한 범주의 표출로 이중가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조정적 텀으로 또 어떤 때는 부정적 텀으로 실현되고 있는 연좌 강류의미소적 범주의 하나 또는 2개의 동류체에 의존하고 있는 자율적 측면을 허락한다. 만약 텍스트의 어떤 유형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형이 복합동류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22) 논리학에서, 이가(二價)의 의미론적 원리는 모든 명제가 두 진리가치(예를 들면, 참 또는 거짓)의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다. 이가의 법칙은 배제된 중명사, 그리고 비-모순이 관련되지만, 논리의 계산법에 귀속하며, 의미론에 귀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 이가의 법칙은 고전논리학과 양립하지만, 직관논리학, 선행논리학, 또는 다중가치논리학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즉, 결정되는 값이 둘인 것을 말한다. (역주)

123) “steak and French fries(스테이크와 프랑스식 튀김), 프랑스적인 것(Frenchness). strong: 강변화의, 불규칙 변화의 의미, strong verbs: 강변화 동사(sing, sang, sung 등). particle: 불변화사(不變化詞), 접두 또는 접미사(un-, out-, -ness, -ship 등). (역주)

b. 문학에서의 상징기호적(symbolic) 양면가치(ambivalence)¹²⁴⁾

정상상태로는 분리된 텀의 이러한 혼합주의적 연언(連言)은 수사적 방법으로 갖추어지고 때로는 특별한 문학 장르의 특징을 만든다. 따라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주장할 때,

an old boudoir with many a faded rose,
where lies the rummage of outmoded clothes,
where pale Bouchers, pastels in plaintive style
breathe the perfume from an uncorked phial.

시든 장미꽃들 가득 차고 낡은 규방
유행 지난 니부렁이들만 흩어져 뒤죽박죽
애처로운 파스텔 그림과 바랜 부세 그림들만이
마개 빠진 향수병 냄새를 맡고 있는 곳¹²⁵⁾

그는 아래와 같은 강류의미소적 범주의 두 텀을 동치로 성립시킴으로써 사물을 혼란시킨다.

외부의(내용) vs 내부의(내용)

그러한 가정 뒤에 펼쳐지게 될 담화는 2원적 동류체가 될 것이며, 독자는 처음부터 세트에 되어 있는 제2의 동류체, 다시 말해서 시인의 내부공간을 전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의미소를 규방(boudoir)의 “물질적(physical)” 기술로부터 다소간 의식적으로 추출해내려고 할 것이다.

124) 양의성(兩義性), 애증 따위의 반대 감정 병존, 상반되는 감정의 교차, 양면 가치. 양면수가(兩面數價). (역주)

125) Charles Baudelaire, “우울(Sleepin).” C. F. MacIntyre 번역,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서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 17.

…un vieux boudoir plein de roses fanées,
Où gît tout un fouillis de modes surannées,
Où les pastels plaintifs et les pâles Boucher,
Seuls, respirent l’odeur d’un flacon déébouché
(Les Fleurs du mal, Spleen)

운문이나 산문이든지 좀 더 긴 설화이든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것은 현대문학의 신화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 비니(A. de Vigny)¹²⁶의 “성 모세(Moïse)”라든지, 카뮈(Albert Camus)의 “페스트(La Pest)”와도 관련되며, 화술의 어떤 특권적 장소에서의 이중가치적 아티클레이션인 그 복합의 출현은 몇몇 동류체적 레벨에 동시에 위치가 잡혀진 독해법을 야기시킨다.

언어학적으로 더 이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 관해 한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심바(Simba)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전사가 사자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정신병환자가 나폴레옹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규방에 있거나, 랭보(Arthur Rimbaud)가 술 취한 배(bateau ivre)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듯하다. 그 복합동류체의 자의적으로 짜인 조직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화로 뒤덮인 담화의 무의식적 작용과 대비되거나, 숨겨진 동류체의 배일을 벗김으로써 심미적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함수로 충전된 의식적 게임으로서의 문학을 상상하기 쉽다. 어떤 문학 장르, 어떤 “글쓰기”이든지 간에, 확장된 역사적 단계를 떠맡고 있거나, 그러한 해석을 그들 스스로 쉽게 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 동류체적 독해의 열쇠가 강류의미소적 범주의 복합 아티클레이션의 확고한 형식에 의해 명확하게 추리된 최후의 사실마저도, 새로운 동류체의 선상에 나타나는 따라서 독자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식적 제어를 벗어날 수 없는 의외의 구성의미소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식별을 초월한, 시적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착된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c. 동류체와 그 독해

담화의 복합동류체는 화자의 의식적 제2차의 개념에 기인하든지, 또는 그의 지식(knowledge)이 표출의 바로 그 구조에 대하여 아무 것으로나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배치되든지 한다. 반대로, 중첩된 동류체 측면의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로서의 존재자는 사용된 인위적 확장과정 때문에, 그와 같은

126) 김봉구 외, 「새로운 프랑스 문학사」(서울: 일조각, 1983), pp. 226~230. Alfred de Vigny(1797~1863), “...자기의 심정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사상마저 감정으로 변형하는 다른 낭만파 시인과는 달리, 비니는 사상가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낭만주의 시인으로, 일 반적 형식을 통해 지극히 개성적인 감수성을 살리면서 상징적 시를 창조했다...” 이하 참조. (역주)

언어학적 현상(phenomena)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력을 줄 수 있다.

심층 심리학을 추구하고 있는 프로이트적 정신분석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메시지의 전송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있다. 그 중의 하나는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잠재한다. 이러한 구별은 그 작용 안에서 파악된 담화와 관련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근거가 확실한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모든 것은 화자가 메시지의 수신자와 동시에 있다고 하는 조건상의 담화로 표출된다. 다른 한편, 담화가 부호화 되고, 그 부호를 푸는 작용이 전적으로 청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잠재하고 내재적으로 언급한다.

만약 언어의 전통적인 이해를 단념하고 성취된 부호가 화자와 그의 청자에 공통된 것으로 고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할 것이며, 매우 좋은 조건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렵고 불충분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몽상가는 그 자신의 꿈꾸는 것 같은 담화를 풀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자의 잠재적 측면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적어도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언어이론입문(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을 계속 추적해서 읽는 가운데 마주치게 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인식할 것인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작용의 제2의 신비적 해석 차원을 그의 논문 안에 삽입하고자 했던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지 간에, 주된 어려움은 텍스트의 동류체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담화의 두 동류체간의 대당을 용어법적 강조에 의해 보다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텍스트와 메타텍스트의 용어는 표출측면과 잠재측면의 이것들보다 덜 타협적일 것이다. 텍스트와 메타텍스트의 이러한 편차는 오로지 작용적이거나 적어도 처음부터 아주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보통수준”의 식별에 의지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은 텍스트는 동시에 독해가 가능하거나 부조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괴한 몽상가에게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메타텍스트는 독해가 불가능한 채 존속하지만

분석적 독자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는 다음처럼 독해가 가능하면서 부조리하다(readable and absurd).

The black sun of melancholy(우울의 검은 태양)

—네르발(Gérard de Nerval)의 “폐적자(廢癡者)”

반대로 그 분신(메타텍스트)은 독해가 불가능하면서 분명하다(unreadable and clear). 그 편차의 작용적 성격은 정의적 텀을 필연적으로 전도시키게 될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 신비주의자, 연금술사, 또는 어느 다른 비법전수자가 논리적인 독자를 대신하자마자 즉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담화의 잠재와 표출 측면의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의를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를 관측할 수 있다. 그것은 텍스트의 속성을 표명하는 기본으로 선택된 해독자의 개성(personality, 그것은 개인적 가변성이다)이며 그 존재자는 언어학적이기 때문에 외적 대상(objective)이다.

담화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 메타텍스트는 우리가 강류의미소적 범주의 복합 텀의 표출에 의해 이중 동류체를 정의하기로 제안하고 있는 담화의 구조적 속성을 스스로 설명하려는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복합동류체는 담화가 가능한 강류의 변별적·형식적 표현이다. 특별히 채택되고 분석된 각각의 발생담화는 그것을 특징짓고 있는 복합 텀의 의미소적 내용을 밝혀줄 것이며, 따라서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난 2개의 동류체를 정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서장의 개의 예문에서, 분명하게 사용된 강류의미소 “동물”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조정적 동류체가 스스로 텍스트에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을 확립할 것이다. 반면에 강류의미소 “인간”은 메타텍스트 안에 명확하게 나타난 부정적 동류체를 확립할 것이다. 그들은 각각 주어진 상태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텍스트의 두 개념과 메타텍스트는 독단적인 것을 중지할 것이다. 즉 독자의 주관적 식별에 종속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확성은 담화 안에서 복합동류체적 현존재의 서로 다른 모드의 언어학적 정의를 암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우리는 기초언어학 체계의 개념을 형식화하고 있는 브뢴달(Vigo Brøndal)이 포괄적인 아티큘레이션 안에서 하나 또는 2개의 텀의 딸림음 같은 지배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 복

합 텀, 2개의 다른 단자, 조정적 복합과 부정적 복합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¹²⁷⁾

의미론 연구의 현 상태에서, 충분히 확립된 것으로 고찰 될 수 있는 기본 구조(조정적 텀과 부정적 텀)의 상보적 아티클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언급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 그들의 통합은 라캉(Jacques Lacan) 박사에 의해 사용된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¹²⁸⁾로서의 언어학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는 확장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 것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트: 라캉(Jacques Lacan)은 새로운 레벨에 헤겔(G. W. F. Hege)의 해체(Aufhebung), 다시 말해서 변증법적 기초로서의 들어올림(lifting 또는 raising)으로 번역하고 있는 용어 경상도야(assumption[주도면밀한 의미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들어올림은 초월된 대상 또는 개념을 모두 상실하지 못한다. 같은 방식으로,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그레마스(A. J. Greimas)의 복합동류체 안의 조정적 텀으로서의 “경상도야(assumption)”는 부정적 텀의 약간 “분할적인(partial)” 의미를 아직 존속시키고 있다. 라캉(Jacques Lacan)은 시니피앙의 레벨에 들어올림의 의미를 의미하는 경상도야로 사용하며, 그리고 화자와 청자에 의해 경상도야의 동류체를 검토하면서, 그레마스(A. J. Greimas)는 라캉(Jacques Lacan)을 따르고 있다.¹²⁹⁾

따라서 브뤼달적인 개념은 담화 안에서 복합동류체의 세 가지 작용 모드를 구조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1. 복합 텀을 구성하고 있는 두 텀은 균형적이다. 화자와 그의 동반자는 이러한 경우에 2개의 동류체를 사실이라고 생각한다(assume). 전사 심바(Simba)를 다시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27) Vigo Brøndal, “Structure et variabilité des systèmes morphologiques,” 「일반언어학사론(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17.

128)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운동. 나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급전환하고 있는 어느 상징적 모체를 벌레적 상황 안에서 명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나는 타자와 동정(同定)되는 그 변증법 안에서 자신을 객관화하기도 하고, 언어활동이 나에게 그 주체적 기능을 보편성 안에서 되찾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다. (역주).

129) Jacques Lacan의 조정적과 부정적 복합에 대해서는 J. B. Pontalis · Jean Laplace 저, Donald Nicholson-Smith 역, 「언어의 정신분석(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New York: Norton, 1973), pp. 282~283을 보라.

제6장 담화의 동류체

$$\frac{\text{인간}}{\text{사자}} \simeq \frac{\text{조정적(措定的)}}{\text{부정적}}$$

이것은 균형 안에서 복합동류체이다.

2. 복합동류체의 조정적 텀이 지배적인 경우: 담화 안에서 두 참여자는 조정적 동류체를 완전히 그리고 부정적 텀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frac{\text{Rimbaud}}{\text{drunken boat}} \simeq \frac{\text{조정적}}{\text{부정적}}$$

이 경우에 복합동류체는 조정적이다.

3. 동류체의 부정적 텀이 지배적인 경우: 화자는 부정적 텀을 완전히 그리고 조정적 텀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가 상들리에라고 생각하고 있는 뒤퐁(Dupont) 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frac{\text{Mr. Dupont}}{\text{상들리에}} \simeq \frac{\text{조정적}}{\text{부정적}}$$

복합동류체는 부정적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노트: 텀 “조정적”과 “부정적”은 가치판단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오히려 가치판단을 전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브뢴달(Vigo Brøndal)의 저서에 약간이라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집합적 심성의 표상으로 고찰한 자연언어의 유형학의 확립 속에서 이러한 기본구조(그러나 언어학적 체계의 레벨에서 그에 의해 포착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의 레벨에서 이 순간에 암시된 것으로서)에 귀속된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이라고 불리어진 언어는 복합구조의 빈번한 사용에 의해 그 자신의 특징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문명의 진보는 논리적 2원구조의 이러한 복합구조의 변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특징의 조력으로 전체 언어학적 공통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체하며 속이고 있는 해석을 극히 단순하거나 과장된 것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자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상부구조는 역사적 화맥의 도입에 의해 확립될 수 있을 뿐이다. 일정한 집단 메타언어는 그들이 복합구조(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증명된 동시발생의 대당 또는 중재구조)를 인정하는 편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¹³⁰⁾ 그러나 무작위로 선택된 약간수의 프랑스어의 의미소적 격상의 분석은 그러한 복합구조가 어떤 의미세계(예: 동시대적·다변적 논리학)로 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으며, 특별한 언어학적 공통성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 그 개척방법만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담화의 그 단순 또는 복합적 성격은 개인적 변화에 의지한다. 화자의 관점에서, 담화의 다소간 중요한 동류체적 복잡성은 화자의 개성적 언어구조의 함수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 감수성의 문제는, 즉 두 메시지의 동시적 부호풀기의 능력은 찢절매게 될 수 있다. 개인적 경험(필자는 옛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가 뇌출혈로 인하여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동안 두 번째 동류체의 형식에 표시된 시적 의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비극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메타텍스트라고 하는 존재의 예리한 의식은 포착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은 신경언어학적 연구가 이중동류체적 커뮤니케이션의 존재자를 확립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들의 연언(連言) 또는 선언(選言)의 조건이 좀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명백히 심어주어야만 할 것이다.

노트: 1. 구조미론의 영역자들은 Jacques Lacan의 용어와 함께 시중일관 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Robert Con Davis에게 감사한다. Werner Marx, 장춘익 역,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과 '서론'에 나타난 《정신현상학》의 이념 규정」(서울: 서광사, 1984), pp. 70~73. “...그런데 헤겔이 오성적·자연적 의식과 學에 공통적인 이 ‘지반’을 ‘반성(Reflexion)’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반성,’ 그러니까 ‘반전(反轉: Zurücktückbeugung)’은 심리학, 논리학, 물리학 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략... 정신현상학에서의 반성은 데카르트적 의미에서의 자기의식의 구조를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의식의 구조는, 앞에 놓인 ‘주어진’ 대상, 즉 객관이 주관에 의해 ‘표상’되는 운동의 구조이다.” 그리고 pp. 32~34. “한 시대의 자연적인 의식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 의식의 도야(陶冶, Bildung)이다. ... (중략) ... 흡수(Insichzehren)란 말이 의식이 자신의 도야 과정을 끝내고 나면 자신을 규정하던 모든 형태들을 사상(捨象)하고 자신의 순수한 자아로 복귀한다던가, 혹은 실천적 행위를 통해 대상성의 영역을 순수 자아 내지 이성에

130) Claude Lévi-Strauss 저, Monique Layton 역, “구조와 형식: Vladimire Propp의 저서상의 반성(Reflections),” 「구조인류학(Structural Anthropology)」, vol. 2(New York: Basic Books, 1976), p. 142.

합치시킨다는 식의 의미에서의, 자연성의 해소(Aufzehren)라는 뜻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중략)... 도야란, 의식이 대상성 내지 객관성의 영역의 것-그것이 자연이든 제도이든, 한 민족 혹은 한 시대의 사고방식이든 간에-의 이성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한 객관성과 자기 자신의 합치성을 깨닫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연성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다.”

2. 브리태니커 CD 2000 멀티미디어판(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assumption”: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 승천했다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교리. 이 교리의 타당성과 예수의 승천에 관련된 이미지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여러 본문이 자주 인용되었지만 「신약성서」에는 성모승천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없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마리아의 구원이 그녀의 인격의 완전성을 내포하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도 그런 상태가 약속되었음을 예시한 것이다. 이 교리의 발전은 그녀를 일반적으로 기념하는 것에서 그녀의 죽음을 기념하는 축일(8월 15일)로 변한 마리아 봉헌 축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된 이 축일은 서방에 전파되어, 마리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성모승천축일로 명목이 바뀌었다. 동방에서는 마리아의 죽음이 성화(聖畵)의 흔한 주제가 되었지만 성모승천이라는 주제는 그리 일반적이지 못했다. 성모승천에 대한 외경(外經)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이 교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피우스 12세는 이 교리를 사도현장 「무한하신 하느님 Munificentissimus Deus」에서 가톨릭 교리로 선포했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계시된 교리로 보지 않으며, 개신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이 교리를 에큐메니컬 대화의 장애로 여기고 있다. 성모승천은 중세 후기에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 예술의 주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봉헌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였다. 13세기부터 성모승천은 교회장식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에는 제단 위쪽의 장식에 흔히 사용되는 주제가 되었다. 성모승천을 주제로 한 성화를 보면, 대체로 기도하는 자세로 천사에 받아들여져서 무덤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성모의 모습과 놀란 채 이것을 바라보며 그 주위에서 서 있는 사도들이 그려져 있다. 15세기말까지는 만돌라 또는 아몬드 모양의 후광이 그려져 있었고, 16세기에는 만돌라가 구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7세기말 성모승천 성화가 점차 사라지기까지 그 기본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3. 정미라, 헤겔의 정신 철학에 있어서 형성(Bildung)의 개념, “형성, 교양 혹은 도야로 번역될 수 있는 독일어의 Bildung은 근대의 지배적인 정신적 사조였던 계몽주의 이래 인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근대적 사유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주체성의 개념이나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에 내재해 있는 형성 능력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은 근대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이러한 형성 개념을 자신의 완결된 철학 체계 속에서 실천철학을 서술한 정신 철학의 중심 요소로, 즉 자유를 자신의 본질로 삼는 정신의 중심 요소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타재 속에 외화하고 이러한 외화 된 타재로부터 자신으로 복귀하는 정신의 운동 원리인 형성은 헤겔에 의하면 대립된 것들, 즉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그리고 자연과 이성을 매개하는 궁극적 원리이다. 형성 운동은 근원적인 자아의 통일을 해체시킴으로써 자아를 타자, 즉 객관, 혹은 세계 속에 정립시킨다. 형성은 이를 통해 자신과 세계의 새로운 탄생과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헤겔에게 있어 정신은 이러한 형성 과정을 토대로 하며 “타재 속에서 자신 곁에 있음(Beisehsein im Anderen)”으로 표현되는 자유의 이념은 정신의 본질로서 형성 운동을 통한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의 참된 통일을 의미한다.” 이하의 논문을 모두 참조하라. — (http://cafe.naver.com/modernt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9) (역주)

제7장 의미세계의 조직

1. 의미작용의 내제세계

a. 인식론적 이중접근

모든 기술의, 그리고 향차 모든 의미론 구축의 메타언어학적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우리는 먼저 의미작용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원소)를 구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소수의 기본개념을 끌어모으려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표출과 내재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보다 넓은 단위를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정의의 제안에 의해 원소의 조정을 관측하려고 했다.

이제 우리는 반성(reflections)의 새로운 상(相, phase)¹³¹⁾에 도달하고 있다. 그 원소와 함께 시작하는 의미작용의 영역을 탐구한 후에, 우리는 이때 아티클 레이선과 이러한 의미세계의 기본적인 편차와 함께 동연(同延)적 개념의 확립을 시도하기 위하여 그 총체 안에서 의미세계를 고찰하는 것에 의해 대당(對當)의 투시도법(opposite perspective)으로 그것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할하는 이러한 2개의 계기절차는 내용의 언어학적 기술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현재로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망의 투영일 뿐이다. 흔히 가인명제를 증명하거나 무효화하는 분할적인 분석은 아직 결핍상태이다.

131) 상(相, phase): 물리학·화학 용어로, 어떤 물질이 어느 부분에서건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를 표현하는 것이다.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이 존재하고,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균일계와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로 나뉜다. 어떤 물질의 어느 부분을 취해도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 그 물질은 하나의 상을 이룬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공기는 질소·산소 및 그밖의 기체의 혼합물이나, 혼합은 완전하고 또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체의 상이므로 기체상(氣體相)이라 한다. 식염수는 식염이 물에 녹은 것인데, 역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액체의 상이므로 액체상(液體相)이라고 한다. 물의 결정인 얼음도 하나의 상을 이루는데, 고체의 상이므로 고체상(固體相)이라고 한다. 또 상은 균일계(均一系)와 불균일계로 나뉜다. 즉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균일계,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불균일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식염수는 균일계이나, 물과 기름을 잘 섞어서 방치하면, 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기름이 약간 섞인 물과, 물이 약간 섞인 기름의 2개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가 된다. 불균일계는 어떤 상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는데, 기체상과 액체상, 액체상과 고체상, 또는 이 세 가지 상이 모두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물과 수증기, 물과 얼음 등이 공존할 때도 불균일계이다. 균일계를 단상계(單相系), 불균일계를 다상계(多相系)라고도 한다. (역주)

b. 귀납과 연역

우리가 제안했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투시도법으로 재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첫 번째 이분법은 언어의 두 기본레벨이다. 사실 우리는 핵의미소와 어의소라고 하는, 세미올로지의 레벨(semiological level)과 의미론의 레벨(semantic level)이라고 하는, 언어의 두 자의적 레벨로 귀착하는 의미소의 두 유형을 식별했었다. 이미 그 방법으로 시도했던 어떤 이론적 접근 대신에, 이러한 편차는 귀납적 성격의 부연(敷衍) 상에 아직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는 담화 안에서 그들의 표출 모드에 의해 핵의미소와 강류의미소를 정의했었다. 핵의미소는 담화 안에서 의미소 격상을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 그들은 어휘소라고 호칭되는 통사론적 단위 안에서 발견된다. 차원적으로 다른, 그리고 계층적으로 편차가 있는, 그러면서도 담화의 시퀀스에 적합할 수 있는 2개의 질차는 의미소의 이러한 두 유형의 추출을 위해 예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정의는 타당한 반면에,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먼저 그것은 표출 모드에 의해 표출되는 것에 선행하는 것을 정의한다. 그때 그것이 귀납적인 성격을 지키고 있는 한,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분할적인 기술의 불확실성을 면할 수 없다. 즉 핵의미소와 강류의미소의 표출결합으로 어의소를 정의할 수 있고, 세미올로지와 의미론이라고 하는 언어의 두 레벨의 화해(reunion; 재결합)로 표출을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정의 안에서 어떤 거절도 없이 언어의 인식론적 측면 상에 구축범주를 기꺼이 안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제안된 구성의 기본을 그들의 선행적 성격으로 보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언어의 편차가 있는 두 레벨의 존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기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세미올로지의(semiological) VS 의미론의(semantic)

그래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의 레벨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표현된 내재와 표출 사이의 대당을 랑가주(language) 개념의 기본이라고 스스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의 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기본적인 편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재체계로 그리고 표출과정으로 파악된 언어로 고찰된 랑그(langue) 사이의 편의적 편차를 주장했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언어의 의미론의 일반 조직 안에서 이러한 대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를 아종으로 상술하여야만 한다.

모든 우리의 이론적 반성의 중심에는 의미작용의 최소단위로부터 시작하는 중심 가언이 존재하며, 우리는 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큰 의미작용의 총체를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조직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소(eme)라고 불렀던 이러한 최소단위 그 자신의 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의미작용구조의 일부분인 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만 상상되고 기술될 수 있다.

지각 안에 의미소가 위치함으로써, 의미작용이 구축된 한 장소 안에서, 우리는 두 의미총체 안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존재자를 수용했던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사실 의미소는 의미소범주 안에서 선언(選言)에 의해 긍정되고(affirmed), 우리가 의미소 격상과 기초라고 불렀던 의미소의 무리 안에서 다른 의미소와 함께 접합에 의해 확립된다.

그때 의미소는 두 의미세계 상에서 동시에 의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재세계와 표출세계로 작용적인 추리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2개의 다른 의미작용의 존재자모드일 뿐이다. 의미작용은 먼저 선언(選言) 구조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존재(내관, being)의 조건상에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 우리는 그것이 표현된 한도에서만 의미작용에 대해 무엇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세계(내재와 표출된) 사이의 관계는 상호전제관계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의미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구축하며, 용어 랑가주(langage)를 의심 없이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은 철학과 문학 안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시적(preliminary) 편차는 이제 의미세계를 보다 더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며, 거기서 새로운 정의적 원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c. 내재세계의 경험적 접근

우리는 의미소가 의미소범주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로 조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 확장(外延, extent)에서만 의미작

용의 원소로 고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의미소범주가 총체를 구성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했던 레벨의 개념은 이러한 총체의 2원적 분류(dichotomous division)¹³²⁾를 2개의 하위총체로 증명하고, 각각 세미올로지의(semiological) 레벨과 의미론의(semantic) 레벨이라고 추리했다.

용어 총체(ensemble)는 하여간 구속되지 않으며,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립할 뿐이다. 사실 의미소범주가 의미소체계 안에 조직된 모든 것인지, 의미소체계가 목류(예를 들어, 후각의, 촉각의, 그리고 다른 세미올로지 레벨의 분류) 관계와 동연(同延)인지, 또는 결과적으로 그 목류가 체계의 체계(우리가 의미소 목류를 체계의 총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세미올로지의 레벨이 의미소 목류의 총체에 의해 구축된)를 구축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추리함으로써, 이러한 용어 목류(order)와 레벨 때문에, 그 총체 안의 계층적 단계를 우리는 위치가 잡힌 의미소체계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내재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적조직 레벨의 순간적·실제적 해결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언어학 서클로부터 이제 이득이 될 것 같은 총체의 개념을 향해 언어학자들이 애정을 갖게 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작용적인 가치를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석의 전체절차 안에서 순간적 형식화의 성격을 강조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목록의 개념(그것은 총체의 용어법적 변이일 뿐이다)이 우리가 체계(또는 몇몇 체계)로 환원되기 전에 분석을 피하려고 하는 강류의 한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기술의 최종논쟁(ultima ratio)으로 고찰된 구축이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위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것이 사회학 안에서 체계적이라고 하는 추상적 구조와 때때로 쉽게 대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 체계와 형태소

구조의 바로 그 개념이 고전적 논리학의 각각 분리된 텀, 즉 분류와 분할법(division and partition, 동식물 분류법을 원용한 어휘 분류법·어휘장의 분류와 그 분할)을 재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 정교화 된 레벨에서, 우리는 그 인식론적 측면의 그 문제를 똑같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구조는 의미소로 분할할

¹³²⁾ division; 門(동식물 분류법 상의). (역주)

수 있는 축으로 고찰된 전체성이다. 그 내부조직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관계는 반의적(antonymic, antonymique, 연언[連言]과 선언의 관계)이거나, 하위개념적(hyponymic, hyponymique)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다른 범주적 원소를 연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하위계열적(hypotactic)”인 하위개념적 성격의 관계로 추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언은 그 관계가 체계와 형태소라고 하는 구조의 두 유형을 구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 첫째는 공통의 전체 축으로부터 이행되고 있는 아티클레이션(의미작용의 동차적 원소만 이용하는)에 의해 구축되며, 의미소범주는 그 자체의 의미소와 함께 상위개념적 관계로 그리고 의미소의 하나를 구축하고 있는 계층적으로 상위 범주와 함께 하위개념적 관계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보증된 공통의 전체 축과 하위개념적 조직만의 의미작용의 원소로 구축된다. 그러나 그 원소는 체계 또는 동차적인 목록 어느 것이든지에 속한다. 첫 번째의 경우에, 그것은 축으로 고찰된 전체성의 문류(門類, division)¹³³ 문제이며, 두 번째는 동일한 전체성의 분할법(partition)의 문제이다.

내재와 표출에 관해 심사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의미소가 체계적 구조와 형태소적 구조라고 하는 2개의 다른 구조와 즉각 관계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노트: 체계의 성격이 내재적이라고 격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비록 그것이 매우 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표출은 항상 형태소적이다. 즉 발화 속의 행위주의 구조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형태소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구조적인 것의 투기(구체화)이다. 그리고 역으로, 예를 들어(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와 비교하라), 형태소로서의 동체(body)의 빈번한 분류법적 사용은 하나의 내재적인 모델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¹³⁴

13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93. division(문);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용어 문(門)을 변화과정, 즉 기호학적(semiotic) 체계의 결합체적인 차원(syntagmatic dimension)의 분석을 추리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문은 아티클레이션(분석체계를 뒤엎은 용어)이 만들어지는 것과 대당관계가 된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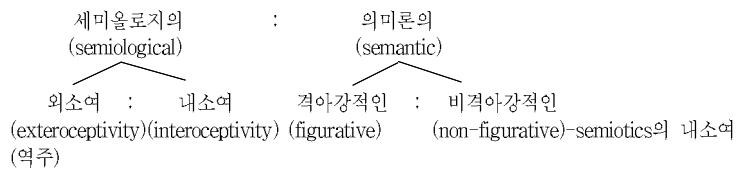
134) Claude Lévi-Strauss, *The Savage Mind*, chap. 5.

제7장 의미세계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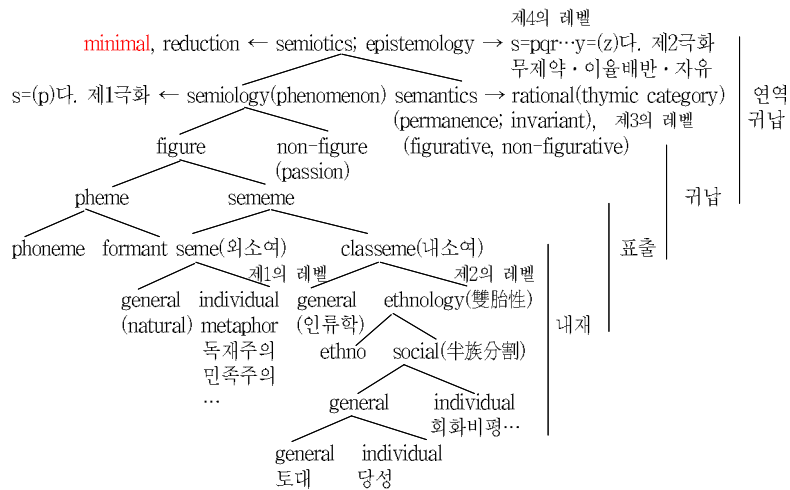
이러한 관찰은 내재적인 세계의 구성레벨의 정의를 다르게 어떤 무엇으로 형식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즉 그들의 구조적 조직이 보다 더 잘 알려질 때까지, 그들은 형태소적 구조로 고찰되고, 의미소범주와 체계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재적인 세계는 2개의 레벨(세미올로지의 그리고 의미론의)로 나뉘게 되고 총체성 안의 각각의 레벨을 정의하고 있는 그 구성적 축은 아티클레이션이 된 메타의미소범주의 두 팀의 하나와 동정이 된다.

외소여(外所與, exteroceptivity) vs 내소여(內所與, interoceptivity)

노트: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외소여(ext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팀으로서,



A. J. Greimas · J. Courtés는 위와 같이 제약의 세계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urative, non-figurative”는 보다 상위의 인식론 차원의 무제약의 세계이다. (역주)



*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2. 의미작용의 표출세계

a. 내용

그것은 우리가 형식과 내용의 실제 사이의 엘름슬레우적 구별을 제공했던 세미올로지의 레벨과 의미론의 레벨의 대당을 적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도했었다), 반면에 상대적 성격,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작용적 성격을 깨닫게 하고 있다. 우리들 스스로 인식론적 측면에 정위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인간정신의 범주의 소수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의미작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외부세계의 지각원소가 덧붙여진 장면의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의 개념”은 기술언어의 구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미올로지와 의미론의 내재적인 레벨의 만남이 것처럼 내용의 표출을 구성한다고 언급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완성된 표출을 위하여, 도착된 두 단계, 실제화된 두 조건이 필요하다.

1. 두 레벨의 만남이 필요한데, 즉 그 관계는 서로 다른 레벨에 속하는, 따라서 이질적 원소의 결합을 생산하는 최소의 의미소 간에 확립된다. 우리는 표출 텀이, 따라서 의미를 한정하고 있는 접합을 준비해 둔다.

2. 내용의 결합, 따라서 거기서 발견된 표현측면의 획득된 재 접합, 병치와 동일구조가 아닌, 그와 같은 언어학적 표출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의미효과의 연속처럼 나타나는 내용을 만들고 있는 담화형식 안에서의 의미작용의 표출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노트: 그것은 음소의 생리학적 실현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의미의 청각적 효과가 없는 것을 생산하는 형식과 표현의 실제의 접합으로 고찰할 수 있는, 표현측면의 병치기술이 내부언어의 더 나위없는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작용의 표출을 위하여 필요한 2개의 조건을 분리해서 고찰하게 된다.

1.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달성된 것으로 고찰된 내용과 표현 측면의 동시에 발생하는 아티큘레이션은 이론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때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나온 의미론의 목류를 위하여 추론총체(ensemble of inference)의 고찰을 유예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 이질의미의 결합으로 정의된 표출은 내재의미의 관계의 좀 더 많은 일반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a. 그것은 세미올로지의 레벨과 의미론의 레벨의 만남에 의해 내용의 표출을 확립하고 있는 관계가 상호전제의 관계라고 하는 통상적인 고찰로 나타난다. 사실, 그 문제는 어휘화된 관계의 존재자에 의해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은 마치 영어 접속(and, or)의 형식 또는 관계부사(more or less)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데, 그것에 우리는 모든 강류의미소(접속, 실사 등등)의 또는 강류의미소 집단의 사실화된 또는 가능한 어휘화를 추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메타의미소(metasemes) 또는 강류의미소의 표출은 세미올로지적 원소의 현존재를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표출 단위(이질적 레벨의 의미소의 접합에 의해 생산된 어의소, 그리고 강류의미소의 결합으로만 나타나는 메타어의소[metasememes])의 두 종류의 존재자를 어쩔 수 없이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어의소의 두 구조적 유형의 인식은 표출과정에서 핵의미소와 강류의미소의 가정적 상호전제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여야만 한다. 사실 그 어의소는 논리학자들의 대상언어와 동정할 수 있는 표출의 기본적인 측면을 구성한다. 역으로 그들은 동시에 세미올로지의 레벨을 가정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때 우리는 의미론의 레벨과 세미올로지의 레벨 간 표출의 순간에 확립된 관계가 의미작용의 기본적인 측면의 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상호전제의 관계라고 언급할 것이다. 그들이 기본적인 측면의 존재자를 전제하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나온 두 번째 측면은 강류의미소적 결합만을 표현하고 있는 단위를 가질 수 있다.

b. 동일 내재레벨에 속해 있는 의미소들 사이의 자연적 관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바라볼 때, 그것은 오직 하위계열적 관계가 어의소의 내부조직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분할적인 분석은 그것을 증명했다). 사실, 우리

가 보았던 것처럼, 동시발생의 연언(連言)관계는 어의소와 어의소의 강류 간 총체적 또는 분할적인 동치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명시되며,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함수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선언(選言)관계는 어의소의 기술을 위해 사용된 기술 도구의 기부로부터 제외된다. 오직 의미소적 선언(選言)만이 그 조직이 어딘가의 다른 것과 동정될는지 모르는 두 어의소 간 의미편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어의소의 존재자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의 어의소적 분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거절했던 어휘소적 절차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 어휘소는 작용의 모델이며, 내용의 기술단위가 아니다.

b. 결합관계

내재와 표출의 단순 대당은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의미론적 우주의 2개의 상보적 양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담화와 함께 표출을 동정하는 것과 음성과 문자로 “구체화된(incarnated)” 것으로 그것을 고찰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자마자, 내재세계와 표출세계는 2개의 다른 방식으로 동일현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2개의 필적하는 모델로 나타난다. 그 2개의 모델은 그들의 다른 내재조직에 의해 잘 구별된다. 그러나 그들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도관(導管)의 유형을 구성한다. 그 내재세계는 스스로 표출로부터 구성되게 되며, 그 대신에 표출은 내재모델로부터 환원될 수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내재세계의 구성규칙은 표출세계의 생성규칙과 상응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사실, 만약 우리가 내재세계를 의미소범주의 총체로 고찰한다면, 표출은 그들 아티클레이션의 가능한 결합(la combinatoire)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만약 의미소범주의 조정이 체계적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 아티클레이션의 어의소적 결합은 형태소적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일련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 실제로 이미 확립했던 이러한 결합을 위한 구성규칙은 따라서 총합될 수 있었다.

1. 의미소범주의 총체는 2개의 하위총체(핵의미소로 구성된 외소여적 하위총체, 그리고 강류의미소로 구성된 내소여적 하위총체)로 분할된다.
2. 표출의 어느 단위는 적어도 2개의 의미소를 가져야만 한다.
3. 두 종류의 표출단위는 어의소와 메타어의소로 결합될 수 있다.

a. 내소여적 총체로부터 환원된 결합은 메타어의소의 발화자료체로 구성될 뿐이다.

b. 2개의 내소여의 총체와 외소여의 총체를 활용하고 있는 결합은 어의소의 발화자료체를 구성한다. 어의소는 적어도 각각의 하위총체의 한 텀이 어의소의 각각의 내부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4. 각각의 하위총체는 2원적 의미소범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반면에 각각의 2원적 범주의 표출은 그들의 가능한 아티쿨레이션 때문에 여섯 개의 다른 텀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재세계의 2원적 범주는 표출이 가능한 분별어의 소와 상응한다.

c. 전략적 선택

내용분석의 관례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의미론적 우주의 그러한 개념은 적어도 분할적으로는 내재 세미올로지의 레벨과 내재 의미론의 레벨의 자율적 기술을 전제로 한다. 이어서 책임을 떠맡기 전에, 이러한 분석은 최적의 심연 단계의 전략적 선택이 기술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계하고 있는 고찰로 발견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의미소의 구성을 위한 선택단계가 기술된 발화자료체 규모의 함수라고 하는 이전의 반성의 방향에서 주목될 수 있었다. 먼저 고찰될는지 모르는 것과는 반대로, 발화자료체의 확장은 의미소의 보다 큰 보편성과 따라서 그들 수효의 감소(diminution)와 상응한다. 의미소범주의 수는 그 관계가 단순 자연언어 또는 그 언어의 단순 동시작용 상태의 기술과 함께만 존재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보다 많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우리가 많은 자연언어의 또는 자연언어의 몇몇 통시적 상태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내재세계를 제안하기로 결정한다면, 비록 보다 작은 비율일지라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보편성의 높은 측면에 의미소적 기술을 정위시키는 것이 그리고 적어도 이론상으로 언어의 동등성의 문제(적용된 언어학의 모든 지류를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이 이익이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어의소적 표출의 레벨에 나타날는지 모르는 어려움을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내재세계의 단순성은 어의소의 아티쿨레이션이 된 표출세계의 복잡성과 상

응한다. 각각의 어의소의 형태소적 구조는 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나타날 것이므로 결합할 수 있는 의미소의 수효는 매우 적다.

d. 어의소적 발화자료체의 개시성

표출세계의 또 다른 특성(particularity)은 구성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자연언어의 효과적으로 사실화된 내용으로부터 실현할 만한 내용을 분리하는 공간이다. 한층 더 근사한 추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환원된 의미소의 총체가 무수한 실례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고찰할만한 어의소의 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언어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합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그 역사의 보다 많은 전개를 위하여 충분한 것보다 더 자유의 한계(margin)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그러한 의미론적 우주의 개념이 수적으로 제한된 사회구조의 경계 간에 나타난 모순을, 그리고 그들이 관계하는 역사의 개시성을 이동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확하게 보았다.¹³⁵⁾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의미론적 우주의 의미소적 모델이 닫혀있는 것인지, 어의소의 발화자료체가 상응적으로 폭넓게 열려있는 것인지 언급할 수 있다.

노트: 그러나 우리는 사실화된 어의소의 어느 발화자료체의 분할적인(partial) 성격이 기술을 위해 필요한 의미소적 총체의 규모 상 효과가 없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장(field) 안에서 실현된 어의소의 기술은 의미소범주의 수의 감소가 고찰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한다. 역으로 그 목록의 불완전한(incomplete) 성격은 이러한 범주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더 있음직한 위협이다.

e. 추상적 그리고 구체적 어의소

어의소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 결합의 눈에 띄는 성격 중의 하나는 그들이 불충분한 밀집상태라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의미소범주 각각의 어느 특별한 아티클레이션을 표현하고 있는 텀을 그들 자체 안에 실현하고 있는 어의소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가능한 결합은 오직 두 의미소 아티클레이션의 현존재에 의해서만 성격이 만들어진 어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때 그 의미

135) Claude Lévi-Strauss 지, Claire Jakobson·Brook G. Schoepf 역, Structural Anthropology, vol. 1, (New York: Basic Book, 1968), chaps. 2, 3.

소의 밀집상태는 양극 간에 정위된다. 그 첫 번째는 최소의 두 의미소를 갖는다. 두 번째는 기술의 세계 안에 사용된 2원적 의미소범주의 총계와 상응하는 의미소의 총계이다. 이후, 양적 범주로 고찰된 밀집상태는 어의소의 다소간 추상적인 또는 구체적인 성격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의 세미올로지의 또는 의미론의 성격의 어의소 관계와 감도(speed)는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반면에 어의소는 마치 빗줄기와 구조물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의소의 추상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그 가능성은 밀집상태의 변이가 어느 담화의 개시에 대한 성질을 기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결정이 즉각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확장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아마 이것은 담화 함수의 이론적 관점일 뿐이라고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 어의소와 의미소 근거의 형태소적 구조를 동시에 해독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수신자를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추상(즉 수신자가 발송된 테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리고 직접 필연적인 것을 반드시 존속시키도록 하는 효과)은 모든 레벨에서 우리에게 담화 함수의 성격을 기술한다. 부여된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추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야콥슨(Roman Jakobson)은 「언어의 원리(Fundamentals of Language)」의 첫 페이지에서 부호의 경제적-유기적 함수와 음운론적 전송의 에두름의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¹³⁶⁾

사실 추상은 내용의 허약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전송된 의미작용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강요된 가치이다. 어떤 “구체적인” 철학이 행하는 것으로서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확립된 후에, 우리는 그것이 비록 “구체적인” 것일지라도, 철학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의소가 그들의 추상적 내용과 함께 이미 어휘화되었는지 또는 우리가 그것을 추상화했는지, 즉 우리가 어떤 의미소의 부유 상태에 의해 그들의 결정의 지나치게 높은 밀집상태를 벗어나게 하든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특징은 의미소적 단순화의 절차를 합리

136) Roman Jakobson, Morris Halle, 「언어의 원리(Fundamentals of Language)」(The Hague: Mouton, 1956).

화하는데, 구성된 어의소의 구성(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에서 언어학적 행동을 흉내내는 것)에서 이미 연구했다.

단순화의 절차는 확실히 복잡성의 필연적 절차와 대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것은 마치 수학적 언어처럼, 추상적·의미론적 초미우주가 표출 안에서 어의소의 다수를 어휘화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며, 수학적 담화의 함축적 경상도야(assumption)는 기계처럼 구조화된 언어학적 작용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계화된 언어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어(Algol)처럼, “촉매작용을 하지 않는(encatalyze)” 담화를 채워 넣기 위하여 공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적합한 기록언어를 구성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러시아의 수학자들도 동일 결론에 도달했다. 그 복잡한 절차는 담화를 추상화하는 것에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논리학자들이 그 덩어리에 부여한 의미 안에서 어느 특별한 “의미론”의 형식화에 근접한 메타언어를 공들여 만든다.

그때 형식화는 이들의 복잡성의 절차만큼 단순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쪽이든지 그들과 완전히 동정되지는 않는다.

f. 상반성

만약 어느 특별한 자연언어가 자세하게 구명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결합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우리가 기원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표출은 어의소적 결합의 약간의 수를 제거하고 있는 상반의 집합에 의해 추가로 한정된다. 이러한 상반은 “형식적 또는 실체적” 두 종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식적 상반성: 여섯 개의 기본 언어학체계의 가능한 결합이 약간의 가능한 별개의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브뢴달(Viggo Brøndal)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것의 어떤 144개의 체계, 실제로는 64개의 결합만이 일치하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¹³⁷⁾ 사실 이것은 상반성에 기인한 제거의 중요한 상태와 관련하고 있는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다. 분명히 우리는 내재 안에서는 짧지만 표출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러한 동일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브뢴달(Viggo Brøndal)의 결합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

137) Viggo Brøndal, “Structure et variabilité des systèmes morphologiques,” p. 18.

다. 따라서 당분간 그것은 상반함수를 위한 구조규칙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명료성을 위해, 그것은 항상 주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미소범주의 중립 텀을 요구하고 있는 어의소의 표출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의소가 의미소처럼 고찰된 범주의 구성된 축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복합 텀의 표출은 마치 “조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등등처럼 분리된 텀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어의소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이러한 예들은 항상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상반성 또는 특별한 어의소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연결된다.

2. 실체적 상반성: 그들의 결정은 경험적 난해성을,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비록 분할적일지라도 비문법성 또는 의미소적 결합의 비사전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비의미론성을 판단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의미소적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해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3. 담화

a. 어휘화와 문법화

먼저 우리는 내재세계로부터 실현에 이르는 추이 속에서 2개의 인식할만한 단계와 상응하는 표출과 담화의 개념을 구별했었다. 의미소의 어의소적 표출은 어의소를 “담화 속으로 삽입하는 것”에 의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반면에 이것은 표현측면과 비교될만한 아티큘레이션을 채택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어휘화라는 명목을 부여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많은 언어학자들이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언어의 두 측면의 전형적인 통합은 어휘(또는 언어학적 기호[sign])를 구성하고 있는 포르مان트(formant)의 그리고 어의소(의미소적 결합)의 접합에 의해 성취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사정은 그렇지 않다. 점진적으로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하위 프로그램의 다양한 연속으로 분해하도록 강요된 언어학적 부호의 현대적 기술절차는 암호화하고 있는 복잡성의 개념을 지금 당장 부여한다.

1. 대부분의 경우, 포르مان트는 다른 비교할 만한 포르مان트, 즉 그 부정적 의미와 간접적으로 격아강적이며 아종적인 특이성(specificity)과의 대당에 의해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어의소를 떠맡지 못하고 핵의미소만을 떠맡는다. 그것이 메타어의소 또는 공들여 만들어진 분류법에 속하는 어의소의 경우에 발생함으로써, 동음을 갖는 어휘소는 그것이 떠맡는 단순 어휘소에 접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어휘소적 프레임을 초월하여 필연적으로 분류상의(classificatory) 원소를 내포한다.

2. 우리는 강류의미소적 원리가 어휘소보다 더 큰 통사론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인식될 수 있는 그 강류의미소는 연속 어휘소적 포르مان트, 즉 포르مان트의 강류 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 자신 간 나타나는 편차의 확인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우리는 어휘소 안으로 어의소가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화맥 안의 말로 불리는 것으로의 전환인, 어휘화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끝으로, 그 실현 안의 어의소는 핵격상의 확장 때문이든지 또는 그것이 단자 또는 정의의 다른 형식 아래 드러나기 때문이든지, 어쨌든 동시에 몇몇 어휘소를 포함한다. 이렇기 때문에 어휘화의 변화과정은 문법화의 그것과 함께 스스로 뒤죽박죽이 된다. 어휘화와 문법화는 출현(appearance) 안에서만 단일한 실행의 2개의 작용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론상 별개인 두 개념은 담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안에서 그들의 질차가 뒤얽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뒤죽박죽이 된다.

b. 표현의 편차와 내용의 동정

표출단위와 커뮤니케이션 단위 사이의 동형성(isomorphism)의 부재는 넓은 유의성의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언어가 기호체계로(system of signs),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signs, 즉 용어법에서의 어휘소)이 포르مان트와 어의소의 재결합으로 고찰될 수 있는 한, 그 문제는 단순한 것 같다. 의미작용의 피할 수 없는 확산으로 유도하고 있는 어느 포르مان트의 음운론적 확산과 동시에, 유의성은 정의에 의해 배척된다.

유의성은 이러한 원리가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또는 아마도 단순히 나쁘게 형식화되어 먼저 중요되었던 형태론적 영역 안에 존재할 것이다. 형태론적 범주를 분석함으로써, 그 조건으로 우리는 다른 유표(mark, 예를 들어, 영어의 -s 와 -en은 "cows"와 "oxen"에서 복수이다)¹³⁸⁾가 내용의, 그러나 다른 화맥적 주연(周延)을 갖는 것으로서의 아주 동일한 원소들을 떠맡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유표(mark)가 2개의 다른 레벨(그 첫 번째는 음소 대당의 형식 하에 있고, 두 번째는 음소적 아티클레이션의 대당의 형식 하에 있다)에서 두 번 실현되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유표의 식별효과가 두 번째 식별효과의 그 간극의 출현에 의해 삭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두 유표는 각각 다른 것의 결합에 의해 중립화될 수 있다.

$$x + (-x) = 0$$

그리고 표현측면의 중복변이는 의미작용의 어느 편차도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유의성은 가능하다.

시니피앙의 편차적 간극의 개념은 내용분석의 책략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개의 레벨(한편으로는 언어학적 레벨,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언어학적 레벨)에서 시니피앙이 식별하고 있는 아티클레이션의 정위의 조건에서, 그것은 구조언어학의 바로 그 기초를 배반하는 일 없이 주장될(asserted)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정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텀은 기왕에 정의되어 있는 텀과 동정될 수 있다. 유의불가능성의 주장, 즉 의미작용이 출현한다고 하는 고찰에 부여되고 있는 필연성의 논리적인 결과는 시니피앙의 아티클레이션을 식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며, 그때 메타언어학적 활동과 함께 더 이상 상반적이지 아니한데, 아티클레이션의 다양성을 초월하고 있는 그 능동성(activity)은 의미론적 우주의 필연적 목표의 조건인 동정의 발견을 목표로 삼는다.

가장 우수한 것은 최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런대로 괜찮은 어의소적 동정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어의소적 동치의 출현을 위한 조건(즉 어딘가 다른 어의소로 표출된 약간의 의미소의 동정을 위한)은 보다 더 쉽게 상

138) 유표(有標: marked)·무표(無標, unmarked)의 개념은 1930년대 프라하학과 트루베츠크이(Nikolai Sergeevich Trubetskoï, 1890~1938),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982) 등이 사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유표화이론(有標化理論: markedness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대립하는 두 언어요소는 한쪽은 중성적이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이다. 전자를 표시되지 않은 것, 즉 무표라 하고 후자를 표시된 것, 즉 유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영어는 boys-boy, birds-bird 등의 복수·단수의 대립을 보이는데, -s로 복수를 표시한 것을 유표라 하고 단수를 무표라 한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적용하면 dog와 bitch의 대립의 경우, 후자는 특히 암개를 나타내므로 유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표의 형태가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며, 유표화한 형태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역주)

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소적 화맥으로부터 발췌된 강류의미소의 확인 절차를 이러한 견지에서 고찰하기로 하자. 분석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핵을 발췌하려고 하는 어휘소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휘소와 필적하는 화맥의 강류를 포함한다. 우리가 공통강류의미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화맥의 아강(subclass)을 요구할 때, 사실, 우리는 시니피앙의 변화인 의미소적 동정으로서의 표현의 변화 대신에 내용의 어떤 상수(invariance)를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왕에 관측된 변화의 효과를 무효화하고 있는 새로운 편차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다른 레벨에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레벨은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단위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화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강(subclass)으로서만 발견된다. 그것은 두 별개의 포르만트(어휘소를 떠맡고 있는 음소와 화맥적 포르만트의 결합아강)에 의해 구성된다. 두 포르만트의 별개의 그리고 정의된 성격은 시니피앙의 변화의 창조자로 그들의 결합을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명상된 어휘소(적어도 전환 가능한 강류의 또 다른 질료가 아닐 때)를 위하여 무엇으로든지 간에 어느 어휘소로 치환하는 것은 의미작용의 변화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니피앙의 두 변화의, 그리고 두 유표의, 말하자면, 서로 약분하는, 선택된 화맥의 아강을 위한 아프리오리를 진술하는 의미소적 동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현존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사실, 표현측면의 분석은 -s와 -en이 복수유표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제안된 강류의미소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어학에서 형식주의의 옹호자들

은 오성적 이해를 무시하고 주르댕(P. E. B. Jourdain)¹³⁹⁾ 씨의 역설적 방법으로 의미론을 연구한다.

첫눈에 예견할 수 없는 이러한 반사로서 주장은, 즉 내용측면에서의 동정의 주장(assertion)은 어떤 질료의 사용 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자명한 원리와 관련된, 어느 내용이나 분석이 가능해서,¹⁴⁰⁾ 편차는 동정의 원리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잘 알려진 소쉬르의 그 주장에 따르고 있는, 언어학적 반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표현측면에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형식화된 동정적 내용의 존재자와 대당이 된다. 따라서 동치의 개념은 영구적으로 확립되고, 분할적인 의미소의 동정처럼 정의되며, 그것은 담화의 메타언어학적 함수를 고찰하고, 그 스스로 어의소적 분석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139) 논리적 역설: 매우 재미있는 그리고 종종 에타게 하는, 논리적 역설은 대개 기초수학의 엄격한 토론으로 안내한다. BC 6세기에 이미 크레타의 예언자 에피메니데스(Epimenides)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크레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에피메니데스 또한 거짓말을 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그렇게 진술한 크레타인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진술은 자기모순이다. 유사한 딜레마가 1913년 영국의 수학자 주르댕(P. E. B. Jourdain)에 의해 제공되었는데, 그는 카드의 역설을 제안했다. 인쇄된 카드의 한 면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었다.

“이 카드 뒷면의 문장은 진리이다(The sentence on the other side of this card is TRUE).”

그러나 그 카드 뒷면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써있었다.

“이 카드 뒷면의 문장은 거짓이다(The sentence on the other side of this card is FALSE).”

러셀(Bertrand Russell)에 의해 제공된 이발사의 역설 또한 동일한 종속이었다. 마을에 유일하게 어떤 이발사가 있는데 그만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깎았다고 공언했지만, 그 이발사의 머리는 그 자신이 깎지 못했다. 그 사실로 보아, “이발사의 머리는 누가 깎는가?”라고 물어올 때까지, 이것은 완벽하게 천진난만한 진술이다. 만약 그가 그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그는 그가 깎지 못했던 마을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발사 즉 자신에 의해 머리가 깎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누군가에 의뢰하여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는 그 이발사에 의해 깎여지지 않은 마을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진술 또는 대상을 지시하는 그 진술이 그 강류(綱類, class; 또는 부류)의 일원 그 자체일 때, 자기모순은 진술이 어떤 강류의 일원 “모두”에 대하여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 간단히 말해서 러셀의 역설은 그들 자신의 일원인 강류와 그들 자신의 일원이 아닌 강류 사이의 편차에 달려있다. 러셀은 논리유형의 계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강류의 강류에 관한 역설을 풀려고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수학의 철학적 기초에 숨어있다. (역주)

140)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sp. pp. 18.

c.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보았듯이, 어휘화의 현상은 문법화의 현상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사실 담화는 의미작용의 표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송의 증명사(中名辭, means)이다. 표출연구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의 희미한 감지를 우리에게 허락했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반복상(反復相)적 성격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강류의미소의 표현이 담화의 동류체적 시퀀스의 구조 속에 어떻게 생기고 있나 관측할 수 있다. 우리는 원거리로부터 확립되고 있는 결합 속에서 의미소적 중복에 의해 연출된 역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시도법으로부터, 우리는 내용의 약간의 원소가 완전히 문법적 함수와 동정될 수 있는 야콥슨(Roman Jakobson)¹⁴¹⁾에 의해 분리된 교감함수를 연기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지속 속에서 산 채물로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준이 자명하지 못한 자연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범주 사이에서 실행된 어떤 선택을 따라감으로써, 사실, 그것은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특별한 모드에 의해 그리고 과도한 중복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두 번째 체계를 조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담화 속에 표출된 의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산고(産苦)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고찰해 보면, 문법적 구조는 내용표출과 유사한 두 번째 체계가 어떤 세계 또는 내재의 자율적 세계, 즉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범주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과 온갖 종류의 어의소로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못한다. 반대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의미소적 밀집성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그리고 번역-전격적 함수로 충전된 문법적 형태소를 구성하는 특별한 포르مان트와 함께 부여된 표출의 레벨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테니에르(Lucien Tesnière)¹⁴²⁾로부터 차용한 번역-전격의 개념은 문법적 형태소에 의해 연출된 역할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휘소를 떠맡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축구선수가 그의 동료에게 볼을 패스하여, 최후의 득점을 하

141) Roman Jakobson, T. A. Sebeok 역, “언어학과 시학(Linguistics and Poetics),” 『평가 주에서의 독자적인 표현법(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355.

142) Lucien Tesnière,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 364.

는 것은 그 불의 패스를 받은 자인 것처럼 문법적 중복의 조력으로 그들을 전승하고 있는 하위언어의 대상 텀처럼 다룬다. 표출의 문법화는 의미작용의 함수와 커뮤니케이션의 함수가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면 매우 우수한 것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조정된다. 그 결과는 담화 안의 연속적인 왜곡이다.

따라서 충분히 이해된 문법적 구조는 이중으로 중복된다. 그것은 형태론적 범주의 반복 때문에, 담화에서의 팬(fan)처럼 함수역할을 하고 있는 문법적 강류의미소의 반복상에 기인한 동류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복이다. 그것은 또한 구조된 메시지 안의 동일 기본 도식(schema)의 연속적인 반복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복이다.

그러나 문법적 구조는 동시에 의미가 진행중인 구조이기 때문에, 함수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다른 유형의 중복의 창조자이다. 그것은 동일 의미소가 어휘소와 번역-전격(예를 들어, 양상적 범주의 현존제 또는 근원과 반성에서의 주제화된 양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문법적 강류의미소를 한정하는 지수(指數)¹⁴³의 현존제 때문에, 정의가 진행중인 강류의미소와 이미 위치(place)에 삽입된 문법적 강류의미소를 난처하게 하고 재사용하는 유도체계(예를 들어, 축적적 변화과정을 추리하고 있는 실체적 하위지수) 때문에 중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의 유형은 인류가 세계의 뉴스를 청취하기 위하여 항상 지불하는 티켓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구성한다. 과도한 중복의 제거는 내용분석의 첫 번째 과제 중의 하나를 구성하며, 보다 더 미묘한 것을 모두 균형 잡히게 함으로써, 그 후 기술언어의 합성은 단순성과 복잡성을 피하여 양극 사이에 정위된다. 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최선의 기술을 위한 책략적 레벨의 선택은 매우 실제적인 긴급성을 떠맡게 된다.

d. 메시지의 조직

문법적 구조의 성격과 함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시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복잡한 문법적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포착한 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의미가 그곳에 부호

143) 어떤 수 또는 문자의 오른쪽 위에 부기하여 그 승력(乘羈, 오름차)을 표시하는 문자 또는 숫자. (역주)

화 된 보다 좋은 의미작용의 개시성을 관찰할 수 있기 위하여 문법의 기이한 구조를 폭파하고 있는 것을 탐색하고 있는 의미론자의 당혹스럽게 된 시선을 뒤쫓기 바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사론적 구성물은 어떤 측면과 분명한 목표가 없는 구조처럼, 바다과 층계참(層階站)의 혼동처럼 나타난다. 즉 파생어는 어원의 강류를 떠맡고, 그들을 만드는 것에 의해 문법적 강류를 변형시키는 통사론적 “합수”는 그들이 전유(專有)하지 못한 역할을 위하여 연기한다. 전체 진술은 마치 그들이 단순부사로 행동했던 것처럼 환원되고 기술된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전격을 통해서, 분석자의 과제는 담화의 조종 줄을 재발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동류체적 측면으로 이러한 계층을 환원한다.

그것이 골동품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통사론은 본질적 합수를 떠맡는다. 그것은 구성적 원소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결합(une nouvelle combinaison)을 초래한다(그것은 이 순간의 어의소이다). 그 가능한 결합은 세계에 대한 실제적으로 무한한 관찰의 형식화에 따르고 있는 메시지를 생산한다. 부여된 이러한 결합의 원소, 즉 통사론적 결합은 어떤 기본 통사론적 도식으로 정위된 어의소의 의미에 의해 만들어진 약간의 구성규칙을 제안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수많은 실례 속에, 연기(action; 변화과정, un procès)와 어떤 행위주와 다소간 사건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작은 드라마(광경)를 몇 번이고 재생산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통사론적 연기(play)는 아마 위조된 것일 것이며, “실재” 세계 안에서 실체의 성격과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적 상징기호 때문에, 그것은 세계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도(vision, 또는 환영)이며 그것(오직 가능하지만 한 것)을 구성하는 우리의 양식(fashion)이며, 따라서 우리는 통사규칙의 조력을 받아 우리 앞에 그것을 전개한다.

분석자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또 다른 계층단계에서 매우 가변적인 것처럼 연기된 통사론적 동작의 총체를 상수 형식으로 반성하고 있는 특유의 의미론적 통사론을 어떻게 구성하나 알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사론은 항상 의미론적으로 잔류하며, 논리학자들의 생각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미작용 없이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론의 우주로 명확히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의미작용과 뒤엎혀 발견된 의미작용의 조건 안 세계의 상상도에 대한 인식을 계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론의 통사론은 언어학적 활동 속에 내재하며, 그 진보적인 해석은 내용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즉 세계에 대해 또는 외부와 내부 세계의 사건의 화술에 대해 언급하는, 한도 내에서만 내용의 기술을 위한 모델의 조립(the setting up)을 허락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폭넓은 윤곽이 존재하는 그 순간의 추적을 시도할 수 있다.

1. 메시지를 창조하는 언어학의 활동은 먼저 소수의 어의소 간 하위계열적 관계의 조립(the setting up, 함수, 행위주, 화맥)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형태소이며, 알고리즘과 같은 메시지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계적 구조(행위주에게 부여하는 역할 분담)는 하위계열 위에 겹쳐지고 객관화하고 있는 투기(投企, projection)처럼, 즉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자와 수신자로부터 배제된 세계의 시뮬레이터(simulator)처럼 메시지를 확립한다.

2. 메타언어학의 활동은 대개 탐색(search)처럼 그리고 동치의 확립처럼, 따라서 연언(連言) 관계의 표출처럼 나타난다. 동치의 조력으로(즉 의미소적 동정의 조력으로) 그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중복되고 기여 받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에,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정의의 조력으로 언어학의 대상을 지휘하는 일종의 그런 세계에 대한 정보의 확장처럼 메시지를 조정한다. 그 초기단계의 체계의, 메타언어학의 활동은 정의와 형태소에 의해 결과적으로 대상이 창조되게 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통사론의 활동이 복잡하고 있는 도식들은 상상하도록 우리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어의소적 형식 안에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 내재적 모델로 나타난다.

제8장 의미작용의 기술

1. 표출과 담화

a. 표출세계의 이분법

전장에서 내포적 세계(또는 허상적 세계, virtual universe)로,¹⁴⁴⁾ 표출 가능한 결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화(discourse)로 계속해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론적 우주의 일반개념의 개요를 제안한 후에, 우리는 메시지의 생성원이 되었던, 이어서 두 번째 단계의 결합으로 해석되었던 착란적인(또는 종잡을 수 없는, discursive) 표출을 주목했다. 의미작용 체제의 이렇게 새로운 양상에 우리는 잠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¹⁴⁵⁾

그러나 범주 “외소여(exteroceptivity)” vs “내소여(interoceptivity)”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내재세계 안에서 기왕에 행했던 것으로서의 의미론적 우주의 동일한 이분법적 분할을 표출 레벨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작용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양분되고 있는 범주에 메타의미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추정된 기원에 따라 의미소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내재세계 안에서 2개의 의미소적 레벨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의미소가 아닌 어의소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의 범주를 메타의미소로

14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371. virtualization(내포화); 1. 기호학적 존재 양태의 프레임 안에서, 내포적/외연적(virtual/actual)의 범주는 체계와 변화과정, 랑그와 파롤 간 관계의 성격화를 허락한다. 외연적 존재자(actual existence)와 반대로, 내포적 존재자(virtual existence)는 언어의 결합 축(syntagmatic axis)에 속하며, 그것은 계열 축(그것은 “부제 내부”에 있는 어떤 존재이다)의 성격을 만든다. 2. 화술 기호학은 한 쌍의 내포화/외연화(virtualization/actualization) 대신에 3원 아티쿨레이션 내포화/외연화/실현화(virtualization/actualization/realization)로 대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포화는 어떤 결합(또는 반대로, 이러한 관계를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억압하는)에 선행하는 주체와 대상을 설치하는 것으로서의 실행과 상응한다. 단독으로 상태발화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은 선언에 의해 그들의 아티쿨레이션을, 연언(連言)에 의해 그들의 실현화를 작용시키는 함수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역주)

145) 용어 discourse와 discursive가 한 단락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다. 박인철은 두 용어를 번별 없이 “담화(談話)”로 번역(「과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p. 116. 373)하고 있으나, “discourse=담화,” “discursive=착란적인(종잡을 수 없는)”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두 용어는 엄격히 번별된다. (역주)

더 이상 고찰할 수 없다. 그들은 표출을 어의소로 체계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의 텀은 오직 강류의미소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표출의 두 기본차원을 식별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 강류의미소적 범주는 정의에 의해 일반적인 것이 되는 것을 떠맡게 될 것이다. 만약 모든 어의소가 적어도 표현되는 어떤 강류의미소가 필요하다면, 그 강류의미소는 기본적 범주의 텀 내소여(I, interoceptivity)가 되든지 또는 텀 외소여(E, exteroceptivity)가 되든지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소범주를 사용하는 반면에, 그러나 때면 다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병치 또는 모순이 아닌 이중비교변화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의미소 “heavy(이것을 단순 의미소로 가정한다면)”는 실제 내재성으로 존재하는, 즉 2개의 다른 화맥으로 표현된 텀 외소여(E)에 의해 정의된 세미올로지의 레벨(semiological level)에 속하는 핵의미소이다.

무거운 가방(a heavy bag)

둔중한 의식(a heavy conscience)

첫 번째의 경우에 핵의미소 “heavy”는 강류의미소 외소여(E)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 강류의미소 내소여(I)와 함께 결합될 것이다.

오래 전의 암페르(Jean-Jacques Ampère)¹⁴⁶⁾에 의해 확립된 용어법에 의하면, 우리는 동류체 또는 강류의미소 외소여(E)를 가지고 있는 어의소의 목록을 용어 우주론적 차원(cosmological dimension)으로 추리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용어 정신론적 차원(소기론적 차원, noological dimension)¹⁴⁷⁾은 동류체 또는 강류의미소 내소여(I)의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어의소목록에 적용될 수 있다.

그때 모든 기술은 내용의 우주론적 차원 또는 정신론적 차원을 목표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우주론적 차원이 달성된 기술은 외재세계의 지식을 자세히 구명(究明)하고 있는 우주론을 구성할는지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정신론적 차원의 완벽한 기술은 오로지 내재세계만을 고찰하고 있는 정신론을 구

146) Jean-Jacques Ampère. Histoire de la formation de la langue française(Paris: Didier, 1869), 프랑스의 물리학자(1775~1836).

147) noologie=정신론, 소기론(所記論). 소기는 signifié의 번역. (역주)

성할는지 모른다. 의미론의 우주에 망막함을 부여함으로써, 표출차원의 기술은 우주론적이거나 정신론적인 것이 되든지 하지만, 향차는 분할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론의 우주가 초미우주, 즉 기술의 제한된 발화자료체와 상응하는 것의 표출로 분할될 수 있다고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우주론적 차원의 분할적인 표출은 실제적(practical) 표출로 호칭될 것이며, 정신론적 차원의 분할적인 표출은 신화적(mythical) 표출로 호칭될 것이다. 게다가 기술된 발화자료체가 개인적 화자 또는 공동체적 화자를 전제함으로써, 분할적인 표출 그 자체는 개인적이든지 또는 공동체적이든지 하는 것으로 고찰될 것이다.

b. 기본적(fundamental) 동류체

표출의 새로운 강류를 도입함으로써, 첫눈에 우리는 그 어휘의 다의성 때문에 그리고 문법적 구조의 오버래핑에 기인한 레벨의 혼란 때문에 더 이상 비할 데 없이 복잡함을 볼 수 있으며, 이제 또한 실제적(practical)이든지 신화적인(mythical) 시퀀스의 무질서한 연속으로든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일치할 수 없는 표현의 설립은 기본적 동류체, 즉 만들어지게 될 그리고 초미우주의 실제적이든지 신화적인 표출을 결정하고 있는 선택으로서의 두 번째 동류체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마치 그것이 다양한 직시(直示, deixes)¹⁴⁸⁾ 차원을 조직하는 전치사, 부사 등으로 어휘화된 것처럼 그 전체의 위상(位相) 체계는 단순한 치환(substitution)에 의해 “상징기호적” 공간(우리의 반성이 레벨, 차원, 동류체를 만들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으로 번역-전격된 자신을 발견한다.

148)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71~72. deixis(직시, 直示); 1. 직시는 기호사각형의 함수적인 차원 가운데 하나이다. 함축관계에 의해 그것은 다른 반대 텀의 모순과 함께 반대 축의 텀 중 하나를 연결한다. 따라서 두 직시는 다음과 같이 인식될 수 있다. 즉 비록 이러한 자질이 가치론적 투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s_1 - \bar{s}_1$)는 조정적이라고 호칭되고, 다른 하나($s_2 - \bar{s}_1$)는 부정적이라고 호칭된다. 이러한 투자는 방향적 범주, 즉 기호사각형 하의 “행복감/불쾌감”의 투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어진 화술에서, 관자놀이-시간적인 정향(지금/그때) 또는 관자놀이-공간적 정향(여기/거기)는, 관자놀이-시간적인, 양상적인, 그리고 공간적 범주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의 기초 상의 지시적 직시(deixes of reference)로 공준(公準)될 수 있다. 따라서 때때로 과거와 미래가 설치될 수 있는, 논리체계(앞선 시간[anteriority]/병존설[concomitance]/후시성[posteriority])에 순응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 의해 현재시제로 나타나는 “화술의 시간”으로 호칭되는 것이다. (역주)

c. 통사론적 결합관계

그러나 표출의 정의를 어의소의 결합관계로 고찰했을 때까지, 우리는 어휘소의 범위결정의 문제를 도외시켰다. 엄격한 의미로 언어학적 활동을 오직 하위계열적 관계의 개시성만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어의소 사이의 경계를 확립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필요 없게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어휘소(예: tête de canal, head of canal, 운하의 기점)에 의해 제공된 “자연적” 제한을 쉽게 초월하는 핵역상 확장의 가능성을 주목함으로써, 그리고 단자와 정의의 동치를 역설함으로써, 우리는 핵의미소와 어휘소를 연결하고 있는 비교적 안정된 그리고 귀중한 기본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출단위의 범위결정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담화의 외연화(actualization)의 그리고 대상세계 구성의 이미 낡아빠진 문제(언어학자들이 흔히 정당화된 불신을 항상 증명했던 문제)를 간접적으로 재취급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어의소를 표출단위로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통사론적 결합관계를 위한 기초를 부설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위는 결합할 만한 원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단위로 고찰되어야만 하는 어느 특별한 어의소라고 하는 것은 과장의 강류의미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소적 계층이 총체적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적 구조로 단자화 된 “어의소”를 운송할는지 모르는 “단위(개체, unity)”를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단순강류, 즉 단자화 된 “어의소”만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모든 표출 어의소의 발화자료체를 고찰하고 있는 강류로서의 어의소를 설립한다.

그때 우리는 전체성(entirety)으로서의 표출세계가 “총체성(totality)”¹⁴⁹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만한 강류를 구성하며, 우리는 이러한 범주를 브룬달(Vigo Brøndal)¹⁵⁰이 언급한 다음처럼, 즉 아티플레이션이 된 존재로 고찰하기를 제안한다.

이산성(discreteness) vs 통합성(integrality)

149) “전체(whole)”는 단일 대상을 지시하고, “총체성(totality)”은 통합된 앙상블(integrated ensemble)을 지시한다. 그러나 영역자는 앙상블(ensemble)을 “whole+ensemble”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다시 “그룹(group)”으로, “불가분의 전체(entirety)”로, 다양하게 번역했다. (역주)

150) Vigo Brøndal, “Omnis et Totus: Analyse et mythologie.”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p.25~32.

표출의 순간에 실현되는 것(realizing)에 의해 표출세계가 나뉘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소적 덩의 하나가 2개의 아강(subclass)으로 나뉘고, 그 첫 번째의 경우가 이산단위이며 두 번째의 경우가 통합단위이다. 사건의 표출레벨에 우리 스스로 정위함으로써, 우리는 강류의미소 “이산성”에 의해 만들어진 그 핵으로서의 현존재에 의해 과도 결정된 모든 어의소가 새로운 강류의미소적 결정의 추가 방식, 즉 “물체,” “사람,” “이미지,” “상징기호(symbol)” 등의 단일 대상으로, 의미의 효과, “실체(substance)”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관측한다(나중에 어떤 명목을 부여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한편, 우리는 강류의미소 “통합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소가 그 스스로 의미소적 결정의 통합된 총체(ensemble)로 나타남을 관측한다.

메시지로 조직된 통사론적 표출은 이제 우리가 구성규칙을 상술하여야만 하는 것의 새롭고 매우 단순한 결합관계로 나타난다. 첫눈에 우리는 먼저 메시지의 함수가 이러한 대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이산대상의 태도로 다소간 이러한 대상에 적용할 만한 통합결정의 목표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논리학의 관점이며, 또한 그것은 실재성 속에서, 곧 그 함수 속에 포착된 통사론적 활동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립된 메시지의 고찰을 중단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일련의 메시지의 의미작용에 대해 의심을 품자마자 투시도법은 변한다. 그때 우리는 발화자료체 안에 정위된 통사론적 활동이, 반대로, 세계 속의 사건 또는 상태에 대해 만들어진 재유표로서의 인지(remark)로부터 확립되고 있는 대상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때 우리는 그 전체성으로 획득된 의미론적 우주의 프레임 안의 아프리오리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그 빈사는 행위주를 전제하고, 그러나 초미우주의 아포스테리오리, 즉 빈사의 총목록은 행위주를 구성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통사론적 표출이 약간 복잡해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강류의미소적 범주를 제안하는 것에 의해 빈사의 분류경계를 도입하여야만 하며, 그것은 대당 “안정적(static)” vs “약동적(dynamic)”을 실현한다. 그들이 의미소 “안정적”을 갖든지 또는 “약동적”을 갖든지 하는 것에 의지함으로써, 빈술적 어의소는 행위주와 관계하고 있는 상태 또는 변화과정 어느 것이든지 간에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문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빈술적 어의소는

그것이 마치 담화 안에 실현된 것처럼 어휘소 "to go"에 의해 역할을 떠맡는다.

That dress goes well with your tan.
(그 드레스는 너의 햇볕에 탄 피부에 잘 어울린다)
That child goes to school.
(그 아이는 학교에 간다)

즉 “그 드레스(That dress...)”의 경우, 첫 번째로는 강류의미소 “안정(stasis),” 두 번째의 경우에도로는 강류의미소 “약동성(dynamism)”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빈사 “약동적”을 추리하는 용어 함수와 빈사 “안정적”을 위한 자질(qualification)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의소의 가능한 결합으로서의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함수 또는 자질,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행위주의 수를 소유하여야만 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메시지의 총체성(totality)은 의미작용의 통사론적 표출을 구성한다.

노트: 행위주 아티클레이션의 특별히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전체성(entirety)으로 그 자신에 의해 획득될 것이다.

d. 우의(affabulation)와 무의미(nonsense)

(노트: 어떤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 그 우의[寓意, affabulation; afabylosj]는 화술의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즉 심증-윤리[moral]”와 “은밀한 계략[plot]” 모두를 추리한다. 그러므로 그 대당은 “무의미[nonsense],” “횡설수설[radotage]”이며, 그것은 비통사론적 언어[허튼소리, 실없는 소리, 등]를 암시한다. 또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환유와 은유, 결합체적 그리고 계열체적 축은 이러한 식별을 만든다. —영역자)

표출 조직과 관련하고 있는 이러한 약간의 개념의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의 첫 단계에서 기술된 동류체의 선택(실제적 또는 신화적), 즉 어의소의 경계획정(delimitation)의 절차와 사용된 메시지의 구성을 곧바로 일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독해는 약동적 메시지와 안정적 메시지의 작용적 분

리에 의해 추구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 같다. 따라서 기술된 텍스트의 동류체는 메시지의 중복 목록의 형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합수적인 빈사가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만드는 것에 의해 의미작용 조직 안에서 약동적 차원을 도입하는 것은 행위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변화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계에 연기의 언어학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강제적인 것과 호격(呼格, vocative)을 파기한다면, 다른 빈사들은 실재성 속에서 연기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만, 세계의 사건에 대한 화술로서만 존재할 것이다. 다른 한편, 그 순간 우리는 화술의 주체(주사[主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든지 또는 그들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우의(寓意)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론적 동류체로부터 독해된 약동적 메시지의 목록이 실제적인 우의를 구성할 것이며, 역으로, 우의는 메시지의 구성을 위해 사용된 동류체든지 신화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자질적인 어의소의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메시지의 목록을 위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전제된 초미우주가 관습과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메시지의 역할은 그들이 추리하고 있는 것에 행위주의 존재(being)를 연속결정으로 확장시킴으로써만 존립할 수 있다. 그들의 목록은 다소 친숙한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된 관찰에 의해 하부에 구성된다. 만약 우리가 안정적 메시지의 이러한 목록을 무의미(황설수설, radotage)라는 명목으로 추리할 것을 제안해도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닐 것이다. 우의(affabulation; 어떤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 것; 문법적; 환유)와 마찬가지로 무의미(nonsense; 허튼소리, 실없는 소리; 비문법적; 은유)도 선택된 동류체에 따라 실제적인 것이 되든지 신화적인 것이 되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우의 또는 무의미로 고찰된, 구성하는, 통사론적 표출이 우리의 지식(knowledge), 즉 실행(doing)이든지 또는 행위주가 있는 “상징기호적 대상”의 존재(being)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련하고 있는 지식으로 고착된 도식(schemes)으로서의 메시지 단위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한다.

2. 착란적인(discursive) 표출

a. 조직의 화용론적(pragmatic)¹⁵¹⁾ 기초

의미작용의 조직이 담화(discourse) 안에서 작용하는 그 동향에 따라 폭 넓은 윤곽을 식별하는 통상의 실제적(practical) 우의를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 만약 일련의 실제적 행동이 그들을 내포로 따라서 비언어학적 실행(doing)으로 가장하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일련의 병치적 함수와 상응한다면, 예를 들어, 마치 윤색하는 것처럼 단순 어의소는 노하우(know-how[savior-faire])의 단자로 나타나는 전체 알고리즘의 함수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기원의, 따라서 내용이 공허한 고유명목에 의해 포섭된 브리예르(La Bruyère, 「Les caractères-사람도 여러 가지-」의 저자)의, 신화적 “무의미”는 자질의 총계로부터 “성격”을 생성시킬 수 있는 목류의 소인(素因, a principle of order)¹⁵²⁾에 복종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을 폭로한다. 함수적인 연속으로부터든지 또는 자질적인 목록으로부터든지 출발함으로써, 따라서 착란적인 표출은 통사론에 의해, 그들이 단자에 민감한 바로 그 사실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폭넓게 초월하고 있는 그 조직된 총체를 계속해서 산출하고 있

151) Stephen C. Levinson, 이익환·권경원 공역, 「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pp. 1~54. “기호들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통사론(syntactics, syntax)과 기호와 그들이 적용될 수 있는 대응물(기호들의 지시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기호와 해석자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화용론...,” “화용론이 기호론(semiosis)의 생동적인 면 즉, 기호들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모든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현상들을 다룬다고 말하는 것이 화용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다” 이하 참조. 국어학 사전, 한글학회 편(서울: 한글학회, 1995), 화용론: 현실적으로 주어진 언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언어를 있게 하는 언어의 주변을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화용론이 언어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해 더욱 주력하는 것은, 장면 없는 언어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실제하는 사실인 언어를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면의 구성 요소로는 말할이와 들을이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으며, 지금까지 나누어 온 이야기의 흐름(context)과 이야기로 하여 조성된 감정의 분위기가 있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변형, 생성이론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심각하게 도전에 부딪치자, 그 활로를 찾기 위해 등장한 화용론은 그 철학적 배경을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모리스(C. Morris), 오스틴(J. L. Austin), 카넵(Carnap) 등에 두고 있으며, 생성의미론자인 레이콕(Lakoff), 맥콜리(McCawley), 로스(Ross), 서얼(Searl), 필모어(Fillmore), 새독(Sadock) 등이 화용론 연구로 생성이론의 막다른 골목을 걸어가고 있다. 카넵은 모리스의 삼차원론을 답습하면서도 화용론을 언어학의 기본으로 보았고, 몬타규(Montague)는 언어 사용의 화맥(context)에서 진리치를 추구하는 의미론 연장으로서의 화용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촘스키(Chomsky)를 비롯한 카츠(Katz) 역시 화용론은 문법과는 달리 언어 사용자의 운용의 문제로서 문법학과는 다르지만, 별도의 언어 운용의 이론이 정립되어 발화 의미 면에서 화용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김종택: 국어 화용론 9~17). (역주)

152) regnum: 계(界, 동물 vs 식물), division: 문(門), class: 강(綱), order: 목(目), family: 과(科), genus: 속(屬), species: 종(種), variety: 변종(變種)과 같은 분류 원칙. (역주)

으며, 그것은 첫 번째 경우에는 형태소적 강류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체계적 강류가 되어 나타난다.

구조가 줄곧 단자화 되어왔던가(윤색으로) 또는 착란적인 시퀀스가 표현된 (Iphig: 「Les caractères(사람도 여러 가지)」에 나오는 여자 같은 남자) 바로 그때에 그들이 정확하게 단자화 되든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단자의 가능성으로, 함축적으로 아주 잘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그것은 착란적인 표출 안에, 의미론적 우주 조직의 원소의 존재자를 등록할 수 있는, 그리고 단자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그것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것이며, 그들은 의미작용의 메타언어학적 함수에 의지하고, 존재하며, 또는 담화에 의해 전제된 이것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의 소인은 우리가 단순 우의 또는 무의미로 추리했던 것 안에, 즉 내재세계가 착란적인 표출(메시지가 존재하는 구성단위)을 위해 제안 될 수 있는 소인(또는 제1원리) 안에, 정위될 수 있는 이러한 표출을 지배하고 있는 모델 안에 그리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는 과업을 가질 수 있는 의미론적 기술 안에 내재될 수 있다.

b. 착란적인 표출의 현존재로서의 모드

첫눈에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착란적인 표출은 이러한 모델의 조직이 여러 가지 모드로 현존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명시가 여러 가지 단계로 현존하는 것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어떤 경우에, 우의는 실제적 또는 신화적 노하우(know-how)가 달성된 알고리즘(algorithm)으로, 그리고 조직된 실제적 또는 신화적 지식으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명명법(nomenclature)으로서의 “무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2. 종종 우의는 에둘러 표현되고 테크닉 또는 오로지 신화의 불완전한 (incomplete) 알고리즘적 시퀀스로만 나타난다. “무의미”도 또한 종종 곡언법이 되고 분할적인(partial) 분류법적 체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기술은 이렇게 분할적인 표출의 총체로 간주하고 있는 모델에 그들을 종속시키고 있는 것에 의해 그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무의미”와 마찬가지로 우의는 실제적 표출 안에 신화적 성격의 고립된 메시지의 형식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고, 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 표출 안에서 신화적 확산으로 취급하고

있든지, 또는 신화적 표출 안에서 실제적 확산으로 취급하고 있든지 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착란적인 표출의 균형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한 번 더 나타나고, 이중동류체,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그리고 신화적으로 동시에 독해될 수 있는 각각의 메시지는 마치 민담처럼 우의의 어떤 장르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일종의 담화로서의 한 예일 뿐이다. 종종 그 복합표출은 불균형상태가 된다. 즉 어떤 때는 조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신화적인 것은 먼저 실제적 사건(practical concern)에 자리를 양보하면서, 오로지 그 확산 형식 아래에서만 드러난다. 다른 한편, 꿈 또는 시의 경우에, 실제적인 것은 신화적인 것의 무질제한 발전으로 괴로워하며, 그리고 확산 표출(예: 프로이트 [Sigmund Freud]의 2차적 가공, 즉 일종의 꿈의 작업, secondary revision, élaboration secondaire)로 안정된다.¹⁵³⁾

표출의 불충분함으로부터 모델의 비존재자(nonexistence)를 추론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불안정한 표출(줄잡아 말함 또는 에둘러 말함)은 완성된 모델을 전제하고,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확증하는 예를 인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그러한 현존재모드는 화자(개인적 또는 집합적)가 어느 특별한 모델을 시인하는 편애와 함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끝으로, 비록 자명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신론적 그리고 우주론적 차원 간의 편차가 매우 일반적인 성격으로 존재하는 것에 주목할는지 모르며, 그 착란적인 표출, 즉 신화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것은 다양하게 표출된 초미우주로 분리된다. 이것은 작용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예견되어야만 한다. 주어진 몇몇 테크닉과 분류법은 단순 텍스트 안에서 일제히 영끌어질 수 있으며, 그 기술은 모든 그 함수를 포섭하려고 하는 단순 모델을 구성하려고(예를 들어, 실제적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신화적 확산을 시작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노트: algorithm(알고리즘): 1. 알고리즘은 어떤 형태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

153) Sigmund Freud의 “프로이트 용어 간결한 기술을 위하여”를 보라. On Dream, trans. James Strachey(New York: Norton, 1952), pp. 73~77.

는 일군의 명백한 지시의 실행 안에서 고정된 분류의 규정을 의미한다. 규칙체계의 형식 안에서 기호학적 체계의 함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과제를 스스로 설치하고 있는 과학적 메타-기호학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구조의 형식 안에서, 전유규칙의 적용을 계획할 수 있는 결합체적 *knowing-how-to-do*와 상응한다. 또한 이러한 *knowing-how-to-do*는 화용적인 실행(*doing*) 형식의 모든 형태의 화술적인 담화 안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작용주체의 언어능력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며, 그리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모든 규칙의 명시에 의해 자율조작으로 알려진 작용주체의 조립(*the setting up*)에 의해 “중화된다.” 그러한 중립작용의 확립과 고유의 사용은 일종의 과학성의 조건이다. 2. 규칙적 시퀀스의 알고리즘적인 표현은 점진적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알고리즘적인 조작은 우선 어떤 분석절차에 의해서만 수여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화술적인 기호학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복합화술프로그램은 알고리즘적인 공식을 지금 당장 부여받을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최초단계로부터 변형적 알고리즘으로 고찰된 폐포화술의 최후단계로의 경과를 히락하고 있는 어떤 분류된 시퀀스의 작용을 제안했었다. 알고리즘은 기호사각형 상에서, 근본 텀(s_1)으로부터 그 모순(s_1)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함축에 의해 첫 텀(s_2)의 반대에 이르는 운반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떠받치고 있으며, 그것은 변증법적이라고 언급될 수 있다. 3. 때때로 알고리즘적인 언어학은 자율과정을 위해 언어학적 분석절차의 자율조작으로,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큐멘테이션과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특별하게 취급하는 언어학의 한 지류를 지시한다.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1, (역주)

c. 의미론적 초미우주(*microuniverses*)

착란적인 표출 상에서 반성을 더욱 밀고나가기 전에, 우리가 획득했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하여 잠시 한숨 돌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해했던 의미론의 우주에 대한 기술은 첫 번째로 내용표출을 떠맡는 것과 두 번째로 표출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 성격의 두 모델의 조력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계를 만들었다.

1. 내재세계(우리가 오직 공리로만 추리했던 첫 번째 모델에 부여되었던 명목, 그러나 그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은 여전히 기술된 것이다)는 표출세계를 떠맡을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그 존재자모드에 의해 표출된 내용은 어의소들의 결합이다. 반성된 의미의 무수한 효과상에서 불투명한 화면의 유형인 세계의 자질을 구성한다.

2. 또한 표출세계는 어의소를 메시지로 결합하는 것에 의해 그 함수를 조직하는 모델에 종속된다. 따라서 내재적 통사론은 매우 단순한 결합의 의미에 의해 표출메시지의 유형학을 떠맡는다고 하는 것이 제기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의 내재세계의 모델과는 반대로, 의미작용의 범주에 의해 구성된 표출세계는 메타의미소적 범주의 조력으로 구성된 통사론적 모델과 의미소

적 목록을 각각의 특별한 어의소에 제공하며, 어의소-산출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치 그들 안에 투자된 것처럼 내용과 독립적으로 강류로 고찰된 어의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독특한 계층레벨에 정위된 두 모델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표출은 결과적으로 이중 아티클레이션을 갖고 두 유형의 분석, 즉 어의소로 실현된 의미소적 투자를 위한 첫 번째 고찰과 투자된 내용의 조직을 위한 두 번째 고찰에 종속된다. 그것은 분석의 두 번째 유형의 조건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와 관련하고 있다고 정당화할는지 모르는 모델을 위한 탐구임이 분명하다.

처음에 우리는 표출된 세계 안에서 진술될는지 모르는 내용의 조직을 임시방편으로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통사론적 모델만을 강조했다. 먼저 그 통사론적 모델은 단순·천진난만함(simplicity)으로, 즉 소수의 구성적 원소로서의 메시지로 그리고 담화의 개시성 안에서 메시지에 할당된 매우 제한된 차원으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전에 부과되지 않은 잠정적 차원을 표출로 취급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단순·천진난만하게 여겨질 때, 그 문장이 왜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 것의 올바른 언어학적 활동이 발휘된 그 안에 담화의 가장 큰 시퀀스인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하나의 가능한 답만을 찾을 수 있다. 즉 통사론적 활동의 한계는 의미작용의 수용이 객관적으로 부과된 조건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다. 비록 메시지가 의미작용의 아티클레이션이 된 연속으로서의 수용으로, 즉 통시적 지위로 나타날지라도, 그 수용은 연속을 단순·천진난만함으로 그리고 의사통시성을 공식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에 의하는 것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브뢴달(Vigo Brøndal)을 믿는다면, 통시적 수용은 최대량의 여섯 개의 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⁵⁴⁾

따라서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모든 표출 레벨에 적합한 의미작용의 동시포착원리를 제안한다면, 메시지가 비통시적(achronic) 표출의 단위로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표출의 모든 조직, 즉 그 단어의 폭넓은 의미 안의 모든 내재적 통사론은 그 수용의 관점에서 내용의 조정을 고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그 의미론적 우주는 반드시 지각될 수 있으며, 파지(把持)될 수 있

154) Vigo Brøndal, "Structure et variabilité des systèmes morphologiques," p. 18.

으며, “생생해질 수 있는” 초미우주로 설파된다(說破, exploded).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적은 수의 텀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 의미작용의 구조로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을 투기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오로지 단순범주 또는 단순 텀 상에 고착시키는 것에 의해 우리의 반성(reflection)을 깊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첫 번째 이해(판단)에 대하여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의미작용의 하위계열적(hypotactic) 구조를 진진시킬 수 있다. 방법론적 반성의 이러한 단계에서, 이것은 초미우주 개념의 도입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구조로서 동시에 이해될만한 약간의 의미소범주에 의해 구성된 내재모델로 나타난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계열적 아티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동류체적 텍스트의 형식 아래 표출된 내용을 고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언급할 것이다.

d. 초미우주의 유형학

잠시 초미우주의 내적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쳐놓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먼저 표출의 특징상에서 발견된 초미우주의 최초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제안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표출의 다른 형식과 관련하고 있는 정보를 지금 곧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개의 분리된 목록, 즉 함수적인 메시지와 자질적인 메시지로 분류되어야만 하는 어떤 동류체 안에 정위된 메시지를 관측한다. 우리는 함수적인 모델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목록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조직의 이러한 모드를 고찰하고 있는 분석을 함수적인 분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의 두 번째 목록과 동일하다.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로서 그것은 자질적인 모델의 조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 사용된 기술절차는 자질적인 분석의 명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 표출로부터 만들어질 때,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ological) 초미우주로 고찰하게 될 그 함수적인 모델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석에 대해 상술할 수 있다. 그것이 신화적 표출을 기술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나타나는 관념론적¹⁵⁵⁾ 초미우주의 원인이 될

¹⁵⁵⁾ 관념론(idealism); 인식론에 있어서는 관념론,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는 유심론, 인생관·세계관에 있어서는 이상주의로 해석한다. 여기서의 관념론은 칸트, 피히테, 헤겔로 이어지는 인식론적 관념론을 지시한다. (역주)

것이다. 다른 한편, 그들이 실제적 표출을 내재할 것인 만큼 자질적인 모델은 과학적 초미우주로 고찰된다. 신화적 표출로부터 개시됨으로써, 그들은 가치론적 초미우주를 명백하게 한다.

따라서 내재로든지 표출로든지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고찰함으로써, 표출의 소인(素因)적 두 유형과 그들 조직의 예견할 수 있는 두 형식(form)을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론적 초미우주에 대한 첫 번째 유형학을 상상할 수 있다.

표출 \ 모델	함수(functional)	자질(qualification)
실제적(practical)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ological)	과학적(scientific)
신화적(mythical)	관념론적(ideological)	가치론적(axiological)

e. 빈사와 행위주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빈사(predicates)만을 고찰함으로써 단순화된 그리고 분할적인 관점으로부터만 메시지와 목록을 고찰했다. 따라서 함수적인 메시지의 목록은 함수의 알고리즘으로, 즉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결정의 강류를 구성하였던 자질적인 메시지의 목록은, 비록 외관상 연속적일지라도, 그들을 분류법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목록(order)의 소인에 종속된다. 다음에 우리는 조정(arrangement)의 두 다른 유형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모델의 존재자(우리에게 확실한 것 같았던 구조적 단순함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분석은 명백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를 허락하도록 제안했다. 어떤 것은 알고리즘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함축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시퀀스, 다시 말해서 분급상의 목록은 연언(連言)과 선언(選言)의 관계로 발견된다. 그러한 가언(hypothesis)은 주어진 의미론적 초미우주 안에 내용의 기술을 떠맡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을 아마 잠정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단순화는 행위주(actant)의 메시지를 괄호로 묶는 것으로 존재한다. 사실, 메시지의 연속은 그 안에 표출된 함수가 단일 행위주에 귀속된 모든 것이거나 아닌 것만의 알고리즘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단일 행위주의 결정을 포함하는 만큼만의 강류 안에 구성된 자질적인 메시

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다수의 행위주가 메시지와 메시지의 목록을 수용하는 혼란(복잡화)을 고찰함으로써, 다시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주와 빈사 사이의 관계는 메시지의 구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고찰되며, 우리에게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만약 개인적으로 얻게 된 메시지의 레벨에서 함수와 자질이 그 행위주에 귀속된 것 같이 보인다면, 그 역은 착란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생산될 것이다. 우리는 자질과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러한 레벨에서의 행위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행위주는 그들이 재현된 바로 그 사실로부터 메타언어학적 삶을 영위한다고 일컫게 되고, 우리는 빈사의 강류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언급하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함수적인·자질적인 모델이며, 마치 우리가 그들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행위주적 모델보다 더 높은 계층적 레벨의 조직 모델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주의 이중지위를 다음 방식으로 상술할 것이다. 투사된 내용처럼, 사실, 행위주는 각각 주어진 초미우주 안의 빈사에 의해 설치된다. 그러나 통사론적 아강처럼 그들은 빈사 이전에 정당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이유는 착란적인 활동이 이러한 실재물(entity)¹⁵⁶에 그 속성을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행위주의 어떤 범주화, 즉 그들의 다수성을 고찰하고 있는 행위주의 아강으로 강류 “행위주”를 분할하는 것은 그러므로 필연적이다. 일단 그들이 범주로 구성되면, 그들은 추리된, 또는 표출되어 초미우주 안에 초래된 빈사적 분석의 의미에 의해 방출된 내용을 조직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구조적인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 행위주적 범주

초미우주, 즉 행위주의 대당과 연언(連言) 형식인 의미세계의 재현 안에서 만큼 착란적인 메시지의 측면에 조직되고 있는 범주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것을 주제넘게 언급하고 있는 현 단계의 연구가 건방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 문제가 제기된 두 영역(우리는 언어학적 그리고 논리적 통사론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에서는 어느 만족할만한 해답을 받아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암시와 전체

¹⁵⁶ ‘entity’는 실재물로서의 실체(존재자)이지만, ‘substance’는 현상의 범주를 초월한, 그러나 객관이 아닌 실체이다. (역주)

형식(preformulation)에 겨우 삽입되기 시작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진술하게 될 분할적인 분석은 동일 문제에 오로지 화용론적(pragmatic) 접근의 구성원소가 될 뿐이다.

프랑스어의 통사론적 연구에 있어서, 행위주에 의미론적 내용을 귀속시키고 있는 담력을 가진 그 확장은 세 행위주 목록의 형식 아래서 경험주의적 해법(또는 이산)을 제공할 뿐이다.¹⁵⁷⁾

가동자(시험자, 원조자, agent) vs 수동자(수난자, patient) vs 수령인(beneficiary)

그들의 범주적 아티클레이션에 대한 염려 없이, 예를 들어, 그 사실에 대한 염려 없이 “수령인(beneficiary)”은 가동자(시험자, 원조자, agent)¹⁵⁸⁾를 전제하지 않지만, “증여자(benefactor, 또는 donor)”는 전제한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암시는 행위주를 2개의 명백한 범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다.

주체(subject) vs 대상(object)

발신자(sender) vs 수신자(receiver)

범주적 혼합주의의 해석에 의해, 의미에 의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주의 어떤 가능한 축적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술 안에서

이브가 아담에게 사과를 주다(Eve gives Adam an apple)

157) Lucien Tesnière, *Esquisse d'une syntaxe structurale*(Paris: C. Klincksieck, 1953); André Martinet, *Elements of General Linguistics*, trans. E. Palmer(London: Faber and Faber, 1964).

158) magic agent: 다음은 주술적 가동자(원조자, 힘, 작인, 동인)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① 동물(말, 독수리 등) ② 주술적 조수를 나오게 하는 대상물(말을 가진 부싯돌, 짧은이를 갖고 있는 받지) ③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몽둥이, 칼, 구슬리(gousli: 다섯 또는 일곱 줄의 헨 악기), 구슬 등 ④ 주인공에게 직접 주어진 성질이나 능력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 등. 주인공은 수동적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공). 또한 주인공과 그의 가동자는 하나이며 같은 인물이다. 예: “이반이 손가락에 받지를 끼자마자, 그는 말로 변하여, 아름다운 엘레나의 궁전까지 질주하여 갔다.” ⑤ 가동자(시험자, 시험을 하는 자, 원조자, 힘, agent) vs 수동자(수난자, 즉 시련을 받는 자, patient) vs 수령인(beneficiary). (역주)

주체 이브(Eve)는 이중관계의 시발점이다. 그 첫 번째는 이브(Eve)와 사과(apple)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브(Eve)와 아담(Adam) 사이에 확립되며, 이브(Eve)는 주체-행위주와 발신자-행위주와 동시에 일치한다.

또 다른 암시는 소위 통사론적 행위주와 의미론적 행위주 사이에 필연적으로 확립되어야만 하는 식별(구별)과 관련된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이브가 아담에게 사과를 준다(Eve gives Adam an apple)

그리고

아담이 이브로부터 사과를 받는다(Adam receives an apple from Eve)

행위주의 통사론적 치환은 그들의 의미론적 주연(周延) 안에서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며 변하지도 못한다. 기껏해야 우리는 통사론적 치환의 이러한 게임이 문체론적 투시도법을 위한(즉 작가에 의해 통사론적으로 두둔을 받는 행위주의 틀 안에서 화술 조직의 계열체의 활용을 위한) 시발점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그것은 최근 20, 30년간의 문학운동에 의해 활발하게 개척된 문체론적 차원의 하나를 구성한다.

앞으로 강조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충격적인 현상은 치환의 병존설이다. 즉 수신자는 함수의 레벨에서 병치적인 치환이 확립된 확장 안에서만 발신자로 변형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치환의 효과를 무효화시킨다. 이것은 메시지안의 2개의 다른 위치에 나타난 행위주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범주적 식별을 의미하며 함수 레벨의 그것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주의 레벨에서도 확립될 수 있다.

g. 논리적 통사론과 의미론적 통사론

이러한 최후의 해법(또는 이산)은 함수의 레벨에 정위된 논리적 통사론에 의해 선택되었던 것 같았다. 행위주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정위라고 하는 명목 하에 개념화된 어떤 메타의미소적 내용은 함수 상에서 논의된다. 따라서 그 유형의 진술 안에서,

x는 y의 위에 있다(x is above y)¹⁵⁹⁾

그것은 두 행위주의 직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전된 함수(논리호 표기법[symbolic notation]이 될지 모르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이다. 일단 이런 방식으로 정위되면, 통사론은 행위주(즉 “고유명목”)의 의미론적 투자를 배척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함수의 레벨에서 어려움을 배가시키며 그들을 진술의 결정 레벨로 운반한다. 따라서 그 자신을 위해 선택된 방식은 결합체적이고, 분류법적이지 아니며,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 그리고 관련사건의 형식으로 표출된 그 확장(extent)에 의미세계를 통제하는 것으로 충전된 대수학처럼 나타난다.

논리적 통사론의 모델을 모방하려고 할는지 모르는 의미론은 막다른 골목으로 매우 빠르게 우리를 안내할지도 모른다. 통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의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주장(assertion)의 무한한 기술 안에 빠져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힐렐(Yehoshua Bar-Hillel)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세계에 대하여 모든 관측을 비축할 수 있는 과지(把持)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한 사건의 목록을 그 자신 안에 정당하게 잔뜩 채울 구축된 과학도 없다. 게다가 그들이 십중팔구 떠맡게 될는지 모르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의미작용의 수용과 보존은 다른 한편을 반박할는지 모른다.¹⁶⁰⁾ 의미론적 내용에 통사론적 진전의 형식을 부여하는 대신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론에 통사론을, 그리고 구조에 사건을 환원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정성들여 만들었던 방법론으로 제공된 논리적 통사론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개의 진술에 접근함으로써,

x는 y의 위에 있다(x is above y)
 그리고
 y는 x의 아래에 있다(y is under x)

우리는 단순 의미론적 메시지에 2개의 진술을 환원하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행위주의 레벨에서 함수의 의미소적 내용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

159) above: 공간적으로 on이 “물체의 표면에 붙어서 위에,” over가 “내리덮듯이 위에”를 가리키는데 대하여, above는 “표면에서 떨어져 위쪽에”를 가리킨다. 이 공간적 “상위”에서 “우월, 초월”의 의미가 생겨났다. above vs below. over vs under. on vs off. (역주)

160) Yehoshua Bar-Hillel, 언어와 정보(Language and Information).

실, 우리는 동일 의미소범주가 빈사와 마찬가지로 행위주로 표출된다고 일반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다락방(garret) vs 지하실(cellar)

마치 위와 같은 2개의 행위주는 그들의 상호적 위상관계(位相關係)를 위하여 어휘화된 빈사만큼의 내용의 “위에 있다”와 “아래에 있다”의 의미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 내용의 이중형식화(위상적 그리고 직시적)는 표출된 의미작용의 일반 모드의 실례일 뿐이다. 함수적인 자질적인 분석이 행위주를 설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무엇을, 다시 말해서 그 행위주에 빈사가 속하는 강류의 의미론적 내용을 운반할 뿐이다. 따라서 만약 바로 그 일반적 성격의 행위주적 범주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행위주의 레벨에서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레벨에서 표출된다면, 그들에게 행위주적 형식화를 그리고 함수적인 것이 아닌 것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사전에 기술된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내용은 하나의 “드라마(drama, spectacle)” 그리고 이제는 일련의 보통 사건이 아닌 것으로서의 그 형식 아래 그 자신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h. 행위주적 범주의 양태적인(modal) 성격

행위주적 범주의 함수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이 과장된다는 것인 것 같다. 각각의 범주는 단순 메시지 안에서 적어도 두 번 확실하게 표출된다. 먼저 그것은 각각의 행위주 안에서 그 텀의 하나로 나타난다. 그때 그것은 두 행위주를 연결하고 있는 그 함수 안에서 동시에 두 텀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그 발화

“Peter가 Paul을 때리다(Peter beats Paul)”는

다음의 방식 안에서, 그 텀 s 그리고 비s와 함께 범주 S를 표출한다.

$$A_1(s) + F(s + 비s) + A_2(비s)$$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함수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확립된 형태-통사론적 관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것은 동차-범주적 관계(동차-정언적 관계, homo-categorical relationship, 또는 우리가 좋다고만 한다면, 우리 자신의 용어법에 따라, 상위개념적 관계)이다. 그것은 총체성에서든지 그 텀의 하나에서든지 하여간 재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행위주와 빈사의 강류 안에 이미 조직된 내용상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투기(投企)일 뿐이며, 다시 말해서, 어의소의 강류보다 계층적으로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구조의 투기일 뿐이다. 만약 그 행위주를 우리가 분리된 어의소의 강류로 서둘러 정의했다면 따라서 그들이 주체, 대상, 발신자, 수신자, 함수로 구성된 메타의미소의 형식 안의 보충적 결정을 수용한다면, 게다가 그것을 우리가 행위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범주에 의해 획득되고 있는 통합의미소적 내용으로 고찰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메시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건의 “드라마(drama, spectacle)”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위주에 귀속된 특별 역할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위치에서 관측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행위주적인 것이라고 불렀는데, 그 범주는 각각의 메시지-드라마에 고유의 지위를 부여하는 성격의 양태범주와 동일한 것 같다. 의미론을 위한 과제는 방법론적 반성의 이러한 레벨에서 상술된다. 우리는 양태범주의 활용으로 함수적인 분석 또는 자질적인 분석(또는 동시에 양측의 분석)에 의해 기술된, 오직 변이만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 행위주적 구조, 그 내용의 형식 안에서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존재자모드에 대한 유형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노트: modality(양태성); 1. 발화의 “속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 양태성(modality)의 전통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관점에서, 양태화는 기술발화를 초월해서 결정하는 소위 양태발화의 생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태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다. 양태동사(그리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양태표현의)의 목록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들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이탈하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고찰하는 것이 이치에 적합하며, 기본발화(실행발화와 상대발화)의 두 형식(규범적으로 밝혀진)은 기술발화의 통사적 기술에서든지 또는 양태발화의 상위계열적(hyperotactic) 기술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음처럼 고찰될 수 있다. 즉, (a) 존재(being)를 양태화하는 실행(doing, cf. performance; 언어연기, art; 예술), (b) 실행을 양태화하는 존재(being, cf. competence; 언어능력), (c) 존재(being)를 양태화하는 존재(being, veridictory modalities; 진정성이 있는 양태성), 그리고 (d) 실행을 양태화하는 실행(factitive modalities; 작위적 양

태성)과 같은 목록을 말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적 관점에서 보면, 양태의 속성은 대상으로 획득되어 다른 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전략적 함수에 의해, 그 타동적 목적에 의해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정의될 수 있다.

2. 이러한 기반에서 2개의 결론이 생긴다. 그 첫째는 담화의 발화의 통사적 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프레이즈 구조의 문법은 파생어의 단계(또는 지위)로 해석된 부속물의 레벨을 인식하는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담화적 레벨(또는 담화형태의)의 그 존재자가 양태구조(기술단계를 초월하여 결정하는 양태의 단계)의 재현 사실에 기인하는 초월적 측면에서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새로운 결합체적 계층은 양태화된 구조를 연결하는 하위계열적(hypotactic) 구조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그대 발화담화의 통사적 조직의 원리의 하나로 공리화될 수 있는 양태화의 유형학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두 번째 결과는 반드시 양태화의 유형학과 관련된다. 귀납적인 접근은 매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가언적 연역절차만이 자연언어의 양태의 혼동된 목록 안에서 일종의 어떤 체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을 소유한다. 양태적 논리가 다음과 같이 유사한 접근의 예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실치 않은 양태분야를 인식한 후에, 그들은 그들로부터 어떤 “진실 가치(예를 들어, 심미적 또는 의무적)”를 선택하고, 그들의 연역과 추정을 위하여 시발점으로서 자명하게 조정(posit)한다. 기호학적 절차는 보다 많은 구체적 논리 위에서 모든 것의 첫 번째로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이며, 더 나아가, 화술의 측면에 위치가 잡혀지고, 그것은 담화 또는 자연언어의 조직을 초월한다. 그러한 연구는 요망(waning), 의무(having-to), 능력(being-able), 그리고 지식(knowing)-실행(doing)과 마찬가지로 존재(being)를 양태화할 수 있는 양태가치가 담화의 기호학적 조직 안에서 연기하고 있는 개념적 역할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다른 한편, 언어학에서 소쉬르적인 전통은, 더 나아가 그 전통과 모순되지 않았던(그리고 그것은 철학 속으로 멀리 되돌아들어 간다) N. Chomsky는 존재자모드의 그리고 존재자의 레벨, 즉 내포적(virtual), 외연적(actual; 선언), 실현된(realized; 연언) 그것의 텅 안에 반영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도록 했다. 이러한 모드와 레벨은 이미 실현을 가리키고 있는 제로로부터 팽팽히 늘어나고 있는 긴장(G. Guillaume)으로 해석될 수 있는, 궤도를 이탈한 많은 영역을 구성한다. 비록 기호학이 자명한 선언에 의해 그 이론의 중앙에 기본적 양태구조를 설치하여 마치 논리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삼고 있을지라도, 그 기호학은 떠맡은 일을 위해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버팀목을 찾는 것에 의해 탐색의 가언적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

4. 성공적인 상호정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을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인 양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근거를 허락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호정의의 표준과 양태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각각의 양태는, 한편으로는 상위계열적 양태구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사각형 상에 재현될 수 있는 범주로 정의될 것이다. 따라서 실현화를 주도하고 있는 팽창궤도를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식된 양태는 다음처럼 도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양태성 (Modality)	내포화 (virtualizing)	외연화 (actualizing; 선언)	실현화 (realizing; 연언)
외인책략(外因策略) (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 (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內因策略) (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 (KNOWING)	존재(내관) (BEING)

렝스토르프(M. Rengstorf)의 제안에 따름으로써, 번역-전격관계(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발화를 함께 연결할 수 있다)로 진입할 수 있는 양태는 외인책략(外因策略)으로 지시될 수 있다. 단순 양태(동일한 또는 용화된 주체와 함께 연결하고 있는)는 내인책략(內因策略)으로 불릴 것이다.

5. 또 다른 분급의 표준, 바꿔 말하면, 양태화(실행의 강류와 존재의 강류)된 발화의 성격은 양태화의 폭넓은 강류 사이의 차이를 허락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규칙 having-to-do의 양태구조는 필연 having-to-be의 양태구조와 대당관계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유연관계(類緣關係)를 지킨다. 첫 번째의 경우에, 빈사적 관계는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 위에서 보다 더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양태화로 보여질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 그것은 “양태화된” 대상(그것은 상태발화다)이다. 그것은 아마 발화의 정돈된 시퀀스(예를 들어, 내포양태를 전제로 삼고 있는 외연양태)로 형식화될 수 있는 양태화 과정을 강제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퀀스(having-to-do는 not-being-able-not-to와 함께 일치할 수 있다. 반면에 wanting-to-do는 not-knowing-how-to-do와 일치할 수 없다) 안에 일치와 상반을 추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의 양태화 전략은 전적으로 상상적이다. 그것은 양태화된 주체와 대상(발화)의 유형학의 확립을 허락할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93~195. (역주)

i. 언어학적 인식론

이러한 레벨을 제기함으로써 의미작용의 조직모델이라고 하는 존재원리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 진전토록 한다. 사실 그것은 세계의 지식의 언어학적 조건의 존재자를 나타냄으로써, 따라서 언어학적 인식론의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존재한다.

전에, 의미작용의 단위로 표출된 의미소적 결합의 구성(행위주 안에서, 분리된 언어학적 대상 안에서, 그리고 빈사, 통합된 의미소적 총체성 안에서)을 고찰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았던 “총체성”의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고의로 언어학과 인식론을 혼란시켰다. 어느 언어이론이 메타언어학적 구성으로 고찰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석되지 않은 메타언어학적 개념은 계층적으로 보다 높은 인식론적 목록 안에 정위된다.

메시지구조의 분석은 당초와 다르게 어떤 무엇으로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강요한다.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양태범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충전하며, 그리고 구성된 언어학적 대상 간 관계의 결정된 유형이 세계의 어떤 광경을 강요하는 메시지의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의 확립에 의해 그것을 조직한다. 따라서 “타동성(transitivity)”¹⁶¹의 범주는 그렇게 언급되도록 강요

161) 연인변형(conjunctive transformation)의 attribution(귀속)과 선인변형(disjunctive trans-

하고 행위주 간 관계의 어떤 유형을 이해하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외관상 행위의 힘으로 충전된 행위주 그리고 외관상 관성(慣性)으로 투자된 또 다른 행위주로 우리 앞에서 자세를 취한다. 그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와 동일하며, 교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원인이 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결과)가 되는 것 등으로서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설치한다. 이제 의미작용을 조직하고 있는 이러한 범주의 수는 감소된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따라서 설치된 드라마의 유형학은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메시지구조의 총망라된 기술로 발견된 그러한 유형학은 오직 변이일 것이며, 의미론적 초미우주와 자신을 동정하고 있는 내용의 재현 안에 객관적 프레임을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지식의 언어학적 조건은 형식화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우주론적 의미작용의 기술을 위하여 실제적인 결과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지극히 다양한 신화적 표출로 취급할 때, 다른 인문학 분야에 의해 실제화된 그 분석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만약 오직 그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면, 동형체적인 것도 아니고 비교될만한 것도 아닐 것이다. 양태범주가 빈사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만큼, 그들의 역할은 형식화에 그리고 판단의 통제에 제한된다. 그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그들 스스로 조직하고 있는 의미론적 초미우주에 따라, 그들이 빈사적인 것과 행위주적인 것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는 모델로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양태범주의 영역은 거의 개척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겨우 “양태(modal)”라고 하는 언외지언의 샘플(비록 목록에 지나지 않을지라도)뿐이며, 그 샘플은 다음에 어떤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체 상에서 언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당하게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수용될 수 있다. 두 행위주적 범주의 첫인상을 우리는 프랑스어 통사론에서 외삽(外挿)했으며 그것은 대당관계로 표현된다.

주체(subject) vs 대상(object)
 발신자(sender) vs 수신자(receiver)

formation)의 dispossession(강탈)을 의미한다. (역주)

첫 번째 범주는 목적론적 목류이며, 두 번째의 범주는 인과론적 목류이다. 전자는 힘의 변조이며, 후자는 지식의 변조이다.

노트: 이차적 접합, “보조자(helper) vs 반대자(opponent)”는 나중에 나타나는데, 민담의 구체적인 분석으로 등장한다. 우리는 의지(will)의 변조로 고찰하도록 유혹받는 어떤 무엇을 갖게 될 것이다.

3. 격아강적인 표출과 비격아강적인 표출

a. 하나의 예: 시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주적 범주를 명백히 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초미우주의 조직을 위한 모델로 제안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던, 함수적인 메시지 상에 놓도록 했던 역설이, 그러나 자질적인 존재자의 광경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착란적인 표출로부터 구성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주의 의미 소적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만 기여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목록을 매우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소위 그 행위주적 조직은 동일 표출 안에 미늘을 단 함수적인 메시지를 고찰하는 것에 의해 오직 결정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자질적인 담화 하나만을 만들어내는 착란적인 표출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유형의 담화는 언제나 자세하게 구명될 위험에 종속된, 폐쇄로 멸종될 위기에 처한 입장으로만 표현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동정하도록 다소간 의식적으로 언어의 결합체적 측면으로 언급하도록 많은 언어학자들을 압박했던 이유의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순수 자질적인 표출과 무언가 존재하는 것(what are)¹⁶²⁾이 현존하는지 안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며, 무언가 존재하는 그 경우에, 그 조건은 전승을 가능케 하고 또 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를 구성한다.

만약 우리가 언어학적 활동의 병리적 양상을 무시한다면, 표출의 이러한 유형의 극단적인 예는 “현대시(modern poetry)”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의해 재연(再演)될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흔히 “통사론을 파기하는 것(abolishing

162) existence가 아니라 being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syntax),” 즉 함수적인 메시지의 수를 가능한 만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목표 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동류체의 딸림음으로서의 지배(dominance)¹⁶³와 함께 복합표출의 좋은 예로서 그 실현화(실상화)의 어떤 무엇으로 나타난다. 단순 불가결의 최소한도에 실제적 동류체가 환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첫눈에 그것은 신화적이며 자질적인 표출로 동시에 정의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시에서의 실제적인 옹호의 우유부단함은 신화적 표출의 진전에 의해 상쇄된다. 따라서 어의소 안으로 표출이 분배되고 있는 것은 신화적 측면의 조력으로 여기서 위치를 잡게 되며, 그 시적 어의소(이미지, 상징기호, 그리고 은유적 정의와 결합체)는 그 경계가 실제적 측면의 부정적 어의소의 이것과 더 이상 상응하지 않는 부정적 격상으로서 그 지점에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표현에 부정적 어의소보다 용어 격상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경계획정 기준이 보다 더 유연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로, 반면에 어의소가 존재하는 균형적 복합 표출이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치에 삽입되고, 그때 실제적이며 신화적인 사용을 위해 일하며, 부정적 표출 속에서 어의소의 핵은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언급한 브리콜라주(bricolage)¹⁶⁴처럼, 그들이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오직 사용된 사건처럼 거의 나타난다. 사실 그 “다른 어떤 것”은 시적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이며, 즉 내소여와 자기소여적(proprioceptive) 강류의미소와 함께 결합된 약간의 의미소범주의 반복이며, 시적 동류체를 구성한다.

163)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94~95. dominance(딸림음으로서의 지배); 1. 전체 범주의 표출로 유지된 중립작용의 이 텀은 딸림음 같은 지배(dominant)로 호칭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당이 지시조용소적(anaphoric) “ils(il의 복수, 그들은)”의 출현에 의해 중립화될 때, 거기에는 남성의 딸림음 같은 지배와 함께 중립화된다. (“They(ils)”); 둘 이상의 전체성에 귀속됨으로써, 적어도 그 중의 하나는 남성의 성으로 존재한다. 2. 브린달(Vigo Brøndal)에 의하면, 그 편차는 복합적인 텀의 다양성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그것은 기호사각형의 두 반대의 텀을 함께 포착한다). 즉 지배하고 있는 텀이 조정적인 직시에 속할 때, 그리고 대당의 경우에 부정적인 지배와 함께 복합적인 텀에 속할 때, 그때의 조정적인 딸림음으로서의 지배를 말한다. 왜냐하면 그 복합적인 텀이 원소적인 텀의 세 번째 생성의 결과로 존재함으로써, 그들 아티콜레이션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궤도에 따라 조우된 결합응축의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역주)

164) bricolage(손이 닿는 아무 것이나 이용하여 만드는 것)는 축어적으로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tool of pottering)”이지만,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어느 수단(목적을 위해 필연적으로 추리되지 않은)을 의미한다. 곧,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야성적인 사고(The Savage Mind)」, pp. 16~18을 보라.

격상의 역할은 신화적 표출의 이러한 유형 안에서 이중적이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그들은 시적 동류체의 구성적 의미소를 그 자체 안에 운반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의미소의 중계 장치(또는 驛站 relays), 즉 각각을 위한 의미소적 치환이 성취된 장소로 기여한다. 따라서 확립된 동치는 형식적으로 확인된 의미소적 강류 안으로 시적 메시지의 과장적 전달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당초부터 충전된 기본 의미소범주를 변형시킨다(다음 장 참조). 사실 격상은 의미소의 계층이다. 예를 들어, “sky(하늘)”는 그 스스로 다른 대상들에 둘러싸여, “수직성,” “광도(光度),” “유동성” 등의 의미소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어의소로 격상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들 사이의 하위계열적 관계가 관계의 동치로 외관상 명백하게 변형된다. 그런데, 그것은 뒤랑(Gilbert Durand,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 구조(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뿐만 아니라 구조 동형체의 명목으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서도 기술된 관측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변형은 어의소 안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제2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제1의 사실과 표출의 이러한 유형 안 어의소적 구조를 의미소범주의 동차화(homologation)로 고찰하는 경우에 한해, 시적 커뮤니케이션이 본질적으로 어의소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레벨에서 내용의 표출을 위해 문법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일상담화와 같은 의미소적 내용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한해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신화적 표출의 기술은 어의소로 “현현된(incarnated)” 상징기호의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화맥(context)으로부터 방출된 의미소의 존재자를 인식함으로써, 부정적 동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장적 의미소의 강류 안에 조직된 가능한 존재(내관, being)는 주어진 메타텍스트 안에 목록화된 격상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위한 많은 기준으로 문제의 의미소범주를 고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이것은 시적 커뮤니케이션이 분류법의 착란적인 표출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시적 논리적 명백함을 만들고 있는 표출 초미우주의 기술이 그 자체로 자명할 수 있는지 또는 행위주-어의소가 의미소적 결정의 연속적 귀속에 의해 특별한 반복격상으로부터 구성될 것인 자질적인 모델의 구성으로 결합되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질적인 분석은 아티클레이션(우리가 자기소여적 범주 행복감[euphorial] vs 불쾌감[dysphoriam]을 팔호로 묶는 것을 조

건으로, 그것은 그것을 위해 가치론적 성격을 부여하며, 우리는 우주론적 차원을 위하여 정신론적 차원을 변형하고 있는 강류의미소적 교환을 연기한다)이 “야성적인 사고(The Savage Mind)”의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분석된 과학적 분류법(식물학적 또는 동물학적)으로부터 하여튼 구조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계층의 기술로부터 유래하며, 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실제적 표출의 측면에 내재한다.

b. 함축적인 것과 명백한 것

분류법의 형식에서 그러한 격아강적인 표출의 기술이 그들을 지원하고 짜 맞추는 반면에 표출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일반 의미소범주의 존재자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기술이 처음엔 그들을 명시하는 것으로, 마지막엔 격아강적인 표출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논리(레비스트로스 [Claude Lévi-Strauss], 야성적인 사고)”를 명시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마치 실제 행해진 것 같은 판단의 방식(랄랑드[André Lalande])”으로 이해된 용어 논리는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시적 표출의 분류법적 원소로 사용된 관자놀이-공간적 의미소범주를 기술하려고 했을 때 그에 의해 제안된 용어 시학보다 더 일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방식으로 보다 더 적합하게 한다.¹⁶⁵⁾

그것은 순수 언어학적 관련과 연분이 먼 것으로 동일 투시도법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리샤르(Jean-Pierre Richard)의 어떤 작품에 정위시킬 수 있다. 특히, 모롱(Charles Mauron)¹⁶⁶⁾은 「말라르메(S.

165) Claude Lévi-Strauss, *The Savage Mind*(야성적인 사고), 1장, André Lalande,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Paris: Press Universitaire de France, 1962), p. 573;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공간의 시학).

166) 샤를르 모롱(Charles Mauron, 1899~1966): 심리비평가. 1963년, 샤를르 모롱은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구조방법을 고안했다. 그 연구는 4개의 다른 프레이즈를 포함한다. 1. 창작과정은 백일몽과 혈족이다. 그 자체로 그것은 모방, 그리고 카타르시스, 은유와 상징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고 폭로된 무의식의 충동과 욕망의 표상이다. 2. 그때, 작가의 작품의 병렬은 상징적 주제를 정의하는 비평가로 유도한다. 3. 이러한 은유적 네트워크는 잠복성의 내재사실성의 의미작용으로 존재한다. 4. 마치 꿈과 같은 망상의 관점에서 그들은 행동할 수 있다. 마지막 프레이즈는 작가의 문학적 창의성을 그 자신의 개인적 삶에 연결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조물주는 추론 그 자체에 밀려들 수 없다. 다소간 그 자신의 외상적·전기적 과거, 무의식 그 자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정신’으로 꼭 채워진 그 문화적 원형, 그 두 이야기 간의 교차대구법(交叉對句法; 말의 X자 모양 배열 전환; 보기: We live to die, but we die to live.)의 관계는 제정신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실연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성격충동은 조정(措定) 안에서 상징적으로 채워지고, 유쾌한 방식, 즉 승화로 알려진 과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채워진다. (역주)

Mallarmé)의 상상적 초미우주」의 저자 리샤르(Jean-Pierre Richard)가 시와 형이상학의 두 측면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한다.¹⁶⁷⁾ 그러한 혼란의 지식만 없다면, 그는 리샤르(Jean-Pierre Richard)의 분석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사실, 신화적 표출의 기술이 이러한 레벨에 명확한 가치론의 원소를 추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기술의 바로 그 사실 안에서, 격아강적인 표출의 함축적인 데이터의 번역-전격(translation)은 다른 언어의 형식화되어 명확한 모델로 발생한다. 이러한 번역-전격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며, 특별한 언어학적 공동체로 또는 공시대(共時態)의 프레임으로 실현된다. 즉 명시된(시적, poetical) 초미우주로부터 다른 것(문학비평)으로 이탈하여, 또는 통시대의 프레임 안에 실현된다. 우리는 벌써 소크라테스 철학 이전의 그것과 매우 밀접한 예를 사용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화학을 “관념론(ideology)”으로 번역-전격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번역-전격은 또한 인위적(artificial), 즉 명백한 대상(객관)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론적 욕망에서 유래된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때 조직 모델의 현존재모드에 대한 문제는 메타언어학적 계층의 그것과 동시에 존재한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레벨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함축적 레벨: 어느 신화적 또는 실제적 표출은 담화 정도로 진전하는 한에 있어서 그 자신의 조직 모델을 함축적으로 갖게 된다.
2. 부분적으로 명백한 레벨: 그것은 이러한 관념론과 형이상학의 자연적 번역-전격을 위한 경우인데, 그것이 비록 어의소적 레벨에서 흔히 비격아강적인 방법으로 형식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란적인 표출이 종속된 모델을 함축하여 유지하고 있다.
3. 명백한 레벨: 이것은 표출의 의미론적 기술을 목표로 삼는다. 그것은 인식의 레벨이든지 추상의 단계이든지 하여간 모델의 형식화가 될 것인지도 모르며, 담화와 마찬가지로 어의소를, 새로운 표출을 구성하며, 따라서 그들을 동일 의미론의 우주 안에서 통합한다.

c. 비격아강적인 것

167) Charles Mauron, Introduction to the Psychoanalysis of Mallarmé, 번역, Archibald Henderson과 Will McLendon(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담화함수의 레벨에서 이해된 메타언어학적 활동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의와 단자의 왕복운동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언어학적 시점에서 고찰된 과학적 활동과 동일하며, 단자의 간단없는 질차이다.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의미론적 기술은 다르게 진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쓸모 있는 언어학적 자료를 사용하며 또는 발견된 정의적으로 폭주(輻輳, convergence)¹⁶⁸⁾하는 핵을 단자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조하고, 따라서 그것은 기술적 메타언어학의 텀으로 그 자신을 구성한다. 그 문제는 그들을 보통의 어의소와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공통단자의 성격을 묘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용어법적 표출의 지위를 완전히 상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언어학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상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예(그리고 우리의 기술적 용어법이 신인동형동성[神人同形同性]적 표출과 편차가 있는 것처럼 격아강적인·회화적인 표출과도 마찬가지로 소원[疎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적당한 허용오차[allowance]와도 편차가 있는)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허약한 조밀도(density)에 의해 기술적 어의소를 정의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르며 그리고 그들을 추상적이라고 고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추상의 개념은 고찰된 모든 어의소를 떠맡지 못한다. 만약 기술적 메타언어의 함수와 자질이 흔히 추상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빈사적 결정의 조력으로 구성된 바로 그 사실로부터 나온 행위 주들은, 역으로, 구체적일 것이다.

168) convergence: 이 의미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1. 폭주(輻輳, convergence); 두 눈의 주시선(注視線)이 눈앞의 한 점으로 집중하는 일. 2.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 유체의 확산 및 확산비율. 기상학적인 관점으로 공기의 수평유입과 유출을 의미한다. 수렴지역에서는 수평 바람의 수렴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 공기의 속도는 증가한다. 반면 수평 바람의 발산은 공기의 하강운동(침강)을 일으킨다. 지면의 대기압은 수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그 상층에서 발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북반구 해양 위와 같은 아열대 고기압 중심지역에서는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수렴이 일어난다. 이는 해류가 풍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기 때문이다. 해수가 수렴됨에 따라 와동(渦動)의 중심에 물이 모이게 되어 그곳이 가라앉게 된다. 이러한 침강은 빠른 증발로 인한 밀도(염분) 증가에 의해 더 가속된다. 반대로 알류산 열도나 아이슬란드 저기압지역에서의 해수면 발산은 거대한 저기압의 시계 반대방향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3. 수렴(收斂, convergence); 함수의 변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급수의 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극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질(특정 함수나 급수에 나타남). 함수 $y=1/x$ 은 x 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0에 수렴한다. 실제로 y 값을 0이 되게 하는 x 의 유한값은 없지만, x 를 충분히 크게 함으로써 y 를 원하는 만큼 매우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y 의 극한값은 0이다. 한편 직선 $y=0(x$ 축)을 이 함수의 점근선이라 한다. $-1 < x < 1$ 를 만족하는 임의의 x 값에 대해 급수 $1+x+x^2+\dots+x^n-1$ 은 항수 n 이 증가함에 따라 극한 $1/(1-x)$ 로 수렴한다. 구간 $-1 < x < 1$ 를 급수의 수렴 구간이라 하며, 이 범위 밖의 x 값에 대해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한다. → 무한급수. (역주)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고찰하는 것과 일치할지도 모르며, 우리가 그들을 “구체적 논리”의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 같았던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주장에 따라 고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아마 동일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구성된 결정과 편차가 있는 의미소는 아주 흔히 감지할 수 있는 성질(quality)에 의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대당을 정의하는 의미소적 조밀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준(세미올로지의[semiological] 레벨의 결정한계를 활용했던)을, 다시 말해서 무제약·이율배반·자유의지의 방향적 범주(芳香的 範疇; thymic category)의 도입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식론 차원의 이것은 최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격아강적인 어의소의 표현(expression)이다. 사실, 어떤 레벨로부터 표출의 다른 레벨로 변천하는 것은 어의소 안에서 희박화에 의해 초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핵격상소의 붕괴(dissolution)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정의 안에 담겨진 격아강적인 어의소 또는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로부터 발생하는 의미론적 단자는 모델의 구성을 목표로 오로지 타당한 의미소를 추출하는 것에 의해 존속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시적 표출의 기술은, 예를 들어, 마치 상층의 행복감과 하층의 불쾌감과 같은 가치론적 어의소(우리가 “단차화 하지” 않은)로 사용된 의미소 “높은(high)” vs “낮은(low)”만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다락방과 지하실의 격상을 단념할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 언어가 왜 그리스-라틴어의 어근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다. 즉 그들의 사용은 이전의 정의상에서 그들이 거의 배타적으로 확립된 비동기화된 의미소적 내용의 의미에 의해 구성된 어휘소에 귀속하는 것을 허락한다.

내적 구성의 어의소만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많은 비격아강적인 어의소의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그 표출은 비격아강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노트: configuration(형태, 초미-화술); 1. 먼저 담화적 형태는 하나의 자율적 통사론적-의미론적 구조와 함께 초미-화술(micro-narrative)의 일종인 것 같으며, 그것은 보다 큰 담화적 단위 안에 통합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 이렇게 큰 단위 안에 그들의 정향을 상응시키고 있는 함수적인 의미작용을 획득할 수 있다.

2. 이러한 형태에 의해 대두된 소산(결과)은 그들이 마치 민속학(예를 들어 J. Bédier)의, 예술사(특히 Panofsky) 등의 영역 안 19세기의 방법론적 전통으로 형식화되었던 것처럼 모티프(작의, 또는 동기)로 대두된 것들과 연결된다. “감응이론(theory of influence)”의 기초

구조에서 보았듯이, 모티프는, 어느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관습에서 벗어난 사람의 편을 들거나 새로운 의미론적 투자로 그들 이전의 의미작용의 분할적인 또는 총체적인 상실과 함께 보다 큰 세트에 통합될 수 있는 화술적 또는 격아강적인·자율적인 그리고 유동적인 형식으로 관측된다. 모티프의 그러한 궤도는 형식의 일반적 역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중세 프랑스의 우화시(fabliaux)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수집된 매우 다른 형식의 컬렉션인 것처럼 관측되었으며, 그것은 고대 인도의 문화와 기꺼이 동정된 단일하고 최초이며 창조적인 발생원이었다.

3. 동시에 탁월한 그 역사적 투시도법은 학자들로 하여금 인식된 형식의 기원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표절된” 형식이 포함된 그 안의 감수성이 예민한 구조(담화, 텍스트)를 간과하도록 했다. 투시도법 안의 그 적응적(適從的) 변화는 상수적(常數的) 기초구조 안에서 변화무쌍한 것으로 고찰된 새로운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감수성이 예민한 형식(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담화구조를 포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전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보다 큰 담화의 기초구조의 모티프라고 호칭되는 조미구조(micro-structures)를 식별한다.

4.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시도하고도 무언가 부족함을 발견했던 “감응이론”의 비평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기호학(semiotics)에서, 정위된 방법론의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비교방법론은 그것과 치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어진 담화(예를 들어, 프랑스의 에스노-문학적 담화)의 세계 안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이며, 그 모티프의 유동성은 인식된 사실이다. 마치 “결혼”처럼 또는 “공평한 할당”처럼, 모티프는 이야기의 중간 또는 끝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단에서 발견되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고 있는 구조(새로운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작용의)와 수용된 구조(모티프)의 구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5. 그러나 첫눈에 이상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프래스틱적인 언어(phrastic linguistics)¹⁶⁹⁾가 다른 레벨에서 문법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유비(analogy)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태론적 그리고 결합체적 강류의 수많은 자연언어 안에서 비병존설에 의해 대두된 끈경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형태론적 강류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정언적(categorical) 문법을 구성하며, 역으로 순수 결합체적 문법은 이를테면 영어와 같은 언어의 관례 안에서, 병존설(“to fear”의 경우, 동사와 빈사)의, 문법적 발산 장면(“to be afraid”)의, 또는 의미론적 “이탈(“to sports clothes”에서 “sports”는 명사적 성격을 상실한다)”의 사실과 나란히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결합체적인 강류만을 오로지 교묘하게 다루어야만 할는지 모른다. 비록 마치 모든 것이 고찰된 몫(proportion)과 같을지라도, 결합체적 유형의 화술적 문법은 체제화 그리고 담화적 형태(조미-화술)의 통합절차로 고찰할는지 모르는 “형태론적” 하부구성원소를 부가해서 답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C. Bremond에 의해 고찰된 것처럼, 화술적 논리는, 심층 의미 안에서, 화술적 기호학(semiotics)이 엄격히 언급하는 것보다 더 “형태적(조미-화술)인” 기호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도록 하는 것 같다.

169) phrastic은 상이한 기분을 공유하는 문장의 양상이다. “the door is shut(도어가 닫혀있다)”, “Shut the door(문을 닫아라)”, “Is the door shut?(문이 닫혀있나?)”, 그리고 “Would the door were shut!(그 문은 닫혔을 것이다!)” 등과 같은 문장 사이에, 다양한 인표(言表; neustic)적 또는 기분적 지시자가 덧붙여진 그것에, 우리는 “the door being shut(닫힌 문)”의 공통 내용을 고립시킨다. 즉, phrastic은 명제의 내용, tropic은 화행을 나타내는 부분, neustic은 명제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commitment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paraphrastic;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함/holophrastic; 일어문(一語文)적인/periphrastic; 우언적인. (역주)

6. 담화적 형태(초미-화술)의 연구는 여전히 형태 그대로 있으면서도 반드시 담화적 기호학 안에서 매우 절박한 과업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 즉 담화적 형태(초미-화술)의 내부체제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보다 큰 담화적 화맥 안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된다.

7. 우리가 언급했던 담화적 형태는 초미-화술로 나타난다. 이것은 형태가 화맥 상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고, 그 스스로 충분한 담화의 형식 안에 명백히 표출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형태의 분석은 모든 레벨과 생성케도의 다른 영역으로 고찰된 담화의 모든 구성원소 그 안에서 동정(同定)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은 주제적(thematic; 어간형성모음적인) 형태 또는 격아강적인 형태(모티프가 속한)와 동정(同定)되기 쉽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담화적 표출은 지금 곧 근원이 되고 있는 화술적 체제를 전제한다. 그것은 적지 않은 놀람이며, 따라서 그 목록은 표준적 양태구조, 즉 책임이 떠맡겨질 수 있는 유형학(cf. 계약적[결합적, 응축적] 그리고 교묘히 다루기의 양태적인 구조)을 표현하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으로 담화적 형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

8. 생산 하의 담화로 형태가 통합되는 것은 형태의 잠재적 케도 중의 하나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담화(또는 구성원소로서의 화술적 프로그램 중의 하나)의 화술적 케도의, 인외발언되고 있는 동의의, 투자로서 가장 단순한 절차로 형식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태 안에서 선택된 주제적 또는 격아강적인 역할은 화술적 담화의 행위주적 역할과 동정된다. 이러한 동정화(identification)는 국부적(local, 시간과 공간상의 국부) 또는 일반화된 동류체를 발생시키고 있는 담화의 행위주적 성향(性向)으로의 동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성질의 중재는 확실히 화술적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담화적 형태로 그리고 말하자면 그들의 작용방법(modus operandi)의 공급으로 부여된 인외발언의 주체를 전제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49~51. (역주).

노트: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1. 방향적(芳香的; 백리향적) 범주는 마음과 의지(will)의 조건(Webster의 The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인 어근 “thymia(향 그릇)”의 의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명목으로서의 강류의미소적 범주이다. 방향적인 범주는 인간이 그 자신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지각에 직접적으로 속박되고 있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갈등(또는 중립) 텀으로서, 그것은 의미론적 세계의 의미소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된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를 계층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범주의 아티쿨레이션에 종사한다(enter into).

2. 이어서, 방향적인 범주는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중립 텀으로서의 비사위(非斜位, aphoria)와 함께-”으로 아티쿨레이션이 되며, 의미론적 초미우주가 가치론적으로 변형된 그 변형 안에서 근원적인 역할을 연기한다. 행복감, 그리고 그 대당관계 불쾌감을 지시함으로써, 방향적인 범주는 의미의 기본구조에 각각의 그 텀의 조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안정책을 야기한다.¹⁷⁰⁾ —Ibid., p. 346. (역주)

170) thymic: 기질(氣質)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향(芳香)이 보다 적합한 것 같다. 왜냐하면 “thymic category”는 선형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을 초월한 무제약(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기질(氣質, temperament): 일반적으로 성격의 유전적·생물학적 기반을 말하며, 특히 생화학적 변화와 신진대사에 관한 측면을 가리킨다. 이 말은 성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인격의 의지적 측면을 성격, 감정적 측면을 기질로 구별하여 쓸 때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질을 담즙질(膽汁質)·흑담즙질(黑膽汁質)·다혈질(多血質)·점액질(粘液質)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담즙질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다. 흑담즙질은 우울질이라고도 하며 신중하고 소극적이며 말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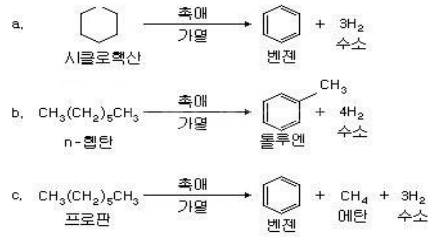
노트: 방향족 범주(thymic category)는 화학용어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다. 1. 방향족성(芳香族性, aromaticity); ① 평면구조를 가진 고리형 짝이중결합화합물의 π 전자수가 $4n+2$ ($n=1, 2, 3, \dots$)인 경우 같은 탄소수의 폴리엔(polyene)에 비해 특별한 안정도를 갖는 성질(휘켈의 규칙)을 말하며, 예를 들어 벤젠, 나프탈렌, 피리딘 등이 있다. ② 벤젠($n=1$)의 경우 불포화도가 크지만 알켄의 반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첨가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치환반응을 잘 일으키며 산화시키기도 어렵다. 이는 벤젠이 π 전자계의 공명에너지에 의해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방향족성을 갖는 화합물로서 벤젠 외에도 비페닐·나프탈렌·안트라센 등 다중고리 화합물들이 있으며, 고리구성원자로서 헤테로원자가 들어 있는 피리딘·티오펜·인돌 등 헤테로방향족 화합물 등도 있다. ③ 벤젠고리(benzene ring)-벤젠환(環) 또는 벤젠핵(核)이라고도 한다. 6각형을 이루며, 이 고리와 결합하는 원자(예: 벤젠의 수소, 톨루엔의 수소 및 결사슬의 탄소)는 고리와 동일 평면에 있다. 1825년 M. 패러데이에 의해 벤젠이 발견되고, 19세기 중엽까지에는 몇 개의 방향족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유기화합물로는 주로 방향족에 속하는 것만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들의 조성이나 반응성에 비추어 특이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1865년에 F. A. 케쿨레는 이들 화합물이 6개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지는 고리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는 것, 즉 벤젠고리를 생각해 냈다. 벤젠고리는 탄소원자 사이의 단일결합 3개, 이중결합 3개로 이루어지는데, 불포화화합물로서의 특성반응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고, 일반적으로 포화화합물과 비슷한 반응성을 보인다. 이것은 각 탄소원자가 가진 6개의 π 전자가 비편재화하여 독특한 전자구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결합은 모두 동등하며,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불포화화합물로서의 특성반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벤젠고리는 케쿨레가 생각해 낸 것으로 케쿨레구조식이라고하며 또 R. 로빈슨에 의하여 6개의 π 전자에 의한 공명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근에는 비(비)벤젠계 방향족화합물을 표현하는 데에도 쓰인다.

2. acyl groups(radical); ① RCO-의 일반식으로 표시된다. 아세틸기 $\text{CH}_3\text{CO}-$, 프로피오닐기 $\text{C}_2\text{H}_5\text{CO}-$, 말로닐기 $-\text{OC}-\text{CH}_2-\text{CO}-$, 벤조일기 $\text{C}_6\text{H}_5\text{CO}-$ 등이 이에 속한다. 알데히드, 에스테르 RCOOR', 케톤 R_1COR_2 , 산클로라이드 RCOCl은 모두 아실기를 분자 속에 함유한다. ② 아실기의 명명법은 기본이 되는 카르복시산의 영어명 어미 -oic acid를 -oyl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의 명칭이 관용명인 아세트산(acetic acid) 등에서는 어미를 -yl로 바꾼다(아세트산의 예에서는 아세틸 acetyl). 아미노기·히드록시기 또는 벤젠핵의 수소를 아실기로 치환하는 반응을 아실화라 하고, 아실화에 사용되는 시약을 아실화제라고 한다.

3. 방향족화(芳香族化, aromatization); 석유화학공업에서 지방족탄화수소를 촉매의 존재 하에서 가열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족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향족화가 일어나는 반응은 그림과 같다. 반응 (a)는 탈수소반응, 반응 (b)는 자리

인 기질이다. 다혈질은 쾌활하고 밝으며 순응적·타협적이며 기분이 변하기 쉽다. 또 점액질은 냉정하며 근면하고 감정의 동요와 변화가 적고 무표정하며 끈기가 있다. 이것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근대 내분비학(內分泌學)에 바탕을 둔 기질연구로 이어진다고 한다. 기질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E. 크레치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인간의 체격형(體格型)과 정신병의 종류와 기질과의 관계에 착안한 점이다. 먼저 2개의 주요 내인성 정신병(內因性精神病)을 살펴보면, 정신분열 환자는 일반적으로 체격이 가냘프고, 조울병(躁鬱病) 환자에는 비만형이 많다. 정상인의 기질에도 2개의 전형(典型)이 있다. 이를 각각 분열기질(分裂氣質)·조울기질(躁鬱氣質)이라 하는데, 전자는 가냘픈 체격의 소유자에 많으며, 후자는 비만형에 많다. (역주)

옮김을 수반하는 탈수소반응, 반응 (c)는 축합반응에 의한 방향족화이다. 이들 반응에 쓰이는 촉매로는 백금·팔라듐·산화몰리브덴 등이 있다. (역주)



d. 과학적 메타언어를 향하여

비격아강적인 표출과 과학적 메타언어 사이에서 그 표출은 최종적으로 번역-전격될 것인데, 거기에는 얼마간의 단계가 교환되어 남아있다.

1. 담화의 억제(suppression); 어느 복합 표출과 함께, 그 기술은 단순 동류체가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 차원 중의 하나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떤 과학적 보고가 구어적이거나 또는 문어적이거나, 그것이 정화된 만큼 항상 정보 상 교환할 필요가 있는 일정량의 소음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역으로, 그 진폭이 결코 상술되지 못하는 또는 한결같지 않은 내포를 가지고 있는 타원적(에두름) 원소를 가지고 있든지 하여간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단순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단순 동류체의 확실성이 담화의 억제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핵격상이 감춰지지 않은 어의소를 위하여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그것은 착란적인 표출로, 즉 메시지의 목록으로 변형된 담화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목피백서(木皮白書, écriture blanche, white writing)¹⁷¹⁾가 담화를 파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자야 실현된다는,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단순 동류체 안에 초래되는 것 대신에, 역으로, 부정적 복합표출의 출현, 즉 공고히 위장된 표출을 창조하는 시의 어떤 형식으로 매우 명백하게 실현된다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2. 착란적인 시퀀스의 목록: 격아강적이든 또는 아니든, 착란적인 표출은 단순 텍스트 안에 몇몇 내재모델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거나 간헐적으로 포

171) 별채를 하거나 남겨두기 위하여 나무껍질에 새긴 글씨. (역주)

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술은 흔히 일차 담화의 전위(轉位)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것은 기술된 모델만큼 메시지의 많은 목록으로 오렌지와 같이 낭중분절(囊中分節)이 된다(segmented). 따라서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은 기술 뒤에 모델의 계층으로 변형된다. 일차적 성격의 그 담화는, 일단 기술되면, 대수학적 형식화(formulation)를 상기시키는 대신, 한 눈에 기하학적 그리고 다차원적 심상(visualization)을 예기하도록 할 것이다.

3. 형식화(formalization): 다른 한편, 기술은 그 어의소의 형식화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화의 개념은 차라리 서투르게 정의되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의미론적 기술에 적용되면, 그 형식화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a. 가능한 한 빈사를 단순의미소의 상태로 한정하려고 하는 분석: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기술적 언어로서의 그들의 표출은 기술된 의미소에 덧붙여 최소의 강류의미소적 기초로서만, 즉 표현될 기술의 가치론적 목록에 속하고 있는 오직 그 범주로만 일치하고 있는 추상적 어의소로 변형될 것이다.

b. 추상적 어의소로 정의된, 구체적 비격아강적인 어의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고찰하고 있는 행위주의 구성.

c. 기술 그 자체는 그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보편성의 레벨을 선택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며, 따라서 형식화된 그 새로운 의미론적 표출의 가치는 그 체계에 고유하게 살아있는 두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 기술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공리(axiom)와의 관계 속에서 동연(同延, coextensive)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적 단자의 발화자료체는 내재적 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 기술적 모델의 검증

과학적 메타언어 구성의 모든 단계에서 드러난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불균형적 진전은 기술검증의 가능성이 검토될 때 특히 명백하다. 우주론적 과학의 효과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모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기술적 모델의 교체성에 의해, 즉 정위라고 하는 역제의 의미에 의해 과학적 모델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목적론적 그리고 인과론적 범주라고 불

렀던, 다른 한편으로 행위주적 범주라고 불렀던 것 사이에 확립된 동치를 허락한다.

여기서 문제는, 인식된 그리고 기술된 가치론적 모델로부터 관념론적 모델에 이르기까지 되돌림의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추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 변화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변화원칙의 확립은 정신론적 모델의 진실의 두 번째 기준을 결합의 그것에 추가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증 가능성과 동시에,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치료의 가능성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우주의 주된 가치론적 모델이 분석되고 기술된다고 가정하면, 또한 변이의 계열체와 관념론적 모델의 변화규칙이 충분하게 인식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론적 구조를 향하여 개인과 집단을 동여댈 수 있는 함수적인 모델을 위치 안에 구성하고 설치하는 어느 날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학의 효과는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와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제9장 기술의 절차

1. 발화자료체(corpus)의 구성

a. 목표와 절차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고 의미작용의 원소(존재자모드와 의미론적 우주의 표출 상의 반성)를 분명히 나타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언어에 의해 수동적으로 떠맡겨져 폭넓게 의미하고 있는 총체의 기술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것이다. 먼저, 자연언어 안에 담겨진 의미작용을 지향적(구성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과학(human sciences)의 목표이며, 이러한 인식론의 차원이 아닌 언어학은 그들을 위해 그 자신을 지향적으로 치환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언어학이 비록 그러한 기술로 고찰되게 될지라도, 그것은 조직 원리를 찾기 위하여 초미우주로 의미론적 우주를 통합이 아니라 분할하는 것 외에 더 달리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의 야망은 기껏해야 기술적 메타언어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기반 위에 의미작용의 기술절차를 목록화하고 통합하는 것 정도일지 모른다. 그것은 동시에 차용인과 임대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과학이 현재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구획하는 폐쇄성은 그들이 모두 의미작용의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종종 잊어버리도록 만든다. 그들이 상호관계를 고려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초미우주와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의 환원과 같은 특별한 원리가, 수많은 공통 구조적 그리고 함수적인 속성을 공들여 만든 그 모델의 레벨에서와 다르지 않게 그들이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표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분야를 위하여, 구조된 어휘로 오랫동안 대접했던 그리고 비언어학적 기준에 의해 한계를 정했던 픽션을 포기하고 있는, 동시에 픽션을 어휘론으로 기술하는 것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는, 언어학자들은 의미작용의 보다 더 명백하게 이질적인 영역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적인 언어학적 성격이 확인됨으로써, 그들은 체계의 원소와 가언의 형식화 그리고 분할 구조적 병존설로부터 기술모델의 구성에 권

위를 부여하는 또 다른 의미론적 초미우주로 인식된 알고리즘 사이에 다소 간 간과되거나 주목되지 못했던 그때까지의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상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건의 이러한 사태는 의미론 상에서의 개시된 성격, 즉 기왕에 등록된 획득으로부터 이득이 되도록 조립된 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 기술이 쉽게 실현된 성격을 부여하지만, 그러나 어느 공통 언어의 결핍(lack)¹⁷²⁾에 종종 접근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관계(concern) 때문이며, 자명한 원리의 지위가 요구하는지 모르는, 기술 의미론적 언어를 형식화하는 것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역으로, 적어도 최초의 단계에서, 영역의 가장 가능한 총계 안에서, 기술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형식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발견과 기술절차의 개념(두 단어는 실제적으로 유의어이다), 즉 창조된 존재(being)의 변화과정 안에서 노하우(know-how, savoir-faire)로 고찰된 그 개념은 일련의 천진난만한(naïve) 질문처럼 질의하도록 허락한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리는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이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학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상과 그 연구방법을 탐색하고 있는, 그리고 획득된 결과의 정의적 표상을 탐색하고 있는 내재언어의 실제적인 방법 사이의 고찰해볼만한 편차가 흔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간과 없이 그것은 형식화를 유도하고 있는 중요한 단계를 그 자신 안에 구성하며, 우리는 그들 표상의 정의적 성격이 위협적인 함축과정으로서의 함수를 신화적으로 나타날

17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69. lack(결핍); 1. 프로프적 함수(function) 가운데 결핍(lack, 외부의 약한의 영향으로 결핍을 생산한 “악행”과 결함된)은 화술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Vladimir Propp 자신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 순간에 화술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영웅의 출발, 모험, 그리고 승리는 사실 결핍을 위해 채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악행은 수정될 것이다. 2. 프로프(Vladimir Propp)로부터 유래한 기본화술도식 안에서, 결핍은 모험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최초로 일어나는 선언(disjunction, 選言 또는 이접[離接])의 격아강적인 표현이다. 그 변형은 중심화술역할(결핍상태로부터 환원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을 연기하는 연언(連言)을 만들어내며, 그리고 결정적인 시련(시험)과 상응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핍이 실제적으로는 기능하지 않지만 그 상태는 부정(심층대별에 자리가 잡혀있는)이라고 하는 선행 작용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주)

때 보다 더 쉽게 부과된 일반적인 형식화를 결코 심히 경솔하게 또는 지나치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는 약간의 언어학 또는 기호논리의 기본 안에서, 즉 아직 언어학으로 높이 선포된 기본 안에서, 그러한 단편적인 언어학을 발견하는 경이를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 관점: 연구의 현 상태에서 발견절차는 아직 기술의 다른 상(相, phase)에 적합한 그들의 가연적 성격을 지킨다. 그들은 작용적 산출의 확실성이 부족한데, 그것은 약간의 분할적인 기술만이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다.

b. 발화자료체

우리는 발화자료체를 언어학적 모델의 기술적 관점에서 구성된 메시지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오로지 외관으로만 단순하다. 사실 우리는 하나의 모델이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 안에 함축적으로 기왕에 담겨있는 한에 있어서만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발화자료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예비적 선택이 기술가치에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으로, 발화자료체의 가치는 기술이 성취된 후에만 판단될 수 있다. 기술의 절제와 엄격함만이 기술자가 분석의 단계에서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의 직관적 성격을 엄폐할 수 있다. 그때 약간의 조심과 실제적인 조언은 그 안에 표현된 주관성의 일부를 가능한 한 환원하기 위하여 그 선택을 에워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잘 구성된 발화자료체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은 표상적(表象的, 또는 대표적, representative), 구명적(宛明的, exhaustive), 동차적(同次的, homogeneous)이어야만 할 것이다.

1. 표상성은 발화자료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실현된 또는 단순히 가능한 착란적인 전체까지 유도하고 있는 종속관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표상성의 문제는 집합적 발화자료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발화자료체로도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잘 알려진 모든 작품은 그에 의해 효과적으로 발음되거나 “사유된” 단어들의 총체성(totality)을 일순간에 구성한다. 15세기 프랑스 사회의 집합 감수성과 관계하고 있는 현존 문서를 모두 수집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감수성의 모든 표현을 나타내는 그러한 발화자료체의 확장이 어느 정도인가 더욱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발화자료체는 항상 분할적인 것이며, 그것은 표상성의 개념을 표출의 총체성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일치시키려는 기술의 모든 요청에 종속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분할적인 반면에, 표상적(대표적)일 수 있는 발화자료체를 존속시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과장과 폐포의 이름으로 포획된 담화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우리는 어느 표출이 반복상이라는 것을 관측했으며, 그 담화는 그 자신 안에 매우 빠르게 닫히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담화 존재자모드는 표상성의 조건을 그 자신 안에 받아들인다. 그것은 수년전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미슐레(Jules Michelet)의 완판본 「일기(Journal intime)」에 관해 출판한 그 내용의 상태보다 그 후에 사실로 확인된 표상의 더 좋은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¹⁷³⁾ 미슐레(Jules Michelet)의 확신에 의지하지

173) 미슐레(Jules Michelet); 1798. 8. 21 프랑스 파리~1874 이에르, 프랑스의 역사가. 기념비적인 저작 「프랑스사 Histoire de France」(1833~67)로 잘 알려져 있는 민족주의 역사가로서 개성적인 서술방식으로 과거를 되살림으로써 커다란 극적 힘을 지니는 역사적 종합(synthesis)을 이루었다. 미슐레는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인쇄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총명했던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탐구와 학생이었으며 29세 때에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다. 이무렵 이미 여러 권의 교과서를 펴냈으며 잠바티스타비코의 「새로운 과학 Scienza nuova」을 번역했다(1827). 프랑스의 1830년 혁명으로 미슐레는 역사를 속명에 대한 인간 자유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파악하면서 역사 형성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코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보편사 서문 Introduction à l'histoire universelle」(1831)의 주제를 이루었으며 이후 미슐레 전저작의 밑바탕이 되었다. 1831년 「로마사 Histoire romaine」(2권)를 써낸 뒤 그는 중세사와 근대사에 몰두했다. 마침 같은 해 문서국의 역사부 책임자로 임명되어 필생의 기념비적 작품인 「프랑스사」를 쓰는 데 필요한 중요 자료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제1부 6권(1833~43)은 중세말에서 끝을 맺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의 장(場)」에서는 프랑스가 하나의 국가로서 등장한 사건을 민족적·지리적 결정론에 대한 승리로 그리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잔 다르크를 프랑스의 영혼 그 자체이며 미슐레 자신이 생각하는 애국적·민주적 이상의 살아 있는 상징으로 다루고 있다. 미슐레는 과거를 되살리는 것(즉 재창조하는 것)이 역사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깊은 자아를 글에 신중하게 투사했다. 이러한 과거의 되살림은 총체적이어야 하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종교·경제 등 과거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을 다시 불러내 원래 모습대로 엮어서 생생한 총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시도가 다소 자의적이고 지나쳤다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미슐레는 감성을 갖춘 천재성과 낭만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탁월한 시적·극적인 힘을 지닌 과거를 훌륭히 되살려냈다. 「프랑스사」의 제1부를 끝낼 무렵 몇 차례 닥친 개인적 위기는 그의 집필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1839년 첫 아내의 죽음과 1842년 친구 마담 뒤베넬의 죽음은 「프랑스사」를 쓰는 동안 내내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바로 이때 미슐레는 그리스도교에서 돌아서서 민주주의의 진보에 대한 예언자적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져서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하면서도 이러한 감정을 드러냈으며 이때문에 마침내 예수회와 충돌했고 1848년 1월에는 강의를 중지당했다. 그로부터 1개월 뒤 그가 1846년 「뢰플 Le Peuple」지에서 예고했던 대로 혁명이 일어나자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꿈은 곧 깨어졌고 그는 1852년

않고서도, 그의 개인적 주제가 기술자에게 매우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일기(Journal intime)」의 편집자 페브르(Lucien Febvre)가 기술을 위해 사용한 그 분할적인 발화자료체의 표상성을 보증했던 학자들에게 그렇게 기대되도록 하지도 않았다.

2. 게다가 발화자료체의 구명성은 발화자료체 안에 함축적으로 담긴 원소의 총체성과 함께 구성된 모델의 필요충족성으로 착상된다.

구명성의 원리는 모든 인문주의자들이 탐구할 때 필수불가결(sine qua non)의 조건으로 19세기(그리고 종종 오늘날도 아직 그렇게 고찰된다)를 통해서도 고찰된다. 그런데, 완전한 학식은 그 조건과 함께 연합되며,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작품(life of work, *théèse d'une vie*)”으로서의 거대한 괴물의 설정에 의해서만 연기(실행)된 대파괴(*havoc*)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비판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그 기술조건에 따라야 할 규범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명기했는데, 그러나 그가 아주 다른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언어분석의 연역적인 성격과 귀납적인 성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¹⁷⁴⁾

제2제정에 충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잃었다. 1847년 「프랑스사」의 집필 순서를 뒤어넘어 제3부인 「프랑스 혁명사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7권, 1847~53)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대혁명을, '정의'(la Justice)가 그리스도교 교리와 군주의 독단적인 권력을 뜻하는 '은혜'(la Grâce)에 승리하는 과정의 절정으로 묘사했다. 열면 어조로 쓴 이 책들은 생생하고 감동에 찬 연대기이다. 그리고 나서 미술레는 「프랑스사」를 다시 쓰기 시작해 르네상스부터 대혁명 직전까지의 제2부(11권, 1855~67)를 완성했다. 불행히도 그는 성직자와 국왕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서를 성급하게, 마음대로 다루며 상징적 해석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 책들은 내용이 왜곡되어 환각이나 악몽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마녀를 신에게서 버림받은 영혼이며 교회의 반(反)자연적인 금지령에 희생이 된 것으로 보고 마녀에 대한 변론을 전개하고 있는 책 「마녀 La Sorcière」(1862)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뒤 더욱 재롭고 행복한 영감에 사로잡혀 「새 L'Oiseau」(1856)·「곤충 L'Insecte」(1858)·「바다 La Mer」(1861)·「산 La Montagne」(1868) 등 자연에 관한 몇 권의 책을 펴냈다. 이 책들은 1849년 자신보다 30세 어린 아테나이 미알라레와의 재혼에서 자극받아 쓴 서정적인 작품으로, 최상의 산문작가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구를 담고 있다. 교훈적인 연애 작품인 「사랑 L'Amour」(1858)과 「여성 La Femme」(1860)도 같은 영향을 받아 쓴 것이다. 1870년에 일어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미술레가 독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상주의와 환상을 깨뜨려버렸다. 1874년 미술레가 죽은 뒤 그의 아내는 그의 일기를 정리했으나 1959년에야 「일기 Journal」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권은 1962년 출간되었고 「젊은 날의 기록 Écrits de jeunesse」이 역시 1959년에 나왔다. 여기에는 미술레의 유럽 기행과 특히 그의 사람됨을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으며 개인경험과 작품의 관계가 밝혀져 있다. (역주)

174) Louis Hjelmslev, *Prolegomena*, pp. 11~13.

오늘날 거기에는 보다 더 많은 경제적-유기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은 구명성이 야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발화자료체의 정확한 기술의 동일한 보증을 획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지도 모른다. 제안될지도 모르는 환원절차는 2개의 명확한 단계로 기술 작용을 분리시켜 존재할지도 모른다.

a. 첫 번째 단계에서, 기술은 표상으로 고찰된 발화자료체의 어느 한 아티클레이션으로만 오로지 사용되는 것에 의해, 그리고 그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작용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오로지 구성하는 것에만 의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b. 두 번째 단계는 순간적(temporary) 모델의 실증(verification)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때 실증된 두 비모순적 절차, 즉 기술된 발화자료체의 성격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선택은 구별될 수 있다.

α. 모델의 포화상태로서의 실증(프로프[Vladimire Propp],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은 발화자료체의 두 번째 부분으로 얇게 저며 내는 것으로, 그리고 구조적 변이가 정의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표출의 연속적 발현과 모델 사이의 비교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β. 탐측을 통한 실증(뒤부아[Jean Dubois])은 통계학자(모로[René Moreau])에 의해, 즉 두 번째 발화자료체의 약간의 표상적(대표적) 박편과 표출의 이러한 박편에 적용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 연구된 절차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¹⁷⁵⁾ 따라서 그 모델은 확증되고, 무효화되거나 완성된다. 마지막의 두 우발성에서, 분석의 총체적 반복은 고찰되어야만 하며, 그 작용은 온전히 그대로 작용적 모델의 설득력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추적될 것이다.

3. 발화자료체의 동차성(同次性, homogeneity)은 비언어학적 조건의 총체에, 화자의 레벨에서든지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의 레벨에서든지 이해할 수 있는 변이와 관계된 상태의 매개변수에 의지하는 것임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같다(특히 우리가 집합적 발화자료체로 취급하고 있을 때). 그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된 뒤부아(Jean Dubois)는 발화자료체의 불충분한 동차성이 균형절차에 의해

175) Jean Dubois, Archibald Henderson과 Will McLendon 역, 「말라르메의 정신분석 서문 (Introduction to the Psychoanalysis of Mallarmé)」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교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Le Français moderne[1965. 1]에 수록된 뒤부아[Jean Dubois]와 마르시[P. Marciel]의 “언어학용어”를 보라). 만약 우리가 “구조의 평범화”를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분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발화자료체를 그와 함께 허락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량적 효과로부터 정성적 효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평범한” 발화자료체의 동차성을 방해할 수 있는가 관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신화적으로 확산된 표출은 그 구조를 스스로 변형시키지 않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미소범주의 중립화(그러나 이것은 증명되어야만 한다)를 아마 유도할 것이며, 그 문제는 발화자료체의 구성 레벨에 정위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보 직출 절차의 선택 레벨에 정위된다. 우리가 집합적 발화자료체를 취급하고 있을 때 비언어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화자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변이, 즉 통시적 편차(연령층)의 문제 또는 표출 유형(교양수준 등)의 문제는 개인적 발화자료체와 내재적인 것이 되어 발견된다. 단순 화자의 착란적인 표출은 필연적으로 통시적인 축 상에 전개된다. 그것은 격아강적인 형식(시) 또는 비격아강적인 형식(심미적 이론)을 취할 수 있다. 그 기술이 비격아강적인 그리고 개념적 모델의 구성에서 초미우주의 표출형식이 되든지 어떻든지 목표를 삼는 한, 내재적 모델 그 자체는 표출 모드에 무관심한 것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시적 변이의 문제는, 사회적 구조의 공고성과의 관계 때문에, 집합적 발화자료체로 취급할 때 균형의 변화과정에 의해 잘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역으로, 개인적 발화자료체의 레벨에서 보다 더 복잡하다. 우리는 후에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c. 텍스트

발화자료체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추구하는 절차는 발화자료체를 텍스트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존재한다. 사실 발화자료체는 담화의 한계가 정해진 시퀀스이며, 이를테면, 존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 선택된 동류체 중의 하나로서의 글자맞추기놀이와 같은 표출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때 우리는 선택된 동류체 상에 정위된 그리고 발화자료체의 한계 안에 에워싸인 의미작용의 원소들의 총체를 텍스트(메타텍스트와 동일한 것에 상당한)로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발화자료체를 텍스트로 변형시키는 절차는 2개의 상보적 양상 아래 나타난다.

1. 조정적 양상은 선택된 동류체 안에 귀속된다. 비록 이러한 선택이 발화자료체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추구할지라도, 기술적 관례 안에 실제성으로 정위된다. 만약 그 기술이 텍스트로 발화자료체의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술을 추구하는 텍스트의 함수로 거의 언제나 만들어진 선택된 발화자료체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2. 부정적 양상은 발화자료체 안에 담긴 또 다른 동류체에 속하고 있는 선행원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존재한다. 이것의 필연성은 문학교육의 교수법이 국가제도 속에 “텍스트의 해석”을 똑바로 정립했는지 못했는지를 간단히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해석된 “텍스트”는 표상적 발화자료체에 예외적 경우로만 상응하며, 따라서 그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된 모델은 거의 완전하지 못하며, 그리고 텍스트의 해석은 텍스트의 모든 동류체 상에 동시에 정위된 의미작용의 원소의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실로 어쩔 수 없이 변형된다.

불협화음과 같은 텍스트의 준비조정(단순 발화자료체가 연속적으로 분석된 몇몇 텍스트를 담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에는 다른 것에 이득이 되는 어느 표출차원의 배제뿐만 아니라 고찰된 기술에 타당하지 않게 고찰된 동일 차원의 모든 다른 동류체의 배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분석에 의하면, 오이디푸스의 신화는 인간 기원의 해석으로 고찰되기 때문에, 인과론적 성격의 동류체 상에 정위된다. 동일 신화로 가정된, 또 다른 텍스트는 사회조직의 목적론적 해석의 원소를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했음은지도 모른다.

d. 배제 또는 추출?

불협화음과 같은 텍스트가 조정되는 순간에, 부적절한 동류체에 속하고 있는 발화자료체의 원소의 배제가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든지,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순원소의 추출(extraction)이 그다지 경제적-유기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배제와 추출의 두 개념은 순수하게 작용적 성격으로 나타난다. 사실, 만약 발화자료체의 남아 있는 일부가 배제된 부분보다 정량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채택된 그 절차가 텍스트를 확립한다고 하는 관점과 더불어 발화자료체의 부적절한 원소의 배제라고 언급하고 싶을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배제된 그

부분이 보존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용질차는 주어진 발화자료체로부터 기술에 적절한 원소를 추출한 것이 될 것이다.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질차로서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문제는 실제적 목류에 속한다. 그것은 확산 표출의 현존재 안에서 관측되는 것 같으며, 신화적이거나 실제적인 그 적절한 원소의 추출은 보다 더 경제적-유기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역으로, 어느 응축된 표출은 자연히 부적절한 시퀀스의 배제질차를 부과할 것이다. 따라서 미슐레(Jules Michelet)의 “실존적 주제”를 분석할 때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해 채택되었던 방법은 착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그 착란적인 방법(어떤 것이 대상일 수 있는, 그러나 동류체의 예비선택과 관련된 그 무차별을 위할 수 있는 것)은 “문체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리파테르(Michael Riffaterre)에 의해 추구되었다.¹⁷⁶⁾ 다른 한편, 오이디푸스 신화의 기술에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사용된 질차는 부적절한 원소의 배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추출은 첫눈에 기술자의 주관적 판단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그것은 분석의 다른 단계에서, 그리고 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모델 구성의 레벨에서, 질차가 가지고 있는 총체의 보다 강력한 간섭으로 교정된 주관적 성격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동치와 대당을 위한 그 탐색은 종종 간극과 탈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술된 원소의 과장 대신에 피할 수 없는 그 탈락은 역분석, 즉 슬쩍 뒤로 반복하는 것에 의해 재발견될 수 있다.

e. 목록

그때 정제된 발화자료체는 동류체적 텍스트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글자 맞추기놀이기적인 담화로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텍스트는 탈어휘화된 그리고 탈문법화된 담화적 표출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때 이러한 질차의 중요한 단계, 즉 표현의 규정화(normalization)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뒤로 미룰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보다 일반적인 반성의 레벨에서, 시공적으로 잠시 발화

¹⁷⁶⁾ 예를 들어, Michael Riffaterre,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Paris: Flammarion, 1971)을 보라.

자료체의 구성과 관계하고 있는 문제의 총체를 상세히 구명하기 위하여 얼마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기생적인 원소를 해방하는 동류체적 텍스트가 메시지의 목록처럼, 즉 2차적 배합이 모델의 구성과 동치가 될 관습적이며 의미론적인 명제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쉽다. 그러나 비록 기술적 모델이 메시지의 목록으로부터 구성된다 할지라도, 메시지로 구성되는 것 대신에, 지금 곧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인(숨김이 없는) 모델의 목록이 될 텍스트를 마음에 그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민담이 가지고 있는 발화자료체의 기술은 설화, 즉 함축적 일시적(occurential,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델의 목록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로부터든지 또는 명시적 모델의 목록으로부터든지 지금 곧 이전의 분석 안에 기술된 이러한 분석의 단계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술이 각각의 설화-발현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해 진전하든지, 내포된 함축 모델 그러나 아직 기술된 예가 아닌 그들 사이의 비교에 의해 초래되든지, 그것은 벌써 구조화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기술의 발화자료체가 오로지 “사실(fact)”에 의해서만 구성됨에 따라 약간 극단적으로 단순한 개념을 조정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개념을 여기서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고, 원칙적으로 그 텍스트는 오로지 발현 목록으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모델의 목록이 그가 갖고자 하는 장르의 구성을 향한 단계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기술도 어떤 장르의 목록이 될지도 모르는 텍스트의 확립을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르로서 민담을 정의하는데 성공하는 한, 비교할 만한 장르의 모든 목록은 화술이 될는지 모르는, 보편성으로 또는 화술의 어느 하위총체로 고찰될는지 모르는 공통 메타장르의 기술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성의 또 다른 레벨에 기술을 정위시킬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술의 또 다른 목표에 상응하는 발화자료체의 구성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것이 공들여 합성한 다른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오버랩하는 모델의 계층을 마음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

f.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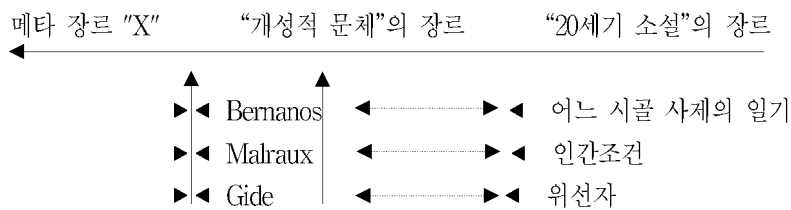
모델의 그러한 계층적 개념은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목록 간 관계의 어려운 문제에, 그리고 표출 유형의 이러한 두 형식으로부터 유래된 모델의 비교 문제에 약간의 조명을 투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뜻 예를 들어, 러시아 민담의 기술을 허락했던 질차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¹⁷⁷⁾의 소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의 기술자들과 이들이 병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러한 편차가 있다. 즉 민담의 발화자료체는 집합적 화자에 의해 지속되었다. 반면에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소설은 개인적 화자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인 그 개인적 화자는 그의 모든 글쓰기의 발화자료체에 의해 표현된 그의 모든 작품의 총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소설의 의미론적 초미우주 그 자체 안에 담긴 “베르나노스적인 세계”는 우리가 러시아 민담의 세계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 텀 안에서 거의 언급될 수 있으며, 그 특별한 설화는 오로지 방사(emanation)일 뿐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세계

177)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1888~1948): 프랑스 뇌이쉬르센. 프랑스의 소설가·논쟁작가. 대표작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Journal d'un curé de campagne)」로써 당대의 가장 독창적·독자적인 가톨릭 작가로 군림했다. 왕당파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후 보험회사의 조차원으로 일했다. 선배 가톨릭 작가 테옹 블루아와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초자연적인 세계와 가까이 지내는 몽상가였다. 또한 억살스럽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유물론에 반대했고 악과 타협하는 것을 증오했다. 중산층의 유물론에 반론을 제기한 정치적 소책자 「보수주의자들의 커다란 두려움(La Grande Peur des bien-pensants), 1931」과 스페인 내란 때 파시스트의 만행과 그들을 지지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난한 「달빛 아래 거대한 묘지(Les Grands Cimetières sous la lune), 1938」에는 그의 강렬한 성실성이 드러나 있다. 소설가로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놓고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주제로 삼았는데, 특히 성직자를 본보기로 삼아 이러한 갈등을 다루었다. 성스러움에서 사악함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동의 양극을 보여주는 그의 등장인물들은 힘찬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첫 소설은 아르스의 주임 신부의 경험에 일부 바탕을 둔 「악마의 태양 아래서(Sous le soleil de Satan), 1926」였다. 1936년에 죄악에 대한 젊은 성직자의 싸움을 그린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프랑스의 영화 감독 로베르 브레송에 의해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밖에 중요한 작품으로는 「기쁨(La Joie), 1929」·「무셰트의 새로운 이야기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 1937」·「원썬(Monsieur Ouine), 1943」 등이 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파시스트의 정치적 횡포에 절망한 그는 1938년 7월 아내와 6명의 자녀를 이끌고 스스로 망명생활을 택해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뮌헨 협약의 도덕적 타락을 심각하게 느끼고 「진실의 추문(Scandale de la vérité), 1939」이라는 글을 썼다. 1940년 6월에는 학교 동창인 샤를 드골 장군을 지지했다. 그의 방송 메시지와 「영국인에게 보내는 편지 (Lettre aux Anglais), 1942」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45년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조국이 정신적으로 갱생하지 못한 것에 환멸을 느껴, 그후 튀니지에서 살다가 마지막 병석에 누운 뒤에야 프랑스로 돌아왔다. 죽기 직전에 프랑스 혁명 때 순교한 16명의 수녀들을 다룬 영화 대본인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Dialogue des Carmélites)」를 완성했다. 프랑스의 작곡가 프랑시스 풀랑은 이 작품을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역주)

제9장 기술의 절차

가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a Diary of a Country Priest)」와 20세기 전반의 프랑스 사회의 상상적 세계 사이의 매개자로 동시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야기된 실제적인 문제는 의미작용이 어떻게 세 가지 가능한 발화자료체(소설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발화자료체,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글쓰기의 총체성으로서의 발화자료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회와 역사적 시기의 모든 소설의 발화자료체)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적 상호관계를 우리는 그러한 발화자료체로부터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 사이에서 발견되도록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도식적 표현은 아마 문제를 보다 더 좋게 관측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한편, 소설-발현에 의해 구성된 발화자료체를 추리하는 도식의 수직 화살표는 "20세기 소설" 장르의 구성을 허락하고 있는 함축적 모델의 목록으로 고찰된다. 다른 한편, 개인적 파를 표현하는 총체성으로 만들어진 발화자료체는 "개성적 문체"로 성급히 추리된 장르의 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실, 각각의 문화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being)의 가치론적 "성격"과 그들 행동의 관념론적 알고리즘(비록 그 공동체가 때때로 사회적으로 조직된 역할의 부정으로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개인적인 것, 다시 말해서 "문체론적"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기호[sign]의 전도[顛倒]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규범의 거부를 고양시킬지라도)을 개인적인 것에 귀속시킨다. 그때 수평 화살표는 주어진 언어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르의 목록을 또는 메타장르를 기술하고 있는 관점으로 문화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리한다.

그러나 또한 도식은 두 축을 가로질러 설치된 발현-소설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a Diary of a Country Priest)」의 특별한 장면을 명백하게 만들며, 따라서 2개의 다른 발화자료체 안으로 동시에 진입할 수 있고, 목표를 발산하고

있는 두 분석에 종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주적 분석만을 취함으로써, 그것은 20세기 문학에 적당한 소설 작가들의 행위주적 구조의 가변성으로 고찰될 수 있는 이러한 소설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은 적당히 베르나노스적인 행위주적 구조의 독특한 구체화로 동시에 참여할 것이다. 그때 그 일기의 성격은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격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그리고 2개의 동형체적인, 그러나 동류체가 아닌 행위주적 구조의 폭주 때문에 표현된 그들 자신을 발견한다. 화해(또는 대화, explanation)의 원리로 고찰함으로써, 그 구조적 폭주는 역사적 사실의 구성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그때 필연적 모델의 폭주하고 있는 표출은 우발적인 사실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투시도법(귀로[Pierre Guiraud]가 잘 관찰했던 것처럼)으로부터 어원론은 어원탐색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어원론적 모델과 그들 폭주가 가지고 있는 개연적 예상의 발견은 계속 전개된다.¹⁷⁸⁾

g. 단층과 총체지속성(duration)

이질적 모델의 폭주를 예측하고 있는 행위주적 구조의 선택은 어느 발화자료체의 성격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강조할 기회를 이미 가졌었다. 파롤의 어느 표출이 3초의 간격에 의해 또는 300년의 간격에 의해 조만간 식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관계의 통시적인 성격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의미작용의 표출 안에서의 통시적인 모든 것은, 비통시적으로, 몽땅 의미작용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는 우리의 습성에 의해 고찰된 의미작용 그 자체를 배제한다. 다시 말해서, 민담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소설로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작용 범주의 화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이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는 단기지속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약간의 기본적 과장구조 때문에 단기지속성을 명시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구조와의 관계 속 두 번째 구조의 하위계열적 아티클레이션을 통해서 통시적이다. 어떤 통시적 자료는, 집합적이든지 또는 개인적이든지, “프랑스 언어사”의 표상이든지 또는

178) Pierre Guiraud, 어원론(L'Etymologie), Paris: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4.

“말라르메(S. Mallarmé)의 생애의 표상이든지, 계층적 발판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단기지속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래에서 위까지 덧붙여진 구조적 단층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irreparable tempus)의 상징기호인 화살표와 함께 제공된 수평축에 전개된 어떤 통시적 발화자료체는 다소간 총체지속성(duration)의 장기·중기·단기로 분할되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단순한 상호관계는 구조의 계층적 단층과 총체지속성 사이에 확립된다.

통시적 발화자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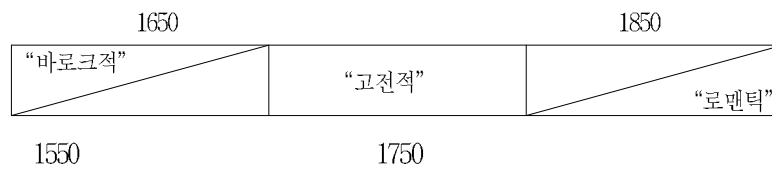
구조(structure)	총체지속성(duration)			
문체론적(stylistic)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역사적(historical)	중기(average)		중기(average)	
기본적(fundamental)	장기(long)			

따라서 위의 도표는 통시적 발화자료체 안에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계층적 단층, 즉 기본적, 역사적, 문체론적 단층, 그리고 브로델(Fernand Braudel)에 의해 확인된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하는 총체지속성의 세 가지 유형을 식별한다.¹⁷⁹⁾ 그 상호관계는 그 자신의 상대적 총체지속성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구조는 조만간 정위될 것이며, 역사는 구조화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원리는 사학자로부터 차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통시적 집합적 발화자료체의 예는 과장처럼 보인다. 이러한 도표를 개인사의 측면에 이항시킴으로써, 우리는 기본적 구조와 구성적 범주 사이의, 예를 들어, 역사적 구조와 “어떤 개인사”의 통시적 변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본성”의 고전적 개념과 상응하는 것을 확립할지도 모르며, 반면에 그 문체론적 구조는 구조적 반향을 가지고 있는 “긴장의 장면”에 기인한 변이를 고찰케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남아있는 미해결의 문제는 계층적으로 정리된 구조와 그들을 내포하도록 가정된 발화자료체 사이의 관계이다. 집합적 또는 개인적 발화자료체

179) Fernand Braudel, Sarah Matthews 역, 「역사에 대하여(On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를 함축하고 있는 도표의 표현은 역사 속에서 시대구분이라고 불리는 것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는 의미작용의 원소의 단속적인 연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담화를 시퀀스로 잘라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발화자료체를 비교하자마자, 따라서 언제나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는 역사구조가 그 방식으로 구분되자마자, 우리는 구조의 펼침(display)과 전적으로 상응하지 못하는 잘라냄으로서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 따라서 평범한 예를 들음으로써, 그리고 프랑스 문학사에서 “진실(truth)”의 어떤 보증도 없이 수직으로 잘라냄은 다음 도표의 역사적 “시대”와 상응할 것이며, 반면에 대각선의 구분은 통시적 발화자료체 안에서 중기지속성의 구조가 펼쳐지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술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2개의 실제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

1. 구조의 통시적 변형을 명백히 하려고 하는 분석은 텍스트의 잘라냄을 구조의 “완벽한” 실현화와 상응하고 있는 박편으로 결코 활용하지 못하지만, 반면에, 텍스트의 분할을 생존구조가 새롭게 공을 들여 만든 대체구조와 공존하는(coexist) 두 혼란지대, 즉 중립지대의 양측에 항상 포함하고 있는 중첩 시퀀스로 틀림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술이 발화자료체로 표현된 통시적 변형과 관계하고 있는 한, 혼란지대는 특권이 텍스트의 주어진 시퀀스를 구성한다. 비록 세 구조적 단층의 속성(의미론적 우주의 존재자에 광대하고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고 있는, 그리고 유탄리 구조적 기술 속으로 통시성을 재통합하고 있는)이 작용적 가치만 존재하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구조적 그리고 함수적인 기준의 조력으로 통합될 어느 날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계열체적 변이 또는 연속적인 확장과 응축에 기인한 동치의 행동에 의해 표현된 공시태의 전형적인 함수(그

림에도 불구하고 통시적인)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식별하고 있는 것에 의해 세 가지로 인식된 구조적 단층의 오로지 하나에만 정위되어 바뀌는 표현의 통시적 변형을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

어떤 경우에, 통시적 변형 보다 더 특별하게 어떤 역사적 구조의 기술(그들이 개인적[예를 들어, 정신분석적 치료]이든지, 또는 집합적[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이든지)과 관련되는데, 그 이유는 통시적 변형의 인식은 구조적 공시대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실은 주의를 야기 시키고 또 다른 단층에 정위된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강제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계층적 표현이 자질적인 그리고 행위주적인 모델을, 단층화에 그 자신을 잘 대어하는 계층적 성격을, 약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적용할까봐 염려된다. 그것은 우리가 함수적인 모델로 취급할 때와 다르다. 그들의 알고리즘적인 성격은 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이질단층에 속해 있는 모델 사이의 계층적으로 저축되는 해석을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 그렇게 시도될 수 있는 해석으로부터 발생된 그 사실은 수적으로 많지가 않다. 따라서 사팜(Moustafa Safouan, 이집트 국적의 프랑스 정신분석의)에 의해 발표된 일련의 사이코드라마의 설화는 관념적 모델 형식 아래 기술될 수 있는 그리고 문체론적 단층을 구성할 수 있는 단기지속성(short duration, 역주: permanence, stylistic)의 발화자료체들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 진척된 의미론적 분석은 분할적인 알고리즘적인 시퀀스의 형식 안에서, 치료의 진척에 따라 야기된 연속개정의 의미로 결국 그 모델을 창조하고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에 의해 보다 더 일반적인 관념적 모델로 통합된 이러한 문체론적 모델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일시적(occurential) 성격의 이러한 예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것은 동일 유형의 다른 분석에 의해 순응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치료법에 언어학적 해석을 단순하게 제공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문체론적이며 함수적인 모델을 계층적으로 상위에 존재하는 그러나 동일 구조의 지위를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모델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고찰된다.

주제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리샤르(Jean-Pierre Richard)의 분석에서 유래된 고찰될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예는 그 목표와 모델 안에서 첫 번째의 것과 외관상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¹⁸⁰⁾ 말라르메(S. Mallarmé)의 개인사를 기술함으

로써, 리샤르(Jean-Pierre Richard)는 그 전체성 안에서 기본적 모델을 점진적으로 자세하게 구명하고 있는 오로지 분할적인 표출이 될지도 모르는 “생명이 부여된(lived)” 중기지속성(우리가 역사적 모델의 목표로 기술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의 모든 경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 또는 시와 유사한 강류 안에 유일무이의 기본적이며 함수적인 모델을 고찰하는데 성공한다(우리가 만약 우리와 다른 관련과 용어법을 무시한다면).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와 아무런 관계없이 두 번째 분석의 속령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것은 구조의 역사적이며 기본적인 단층에서 이러한 시간에 정위된(우리에게 유리한 것) 함수적인 모델의 동일 모드로 간주된다.

두 번째의 예는 개인사에 의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독적이라고 해서, 그들은, 우리가 만들도록 유혹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집합적 역사를 수용하는 외삽법(extrapolation)에 대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사회공동체의 역사는 분할적인 역사의 구조, 기본적 모델, 전체적 구조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개인사처럼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만약 그것이 빈술적일 수 있는 비통시적 공시태의 변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문화적 사회공동체의 역사는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인과적·통시적이니까). 따라서 그것은 빈술적일 수 있는 변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든지 또는 포기된 역사가 될지도 모르며, 말라르메(S. Mallarmé)의 개인사처럼 병적, 망상적, 또는 사팡(Moustafa Safouan)이 언급한 아동의 역사처럼 혐오적인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개인사에만 의지하며 장기·중기·단기의 통시적 총체지속성을 구조적 공시태 안에 통합하지 않는 조건반사 하에서의, 그렇게 병적이며 망상적인 외삽법은 절대적으로 조급한(premature) 것이다.

2. 규정화

a. 기술의 동차성

180) Jean-Pierre Richard, 「말라르메의 상상적 세계(L'Univers imaginaire de Mallarmé)」 (Pais: Seuil, 1961)

이렇게 긴 우회 끝에, 그것은 발화자료체의 구성과 그 후의 분석을 위한 통시적 현상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에게 정당화되는 것 같으며, 우리는 규정화(normalization)라고 하는 명목 하에 추리될 절차를 불러오기 위하여 기술절차를 보다 더 엄밀하게 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기술된 텍스트의 동차성의 조건을 기술하도록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표제 “규정화,” 즉 기술의 동차성을 스스로 보증하도록 추리된 의미 하에 상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왕에 추리했던 이렇게 새로운 절차는 첫 번째(기본적 구조)를 필연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첫 번째와 병치적이다. 그것은 변형적 담화로 존재하며, 발화자료체 안에서 가공되지 않은 낱것으로서의 상태로, 그리고 담화적 표출로 존재하며, 그것은 3개의 독특한 작용과 비교된다.

1. 텍스트의 객관화: 이것을 우리는 준비된 텍스트 안 담화의 비언어학적 장면에서 의지하고 있는 언어학적 범주의 배제에 의해 이해하게 되었다.
2. 기술의 기본통사론의 설정: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논리기호 표기법, 그리고 어의소의 강류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확립되어 존재하며, 이것을 우리는 이미 정의했으며, 그리고 담화의 발화로부터 구성된 메시지로 이러한 강류를 결합하고 있는 약간 수의 표현규칙을 일정불변하게 만들었다.
3. 기술의 어휘론적 설정: 단자화 된 어의소의, 즉 두 번째로 어휘화된 어의소의, 그러나 기술적 언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표현을 규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b. 텍스트의 객관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담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학적 장면을 전제한다. 이러한 장면은 언어학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그러나 기술에 타당하지 않은 따라서 텍스트로부터 배제될 필요가 있는(그 분석이 객관적 기술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주체의 매개변수를 표출 안에 동시에 도입하는 약간의 형태론적 범주에 의해 떠맡겨진다.

배제된 범주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인칭의 범주: 이러한 범주가 배제됨으로써 그 결과 텍스트의 동차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담화 안에 불참가를 명시하고 있는 형식, 즉 3인칭이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칭 대명사(I, him, one, we, you)는, 마치 화자(speaker) 또는 작가(writer), 청자(hearer) 또는 독자(reader)처럼, 꼭 지시조용(anaphors; 대용

어.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쓰이는 대명사 등)의 위치 안에서 그들이 관계하는 곳에 행위주를 위치시킴으로써, 카드놀이에서 파트너에게 자기패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암호나 약속과 같은, 그 행위주에 의해 재 정위될 것이다. 따라서 절차가 담화의 그저 단순한 “탈문범화”와 맞물리지 않는 것이므로, 기술자는 텍스트 안에서 방해하는 또는 가면이 쓰여 있는 화자를 허락하는 그 많은 책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시간의 범주: 이러한 배제는 바로 지금의 메시지와 관계하는 모든 시간적 추리와 관련된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때 메시지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성된 시간적 비병존설(nonconcomitance)의 체계를 지킬 것이다. 그 2개의 시간적 체계는 주의 깊게 식별되는데, 왜냐하면 비주관적 시간은 함수적인 분석에 의해 활용되기 때문이다.

3. 직시(déixis)의 범주: 그들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담고 있는 한 모든 관자놀이-공간적 대상지시어(한정사, 대명사, 부사)는 텍스트로부터 배척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부터 구성된 객관적 관자놀이-공간적 직시는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교감적인(phatic) 모든 원소: 교감적 함수의 개념을 야콥슨(Roman Jakobson)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그리고 원소의 총체와 커뮤니케이션에 조력이 되고 있는 언어학적 변화과정으로 확장함으로써,¹⁸¹⁾ 우리는 교감적 원소의 배제가 “여보세요, 내 말 들립니까?” 라고 하는 유형의 시퀀스의 억압뿐만 아니라 어떤 문법적 또는 어휘적 과장까지도 배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체로 획득된 과장이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 또는 “강박관념[obsession, 붙어 떨어지지 않는 관념]”)을 의미할 수 있다면, 기술은 과장인 것과 과장의 가치(account)를 고수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등록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규정화의 절차는 과장의 환원과 결합한다.

c. 기술의 기본적 통사론

이러한 통사론의 광대한 개요는 이미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문화의 작용으로만 취급할 것이다. 사용된 자연언어에 의지하지 않는 의미론적

181) Roman Jakobson, 「언어학과 시학(Linguistics and Poetics)」, p. 355.

제9장 기술의 절차

통사론의 구성은 약간의 요구(needs)와 상응한다. 우리는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과장적 사용과 형태론적 그리고 통사론적 강류의 혼란을 억제하라.
2. 동일 어의소의 또 다른 어휘소적 형식화에서 결과하고 있는 통사론적 유의어를 배제하라.
3. 또 다른 자연언어 안에서 형식화된 표출로부터 기술된 모델의 비교를 허락하고 있는 기술언어를 구성하라.

일치하는 통사론 그 자체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어의소 안에서 분할된 2개의 강류로 상기하게 될 것이다.

행위주(actants) vs 빈사(predicates)

이어서 빈사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함수(functions) vs 자질(qualifications)

그때 우리는 메시지의 2개의 가능한 강류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어떤 의미론적 메시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F/A/ 또는 Q/A/

함수의 강류 안에서, 양태성의 야강은 전적으로 만들어져 남아있는 또 다른 자연언어 안에서 그 기술이 식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짐작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빈사와 관련된 그들의 상위계열적 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시퀀스 안에서,

John은 기타 연주를 좋아한다(John like to play guitar)

지구는 둥근 것 같다(The earth seems round)

like와 seems는 논리적으로 빈사에 앞서 그들 수정(modification)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양태성이며, 우리 자신의 목표를 추적하고 있는 그 기술은 그 근거

를 획득해야만 할 것이다(또는 획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개의 주어진 명제로부터 구성된 메시지는 이런 방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F(m)/A/ vs Q(m)/A/

자질의 강류 안에서, “양상(Aspect)”의 아강(subclass)은 동등하게 식별될 수 있으며, 그것은 빈사와 그들의 하위계열적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그 명제 안에서,

Peter는 허둥지둥 떠났다(Peter left hurriedly)
그 길은 매우 길었다(The road was very long)

hurriedly와 very는 양상으로 고찰될 수 있다. 다양한 강류로 구성된 그들은 하위계열적으로 빈사를 수정한다.

불충분하게 알려진, 흔히 양태성과 혼동된 양상은 빈사적 어의소의 구성일 수 있든지 또는 빈사와 관계된 어떤 유형의 분석을 촉진하고 있는 다양한 강류로 구성되든지 한다. 따라서 양상적 아강으로서의 속성은 전적으로 작용적 성격을 견지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론적 통사론이 확장된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위개념적 아티클레이션의 목표로서의 설명 중 가능한 것 하나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을 도입한다. 그때 자연언어로서의 명제는 의미론적 메시지의 형식으로 전사(轉寫, 또는 번역-전격)된다.

F(a)/A/ 그리고 Q(a)/A/

우리는 양태성과 양태가 빈사적 작용이라고 언급할 할 것이다. 행위주에 대해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들의 역할과 수를 이미 정했다. 또한 4개의 행위주에게 우리는 뒤에 관련될 2개의 이차적인 것(circumstants)을 추가했다. 그 표시법을 단순화함으로써, 또한 우리는 모든 행위주와 이차적인 것에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대문자 A로 추리할 것이다.

주체(Subject).....A₁

제9장 기술의 절차

대상(Object)..... A_2
발신자(Sender)..... A_3
수신자(Receiver)..... A_4
보조자(Helper)..... A_5
반대자(Opponent)..... A_6

우리는 이러한 통사론(우리가 기본이 되기를 기원했던)을 서둘러 개관하겠으며, 만약 우리가 추가로 상술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대문자는 행위주와 빈사(자질과 함수)를 위해서만 비축되며, 반면에 소문자는 도입이 촉진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하위계열적 아티큘레이션을 표시한다.
2. [A_1]과 같은 큰 괄호는 행위주, (a)와 같은 작은 괄호는 작용인자(作用因子, operator)와 동정하는데 기여한다.
3. 따라서 통사론적 단위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리된다.
 - a.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하위계열적 관계는 기호(sign)가 존재하지 않는다.
 - b. 그 유표(mark)의 관계는 세미콜론(;)으로 표시하는 기술을 위하여 타당하지 못하다.
 - c. 선언(選言)은 사선(/).
4. 전체 메시지의 전사(轉寫)를 위하여 채택된 상투적(conventional)이며 결합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F/Q(m; a)[A_1 ; A_2 ; A_3 ; A_4 ; A_5 ; A_6]

노트 I: 또한 매우 일반적인 어떤 다른 기호(sign)가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고의적으로 일시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성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왜냐하면 교훈적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며, 또는 무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a. \approx 는 상호관계 또는 동치(또는 그러한 관계를 상술하려고 하는 욕망)를 추리한다.
- b. vs는 일반적으로 대당을 추리한다(상술하려고 하는 것).
- c. \rightarrow 는 전제 또는 함축을 추리한다.

노트 II: 비통사론적 단위 사이의 관계를 위한 유표는 이러한 단면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상술하기로 하자.

- a. 의미소는, 대문자로 표지된 의미소범주와 어의소를 동시에 구별하기 위하여, 소문자로 추리된다.
- b. 의미소 간의 관계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흔하게 하위계열적이며 기호(sign) +로 표기된다. 각각의 예에서 우리는 화맥이 제안된 관계를 명확히 추리하도록 gelang했다.

노트 III: 주어진 다수의 논리기호 표기법의 존재자가, 자주 혼동의 기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사용된 기호(sign)의 수를 없애서는 안 될 최소량으로 감소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우리가 통사론의 흔적(rudiment)을 여기서 표시하여야만 하는 동일 이유이며, 각각의 기술자(그 자신의 표기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량기호("1개" vs "모두"; "적은 양" vs "많은 양")에 대해 언급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행위주를 수정하는 작용인자로 고찰될 수 있으며, 그것의 논리를 우리는 없앨 수 없다. 의미론적 기술 안에서 그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d. 기술의 어휘소론

어떤 어의소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단자로 따라서 새로운 어휘소의 창조로 유도한다. 별다른 작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규정화는 가장 경제적-유기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단자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술적 언어의 어휘소들은 가능한 한 일의어, 즉 과학적 어휘의 이러한 예를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은 단순한 어의소만을 오로지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기묘한 포르만트 또는 문자소적(graphematal) 결합(따라서 실제로 읽을 수 없는)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렇게 단순한 어의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성공을 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기유발(motivation)¹⁸²⁾과 혼동위험의

18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00~201. motivation(동기유발); 1.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이론에서, 기호의(즉,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 관계의) 독단적 성격은 유발된 성질이 부정된 것과 동시에 긍정된다. 따라서 형식화된 대당은 결국 자연 언어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며, 그 발전은 발전된 언어의 현 상태에서 증거가 될는지 모르는 의성어(擬聲語)를 위한 그 "자연음을 모사함으로써" 어떤 철학자의 견해에 따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의성어의 존재는 언어의 음성적 실체(substance)와 "자연적" 소음과 외침 간 유추의 문제로 자세를 취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해석은 지각의 레벨(cf. "꼬끼오")에서 듣지 또는 음성 산출의 레벨("혹 불기")에서듣지 하여간 어떤 레벨에서듣지 모사로 위치를 정한다. 그러나 실체의 레벨에 정위된 유추는 언어학적 형식의 합성의 활동을 초월한다. 따라서 약간의 음성체계로 모사된 수밖의 울음소리는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와 의미가 타격하는 것과 같은 포르만트에 의해 재현된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체계 안에 통합되어 "유발된" 형태소는 동시에 변형의 일반적 강제에 복종하고, 그들의 의성어적 성질을 잃는다. 귀로(Pierre Guiraud)의 접근법은 보다 더 흥미롭다. 그는 고립된 형태소(의성어)를 산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모사를 초월하며, 단어의 전체 종족을 산출할 수 있고, 일단 그들의 음성적 대당(/i/ vs /o/)이 근거로 획득된 의미론적 레벨에서 동시에 그들을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어휘소의 일종의 격아강적인 마디("tick"/"tock"과 같은 것의)인, 형태-음운론적 구조의 존재를 폭로한다. 기호학자에

부재 사이에 정위된 최적의 탐색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면에 기술적 어휘소를 분석하는 과제를 구조화의 절차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의미소적 성격의 정의의 조력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트: 미사여구(美辭麗句)의 애호가들은 흔히 이렇게 바로크적(기이한)이고 우스꽝스런 신조어(neologism)에 대해 의심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단자적인 어휘소가 자연언어의 일부가 아니지만 제2의 기술언어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그들은 대수기호(sign)보다 영어(프랑스어)가 보다 더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연언어가 어휘로 체계화하는 변화과정에서 일반적으로 2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문법적 강류(동사, 형용사 등) 안에 어의소를 정위시키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 두 번째는 파생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함수적인 어의소는 원칙적으로 동사(to resolve[해결하다], to walk[걷다], to move[움직이다] 등)로서든지, 또는 동사적 실명사(verbal substantive, solution[해결], walk[걷기], move[움직임] 등)¹⁸³로서든지 하여간 어휘화될 수 있다. 더

게 중요한 것은 자연언어의 기원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호학 체계의 이법(理法) 속에서 유추와 기호학적 형식의 각각의 역할을 가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정밀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2. 앞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기호와 특별-언어학적 실재성 사이의 비본질적인 관계를 다루었다. 요컨대 편차는 기호와 동일한 기호학 체계에 속하는 다른 원소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로 고찰된 동기유발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론자(울만[Stephen Ullmann])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동기유발까지 간다. 즉, ㉠ 음성적 동기유발(잘못 정위된 그러나 예를 들어 동음이형어의어 [homophone: 동음이형어의어(meet와 meat, foul과 fowl 따위) 사이의 관계로 정위될 수 있는 의성어 안에서]; ㉡ 형태론적 동기유발(파생에 의해 형식화된 종족); 그리고 ㉢ 의미론적 동기유발("문학적 의미"와 "격아강적인 의미" 사이의 관계). 이 경우에 두 개의 다른 것은 혼동된다. 따라서 분류된 관계는 언어학으로서의 기호학(semiotics)을 구성하는 "전형적" 구조관계이다. 그들은 말하는 주체(또는 언어학적 공동체)가 주어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존재 또는 그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지식과 구별된다. 이때 그것은 메타-기호학적 현상, 어떤 집단이 기호 그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현상은 문화(cf. 로트만[Lotman])의 형태학에 속한다. 유추와 구별됨으로써(상층부를 No.1으로 취급한다), 동기유발은 집합적 함축(언어의 지)을 중시하고 있는 문제의 집합의 일부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그 문화에 의지함으로써, 그것은 동기유발에 의해 독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으로든지, 또는 지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 것을 "문화변용"으로든지 하여간 인식이 가능할 수 있다(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역주)

183) 서정수, 「국어문법」(서울: 뿌리깊은나무, 1994), pp. 389~391. 일반명사는 실체성 명사(substantival nominals)와 비실체성 명사(non-substantival nominals)로 나뉘는데, 전자는 시간(열시, 아침, 낮), 처소(마당, 길, 산), 인물(여자, 남자, 학생), 사물(개, 소나무, 자동차)을 가리키며, 후자는 행동성(동작, 씌름, 노래, 칼부림), 과정성(사망, 부패, 성장), 정신작용(생각, 신앙, 사랑), 상태성(평온, 소란, 압전)을 가리킨다. 이에 의하면, 동사적 실명사(verbal substantive, solution, walk, move 등)는 "비실체성 명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substantive'는 역으로 "form vs substance"의 대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나아가, 어떤 자질적인 어의소는 형용사(long[긴], certain[확실한], intransitive[자동적 등])로든지, 또는 파생적 실명사(length[길이], certainty[확실성], intransitivity[자동성 등])로든지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과잉은 기술의 실체에 있어선 말더듬의 원인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 빈사와 행위주 사이의 속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석이 또 다른 행위주를 인식함으로써 흔히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발화 안에서,

문제의 해법(the solution of problem) = F /A₂/

교수의 해법(the solution of professor) = F /A₁/

2개의 다른 행위주는 동일한 문법적 형식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법적 강류에 의해 어휘화되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2개의 단자의 변화과정 중 하나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단순 의미에 의해서만 어의소 강류의 어휘소적 동기유발을 지속하는 단순 절차를 채택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유기적인 것 같다. 그 작용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실명사적인 형식을 모든 어의소에 귀속시키는 것: 대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실명사와 또 다른 문법적 강류가 없을 것이므로, 따라서 어느 한 강류로서의 그 실명사는 중립화 될 것이다.

2. 합수로 취급할 때 실명사적인 접미사(-ing, -age, -tion, 또는 non 등, 그리고 자질을 어휘화하는 -ity, -tude, -ance, -or 등)만을 충당하는 그 부가에 의해 어의소를 어휘화 하는 것: 그 경우 파생적 의미는 결핍이며, “...의 사실(보이지 않는 실체; 역주)”이라고 하는 유형의 예들러 말하는 변화과정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사전편찬법에 의해 사용된 분류사(分類辭, 또는 정의항)의 체계적인 기술은, 이러한 단계에 많은 조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유의어 또는 단자의 레벨에서 사용된 접미사와 동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의 세목, 즉 숨김없이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원리를 뒤

“existence=form” vs “being=substance”로서의 “존재(being)”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지는 것이 당분간 무익하다. 사실, 비록 보다 더 경험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얼마동안 이의 없이 사용되었었다.

자율적이며 기술적인 어휘소화를 체계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제안은 사실 언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따라서 다소간 형태론적 그리고 통사론적 강류 사이의 자연언어로 존재하는 기본적 이질성을 억압하는(감추는), 고투의 한 에피소드를 구성할 뿐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것은, 한편으로는 의미론적 행위주를 통사론적 행위주로 환원(division으로의)시키는 것으로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언어의 레벨에서 형태론적 강류를 억압(partition의)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노트: 여기서 우리가 비록 언급하지는 못할지라도, 논리기호 표기법은 실제적인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반드시 도입될 것이며, 뒤에 환원되었을 때, 기술적 어휘소의 수는 충분히 감소될 것이다.

3. 구성

a. 모델의 구성: 환원(reduction)¹⁸⁴과 구조화

규정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사실, 우리는 의미론적 언어의 통사론과 어휘론의 원소, 즉 기술된 발화자료체의 표현내용을 정위시킬 수 있을 것인 그 안의 메타언어학적 프레임을 이제 방금 제안했다. 이러한 절차는 텍스트의 동차성에 추가적인 보증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과장(redundance)과 구조적 아티큘레이션이 보다 더 쉽게 정위하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표된 기술의 단계, 따라서 텍스트를 포섭하고 있는 모델의 구성, 다시 말해서, 구조 속 메시지 목록의 변형(transformation) 안에서만 오로지 존

18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op. cit., pp. 258. reduction(환원); 환원은 구조화의 보다 더 보편적인 절차 중의 일부인 의미론적 분석 작용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독단으로, 또는 기술언어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 동기가 유발된 명목으로 탄생된 구성강류로, 사실상 병치 종합된 유의어적(parasynonymous) 발현어소의 목록을 변형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환원은 구성강류에 속한 관계발현의 각각 안에서 그 진행을 통제하는 동차화에 오직 병치적으로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강류의 구성은 범주화에 의해, 즉 어떤 것에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구조에 속할지도 모르는, 그것의 기술이 발견된, 모순과 반대의 털을 인식하기 위한 탐색에 의해, 실행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논리학의 정의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환원은 정인적 삼단논법에 있어서 환위법이나 대소전제의 위치교환에 의하여 제2격(P-M, S-M, 고로 S-P), 제3격(M-P, M-S, 고로 S-P), 제4격(P-M, M-P, 고로 S-P)을 제1격(figure, M-P, S-M, 고로 S-P)의 본위 형태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역주)

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목록은 발현의 리스트, 즉 텍스트의 특성(particularities)에 의지하는 길이다. 다른 한편, 모델은 단순하고, 제한된 수의 텀에만 오로지 포함될 수 있다. 그때 구조 안으로 들어간 목록의 변형은 최초의 위치로, 즉 환원의 절차로 말려들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연속으로 생각하든지 또는 범주로 생각하든지 하여간 그 목록은 항상 병렬(juxtaposition)적이다. 게다가 그 모델은 하나의 구조이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의미작용의 상대적 조직원리를 세상에 폭로한다. 그때 구성은 구조절차를 제2의 위치로 함축한다.

노트: 만약 우리가 스스로 근사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즉 용어 구조화(structuration)를 평범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델 자체의 구성을 목표로 삼아 환원목록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의 결정절차가 유보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환원과 구조화의 두 절차는 이제 성공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환원은 단순하거나 복잡하다.

b. 단순환원

환원은 가장 단순한 형식 하에 과장의 억압으로 나타난다. 사실 우리는 담화의 순간성으로 분리된 텍스트가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으로, 즉 간단히 말해서, 필수원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된 오로지 확장으로서의 총체적 의미작용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과장은 정량적 현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반복은 내용의 형식 안에 주목할 만한 변이를 아주 흔하게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장의 환원은 의미작용의 어떤 곤궁이라고 하는 희생을 치루고 오로지 성취될 수 있다. 보편성의 레벨로 일단 선택된 기술은 내용의 적당한 원소의 선택으로 그리고 문체론적으로 고찰되거나 모델의 구성에 적절하지 않은 또 다른 원소의 거부(또는 순간적 서스펜션[현연법], suspension)로 오로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체론적 원소들은, 우리가 뒤에 보게 될 것이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분석의 관점에서 다시 획득될 수 있다.

그때 환원은 몇몇 어의소 또는 몇몇 메시지 사이의 동치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동치로 판단된 발현의 전체 강류에 공통된 단자의 목표와 함께 그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모든 동치

를 곧바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절차는 연속적 근사치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환원을 실행하는 것으로 거의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술자가 결정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의 목록에 주목함으로써, 환원의 단계에서, 그것은 규정화를 도입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때 구성 안의 그 어의소는 정의적으로 단자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환원 사이에서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이 식별된다.

1. 동일원소의 환원: 동정된 몇몇 포르만트와 내용의 발현은 감소되거나 내용의 단순한 단위로 고찰될 수 있다. 따라서 슈타인 투영 테스트의 경우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사용했으며, 만약 “한 인간의 운명은...(The life of a person...)”이라고 하는 문장의 모두(冒頭)가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추측한다...(counts more than anything)”는 식의 가정 하에 열개의 답을 유도해낸다면, 우리가 언급해야 할 것은 그것이 분석목적(이 경우, 규정화의 관점에서)을 위하여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추측한다”는 어떤 발현만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의가 필요하다.

a. 통계언어학이 널리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만트의 동정은 스스로 환원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기준이 못 된다. 역으로, 동일원소의 환원의 경우에, 그것은 오로지 어의소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 화맥의 비교에 의해서만 보증될 수 있는 내용의 동치를 목표로 삼는다.

b. 의미론적 기술은 반복으로, 그것에 의해, 통상적인 현상으로서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 원소의 상대적인 빈도로 고찰되며, 어느 특별한 지위를 수여받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텍스트에서, 동일한 포르만트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소는 유용한 표시이며, 숨겨진 과장을 개연적으로 누설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역할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것은 아니다.

2. 통사론적 동치의 환원: 잘 알려진 예로 예증된 이런 종류의 동치는 다음과 같다.

A는 B를 파괴한다(A destroys B)

A에 의한 B의 파괴(Destruction of B by A)

B에 대한 A의 파괴행위(Destructive action of A upon B)

그러나 전적으로 통사론적인 것도 어떤 가공물만큼 정교하게 형식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내용의 동치이다. 게다가, 그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어휘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인용된 예 안에서, 발현에 의해 “한 인간의 운명(The life of a person)”의 자질, 즉

-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하다(imports more than all the rest)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is what there is most important in the world)

위와 같은 자질은 동치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구성을 고찰하도록 하는 최상급 표현의 어휘적 변이를 나타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소위 통사론적 동정은 매우 종종 인식하기 아주 쉬운 동치로만 오로지 존재한다.

3. 어의소적 동치의 환원: 어의소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핵의미소로 고찰된 어휘소가 동일 포르مان트에 의해 떠받혀지지 못할 때, 그들의 환원은 임시적 의미소 분석을 요구한다. 어의소로 변형하는 것으로 고찰된 그러한 발현의 분석은 그들 정의의 단순한 비교로부터 그들 격상의 노출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이미 기술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단순 어의소로 환원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발현을 공유하는 일반적 원소의 충분한 수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슈타인 투영 테스트는 “한 인간의 운명(The life of a person)”을 결정하는데, 자질 “당상(important; 내포의미)”을 벗어나, 다른 일련의 발현을 제공한다.

- …가장 귀중한 것이다(...is what is most precious, 6개의 발현)
- …어떤 것보다도 더 이득이 있다(...counts more than anything, 10개의 발현)
-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is worth more than all the gold in the world, 4개의 발현)

먼저 환원된 이러한 20개의 발현은 표현의 많은 동정에, 그리고 세 패턴의 구성된 목록에 감사한다. 각각의 발현은, 나중에, 2개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아티클레이션:

제9장 기술의 절차

가장 좋은 것(what is most)
어떤 것보다 더(more than anything)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더(more than all the gold in the world)

즉 위와 같은 아티클레이션은 “최상급성(superlativity)”으로 주목될 수 있는 의미작용의 단순 원소(분석의 이러한 레벨에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소인지 의미소의 결합인지 결코 의심하지 못한다)의 문체론적 변이로 나타난다.

두 번째 아티클레이션:

귀중하다(is ...precious)
이득이 있다(counts)
가치가 있다(is worth)

위의 아티클레이션은 또한 그들의 정의가 함치(호응)를 초래하는 것과 비교될만하며, 모든 것은 의미소 내용의 “판단(estimation)”을 공유하고 있다(이러한 환원의 레벨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앞으로 더 나아간 의미소적 분석 없이).

따라서 그것은 자질로 드러난 의미소적 내용을 변형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될 것이며(동시에, 규정화된 형식을 그 위에 부여하면서), 의미소적 원소 “최상급성(superlativity)”을 자질의 양상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원이 이루어진 뒤에, 자질적인 어의소는 그 형식 안에서 의미론적 언어로 등록되고 변형될 수 있다.

Q “판단성(estimability)”(a: “최상급성[superlativity]”)

c. 복합환원

단순환원의 세 가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환원은 비교에 의해 그리고 똑똑히 보이는 의미소적 동정을 만드는 것에 의해 성취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비동일적인 원소의 서스펜션이 동반된다. 그때 구조적으로 그 절차는 연언(連言)관계의 사용에 그리고 선언(選言)관계의 중립화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하위계열적 관계와 상위계열적 관계의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 절차를 위하여 “복합환원(complex reduction)”이라고 하는 명목을 준비할 것이다. 환원은 동치의 강류 확립에 열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지만, 텍스트의 동류체와 함께 그 관계가 기본적 구조관계의 텀으로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의 모든 원소를 단순한 강류로 재결합하려고 시도한다.

단순환원과 함께, 우리는 몇몇 복합환원의 유형을 식별할 것이다. 의미론적 표출은 항상 애매(다의적)하며, 그것의 단순한 예를 고르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이것을 위한 경우인데, 그들의 각각은 우리가 구별하고 분리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것에 비추는 조명은 조명이 비춰진 대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1. 격아강적인 것의 환원: 슈타인 투영 테스트의 “Frank가 그의 주인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When Frank saw his boss coming...)”라고 하는 문장을 모두(冒頭)에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대답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그 대답이 다음과 같다.

...그는 무서웠다(...he was afraid, 3개의 발현)

...그는 겁을 먹었다(...he became afraid, 3개의 발현)

단순환원이 일어난 뒤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의 형식화를 초래한다.

Q (fear)[A₁(Frank); A₂(boss)]

다른 대답은 다음과 같은데,

...그는 떨었다(...he shivered)

...그는 파래졌다(...he turned pale)

...그는 창백해졌다(...he became pale)

이것은 동일한 “공포(fear)”의 격아강적인 표출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주어진 정신론적 동류체가 기술로 그리고 메시지의 연기자가 “하위(inferior)” 또는 “상위(superior)”의 행위주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 사실로 선택됨으로써, 환원은 마치 신화적 의미작용 “공포(fear)”로 환원되는 “창백한(being pale)”처럼 실제적인 행동(behavior)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실제적인 빈사가 하위 계열적이며 동시에 무한수의 문체론적 변이의 계열체를 개시하고 있는 “공포(fear)”의 발현 정의로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때부터 하위계열적 동치의 발현적 강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대답을 하도록 그 폭이 넓혀질 수 있다.

…그는 도망쳤다(he ran away)

…그는 숨었다(he hid)

…그는 나무등걸 뒤로 그 자신을 숨겼다(he concealed himself behind the trunk of a tree)

…그는 길모퉁이로 돌아갔다(he turned at the corner of the street)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의적 시퀀스는 단자의 강류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

2. 하위계열적 환원과 상위계열적 환원: 다음은 볼테르(F. M. A. Voltaire) 저 「철학서간(Letres philosophiques)」(제1신 퀘이커 교에 대하여)에서 인용된 담화적 시퀀스이다.¹⁸⁵⁾

185) Quakers: Society of Friends, Friends church라고도 함. 17세기 중반 영국과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그리스도교 집단. 이들은 신조, 성직자, 또는 기성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밖의 다른 형식 없이도 하느님을 직접 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가질 때 ‘내면의 빛’ 또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조용히 기다리는 순서를 가지며, 특히 사회 개혁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퀘이커교는 17세기 영국 청교도운동의 극좌파에 해당한다. 창시자 조지 폭스는 청년시절 그리스도교도들의 위선에 환멸을 느끼고 여러 해 동안 영적인 조력을 찾아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옮겨다녔다. 폭스의 「일기 Journal」에는 “네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음성을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중반이던 당시 그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자 「신약성서」 형태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던 독립교회주의자들과 구도파 등의 분파들로부터 추종자들이 생겼다. 폭스가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강조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 둘째 특별한 건물이나 인수받은 성직자가 필요없다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퀘이커교도들은 어떤 종류의 의식이나 사전 준비 없이, 또한 설교자를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 런던 시가가 조명으로 번쩍거리고

정해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를 설교자로 삼을 것이라고 믿었다. 웨이커교가 영국 북부에 급속히 퍼진 뒤, 열정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이 런던, 잉글랜드 나머지 지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럽 대륙, 북아메리카에 잇달아 일어났다. 신세계에서 웨이커교 선교활동의 중심지는 뉴잉글랜드·뉴암스테르담·롱아일랜드·베릴랜드·버지니아·서인도제도였다. 크롭웰의 말에 따르면 웨이커교도들은 “난잡하고 무질서한 예배의식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다. 450명 이상이 웨이커 조레(1662)와 그와 유사한 규제법으로 영국 감옥에서 죽었다. 폭스는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웨이커교도들과 함께 영국 전역을 다니며 교회 모임들을 세우고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 ‘진리를 선포’했다. 17세기말에는 식민주들 가운데 연례 모임이 생겼다. 1681년 영국의 왕 찰스 2세는 영국의 웨이커교 지도자 윌리엄 펜에게 웨스트뉴저지를 주고, 그의 의도대로 새로운 식민지 펜실베이니아(펜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음)를 동료 웨이커교도들의 신앙 자유를 위한 안식처로 삼게 했다. 관용법(1689)으로 인해 영국에서 자행되던 극심한 박해는 그쳤으나, 법의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국교도들에게는 공무원이 되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웨이커교도들은 주로 농업과 공업에 종사했다. 웨이커교도들은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파산시에는 엄격한 관리를 하여 조그만 자영업을 큰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성실하다는 평판을 받게 되어 이웃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게 되었으며, 많은 지방 은행들을 세우게 되었다. 웨이커교는 18세기에 2가지 상충되는 경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정적주의는 신의 인도에 복종하는 소극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태도를 장려했던 반면, 웨슬리주의의 열정 및 신학과 복음주의 운동은 새로운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긴장이 18, 19세기 웨이커교에 여러 분열을 일으켰다. 분열이 가장 심했던 미국에서는 엘리어스 허스가 신신학을 불신하고 많은 지역 연례 모임을 만들었다. 19세기초부터 웨이커교도들은 당시 점점 늘어나던 미국의 서부 이주 대열에 참여했다. 이들은 부흥운동 방법을 받아들여 예배 때 찬송과 고정된 설교 순서를 두고, 급료를 받는 목사를 세움으로써 그에 반발하는 전통적인 웨이커교도들의 이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20세기초에는 다음의 세 파가 존재했다. ① ‘정통파’ 또는 ‘복음주의파’는 서로간에 또는 런던 및 아일랜드 교도들과 연례 모임을 가졌다. ② ‘보수파’는 원래 웨이커교도들의 예배·연설·복장 형식을 따르면서 연례 모임을 가졌다. ③ ‘혁신파’는 70년간 다른 웨이커교도들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점점 더 ‘현대 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파들로부터 유니테리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이후에 여러 웨이커 단체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의심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협력과 재연합이 잇달았다. 유럽 대륙에서는 처음 웨이커교의 영향으로 세워졌던 모임들이 점차 시들어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웨이커교도들이 벌인 전후 구제사업이 그 운동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말에는 선교 사업과 함께 이민이 시작되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연례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웨이커교의 교회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는 조지 폭스 시대 이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가장 중요한 단위는 월례 모임으로서, 이 모임은 1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만나 교도들의 모든 문제들, 재정과 재산, 교도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하거나 상위모임에 의뢰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초기 웨이커교 예배의식의 극히 엄격한 성격은 많은 지역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 순서를 마련하고,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정되어왔다. 그리스도교 교파들 가운데 성례전을 외적 형식으로 준수하지 않는 교파는 거의 웨이커교뿐이다. 그들은 영적인 세례와 성찬을 믿는다. 웨이커교는 형제단 및 메노파와 함께 ‘역사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웨이커교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웨이커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제 철폐, 여성들의 권리 신장, 금주령, 사형제도 폐지, 형법 개혁, 정신병자들에 대한 보호 등을 주장해왔다. (역주)

하늘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소리, 종소리, 오르간소리, 축포소리 공중에 울려
퍼지고
(우리는 백성을 환희케 만든 이 살육행위를 묵묵히 비판하네)”
(and when after the victorious battles)
all London sparkles with illuminations,
when the air reverberates with the uproar thanksgivings, bells, cannons,
(we lament silently over these murders which cause public joy).”¹⁸⁶⁾

괄호 안에 시퀀스를 안치시키는 것으로 분리되었던 아티클레이션은 3개의 명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의미론적 메시지로 번역-전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3개의 명제(“소란”이라고 하는 결정의 열거)는 볼테르(F. M. A. Voltaire)에 의해 욕구된 문체론적 과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을 포섭할지도 모르는 단순 명제로의 환원은 필연적이며, 연속발화이다. 예를 들어, 런던이 승리를 경축하는 것은 어느 규정화에 선행하는 전체 아티클레이션과 동치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등식화한다.

F[환희, rejoicing][A₁(비퀘이커, non-Quaker); 양기호(all, quantifier)]

따라서 수사학적 프레임 안에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그것은 언어의 형태소적 함수와 관계하는데, 왜냐하면 생략법과 곡언법의 격상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실재적(real)”인 행동과 상응하고 있는 어떤 언어학적 함수는 상위계열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보다 세부적인 행동을 떠맡고 있는, 가능하면서도 잠정적인 일련의 분할적인 함수를 포섭한다. 또한 그것은 하위계열적으로 관찰될 수도 있다. 그것은 분할적인 함수의 전체적 알고리즘을 추리하고 있는 단자적인 함수에 효과적으로 귀속한다. 단자의 투시도법으로 고찰됨으로써 그리고 담화의 폭 넓은 단위에 적용됨으로써, 동일한 문제는 응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사실기

¹⁸⁶⁾ Raymond Naves, Voltaire, 「철학서간(Letres philosophiques)」 (Paris: Garnier, 1951), p. 7.

록 안에서 발견되며, 그것은 축소(개요, résumés) 또는 요약하는 준비조정의 복잡하고 서투르게 연구된 절차를 함축한다. 그 응축의 역절차인 확장은 그것이 소멸하기 전에 그것에 남겨진 고전수사학적 형식 안에 고착된 연구논문(소논문, 저서)으로서의 프랑스 교육의 담화적 모델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 그 2개의 상보적인 절차는 그들을 기술과 발견의 테크닉으로 구성할지도 모르는 환원과 생산 규칙의 공들여 마무리하는 정성을 요구한다.

만약 그러한 규칙의 형식화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면, 실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어려움도 주목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환원이 목표로 삼아야만 하는 최적의 레벨과 관련된다. 그 문제는 정량적 목표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알고리즘으로서의 수많은 함수들이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할 것인가 또는 추리된 알고리즘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식의 지식(knowing)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통하여 텍스트의 동류체를 보존하면서 함수의 응축과 확장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판단의 골치 아픈 주관적 원소를 도입하는 균형의 문제이다. 함수적인 분석의 결과는 명료하게 이러한 요인에 의지한다. 민담 분석을 부분적으로 내맡겼던 그 장(제6장)에서, 우리는 보다 더 균형된 화술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프로프(Vladimire Propp)에 의해 확립된 함수의 목록을 어떤 무엇으로 바꾸도록 했다. 독자는 기술의 기본개념인 동류체에 추가해서 그 예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환원은 화술의 일반적 조직, 즉 모델의 내재적 결합을 고찰하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표출 안에서 언제나 명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원은 응축의 형식, 즉 상위계열적 함수의 단자이든지, 또는 확장의 형식, 즉 매우 일반적 함수를 하위계열적 함수로의 분할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얻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자질을 향한 함수의 환원: 실제적으로 종종 혼동된 2개의 명백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함수적인 어의소로부터 그들의 규정화와 식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질적인 어의소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둘째, 자질적인 어의소의 목록 안에서 인식되고 등록된 그 자체로 그들을 분리하여 또는 하나의 강류처럼 정위시키고 있는 함수적인 어의소를 획득하기 위하여 환원시키는 절차 중의 신뢰성이다.

a. 이러한 경우의 첫 번째는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생안느(Sainte-Anne) 병원에 입원한 노인성 치매환자에게 주어진 의미론적 테스트에 의해 예증되고 부분적으로 명료화되었다.¹⁸⁷⁾ 3개의 시퀀스 중에서 “의사(doctor)”라고 하는 단자와 동치일는지도 모르는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유했다.

의사는 차를 수리하는 사람입니까?(Is the doctor the one who repairs cars?)

의사는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까?(Is the doctor the one who conducts train?)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입니까?(Is the doctor the one who takes care of sick people?)

그 검사문제는 의사의 자질과 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시퀀스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고찰될 만했다. 거기에는 관찰 환자들 속에서 우리가 메타언어학적으로 인식한 활동의 허약함과 서스펜션을 표시하는 구조적 발단이 존재할 가망이 없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결말이 아니다.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대략적이지 않은 식별의 현존재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반복양상을 소유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모두가 해석된 시퀀스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 반복성은 대상-행위주와 함께 병합된 양상적 범주 “미완료(imperfective)” vs “완료(perfective)”를 하위계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시제의 결합에 의해 표출된다. 따라서 그것은 반복적 또는 지속적, 함수의 정돈을 위하여 함수 이전에 파악된, 어느 특정한 격상 안으로 격하된, 자질로 나타나는, 즉 행위주의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충분하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함수가 마치 그들을 단기지속성적 자질로 변형하는 “지식(to know)” 또는 “능력(to be able)”처럼 양태화할 때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다. 열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비격야강적인 레벨에서 격야강적인 표출의 환원을 산출해냈던 그 예에서, 자질적인 “공포(fear)”에 “그는 도망쳤다(he ran away)”의 완전한 함수로 변형하도록 우리

187) Luce Irigaray, *Le Langage des dements*(The Hague: Mountain, 1973).

에게 허락하는 것은 응답의 반복성, 즉 집합적 발화자료체 안 발현의 명각(銘刻)이다.

자질과 함수 간 관계의 성격은 상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만약 우리가 표상적인 발화자료체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행위주에 귀속된 함수의 총체성에 의지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들의 목록은 기껏해야 그 행위주의 활동영역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더 나아가 분석은 과장적 함수를 강조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그리고 정성들여 만들어진 모델은 개성적 행동의 구조로 간주될 뿐일 것이다. 비록 합리적일지라도, 함수의 그러한 처리법은 그들을 목록이든지 또는 자질적인 모델이든지 하여간 그 안에 있는 자질과의 관계에서 하위계열적으로 어느 순간(그들이 분할적인 목록의 레벨에서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구성된 모델의 조건 안에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에 의해 어떤 것으로 분리하여 획득된)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들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함수가 자질로 변형하는 절차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사실, 우리는 그 기회가 그 스스로 나타날 때 약간의 그들의 예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함수의 처리법은 그들 자체를 함수적인 모델의 기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은 함수의 어떤 목록이 함수적인 성격의 모델에 필연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그 스스로 그들을 변형시키는 최소 프로그래밍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따라서 함수적인 분석의 이중적 사명감은 다음처럼 나타난다. 그것이 함수와 행위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만을 간주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 비록 하위계열적 관계의 자질적인 모델일지라도, 그 모델은 어떤 조건에서 비교될 만하다. 그것이 함수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한, 그것은 존재자모드를 열망하지 않는 것으로 고찰하는, 말하자면 숨김없이 명백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변형모드이다.

d. 의미론과 문체론

기왕에 고찰된 기술절차의 반성은 한 단계씩 앞으로 진전한 것이 선택과 의미작용이 배제된 원소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절차 그 자체는 점진적으로 포기된 변이의 희생으로 내용의 항구성을 탐색하는 것처럼, 그 형식의 원소를 괄호로 묶는 것에 의해 내용 실체의 가치안정책처럼 전적으로 나타난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발화자료체의 기술이 발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 확장에 대해 의미론적이며, 그것이 발화자료체에 의해 표출된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존재자모드로 간주하고 있는 모델의 구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똑똑으로 그리고 강류로, 또 드디어 강류의 강류로 변형시킨다고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기술절차는 하강절차에 의해 보충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보충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각 단계서 포기된 변이들을 수집하는 그리고 그들을 체계적 또는 형태소적 구조, 함수와 계층적으로 상위구조의 생산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련의 하위모델을 구성하는, 다시 말해서 상수-모델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과업을 연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강하고 있는 기술절차를 문체론적(stylistic)이라고 호칭하겠다.

그때 문체론적 조사연구의 두 모드는 식별될 수 있다. 사전에 동정된 복합 환원의 레벨과 상응하고 있는 그 첫 번째의 것은 하위계열적(환유적, metonymic) 성격의 것이 될 것이며, 한정적으로 확립된 동류체가 최초로 환원하는 동안 분리되는 그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의 유형으로 간주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의소적 문체론이라고 호칭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비록 보편성의 상위 레벨에 정위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격상과 수사어구(trope)라고 하는 이름 하에 오랫동안 연구된 관계의 유형과 개략적으로 상응한다. 문체론적 기술의 두 번째 모드는 단순환원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 방치되었던 변이를 재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선언적(選言的, 은유적) 성격을 다룰 것이며 기술적 어의소로 구성될 수 있는 발현의 의미소적 분석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 경우에, 그것은 의미소적 문체론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선입관에 의해 무시된 언어학적 원리의 어떤 무엇, 단어 형성, 편애로 되돌아가는 것을 유예하지 못할 것인 언어학의 현재의 경향과 상응할지도 모른다. 소체계(길[way≈path≈road]; 한해[an](year, 즉 단위)≈année[특별한 해]; 나이[year]≈yearling[만 한 살 먹은; 등등]¹⁸⁸)로 고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숨김없이 명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뒤부아(Jean Dubois)의 기술은 이러한 탐색의 유형을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¹⁸⁹

188) 영문: (way≈path≈road; an[yea(that is, unit)]≈année[particular year]; year≈yearling; and so forth), 불문: (cf. voie≈chemin≈route; an≈année; matin≈matinée: etc.); an-해, année-année heureuse(행복한 해)와 같은 방식으로 쓰임. matin-아침, matinée-아침(나절), 낮 공연, 아침 옷 등의 의미. (역주)

189) Jean Dubois, 「Étude sur la dérivation suffixiale en français」

노트: 여기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용어법적 다의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의 의미론적 절차는 그 목표 안에서만 의미론적이다. 귀착되어야만 하는 그 안에서의 모델은 내재 의미론적 레벨의 원리에 의지하고 있는 의미소법주의 조력으로 구성될 것이다. 문체론적 절차를 위한 것으로서, 그것은 구조적 문체론적인 하나의 단층(stratum)과 함께 오로지 편파적으로 동정(同定)되고, 반면에 기본적 단층과 역사적 단층 간 관계의 문제를 오히려 방치한다. 무절제한 용어법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용어법의 조건들을 수집하려고 한다.

만약 의미론적인 것과 문체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두 절차가 두 기술의 두 단계일 뿐이라고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절차는 그 첫 번째를 전제한다. 우리는 오로지 그 확장된 문체론적 분석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의미론적 기술은 기왕에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오로지 그때부터 내용의 동류체적인 하나의 단층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변이의 탐색을 위하여 상수 안에서 확립될 때 성취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어 안의 모든 것은 문체론적인 것으로(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적 접근의 옹호자와 오로지 일반화될 수 있을 뿐인 언어학자 간 어떤 논쟁에 휘말릴 오해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c. 구조화

용어 구조화는 환원절차와 상보적인 기술절차를 추리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환원에 의해 획득된 의미작용의 원소에 적용된 “구조의 세팅(setting in structure)”의 축자(逐字)적 의미 때문에 유용한 것 같다.

환원절차와 구조화가 상보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절차로 고찰된 기술의 통시적인 지위를 문제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들이는 것이다. 사실, 기술의 결과(우리가 이 순간에 추적하고 있는 절차의 개진)가 2개의 특별 작용을 성격화하는 연속 단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2개의 텀을 만들어낼 경향이 있을지라도, 기술 그 자체는 통시적으로 생각될 수 없다. 그 발현의 목록은 강류로 환원될 수 있으며 그것과 정반대로 대당이 된 또 다른 목록이 동시에 구성되고 단자화 된 그 확장에 오로지 단순어의소로만 단자화 될 수 있다. 부연하기로 하자. 구성된 어의소에 그 스스로 가서 부착된 목록의 환원은 항상 가능하며, 예를 들어, 우리는 강류 “피곤한(tired, fatigued)”이 가지고 있는 동치의 환원을 연기함으로써(performing)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러한 환원은 만약 그

것이 주어진 발화자료체의 프레임 안에서 그리고 동류체적 기술의 관점에서 실행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단힌 담화적 표출은 그 자신, 그리고 어느 한 발화자료체에서 다른 발화자료체로의 변화를 허락하는 동치의 목록이 존재하는 구조의 권한 하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 이것은 결국 환원이 비록 하위계열적일지라도 기술된 구조의 표상을 전제한다는 것을, 게다가 그 구조화는 연속적으로 성취되기 위하여 정확한 환원을 전제한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전제는 의미작용이 가지고 있는 기본구조의 복합 아티클레이션의 성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타언어로 생각된 기술뿐만 아니라 그 함수, 즉 실제로 기술적 탐색이 그것을 구성하는 절차의 동시 파악을 함축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이 동일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문제시되고 있는 구조의 공시적 지위로 파악할 때, 복합적이며 안정적 구조의 일부인 그 덤의 절차는 “상보적”이라고 호칭된다. 그때의 기술은 메타언어학적 예제이며, 반면에 기술적 모델을 구성하는 총체로서의 그 모든 절차는 동시에 나타나고 연기한다. 이러한 투시도법 안에서의 기술절차는, 문법규칙이 문법구조의 함수를 떠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인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유일한 규칙이다.

기술된 발화자료체는 단순할 수 있고, 단순한 구조화로 납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요구한다. 즉 그 경우에, 그 기술은 자신을 어느 다른 것 안에 계층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일련의 독립적이며 분할적인 기술로 분할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각각의 분할적인 기술만이 기본구조의 아티클레이션으로서의 환원에 의해 얻게 된 어의소적 내용을 조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f. 동차(同次)와 생성

환원과 구조화 절차의 상보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동차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랄랑드(André Lalande)의 「철학소사전 (Vocablaire philosophique)」에 의하면,

A vs B
A' vs B'

위와 같은 유형의 관계의 체계 안에서, A와 A'는 B와 B'에 대하여 “동차적”이라고 호칭된다.¹⁹⁰⁾ 특히, “수학적으로는, 두 닭은꼴의 상응부분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 대비격상은 동차적이라고 호칭된다.” 우리가 당면한 요구(needs)에 적응하는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것이다.

$S_{(s)}$ VS 비 $S_{(비s)}$
 $S'_{(s)}$ VS 비 $S'_{(비s)}$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만약 어의소 비S와 비S' 안에 비s의 부정적 형식 아래 동시에 출현된 정위의 텀으로 고찰된 의미소적 내용 s(즉 적어도 어느 한 의미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두 어의소 S와 S'는 비S와 비S'에 대하여 동차적이라고 호칭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 기술적 어의소에 대한 어의소-발현 S와 S'의 환원은 이러한 환원이 부정적 범주형식 아래, 발현 비S와 비S'의 병치적 목록으로 환원될만한, 그리고 동시에 다른 기술적 어의소에 출현되지만 하면 타당하게 되며, 그것은 첫 번째 것에 대하여 동차적이다. 따라서 인식된 동차는 환원과 구조화를 잇달아 포섭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환원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았다. 그것은 주어진 발현목록의 의미소적 내용 s와 동정이며, 그 동정은 “구축하기(structuring)”로서의 현존재, 즉 우리가 동정하려고 하는 정위적 텀의 의미소범주 아래 이루어지는 부정적 텀의 “분리하기(disjoining)”를 요구한다. 그 복합환원은, 하위계열적 관계에만 감사한, 다시 말해서 확립될 수 있는 동치의 의미소적 내용인 그 현존재를 함축한다(그 기초에 추가해서 일반적으로 강류의미소적인, 모든 발현에 공통적인).

이제 2원체로까지 고찰된 동차는 6개의 텀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기본구조의 차원으로 폭이 넓혀질 수 있다. 만약 2원적 범주가 충분히 의

190) A. Lalande, Vocablaire, p. 419.

미편차를 구성하는 것으로 6개의 어의소-발현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 방식으로 아티큘레이션이 된 구조적 프레임 안에서 환원을 실행할지도 모르는 동차의 가능성은 배척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차의 개념은 통시적 성격과 함께 발화자료체 안 착중(錯綜;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클어짐)의 영역 안에 정위된 구조적 변형을 인식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품었던 선각자 야콥슨(Roman Jakobson)은 구조적 원소의 다원적 결정(overdetermination)의 프레임 안에서 구조적 변형을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따라서 프랑스 고어에 있었던 어형변화의 소멸은 발화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결합체적 목표의 위치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과장 때문에 나중에는 굴절 포르만트가 해방되고 또 그들의 배제를 인정한다. 즉 이러한 예는 포르만트의 대체만을 설명한다. 시니피앙이 얽히고 있는 피리어드(period; 약보의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상위의 그룹핑을 상상하라. -역주) 안에 과장적으로 표현된 행위주적 범주 "주체 vs 대상"은 이러한 예의 안에서 바뀌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측면의 그러한 다원적 결정을 매우 잘 고찰할 수 있다.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으로 함수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의소 비S', 비S'', 비S'''와 함께 선언(選言)관계 안에서 대체 S', S'', S''' 등의 동차적 어의소를 과장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동차적 2원 구조는 주어진 순간에 더 이상 2원적 어의소가 아니게, 그러나 양극화된 어의소에 추가해서 복잡한 텀을 아티큘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제3의 어의소를 가지고 있는 3원적 어의소구조를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세 텀의 아티큘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발현의 생성이 최소량을 지속한다면, 2원 구조와 3원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착중 영역"은 구성되고, 나중에는 3원 구조만을 유일하게 존속시킬 것이다. 구조적 변형의 이러한 유형은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구조 인류학」, p. 224)에 의해 기술되었으며, 동차적 2원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다음처럼 보여준다.

S(삶, life) vs 비S(죽음, death)
 S₁(농경, agriculture) vs 비S₁(전쟁, war)

이것은 제3의 복합적 또는 중재적 텀을 생성하는 것으로 전유(專有) 된다.

Agriculture(농경) vs Hunt(수렵) vs War(전쟁)
(조정적, positive) (복합적, complex) (부정적, negative)

노트: 사실, 그 문제는 어느 때처럼 첫 눈에 띄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 발현변이의 레벨에서 초래된 대체가 왜 주어진 순간에 구조 그 자체인 체하는가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낡은 유행에 기인한 변화의 전통적인 해석은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소설에서 “살 vs 죽음”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뒤에 그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다.

새로운 구조적 텀의 생성(generation)에 대하여 우리는 역방향의 변형에 의해 단순화된 구조의 퇴화(degeneration)를 대당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브뢴달(Vigo Brøndal)의 개념을 여기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정신의 진보는 구조를 2원화하는 경향이 있는 단순화와 동정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서, 구조의 퇴화와 동정되기 때문이다.¹⁹¹⁾ 물론 브뢴달(Vigo Brøndal)의 가치 평가적 해석(우리의 용어법은 이것을 회전시킬 뿐이다)은 언어학적 선입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g. 설치된 내용과 그들의 조직화

동차는 상호관계적인 구조, 다시 말해서 성취된 표출의 폐포말화자료체로부터 출발하는 의미론적 초미우주가 기술되는 생성절차의 열거와 형식화 안배치의 긴급성에 그들을 종속시키는 그것으로 환원의 또 다른 절차를 종합한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앞으로 더 진전된 그 절차는 특별한 모델의 조직과 이미 관련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절차는 그들이 정당하게 분류된 내용의, 즉 담화의 빈술적 활동에 의해 폐포되거나 과장된, 따라서 메시지의 목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기술된 표출 안에 설치된 내용의 기술을 취급하고 있는 한 그들의 일반적 성격을 지킨다. 사실 빈사적인, 자질적인 또는 함수적인 강류의 분석은 분리하거나 수집해서(그 규칙이 상술되어야만 하는 평등화의 조력으로) 의미론적 행위주를

191) Vigo Brøndal, "Les Opposition linguistiques,"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47.

확립했다. 그 절차에 대해 방금 고찰했던 그 내용을 기술한 후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많은 동차적이며 단순한 구조일지라도 행위주인 그 현존재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행위주의 구조화에, 그들의 인식과 기술된 초미우주의 구성으로의 배치에 전념했던 기술의 새로운 단계는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도 동시에 가능하다. 빈술적 분석은 그 구조를 행위주에 귀속시키는 대신에 함수적인 메시지의 목록을 내용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동차적 구조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반대로, 함수의 강류들 간의 관계로 말려 들게 될 수 있거나 이렇게 강류이면서도 행위주가 아닌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동차적 내용을 고찰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함수(우리가 도작했던 기술의 단계에서, 그것은 분석된 그리고 동차적인 내용으로 투자될 것이다)가 일치관계를 그들 자체 사이에 나타내기만 하면, 그들이 통시적, 즉 논리적 “이전”과 “이후”를 표출하기만 하면, 마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그 함수가 확립되고 있음을 보았다. 변형적 시퀀스 안으로 내용과 함께 투자된 함수를 조직하고 있는 행위주적 구성의 또 다른 기술적 단계가 예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행위주든지 또는 함수든지 하여간 어느 것이든지 간에 설치되고 투자된 내용의 조직에 내맡겨진 구조화의 이러한 최후의 단계는 기술로 끝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예기되고 설치된 단계 안에서, 그것은 이용이 가능한 계층적 내용 안에서 의미작용을 조직하고 있는 분류법을 본질상 잔류시킨다. 그 모델을 특수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존재자모드는 기술된 초미우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특별한 내용보다 더 일반적이며, 그리고 상수로, 초미우주 안의 조직적 패턴으로 나타나며, 그것의 투자된 내용은 오로지 변이일 뿐이다.

우리는 추측의 영역 안에, 어떤 가언의 형식화가 시기상조와 같은 그 영역 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더듬어 나갈 것이다. 다음의 세 장은 특별한 영역을 탐구하고 있는 분할적인 반성과 분석의 샘플을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대역할 수 있는 조직화는 가언적 가치만을 명확히 소유할 것이다.

제10장 행위주적 모델에 관한 반성

1. 기술의 두 레벨

예를 들어, 신화학자 뒤메질(Georges Dumézil, 1898~1986)이 모든 표상에 의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신묘한 개체군을 기술하도록 제안할 때, 그가 활용하고 있는 절차는 2개의 다른 경로를 택한다.¹⁹²⁾

1. 어느 특정한 신을 선택함으로써, 신성하고 신화학적이며 민속학적인(folkloric) 그 모든 텍스트의 조력으로 행위주에 포함된 문제의 신 그 내부 명제의 발화자료체를 그는 확립한다. 함수적인 그 메시지의 목록으로부터, 동차에 의해 추구된 연속적인 환원은 신의 활동영역으로 지시할는지 모르는 것을 구성하도록 그에게 허락한다.

2. 신적 지시의 총체를 담고 있는 병치 발화자료체를 확립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성씨, 고정관념, 별명, 예언적 속성의 형식 아래, 또는 그 외의 결합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확장된 것들이 신화학적 고찰을 수반할 때, 그의 분석은 신 자신의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생김새(the moral physiognomy)를 확립하도록 그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동일한 신에게 2개의 가능한 정의를 발생시킨다. 그 첫째는 그가 행하는 것에 의해, 그러나 그의 활동을 신화적인 것으로 고찰하는 것에 의해, 인식된 신이 관념세계의 행위주 가운데 하나로 그를 명기한다는 원리와 함께 출발한다. 두 번째 정의는 개념화된 집합가치론에 감사하는 행위주 가운데 하나로 그를 정위시킨다. 사물(things)에게도 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라신느적 세계의 기술을 위해 함수적인 분석을 선택한 후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라신느(Jean Racine)의 비극이 심리학적이지만 전통적이며 자질적인 해석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³⁾

192) Georges Dumézil, Einar Haugan 역, 「고대 북부지방 사람들의 신들(Gods of Ancient Northme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193) Roland Barthes, Richard Howard 역, 「라신느에 대하여(On Racine)」 (New York: Hill and Wang, 1964).

이러한 기술의 레벨에서 우리는 2개의 빈술적 분석이 모순 대당이기능커녕 함수적이면서도 자질적일 수 있으며, 역으로 어떤 조건 하에 상보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환위될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신은 그 자신의 심증-윤리체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유형적인 것으로 판단된 반복행위는 그의 많은 자질만큼 그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술적 변론의 선언(選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행위주가 기왕에 설치되었을 때(즉 그들의 내용으로 투자된) 발생될 것이며, 오직 그 뒤에 우리는 그들이 존재하거나(exist) 행동하는 그 안의 초미우주에 관한 기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위 레벨에 정위된 이 새로운 기술은 그것을 시도하기 위하여 제안된 그 목표와 관련된 적어도 약간의 가연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연을 확립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두 종류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관계와 초미우주의 행위주라고 하는 일반 존재자모드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행위주에게 귀속된 활동의 망상(import)은 무엇인가? 이러한 활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러한 변형의 구조적인 프레임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첫 번째에 답할 것이다.

2. 언어학에서의 행위주

우리는 우리가 드라마(spectacle, 광경)에 원소의 발화를 비교하고 있는 테니에르(Lucien Tesnière)의 관찰(아마 그는 교훈적인 것이 되도록 기도했을 것이다)¹⁹⁴로 충격을 받았음을 이미 언급했다. 만약 전통적 통사론에 따르면 있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말, 즉 주체(주새主辭)는 “연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며, 대상은 “연기를 겪게 되는 어떤 사람” 등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 연기된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 상기된다면, 사실 그러한 개념의 한계 안에서 어떤 명제는 호모 로쿠엔스가 그 자신을 위해 연출하는 드라마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신화가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연기의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연기자 또한 이탈하지만 그 극적 발화(l'énoncé-spectacle, 광경언표)는 이탈

194) Lucien Tesnière, 「통사구조의 원소(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 109.

없이 항상 동일한데, 그 이유는 신화가 그 역할의 유일무이한 기술에 의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역할에 있어서의 기술의 신화는 단순하게 우연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약간의 행위주가 의미작용의 지각작용이라고 하는 선형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관찰했다. 주연(周延)된 역할의 성격은 우리를 위해 아티플레이션을 만드는데 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그것은 대당의 형식 안에서 두 행위주적 범주를 치환하는 것에 의해 불완전한(lame) 3원 형식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주체 vs 대상
발신자 vs 수신자

이렇게 출발하여, 우리는 다음의 외삽을 시도할 수 있었다. 즉 “자연적” 파롤은 행위주의 수를 늘릴 수도 없고 그 문장을 초월하여 의미작용의 통사론적 내포를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초미우주의 내부에서 동일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역으로, 의미론적 초미우주는 하나의 세계(초미우주가 아닌)로, 즉 단순한 드라마처럼, 행위주적 구조처럼 우리 앞에 일순간에 밀어닥칠 수 있는 확장일 뿐인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전체(tout de signification)로 정의될 수 있다.

그때 두 실제적 종류의 조정은 통사론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론적 지위와 초미우주의 새로운 차원에 차용된 이러한 행위주적 모델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미론적 지위에 통사론적 행위주의 환원(그녀가 편지를 받든지, 편지가 그녀에게 보내지든지, Mary는 항상 “수신자”이다)을 제안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발화자료체 내부에 표현된 그리고 그들의 분산이 무엇이든지 단순 의미론적 행위주에 귀속된 모든 함수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표현된 행위주는 그 자신의 의미론적 투자를 그 뒤에 소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며,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인식된 행위주의 총체가 그 전체성 안 전체 표현의 표상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때 행위주적 모델의 가언은 전체성으로, 즉 인간으로부터 영향 받기 쉬운 초미우주로 포착되어 지나치게 광막한 의미론적 우주 조직의 가

능한 원리 중의 하나로 제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정해진 영역(또는 적어도 일반적 성격의 관찰은 엄밀한 분석에 의지함 없이 광범한 관계와 다양화된 의미작용 전체를 소유하는지도 모른다)의 구체적인 기술이 의미작용에 대한 정보와 행위주적 범주의 가능한 아티클레이션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이러한 언어학적 외삽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3. 러시아 민담의 행위주

이러한 가언의 첫 번째의 확증은 비교적 최근에 프랑스에서 단지 한동안 알려졌던, 미국에서 번역된 “민담형태론(Morphology of the Folktale)”에서 프로프(Vladimire Propp)에 의해 진척되었다.¹⁹⁵⁾ 31개 함수의 잠정적 궤도(temporal line) 상의 표현으로 민담을 정의한 후에, 프로프(Vladimire Propp)는 행위주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등장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위주에 대한 그의 개념은 함수적이다. 그에 의하면, 등장인물은 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기의 영역,” 즉 그들에게 귀속된 함수의 꾸러미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영역에 의해 정의된다. 우리가 발화자료체의 모든 설화-발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에 의해 관찰할 수 있는 상수는 등장인물(우리는 그를 오히려 연기자(actor)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에게 귀속된 연기 영역의 설화이며, 만약 우리가 특별한 행위주 A_1 의 활동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함수 F_1, F_2, F_3 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한 설화에서 다른 설화로 전승하는 활동 영역의 상수가 설화의 발현적 표현과 활동의 동일 영역에 의해 정의된 동일 행위주 A_1 으로서의 연기자 a_1, a_2, a_3 를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설화 1	F_1	a_1	F_2	a_1	F_3	a_1
설화 2	F_1	a_2	F_2	a_2	F_3	a_2
설화 3	F_1	a_3	F_2	a_3	F_3	a_3

¹⁹⁵⁾ Vladimir Propp Laurence Scott 역, 「민담형태론(Morphology of the Folktale)」(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5).

만약 연극자가 설화-발현의 내부에서 확립될 수 있다면, 연극자로 분류된 행위주는 모든 설화의 발화자료체로부터 오로지 확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행위주의 구조는 하나의 장르를 확립시킨다. 그래서 행위주는 연극자에게 관계 안에서 메타언어학적 지위를 소유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들은 함수적인 분석을, 즉 연기 영역의 달성된 구성을 전제한다.

이러한 이중절차(함수의 기술에 의한 연극자의 확립과 그 장르의 행위주를 연극자로 분류하는 환원)는 행위주의 정의적 목록을 확립하도록 프로프(Vladimire Propp)에게 허락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악한(The villain)
2. 증여자(The donor, 공급자[provider])
3. 보조자(The helper)
4. 피수색자(The sought-for person, 또는 그녀의 아버지[her father])
5. 주인공(The hero)
6. 가짜 주인공(The false hero)

이러한 목록은 프로프(Vladimire Propp)가 일곱 등장인물이 나오는 설화로서의 러시아 민담에 행위주적 정의를 내리는데 권위를 부여한다.

4. 연극에서의 행위주

프로프(Vladimire Propp)가 분석을 중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저서 「20만 개의 극적 장면(Les Deux cent milles situations dramatiques)」에서 진술된 극적 “함수”의 카탈로그와 차라리 유사한 또 다른 목록을 발견한다.¹⁹⁶⁾ 그러나 주관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생각은 프로프(Vladimire Propp)의 기술과 매우 가깝다. 더욱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확장한다. 그가 프로프(Vladimire Propp)의 저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한결같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생각에서 흥미로운 것은 민

196) Étienne Souriau 「20만 개의 극적 장면(Les Deux cent milles situations dramatique s)」 (Paris: Flammarion, 1950).

담과 전혀 다른 일종의 화술(극적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주적 해석과 그가 찾아낸 결과가 프로프(Vladimire Propp)의 저서와 비교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줬다는 그 사실에 있다. 비록 다르게 표현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설화의 사건(l'histoire événementielle, 역사적 사실, “극적 주체[dramatic subjects]”의 수집에 지나지 않는)과 의미론적 기술 레벨(행위주의 연기로 분해 될 수 있는 “장면[situation]”으로 만들어진) 사이의 동일한 속성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행위주(전통 통사론적 용어법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부른다)의 제한된 목록을 발견한다. 불행하게도 6개와 7개의 극적 함수에 대해 얼마동안 망설인 후에, 결국 수리오(Étienne Souriau)는 6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미쇼[Guy Michaud]에 의해 그의 글 “작품의 기교[Techniques de l'oeuvre]”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그 수를 일곱 번째의 함수, 즉 배반자의 수로 재확인하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일곱 등장인물과 함께 화술이 만들어지도록 요청할는지 모르는 2개의 다른 “장르(연담과 드라마)”의 병치 정의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목록은 다음 방식으로 표현된다.

- 사자자리(Lion)···정위된 주제적(thematic) 힘
- 해(Sun)···기원하는 선(善)의, 정위되고 있는 가치의 표상(representative)
- 지구(Earth)···선의 내포적 수용자(virtual recipient, 그것을 위하여 사자자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
- 화성(Mars)···반대자
- 저울자리(Libra)···선의 속성인 심판자
- 달(Moon)···앞의 주제적 힘을 배가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의 구조자

우리는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용어법의 강력하고 점성적인 등장인물로 인하여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응집된 반성을 잠복시키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

5. 행위주적 범주의 “주체” vs “대상”

프로프(Vladimire Propp)와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정의는 우리의 해석을 최고의 관점에서 확증한다. 행위주적 범의 제한된 수는 초미우주의 조직을 고찰

하는데 충분하다. 그들의 불충분성은 등장인물 안에 있으며, 동시에 과도하게 그리고 불충분하게 형식적이며, 그것은 이러한 정의에 부여되었다. 그것은 행위주의 수에 의해서만 정의되며, 반면에 모든 내용을 파기하는 조립은 오직 상위의 형식적 레벨에서만 그 정의가 정위되도록 한다. 단순 목록의 형식 아래 행위주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들 간 가능한 관계를 의심함 없이, 그 명확한 생김새를 형식화의 불충분한 레벨에서 정의의 제2의 일부분으로 방치함으로써 너무 일찍 분석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행위주 목록의 범주화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먼저 대략 3개의 목록, 즉 프로프(Vladimire Propp)와 수리오(Étienne Souriau) 그리고 한 번 더 제한된 그것을 우리의 처리방식대로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담화의 통사론적 함수의 고찰로부터 초래될 수 있었던 2개의 행위주적 범주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주 “주체 vs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통사론적 행위주는 프로프(Vladimire Propp)와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2개의 목록 안에서 첫눈에 발견되고 동정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것은 현저하며,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너무 어렵게 정의를 내렸던,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가 양측의 목록 안에 그 목록의 “욕망(desire)”이 동일한 의미론적 투자와 함께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 순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표출의 신화적 차원에 정위되었던, 그렇게 부르기로 제안했던 것처럼 타동성 또는 목적론적 관계가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효과를 실현하는 어의소로 의미소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고찰이 가능한 것 같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욕망과의 관계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첫 번째 행위주적 범주에 의해 정의된 장르 “민담”과 장르 “드라마”라고 하는 2개의 초미우주는 욕망이 “주객치환응집(the quest)”¹⁹⁷⁾이라고 하는, 동시에 실제적이며 신화적인 형식 하에 표출될 화술-발현의 생

19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인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언)와 상응한다.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범주의 동치의 차트는 다음처럼 보일 것이다.

통사론	주체	대상
프로프 (Vladimire Propp)	주인공(hero)	vs 피수색자(sought for person)
수리오 (Étienne Souriau)	정위된 주체적 힘 (Lion)	vs 선을 기원하는 것의, 정위하고 있는 가치의 표상(Sum)

6. 행위주적 범주 “발신자” vs “수신자”

프로프(Vladimire Propp)와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개념에서 제2의 행위주적 범주와 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탐색은 행위주의 자주 일어나는 통사론적 표출(이미 통사론의 레벨에 포함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리 없다. 자주 주목되었던 두 행위주의 복수성은 단일 연기자의 형식 아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개재 없는 결혼의 일반적인 사랑 설화의 결말로만 만들어진 화술에서, 주체는 또한 수신자이며, 반면에 대상은 동시에 사랑의 발신자이다.

$$\frac{\text{그}}{\text{그녀}} \simeq \frac{\text{주체} + \text{수신자}}{\text{대상} + \text{발신자}}$$

네 행위주는 두 연기자의 형식 아래 대칭적이고 역전되어 있으며, 그러나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또한(“세르부르의 우산[Umbrellas of Cherbourg]”에서 노래했던 미셸 르그랑[Michel Legrand]의 쿠플레¹⁹⁸⁾는

a man, a woman,
an apple, a drama
[한 남자, 한 여자,
사과 한 개, 드라마 한 편]

198) couplet: 주제 사이에 낀 에피소드 음악. (역주).

위와 같이 인상적인 개요로 요약한다) 대상과 발신자의 선언(選言)을 안정시키는 것은 3개의 행위주와 함께 하나의 모델을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성배(聖杯, Holy Grail)¹⁹⁹⁾의 주객치환응집(the quest) 유형의 화술에서, 전혀 다른 4개의 행위주들은 2개의 범주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다.

$$\frac{\text{주체}}{\text{대상}} \simeq \frac{\text{주인공(Hero)}}{\text{성배(Holy Grail)}}$$

$$\frac{\text{발신자}}{\text{수신자}} \simeq \frac{\text{신(God)}}{\text{인류(Mankind)}}$$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기술은 어떤 어려움도 취하지 않는다.

발신자 vs 수신자

위와 같은 범주는 프로프(Vladimire Propp)의 분석에서

선의 속성인 심판자 vs 선의 내포적 수용자

위와 같은 둘 사이의 대당관계로 명백하게 표시된다. 이어서 발신자는 두 연기자로 아티클레이션이 되는 것 같으며, 그 첫째는 차라리 욕망의 대상과 결합된다.

(피수색자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반면에 두 번째는 발신자(dispatcher)의 이름 하에 기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발현에서 그것은 때로는 주인공의 임무를 부여받은 왕이며 때로는 아버지(결합된 또는 단일 연기자가 아닌)이다. 따라서 혼란 없이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조력 없이, 우리는 발신자와 함께 욕망된 사람의 아버지를 재구

¹⁹⁹⁾ Holy Grail: 성배(聖杯).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였다고 함; Arthur왕 전설 중의 원탁 기사(圓卓騎士)는 이것을 찾으려고 하였음. (역주)

성할 수 있으며, 그들이 단일 행위주의 두 “연기자”로 분리되어 나타날 때의 그들을 고찰한다.

러시아 민담에서, 수신자를 위함으로써, 그의 활동의 장이 주체-주인공의 활동의 장과 완벽하게 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는, 우리가 뒤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러한 융합이 하위 장르로 장르를 분할하기위해 타당한 기준으로 고찰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다.

그것은 두 행위주적 범주가 전적으로 대상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단순 모델로까지 나타나는 이상, 욕망의 대상과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양측 모두 이다.

7. 행위주적 범주 “보조자” vs “반대자”

우리가 통사론적 모델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이유에 한에서는 다른 행위주의 범주적 아티클레이션을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두 활동영역,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두 종류의 다른 함수가 어려움 없이 인식된다.

1. 그 첫 번째의 종류는 욕망의 방향에서의 행위에 의해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에 의해 조력을 초래한다.

2. 그 다음은 역으로, 욕망의 실현화로든지 또는 대상의 커뮤니케이션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대당에 의해 장애물을 창조한다.

이러한 두 꾸러미의 함수는 우리가 다음의 명목 하에 지시할 2개의 다른 행위주에 귀속될 수 있다.

보조자 vs 반대자

이러한 구별은 우리가 용어 반대자를 차용함으로써 수리오(Étienne Souriau)에 의해 만들어진 구별에 보다 잘 상응한다. 우리는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구조(rescue)”에 차라리 미쇼(Guy Michaud) 의해 도입된 용어 보조자(helper)를 택한다. 프로프(Vladimire Propp)의 형식에서 우리는 반대자가 악한(반역자)이라고 경멸적으로 부른다. 반면에 보조자는 보조자와 증여자(donor, 또는 공급자

[provider]), 2개의 성격을 획득한다. 첫눈에 분석의 이러한 신축성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주가 프로프(Vladimire Propp)에 의해, 수리오(Étienne Souriau)를 언급함이 없이, 연기의 영역에서, 즉 단일 함수의 환원의 조력으로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동차화로 간주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확립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프(Vladimire Propp)를 비판할 의도가 없으며, 선각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고찰될만하지만, 최근 30년 동안 구조주의자적 절차의 일반적인 발전의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를 단순하게 기록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두 고찰할 만한 목록이 단순한 것 대신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때 보다 더 쉽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명백하게 만들려고 했던 행위주적 구조의 신화적 세계에서 보조자와 반대자 간의 이러한 대당과 상응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첫눈에 모든 것은, 문제의 원칙적인 부분을 벗어나, 이제 세계의 호혜적인 것과 악의적인 것을 도식적 양식으로 표상하고 있는 행위주를 가치론적 스크린 상에 투기(투사)된 드라마로, 중세 기독교 드라마의 수호천사와 악마의 화신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으로 정위된다. 또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두 행위주의 제2의 성격이다. 언어 상의 작은 연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들(예를 들어, “대당[the oppsing]”[opposant: 즉 “반대자, opponant”])을 지시했던 것에 의해 분사(participial, 또는 변화) 형식을 생각하도록, 그들이 우연적 “관여자(participants)”이며, 드라마(광경)의 진짜 행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분사는 부사가 동사를 수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명사를 수정하는 형용사일 뿐이다.

정상적인 절차의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부사에 형식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원했을 때, 우리는 함수의 하위계열적 아강을 구성하고 있는 양상으로 그들을 지시했다. 부사의 차라리 빈약하게 정의된 강류 내부에서, 부사의 속성의 매우 제한된 목록은 2개의 대당적인 짝의 형식 하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프랑스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진해서(willingly) vs 마지못해서(unwillingly)

능숙하게(well) vs 서투르게(badly)

이것은 양상적 범주로 정확하게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의 의미론적 해석은 어려운 것 같다. 우리가 투자된 함수를 발견하는 그 변화과정 안에서, 첫 번째 범주는 저항의 예상과 함께 또는 예상 없이 의지의 관여를 지시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범주는 주체가 그 자신의 변화과정(주체가 화자와 동정될 때)을 시사하는 평가의 투기(투사)를 구성할지도 모른다.

벌써 우리가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임이 명백하다. 즉 함수가 구성적 행위주로 고찰된 그 확장은 양상적 범주가 형식화하여 행위주-주체의 하위계열이 될는지 모르는 장면으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을 왜 허용할 수 없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우리와 관련된 신화적 표출에서, 그것은 보조자와 반대자가 행동할 의지의 투기(투사)일 뿐이며, 그리고 그 욕망과의 관계 내부에서 이롭거나 해로운 것으로 판단된 주체 자신의 이미지적 저항일 뿐이라는 것이 잘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양 목록의 진짜 행위주와 마찬가지로 2차적인 것의 출현을 설명하려고 하며, 그들의 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지위를 모두 고찰한다.

8. 행위주적 신화적 모델

규정적인 모든 것 대신에, 자연언어의 통사론적 구조를 여전히 고찰하고 있는 목록으로부터 추론된 이러한 모델은 그 단순·천진난만함과 오직 그 신화적 표출의 분석 때문에 어떤 작용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단순·천진난만함은 전적으로 주체가 목표로 삼았던 욕망(보조자와 반대자로부터의 투기 속에서 얼마간 조정되고 있는 주체의 욕망)의 대상 상에 집중된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정위된 그 사실의 내부에 들어있다.



9. 주제적(thematic; 어간형성모음적인)²⁰⁰⁾ 투자

만약 우리가, 구조화하고 있는 가언처럼, 작용적인 것으로 고찰하고 있는 이러한 모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프로프(Vladimire Propp)와 수리오(Étienne Souriau)의 목록에 통사론적 범주를 비교하고 있는 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표출된 함수의 레벨에서 “주객치환응집(the quest)”으로 그 자신을 변형시키고 있는 “욕망”(보다 많은 의미소적 목록을 가지고 있는)의 보다 더 상술된 관계로서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먼저 그것은 보다 큰 보편성으로 목적론적 성격의 관계, 즉 “실행능력[to be able to do]”의 양태성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표출된 함수의 레벨에서 실제적이거나 신화적인 “행위[to do]”를 되찾았을지도 모른다)로 고찰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델의 가능한 특수화가 먼저 행위주 “주체” vs “대상” 사이의 관계를 시사하여야만 하며, 그때 추가 투자로 구성된 변이의 강류로 표현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극도로 단순화함으로써, 고대(그리스 로마)의 박식한 철학자들에게는 욕망의 관계가 의미소적 투자로, 지식의 욕망으로 상술될지도 모르며, 그리고 지식 드라마의 행위주는 다소간 다음 방식으로 주연(周延, distribute)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20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op. cit., pp. 343~344. thematic(주제적, 테마적); 1. 담화적 의미론의 프레임 안에서, 주제적 궤도는 동류체적이지만 주제적 역할을 축소(환원)할 수 있는 주제의 산포된 표출이다. 2. 주제적 역할은, 행위주적 형식에서, 주제 또는 주제적 궤도(예를 들어, 궤도 “낚시; fishing”는 “낚시꾼; fisherman; Guy de Maupassant의 소설 “두 친구”를 상기하라. -역주)의 역할로 응축되거나 요약될지도 모른다)의 표상을 의미한다. 주제적 역할은 다음 둘 모두를 얻게 된다. 즉, ④ 단순 격아강적인 궤도(담화 속에서 실현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에,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내포적(virtual) 방법으로 그것을 포섭하는 유능한 가동자(또는 동작주, agent)에 귀속시키는 담화형태의 환원, ⑤ 연기자의 궤도에서 그 조정을 결정함으로써, 조정은 그 주제적 역할(명기될지 모르는 그 역할 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얻게 된 동류체)을 위해 정확한 동류체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행위주적 역할과 주제적 역할의 연언(連言, conjunction)은 연기자를 정의한다. 3. 루이 파니에(Louis Panier, 성서 기호학 상의 그의 연구에서)에 의해 제안된 주제적 재범주화의 개념은, 개시되어 있는 동안 화술적 담화의 주제적 역할(사회학적 분류법에 어울리게)에 의해 겪게 된 내용의 변형을 지시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를 들어, 끝까지 그들의 역할(“아버지,” “아들,” “왕” 등으로 흔히 지시된 이러한 연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에 순응되어 있는 연기자의 주제적 궤도로 프로프(Vladimir Prop)에 의해 연구된 민담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복음서는 모두에 사회적, 종교적, 또는 가족적 역할을 도입하고, 반면에 화술적 진전은 최초의 외관(seeming)을 상실함으로써 동반하게 된 그들의 진짜 존재(being)를 나타내는 주제적 “재범주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역주)

제10장 행위주적 모델에 관한 반성

주체 ... 철학자(philosopher)
대상 ... 세계(world)
발신자 ... 신(God)
수신자 ... 인류(mankind)
반대자 ... 물질(matter)
보조자 ... 정신(mind)

같은 방식으로, 투쟁으로 표현된 마르크시스트의 이데올로기는 병치적 양식 속에서 인간을 돕고 있는 그 욕망에 감사하는 것으로 주연(周延)될 수 있을 것이다.

주체 ... 인간(man)
대상 ... 무계급사회(classless society)
발신자 ... 역사(history)
수신자 ... 인류(mankind)
반대자 ... 부르주아 계급(bourgeois class)
보조자 ... 노동자 계급(working class)

수리외(Etienne Souriau)가 “주제적 힘(thematical forces)”의 원리의 목록을 제안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 같았던 것은 이러한 경로이며, 그것이 저자의 바로 그 기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이며 불충분한” 그것은 고찰할 변이의 폭 넓은 관념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요한 주제적 힘

사랑(성적, 가족적, 또는 친구의—감탄, 윤리적 책임, 정신적 관심을 포함하여)
종교적 또는 정치적 광신
탐욕, 허욕, 부의·사치의·쾌락의·환경미의·명예의·권력의·만족의·
궁지의 욕망
선망과 투기

증오, 복수에 대한 욕망

호기심(구체적인, 생명감이 넘치는, 또는 형이상학적인)

애국심

일의 또는 직업(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여행·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삶)

의 확실한 종류의 선택에 관한 욕망

휴식, 평화, 은신처, 해방, 자유에 대한 요구

어떤 무엇과 그 밖의 것에 대한 요구

어떤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연기의 고양에 대한 요구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의, 실현과 성취에 대한 요구

모든 악과 경험의 심연의 일시적 혼란

모든 공포:

죽음의 공포

죄악과 양심 가책의 공포

고뇌와 불행에 대한 공포

주위의 추악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권태에 대한 공포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사랑했던 사람의 불행의, 그들 고통의, 또는 그들 죽음의, 그들의
윤리적 배덕의, 그리고 그들 타락의 불안

내세의 것에 대한 불안 또는 희망

우리는 총망라의 결핍(lack) 또는 모든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의 부재(absence)를 위한 이 매거(枚擧)를 비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저자는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벗어났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중요한 구별에 주목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욕망과 요구의 대당관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공포”의 대당관계이다. “욕망”의 관계상에 집중된 그 제안된 행위주적 모델이 부정적 변형에 민감하며, 범주 안에서 그 텅의 치환,

“강박관념(obsession) vs 공포증(phobia)” 또한

원칙적으로 모델의 텀의 총체적 아티큘레이션 상에서 크게 반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방금 진술했던 가연(대상의 기술 안에서 점진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델의 특수화의 가능성)의 주요한 결점이 여기에 명백히 나타난다. 수리오(Étienne Souriau)에 의해 매겨된 그 가능한 투자는 그 자체로 모델과 관련되지 못하지만, 행위주-주체든지 또는 행위주-대상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의미론적 내용에 의존하며, 그것은 다른 절차에 의해, 행위주적 모델의 구성에 앞선 자질적인 분석에 의해 명료히 그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

10. 경제적-유기적 투자

투자에 대해 언급한다면, 우리는 실제적 표출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영역에서 제안된 작용적 모델에 개략적으로 적합한 행위주적 구조를 진전시키고 있는 현대 신화학에 대한 표출(직업적 투자의 표출)의 예를 제공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증거자료에 의한 입증은 앤솔로지 「경제와 인문과학(L'Économique et les sciences humaines)」에 게재된 “투자행위에 관한 임상조사(A clinical investigation on the behavior of investments)”를 쓴 마르고-뒤클로(F. et J. Margot-Duclots)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비통제 인터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결과는 행위주적 모델의 밑그림을 쉽게 분석해 낼 수 있으며, 그것은 조사자 앞에 드러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자신의 경제적-유기적 활동을 기술하려고 하며 그리고 그것을 사실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따라서 심중-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 행동(moralized behaviors), 즉 신화적 행동(mythic behaviors)이 함축적이며 행위주적인 구조(actantial structure)를 폭로하고 있는 발화자료체로 변형하려고 한다.

주체-주인공은 당연히 경제적-유기적 행위주의 시퀀스를 기술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역할을 떠맡도록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표명할 요구를 느끼는 조사자이다.

투자대상은 계약적으로 사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이다. 주인공은 외부세계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아이처럼 그와 같은 스타일로 언급하게 된다.

반대자는 확립된 평형상태를 협박하는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진보의 형식 속에 자신을 나타낸다.

첫눈에 보조자는 외관적으로 투자 이전의 예비단계의 조사(시장의, 특히의, 수익의 조사, 경제적-유기적 조사와 경영적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주체에 수사적(옹변적) 발전의 충만함 대신에, 그 모든 것이 제6감과 직관의, 신화적 주인공으로 사장(社長)을 변형하는 주술적 그리고 “상쾌한” 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긴박성과 비교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발신자는 경제적-유기적 체계이며, 완벽한 계약·응축 이행의 결과, 그것은 개인적 자유 활동에 의해 사업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주인공에게 부여한다.

수신자는 러시아 민담 속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때 주체와 함께 결합된 그곳이며 또 그 자체로 진취적인 정신이며, 행위주-대상과 행위주-수신자를 포섭하고 있는 혼합주의적 연기자이다. 왜냐하면 주인공 그 자신이 무관심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실례는 마을의 바보 이반(Ivan)에게, 즉 사업의 가치에 부여했던 왕의 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인(contemporary man)이 그의 무계약·이율배반·자유의지의 활동(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관찰은 이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훈련되었다)을 명백하게 해석하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기술이 항상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착란적인 표출의 조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실제적인 그리고 신화적인, 그 복합적인 성격을 예증하는 것을 통하여, 신화적 모델의 존재자에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러한 예를 사용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것 같다.

contract(계약·응축): 1. 매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약·응축은 확립하고 있는 것의, 즉 연결된 주체 각각의 지위(being 또는 seeming)의 수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양극이 맞물림으로써 계약·응축하고 있는 것(contracting)”의 사실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직관적인 생각이 비록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소를 선택하는 두 주체 사이의 “계약·응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entering into a contract)”의 확립 아래 최소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텅 계약·응축(contract)을 조정(措定, posit)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기호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확립에 의해 전제된 존재(being)로 관찰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계약·응축 아래 숨겨진, 그 “교감적인(phatic)”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연성과 임시적인 이해를 구성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긴장(호의를 가진 것 또는 신뢰하지 못하는 예기)과 이완(예기에 대한 반응의 일종으로서)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상호주관적인 구조의 확립은 즉각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연기의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주체 각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압박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기초가 만들어진 상호주관적인 구조상의 임시적인 성분의 이러한 세트를 지시하는 텀 함축적인 계약·응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 기초학적인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회생활이 조우와 투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관용(charity)”과 “결과가 여하튼 간에 선의에서 나온(well-intentioned)” 관습에 의거함으로써, 따로따로 고찰하는 2개의 대당으로 만들어진 관념론적인 태도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점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역으로 구조적인 접근은 함께 고찰된 범주의 조정적이고 부정적인 텀 양쪽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그 논쟁적인 구조(소정의 아프리오리 또는 파괴의 결과)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엄밀한 의미로)의 대당적인 추축(pole)을 구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의 두 유형은 상호주관성의 동일한 계약·응축적인 조직에 속한다.

3. 첫번째 두 종류의 계약·응축은 구별될 수 있다. 그 주체의 하나가 “제안적인 것(proposal)”을 만들고, 다른 하나가 그 제안적인 것의 “실행(commitment)”을 만들고 있을 때, 한쪽만인, 즉 단독적인 것이라고 언급된다. “제안적인 것(proposal)”과 “실행(commitment)”이 서로 뒤섞여 짜일 때 계약·응축은 좌우동형적인(bilateral) 또는 상호적인(reciprocal) 것이 된다. 그러나 일반 사전에서 차용된 그러한 정의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양태적인 성질을 보여준다. “제안적인 것”은 주체 s_2 가 어떤 무엇을 실행하는(또는 실행되는) 주체 s_1 의 요망(wanting)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행”은 암시된 실행 그 자체를 선택하고 있는 s_2 의 요망(wanting) 또는 의무(having-to)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응축은 연좌된 주체의 양태적인 능력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호적인·인식적인 능동성의 조직으로 나타난다.

4. 그 선행관찰은 철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관심사에 의해 고취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담화의 명확한 분석의 성장, 그리고 더 좋은 아종적인·화술적인 담화의, 기초 상에서 발전되었다. 그러한 담화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많은 기술을 에워싸며, 따라서 그들은 기초학자들이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유형학을 확립하는 그들의 연구결과와 위업을 달성시킬 수 있는 주요 기원을 구성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프로프(Vladimire Propp)로부터 도출된 정전적(正典的)인 화술도식은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결합체적인 투사로서, 그 양상의 하나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술도식의 관점에서 보면, 발신자와 주체-수신자 간의 발달에서 확립된 계약·응축은 종합적인·화술적인 진전의 속도를 조절한다. 화술 안에서 추구하는 그것은 계약·응축하고 있는 두 부분에 의해 그것의 실행(execution)으로 나타난다. 수신자의 기증으로 존재하는 주체의 궤도는, 발신자에 의해 화용론적인(또는 보답적인, retribution) 것 그리고 인식적인(cognitive, 또는 재인식, recognition) 것의 양쪽의 재가에 의해, 추구된다. 그것은 계약·응축의 아티클레이션에 기초한 이 결합체적인 조직이 마치 확립, 파괴, 재확립, 그리고 계약·응축의 실행처럼 일련의 계약·응축적인 단위로 해체될 수 있다.

5. 계약·응축의 개념은 교환의 그것과 관계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의 이론은 모스(Marcel Mauss)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경우에, 먼저 그 계약·응축은 지연된 교환으로 나타난다. 그 간격은 신용(confidence)과 채무(obligation)와 같은, 오른쪽의 대변(貸邊, credit)과 왼쪽의 차변(借邊, debit)과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긴장에 의해 보충된 그것의 실행으로부터 그것의 귀결을 분리한다. 그러나 2개의 가치대상의 교환을 에워싸고 있

는 단순작용으로 보이고 있는 최종고찰은 단지 화용론적인 능동성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식적인 레벨에서 본질적으로 위치를 잡는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환은 위치를 잡을 뿐만 아니라, 두 부분이 주어진 대상을 위한 대응물로 수용된 대상가치의 “가치”로 보증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흔히 주제들의 설득력 있는 실행 그리고 해석적인 실행에 의해 진제된)이 실제적인·화용론적인 작용에 선행하는 것으로 확립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6. 그러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그것이 발화-담화 안에 명기되고 있는 한, 그리고 화용론적인 가치를 에워싸고 있는 한 발화적인 것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언의발언적인 계약·응축(F. Nef에 의해 제안된 텀), 또는 진정성의 계약·응축인 것 같은 언의발언(enunciation)의 구조의 레벨로 표출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화-담화의 진정한 지위(언급-진실)를 에워싸고 있는 언의화자와 언의청자 간의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관습을 확립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증거(예를 들어, 자명한 확실성)의 근거가 될 수 있거나, 언의화자의 설득력 있는 실행(믿음-원인, causing-to-believe)에 선행할 수도 있고, 그 언의청자 또한 해석적인 실행(신앙, believing)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59~60. (역주)

11. 행위주와 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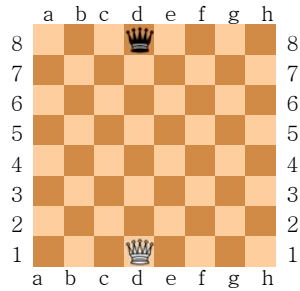
비록 부여되었을지라도, 대상의 고찰 속에서 주제적 투자의 질차가 언제나 자질적인 분석과 함께 행위주적 모델의 기술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서 행위주적 모델의 변이를 고찰하기에 그리고 그들의 유형학(typology)을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행위주의 주연적 도식과 그리고 행위주와 연기자 사이의 문체론적 관계의 유형을 평가하는 것을 관찰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주적 모델의 “유형화하고 있는” 특수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행위주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 남게 될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의 유형학적 기준은 종종 행위주의 혼합주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등록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델들을 스스로 혼합시키고 있는 그 행위주의 성격에 따르고 있는 장르로 세분할 수 있다. 민담에서 우리는 주체와 수신자가 원형-행위주(arche-actant)를 구성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어 경제적-유기적 투자에서 원형-행위주는 대상과 수신자 등의 혼합주의로 실현화된다. 비가치론적 영역을 얻게 됨으로써, 실례는 보다 명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체스 놀이에서, 퀸은 비숍(주교 모자 모양의 장기 말)과 루크(성정城將, 장기의 차에 해당)의 혼합주의적 원형-행위주이다.²⁰¹⁾

두 번째 기준을 위하여 혼합주의는 행위주의 분석적 분류에 의해 하위개념적(hyponymic)과 하위계열적(hypotactic)으로 구별되며, 그것은 그들 함수의 상보적 주연(周延)과 상응한다. 따라서 그것은 프로프(Vladimire Propp)가 피수색자와 그녀의 아버지(그는 아마 여자-대상의 인간존엄을 보존하기위하여 탐색했을 것이다)로서의 수신자를 정의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분석은 신화학이 함수의 상보적 주연을 고찰하기 위하여 연기자의 레벨에서 유사구조에 적합한 행위주적 단자를 더 편애하는 것을 흔히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위주는 흔히 마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쌍생아 등처럼 연기자의 짝으로 그룹을 만든다(그것은 아직 함수의 상보적 주연과 수사적 접침, 고정관념으로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준연외지연적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 그들 사이의 범주적 대당을 구별하는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 행위주적 구조의 기술 안에서 정신분석에 의해 사용된 유사모델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그들은 행위주의 주연의 레벨에서 연기자로 정위되는 것인가, 또는 일반화의 결과 첫눈에 행위주 범주의 은유적 형식화를 과도하게 나타내는가?

세 번째 유형의 기준은 어쩌면 하나 또는 더 많은 행위주의 부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론적 고찰은 오로지 많은 회의와 함께 그러한 가능성을 제안하도록 허락한다. 수리오(Étienne Souriau)에 의해 인용된 행위주 부재의

201) 퀸(Queen): 체스게임에서 가장 강력하다.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모든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전지전능의 말이다. 비숍(Bishop): 대각선으로 어떤 말이 막고 있지 않은 한 쪽 나간다. 2개를 소유하는데, 각각 다른 색의 판에 있다. 생긴 건 꼭 비숍(대주교)의 모자같이 생겼다. 루크(Rook): 체스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말들 중의 하나이다. 보드의 각각 끝에 놓으며, 가로 세로로 막히지 않는 한 쪽 나간다. (역주)



예는 행위주의 표출을 기다림으로써 생산된 극적 효과로 모두 해석되며, 그것은 부재로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이다. 코미디의 최초의 행위 또는 블루 비어드(Blue Beard)²⁰²⁾의 설화에서의 구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반면에 위선자의 부재는 행위주적 구조의 경제성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행위주의 현존재를 오로지 보다 더 날카롭게 표현할 뿐이다.

작용적 관점에서, 그리고 행위주의 어느 특별한 주연에 관한 실재성의 문제를 제기함 없이, 우리는 단순 하위계열적 구조 안에서 행위주의 가능한 아티클레이션 때문에 보다 단순한 원형-행위주적 구조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나 또한 늘릴 수 있는(것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정확하다고 하는, 그러나 확실히 고찰되지 않는 한계), 기술적 최적조건으로 제안된 행위주적 모델을 고찰할 수 있다.

행위주의 단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그것은 그곳에서 부분적으로 함수적인 분석에 의지할 뿐, 프로프(Vladimire Propp)를 따름으로써, 비록 자질적인 분석의 결과로 기술된 내용의 아티클레이션을 휘방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위주적 모델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자질적인 분석 때문에 연기자의 출현을 얻게 된 행위주의 단자는 흔히 분류법적 기술의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치론적 네트워크와 그런 어의소의 단자 안의 고착장소로, 구성된 어의소의 형식 하에, 행위주는 나타나며(우리가 자율적으로 "tired/fatigué"라고 그 어의소를 분석했을 때 관찰했던 것처럼), 만약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체론적 레벨에 의지하거나, 따라서 남김없이 총망라한 자질적인 분석의 결과로 오로지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프로프(Vladimire Propp)의 분석에 관하여(à propos of Propp's analysis), 즉 민담세계의 기술이 그것을 얼룩지게 하고 있는 가치론적 문화적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다고 언급할 때, 원칙적으로 그와 동의한다 해도, 우리는 이것이 기술을 위하여 주요한 장애물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반면에 불완전하게(incomplete) 유지되고 있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해질 수 있다.²⁰³⁾ 따라서 다른 설화-발현으로부터 차용된 비교 가능한 시퀀스로부터 착수하여,

202) ① 푸른 수염의 사나이(6명의 아내를 차례로 죽인 잔혹 무정한 남자). ② 잔인하고 변태적인 남자[남편]. (역주)

203) Claude Lévi-Strauss, 「구조와 형식(Structure and Form)」, p. 135.

한 그루의 나무가 그 길을 표시하다(a tree shows the way...)

두루미 한 마리가 말 한 필을 증여하다(a crane makes a gift of a horse...)

새 한 마리가 감시하다(a bird spies...)

위와 같이 우리는 “조력자(또는 측근, aide)”의 어느 일반적인 함수로 빈사를 알맞게 환원할 수 있고, 그들을 포섭하는 보조자-행위주를 3개 한 조의 연기자로 지명한다. 우리는 가치론적 기술의 조력 없이 원상태로 복구시킬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연기자의 특수 단자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적이며 문체론적인 것의 최초의 원소가 단순 함수적인 분석으로부터 형식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12. 행위주의 약동적인 성격

요컨대, 우리는 행위주적 모델이 통사론적 구조의 외삽이라는 것을 첫째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행위주는 가치론적 내용의 단자일 뿐만 아니라 변화과정의 가능성으로 확립된 강류적 기초이다. 그 모델의 지위는 관성적(타성적) 성격을 행위주에게 부여하며, 그것은 기술된 약동성으로 정의된 함수와 대당이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수리오(Étienne Souriau)가 행성의 명목과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zodiac)²⁰⁴의 기호(sign)를 행위주에게 부여할 수 있었던 그 추론(또는 무제약·이율배반·자유의지; reason)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점성학적 상징 기호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적 구조인 “힘”의 별자리를 매우 잘 설명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의 개념화가 인간 행동의 고찰이 가능할 수 있는 행위주 모델의 탐색 상에 대부분 안착하고 있는 그 프로이트적

204)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zodiac);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의 둘레를 12등분하여 매겨놓은 성좌의 이름. 황도(ecliptic); 태양의 시계도(視軌道). 즉 지구에서 보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구상의 대원(大圓). 적도에 대하여 23도 반 경사점. 그 적도에서 만나는 점은 춘분점 및 추분점이고, 태양이 그 점에 이를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음. (역주)

정신분석(Freudian psychoanalysis)의 맥박이 뛰고 있는 약동적 형식화를 위한 추론 중의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²⁰⁵⁾ 점성술적 모델을 소유함으로써, 마치 점성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12궁도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프(Vladimire Propp)는 정확히 기술된 장르의 모델이 새로운 설화-발현의 기계적인 구성을 허락하지 못할 것인지, 추론이 있는 것인지, 그 자신에게 질문한다.

의미효과의 레벨에서 그들을 관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의 특별한 성격은 의인법(personification), 구상화, 알레고리, 이미지리 등 어떤 유형으로든지 간의 질차를 설명할지도 모르는 어떤 행위주적이며 문체론적인 것을 위하여 이탈의 관점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표출의 가장 격아강적인 레벨로 퇴락하여 극히 “추상적”인 관념론과 함께 발생하는 쇠락(瀛落)은, 대문자, 즉 Liberty(자유), History(역사), 그리고 “The Eternal Feminine(언제나 여성적인 것)”이 마치 Danger(위험), “Good News(좋은 소식),” 그리고 도를레앙(Charles D’Orléans, 15세기 프랑스의 시인)의 “우울(Melancholy)”처럼 그저 어떤 문체론적 지위와 비교할만한 다른 연기자를 재발견하는 그 로맨틱한 경험의 조력으로 일격을 가한다.

그것은 주체-행위주가 충전하고 있는, 마치 다음처럼 의미의 효과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 어의소를 신인동형동성화 하도록 촉진하는 것 같은 것과 동등하게 나타난다.

연필이 서툴게 쓴다...(the pencil writes badly...)
 신문은 생각한다...(Newspaper asks itself...)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위계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징기호적”이라고 했던 의미의 효과를 허락하는, 대상-행위주를, “수동자(수난자)”와 “연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마치 다음처럼.

이브의 사과(Eve’s apple)

²⁰⁵⁾ 행위주의 모델이 구체적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분할적인 방식으로서의 그 애매한 작용이 그 내부에서만큼은 그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역주)

프로메테우스의 불(the fire of Prometheus)

우리는 그러한 문체론적 작업이 모든 행위주의 약동적인 성격과 그들 서로에 적합한 아티클레이션에서 결과한 그 혼합주의에 기인한 의미의 효과로 해석한다는 것을 관찰한다. 부분적으로 어원론적 탐색과 재 접합하고 있는 단자의 설명이론은, 내용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류법적 네트워크 안에 재 결합된, 어림으로 예측될 수 있는 단지-사건의 출현의 개연성으로부터 변이의 목록을 형성할지도 모르는, 행위주적 경향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13. 행위주적 모델과 정신분석학적 비평

이 단계에서, 정신분석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신화적 표출을 재발견한 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위주적 모델은 정신분석학이 공들여 만들었던 모델과 비교할 수 있거나, 투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리오(Étienne Souriau)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프로프(Vladimire Propp)에게서도 발견된, 프로이트적 리비도(Libido)와 닮은, 대상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투자가 시초에 확산되었던 대상의 가치를 확립하고 있는, 욕망은 주체의 상징기호적 우주(symbolic universe)를 특수화한다. 다른 한편 다른 역할의 주연은 우리의 제안된 작용적 도식과 정신분석학 안에서 사용된 다른 모델 간의 발산과 마찬가지로 유사점을 지시한다.

언어학자의 강요, 즉 간단히 말해서, 어떤 신성시 된 이러한 영역에서 독신(續神)의 강요는 먼저 하나의 예를 마련했던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의미론적 기술을 위해 그 자신의 모델을 제안하는 정신분석학의, 다양한 야망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정신분석적 모퉁(Charles Mauron)의 해석, 즉 문학적 탐색에 적용된 그의 사고방식(idea)이 저자에 의해 정신분석적 비평(희극 장르의 정신분석적 비평[Psychocritique du genre comique, 1964])으로 불렸던 것을 약간 더 주도면밀하게 시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저자가 영어 원전(그 중에서도 특히 페어방[Roland Fairbairn])²⁰⁶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수리

오(Étienne Souriau)의 방법론적 경로를 대충 따랐다고 상상했을 것이다. 아마 이것은 충분히 일반적이며 인식론적인 태도의 존재자를 입증하는 그 행복한 수렴(收斂, 또는 폭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모드의 경계는 3개의 기본적인 개념과 분석절차의 많은 별개의 프레이즈(phrase)를 가지고 있다. 어떤 프레이즈로부터 다른 프레이즈로의 변천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최초의 프레이즈가 다음 장의 관념론적 분석과 유용하게 비교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 프레이즈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나타난다.

1. 기술의 첫 단계는 동일 작가에 의해 얼마간의 시(poems)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공통 무의식의 네트워크 발견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식별했던 두 절차를,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의미론적 함수에 환원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하여(우리는 그것을 뒤에 기도할 것이다) 이러한 함수가 정위되는 절차를 투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말라르메(S. Mallarmé)의 두 소네트, 즉 "Victorieusement fui..."와 "The Hair...; La chevelure vol d'une flamme..."의 이중노출(또는 겹치기, superposition)은 함수의 환원과 조직의 절차를 밝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는 "「강박관념(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의 은유로부터 개인적 신화까지(「From obsessive metaphors to personal myth: Des métaphores obsédantes au mythe personnel, pp. 39~40」)"에서 하나의 예를 제공한다.

206) W. Roland Fairbain, 「개성의 정신분석학적 연구(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London: Tavistock, 1952).

제10장 행위주적 모델에 관한 반성

구성된 함수 (constructed function)	죽음 (Death)	전투 (Combat)	승리 (Triumph)	위풍 (Grandeur)	웃음 (Laughter)	
발현-함수 (function- occurrence)	제1의 소네트	자살 (suicide) 무덤 (grave) 감부기불 (torch, tison)	피 (blood) 폭풍우 (tempest) 투구 (military casque)	의기양양하게 (Victoriously) 영광 (glory) 황금 (gold) 제위, 추기경 (purple) 화려 (pomp) 축제 (feast) 보배 (treasure) 승리 (triumph)	왕(royal) 고척자, 영감을 주는 사람 (inspiration, inspiratrice)	웃음 (laughter)
	제2의 소네트	죽다 (to die) 탄식하다 (to sigh)	피 (ruby) 껍질을 벗기다 (flay)	영광 (glory) 공훈 (exploit) 눈부심 (dazzling) 수호의 (pupil, tutélaire)	왕관 (diadem) 왕관을 쓴 머리 (crowned head)	웃는 얼굴 (laughing eye) 기쁨의 횃불 (joyous torch)

그것은 이러한 환원(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을 허락했던 기술절차의 어떤 암시를 탐색하는 것이 무익한 것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첫째 그것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무의식적 성격을, 두 번째는 제안된 무의식의 비언어학적이며 구성적인 “자율적 영매 형성(autonomous psychic formation)”의 존재자를 허락하고 있는 그들의 지속적이며 강박관념적인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첫 번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두 번째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은 다른 텍스트 안에 명시된 “신화적 격상들(mythic figures)” 사이의 “눈에 띄지 않는 감정적 유사성(secret affective similarities)”을 발견하기 위하여 발화자료체로부터 선택된 시퀀스의 이중노출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의 자태인 이러한 격상은 그 자신을 격상의 무리로 구성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용어법적 동치를 입증한다면, 연기자로 고찰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수동적 격상들(여인, 코미디언, 유리제품장인, 괴물, 어릿광대, 난쟁이 등)”은 모퉁(Charles

Mauron)이 “망상의 운반자”로 지시하는(p. 134) 단순 행위주로 환원된다. 연기가 행위주로 환원하는 것은 이것의 실체인 “연기의 영역” 안 함수의 재편성에 의해 추구된 배태(胚胎)적 상태에서 일종의 함수분석에 의해 확립된다. 모롱(Charles Mauron)에 의하면, “망상의 운반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traits)을 나타낸다.

1. 그들은 자신을 출현시키기 위한, 중재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진한다.
2. 그러나 이 행진은 희망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실패했음을 느끼고, 중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null) 해(더러운,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적개심)가 된다.
.....
가장 일반적인 인상은 매춘(prostitution)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위하여, 보다 더 가혹하게 추구된 이것이 아마 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정신분석학에서 차용한 해석이 첨가될 수도 있다(천진난만하게 나타난 저작물, 그러면서도 끈덕지게 “과학적인” 것으로). “자율적 영매 형성”에 대하여 정의적으로 아무것도 언급될 수 없으며, 그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의식적 꿈과 걸맞게 융합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변종의 환상 속에 빠져 발견된다.

3. 세 번째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은 개성적 구조로 정의된 개인적 신화의 정의를 내포한다. 어느 위대한 프랑스 시인의 의미론적 우주에 이러한 방법론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모롱(Charles Mauron)으로 하여금 몇몇 “격상의 무리”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자율적 영매 형성”을 관찰하도록 허락한다. 만약 연기가 단 한번의 시도로 어느 한 시로부터 다른 시로, 어느 한 저서로부터 다른 저서로, “극적 장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구성하고 있는 행위주 자신은 충돌관계의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에, 즉 안정체계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롱(Charles Mauron)이 개인적 신화라고 명목을 붙인 “내재의 극적 장면”이다.

노트: 말라르메의 시 “Victorieusement fui...”는 아래 번역을 참조하라.²⁰⁷⁾ (역주)

207) 프랑스 원시는 아래와 같다.

Victoriously the grand suicide fled
Foaming blood, brand of glory, gold, tempest!
O laughter if only to royally invest
My absent tomb purple, down there, is spread.

What! Not even a fragment of all that brightness
Remains: it's midnight, in the shade that fetes us,
Except from the head there's a treasure, presumptuous,
That pours without light its spoiled languidness,

Yours, always such a delight! Yours, yes,
Retaining alone of the vanished sky, this
Bit of childish triumph as you spread each tress,

Gleaming as you show it against the pillows,
Like the helmet of war of a child-empress
From which, to denote you, would pour down roses.

—“Victorieusement fui le suicide”(Stéphane Mallarmé)”

의기양양하게 사라지는 이 장엄한 자결,
내뿜는 피거품, 영광의 불길, 황금빛, 폭풍우여!
그곳, 시체 없는 나의 무덤이 제왕처럼 자줏빛 옷으로
장식된다면, 오오 비웃음거리로다.

이 뭐꼬! 한 오라기의 빛도 남아있지 않고,

Victorieusement fui le suicide beau
Tison de gloire, sang par écume, or, tempête!
O rire si là-bas une pourpre s'apprête
À ne tendre royal que mon absent tombeau.

Quoi! de tout cet éclat pas même le lambeau
S'attarde, il est minuit, à l'ombre qui nous fête
Excepté qu'un trésor présomptueux de tête
Verse son caressé nonchaloir sans flambeau,

La tienne si toujours le délice! la tienne
Oui seule qui du ciel évanoui retienne
Un peu de puéril triomphe en t'en coiffant

Avec clarté quand sur les coussins tu la poses
Comme un casque guerrier d'impératrice enfant
Dont pour te figurer il tomberait des roses.

—“Victorieusement Fui Le Suicide Beau(Stéphane Mallarmé)”

지금은 야반, 우리에게 향연을 베푸는 저승에서
건방지게 내 사랑하는 이의 머리 저 너머
어둠 속에서, 몹시 나른함을 쏟아 붓는구나.

나의 그대는, 언제나 그런 환희! 그대는, 그래
사라진 하늘 속에 홀로 남아있는, 머리카락 풀어진
바로 그것은 소꿉놀이 아이의 작은 승리의 환희.

전쟁놀이 어린 여왕의 그 투구와 같이
그대가 그 머리를 높이 치켜들어 번쩍거릴 때
그것은 장미꽃잎으로 쏟아져 내리는구나.
—“의기양양하게 사라지는…” (Stéphane Mallarmé)” (역주)

14. 정신분석학적 행위주적 모델

첫눈에 “강박관념의 극적 구조(obsessive dramatic structures)”는 우리의 행위주적 모델에 꽤 근접하여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들을 구조로 정당하게 구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것(행위주적 모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주는 단순히 함수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행위주적 모델은 행위주목록의 계열체적 구조의 의미로 획득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모롱(Charles Mauron)은 행위주들 간 충돌관계 확립의 가능성을 “장면의 이중노출”로 본다. 그러나 그 장면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 수리오(Étienne Souriau)가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의 명제, 그리고 함수가 통사론에 귀속된 사건의 목록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며,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주들이다. 변이를 동시에 2개의 강류로 분해할 수 있는 분석은 없다. 그러나 정신분석비평은 이러한 세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충돌의 장면과 정신분석학적 전통이 제공하고 있는 신인동형동성화의 모델 양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연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몽상가 자신은 꿈속에서 둘 또는 세 사람의 자태로 동시에 재연된다. 나 자신은 다음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즉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먼저 몽상가의 개성의 일부로든지, 또는 두 번째로 관계 안에서, 내재의 실재성 속에서, 매우 흔하게 동정된 몽상가 개성의 일부와 함께든지 하여간 인간을 재연한다(모롱[Charles Mauron]이 인용한 페아방[Roland Fairbain], 「개성의 정신분석학적 연구(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p. 217).” 따라서 정신분석비평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

해 공들여 만들어진 모델을 마음대로 처리하며, 그리고 그것이 떠맡은 기술은 연기자들의 대치를, 이미 확립된 행위주적 구조의 의미로 인식된 “장면”을 허락하고 있는 질료들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러한 모델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식화될는지 모르는 비판은 모롱(Charles Mauron)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잘못 고찰한 정신분석학의 특수개념을 직접적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바로 그 “존재(being)”에 대한 폭행(또는 공격, attacking) 없이도, 우리는 여기에 용어법에 대하여 얼마간의 유표를 만들는지 모른다. 그 분야의 전문가 자신도 정신분석학에 의해 공들여 만들어진 기계적 개념의 발화자료체는 매우 이질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언어학적 의미의 목적으로 어휘화된, 영매관계를 붙잡고 있는 연속작용과도 상응한다고 인식하고 있다(폰탈리스[J. B. Pontalis]).²⁰⁸⁾

1. 먼저 총괄구조와 상대적으로 하위계열적이면서 얼마간 중첩된 단층(초자아[*superego*], 자아[*ego*], 무의식[*id*]) 속에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것으로 개성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관자놀이-공간적 성격의 개념화가 존재한다. 그것은 모롱(Charles Mauron)이 “각각의 격상이 자아 또는 초자아의 어떤 양상 또는 무의식(p. 210)”만을 오로지 재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또는 그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의식적 자아가 등장인물과 동정된다(즉 “군주다운 고양이”로 명목이 붙여진 행위주[p. 134])”고 언급할 때, 그때의 그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러한 모델이다. 개념의 관자놀이-공간적 어휘화는, 오늘날 아마 인간과학의 피할 수 없는 해악이 될 것이며(마토레[George Matoré]가 그것을 잘 안다),²⁰⁹⁾ 우리는 변화과정에 의해 우롱당하지 않고 그것을 자주 사용한다. 언어의 두 측면 또는 표출의 두 차원은 정의의 레벨에서 관자놀이-공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은 복합구조인 2개의 과장 텀을, 즉 상호전제에 의해 서로 연결된 텀을 단순하게 지시한다. 우리가 이점에 대해 감히 도전하여 진술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의 이러한 레벨이 정신분석학에 의해 어떤 때는 매우 일반적인 구조의 레벨로,

208) Pontalis와 Laplanche, 「영매분석의 언어(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209) George Matoré, 「프랑스 사전의 역사(Histoire des dictionnaires français)[Paris: Larousse, 1967.]」

또 어떤 때는 행위주적 구조의 표현(그들은 행동하고, 고통을 받고, 금지로부터 해방된다)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그리고 이것은 언어학자들을 상당히 괴롭힌다)는 의식의 레벨로 고찰된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범주 “의식” vs “무의식”을 고려하고 있는 한, 그가 프랑스어의 문법적 구조를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겪게 되는 언어학자로서의 혼란을 꼭 상상해보라. 각각의 단수의 아티클레이션에 대해서, 복수는 잠재의식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며, 그 직설법은 무의식적 가정법과 대당이 될지도 모른다. 소쉬르와 그의 의미구조의 개념(우리는 이에 관하여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언급한 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²¹⁰ 때문에, 무의식과 대당이 되고 있는 2분법적 범주가 인간과학 안에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상도야(assumption) 개념(역자의 노트 VI. 4. c를 보라)으로의 치환을 시도하고 있는 라캉(Jacques Lacan)의 합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종한다(여담이지만, 모롱(Charles Mauron)이 겪는 어려운 강박관념적 은유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저마다의 시인에게 의식적이든지 또는 무의식적이든지 하여간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2. 다른 한편, 친족구조의 기술적 용어법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주적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은 서구의 핵가족의 패턴(부모와 자식)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지든지, 또는 적어도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시대에 유행했던, 인류학적으로 모호한, “원시유목민”의 표상에 따르든지,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최초의 모델과 경쟁 속으로 들어가며(계층화된 모델이 행위주적인 것으로 활용되는 한), 그리고 예를 들어, 모롱(Charles Mauron)이 몰리에르(J. B. P. Molière)를 분석했던 그 분석 속에서 그것과 치환되기까지 한다. 일종의 인식론적인 두 진술은 다음과 같이 관찰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친족구조”의 모델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고, 역으로 그것은 행위주의 문체론적 “투시도법”의 어휘화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 복잡하게 된 몇몇 관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어려운 방법론적 유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정신상의 그 충격은 매우 강하며, 그리고 수세기 동안 방법론적 반성에 대한 억제효과를 알고 그것을 경험했던 언어학자들처럼 그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한다.

210) Richard McCleary 역, 「기호(Signs)」(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p. 39~41.

3. 거기에는 먼저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복합구조보다 더 나은 어떤 장면을 기술하는데 은유적으로 사용했던, 그리고 그가 뒤에 유형적 성격을 이 끌어냈던, 결과적으로 마치 오이디푸스 신화와 같은 신화적 모델이 존재한다.

“친족구조”에 관여하여 하위계열적이며, 그 불확실한 모델의 합성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그것은 그들을 어떤 무엇으로 어렵듯이 느끼는 귀납적 성격이며, 그리고 우리는 변형과 마찬가지로 행위주적인 분석모델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목록 그리고 실제적인 경우의 예시와 신화적인 단자의 단계를 초월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을 인정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어떤 분야가 탐색하는 개념화를 위한 은유적 절차의 확립이 과학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고찰할만한 결과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언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 사실 외에 그것은 신화(상수, constant)²¹¹와 실재성을 위한 은유 획득의 “무의식적인 것”의 유혹에 굴복하며, 또한 정신분석학은 그 신화의 발견을 형식화함으로써, “환원되어 일의어적(一義語的)이며 명석한, 그러면서도 시적이며 애매한 언어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흔히 애매성의 근본원리(hypostasis)로 확장될 수 있는 그 방법론적 메타언어의 구성을 유도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다른 분야에서 잘 알려진, 즉 회화(painting)를 언급하기 위한 음악적 어휘의 사용은, 또는 그 역은 얼마간의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은유적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생긴 영역은 그 개념과 공준을 새로운 양식으로 진척시키고 아티클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류학적으로 신화의 정의와 함께 발생된 것임이 분명하며, 반면에 모롱(Charles Mauron)은 그것을 정신분석학과 문학적 개성의 구성 사이의 중간 용어로 고찰하는데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일련의 동화(同化)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은 반인과적(半因果的, semicasual)이며, 반유비적(半類比的, semianalogical)이며, 그러나 항상 “약동적”(“영상언어”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하여 “구체적인 언어”를 얼마나 선호하는가)이며, 저자는 끊임없는 환상에, 결국 개인적 신화에 대한 유년기의 과민자극으로부터 이러한 발생적 “진

211) invariant(논리적 지식적 랑그적 관점의 상수) vs duration(장기[기본적] 중기[역사적] 단기[문체론적]를 모두 종합하고 있는 총체적 관점의 지속성, 즉 상수)이며, 다시 duration과 변별되고 있는 permanence(=constant, =obsession)는 오직 단기적이며 문체론적인 신화(상수)일 뿐이다. (역주)

체(whole)의 통일성에 이르게 한다. 그 “전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자율적 영매 형성”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약동적이며 구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의된, 폭넓은 윤곽 안에서, 날것으로서의 표출의 형식으로 고찰된 어떤 신화적 화술과 상응하는 개인적 신화는, 그리고 고유의 구조가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분석에 당연히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종의 패러독스로서의 그것은 용어법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 정신분석적 방법은 배후의 투쟁이며, 그 모든 것과 함께 분석이 방법론적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그곳이 바로 발단(beginning)이다.

제11장 변형 모델의 탐색

1. 환원과 구조화

a. 함수의 조직화

프로프(Vladimir Propp)의 민담의 신화학은 오늘날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그는 같은 유형의 유럽의 다른 민담과 러시아 민담의 유사성을 고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저서의 내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개진해도 좋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된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함수에 대한 기술(곧, 발현 민담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화술의 결합체적 단위의 응축을 단자화 된 의미론적 단위로, 그리고 그들의 현존제와의 관계 속에서 상수로 그들이 병합된 것의 단위로, 존재[일치]하는 기술)을 진행한 후에, 프로프(Vladimir Propp)는 민담 그 자체로서의 화술의 이중정의를 제안한다.

1. 따라서 기술된 함수와 그들이 귀속된 행위주 사이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프로프(Vladimir Propp)는 특별 행위주를 저마다 변이로 또는 상수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로 그 활동의 영역 안으로 함수를 거두어들인다. 그 결과, 이것은 그가 일곱 명의 등장인물과 함께 하는 화술로 설화를 진술하도록 허락한다.

2. 그들의 시퀀스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함수를 고찰함으로써, 프로프(Vladimir Propp)는 그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진 민담의 두 번째 정의를 획득한다. 즉 ㉑ 첫 번째의 함수는 보다 더 정확히 말해서 31개의 함수의 목록을 말하며, ㉒ 두 번째의 함수는 그들이 의무적으로(인과적으로, 실제[substance]에 근거해서 연역적·구성적으로) 만들어진 시퀀스의 목록을 말한다.

앞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인 행위주적 모델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화적 초미우주의 보다 많은 기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확장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프로프(Vladimir Propp)의 첫 번째의 정의를 진전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제 새로운 탐험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관찰했던 것처럼, 함수분석은 행위주와 근거의 내용을, 더 나아가, 행위주적 모델의 구성을 기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화술 안에 조직될 수 있을지라도, 그 함수들 간의 관계의 기술을 위한 출발의 관점으로 적당히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㉓ 어떤 착란적인 표출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과장 때문에 단순 구조로 포착된, 충분히 환원된 수로 나타나며, ㉔ 동시에, 화술 안의 그들의 시퀀스는 의미작용 구조의 변형모델의 존재자를 분명히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원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추측을 어떤 범위 내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구성된 목록을 다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㉓ 그것은 적당히 환원될 수 있는지 어떻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함수적인 총체가 단순구조로 포착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과, ㉔ 함수의 필연적 시퀀스가 어떻게 존재(일치)하며, 그리고 어떤 확장까지 그것이 구조의 실제적 변형과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술된 목표와 함께,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새로운 환원과 가능한 동차의 구조화를 진행시키는 것에 의해 목록의 이러한 단순화를 기도하려고 한다.

b. 함수의 목록

함수에 관한 프로프(Vladimir Propp)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1. 부재(*absence*)
2. 금지(*interdiction*)
3. 위반(*violation*)
4. 조사(*reconnaissance*[inquiry])
5. 정보(*delivery*, [information])
6. 기만(*fraud*)
7. 굴복(*complicity*[soumission])
8. 악행(*villainy*)
- 8a. 결핍(*lack*)
9. 지령(*mediation, the connective movement*[mandate])
10. 주인공의 결심(*beginning counteraction*[hero's decision])

제11장 변형 모델의 탐색

11. 이탈(또는 출발; *departure*)
12. 시련(시험)의 할당(*The first function of the donor*[assignment of a test])
13. 시련(시험)과의 조우(*The hero's reaction*[confrontation of a test])
14. 보조자의 수령(*The provision, receipt of magic agent*[receipt of the helper])
15. 관자놀이-공간이동(*spatial translocation*)
16. 투쟁(*struggle*)
17. 유표(*marking*)
18. 승리(*victory*)
19. 결핍의 제거(*The initial misfortune or lack is liquidated*[liquidation of the lack])
20. 귀환(*return*)
21. 박해(*pursuit, chase*[persécution])
22. 구출(*rescue*)
23. 재인식 받지 못한 도착(*unrecognized arrival*)
24. 8a를 보라.
25. 임무의 할당(*The difficult task*[assignment of a task])
26. 성취(*solution: a task is accomplished*[success])
27. 재인식(*recognition*)
28. 반역자의 폭로(*exposure*[revelation of the traitor])
29. 주인공의 폭로(*transfiguration: new appearance*[revelation of the hero])
30. 형벌(*punishment*)
31. 결혼(*wedding*)

(노트: 이태리체로 된 텃은 프로프[Vladimir Propp]의 용어를 영역한 것에서 인용된 것인데,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는 그의 텍스트 안에 그것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예 안에, 우리는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가 번역하고 또 수정하고 있는 영어와 의미적으로 다른 그의 프랑스어 역을 괄호 안에 포함시켰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용어만을 사용한다[그가 사용하는 것처럼].—영역자)

c. 함수의 커플링(2항 결합, *coupling*)

이러한 31개의 함수는 고찰된 그 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목록을 아주 폭넓게 구성한다. 따라서 먼저 함수의 “커플링(*coupling*)”의 가능성을 혼란시켜 상

상하고 있는 프로프(Vladimir Propp) 자신의 제안에 따라 그것의 환원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²¹²⁾ 그러나 이 단계에서 커플링은 오로지 경험주의적인(연역적인 것이 제외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중의 급박성 상에 안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커플링이란 상상된 에피소드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그리고 오로지 2개의 함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에피소드적인” 단위로 만들어진 화술의 응축을 말한다.

그러한 “환원”이 이루어진 뒤에, 프로프(Vladimir Propp)의 목록은 다음 방식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다.

1. 부재(absence)
2. 금지 vs 위반(interdiction vs violation)
3. 조사 vs 재구성(inquiry vs reformation)
4. 기만 vs 굴복(fraud vs complicity)
5. 악행 vs 결핍(villainy vs lack)
6. 지령 vs 주인공의 결심(mandate vs hero's decision)
7. 이탈(또는 출발; departure)
8. 시련(시험)의 할당(assignment of a test) vs 시련(시험)과의 조우(confrontation of a test)
9. 보조자의 수령(receipt of the helper)
10. 관자놀이-공간이동(spatial translocation)
11. 투쟁(struggle) vs 승리(victory)
12. 유표(marking)
13. 결핍의 제거(liquidation of the lack)
14. 귀환(return)
15. 박해(pursuit) vs 구출(rescue)
16. 재인식 받지 못한 도착(unrecognized arrival)
17. 임무의 할당(assignment of a task) vs 성취(success)
18. 재인식(recognition)

212) Vladimir Propp, 「민담형태론(Morphology of the Folktale)」.

19. 반역자의 폭로(revelation of the traitor) VS 주인공의 폭로(revelation of the hero)

20. 형벌(punishment) VS 결혼(wedding)

약간의 함수만이 커플링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적지 않게 환원(감소)되어 있을지라도, 그 새로운 목록은 전자(31개의 목록)보다 다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d. 계약·응축(contract)

우리는 함수의 커플링이 그것을 작용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방법론적 정당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함수적인 커플링은 마치 다음처럼,

금지(interdiction) VS 위반(violation)

프로프(Vladimir Propp)의 결합체적인 기술의 프레임 안에서, 함축관계(위반은 금지를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어떤 결합체적인 화맥의 외부에서 고찰된 그것은 동시에 결합하고 분리된(conjoined and disjoined),²¹³⁾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 텀인 의미소범주(정인)로 나타난다.

s VS 비s

함수의 범주화(정언화)로 정의된 커플링의 결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결합체적 연속의 목록로부터 분석이 자유롭다. 결합하는 동정과 분리하는 대당을 탐색하고 있는 비교절차는 그때 목록화된 함수의 총체(ensemble) 상에서 발휘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프로프(Vladimir Propp)의 비판(“구조와 형식[Structure and Form]”)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 금지(interdiction)는 명령(behest, injunction), 즉 우리가 “지령(mandate)”으로 지시했던 것의 부정적

213) 연언(連言, conjunction)과 선언(選言, disjunction)이 아님. (역주)

변형일 뿐이다.²¹⁴⁾ 그러나 지령은, 다른 한편, 그것과 상호적인 “주인공의 결심(hero’s decision)”인 어느 함수에 의해 동반하게 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수락(acceptance)”으로 보다 더 좋게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대당의 의미에 있어서, 4개의 함수의 일반적인 유기적 조직은 명확하게 진술될 수 있다.

만약(if), $\frac{\text{지령(mandate)}}{\text{수락(acceptance)}} = \text{계약} \cdot \text{응축의 확립(establishment of a contract)}$, 즉 A라고 한다면,

그러면(then), $\frac{\text{금지(interdiction)}}{\text{위반(violation)}} = \text{계약} \cdot \text{응축의 위반(violation of the contract)}$, 즉 \bar{A}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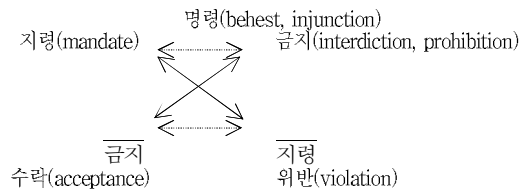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한편, 금지(interdiction; \bar{a})가 지령(mandate; a)의 부정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위반(violation; \bar{a})이 수락(acceptance; a)의 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4개의 텀이 의미소체계의 표출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 수 있다.

상위개념적 레벨서, 범주의 아티큘레이션으로든지

A vs \bar{A}

또는 하위개념적 레벨에서, 범주적(정언적) 아티큘레이션을 뒤집어 표출한 텀인 체계로든지의 표출일 뿐이다.

214) 다음 기호사각형을 참조하기 바람. (역주)



$$\frac{a}{\text{비}a} \text{ VS } \frac{\bar{a}}{\text{비}\bar{a}}$$

“계약·응축의 확립(establishment of a contract)”으로 $A(\frac{a}{\text{비}a})$ 를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론적 동차화(homologation)는,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결혼(wedding)”으로 지시된 화술의 최종함수를 이제 재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한다. 사실, 전체 화술이 계약·응축의 위반(\bar{a})에 의해 동작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재확립된 결혼의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이며, 결국 계약·응축의 위반(\bar{a})인 사태의 급변일 것이다. 그때 그 결혼은 프로프(Vladimir Propp)의 분석이 가정한 것과 같은 단순한 함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탐색의 대상을 수신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 주체-수신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발신자 간에 확립된 하나의 계약·응축이다. 따라서 그 결혼은 같은 방식으로 그 편차와 함께 “지령(mandate) vs 수락(acceptance)”으로 형식화되어야 하며, 그러나 체결된 계약·응축은 욕망대상(the object of desire)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단기지속성(made permanent)”이다.

노트: “결혼”을 함수에 적용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프로프(Vladimir Propp)의 함수목록을 연속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론적 조건을 우리는 이미 상술했다. 즉 착란적인 표출의 동류체는 계약·응축된 함수의 알고리즘이 보편성의 단순 선택의 레벨과의 관계 안에서 단차화 되는 한에 있어서만 오직 보장될 수 있다.

e. 시련(시험, test)²¹⁵⁾

계약·응축은 결국 귀결-함수(비c)에 의해 추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련의 함수로 명기될 수 있고, 그것이 관여하고 있는 결합체적 도식으로 정위되도록 우리에게 강제한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인공이 이탈한 후에 즉각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시험)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프로프(Vladimir Propp)의 기술 안에서 새로운 간극(lacunae)²¹⁶⁾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개의 함수로 나타난 시련(시험)의 분석,

215) test: 증여자에게는 시험이지만, 주인공에게는 시련이다. (역주)

216) 영역에는 'lacunae'로 표기되어 있으나, 프랑스어 원본에는 'lacunes'로 되어 있으며, 간극, 결함, 누락, 결여를 의미한다. (역주)

시련(시험)의 할당 vs 시련(시험)과의 조우
 (증여자의 첫 번째 함수) (주인공의 반응)
 (the first function of the donor) (the hero's reaction)

즉 위와 같은 분석은 불충분하다. 마치 지령(mandate; 비a)이 주인공의 결심에 의해 추구되는 것처럼, 시련(시험)의 할당(assignment of a test)은 오로지 그의 수락(acceptance; a)에 의해서만 추구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수락(a)이 훌륭하게 완성된 조우(confrontation)에 의해 추구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결국, 시련(시험)은 보조자의 수령인 귀결-함수에 의해 성취된다.

A = 지령(mandate, behest) vs 수락(acceptance)
 F = 조우(confrontation) vs 성취(success)
 비c = 귀결(consequence)

만약 우리가 화술이 포함된 모든 시련(시험)에 이러한 도식을 적용하려고 한다면(사실 그것이 얼마간 존재한다), 우리는 그 시련(시험)이 아주 불공평하게 프로프(Vladimir Propp)에 의해 분석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타난 간극을 거의 기계적으로 느끼는 화술 안에서 조우된 시련(시험)의 현재의 비교 차트 쪽으로 정위시키기에 충분하다.

제안된 도식	자질이 부여되는 시련(시험)	주요한 시련(시험)	영광이 부여되는 시련(시험)
A { 지령 수락	증여자의 첫 번째 함수 주인공의 반응	지령 주인공의 결심	임무의 할당
F { 조우 성취	투쟁 승리 성취
비c=귀결	보조자의 수령	결핍의 제거	재인식

위의 차트는 약간의 관찰을 형식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1. 화술-민담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과장을 명료하게 만든다.

a. 먼저, 결합체적 도식으로 고찰된 시련(시험)은 세 번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귀결내용의 관점에서만 명백하게 구별될 뿐이다.

b. 화술의 발단에 \bar{A} (계약·응축의 위반; $\frac{\bar{a}}{a}$)의 부정적 형식 하에 조우했던 계약·응축의 구성하고 있는 함수적인 한 쌍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A(계약·응축; $\frac{a}{a}$)로서 최후에 발견된다. 또 그것은 각각의 시련(시험)이 시작되고 있는 계약·응축 A_1, A_2, A_3 와 함께 존재한다.

c. 각각의 3개의 시련(시험) 안에 나타난 한 쌍의 “조우(confrontation) vs 성취(success)”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일단 계약·응축에 선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때 시련(시험)의 도식은 논리적 시퀀스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는 다음 이유를 위하여 결합체적 시퀀스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성격을 상술하여야만 할 것이다.

a. A와 F의 한 쌍은 항상 인접한 것이 아니다. 임무를 띠고 파견된 주인공은 반역자와 주요한 조우에 의해 나중에 반드시 추구된다.

b. A와 F의 한 쌍은 시련(시험)의 도식 밖에서 그 자신을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발견될 수 있다.

3. 만약 함수적인 한 쌍 A가 의미작용의 이중구조로 고찰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성인 그 한 쌍의 F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f. 주인공의 부재

화술 안 함수의 주연(周延, distribution)에서의 표면상의 일견은, 그 궁극의 관점이 반역자와 함께 주인공의 투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투쟁은 불행과 관계된 공동체의 밖에 정위된다. 화술의 긴 시퀀스는 주인공의 부재에 의해 정위되는데, 그것은 그의 이탈과 인식 받지 못한 도착 간에 정위된다.

이러한 시퀀스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할 때, 우리는 함수의 단자가 순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동류체의 기준이 없다는 것(absence)을 다시 알아챌 수 있다. 사실 프로프(Vladimir Propp)에 있어서, 주인공의 이탈에 귀환의 함수가 상응하는 것은 주인공의 귀환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나 반역자

에게서 승리를 거둔 그의 투쟁이 장소를 포착하는 어떤 곳에 체재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의 새로운 이탈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인공의 부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이탈(그것을 \bar{p} 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로 이해된다면, 부정적 의미소와 대당이 된 조정적 의미소로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대당이 된 그 함수는 프로프(Vladimir Propp)가 “귀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며, 그러나 그것은 “재인식 받지 못한 도착(unrecognized arrival, p)”이다.

다른 한편, 부재가 시작되는 순간은 투쟁의 장소(\bar{m}_p)에 주인공이 도착하는 순간과 상응한다. 즉 프로프(Vladimir Propp)가 “귀환(\bar{m}_p)”이라고 부르는 것과 상응하는 장소에 주인공이 도착한 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공의 장소 이동을 다음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frac{\bar{p}(\text{이탈})}{\bar{m}_p(\text{투쟁의 장소})} \cong \frac{p(\text{재인식 받지 못한 도착})}{\bar{m}_p(\text{귀환})}$$

또한 우리는 \bar{p} 의 순간과 \bar{m}_p 의 순간 사이의 그것이 관자놀이-공간이동으로 정위된다는 것을 덧붙여 언급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함수형식 하에 이루어지는 투쟁이전의 급속한 이동(d)은 함수 “박해(pursuit) vs 구출(rescue)”과 함께 뒤죽박죽이 된 장소인 그 투쟁이후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박해(pursuit) vs 구출(rescue)”이, 한편으로는 함수적인 한 쌍 F(“조우[confrontation] vs 성취[success]”로 분해 될 수 있는),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이동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혼합주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찰한다. 그때 부재의 도식 안에서, 우리는 이동 그것이, 비록 대당방향에서 스스로를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특별함수를 도입하여야만 할 것이다.

$$\bar{p} + d + \bar{m}_p \text{ vs } \bar{m}_p + d + p$$

이러한 도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이동의 급속함은 아마 행위주적 모델 레벨의 욕망의 강도 때문에 화술의 레벨에서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이동의 급속함은 함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의 양상이며, 그것만으로 그것은 함수의 기

술 안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함수의 혼합주의 안에서 과정 F를 꾸밈 없이 폭로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주목될만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분석 레벨에 등록된 혼합주의의 현상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다.

2. 범주 “이탈(to go) vs 귀환(return)”으로 고찰된 이동 그 자체는 주인공의 혼자만의 삶(solitude)과 화술의 여기와 지금과 어떤 관계도 없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그의 체재를 지시하는 확장에만 흥미가 있을 뿐이다. 폼(Denis Paulme)과 세백(L. Sebag)의 연구(잡지 인간 3[L/Homme 3]에 발표된)는 이러한 유형학적 선언(選言)의 의미를 상술했다. 즉 주인공의 체재가 어떤 때는 지하 또는 수중에서, 어떤 때는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죽음의 왕국에서든지 또는 신의 왕국에서든지 하여간 정위된다. 그 문제는 복잡하게 또는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가치론적 투자가 불충분한 민담의 프레임으로 하여간 아주 복잡하게 표현된다. 직증적 표현의, 나중에 상술할 주인공의 중재적 함수(mediating function)²¹⁷와 함께 과정의, 범주로서의 주인공의 부재를 우리는 순간적인 것으로 고찰하자.

노트: 연장자(발신자)의 부재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목될 수 있다.

g. 소원(疎遠, alienation)과 재통합

프로프(Vladimir Propp)의 독자는 그가 그리스 문자의 조력을 받아 그들을 기록하는(지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화술에 일종의 이종(異種)을 도입(introduction)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기술 안에서 최초의 9개의 함수를 분명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최초의 3개의 함수(부재, 금지, 위반)에 의해 연기된 역할에 대해 알았는데, 알게 된 그 이유는 동치가 내부에서 그리고 화술의 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입이종을 구성하고 있는 함수의 3개의 커플링만이 고찰되어 남게 된다.

²¹⁷ 중재: 연결된 사건, 불운이나 결핍이 알려지게 된다. 주인공에게 명령이 주어지게 된다. 그는 가도록 허락되거나 급히 보내진다. 이런 유형의 주인공을 탐색자(seekers)라고 한다. (역주)

조사(inquiry) vs 정보(information)

기만(fraud) vs 꾀복(complicity)

악행(villainy) vs 결핍(lack)

먼저 우리는 이러한 전체 시퀀스가 확립된 종류의 위반 뒤에 나타난 불행의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시퀀스가 그러므로 상응하여야만 하는, 이전의 단계, 즉 조정적 시리즈에 나타났던 좌우대칭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부정적 시리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함수의 최초의 한 쌍 “조사(inquiry) vs 정보(information)”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개념의 프레임으로 명기되며, 음악에서의 “질문(interrogation) vs 대답(answer)”에 의해 보다 더 단순하게 번역-전격될 수 있다. 따라서 분해된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은 화술의 진진 속에서 2개의 분리함수와 상응되는 것 같다.²¹⁸⁾

유표(marking) vs 재인식(recognition)

비록 시니피앙의 다른 패턴으로 형식화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발신(어느 기호[sign]의) vs 수신(그 기호[sign]의)

2개의 좌우대칭적인 함수는 커뮤니케이션의 조정적 행위를 구성하는 반면에 함수적인 한 쌍

218) 음악용어 프레이징(phrasing), 흔히 동기(motive)는 2마디, 작은악절(Phrase)은 동기의 두 배인 4마디, 큰악절(period, sentence)은 작은악절 두 개가 합쳐진 8마디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은 대개 그와 같은 규칙성을 보여 준다. 큰악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중, 앞의 것은 테제(Thesis) 또는 앞작은악절(Antecedent Phrase)이라고 하며 뒤의 것은 안티테제(Antithesis) 또는 뒤작은악절(Consequent Phrase)이라고 한다. 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은 흔히 “질의↔응답” 또는 “진술(statement)↔확인(confirmation)”의 대화형의 관계를 갖는다. 바로 이러한 음악의 연주법을 상상하라.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상상하여야만 할 것이다. (역주)

“질문(interrogation) VS 대답(answer)”은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신화적 표출 안에서 평범한 구상화(具象化)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의 경우에는 대상-메시지의 전달(delivery)일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강탈(갈취, extortion)일 것이다. 그러나 관측된 좌우대칭은 행위주에 의해 확증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2개의 다른 남아있는 함수적인 한 쌍의 좌우대칭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화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의 인식은 가면이 벗겨진 반역자의 진짜 성격의 폭로에 의해 추구된다. 그러나 만약 반역자의 가면이 벗겨진다면, 그 이유는 그가 가면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비록 그 기술적 어휘 “기만(fraud)”이 분명하게 지시되지 않을지라도, 프로프(Vladimir Propp)는, 반역자가 주인공을 기만하기 위하여 항상 그 자신을 위장된 것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만”과 “반역자의 폭로” 사이의 대당은 상술된다.

그 한 쌍의 두 번째 함수로서의 주인공의 굴복(complicity, soumission)은 또한 주인공이 비록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화술의 이러한 단계에서, 주인공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자신이 일종의 동네 바보인 숙맥처럼 매우 흔하게 등장하며, 또는 극단의 경우에 반역자가 작용하고 있는 동안 잠 속에 빠지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그는 폭로되지 않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인공이 숨겨진 표출은 설화의 끝에서 그의 변형과 상응한다. 주인공은 왕실의 의상을 걸치고 휘황찬란하게 등장한다. 그는 주인공으로서의 진짜의 성질을 표출한다. 그 다음에 끝의 변형과 시작의 함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가짜 외관으로 숨어있는 그 변장의 반역자와 주인공의 표출이 그들의 진짜의 성질을 폭로하는 것과 상응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함수의 어휘소적 형식화의 난해함 대신에, 최초의 부정적 함수가 최후의 조정적 함수와 병치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가언이 확인된다.

함수적인 한 쌍 안에서 크레센도(점강음[漸強音], crescendo)의 유형을 주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의 강탈은 책략에 의해 추구된다. 이어서 이것은 절도와 유괴의 형식으로 성취된 악행에 의해 추

구될 것이다. 이러한 함수의 세 번째의 한 쌍은, 그들의 구조적 지위의 관점에서, 첫 번째의 한 쌍과 보다 더 완전히 닮아있다. 사실 2개의 시퀀스는, 양쪽의 경우에, 대상(메시지 또는 미덕[goodness]의 상징기호적 표상)이 쉽게 바뀌고 주인공(또는 그의 가족, 또는 그 일족)으로부터 반역자에게 양도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함수의 중재적인 한 쌍으로,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이동은 눈에 보이도록 명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공이 겪어야만 하는 최초의 시련(시험)과의 비교대조일 뿐이며, 그 결과는 보조자(주술적 가동자 또는 시험자)의, 즉 최후로 그에게 주인공으로서의 자질을 부여하는 힘의 수령이며, 그것은, 즉 반역자에게 도둑맞은 것, 말하자면, 주인공의 주인공적인 성질은 쉽게 바뀌는 반면에 속임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것은 최초의 그리고 함수적인 한 쌍의 3겹 과장에 의해 서로 성격이 만들어진 화술의 최후의 시퀀스가 정밀하게 정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우리는 대상(메시지-대상, 힘-대상, 그리고 미덕-대상)의 양도를 함축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즉 교환의) 공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최초의 시퀀스는 주인공과 그 일족이 겪게 되었던 일련의 과장적 박탈(privation)로 나타나며, 반면에 최후의 시퀀스는 주인공에 의해 성취된 일련의 병치적 획득(acquisition)으로 존재한다.²¹⁹⁾

그러나 만약 “악행” vs “결핍”이 부정적 교환의 함수적인 한 쌍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화술의 또 다른 끝에서 그 사태는 복잡하게 된 어떤 무엇을 획득

219)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5~16. appropriation(전유); 전유는 그것이 그 자신의 연기에 의해 대상가치를 획득할 때 격아강적인 레벨에 정위되며 상태 발화주체의 정향의 성격을 만든다. 따라서 그것은 화술계도의 어느 순간에 성취된 대상가치의 재귀적 관계와 상응한다. 귀속과 함께 전유는 획득의 두 형식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 그것은 시련(시험, test)의 하위구성원소로 보일 수 있다. (역주)

변형 { 연언변형(*conjunctive transformation*) = 실현화(*realization*),
획득(*acquisition*) { 재귀적(*reflexive*), 전유(*appropriation*)
{ 타동적(*transitive*), 귀속(*attribution*)
선언변형(*disjunctive transformation*) = 내포화(*virtualization*),
박탈(*deprivation*) { 재귀적(*reflexive*), 포기(*renunciation*)
{ 타동적(*transitive*), 강탈(*dispossession*)

	획득(acquisition)	박탈(deprivation)
시련(시험, test)	전유(appropriation)	강탈(dispossession)
증여(gift)	귀속(attribution)	포기(renunciation)

득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그 악행은 반역자의 형벌과 상응하며, 그러나 그 결핍은 반역자에게서 승리를 거둔 뒤 먼저 공동체에게 미덕을 반환함으로써 과장적으로 변제되며, 그때 주인공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이 성립된다.

이제 우리는 논리기호적 표현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분석을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방금 분석했던 함수의 6개의 쌍을 대문자 C로 지시하기로 하자. 그들에게 c_1, c_2, c_3 로 부여된 번호는 C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그들 지위의 상수적인 성격을 지시하고, 수 1, 2, 그리고 3은 커뮤니케이션의 변이-대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최초의 함수를 $\bar{c}_1, \bar{c}_2, \bar{c}_3$ 로 지시함으로써, 최초의 일련의 부정적 변형으로 고찰하기로 하자. 대문자 C가 항상, 게다가 c vs 비c로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을 하는 것에 민감한 범주로 지시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병치적인 그리고 대담적인 시리즈의 논리기호적인 표현을 얻게 될 것이다.

$$\begin{aligned} \bar{c}_1 &= \frac{\bar{c}_1}{\text{비}c_1} & C_1 &= \frac{c_1}{\text{비}c_1} \\ \bar{c}_2 &= \frac{\bar{c}_2}{\text{비}c_2} & C_2 &= \frac{c_2}{\text{비}c_2} \\ \bar{c}_3 &= \frac{\bar{c}_3}{\text{비}c_3} & C_3 &= \frac{c_3}{\text{비}c_3} \end{aligned}$$

노트:

\bar{c}_1 (조사), $\text{비}c_1$ (정보), c_1 (유표), $\text{비}c_1$ (인식, 메시지의 수령)
 \bar{c}_2 (기만), $\text{비}c_2$ (굴복), c_2 (반역자의 폭로), $\text{비}c_2$ (주인공의 폭로)
 \bar{c}_3 (악행), $\text{비}c_3$ (결핍), c_3 (반역자의 형벌), $\text{비}c_3$ (결핍의 제거)-(역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최초의 시리즈에 소원(疎遠)이라고 하는 명목을, 그리고 최후의 시리즈에는 재통합(reintegration)이라고 하는 명목을 뒤에 부여할 수 있다.

노트: 논리기호법의 도입은 재해석된 함수에 새로운 단자를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킨다. (이러한 논리기호의 프로토프적인 단자를 위한 도입을 보라[p. xlv ii].—영역자)

h. 시련(시협)과 그 귀결

이러한 분석의 단계에서, 우리는 시련(시협)의 귀결에 대한 해석을 지금 곧 제안할 수 있다. 시련(시협), 그것은 A(지령 vs 수락; $\frac{a}{\text{비}a}$)와 F(조우 vs 성취), 그리고 단일 함수로 지시된, 각각의 시련(시협)을 특수화하고 있는 귀결로 고찰된, 각각 함수의 두 쌍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다음처럼 화술의 목록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조자(주술적 가동자)의 수령
 결핍의 제거
 재인식

귀결의 예외와 함께 모든 함수들이 한 쌍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함수의 단일지위는 불안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목록의 위반과 소원	주요한 시련(시협)	재통합과 목록의 회복
$\bar{p}\bar{A}c_1c_2c_3pA_1p_1(A_2+F_2+\text{비}c_2)$	$d\bar{\text{비}}p_1(F_1+c_1+\text{비}c_3)\text{비}p_1$	$dF_1p_1(A_3+F_3+\text{비}c_1)c_2c_3A(\text{비}c_3)$
자질부여	주객치환응집	재주객치환응집(the request)

- A = 계약 · 응축(지령 vs 수락; $\frac{a}{\text{비}a}$)
- F = 투쟁(조우 vs 성취)
- C = 커뮤니케이션(발신 vs 수신)
- p = 현존재(presence; 재인식 받지 못한 도착)
- d = 급속한 이동

다행히 소원과 재통합이라고 하는 두 시퀀스의 분석은 보다 더 좋은 귀결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따라서 주요한 시련(시협)의 시퀀스와 함께 시작함으로써, 결핍의 제거는 결핍($\text{비}c_3$)인 부정적 변형에 스스로 대당이

되고 있는 조정적 함수(비_{c_s}, 결핍의 제거)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 인식은, “유표(c_i)”인 조정적 의미소에, 그리고 “정보(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비_i)”에 스스로 대당이 되고 있는 “메시지의 수령(인식; 비_{c_i})”으로 나타난다. 자질을 부여하고 있는 시련(시협)의 시퀀스인 보조자의 수령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굴복(비_{c_i}[주인공의 폭로] vs 비_i[굴복])으로 표현된 주인공적 힘의 박탈에 대한 대응물(counterpart)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소원과 재통합의 시퀀스 안에서의 귀결의 통합은 그들 스스로 시련(시협)의 의미를 보다 잘 포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들의 역할은, 확립된 목표의 위반으로 생긴 결과 그 자체인 소원의 해로운 효과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i. 환원의 결과

따라서 함수 환원의 수정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분석의 첫 번째 부분은 목적이 달성되며, 우리는 화술이라고 하는 함수의 환원된 목록 그리고 정의적인 목록을 도식적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앞 페이지를 보라)

2. 해석과 정의

a. 화술의 비통시적 또는 통시적 원소(elements)

우리가 제안한 도식은 함수의 환원된 목록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원은 필연적이며 연속적인 목록을 제안했던, 프로프(Vladimir Propp)에 따르고 있는, 화술의 바로 그 정의와 함께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만 가능할 뿐이었다.

역으로, 우리가 환원을 실행했던 것처럼 그것은 함수 간 관계의 계열체적 그리고 비통시적 해석을 요구했다. 사실 그 함수를 이루고 있는 한 쌍은 함축관계인 한에 있어서만 타당하다.

비_s → s

그러나 그것은 변형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로서의 함수적인 한 쌍의 포박(apprehension)을 허락하고 있는

“s vs 비s”로

한 쌍이 만들어진 함수의 의미소적 내용으로 선언관계(a relationship of disjunction)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로 화술의 의미작용을 포착하고 있는 바로 그 조건인, 이 계열체적 해석은 의미작용의 보다 더 큰 단위인, 멋대로 결합체적(syntagmatic)이며 연속적인 종류의 이러한 시간을 재발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 텀은 개인적으로 획득된 함수로 나타난 의미소범주이다. 또한 이러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는 선언관계이다. 그러나 두 구조적 레벨 사이의 구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우리는 그 텀이 이미 범주인 그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문자의 조력을 얻어 표기했으며, 다른 한편 그 부정적 텀을 부정의 중첩기호(superposed sign)의 조력을 얻어 표기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이러한 절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절차 안에서 그들의 동차에 의해 추구된 함수적인 범주에 대한 함수의 환원이다. 그것은 2개의 동차화된 함수구조(그들의 과정을 쟁겨두고 있는)인 화술의 전개를 초월하여, 제안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A vs \bar{A}

그리고

C vs \bar{C} (유표; 반역자의 폭로; 반역자의 형벌 vs 조사; 기만; 악행)

그리고 단순한 비통시적 구조로 화술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노트: 커뮤니케이션 C vs \bar{C} 의 구조분석은 그 표상이 우리가 믿도록 허락하는지 모를 만큼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단면의 프레임으로는 불가능한, 앞으로 더 나아가 어떤 진화를 요구한다.

만약 통시적 유수(留數, residue)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전체 화술은 다음과 같은 함수적인 한 쌍의 형식 안에 이러한 단순구조로 환원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조우(confrontation) VS 성취(success)

그것을 우리는 이미 F로 표기했으며, 그리고 “투쟁(contest)”으로 지시했고, 또한 그 스스로 기본의미소범주로 변형되게 하지도 않는다.

b. 시련(시험)의 통시적 지위

함수적인 한 쌍 F는 이중으로 생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의미소적 대당의 범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함수적인 시퀀스로 나타나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정적 형식의 화술 안에 언제나 스스로 나타나지도 못한다.

F가 구성원소로 등록되는 대신에, “시련(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지시되었던 통시적 시퀀스는 다음을 구성한다.

$$A + F + c$$

이러한 이유로 시련(시험)은 통시적으로 설화의 정의를 떠맡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약분할 수 없는 핵으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통시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약간의 유표는 이제 형식화될 수 있다.

1. A와 F 사이의 관계는 연속관계로 고찰될 수 있으며, 필연적 함축관계가 아니다. 사실 A 또는 \bar{A} 는 필연적으로 F의 출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어떤 현존재와도 상관없이 오직 설화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F를 전제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F는 A에 선행하지 않고, 설화 안에 현현(顯現)될 수 있다. 그러므로 F 또한 A를 전제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연속으로 설화의 성격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련(시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프(Vladimir Propp)가 좋아했던 것처럼 그 연속을 필연적으로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반대로, 시련(시험)은 이러한 의미 안에서 자유의 어떤 표출을 구성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시퀀스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성의 내적관계 때문이 아닐 것이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긍정적 의미를 보충적이며 신화적인 언외지의(言外之意, connotation)로, 증여함으로써, 형식으로 그것을 고정시키는 과장 때문일 것이다.

2. 만약 A와 F 사이의 관계가 연속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니피앙 “인접(contiguity)”의 의미로 표현될는지 모르는 관계로 동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연속은 기꺼이 공간형성(spacing)을 허락하며, 특히 우리는 그 주요한 시련(시협)이 2개의 함수적인 짝, A와 F로 나누어 전개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화술을 역설적으로 팽팽하게 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그러나 통시적 구조의 지위를 A+F의 자유연속에 증여한다는 것은 회전(會戰)의 자유로부터 결과한 필연적 귀결이다. 사실 그 귀결은 필연적이다. 즉 그것은 A+F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우리는 특별한 화술의 곡언적(litotic) 지름길 안의, 보조자(주술적 가동자)가 변화에 선행하는 화술의 언급 없이 주인공에게 귀속될 수 있는 그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련(시협)은 귀결 비c의 출현으로 확인된 A와 F의 연속에 의해 유도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만약 그 시련(시협)이 특별하고 통시적인 지위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전에 정의된 행위주적 모델과 함께 어떤 병치로 보존되어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6개의 행위주들이 시련(시협) 안에 말려들게 된 그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행위주적 모델의 아티클레이션을 허락했던 범주 또한 시련(시협) 안에서 그들의 동치를 발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는 계약·응축의 구조와 상응한다. 이어서 함수적인 한 쌍 F는 투쟁의 형식 하에 보조자(주인공이 소유하고 있는 주술적 가동자)의, 그리고 그 반대자의 힘의 대당을 표현한다. 귀결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다양한 형식 하에 그의 욕망 대상의 주체에 의해 성취된 획득을 표현한다.

우리는 화술이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시련(시협)의 그것을 기록하여야만 한다.

자질이 부여되는 시련(시협)

주요한 시련(시협)

영광이 부여되는 시련(시협)

마지막의 2개는, 텅 대 텅, 즉 그들이 함축하고 있는 함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주 사이의 상응을 표현한다.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최초의 시협(결정적인 시련[시협]을 위한 주인공의 자질이 존재하는 그 귀결)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위장된, 즉 발신자가 반대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상징기호, 투쟁인 그 F로, 표현된다.

c. 화술의 극적 에너지

만약 시련(시협)이 오로지 화술의 동시적인 정의를 구성할 뿐이라고 한다면, 화술의 관자놀이-시간적인 전개(temporal unfolding)는, 그 위에, 화술의 노하우(또는 수완, know-how, savoir-faire)의 원소를 구성하는 약간의 변화과정으로 표시될 것이다. 화술의 “2차적 수정(secondary revision)”의 구성인(술책, 서스펜션, 에너지, 그리고 긴장의 명목으로 알려진) 그 노하우는, 화술이 조직하는 함수들의 연결속에서 의미작용의 동일구조에 속하고 있는 의미소적 내용 간 함수의 간격으로, 즉 거리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소 $\overline{m_3}$ (결핍)은 15개의 함수 간 의미소 m_3 (결핍의 제거)와 상응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 결핍에 대해 수리오(Etienne Souriau)는 애가 타는 장면, 창조자가 필요로 하는 것, 연기의 조장자라고 지시한다. 일단 그 부정적 의미소가 나타나게 되면, 그 화술은 조정적 의미소 결핍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overline{m_3}$ (결핍) vs m_3 (결핍의 제거)의 공간형성에 의해 획득된 그 에너지는 “주객치환응집(quest)”으로 불릴 수 있다.

에너지 “주객치환응집(the quest)”이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의미소 c_1 (유표)은 나타나게 된다. 대당 의미소 m_1 (인식, 메시지의 수령)을 실현화(re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는 그 에너지는, 비록 그 긴장이 의미소 뒤에 탐색된 의미소의 조정적 성격(그리고 “주객치환응집”의 경우와 같이 부정적이 아닌) 때문에 보다 적게 나타날지라도, “재주객치환응집(the request),” 즉 주인공에 기인한 인식의 기원(祈願, petition)이라고 불릴 수 있다.

제3의 에너지 기원(m_1 [주인공의 폭로]와 $\overline{m_2}$ [굴복]를 연결하는 “자질[qualification]”의 기원)으로서의 그것이 만약 무력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인공의 자질이 그것을 실현함 없이 그의 승리를 고지하는 그것에 대한 확장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 구조는 에너지 기원 “주객치환응집”의 그것과 동일하며, 그들 양자는 술책을 받치고 있는 과장 에너지를 구성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미소 종착점(ad quem)이 함수적인 공간형성의 그것과 동시에 시련(시협)의 귀결을 구성하는 제1의 에너지 기원으로 고찰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그 에

너지 기원이 시련(시협)의 바로 그 구조 안에서 통합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부가해서 정의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리는 공간이 형성된 의미소적 대당에 의해 구성된 제2의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에너지 기원으로 고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소 시발점(ab quo)은 이전의 시련(시협)의 귀결이 아니다.

d. 화술의 2개의 해석

통시적으로 화술을 정의하고 있는, 그 마디(node)를 구성하고 있는 시련(시협)은 그것을 자세히 구명(究明)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시련(시협)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원소들은 투쟁(F)과 함께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시련(시협) 안에 형식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그들의 의미론적 목록, 즉 오로지 화맥으로부터만, 다시 말해서 선행하고 있는 화술의 시퀀스로부터만, 그들의 의미작용(또한 그것은 시련[시협]의 의미작용이 될 것이다)을 수용한다.

수리오(Étienne Souriau)는 드라마(pièce de théâtre)의 일반적인 조직을 매우 단순하게 정의한다. 드라마의 발단의 다소간 평온한 장면은 귀결의 다소간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이 있는 장면과 상응한다. 발단과 귀결 둘 사이에 어떤 무엇이 발생한다. 우리는 화술의 중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무엇”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화술 그 자체는 발단과 귀결의 2개의 단기지속성으로만 그 의미를 자아낸다.

설화의 두 시퀀스(최초와 최후)는 그들의 조정적 또는 부정적 형식 하에 2개의 의미소범주로 조직된다.

최초의 시퀀스	최후의 시퀀스
$\bar{A} + \bar{C}$	$C + A$

만약 우리가 그것을 화술의 의미론적 목록의 본질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찰한다면, 그들을 독해하고 있는 것은 민담의 의미작용의 열쇠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고찰된 구조적 텀 간 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독해가 가능하다. 최초의 독해는 범주의 형식 안에서 그리고 두 범주 간 상호관계의 확립 속에서 비통시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frac{\bar{A}}{A} \approx \frac{\bar{C}}{C}$$

그리고 계약·응축의(확립된 목표의) 존재는 소원(疎遠)이 가치의 충분한 향유와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계약·응축의(목표의) 부재와 상응한다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낼 것이다.

팀의 관자놀이-시간적인 성향(性向, disposition)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획득된 두 번째의 독해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함축된(상호적으로) 것으로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bar{A} > \bar{C}) \approx (C > A)$$

그것은 이러한 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다소간 설명될 수 있다. 즉 법칙이 없는 세계 속에서, 가치는 반전되지만, 그러나 가치의 복권은 법칙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되돌려 놓는다.

그것은 2개의 형식화가 그 팀의 동정 대신에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e. 화술의 비동시적 의미작용

최초의 형식화는 2개의 다른 영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의 2개의 목표와의 상관속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사회적 영역: 법칙의, 계약·응축적 조직의 원칙의 목표.
2. 개인적 또는 개인 간의 영역: 인간 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로 만들어진 개인적 가치의 존재와 속령.

따라서 화술의 계열체적 이해는 두 영역 간, 개인적 그리고 그 사회의 숙명 간, 상호관계의 존재를 확립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됨으로써, 그것은 화술이 집합적 가치의, 그리고 화술이 다른 가능한 형식 간 표출의 오로지 한 형식일 뿐인 그 가치의 레벨에 존재하는 관계로만 명백하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담은 그것에 선행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담화 안에서 필경 과장된 것일 것인 의미작용의 특별한 화신(化身, 또는 구체화, incarnation)일 뿐이다.

그러므로 상호관계는 화술을 의미작용의 단순구조로 포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관계로 고찰된 “상호관계” 그 자체를 말하자면, 그것은 비율적 텀 간 연인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서의 연언에 의해 본질적으로 언외지언화가 되자마자 표현된 관계라고 하는 존재자의 긍정이다.

이제 우리는 민담의 의미작용의 해석을 깊게 하는 가치론적 화맥의 부재 대신에 우리가 얼마만큼 확장(외연)을 넓힐 수 있는가 관측하기 위하여 상호관계의 텀을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개인적 영역에 귀속하고 있는 비율의 두 번째 부분을 취하기로 하자. 환원하면서, 우리는 논리기호적인 대상의 전송(transmission)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으로 각각의 C를 해석했다. 그때 그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다르게 아래쪽에 쓴 숫자 1, 2, 3으로 지시되고 있는 각각의 가변적 대상인 그 전송된 대상의 의미로 정의되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안의 대상이, 그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적 표상의 신화적 모델이라고 쓸데없이 우긴다(그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c_1 (유표)의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은 구체화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송된, “응결된(congealed)” 파롤의 유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지식과 인식의 열쇠를 구성함으로써, 메시지-대상은, 신화적 표출의 측면에서, “지식(knowledge)” 양태의 형식화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c_2 (반역자의 폭로)의 경우에, 우리는 연기를 위해 필연적인 또는 역으로 그에게 증여하는 인간의 에너지를 박탈하는 힘의 전송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힘-대상은 “힘(power)”의 양태를 위한 신화적 동치가 될지도 모른다.

3. c_3 (반역자의 형벌)의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은 “소원(wish)”의 양태와 상응하는, 따라서 그 욕망대상의 전송(transfer)으로 존재한다.

행위주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화술의 체간(體幹)과 양태범주를 구성하는 가치 간 상호관계의 성질상에 존재하는 시간에 대해 감히 주장할 수 없지만, 상호관계의 존재는 양쪽을 소유하고 있는 고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성격의 확증을 가져온다.

그때 그것은 화술 $\bar{c} \bar{c} \bar{c}$ (조사·기만·악행)와 C C C(유표·반역자의 폭로·반역자의 형벌)의 시퀀스를 지시했던 것에 의해 가치의 소원(疎遠)과 재통합의 텀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새 엄밀성에 의해 어떤 확장이, 정당화될는지 모르는 것

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우리는 구조적 비율의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소원된 인간과 가치의 충만을 즐기고 있는 인간 간 양자택일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비율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보다 더 단순하고 보다 더 복잡하다. 사회적 계약·응축으로 정의했던 A의 지위는 또한 첫눈에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행동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수신자는 지령(비a; mandate, behest²²⁰)을 수락한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로이 떠맡게 된 의무의 문제이다. \bar{A} 의 경우에, 발신자는 수신자가 행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며(“금지[interdicts]”), 금지(비a)는 a의 부정적 변형임이 명백하고, 지령(비a)은 행동하도록 하는 어떤 유인이다(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부정적 종류의 계약·응축(\bar{A})은 인간으로부터 연기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다.²²¹

다른 한편, 만약 금지(비a)가 수락(a)의 부정형식이라고 한다면, 금지(비a)를 부정하는 위반(\bar{a})과 상응하는 수락(a) 또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지만(왜냐하면, \bar{a} 도 비a를 부정하고, a도 비a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즉 $\bar{\bar{a}} = a$ 이니까. -역주), 그러나 수락(a)은 금지(비a)와는 역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wil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prohibition)의 연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비a)이면서도 지령(비a)인 위반(\bar{a})은 애매한 덩이다(비a \neq 비a임에도 불구하고, \bar{a} 도 비a를 부정하고, a도 비a를 부정하고 있어, 비a=비a가 되므로. -역주).

a. 수락(a)과의 관계에서, 금지(비a)는 수락의 부정이다.

비a(지령; 수락의 부정) vs 비a(금지)

b. 금지(interdiction)와의 관계에서, 위반(\bar{a})은 지령(비a; 행동하도록 하는 명령)의 부정임과 동시에, 부정의 부정이다(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즉 금지 즉 비a의 부정, \bar{a} 의 부정). 즉 다음과 같다.

220) 영역자는 명령(behest)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령(mandate, 또는 prescription)이어야 금지(interdicts)와 대당이 된다. (역주)

221) α 에 대해서는 $A(\frac{a(\text{수락})}{\text{비}a(\text{지령})})$ vs $\bar{A}(\frac{\bar{a}(\text{위반})}{\text{비}a(\text{금지})})$ 참조. (역주)

\bar{a} vs $-(\bar{a})$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유형이다(긍정적 no와 비교하라: “You haven’t see it!” “No, I have. 즉, 표기는 No지만 내재적으로는 yes”).

$-(\bar{a}) = a$

이것은 위반(\bar{a})이 지령(\bar{a})의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록 첫눈에 역설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환원이 행위주를 고려함 없이 오로지 함수의 변형에 그 자신을 제한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행위주에 대한 고찰은 역설을 명료하게 밝힌다. 사실 위반(\bar{a})은 지령(\bar{a})이며, 그것은 발신자의 부정을 포함하고 그를 위하여 수신자를 대신한다. 사실 지령의 함수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일화는 의지의, 자유의지적인 연기의 바로 그 정의를 구성하는 것 같다.

그때 만약 그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면,

A vs \bar{A}

그것은 사회적 계약·응축과 그 위반의 확립 간에 이루어진 대당일 것이며, 그 계약·응축의 위반은 또 다른 조정적 의미작용을 획득하는 것일 것이다. 즉 개인적 자유의 긍정일 것이다. 따라서 화술이 제기하는 양자택일은 개인적 자유(즉 계약·응축의 부재)와 수락된 사회적 계약·응축 간의 선택이다. 그것은 민담의 진짜 의미작용이, 모순의, 즉 불가능한 것과 불충분한 것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의, 집적(集積)인 신화(Claude Lévi-Strauss는 그것을 감지하고 긍정했다)처럼 나타나는 분석의 완결 뒤에만 존재할 뿐이다.

러시아 민담의 화맥에서, 이러한 신화적 모순은 다음 방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 즉 개인적 자유는 당연히(corollary) 소원(疎遠)이 동반되고, 가치의 재통합은 종류의 재확립에 의해, 즉 이러한 자유의 포기에 의해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화술이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관찰하지 않으면 된다.

f. 변형모델

우리는 화술의 분석이 2개의 다른 정의로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첫 번째는 통시적인 종류였다. 사실 그 화술은 담화 안에서 행위주적 모델을 드러내고 있는 시련(시협)의 시퀀스로 환원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미작용을 신인동형동성화하고, 그 때문에 인간(또는 의사인간)의 행동(behavior)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세사(世事)적 연속(순수 인접도 함축도 아닌 것)과 자유의 연속, 즉 일반적으로 정의된 역사로 추정하고 있는 그 2개, 다시 말해서 불개변성(비가역성, irreversibility)과 선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불개변성적인 선택(A이후의 F)이 신뢰성(responsibility)이 있는 귀결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때 화술의 원소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시퀀스는, 그 정의 안에, 역행할 수 없는 자유와 신뢰성이 있는 인간의 역사적 활동의 모든 속성을 시사(示唆)한다.

그러한 시련(시협)의 해석은 그것을 격아강적인 모델로, 즉 정확하게 통시적이며 역사적인 변형으로 고찰하고 있는 신화적 행동의 조직된 총체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적된 화술의 분석은,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서의 변형모델의 기술을 상상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시련(시협)의 역할은 명료하게 진술될 수 있다. 즉 내용의 주어진 구조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

$$\frac{\bar{a}(\text{위반})}{\text{비}\bar{a}(\text{금지})} \approx \frac{\bar{c}(\text{조사} \cdot \text{기만} \cdot \text{악행})}{\text{비}\bar{c}(\text{정보} \cdot \text{굴복} \cdot \text{결핍})}$$

그리고 신화적 작용(그것의 텃은 채 고찰되어야만 할 것이다)에 의해 그것을 첫 번째와는 다른 내용의 구조로 변형시킨다.

$$\frac{a(\text{수락})}{\text{비}a(\text{지령})} \approx \frac{c(\text{표지} \cdot \text{반역자의 폭로} \cdot \text{반역자의 형벌})}{\text{비}c(\text{인식} \cdot \text{주인공의 폭로} \cdot \text{결핍의 제거})}$$

그 구조(전승 이전과 이후)의 표층적 비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로 그 변형이 전부 발휘된 구조의 부정적 기호(sigm)를 억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

장의 출현으로 귀착되고 있는 그 부정의 부정인 메타언어학적 조치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아직 분석되지 않은 원소를 시련(시협)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화술이 특별한 귀결(비₁, 비₂, 비₃; 인식·메시지의 수령, 주인공의 폭로, 결핍의 제거)을 각각 가지고 있는 그 3개의 시련(시협)을 관찰했고, 그리고 이러한 귀결은 단지 시련(시협)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미소범주의 조정적 텀과 시련(시협)이 변형시키는 것으로 가정된 구조 안에서 전제(antecedents)의 형식으로 나타난 부정적 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관찰했다. 따라서 그것은 곧 투쟁(F, 비통시적 구조 안에서 분석할 수 없는 오직 함수적인 한 쌍인데, 그것은 조정적 형식 안에서 탐색된 변형에 속해있는 텀의 출현 직전에 먼저 일어난다)이며, 그 자체를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투쟁은 보조자와 반대자의 조우로, 즉 의미작용의 복합구조인 2개의 텀(조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것의, 동시에 일어나는 함수적인·약동적인 그리고 신인동형동성적인 표출로 나타난다. 그 조우는 반대자에 대한 보조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즉 단순한 조정적 텀의 이득에 부정적 텀의 파멸을 의미하는 함수 “성취(success)”에 의해 즉각 추구된다.

따라서 해석된 투쟁은 복합구조의 폭발의, 즉 부정적 텀의 부정이 기본구조적 좌대(座臺)의 조정적인 텀만을 오로지 허락할 뿐인 메타언어학적 작용의, 신화적 표상이 쉽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와 다른 비격아강적인 레벨에서 판단의 성질(quality)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투쟁은 메타언어학적 활동의 표현으로 즉각 나타나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고유의 내용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투쟁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표출된 귀결내용을 운반한다.

그러나 그 귀결은 투쟁 단독의 소산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투쟁 이전에 확립된 부분적 계약·응축이며, 또한 시련(시협)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때 그 귀결은 계약·응축의 생크션(sanction)²²²⁾ 즉 그 실현화의 증명이며, 그리고 그

222) 1. sanction: 그레마스는 이 용어를 비난·조소·모욕·배척 등 제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재가(裁可)의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제재는 조소(嘲笑) 정도의 것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특정 성원의 행동이 명확하게 타 집단 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칙을 자

것은 전체로서의 위반된 계약·응축의 부분적인 재확립을 포함한다. 우리가 나중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인 그 주장적인 판단의 언어학적 해석상의 여기에 우물쭈물 오래 머물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우리는 변형모델의 격아강적인 표현으로 고찰된 시련(시험)이 통시적 차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선행하는 그 구조 안에 투자된 가치론적 내용과 대당이 됨으로써 그것을 추구하고, 동시에 그들의 변형을 설명한다.

노트: sanction(생크션, 제재 또는 제가[裁可]); 1. 생크션은 교묘히 다루기와 상호관계적인 담화의 격상이며, 화술도식 안에 삽입될 때 그것은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차원 양쪽의 위치를 점령한다. 생크션이 최후의 발신자에 의해 이행되는 까닭에, 그것은 이러한 발신자가 절대적인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2.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행동(behavior)의, 더 엄밀히 말해서 연기하고 있는 주체의 인력과 관련되고 있는, 심판자-발신자에 의해 인정된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그것은 가치론적인 체계(정당성, “좋은 방식,” 심미적인)와 관계되어 만들어지며, 어쨌든 마치 최후의 계약·응축으로 외연화된(actualized) 것처럼 암시되거나 명백하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 보면,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응보(retribution)와 상응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교환구조 안에서 다른 함수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것은 계약·응축적인 의무(obligation)와 순응하고 있는 주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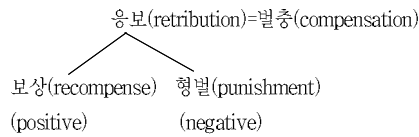
극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비난·조소·모욕·배척 등이 가해진다. 비난은 행위자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그 이후의 집단 성원의 감정적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조소와 모욕은 일종의 형벌임에 틀림없다. 문화인류학자 B. K.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Kasper Malinowski, 1884~1942)가 본 멜라네시아 트로브리안드섬 사회에서는 하찮은 모욕이 때로는 전체집단의 흐름을 규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배척의 반작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규탄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데, 이는 공격적인 집단에 의한 정신적 단치이다. 극한적 상태의 예로서는 취락생활(聚落生活)에서의 따돌림 등이 있다. 사회집단에서의 극한적인 반응에는 뚜렷한 형벌이 있다. 즉, 벌금·노역(勞役)·체벌 등이 가해진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면(正面)에서 집단의 가치·규칙 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집단의 사회적 제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제재의 규제 작용은 행동을 격려하는 적극적인 면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류학자 L. 포스피실은 「법인류학 Anthropology of Law(1971)」에서 “법은 우선 사법적 권위인 재단(裁斷)의 형식을 띠고 나타난다. 재단에 의해 추상되는 원리가 범규범인 것이다. 또, 이 법은 ① 권위 ② 보편적 적용의 의도 ③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④ 생크션 등 4개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① 권위는, 인간집단이 집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반드시 리더가 있으며, 리더의 재단모양에 따라 법이 마련된다. 그 리더 또는 권위자에 의한 재단의 유무가, 법과 단순한 관습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② 보편적 적용의 의도는, 권위자의 재단이 정치적 재단이 아닌 법적 재단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다. ③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어떤 분쟁사건에서 권위자가 내린 재단 중 한쪽 당사자의 권리와 다른 쪽 당사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재단은 법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생크션은 종래의 법이론에서 가장 중시되어 온 법의 속성이다. 더욱이 법적 생크션은 물리적 생크션(절대적 강제력)의 성격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포스피실은 생크션의 형태보다는 생크션의 효과, 즉 효과적인 사회통제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다. 어떤 종류의 심리적 생크션(이를테면 조소 등)은 때로는 물리적 생크션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역주)

의해 실행된 연기에 의해 호출된 대응물이다. 이러한 벌충(compensation)은 조정적인 것(보상, recompense)이거나 부정적인 것(형벌, punishment)이 된다.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발신자에 의해 제공된 형벌이든지, 복수 또는 정당성으로 호출된 바로 그 부정적인 응보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지한다. 이러한 응보의 다양한 유형은 화술적인 균형상태의 재확립을 허락한다.

3. 실행과 관련되고 있는 판단으로서,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인식적인(cognitive) 생크션과 대당이 되는데, 그 초월결정이 주체의,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진정적인(veridictory; 통상이 아닌 true·false) 그리고 인식론적인 양태성에 사의를 표하고 있는 그 상태발화라고 하는 존재(being)의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문법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인식적인 생크션에 필적하는 인식론적인 판단으로 표현된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적인 생크션은 영웅의 재인식(recognition)과 동치이고, 부정적으로는 악한의 자취냄새와 동치이다. 발신자 측에서의 인식은 주체-수신자에 의해 선택된, 영광을 부여하는 시험(시련)으로부터 유래되는 벌충이다.

4. 화술계도로 고찰된, 사회적인 기호학의 실천 레벨의, 전치 생크션에 의해, 우리는 생크션의 기호학의 합성을 예견할 수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67. (역주)

g. 중재(mediation)로서의 화술

그것은 착란적인 표출 안에서의 함수 간 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려고 하는 함수적인 분석에 종속된 화술(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민담)이 민감하여 움직이기 쉽고, 결국 내재모델 출현의 두 유형의 존재자를 만들고 있는 이중 해석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구성적 모델을 시사하며, 그것은 교란(disturbing)과 필연(inevitable) 양쪽으로 나타난 모순적 가치론적 내용의 조직화를 위해 고도의, 카드놀이에서 파트너에게 자기패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암호나 약속과 같은(conventional) 형식이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역으로 관념적 해법(또는 이산)을 제공하고 있는 변형모델, 즉 투자된 내용의 변형가능성을 명백하게 한다.

오로지 이중해석의 가능성만이 화술이 답을 수 있는 다수의 모순을 강조한다. 그것은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의 그리고 변화 가능성의 긍정과 필연적 목류의 그리고 그 목류를 파괴하고 재확립하는 자유의 긍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아직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며, 역으로

그 화술은 균형과 중립화된 모순의 효과를 제공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중재의 역할로 나타나는 투시도법 안에 존재한다. 다양한 중재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행동 간,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과 역사성(중기지속성) 간,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의 중재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조금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으로, 즉 2개의 강류를, 다시 말해서 수용된 현존재 목류의 화술과 부정된 현존재 목류의 화술을, 하나의 큰 강류로 통합하는 이러한 화술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 시발점은 어떤 존재하고 있는 목류의 확립으로, 그리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과 그 목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의 필요로 존재한다. 사회적 또는 자연적 목류(밤과 낮의, 여름과 겨울의, 남자와 여자의, 젊은이와 늙은이의, 농부와 사냥꾼 등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거나 인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 목류는 인간의 레벨에서 설명된다. 주객치환응집, 즉 시련(시협)은 그렇게 확립된 인간행동과 그런 목류이다. 그 화술의 중재는 개인적 또는 발생적 차원을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인간화하는 것” 안에 존재하다. 그 세계는 인간에 의해 정당화되고, 인간은 세계 속에서 통합된다.

두 번째의 경우에, 존재하고 있는 목류는 불완전한 것으로 고찰되며, 인간은 소원(疎遠)된 것으로 고찰되고, 그 장면은 애가 타는 것으로 고찰된다. 화술의 그 도식은 그때 중재의 원형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투기된다. 개인적 인간은 세계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며, 그는 그것을 투쟁과 시련(시협)의 연속으로 변형시킨다. 따라서 화술로 나타난 모델은 어느 결핍의 애타는 장면을 위한 해법(또는 이산)을 제안하는 것에 의해 구원의 다른 형식을 떠맡는다.

화술(역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입은, 그것이 설명이든지 또는 투기이든지, 순환적이든지 또는 개시적이든지, 러시아 민담의 기술 뒤에 나타났던 것으로서의 가치의 문제와 모델의 꺾어짐(또는 짐마차의 연결봉처럼) 뻗어 나온 범위(reach)의 문제제기를 허락하는 것에 의해, 하여간 분석에 보충적 관심을 부여한다.

3. 변형모델과 사이코드라마

a. 집합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것으로

착란적인 표출로 고찰된, 다시 말해서 함수의 연속적 의미로 함축적 변형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unfolding), 화술의 정의는 공교롭게도 설화(러시아 민담)의 단순한 유형의 분석 상에서만 안주한다. 그때 민담-화술 안에서 동정된 그 모델을 육안으로는 보여줄 수 없을 것인 한에 있어서 제한되어 남게 될 그 곳처럼 뻗어 나온 범위는 다른 가치론적 영역 안에서 재발견되며, 그리고 다른 형태(초미-화술)의 화술에 원활하게 적응될 수 있다. 우리는 모델의 새로운 적용영역이 기원의 그 장소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질 것이라는 것, 즉 그 곳처럼 뻗어 나온 범위가 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다소 우연히 새로운 경험으로 제공된 영역은 이러한 급박성과 상응하는 것 같다. 그것은 저자의 코멘트, 즉 사팡(Moustafa Safouan)의 분석적 「사이코 드라마에 관한 고찰(Reflection on analytical psychodrama, 심리학 잡지[Bulletin de psychologie], 1963. 11. 30)」에서 얻게 된, 다시 말해서 사이코드라마적인 치료하는 동안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아동으로 진술된 화술의 요약으로 구성된 하나의 발화자료체이다. 의미론적 기술을 위해 정신분석적 질료적 필연성으로도 해석하지 못한 그 획득하고 있는 날것(raw)이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사팡(Moustafa Safouan)의 요약은 단순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의 그리고 아동에 의해 발생된 그 전체치료법을 결합하는 것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화자료체의 관심은 분명하다. 집합적 작품인 민담과는 반대로, 그 화술은 단순히 개인적 화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구성한다. 다른 한편, 화술의 격아강적인 표출과 그 의미작용의 구조 간의 구별은 논의의 여지없이 여기에 나타난다. 착란적인 표출이 비록 화술의 시리즈(탐정 설화, 중국민담, 스페인 설화)로 구성된 발화자료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화술은 동일하며, 혹 동정되지 않을지라도, 민담 화술의 구조와 비교할만한 의미작용의 유일한 구조를 반영한다.

사이코드라마적인 치료법은, 이러한 투시도법 안에서, 성취된 화술의 변형 모델의 진진된 실현화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는 전문성(기술·기교)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임상치료사의 역할은 부분적인 화술의 연결하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기된 구조적 모델의 성취를 이끌어낸다. 단지 몇 마디로 요약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팡(Moustafa Safouan)에 의해 기술된 전체치료법을 한 단계씩 설명할 것이다.

b. 최초의 보상구조

오만한 성격의 모친으로부터 의뢰받은 아동의 질병은 온순하고 자비심 많은 부친의 성격에 의해 그 결과로 발생된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최초의 화맥적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평범한 가족형태이다. 사이코드라마적인 게임을 위해 “상상력으로 창작한(invent)” 화술을 야기했던 아동은 그들의 분명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탐정 설화를 매주 제공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등치기였고, 한편으로는 탈취당한 그 자신을 용감하게 만들었던 어느 고귀한 희생자였다. 왜냐하면 그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 자신이 모든 희생을 보호해야만 했던 성격의 파멸을 가져온 원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흔히 그 자신의 부친).

만약 사이코드라마적인 화술의 분석을 위해 우리가 민담의 기술을 위해 사용했던 동일 논리기호 표기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최초의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이라고 하는 화술의 총체 안에 함축된 반복구조의 형식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frac{\overline{c_2}(\text{기만, fraud})}{\text{비}c_2(\text{굴복, complicity})} \approx \frac{c_2(\text{반역자의 폭로, revelation of traitor})}{\text{비}c_2(\text{주인공의 폭로, revelation of hero})}$$

즉 범주적 대당의 형식 하에 개인적 가치를 단독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환원된 방식 안에 있는 단순 계열체적 체계를 말한다. 발단에 시퀀스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생생한 힘의 박탈은 그 자신이 영웅적 자질을 갖게 되는 주인공의 자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화술의 이러한 목록의 구조는 전적으로 비통시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정의된 것처럼, “신화”로서 그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를 “살아있도록” 그 아동에게 허락한다면, 그것은 어느 통시적 연결하기에서 유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화술 안에 표현되지 않은 최초의 상태의 곡언적(litotic) 존재자를 쉽게 허락할 수 있으며, 그리고 \bar{A} (부친과 자식 간 계약·응축의 위반)에 의해 그것을 표현한다.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목록”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형식화는 다음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ac{\bar{c}}{C} \approx \frac{\bar{A}}{x}$$

그리고 어느 새로이 예견할 수 있는 제약·응축의 수평선상의 부재를 정의한다. 아동이 화술 안에서 점점 더 드러내고 있는 영웅적 자질(heroism)은 발신자의 결핍을 위해 인식되지 못한다.

우리는 전체성, 다시 말해서 C_2 (반역자의 폭로)의 독자적인 표출, 즉 박탈과 타자에 우선하여 개인적 가치의 가치론으로 선택된 생생한 에너지의 귀속의 배타적 표현(양극을 제외한) 표현 속에서 화술의 초초의 목록뿐만 아니라 발화자료체의 독자적인 특징을 동시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원소 중의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노트: 그것은 이 최초의 구조를 중단시키는 임상치료사의 중재(intervention)가 화술의 총체를 공유하는 의미론적 구조의 설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각각의 역할은 적어도 이러한 치료법 안에서 이 최초의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에 제한되는 것 같다.

c. 투쟁의 발단

이러한 중재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화술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화술은 아주 평범한 개념, 예를 들어, “설상가상(To evil more evil comes.),” “형사를 감쪽같이 속이는데 성공한 사기꾼이었지만 형사는 결국 그 사기꾼을 잡았다”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pp. 365~366).

보상받고 있는 원소 c_2 (반역자의 폭로)와 비동시적 성격을 부여받은 비 c_2 (주인공의 폭로)를 단념함으로써, 그 설화는 새로운 함수적인 한 쌍 F에 의해 비동시적 연결하기를 논리적으로 유도해낸다.

$$\bar{c}_2 \left(\begin{array}{c} \text{기만} \\ \text{굴복} \end{array} \right) > F \left(\begin{array}{c} \text{투쟁} \\ \text{승리} \end{array} \right)$$

화술의 새로운 목록의 그리고 새로운 구조적 시퀀스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허락한다.

1. 비록 통시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시퀀스는 애매하게 그리고 보상(또는 보충, 보정) 받고 있는 비통시적 구조로 남아있다. 사실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주인공의 그리고 반역자의 역할에 관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화술의 저자는 그 자신을 주인공으로 또는 반역자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차라리 더 좋아한다.

2.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역할과 시련(시험)으로 변형될 수 없는 투쟁(F)은 이 화술의 유기적 조직 안에서 어떤 계약·응축의 부재로 명백하게 존재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그 자신을 충전시키고 있는 발신자의 부재는 주체-행위주, 즉 보조자(주술적 가동자)를 부여하는지도 모른다.

노트: 임상치료사의 중재는 더 이상 외부에 정위되지 못하며, 그러나 게임 안에 정위된다. 임상치료사는 그것을 연기하는 희생자이며, 그뿐만 아니라 계속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임상치료사가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제는 의식의 레벨에 정위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연의 레벨에 그리고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의 레벨에 정위된다.

d. 시련(시험)의 진전

복수를 맹세함으로써, 아들은 매우 복잡한 중국민담과 함께 다음 주에 돌아왔다. 리송(Li-Shong)과 리톡(Li-Tock)이라고 하는 두 산적은 서로 그들의 줄개들을 이끌고 야영하고 있다. 리송(Li-Shong)은 부관 상(Shang)에게 중국에서 페스트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잡아오도록 지시한다. 의사를 독방에 감금하도록 명령을 내린 후에, 그 산적의 두목은 그의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매우 완벽한 계략을 궁리한다. 그의 딸이 리톡(Li-Tock)의 진지 부근에 있는 꽃을 꺾으러 가지 않으면 못 배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질로 붙잡히게 된다. 일단 포로가 된 그녀는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댈 것이다. 그 자신이 영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리톡(Li-Tock)은 그의 인질과 교환조건으로 황금 4상자를 요구한다. 리송(Li-Shong)은 그의 딸과 교환조건으로 황금 20상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가 붙잡고 있는 포로이자 페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와 교환할 것을 제안한다. 일단 교환이 성립된 후, 리송(Li-Shong)은 그의 부관에게 의사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그의 적이 받아보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리톡(Li-Tock)은 죽음이 확실할 것으로 예기하게 된다.

게임의 이 확실한 순간에, 임상치료사는 아동에게 딜레마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입한다. 만약 메시지가 딸의 귀환 전에 발송된다면, 그 질병에 대한 지식은 적이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적을 분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딸의 귀환 전에 발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해법(또는 이산)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동은 그 게임을 중단해버릴 것이다.

비록 복잡할지라도 화술은 위장된 시련(시협)의 진전으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동반된 차트 안에 보인 것처럼, 구성함수를 인식하도록 하자.

예기	\overline{bi}_{c_3} (결핍)	F (투쟁)	A (계약·응축)	bi_{c_3} (결핍의 제거)
↓	거짓 생포	위장된 투쟁: 몸값의 요구와 그 역의 몸값요 구	위장된 계약·응 축: 주인공과 역자(발신자가 닌) 간의 교환	딸(육망 대상의 귀 환이 아닌)의 귀환
표출	$-(\overline{bi}_{c_3})$	$-(F)$	$-(A)$	$-(bi_{c_3})$

비록 전적으로 “기만(fraud)”의 측면에 정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시물레이션(simulation)이며 책략(속임수)일지라도, 기호의 진도로 그리고 결합체적인 연속의 반전으로 또 그 이유 때문에 특징이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시련(시협)은 “유표(marking)”의 개념과 함께 모든 그것의 구성적 원소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전체 발화자료체 밑에 깔려있는 구조의 진전 안에서 명백한 진척으로 나타난다.

화술 발현의 전개를 중단시킬 것인 그 주요한 어려움은 행위주의 주연(distribution) 안에 존재한다.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근거가 확실한 위장 계약·응축은 우리가 계약·응축을 맺고 있는 행위주로 고찰할지라도 더 이상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사실 그 주인공은 오로지 반역자와 함께 연기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유로 그 자신은 발신자의 역할을 혼합주의적으로 짐짓 가장하고, 동시에 수신자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주체와 발신자 역할의 합류는 결핍의 제거임이 분명하다. 같은 이유로 욕망대상은 발신자-부친에게 귀환된다. 그러나 발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자질을 만들고 있는 에너지를 그 자신에게 더 이상 귀속시킬 수 없다. 즉 그는 반-에너지(antienergy, 즉 질병)의 형식으로 그것을 반역자에게 발송한다. 따라서 책략의 전형은 실현된다. 반역자에게 간 반-에너지는 가장된 비-힘(nonpower)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반역자는 진짜로 수용되고 그(주인공-발신자)의 힘을 그로부터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따라서 자질을 만들고 있는 시련(시협)의 곡연적 표출은 실현된다.

그것은 반역자의 형벌(c_3)과 동일하다. 발신자의 축적적인 성질(quality) 안에 있는 주인공은 반역자에게 형벌을 가할 의무능력이 있으며, 이때 페스트에 걸린 의사의 형식으로 실제적인 반-에너지를 그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반역자는 주인공이 폭로되는 한에 있어서만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발신자는 그 자신을 그 자신의 가짜미끼로 포착한다. 발신자로서의 그는 주인공으로 인식된 그를 허락할는지 모르는 메시지-대상(bc_1)을 발송하고 싶어 한다. 여기가 바로 임상치료사의 중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노트: 임상치료사의 중재는 “주체+발신자”라고 하는 혼합주의의 불가능성, 즉 그 자신이 발신자가 된 주인공을 위한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독자적인 발신자의 부재는 주인공으로서 주인공의 인식을 박탈한다. 따라서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화술은 발신자와 인식 양쪽을 위한 탐색으로 충당될 것이다.

e. 시련(시협)의 성취

아동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화술은 결국 조정적 형식 안에서 시련(시협)을 성공적으로 성취한다. 그것은 스파이 설화로 제시된다. 어느 방첩기관의 요원이 카이로의 어떤 바에서 위스키를 훌쩍훌쩍 마시고 있다. 그는 은퇴했으며 더 이상 모험 속에 말려들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전 상사는 그가 있는 곳을 알고 홀연히 그곳에 도착한다. 그 요원은 새로운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제외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의 상사는 때맞춰 그를 붙잡는다. 다른 어떤 도시에 가면 그가 추측치 못한 어떤 요원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줄 것인데, 그의 임무는 그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가져가

는데 있다. 그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그 요원은 그 앞에서 전개되는 세부사건들이 의미하고 있는 다수의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상처의 유표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 낯모르는 사람이 땅콩장사로 변장하여 그 요원에게 접근했는데, 땅콩꾸러미를 그에게 떠맡긴다. 그때 갑자기 그 사내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는 땅콩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낸다.

간극(lacuna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보가 매우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분석은 어떤 어려움도 제기하지 못한다.

\overline{m}_{c_3} (결핍)	A_1 (지령 vs 수락)	T_1 (자질이 부여되는 시련[시험])	F_1 (투쟁)	C_1 (유표)	m_{c_3} (결핍의 제거)
메시지의 예기	상사가 전 요원에게 임무를 명한다.	모험	사격	상처	메시지의 전송

노트: 우리는 화술이 오로지 결핍의 상태인 곧 소원되어 있는 화맥을 존속시키고 있는 그 최초 시련스의 반복을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고 떠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화술의 그리고 화자의 관심은 어딘가 다른 곳에 존재한다.

보다 면밀하게 주목될 때, 화술은 재발견된, 곧 인식된 그리고 결국에는 상실된 발신자의 설화로 나타난다. 사실 발신자-행위주는 두 연기자의 형식안의 설화로 나타나게 된다. 스파이 활동의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발신자는 수신자를 찾으려고 하고, 땅콩장사로 변장한 그 낯모르는 사람은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집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그 자체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방향으로 주목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신분석의-발신자의 역할은 3개의 함수로 요약될 수 있다.

1. 그는 수신자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발신자이다.
2. 그의 역할은 메시지-대상을, 즉 인식 또는 재인식의 유표(여담이지만, 부분적인 과장을 구성하는 그 상처)를 배달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3. 그의 역할은, 그가 유탄에 의해 살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아직 인식되지 못한 그 순간에, 종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록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주인공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살해당한 발신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트: 그의 의무를 완수하고 살해당한 임상치료사의 중재는 여기서 종결된다.

f. 인식과 보상의 문제

소년에 의해 제안된 최후의 화술은 “은자(The Hermit)”라고 제목이 붙여진 볼테르(Voltaire)의 “자디그(Zadig)”의 마지막 장 가운데 하나를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드디어 바빌론에 귀환 중 자디그(Zadig)가 은자를 만나 그와의 동행을 허락받는다. 그들은 함께 유숙을 허락받고 나흘 밤을 계속 다양한 주인집에서 보낸다. 먼저 자만심 많은 사람의 집과 구두쇠의 집, 그리고 철학자의 집과 정숙한 부인의 집을 말한다. 감사의 징표로, 은자는 자만심 많은 사람으로부터 황금 촛대 2개를 훔치고, 그 다음에 그는 구두쇠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건네준다. 철학자의 순수한 환대에 보답하면서 은자는 그의 집에 불을 지른다. 정숙한 과부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는 그녀의 조카를 살해한다.

첫 부분에서, 화술은 반역자의 형벌(受)에 관한, 그리고 주인공의 보상(受)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이다. 시련(시험)이 선행 화술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가치 재통합의 문제가 발생 될 뿐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요약된 시퀀스는 보상과 형벌을 정확하게 주연(周延)할 수 없는 것 같다. 사실 모든 것은 최초의 시퀀스로 거의 되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발송하고 있는 출현의 레벨에서 다루어진다. 처음 두 주인의 환대는 부정적인 것 같으며 그리고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형벌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철학자와 과부의 환대는 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것은 그 반대이다. 착란적인 표출의 발단에서, 주인공은 “기만당한” 주인공이다.

그러나 설화는 끝나지 않는다. 은자가 신의 섭리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잊기로 하자. 그는 주인공(=자디그[Zadig], =아동)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황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유표가 만들어졌기(그는 상처를 받았다) 때문이다. 그는 결핍을 제거(그는 그가 책임졌던 메시지를 획득했다)함으로써 그의 과업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주체의 욕망대상이며, 또 그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이 재발견되도록 파지(把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발신자가, 보상 그리고 새로이 체결된 계약·응축의 징표 양쪽으로, 과장적으로, 그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연적이다.²²³⁾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과 악의 인식”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그 메시지의 전송으로 이러한 최후의 함수를 성취하고 있는 발신자-은자이다.

격아강적인 화술의 몇 가지 목록으로 보호된, 이 착란적인 표출의 총체적 의미작용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며, 그 특별한 변형모델(만약 그들이 그 가치를 인식한다면, 전문가들은 화술의 특별한 하위 장르의 성격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은, bi_1 (인식, 메시지의 수령)이 bi_3 (결핍의 제거, 욕망의 대상)로 간주될 시련(시험)의 조력을 받아, bi_1 (정보,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이 bi_3 (결핍의 제거)로 바뀌는 변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메시지-대상의, 즉 “지식(knowledge)”의 박탈로 성격이 만들어진 결핍의 최초의 장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복합 구조적 텀(bi_1 [굴복, 숙맥] + bi_2 [주인공의 폭로, 힘의 획득]) 안에서 그를 구성함으로써, 숙맥과 “그 자신으로서의 주인공”을 동시에 주체로 만들고 있는, 그 진동(振動)적인 성격의 화술의 최초의 “강박관념적인” 구조를 부여한다. 다른 한편, 그 변형모델은 결핍의 대상(우리의 경우, bi_1 [인식, 메시지의 수령])을 욕망의 대상(bi_3 [결핍의 제거])으로 고찰하는 것으로만 함수역할을 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그 정의이다). 그때 이 특수화된 욕망의 대상($bi_3 = bi_1$)은 주요한 시련(시험, 상기한다면, 그것은 재발견되는 메시지이다)이 진행되는 동안 재발견되고 그 후에 발신자에 의해 전송될 것이다. 사실 은자의 메시지-설명은, 가면과 얼굴을, 출현과 “폭로된 실재성(revealed reality)”을 식별하는 것에 의해, 복합 텀(bi_1 [굴복] + bi_2 [주인공의 폭로])을 선언적 범주(bi_2 vs bi_3)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양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식”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설화를 종결하고 있는 메

223) 수동적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지향적 연역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역주)

지식-대상 안에는 보상과 그리고 형벌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보상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지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g. 모델의 격아강적인 표출

연속적인 화술-발현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이 요약된 차트는 유일한 총체구조의 격아강적인 표출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보다 더 잘 관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서 표출 그 자체는 내재변형모델에 종속된다.

화술의 단자	\bar{A}	\bar{c}	T				C		A
등치기	(\bar{A})	$\frac{\bar{c}_2}{\bar{b}c}$						$\frac{c_2}{\bar{b}c_2}$	
사기당한 사기꾼		$\frac{c_2}{\bar{b}c_2}$			F_1				
중국민담			$-(\bar{b}c_3)$	$-(A_1)$	$-(F_1)$	$-(\bar{b}c_3)$		$-(\bar{b}c_2)$	$-(c_3)$
스파이 설화			$\bar{b}c_3$	A_1	T_2	F_1	$\bar{b}c_3$	c_1	
은자		$\bar{b}c_1$						$\bar{b}c_3$ ($=\bar{b}c_1$)	A

h. 변형모델의 범위

반성의 이러한 단계에 도착함으로써,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고백하게 된다. 사이코드라마의 분석에서, 민담기술로부터 획득된 모델의 적용결과는 예측되지도 예측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하튼 정신분석을 방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 우리의 절차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담기술과 사이코드라마를 초월해서, 변형모델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가 모든 변이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의미작용구조의 통시적(그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변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찰된 2개의 예 안에서 조우된 구조적 동정 대신에, “강박관념적인”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적인 구조는 그 자신의 구조적 성격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욕망대상과 사이코드라마적인 주객치환응집은 지식-대상이며, 그리고 그 변형은 “비지

식”을 위한 “지식”의 계열체적 치환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모델의 명백한 특수화를 구성한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될지도 모르며, 그리고 먼저 여기서 시사된 그 가능한 아티큘레이션의 변형모델은 격아강적인 모델의 기술로 사용된 가언으로만 제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련(시협), 즉 우리가 화술의 개시로 주목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장소 그 자체가 유일한 변형의 격아강적인 모델이며, 그리고 그 의미론적 언어로의 번역-전격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제12장 기술의 샘플

1. 일반원리

a. 선택된 예: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세계

이러한 반성의 예비적 결론으로, 우리는 주어진 발화자료체로부터 작용되고 있는, 유효한 절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초미우주 조직의 완성된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다소간 완벽한 기술의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우리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초미우주를 선택한다. 최근 이스탄불 대학 문학부에 박사논문으로 제출된(1969년 간행), 유셀(Tahsin Yücel)²²⁴⁾의 「베르나노스의 상상적인 것(L'Imaginaire de Bernanos)」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떠맡겨졌다.

기왕에 연구방법으로 발굴된 영역의 선택은 이점과 결점 모두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론적 기술의 절차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 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저작의 권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유셀(Tahsin Yücel)의 연구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저작 전체를 취급했고, 이것은 어느 정도 그 표상성을 보증한다. 다른 어떤 예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제한된 공간 때문에 좀 더 부분적이었음은지도 모른다. 한편, 그 표상성과 발화자료체의 예비분석은 기왕에 실행되었고, 다른 한편, 전체 기술로 인해 나타난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락하며,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있는 수련(exercise)의 전형적인 성격을 증진시킨다. 가장 성가신 불편은 기술의 타

224) Tahsin Yücel(1933~): 터키 Elbistan/카흐라만마라스 출생. 갈라타사라이(Galatasaray) 고등학교와 이스탄불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프랑스 문학 교수가 된 후 2000년까지 가르쳤다. 프랑스의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앙드레 지드(André Gide), 알버트 카뮈(Albert Camus),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 레이몽 크노(Raymond Queneau) 등의 작품을 번역했다. 그는 세계의 가면 벗기기에 참여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명명하는 것을 회피하는, 순화된 터키어휘를 사용하는 그리고 개인의 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우화작가이다. 예를 들어, "Biyik Söylencesi(The myth of the mustache, 콧수염의 신화, 1995)"에서, 콧수염은 화술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아나톨리아(Anatolia) 마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징적인 콧수염의 설화로 존재한다. 최근의 텍스트 "거짓말(Yalan, 2002)"에서, 그것은 대학생들과 현대 미디어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것의 배후에 깔린 세계의 허위를 폭로하는, 문화적 장(field)에서의 총체화의 부인할 수 없는 기호(sign), 그 장조(長調, major)적인 소설을 제공한다. (역주)

당성과 관련되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보증을 보충할 수 없는 불가능성 안에 존재하며,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의 저작의 또 다른 점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어려움은 유셀(Tahsin Yücel)의 저작에 나타난 결과의 표현에 기인하며, 그것을 우리는 문학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학비평의 관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은 의미론적 예비분석의 지위를 구성할 뿐이다. 그 결과는 데이터의 평가 안의 어떤 흔들림이다. 어떤 환원은 달성되는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은 매우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어떤 발현은 낯것인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선택된 예는 다만 어떤 유보조항을 붙여 기술의 기본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그 윤곽만을 추적할 것이다.

b. 추출에 의한 텍스트의 구성

「베르나노스의 상상적인 것(L'Imaginaire de Bernanos)」의 저자는 그의 텍스트의 구성을 위하여 추출의 절차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로지 즉석에서만 제시되었던 절차를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그의 방식과 동행시킬 수 있다.

추출의 시발점은 가언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술 동류체의 어떤 어휘소, 표상의 과장의 선언 안에 있다.

삶(life)과 죽음(death)

그들을 최초의 한정 목록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새로운 기술절차는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진 어휘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화맥의 추출에 의해 시작된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각각의 어휘소 목록을 상수로 포착하고, 그리고 그들의 각각을 추출된 자질로 구성된 변이의 강류로 제안하는데 존재한다. 따라서 변이의 각각의 강류는 단한 발화자료체, 즉 상수-어휘소로 정의될 것이다. 제한된 수의 어의소에 변이의 각각의 강류를 환원하는 것은 많은 자질적인 메시지를 획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 레벨에서 중단된다면, 분석은 삶과 죽음의 의미론적 내용으로 고찰되고 있는 단순모델의 구성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불완전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발화자료체로부터 추출된 메시지의 한정된 수로만 기초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먼저 한숨 돌려 휴지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그런 후 사전에 추출된 모든 자질-변이의 목록을 상수로 취급하고 있는 두 번째 추출을 실행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것 같다.

이 새로운 목록의 두 가지 용도는 다음과 같이 상상될 수 있다.

1. 최초의 추출로 구성된 자질의 강류는 그 자체로 고찰될 수 있으며, 기왕에 자질화된 어휘소의 가능한 동치를 탐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질의 강류가 상수로 취급된 이러한 방식은 동치 어휘소의 구성된 행위주의 강류를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left. \begin{array}{l} \text{죽음}(death) \\ \text{물}(water) \\ \text{권태}(boredom) \end{array} \right\} \text{ vs } \left. \begin{array}{l} \text{삶}(life) \\ \text{불}(fire) \\ \text{기쁨}(joy) \end{array} \right\}$$

화맥의 총체 안 3개의 어휘소는 동일 변이로 자질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죽음을 정의하고 있는 자질의 강류가 주어진 발화자료체의 삶과 죽음의 내용을 설치하는 확장으로 고찰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동일 강류는 동치 어휘소와 아주 동일한 내용을 오로지 부여할 뿐이다. 이것은 공통 어의소-행위주와 교체될 수 있고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계속 우리가 비록 죽음과 물, 삶과 불을 분리해서 언급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것에 의해 단자화 된 단순어의소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노트: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숙고(consideration)를 위해 기쁨(joy)과 권태(boredom)를 간수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2. 다른 한편, 자질의 목록은 자질의 흠 없이 온전한 강류로, 단지 분리하여 획득된 각각의 자질로, 더 이상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어휘소를 추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어휘소의 이 새로운 목록은 최초의 목록, 즉 죽음이든지 삶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들 스스로 구성적인 구성물 안에서 봉

사하고 있는 자질과 꼭 마찬가지로 2분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2개의 아강(subclass)을 포함할 것이다.

- a. 시체(corpse)-노인(old)-질병(disease)-허구(lie)-증오(hatred) 등
- b. 생체(living)-아동(child)-육체(flesh)-피(blood)-진실(truth)-사랑(love) 등

따라서 죽음의 목류와 삶의 목류는 그 자체가 1개 또는 다른 2개의 목류에 관해서 하위개념적 관계인 자질로 확립된다.

그때 추출의 새로운 질차는 일련의 추출의 연속작용으로서, 추출 그리고 다른 화맥의 목록화를 허락하고 있는 추출 화맥 각각의 목록으로서, 통제로나타나며, 그리고 이것이, 발화자료체로서 다 구명될 때까지, 즉 최후의 추출(n)이 최후의 목록(n-1)을 사용할 때까지, 나타나는 새로운 자질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선택된, 삶과 죽음의 동류체에 속한 의미작용의 원소를 추출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발화자료체가 이러한 구명적 방식으로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평가의 새로운 원소를 공급함으로써, 추출 목록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면, 기술의 시초에 공준된 가언을 정류(精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c. 동류체의 선택

추출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전략적 선택은 어휘소 삶과 죽음의 관측된 과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천진난만한(naïve) 질문을 진제한다. 즉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게서의 삶과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이들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착하였는가?” 이 레벨에서, 대답은 즉각적이다. 즉 “삶의 사실”도 아니고 “죽음의 사실”도 아닌, 우주론적 목류의 의미작용이 그 기술에 타당하다고, 이를테면 자질의 현존재 안에서의 다음과 같다.

죽음은 검다(Death is black)

죽음은 춥다(Death is cold)

우리는 죽음의 색깔과 온도의 기술과 분명히 관련되지 않는다. 기술에 의해 목표로 삼았던 표출의 차원은 정신론적(noological, signifié의 차원) 목류이며, 그리고 2원적 범주 삶 vs 죽음으로 고찰된 동류체의 선택은 과장, 즉 최초의 천진난만한 가연과 같다.

다른 한편, 그것은 일반적으로 해석된 삶과 죽음의 변덕(notion)이 2개의 함수가 아니며, 단지 2개의 직증적인, 미늘을 단(imbricated, overlapping) “존재(being)”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작품 50 페이지 가량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인간은 삶 속에서 죽을 수 있고, 죽음 속에서 살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인간존재자(human existence)는 정신론적 존재(noological being)의 2개의 모순과 상보적 텀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유셀(Tahsin Yücel)에 의해 제안된 동류체는, 복합 텀 속에서, 기본구조의 표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 있다.

$$E = (L + D)^{225}$$

그러나 구조의 두 원소의 균형상태(equilibrium)는 불안정하고, 그것은 어떤 때는 부정적 측면에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조정적 측면에 의지하며, 따라서 두 원소 중 하나의 딸림을 같은 지배(dominance)를 확립한다. 한편, 만약 인간존재자(human existence)가 복합구조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목표로 삼는 “삶의 전형(典型, ideal of life)”은 단지 부정적 텀의 억압과 단순한 조정적 텀의 가치안정책(valorization)일 수 있다. 그것은 “전락(顛落, fall)”과 같은데, 그 언어학적 표현은 구조의 조정적 텀의 엄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방식으로 가연을 형식화할 수 있다. 즉 베르나노스적인 담화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일련의 연속적이며 구조적인 불안을 견뎌내고 있는, 동류체 E에 정위된 신화적 표출이다.

$$E = (L + D)$$

225) E=existence, L=life, D=death. 불어원전은 E=(V+M), E=existence, V=vie(삶), M=mort(죽음)로 되어 있다. (역주)

이것은 다음과 같이 조정적인 지배와 부정적인 지배 사이에서 진동(振動)하고 있으며,

$$E_1 = (L + d) \quad E_2 = (D + 1)$$

그리고 텀을 양극화하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복합구조가 파열하는 경향이 있다.

L vs D

노트 I: 우리는 구조의 능동적 지배를 표지하기 위하여 대문자를 사용할 것이며, 지배를 받는 원소를 위하여서는 소문자를 사용할 것이다.

노트 II: 여기서 우리는 표출의 총체를 내포하는 자기소여적 범주 “행복감(euphoria)” vs “불쾌감(dysphoria)”의 도입을 잊을 뻔했다. 그 현존재는 주어진 발화자료체로부터 공들여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에 가치론적이며 관념론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2. 환경(Milieu)으로서의 존재자(Existence)

a. 표출의 형식(form)과 분석의 유형(type)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의 추축(樞軸)과 그 추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을 동시에 지시하는, 어휘소 환경의 애매성(ambiguity)을 역설할 기회가 있었다. 사실, 이러한 변덕은, 우리가 지시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용어법(「이성과 실존」 참조)을 사용하고 있는, 복합적이며 직증적인 구조의 어휘화의 유형적인 예이다.

포위하는 것(englobing, surrounding) vs 포위되는 것(surrounded)

이것 대신에 우리는 유셀(Tahsin Yücel)에 의해 활용된 대당 “포함하는 것(containing) vs 포함되는 것(contained)”을 차라리 선택한다.

따라서 단자화 된 범주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며, 또한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현존재는 그의 세계가 특별하게 개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정신론적 공간의 기본 아티클레이션의 하나로 고찰된 그 범주는 추상적 개념이 행위주로 변형함으로써 “추상적(abstract)” 표출이 “격아강적인(figurative)” 표출로 변하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추이를 허락하는 교량으로 이바지한다. 따라서 일단 어휘소 죽음과 물(water) 양측에 귀속된 자질의 강류의 동정은 인식되며, 우리는 다른 연기자, 즉 시체(corps)의 힘에 의해 연기자의 역할을 떠맡는 격아강적인 어의소를 몰로 쉽게 지각한다. 다시 말해서, 첫눈에 오로지 2개의 분량-직시(volume-deixis) 간 위상적(位相的) 관계로만 표현하고 있는 “포함하는 것(englobing)” vs “포함되는 것(englobed)”은, 함수 정도로 자질적인 빈사가 귀속될 수 있는 것에, 행위주로 고찰된 그 텀의 새로운 결정을 또한 허락한다.

그 행위주의 관계적 단순성 때문에 그러한 위상적(位相的) 격상은 특히 그 자신을 자질적인 분석에 잘 빌려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물(water)과 불(fire)의 기술은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의 매우 풍부한 망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동일 범주의 조력자(aid)로, 즉 관자놀이-공간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러나 유기적인, 격아강적인 표출로 해석하려고 할 때, 더 이상 동일 범주에 머물지 못한다.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게서의 “육체(flesh)와 피(blood)”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갉아먹어 기력을 잃게 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하위계열적 연기자(예를 들어, 암)가 설치된 것에서의 “진체(globe, 환경[surrounding])”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격상의 첫 번째 유형 안에서 발생한 것과는 반대로, 그것은 주체-행위주인, 따라서 복합구조의 지배 텀인, “진체(globe, 포함하고 있는 것)”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저 포함될 뿐이다. 더 나아가 죽음의 지배는 주체-행위주로 더 이상 표현되지 못하지만, 대상-행위주, 즉 대상으로서의 노인, 바보와 같은 죽음의 수동자(수난자, patient)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더 이상 포함되지 못하며, 다시 그들은 연기하고 있는 죽음 안에서 “포함하는 것(englobings)”이 된다. 다시 말해서 포함하는 것(주체-행위주)과 포함되는 것(대상-행위주)은 상호주관적이다. 끝으로 세 번째의 경우는 인간보다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을 공격하고 있는 외부 가동자(시험자)의 그것이다. 즉 쥐, 뱀은 죽음의 하위계열적 연기자이다.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격아강적인 표출이 유기적 레벨에 정위될 때, 범주 “포함하는 것(englobing)” vs “포함되는 것(englobed)”은, 우리가 시초에

전제했던 존재자 구조의 아티클레이션인 “지배(dominant)” vs “피지배(dominated)”의 상보적인 것으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체-행위주를 또는 대상-행위주를 다른 연기자로 환원시키는데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행위주로서의 죽음은 변이-연기자의 형식 하에 조우되며, 두 제안된 범주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지위는 다음에 동반된 도표와 같다.

행위주 (ACTANT)	연기자 (ACTOR)	지배 (DOMINANCE)	환경 (MILIEU)
죽음(Death)	암(cancer)	지배(dominant)	포함되는 것(englobed, surrounded)
	노인(old)	피지배(dominated)	포함하는 것(englobing, surrounding)
	쥐(rat)	지배(dominant)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포함되는 것도 아닌

따라서 연기자의 주연은 유기적 표출 안에서 문체론적이며, 비유기적 격상으로 발견된 매우 단순한 주연과 상응하지 못한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연기자의 변화가 시초에 상수로서의 행위주를 제안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며, 빈사로서의 변이를 탐색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함수적인 분석에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 강요될 것이며, 그것은 아마 함수의 동차성 때문에, 연기자에 이르도록 폭로하고 환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다른 한편, 비유기적·격아강적인 표출은 그 자신을 자질적인 분석에 잘 빌려주고, 행위주의 구조 간, 환경의 구조 간, 그리고 지배의 구조 간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립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frac{\text{주체-행위주}}{\text{대상-행위주}} \approx \frac{\text{포함하는 것}}{\text{포함되는 것}} \approx \frac{\text{지배}}{\text{피지배}}$$

그리고 죽음 또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체-행위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복합구조에 부정적 또는 조정(措定)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12장 기술의 샘플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자질적인 기술과 함께 존재한다.

b. 삶(life)과 죽음(death)

먼저 그것은 도식(schema)의 형식 하에, 이를테면 우리가 유셀(Tahsin Yücel)의 데이터로부터 약간의 변화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석의 원소를 부여하는, 자질적인 모델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간단할 것이다.

삶(life)			죽음(death)		
기호	어의소	의미소	의미소	어의소	기호
L_1	변화(Change)	이타성(alteration)--- 상승(elevation)-----	--동정(identity) --전락(fall)	고정성 (Immobility)	비 L_1
L_2	빛(Light)	명료(clarity)----- 투명(transparency)--	--불명료(obscurity) --불투명(opacity)	암흑(Darkness)	비 L_2
L_3	열기(Heat)	열(heat)-----	--냉(cold)	한랭(Cold)	비 L_3
비 D_1	순수성(Purity)	순수(purity)----- 청결(cleanliness)----	--불순(impurity) --불결(dirtiness)	혼합(Mixture)	D_1
비 D_2	기체성 (Gaseousness)	공기(aeroformity)--- 가벼움(lightness)---	--유리질(vitreousness) --무거움(heaviness)	액체성 (Liquidity)	D_2
비 D_3	형식(Form)	맛(taste)----- 유색(color)----- 리듬(rhythm)-----	--무미(blandness) --무색(colorlessness) --단조(monotony)	무형식 (Formlessness)	D_3

여기서 계층구조의 형식으로 나타난 자질적인 모델은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진난만한 가인의 레벨에서 어휘소 존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단자화 했던 개념의 내부 아티클레이션이 존재한다. 그것은 3개의 명백한 계층적 단계로 구성된다.

1. 행위주적 단계: 우리는 정신론적 차원에 정위된 복합구조로서 존재자의 포즈를 취하며, 두 텀 삶 vs 죽음과 비교되는 범주 “행복감(euphoria)” vs “불쾌감(dysphoria)”의 병존설의 선언(選言)에 의해 탐닉에 빠지게 된다. 다른 한편, 우리는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기 전에 격아강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2개의 직시로 고찰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두 구조적 텀을 상술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사론적 지위가 곧 행위주의 지위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2개의 직시-행위주의이며, 동시에 그들의 의미론적 목록을 공급하는 자질은 2개의 명백하고 정신론적인 공간의 성격을 만든다.

2. 어의소적 단계: 행위주의 자질은 자질적인 메시지로 구성된 어의소의 형식으로서의 모델로 나타나며, 그들은 행위주의 의미소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보다 의외적인 것으로 기여한다.

3. 의미소적 단계: 어의소의 구성은 의미소적 대당 때문에 분리된 그 병치적 강류로서의 발현을 조직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의미소적 분석상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그 모델은 시초에 가언으로서의 포즈를 취했던 행위주의적 구조를 재 접합하고 검증하는 의미소적 기술의 결과이다. 그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의미소범주는 모델의 총체에 분류법적 망의 토대를 구성하며, 자기소여적 범주에 의해 전적으로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론적 모델로 나타난다.

중재-어의소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의 구조적 지위는 이미 상술했다. 여기서 그들의 동차화는 그들의 환원보다 더 역설적으로 선행하는 것 같다. 사실, 만약 삶의 어의소가, 죽음의 어의소와 상호관계에서의 의미소적 대당 때문에 존재한다면, 양 그룹은 각각 6개의 어의소를 가지고 있는 2개의 목록만을 구성할 것이며, 그것의 내재 아티클레이션은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노트: 어떤 때는 의미소적 기술 그 자체가 욕망된 어떤 것을 남긴다. 즉 의미소가 어떤 때는 원소로, 또 어떤 때는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 있는 의미소적 내용으로 나타난다. 독자는 세목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방법론적 절차에 애착심을 갖도록 요청받는다.

c. 불(Fire)

변화하는 삶과 부동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발현적 과장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무의미(nonsense)” : “횡설수설(radotage)”로 고찰될 수 있다. 의미소적 대당 “약동성(dynamism)” vs “안정성(staticism)”은 첫눈에 그의 가치론의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삶-행위주의가 함수에 의해 유일하게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반면에 죽음-행위주의는 자질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먼저 삶과 죽음은 2개의 직시를 가지고 있다. 삶이 유동적(mobile) 공간으로 그리고 죽음이 고정적(immobile) 공간으로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지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삶의 변화하는 성격은, 우리가 여전히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했던 목록으로서의 어의소의 아티클레이션을 허락하고 있는 시발점의 관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변화는 이타성(異他性, alteration, altérité,²²⁶) 즉 상태의, 또는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성질(nature)”로 이동하는 “성질(nature)”의 약동적 추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함수적인 메시지를 진전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함수의 성격을 나타낸다. 사실, 더 나아가 용인된 용법으로 순응시키고 있는, 일반사건은 불을 열기(Heat)와 빛(Light)이 연소됨으로써 생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행위주, 즉 “발생원인-발신자(causing-sender)”와 “피발생원인-수신자(caused-receiver)”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원론적(etiological) 목록인 함수의 현존재로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된 해석은 삶의 의미소적 목록의 어의소(L_1, L_2, L_3) 3개의 단순 메시지를 거두어들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L = F(\text{변화})[A_3(\text{불}); A_4(\text{열기/빛})]$$

그러한 형식화는 가치론적 모델의 조직 속 어의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1. 그것은 먼저 우리 앞에서 명백히 모순인 불의 이중해석으로 정돈된다. 자질의 동일한 강류로 결정됨으로써, 불(Life)은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삶과 동치가 된다. 우리가 방금 형식화한 함수적인 메시지로서의 불은 이러한 메시지의 발신자-행위주일 뿐이다. 그러므로 불은 삶의 근원임과 동시에 삶 그 자체이다. 언어학적 텀에서, 우리는 불이 2개의 다른 방식으로 표출의 레벨에서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통사론적으로 불은 하나의 행위주이다. 의미론적으로 그것은 온전히 그대로 함수적인 메시지의 하위계열적 표상이며, 그 자체로 삶의 어의소적 자질의 동치이다.

22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2. alterity(이타성, 異他性); 이타성(異他性, alterity)은 비정의적 개념이며, 그것은 다른 동종의 개념, 즉 동정(同定, identity)과의 대당(對當, opposition)이다. 적어도 이러한 비정의와 동정과 같은 짝은 상호전제의 관계에 의해 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동정화(identification)는 일종의 동정 또는 몇몇 대상과 관련하고 있는 결정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편차는 인식된 그들의 이타성(異他性)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과정이다. (역주)

2. 동일한 문체론적 함수의 역할은 빛(Light)과 열기(Heat)의 이중가적 지위로 고찰되며, 그것은 “삶의 리듬(movement of life)”²²⁷⁾일 뿐만 아니라 하위계열적으로 삶 그 자체와 동치이다.

노트: 그때 대당 열기(Heat) vs 빛(Light)은 우주론적 차원(cosmological dimension)이 아니라 정신론적(noological) 존재(being)의 이중가로 기여한다. 명료(clarity)와 투명(transparency)으로서, 빛(Light)은 “정신적 혼(spiritual soul)”으로 고찰된다. 반면에 열기(Heat)는 “육체적 혼(corporeal soul)”을 지시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세목으로 들어갈 수 없다.

3. 따라서 행위주의 하위계열적 사용은 어의소에 귀속된 중재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행위주로서의 그들은 직시-행위주인 삶이 부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함수적인 메시지의 구조에 종속된다. 자질적인 내용으로서, 조정적 어의소는 그들의 부정적 부분(대응물)으로서의 대당의 한쪽으로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곧 죽음의 내용을 구성한다.

일종의 방법론적이며 순간적인 결론은 분석의 단계에서 제안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의소 L_1 , L_2 , L_3 을 삶의 조정적 정의로 고찰한다면, 의미소로서의 그들의 분석은, 의미소범주가 명백하기 때문에, 삶의 조정적 정의 안에 함축된 비 L_1 , 비 L_2 , 비 L_3 의 부정적 어의소로 구성된, 죽음의 부정적 정의 쪽으로의 변이를 제안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기(Heat)로서의 삶의 긍정은 한랭(Cold)으로서의 죽음의 긍정을 함축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부정적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어의소 목록의 구조화가 더 이상 필연으로 머물지 않는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들의 아티클레이션은 삶의 조정적 정의의 조직을 반영한다. 그것은 삶의 조정적 정의가 기계적으로 환원될 수 있기 위하여 죽음의 조정적 정의의 조직을 고찰하고 있는 원리를 제안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d. 물(Water)

²²⁷⁾ movement of life: 본 의미는 ‘운동, 동작, 움직임’이지만, 삶의 하위분류인 “빛과 열기”를 교향곡, 소나타 따위의 악장, 즉 제1장, 제2장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소곡이 모여서 큰 악곡이 되는 경우의 소곡으로, 또는 리듬(운율, 율동)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주)

우리는 죽음이 삶과의 대당에서 고정성(immobility)이지만 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관찰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변화를 어떤 상태(또는 성질)로부터 또 다른 상태(또는 또 다른 성질)로 전승하는 약동적 추이로 해석했다면, 고정성은 안정성으로, 다시 말해서 동정(identities)과 편차성(differences)의 단기 지속성(permanence, 신화)으로, 정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죽음의 정의에 의해 어떤 것을 획득하는 여분이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 곧 삶의 조정적 정의로부터 추론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feature), 즉 비필연성의 특징을 반드시 강조하여야만 한다. 성(gender, 문법)이라고 하는 범주의 예를 은유적으로 차용하면, 삶의 조정적 정의가 “견고한(substantives)”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명사적 강류로 프랑스어에서 성격이 만들어지고 고착된다. 반면에 죽음의 부정적 정의는 “형용사적(adjectival)”이며 변화무쌍하다. 마치 고착된 성이 명사에 접촉되는 것처럼, 열기는 불과 결합되고, 반면에 물은 변화무쌍한 계열체를 허용한다. 물은 차가워지거나, 미지근해지거나, 또는 뜨거워진다. 우리는 아마 삶의 조정적 내용이 프랑스어, 즉 사회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을 다른 방법으로 형식화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반면에 죽음의 부정적 내용은 베르나노스적인, 즉 개인적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하여간 나타나는 “의미성(semantcity)”의 어떤 표준의 존재자를 만들고 있는 어떤 상술된 영역의 분석은 좀 더 철저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물은 조정적 정의와 물의 복합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허락한다.

삶과의 관계 속에서, 물은 동정과 편차성의 연속이고, 수사학적으로 반정립의 목록에 속하며, 죽음은 동정과 이타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이며, 또한 그것은 아이러니(또는 반용[antiphrasis])의 목록에 의존한다.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특별한 아티클레이션으로 분석된 그것은 그 복합 텀과 동정된다.

$$\frac{\text{동정(identity)}}{\text{(조정적)}} \text{ VS } \frac{\text{혼합(mixture)}}{\text{(복합적)}} \text{ VS } \frac{\text{이타성(alterity)}}{\text{(부정적)}}$$

노트: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용어법을 활용하고 있는 의미소적 분석에서, 그것은 보정(補正, correction)을 도입하는 것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즉, 순수(purity)=동

정; 불순(impurity)=(동정+이타성). “청결(Cleanliness)”과 “불결(dirtiness)”은 주로 그 대당의, 시각적 목류의 과장이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최초의 정의를 혼합으로 명기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혼합된 것의 구조”가 죽음의 동치를 위해 물을 선택하도록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를 재촉했던 이유를 아마 밝히는 것일 것이며, 그러나 그 선택이 필연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이러한 동치가 확립되면, 조정적 정의는 그들 구조의 복합 텀을 표출할 수 있는 특별한 아티클레이션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화(consistency)의 축 상에서 물은 2개의 양극화된 텀 사이의 어중간에 정위된다.

$$\frac{\text{기체성(gaseousness)}}{\text{(조정적)}} \text{ VS } \frac{\text{액체성(liquidity)}}{\text{(복합적)}} \text{ VS } \frac{\text{고체성(solidity)}}{\text{(부정적)}}$$

사실 물은 고체도 기체도 아니다. 물은 그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체적인 조화에 의해 부정적으로 정의된 불은, 우리가 보는바와 같이, 조정적 텀과의 대당이 아니라 그저 복합 텀과 대당이 될 뿐이다. 물은 의미소범주의 2개의 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적 정의로 고찰된 복합 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부정적 정의로 고찰된 단순 텀으로 추론되고, 그 역으로는 추론되지 않는다.

만약 이제까지의 우리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복합 아티클레이션은 어의소 무형식(Formlessness)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발견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무색(colorlessness)이, 첫눈에 의미소적 축으로 고찰된, 복합 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주 “흑색” vs “백색”으로 분해된, 유색(color)과 대당이 되고 있는 부정적 텀으로 나타날지라도, 모든 유색이 변하여 더럽게 된 회색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단조(monotony)는 연속으로서의 “동정+이타성”의, 즉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으로 포착된 변화의 반복일 뿐이다. 별 어려움 없이, 우리는 무미(無味, fadeur, blandness)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때 어의소 “무형식(Formlessness)”은 죽음의 정신론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감각의 모든 목류 안 복합구조의 표출로 나타난다.

그때 죽음의 조정적 정의는 혼합된 성질로, 그 범위와 일치하는 성격으로, 그리고 끝으로 지각공간의 복합 아티클레이션로, 부가적 투자의 의미에 의해

연속적으로 포착된 복합구조의 과장으로 고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물론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의 부정적 정의는 환원되고 복합구조의 부정적 덤의 억압에 의해 획득된 조정적 덤으로 긍정된다.

노트 I: 우리는 부정적 원소의 억압조건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씩 모든 복합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을 취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만약 우리가 깊이 분석하고자 한다면).

노트 II: 우리는 어의소 “변화(Change)” vs “고정성(Immobility)”을 정의함으로써 명기된 의미소적 아티클레이션 “상승(elevation)” vs “전락(fall)”에 대해 한 마디 첨가해야만 한다. 사실 그것은 리듬(movement, 공간 속의 변화)이 상승의 방향으로 스며드는 어의소 “가벼움(lightness)”에 의해 결정된 의미소적 결합이다. 다른 한편, “무거움 heaviness)”과 함께 스스로 결합하고 있는 고정성은 전락의 하강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e. 구성적(constitutional) 모델

어의소의 구조적 조직의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그 우연적인 목록은 행위주 삶과 죽음의 분명히 확립하고, 결국 우리의 노력은 행위주의 레벨과 어의소의 레벨 사이에 정위된 구성 모델의 새로운 계층적 레벨의 존재자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행위주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6개의 어의소는 삶의 조정적 정의와 죽음의 부정적 정의로 지시했던 것 안에서 세분된다. 그리고 역으로, 행위주 죽음의 내용의 6개 구성적 어의소는 죽음의 조정적 정의와 삶의 부정적 정의 안에 통합된다. 그 자체로 모델 안에 투자된 내용을 고찰하지 않고, 우리는 모델이 2개의 이중범주의 상호관계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할 수 있다.

$$\frac{L}{\text{비}L} \approx \frac{D}{\text{비}D}$$

그리고 복합구조 안에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단순 범주 삶 vs 죽음으로서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독창적인 가언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무효가 된다면, 모델의 새로운 형식화는 아티클레이션의 형식 안에서 민담의 내재의 비통시적(achronic) 구조와, 그리고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제안된 신화의 모델과 동일한 것의 이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구조적 유연성(有緣性)은 우연적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과 아주 먼 영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우하는 내용의 비통시적 조직의 모델을 바르게 추측하는 것은 일반적 영역이어야만 한다. 그 투자된 내용에 대한 무관심(마치 꼭 자질적인 분석[베르나노스적인 세계]에 의한 것처럼 획득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어의소적 그리고 의미소범주의 레벨에서 표출된 내용을 고찰하는, 우리의 귀납적 진행을 사용하는 자질적인 또는 함수적인 모델을 계층적으로 초월한 메타언어학적 모델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 이러한 최후의 편차(distinction)를 통합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아마 그들을 의미소범주의 모델에 정위시키는 것에 의해, 그리고 변형모델과 대당시키는 것에 의해, 그들을 구성적 모델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간(體幹, stake)²²⁸으로서의 존재자

a. 질병(Disease)

민약 존재(being)를 복부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투기(projection)로 고찰한 정신론적 공간이, 불(fire) vs 물(water)로 분기될 수 있는 분량-직시와 함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격아강적인 표출 안에서 혼합된다면, 그 내재화는 인간 유기체를 그 격상의 광경을 위해 선택할 것이다.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를 위하여 살아있는 인간은 “육체(flesh)와 피(blood)”의 인간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새로운 분석, 즉 추출된 메시지 목록의 두 번째 박편의 관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유셀(Tahsin Yücel)을 허락하고 있는 표현의 과장이다. 비록 매우 건강할지라도,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질병이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작품에서는 다양하고 또 자주 발생한다.

질병은 2개의 강류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질병(disease of the flesh) VS 피의 질병(disease of blood)

위의 질병은 이제 그럴 듯한 시발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2개의 종렬로 제시할 수 있다.

²²⁸) “milieu vs stake,” 즉 “환경 vs 체간” 참조. 그러나 이것 또한 상호주관적이다. (역주)

제12장 기술의 샘플

기호표기	P'		N'
발현 (OCCURRENCE)	암(cancer) 괴저(gangrene) 궤양(ulcers) 종기(sores) 등	vs	빈혈(anemia) 출혈(hemorrhage) 패혈증(septicemia) 수종(dropsy) 등
단자 (DENOMINATION)	암(cancer)		빈혈(anemia)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베르나노스적인 세계, 즉 “암”의 세계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명목과 함께 질병(P')의 최초의 강류를,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빈혈” 세계의 제2의 강류(N')를 지시할 것이다.

이러한 질병을 위해 제안된 빈사의 추출은 환원이 이루어진 뒤에 어의소-함수의 2개의 유형을 획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다음에 만약 우리가 질병을 주체-행위주로, 그리고 건강한 유기체를 대상-행위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함수적인 메시지의 인습적 형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P' \approx F(\text{먹어치우기, devouring})[A_1(\text{암, cancer}) A_2(\text{육체, flesh})]$$

$$N' \approx F(\text{빨기, suction})[A_1(\text{빈혈, anemia}) A_2(\text{피, blood})]$$

b. 동물우화집(The bestiary)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동물우화집은 그의 질병의 목록만큼 다양하고 과장적이다. 한편으로는,

- 말(horses)
- 당나귀(donkeys)
- 개(dogs)
- 고양이(cats)
- 쥐(rats)
- 뱀(snake)
- 곤충(insect)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력을 갖고 있는 동물(beasts with judgement)
필기도구를 갖고 있는 동물(beasts with ink)
도덕을 갖고 있는 동물(beasts with morals)
통계를 처리할 줄 아는 동물(beasts with statistics)
민주주의적인 동물(beasts with democratic)
전체주의적인 동물(beasts with totalitarian)
유물론적인 동물(beasts with materialist)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첫 번째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합성은 유셀(Tahsin Yücel)이 최초였으며, 그때 대당이 되고 있는 2개의 목록으로 분리하고 구별했다.

야생동물(wild beasts) VS 가축(domesticated beasts)

노트: 유셀(Tahsin Yücel)이 많은 페이지에 걸쳐 바친 이러한 목록의 기술 때문에, 행위 주적 문체론의 영역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의미론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

동물우화집에 있는 것은 여전히 유셀(Tahsin Yücel)에 따라 다음처럼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설치류(rodents)
파충류(reptiles)
곤충류(insects)

이러한 3개의 연기자를 가지고 있는 함수적인 메시지의 추론과 그들 함수의 환원은 2개의 함수적인 메시지를 획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P'' \simeq F(\text{먹어치우기, devouring}) \left[A_1 \frac{(\text{설치류, rodents})}{(\text{곤충류, insect})} A_2(X) \right]$$

$$N'' \simeq F(\text{빨기, suction}) \left[A_1 \frac{(\text{파충류, reptiles})}{(\text{곤충류, insect})} A_2(X) \right]$$

노트 I: 메시지의 2개의 유형(곤충류[insects] “먹어치우다[devour]”와 “빨다[suck]”) 안에서 발견되는 텃 곤충류는, 선언(選言) 설치류(rodents) vs 파충류(reptiles)에 의해 이미 표출된 구조의 복합 텃의 어휘화로, 그렇기 때문에, 함수적인 기술의 안정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확실히 그것은 문체론적·행위주적 분석 안에서 그 위치를 발견할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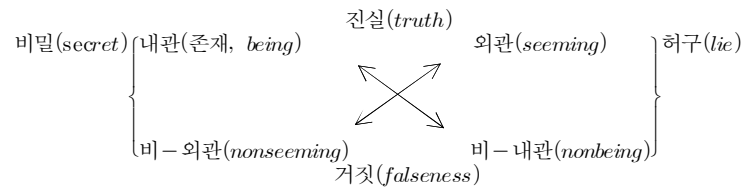
노트 II: 설치류가 육체를 공격하고, 반면에 파충류는 피를 공격한다고, 비록 우리가 언급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차라리 이러한 메시지의 대상-행위주인 어느 X로의 유표를 선택하며, 그래서 암이 인간의 내부에서 정신을 먹어치우는 것에 대해 설치류는 외부에서 먹어치운다고 하는 사실에서 조래된 추가적 어려움과 함께, 당분간은 우리 자신을 거처적거리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원 뒤에 획득된 메시지의 비교는 질병(diseases)과 동물(beasts)이 관계하고 있는 이 2개의 목록 안에서 발견된 함수의 동정을 표출한다. 만약 그 함수를 우리가 행위주를 확립하고 있는 정의로 고찰한다면, 한편으로, 우리는 메시지 P'와 P'' 안에서 그리고 N'과 N'' 안에서, 즉 주체-행위주 암과 설치류 안에서 동일적인 것으로 기술된 함수로, 다른 한편 빈혈과 파충류가 동치인 것으로 가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질병과 동물의 함수적인 메시지 사이의 바로 그 편차만이 대상-행위주의 지위로 존재한다.

c. 허구(虛構, Lies)²²⁹⁾

허구는 베르나노스적인 담화 안에 과장적 어휘소의 새로이 가능한 그룹을 구성한다. 허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분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29) 아래 도표 참조(역주)



2차적인 허구(secondary lies) vs 본질적인 허구(essential lies)

전자, 즉 2차적인 허구의 예로 다음을 인용할 수 있다.

책략(artifice)

위선(hypocrisy)

사기(imposture)

태도의 허구(lies of attitudes)

아첨의 허구(lies of flatteries)

용의주도한 허구(lies of refinements)

졸렬하게 궁지에 몰린 체하는 문제의 허구(lies of problemes poorly posed)

노트: 이 경우의 2차적인 허구는 본질적인 허구의 하위계열적인 격상일 뿐이다.

본질적인 허구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다음 방식으로 분류된다.

T''': 절망(despair); 망상(dream)

T'': 오만(pride), 경멸(contempt); 인색(avarice), 이기심(selfishness), 욕구(lust)

T': 증오(hatred), 냉담(indifference)

우리는 베르나노스적인 세계 안에서의 허구는 질병의 비격아강적인 동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부터 허구로 넘어감으로써, 우리는 동류체의 변경(changing) 없이 표출의 레벨을 변화시킬 뿐이다. 그들 양측의 성격을 만들고 확립하고 있는 자질과 함수의 동정은 이것의 객관적 확증일 뿐이다. 상호관계 안에 설치된 범주내용의 배타적 상호관계,

$$\frac{\text{죽음}}{\text{삶}} \approx \frac{\text{물}}{\text{불}} \quad \text{그리고} \quad \frac{\text{허구}(lie)}{\text{진실}(truth)} \approx \frac{\text{질병}}{\text{건강}(육체와피)}$$

제12장 기술의 샘플

즉 위와 같은 상호관계는 표출의 2개의 레벨(비격아강적인 것과 격아강적인 것) 사이의 상응을 표시한다.

이 단계에서 기술 그 자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표출의 여러 가지 레벨을 하나의 단순한 비격아강적인 레벨로 환원하도록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거기서 획득된 어의소의 단자가 성취된다. 그러나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는 허구(lie)의 목류에 의지하는 어의소와 진실(truth)의 목류에서 그들과 상응하는 어의소의 필연적 동차성을 고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가적 어려움은 허구 함수의 질료로서의 독립목류가 존재하지(exist)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우리가 질병과 동물의 기술을 수용했던 절차를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석은 허구와 진실을 기술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노트: 그러한 목류의 부재(absence)가 기술자의 생략에 기인하든가, 또는 발화자료체의 특성(particularity)에 기인하든가 하는 그 부재의 원인을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원 칙적으로 기술은 그러한 장면에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절차의 여러 가지를 비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구와 질병 사이에서 관측된 불완전한 등가를 이탈(departure)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격아강적인 측면에서, 동물이 행위주를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메시지의 존재자를 고려하는 반면에, 그것은 주체-행위주의 환원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함수를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제안된 환원은 허구와 진실의 가능한 동차성에 의해 제공된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d. 다동적(transitive) 허구

허구의 최초의 강류(T'')를 일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우리는 유셀(Tahsin Yücel)에 의해 제안된, 다음의 도표 안에 표현된 분류에 따라 2개의 열안에 남아있는 2개의 강류로 정리할 수 있다.

기호	P'''	N'''
T'	증오(hatred)	냉담(indifference)
T''	오만(pride) 경멸(contempt)	인색(avarice) 이기심(selfishness) 욕구(lust)

가언으로서, 우리는 강류 P''' 가 “먹어치우기”의 함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행위주를 표현하고, 강류 N''' 은 “빨기”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 행위주로 구성된다고 언급할 것이다.

허구의 수평분류를 2개의 중첩 단층 T' 와 T'' 로 말한다면, 그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후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상-행위주의 레벨에서, 단순한 형식을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그리고 여러 가지로 표현된 동물의 함수를 분리하여 형식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메시지를 앞에서 이미 지시했다. 이러한 편차는 다음과 같다. 즉 질병은 유기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부에서 유기체를 공격한다. 역으로 설치류와 파충류는 외부에서 존재(beings)와 사물(또는 대상, things)을 공격한다. 그 때문에 “먹어치우기”와 “빨기”의 함수와 상응하고 있는 대상-행위주는 의미소적 선언(選言), 내부대상(interior object) vs 외부대상(exterior object)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외부대상 쪽으로든지($A_1 \rightarrow A_2$), 또는 내부대상 쪽으로든지, 즉 주체-행위주 쪽으로든지($A_1 \rightarrow A_1$), 하여간 함수를 지시하고 있는 타동성(transitivity)의 범주(변형의 범주)에 타당한 아티클레이션으로 선언(選言)을 해석하도록 제안한다.²³⁰ 따라서 타동성은 동물-연기자를 질병-연기자와 범주적으로 대당이 되게 함으로써(질병-연기자는 재귀적[reflexive] 함수에 의해 정의되고, 동물-연기자는 타동적 함수에 의해 정의된다), 그리고 그들의 격아강적인 동치에 따르고 있는 허구를 주연함으로써, 허구(그리고 그들의 격아강적인 표현)를 분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타동적 허구의 비격아강적인 레벨에서 격아강적인 표출의 환원을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²³¹

230) 변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① 연언변형(conjunctive transformation)의 경우, reflexive(재귀적)는 appropriation(전유[專有])이며, transitive(타동적)는 attribution(귀속)이다. ② 선언변형(disjunctive transformation)의 경우, reflexive(재귀적)는 renunciation(포기)이며, transitive(타동적)는 dispossession(강탈)이다. 그러므로 재귀적[reflexive] 함수인 질병-연기자는 연언변형(conjunctive transformation)으로서 전유가 될 것이며, 타동적[transitive] 함수인 동물-연기자는 선언변형(disjunctive transformation)으로서 강탈이 될 것이다. (역주)

기호	P	N
$T(A_1 \rightarrow A_1)$	$\left\{ \begin{array}{l} \text{증오(hatred)} \\ \text{암(cancer)}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냉담(indifference)} \\ \text{빈혈(anemia)} \end{array} \right.$
$T''(A_1 \rightarrow A_2)$	$\left\{ \begin{array}{l} \text{오만/경멸(pride/contempt)} \\ \text{설치류(rodent)}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인색/이기주의/욕구(avarice/} \\ \text{selfishness/lust)} \\ \text{파충류(reptile)} \end{array} \right.$

e. 경제적-유기적 환원

위의 도표는, 만약 허구의 어휘소적 표현과 질병의 환원으로부터 초래된 어의소 암(cancer)과 빈혈(anemia) 간 텀끼리 일대 일로 상응한다면, 동일 관계는 우리가 조화시켰던 동물우화집(설치류[rodents]와 파충류[reptiles])과 허구의 환원된 텀 사이에서 발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비격아강적인 어휘소는 이미 환원된 격아강적인 어휘소보다 그 수가 더 많다. 각각 분리해서 취급된 부분적인 분석은 기술의 진보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병치법(parallelism)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분석은 동물-

23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351. 1. transitivity(타동성); ① 전통문법에서, 어떤 동사가 빈사(술어)로서 타동적이라고 일컬어질 때, 그것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다시 말해서, 그 동사가 단지 주사(주어)로부터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변이의 장소일 뿐일 때를 말한다. 해석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거나 이러한 “변화과정(process)” 개념(그것은 논리적으로 정위[orientation]와 또는 철학적으로 지향성과 비교될는지 모른다)에 명목을 부여하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어떤 발화의 구성적 의미론적 투자의 엄밀한 최소량을 나르고 있는 “약동적” 관계의 존재자가 어느 행위주적 통사론으로 발전하기 전에 존재되어야만 한다. 먼저 그것은 그 타동성의 관계를 단정하는 것에 의해, 상보적 투자에 의해 존재하며,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 발화, 즉 실행(doing)의 발화와 존재(being)의 발화(cf. 상태)의 두 표준형식(canonic forms)의 확립과 마찬가지로 변형(transformation)과 접합(junction)의 분화로 발전할는지 모른다. ② 담화의 측면(연기자적 구조가 발견된 곳)에서, 재귀동사(reflexive)와는 반대로 용어 타동사(transitive)는 그들의 행위주적 혼합주의로부터 연기자의 행위주적 자율성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Peter는 개처럼 걷는다(Peter walks his dog)”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명백한 연기자 안에 투자된 두 행위주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을 가지고 있다. 그때 두 행위주 간의 관계는 타동적이라고 일컬어진다. 다른 한편, 발화 “Peter의 걸음걸이(Peter’s walk)” 안에서, 두 행위주(주체와 대상)는 동일 연기자 안에서 통합된다(Peter는 걸음걸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획득[전유]한다). 여기서 관계는 재귀적(reflexive)이라고 호칭된다. 마찬가지로 지식의 관계는 타동사든지 재귀동사든지 하여간 어느 하나로 호칭되며 확립된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주체는 명백한 연기자이다(예를 들어, 따라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2. reflexivity(réflexivité); 재귀성: 타동성(transitivity)과는 달리, 재귀성은 몇몇 행위주적 역할이 단일 연기자 안에 투자될 때의 혼합주의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된 담화적 의미론(semiotics)의 개념이다. (역주)

연기자의 새로운 주연을 획득하든지 또는 허구의 새로운 환원을 획득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전자의 절차는 불가능하며(유셀[Tahsin Yücel]이 이러한 레벨에서 동물우화집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든지, 또는 베르나노스적인 문체론이 구조와 구조로부터의 상응으로만 오로지 나타나고 텀과 텀으로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든지), 후자의 해법(또는 이산)은 채택될 것이다.

1. 따라서 설치류의 강류로 표출된 허구 $T''(A_1 \rightarrow A_2)$ 는 2개의 어휘소의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다.

오만(pride) vs 경멸(contempt)

단순어의소로 이러한 2개의 어휘소가 환원하는 것은 데이터의 2개의 유형으로 조정된다.

a. 설치류와 오만과 경멸(pride vs contempt)을 비교하는 것은 비격아강적인 행위주와 함께 함수 “먹어치우기”의 일치성에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b. 시도된 동치성은 진실의 기술의 레벨에서, 오만(pride)과 경멸(contempt) 양측에 대당이 된 단순어휘소 겸손(humility)의 존재자를 폭로한다. 일반사전에서 그들의 정의가 실행된 이 세 어휘소의 바로 그 표면적 의미소 분석은, 그들의 공통의미소적 내용이 그 위에 아티클레이션이 된 함수 “평가(estimation)”로, 즉 (α) 과대(over) vs 과소(under)의 평가범주, (β) 타자평가(esteem of others)와 자기평가(self-esteem)가 대당이 되고 있는 다동성의 범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초래된 어휘소는 함수적인 메시지로 형식화될 수 있다.

$$\begin{cases} \text{경멸(contempt)} \simeq F(\text{과소평가})[A_1 \rightarrow A_2] \\ \text{겸손(humility)} \simeq F(\text{과대평가})[A_1 \rightarrow A_2] \\ \text{오만(pride)} \simeq F(\text{과대평가})[A_1 \rightarrow A_1] \\ \text{겸손(humility)} \simeq F(\text{과소평가})[A_1 \rightarrow A_1] \end{cases}$$

베르나노스적인 세계에서의 함수 겸손(humility)은 경멸(contempt)과 오만(pride) 양측에 반의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동치를 확립하기 때문에,

제12장 기술의 샘플

타자의 과대평가(overestimation) \approx 자신의 과소평가(underestimation)

우리는 동일 동치가 경멸(contempt)과 오만(pride)으로의 이중어휘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준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타자의 과소평가(underestimation) \approx 자신의 과대평가(overestimation)

그러나 강류 T”는 함수의 타동적 형식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만(pride)과 동치인 텀 경멸(contempt)이며, 그것을 우리는 환원 경멸(contempt) vs 오만(pride)의 결과를 단자화 하기 위하여 선택할 것이다.

2.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어휘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색(avarice), 이기심(selfishness), 욕구(lust)는 증여(gift), 친교(fellowship), 교환(exchange)과 대당이 되는 텀이다. 그러나 격아강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그들은 단순어 의소 파충류(reptile)와 상응한다. 경제성·유기성과 대칭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해법(또는 이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그것은 문체론적 기술의 레벨에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범주의 연구로 되돌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두 계열의 어휘소를 2개의 어의소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오직 목록의 알려진 의미소적 원소 상에서만 주장할 것이다.

a. 그 3개의 허구는 우리가 지시하지 않을 것인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그것은 “빨기”의 함수와 상응한다. 그들이 포섭하는 행동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져오고 있는, 타자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박탈하고 있는 것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3개의 모든 허구는 타동적이며, 표층관계 쪽으로 지시된 잠재적 표상으로서의 활동이다. 따라서 그것은, 연기자 파충류(reptile)가 그 공통의 단자 아래 동시에 환원되고 충분히 이해된 그 이해와 함께, 우리가 사용했던 2개의 범주로 한계가 정해진 의미소적 내용에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 그들 중 하나의 명목(예를 들어, 인색(avarice))을 사용하는 것으로 3개의 발현을 지시해도 충분할 것이다.

f. 자동적(intransitive) 허구

잠시 기술의 밖에 있던 마지막 2개의 허구는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

절망(despair) VS 망상(dream)

허구의 분석이 대체로 정확한 만큼, 그것은 이 단계에서 쓸모 있는 기술적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잔존 텀의 거의 기계적인 통합으로 진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따라서 이 두 어휘소간의 대당은 그들이 하위계열적으로, 즉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는 함수의 대당으로 해석될 수 있다.

F(먹어치우기)[A_1 (절망, *despair*)] vs F(빨기)[A_1 (망상, *dream*)]

더 나아가, 타동성의 범주는 완전히 활용하지 못했지만 텀 “자동성(intransitivity)”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0(zero)으로서의 대상-행위주, 즉 $A_2(0)$ 로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한 쌍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도표를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기호(SYMBOLS)		<i>P</i>	<i>N</i>
<i>T</i>	<i>T'</i>	증오(hatred)	냉담(indifference)
	<i>T''</i>	경멸(contempt)	인색(avarice),
	<i>T'''</i>	절망(despair)	망상(dream)

허구의 기술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로지 2개의 범주만을 사용하며, 그 성질은 명료하게 상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트: 우리는 이러한 2개의 범주가 분석의 진전으로 2개의 다른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타동성의 범주는 비격아강적이며, 함수의 두 유형 사이의 특징을 성취하는 것은 격아강적인 단계에 남게 되었다.

g. 진실(truths)

제12장 기술의 샘플

진실의 목록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함께 특정한 텀은 발견되고 아티클레이션이 되며, 그래서 그들의 구조는 허구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병치적이거나 모순으로 가장되고, 그것은 단순모델의 구성으로 고찰된 진실과 허구의 동차성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함수의 이중화와 대상-행위주의 삼중 아티클레이션을 허락하고 있는 기술적 범주를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뜻대로 처리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주체-행위주로 고찰된 진실 목록의 텀을 정위시켜야만 한다. 여기서 결합된 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그 도표는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진실의 영역은 행위주의 격아강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매우 약하게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health)의 표현인 육체(flesh)와 피(blood)를 제외하고, 비격아강적인 행위주는 오로지 허구의 영역 안에서 연기자의 다양하고 변화 있는 개체군과 상응한다. 사실 그것은 비격아강적인 행위주가 구조화하는 어떤 성급한 질차를 채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했던 진실의 아티클레이션 안에서 이러한 허약함으로 존재한다.

	기호	<i>P</i>	<i>N</i>
진실(truth)	T'''	희망(hope)	희망(hope)
	T''	겸손(humility)	청빈(淸貧, poverty)
	T'	사랑(love)	사랑(love)
허구(lie)	T'	증오(hatred)	냉담(indifference)
	T''	경멸(contempt)	인색(avarice)
	T'''	절망(despair)	망상(dream)

두 번째 주의를 비격아강적인 행위주 자신의 어휘소적 결핍과 관련된다. 사실 희망(hope)과 사랑(love)은 2개의 열 P와 N 안에 존재한다. 진실과 허구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대당 “먹어치우기” vs “빨기”의 중립화의 실행에 의해 억압되었는지도 모른다. 별 어려움 없이 우리는 그러한 환원의 결과를 궁리해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frac{\text{진실}(truth)}{\text{허구}(lie)} \approx \frac{\text{희망}(hope)}{\text{분별}(wisdom)} \text{ VS } \frac{\text{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text{고독}(solitude)} \text{ VS } \frac{\text{사랑}(love)}{\text{혐오}(aversion)}$$

그러나 우리는, 뒤에 나타날 이유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구조의 복합
 텀의 어휘화로 선언(選言)된 함수와 상응하고 있는 행위주의 어휘적 동정을
 잠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함수적인 대상이 그대로 남는 것을 차라리 선호한
 다.

4. 모델의 비교와 선택

a. 동차성의 부재

2개의 분석(첫 번째는 자질적인 성격이고 두 번째는 함수적인 성격)이, 즉 가연 상에
 서 동시에 처리되고 발견된, 암암리에 인정된, 다음 사이의

$$\frac{\text{죽음}(death)}{\text{삶}(life)} \approx \frac{\text{허구}(lie)}{\text{진실}(truth)}$$

어떤 상호관계의 존재자의 그 분석은 두 모델의 구성 안에서 발생되었으
 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무
 시할 수 없는 편차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발산의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사용한 각각의 분석의 성질(예를
 들어, 허구와 진실을 분류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타동성의 범주는 함수적인 분석으로 성격이 만
 들어지고, 자질적인 분석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에 기인한다면, 보다 현
 저한 것은, 양측이 중단했던 레벨의 편차에서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자질적
 인 분석은 무기적(無機的, inorganic) 격상 표현의 레벨에서 그 어휘소에 의해
 정위된다. 또 이러한 어의소는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cal) 성격의 의미소로
 분석된다. 동시에 함수적인 분석은 오로지 비동차적 기술의 두 레벨만을 표
 현한다. 즉 주체-행위주는 비격아강적인 레벨에서 정위되고, 역으로 함수는
 2개의 “유기적(organic)” 격상 “먹어치우기”와 “빨기”에 의해 표현된다. 우리는
 격아강적인 레벨에서의 주체-행위주의 유지가, 진실의 격아강화의 부재

(absence)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대적 병치가 각각의 모델에 각각 귀속시켜야만 하는 장소와 가치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풀고 명백히 하기 전에, 함수의 단자 안에는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만 했다.

사실, 막연하지만 함수 “먹어치우기”와 “빨기”가 분명히 만들고 있는 수형신(獸形神, zoomorphic)의 성격은 함수적인 모델의 본질적 경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즉 그 가능성은 함수 안에 담겨있는 약동성을 행위주에게로 이동시키고, 그것을 “행위의 힘”의 형식으로 표출한다. 우리는 관측된 이러한 사실이 생명이 부여된 연기자의 문체론적인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수적인 모델 안에서 개념-행위주의 “의인화(personification)”가 이러한 모델의 신화적 성격을 고찰하고 있는 “힘(forces)”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치 사랑(love) 또는 겸손(humility), 증오(hatred) 또는 경멸(contempt)과 꼭 같은 진실과 허구의 특별한 행위주는, 행위가 가능한 힘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수적인 분석을 추적하면서 확립할 수 있었던 그 모델은 행위주의 비격아강적인 모델이다.

그들 연기의 모델은 이중적이다. 즉 그것은 “먹어치우기”와 “빨기”의 2개의 어의소적 격상의 조력으로 표현된다. 이제 그것은 시의 적절하고, 두 어의소 안에서 선택에 의해 이렇게 격상의 단순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정화(淨化) 후에, 그 의미소범주는 그들 대당을 고찰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표출의 레벨에서 더 이상 유기적인 것이 아닌 단지 무기적인 것으로 정위되고, 2개의 연속 분석에서 초래된 모델의 비교를 우리에게 허락할는지 모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의미소범주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장(expansion) VS 계약·응축(contraction)

그 아티클레이션은 모델의 주체-행위주의 잠재적 활동의 이중양상을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는 그들이 진실의 두 함수를 확립하는 “행복감(euphoria)”과 함께 결합될 때, 그리고 그들이 허구의 두 함수를 생산하는 “불쾌감(dysphoria)”과 함께 결합될 때, 제안된 2개의 의미소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어떤 격아강적인 표출의 유형으로부터 다른 유형으로 함수가 이동하는 것은 이러한 함수 안에 실제적으로 투자된 내용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좀 더 명백하게 만들고, 어떤 투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2개의 강류로의 아티클레이션은 양태적인 선행결정의 유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만약 그것이 특수화된 행위주적 구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함수적인 모델은 아직 투자된 내용과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것일 것이며, 결국 그것은 체계화될 것이며, 2개의 양태적인 또는 중합양태적인 (paramodal) 범주, 즉 그들 스스로 투자된 함수의 관계 속에서 메타언어학적 범주의 아티클레이션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b. 여러 결과의 비교

여기서 그것은 독자적으로 처리된 그리고 두 모델의 기술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두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는 행위주 삶 vs 죽음의 아티클레이션을 고찰하고, 두 번째는 행위주 진실 vs 허구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든다. 우리는 직관적 가언의 가치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없이 행위주의 이러한 두 짝 사이의 상호관계를 명백히 했다. 그들 모델의 비교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성질을 보다 잘 포착하도록 허락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병치는 편차만큼 유사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그 일격을 가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총체조직과 매우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1. 그들의 양 모델은 2원적이다.
2. 각 모델은 12개의 어의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행위주를, 다른 한쪽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3. 12개의 어의소는 두 행위주를 구성하도록 동등하게 분할된다.
4. 게다가 각 행위주의 6개의 어의소는 같은 방식으로 세 의미소의 그룹을 구성하도록 분할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rac{\text{조정적 정의}}{\text{부정적 정의}} \approx \frac{\text{확장적 함수}}{\text{계약·응축적 함수}}$$

제12장 기술의 샘플

비교할만한 형식적 특징의 이러한 집적은 텀 대 텀, 즉 아래에 동반된 도표 안 각 모델의 12개 어의소의 병치를 시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확장≈조정적 정의		응축≈부정적 정의	
		행위주	자질	자질	행위주
진실≈ 삶	$T^{v''}$	희망 (hope)	변화(change) ^(이타성 상승)	^(맛 유색 리듬) 형식(form)	희망 (hope)
	T^w	겸손 (humility)	빛(light) ^(명료 투명)	^(공기 가벼움) 기체성(gaseousness)	청빈(淸貧) (poverty)
	T^r	사랑 (love)	열기(heat) (열)	^(순수 청결) 순수성(purity)	사랑 (love)
허구≈ 죽음	$T^{v''}$	증오 (hatred)	혼합(mixture) ^(불순 불결)	(냉) 한랭 (cold)	냉담 (indifference)
	T^w	경멸 (contempt)	액체성(liquidity) ^(유리질 무거움)	^(불명료 불투명) 암흑(darkness)	인색 (avarice)
	T^r	절망 (despair)	무형식 (formlessness) ^(무미 무색 단조)	^(동일성 전락) 고정성 (immobility)	망상 (dream)

우리가 방금 매거했던 두 모델의 유사점 때문에 가능했던 병치로의 이러한 설치는 성취된 세 어의소의 그룹(한 편으로는 행위주, 다른 한편으로는 자질)에 의해 주연이 이루어진 뒤에, 그 순간에만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우리는 병치목록으로부터 선택된 3개의 가능한 자질 중에서 하나를 세 행위주의 각각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한 귀속을 허락한 그 이유를 재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위주의 성격을 타동성 범주의 3가지 가능한 아티클레이션과 함께 함수로 변형된 자질의 일치성의 기준을 사용했다고(의미소 “약동”의 첨가에 의해)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랑(love)에 기인한 “열기(heat)”는 재귀적 함수일 수 있고(사랑은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겸손의 함수로 포착된 그 자신의 일부인 “빛(light)”은 타동적 함수일 수 있으며, 이어서 대개 자유와 이유 없는 이타성으로, 상승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의미소로 고찰된 “변화(change)”는 자동적 함수일 수 있으며, 반면에 만약 상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다른 주연은 어려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일치성의 기준은 동차화의 기준과 동시에 통합되었다. 어떤 자질은 부정적 형식 하에서의

동일한 자질이 첫 번째의 것과 선언인 행위주와 함께 동시에 만약 일치되기만 한다면, 어떤 행위주와 함께 일치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매우 유연한 절차는 상호관계의 각 팀의 절대적 정확성을 명백하게 보증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효화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호관계의 설치 원리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비교의 바로 그 기초와 관계한다. 이러한 기초가 최초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귀납적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두 분석이 따로따로 유도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것과 필적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비교되는 모델 안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준은 논리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구조적 성격의 다른 논증이 예로서 인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모델의 기묘한 아티클레이션으로 인해 충격 받는 것에 실패할 수 없다. 행위주적 성격의 첫 번째는 자질의 형식(결국 빈술적 내용을 말한다)으로 내용의 투자를 제공한다. 역으로, 함수적인 성격의 두 번째는 행위주의 형식으로 내용을 투자한다. 조정(調整) 상태에서의 두 모델의 구조적 속성 간 상호관계와 등화(等化)의 체계는, 내용의 두 목록 간 동치의 확립은, 가능한 것 같다. 언뜻 본 바로는, 이러한 유형의 동치를 확립하는 가장 경제적-유기적인 방법은 자질을 함수로 전환하는 것을 허락할지 모르는 규칙을 공급하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c. 모델과 내용

이러한 비교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꽤 중요한 것 같다. 즉 행위주의 투자와 함수의 투자(다른 모든 것은 무시한다) 간 병치의 확립은, 한편으로는 격아강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격아강적인 레벨에서 유도된, 두 분석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도록 허락한다. 그것은 이러한 결과가 서로 완벽하고, 어떤 것에 의해 다른 어떤 것의 정당함이 증명된다. 예를 들어, 만약 행위주로서의 마치 희망(hope), 겸손(humility), 사랑(love)과 같은 개념이 기독교적 이념에 속한 것 같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인식된 성운(星雲)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냉담(indifference), 인색(avarice), 망상(dream)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행위주가 구조

화하고 있는 동안 최초로 등록된 그 무리(당연히 베르나노스적인)는 이제 죽음의 부정적 단자와 상호관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실로부터 확정을 수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 병치는 동치의 확립이 두 모델에 의해 내재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소범주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좋게 평가하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신화적 세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질이든지 또는 함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투자로 고찰된 어의소는 의미소적 결합으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표출단위여만 한다. 그것은 사실 베르나노스적인 세계가 기초하고 있는 분류법적 네트워크 상에 존재한다. 그 비교는 개인적 성격의 착란적인 표출의 조력자와 함께 사회적 성격의 오로지 최초의 어휘소인, 행위주의 설립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좋게 이해하도록 허락한다. 우리는 마치 희망(hope) 또는 사랑(love)과 같은 개념-행위주가 증오(hatred) 또는 망상(dream)을 언급함 없이 이러한 분류법의 반성인 함수로 변형된 어의소의 의미에 의해 그들에게 귀속된 내용의 특수화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수화의 함수인 어떤 특수한 예의 프레임 안에서의 이러한 최상의 확정, 언어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al) 레벨에 속하고 있는 의미소범주의 어느 의미론적 우주 안에 존재한다.

이어서, 이러한 최후의 재유표로서의 인지(remark)는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에 의지하는, 또 다른 유형의 보편적인(universal) 강류의미소적 범주를 위해 비축된 역할을 홀끗 감지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행위주와 빈사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진 의미론적 메시지의 구조는, 자질로부터 함수를 구별하고 있는 그 범주는, 행위주와 다른 종류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지며, 그리고 그 양태성(modalities, 우리가 나중에 언급할 것으로서의)은 의미론적 투자(만약 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법의 의미론적 기술이 만들어질 때 그 대부분은 문법적 분석의 레벨에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와는 별도로 모델의 합성을 위해 사용된 본질적 질료를 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동일한 의미론적 투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티클레이션 모델의 몇몇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특별한 유형의 모델과 그 밖의 어떤 것으로의 재 전환(reconversion) 가능성과의 상호관계의 확립은 강류의미소적 그룹 간 동치로 취급하고 있는 총체(ensemble)의 연구에 의지한다. 특별한 구조의 강류의미소적 그룹 안에 명시된 의미소적 동정의 탐색으로 발견

된 그 특권적 총체로서의, 그러한 재 전환(변형이 아니다)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d. 함수적인 모델의 양태적인 성격

자질적인 분석으로 기술된 어의소에 따르고 있는 가언은 조직의 다른 모델로 통합하는 것에 민감한 내용이 우리가 모델 각각의 특별한 지위와 그들 상호관계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럴 듯하게 될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우리가 고찰한 바와 같이 자질적인 분석은 분리해서 얻게 된, 그 유형의 자질적인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각 12개의 어의소의 구성에서 유래한다.

Q(heat, 열기) [A₁(Life, 삶)]

Q(mixture, 혼합) [A₁(Death, 죽음)]

따라서 우리가 기술했던 함수적인 모델(그 함수는 분석될 수 없을 것이다)을 위한 공급내용의 역량으로 고찰했던 자질적인 모델의 통합은, 출현 대신에 의미소 “약동성(dynamism)”의 첨가에 의해 함수적인 빈사가 단순한 자질적인 빈사로 재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어떤 기술에서 다른 것으로 이탈함으로써, 그 이탈은 빈사를 재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주 삶과 죽음을 새로운 행위주 진실과 허구로 치환한다. 따라서 우리는 빈사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메시지 사이에서 가능한 상호관계의 존재자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적인 메시지의 주체-행위주가 “행위(act)”로 가정됨으로써 자질적인 어의소와 함께 상호관계 안에 이미 삼입되었던 의미론적 투자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함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 함수가 타동성의 범주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단 투자된 함수의 내용은 어떤 약동을 제공하고 있는 작위성(factivity)의 일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통사론적 예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제는

그 아동은 식물을 기른다(The child makes the plant grow)

제12장 기술의 샘플

사랑은 그를 순수하게 만든다(Love makes him pure)

실재성(reality) 안에 2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A	B
/그 아동은 행동한다(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
[The child acts(so that)]	[the plant is growing]
/사랑은 행동한다(≒행동한다. 그래서)	+/X는 순수하게 된다/
[Love acts(≒acts so that)]	[X becomes pure]

이러한 특징은 자질적인 그리고 함수적인 메시지 사이에서 찾고 있는 관계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1. 메시지 B는 다음처럼 첫 번째 기술에서 획득된 자질적인 메시지와 구조적인 면에서 동치로 고찰될 수 있다.

Q(light, 빛) [A₁(Life, 삶)]

2. 이어서 메시지 A는 두 번째로 제안된 기술에서 형식화된 함수적인 메시지와 상응하며, 그것은 다음처럼 타동적 또는 작위적(factitive) 성격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함수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함수와 함께 우리에게 공급되었다.

F(X; m: 타동성, transitivity)[A₁(진실, truth)]

수집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2개의 메시지는, 대략 “진실은 삶을 빛으로 만든다(Truth makes Life the light)”이다.

노트: 우리는 2개의 다른 동사의 조력으로 2개의 함수를 명시하고 있는 예를 선택했다. 그러나 단일 동사 안 두 함수의 혼합주의는 꼭 다음처럼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사랑이 그를 순수하게 만든다(Love makes him pure)”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첫 번째 “함수”를 명시하기에 충분한 과생어 “사랑이 그를 순화한다(Love purifies him)”로 언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어원은 단지 함수와 양태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발단에서 믿었던 것과는 역으로, 우리는 어떤 빈사의 전환(conversion)을 다른 것으로든지 또는 메시지의 전환을 다른 메시지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취급하지 못하지만, 두 메시지의 이중노출로 취급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술된 내용의 형식화이다. 베르나노스적인 세계에서 기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식화는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은, 자질적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서는, 기술의 이러한 레벨의 정의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 발화자료체로 취급함으로써, 또는 어쩌면 유기적 표출(대당 “먹어치우기” vs “빨기”를 상기하자)의 함수적인 전제분석(preanalysis)과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질-어의소가 아니라 함수-어의소로 형식화된 내용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용의 이러한 기술은 이 내용의 조직체제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된 내용과 상대적으로 메타언어학적 레벨에서 위치가 잡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언어학적 모델의 2개의 독특한 유형은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구성적이라고 부르기로 제안했던 첫 번째 모델은 어의소의 형식으로 기술된 내용을 통제하며, 그리고 그것을 비통시적 상호관계의 구조로 조직한다. 마치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은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실재적으로 함수적인 모델이 아니지만, 양태적인 모델이다. 그것은 그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을 가능한 변형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구성된 내용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애써 풀어내려고 했던 구조적 속성인 그 모델은 앞장에서 시련(시형)으로서의 격아강적인 표출로 이미 연구했던 것이며, 여기 비격아강적인 형식 하에 나타난 변형적 모델보다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트: 우리는 범주 “확장” vs “계약·응축”을 제쳐 놓았지만, 그 양태적인 성격은 곧 상술될 것이다.

5. 존재자의 변증법적 개념

a. 양태성(modalities)

변형적 모델로 고찰된 모델의 그러한 해석은 변이를 허용하고 있는 양태적인 메시지의 주체로 행위주 진실과 허구에 대한 정의의 가능성을 훑듯 엿

보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특별한 연기자 진실과 허구는 타동성의 범주인 계열체적 변이를, 그리고 “확장” vs “계약·응축”의 변이를 쾌히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제 새로운 결정(determination)은 다음처럼 부언될 수 있다. 즉 베르나노스(Georges Bermanos)는 진실과 허구를 단순한 메시지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2개 메시지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한다. 사실 그 베르나노스적인 어휘화 안에서

진실(Truth) = 반감(revolt) + 수락(acceptance)

허구(Lie) = 거절(refusal) + 포기(resignation)

그것은 대당 “행복감(euphoria)” vs “불쾌감(dysphoria)”을 괄호로 묶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구와 함께 진실이 다음과 같은 이원적 대당의 형식으로 베르나노스(Georges Bermanos)에 의해 고찰된다는 것을 주목하기 위하여, 두 어휘적 짝으로 출현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같다.

거부(denial, dénégation) VS 주장(assertion)

즉, 우리가 양태성으로 지시했던 함수의 아강(subclass) 안에 포함된 기본 범주의 하나에 의지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것 같다.

(노트: 우리는 행위주의 레벨보다 차라리 함수의 레벨 상에서의 그 지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dénégation을 denial로 번역하고 있다. [아래의 섹션 b를 보라] 사전에서 그레마스 [Algirdas-Julien Greimas]는 dénégation을 “선행 발화[utterance]의 존재자를 전제하는 작용[operation]...”으로 정의한다. —영역자²³²)

여기서 특별한 양태 범주를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시하기에 매우 곤란했던 의미소범주 “확장” vs “계약·응축”이 격아강적인 표출의 레벨에서 거부 vs 주장의 표현인지 아닌지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

23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72. denial(거부); 부정(negation)이 계열체적으로 주장(assertion)의 반대입에 반하여, 거부(denial)의 작용은 주장의 선행발화의 존재 또는 부정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거부(denial)는 실제화 된 함축관계 안에서의 결합체적 투시도법을 의미한다. (역주)

는데, 그러나 양자의 정의는 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그들의 양태적인 해석을 암시하고 있는 확장과 계약·응축에 대한 우리의 유표는 사실 문제가 되어있는 범주에 보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먼저 그 내용은 나중에 거부되기 위해서든지 또는 긍정되기 위해서든지 하여 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판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범주에 합당한 어떤 언어학적 연구도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며, 또 그것은 이 영역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레벨에 등록된 관계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거부는 선언적 목류가 될는지 모르며, 대신에 주장은 선언적 목류가 될는지 모르고, 또 그것은 계열체의 존재를 긍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부에 대해 언급한다면, 메타의미론적 측면에서 그것은 계열체적 치환으로 고찰되는 것 같다. 즉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외소여(exteroceptivity)와 내소여(interoceptivity)의, 또는 격상(figure)과 비격상(non-figure)의 공시적 치환은 동시에 출현된 내재(subtend) 텀의 이득이 되도록 명시 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예를 들면: 아이러니[반용]). 총체지속성(duration), 즉 단기(stylistic), 중기(historical), 장기(fundamental)의 통시적 치환의 경우에는 명시된 또는 단순하게 전제된 첫 번째의 것, 다시 말해서 계열체를 가지고 있는 텀의 연속은 두 번째의 것의 이득이 되도록 부정되는 지도 모른다(예를 들면: 아이러니[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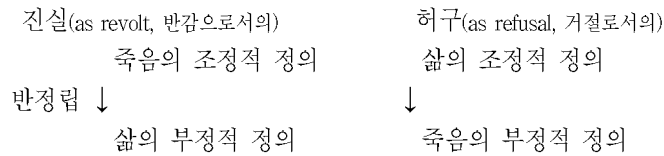
노트: 완벽한 거부의 이론은 이원적 구조의 6개의 아타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텀 사이에 가능한 모든 치환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계열체 안에서 사용된 거부의 오로지 한 가지 특별한 경우만을 고찰하도록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 즉 s vs 비s를 말한다.

b. 베르나노스적인 거부(denial)

이제 우리는 함수 만들기를 상술하기 위하여 통시적 치환의 명목 하에 구별된 절차의 도입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그 정의가 실행된 거부를 위하여 옳다고 한다면(부정적 텀에 의해 조정적 텀의 대치를 초래하고 있는), 그것은 계열체(또는 계열체의 구축된 총체) 상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허구의 거부일는지 모르는, 또는 진실의 거부에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진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거부는 어떤 내용

제12장 기술의 샘플

(여기서는 삶 또는 죽음의 내용)에 대한 거부이지, 양태적인 계열체의 함수 만들기가 아니다. 반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행위주의 비격아강적인 표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결손은 경멸의 거부일 것이며, 청빈은 인색의 거부일 것이다. 등), 거부는 행위주의 레벨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함수의 레벨에서 휘두른다. 그것은 죽음의 조정적 정의를 위한 삶의 부정적 정의의 치환으로(예를 들면: 혼합 → 순수성)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역으로, 허구의 거부의 경우에는 삶의 조정적 정의를 위한 죽음의 부정적 정의의 치환으로(예를 들면: 빛 → 암흑) 이해되어야 하고, 진실의 거부의 경우에는 죽음의 부정적 정의를 위한 삶의 조정적 정의의 치환으로(예를 들면: 고정성 → 변화)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거부는 조정적 텀을 부정하고, 계열체의 두 텀을 성공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또는 부여된 것(결국 동일한 것이 된)으로서의 조정적 내용을 전제함으로써, 그리고 오로지 부정적 텀을 명시함으로써만 부정적 텀을 나타낸다. 즉 거부에 의해 실행된 그 통시적 변형은 “정립(thesis)”과 “반정립(antithesis)”이라고 일컫는 인습적인 것의 연속과 동치가 된다.



노트: 아래 도표 참조. (역주)

삶(life)			죽음(death)		
기호	어의소	의미소	의미소	어의소	기호
L_1	변화(Change)	이타성(alteration)--- 상승(elevation)-----	--동정(identity) --전락(fall)	고정성 (Immobility)	비 L_1
L_2	빛(Light)	명료(clarity)----- 투명(transparency)---	--불명료(obscurity) --불투명(opacity)	암흑(Darkness)	비 L_2
L_3	열기(Heat)	열(heat)-----	--냉(cold)	한랭(Cold)	비 L_3
비 D_1	순수성(Purity)	순수(purity)----- 청결(cleanliness)---	--불순(impurity) --불결(dirtiness)	혼합(Mixture)	D_1
비 D_2	기체성 (Gaseousness)	공기(aeroformity)--- 가벼움(lightness)---	--유리질(vitreousness) --무거움(heaviness)	액체성 (Liquidity)	D_2
비 D_3	형식(Form)	맛(taste)----- 유색(color)----- 리듬(rhythm)-----	--무미(blandness) --무색(colorlessness) --단조(monotony)	무형식 (Formlessness)	D_3

c. 베르나노스적인 주장(assertion)

이제 주장의 역할은 좀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 진실이 비록 총체적 선언 일지라도 명백한 구절로 분해 될 수 있다. 사실 삶과 죽음의 부정적 정의는 긍정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들은 거부하는 동안 내내 파동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진실의 주장이 삶의 조정적 정의를 오로지 긍정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반면에 죽음의 부정적 정의를 암암리에 거부하고, 역으로 허구의 주장은 죽음의 조정적 정의를 긍정하고, 삶의 부정적 정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개념은 아직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있다. 거부와 주장의 두 진행은 거부 또는 긍정에 대한 내용의 선택(조정적 또는 부정적) 상에서만 오로지 안착할 뿐이다.

사실 주장은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이다. 만약 그것이 진실 또는 허구의 조정적 정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부정적 정의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것일 것이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삶의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조정적 정의와 부정적 정의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서만 획득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주장은 그런 관계의 확립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는 차라리 관계의 급박성(exigency)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전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이러한 급박성을 부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두 “개념” 다시 말해서 두 범주화된 내용 간의 관계와 차라리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체와 빈사 사이의 칸트적인 결합(Verknüpfung, knotting)으로, 즉 종합적 판단의 칸트적인 정의로 주장의 언어학적 개념이 만들어진 그 조화를 달성했다.

우리가 추구했던 분석에 의해 대두된 그 구체적인 문제로 되돌아감은 이러한 관계의 성질을 더 깊이 상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그 관계는 부정적 정의와 조정적 정의 사이에서 확립된다. 삶의 정의에 관한 어의소적 내용을 다시 불러오기로 하자.

부정적 정의	조정적 정의
형식(Form) —비 D_3	변화(Change) — L_1
기체성(Gaseousness) —비 D_2	빛(Light) — L_2
순수성(Purity) —비 D_1	열기(Heat) — L_3

열(column) 사이에서 확립될 수 있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의 성질을 반성(고찰)하면, 우리는 곧 다음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면(if... then)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만약 부정적 정의의 내용에 의해 제안된 조건이 실현된다면(그리고 오로지 그 경우에만), 그러면 조정적 정의의 내용은 명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언급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삶의 정의로서가 아니라 죽음의 정의로 보아도 동일하다.

부정적 정의	조정적 정의
고정성(Immobility) —비 L_1	무형식(Shapelessness) ²³³ — D_3
암흑(Darkness) —비 L_2	액체성(Liquidity) — D_2
한랭(Cold) —비 L_3	혼합(mixture) — D_1

부정적 정의로서의 내용의 실현화는 조정적 정의를 필연적으로 생산하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정적 정의의 표출은 부정적 정의의 표출을 전제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전제(=선택)인지 또는 상호작용적인 전제(=상호 의존성)인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즉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d. 변증법적 알고리즘

따라서 거부와 주장은 2개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즉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유형의 표출(선언과 연언)로 나타나며, 그것은 사전에 부여된 내용 사이에서 확립된다. 이러한 관계가 그들이 확립된 그 사이에서 언어학적 텀과 상대적으로 메타언어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해석은 여하튼 거부와 메타의미론적 메시지의 양태적인 함수로 고찰된 주장을 추구하고 있는

233) 영역자는 Shapelessness로 번역하고 있으나 Formlessness로 번역해야 옳다(앞에서 이렇게 번역했다). 불어 원전은 infirmité이다. (역주)

사건의 형식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두 함수의 연속을 취급하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된 따라서 더 이상 메시지로 머물지 않는 변증법적 시퀀스로, 그러나 두 메시지에 의해 구성된 변증법적 알고리즘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트: 확장이 주장의 그리고 거부 즉 계약·옹축의 격아강적인 표출일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범주 “확장” vs “계약·옹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여기서 확증된다.

변증법적 알고리즘은 4개의 구조적 텀의 현존재와 변형된 내용의 두 텀의 사실상 영향력(권력) 있는 표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진실과 허구의 베르나노스적인 개념을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필요로 한다.

진실 + 투자된 내용			허구 + 투자된 내용	
거부(Denial)		(죽음의 조정적 정의)		(삶의 조정적 정의)

(반정립, Antithesis)	↳	삶의 부정적 정의	↳	죽음의 부정적 정의
주장(Assertion)	↳	삶의 조정적 정의	↳	죽음의 조정적 정의

(종합, synthesis)	↳	(죽음의 부정적 정의)	↳	(삶의 부정적 정의)

정의에 대해 덧붙여 말한다면, 그 표출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지만, 담화 안에 내재되며(끼게 되며), 우리는 두 관계의 현존재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표출은 변증법적 알고리즘을 구성하며, 그리고 내용의 두 구조적 텀의 그것은 이러한 관계를 확립한 후에 번갈아 파동을 친다. 따라서 빈번한 용어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정립과 종합이 관계의 단자라는 것을, 그리고 구조적 텀(투자된 내용에 속하는)의 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껏해야 우리는 변증법적 논법에 종속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범주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장을 정의하고 있는 전체의 성질과 관계되고 있는 그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관점에서, 여담이지만 이는 헤겔(G. W. F. Hegel)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하여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장은 상호전제로 정의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조정적 정의의 표출이 부정적 정의의 표출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전제된다.

다시 말해서 기왕에 명시된 부정적 정의는 그 뒤에 명시된 조정적 정의를 위해 충분하지 못하다. 즉 부정적 정의의 표출은 논리적 필연성(necessity)에서 조정적 정의의 출현을 요청하는 것을 아직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변증법은 역사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헤겔(G. W. F. Hegel)과 구별된다.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 있어서, 변증법적 알고리즘의 주체-행위주는 헤겔(G. W. F. Hegel)처럼 유일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이중적이다. 내용의 조정(調整)을 추구함으로써, 동일 알고리즘은 존재자의 복합 아티클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들을 삶 또는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작용의 주체와 지시되고 있는 알고리즘 그 자체, 즉 첫 번째의 경우에는 진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허구로 변형시킨다. 헤겔(G. W. F. Hegel)에 있어서, 주체-행위주는 유일한 것(그것은 신이다)이며, 그리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지시된 알고리즘, 즉 역사이다. 그러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 있어서의 인간존재는 오직 하나만의 직시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두 행위주(보조자와 반대자로 언급되기를 유혹받고 있는 것)가 같은 편끼리, 곧 그 자신의 변증법으로 요새화된 그들끼리 전투를 속행하는 바로 그 드라마(광경)이며,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의 논쟁(issue)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의 이미지는 각각의 행위주(보조자와 반대자)가 6개의 연기자의 형식으로 무대상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 또는 허구의 승리가 오로지 부분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모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변화의 거부는 망상을 즐기고 있는, 즉 죽음의 고정성이 파동치고 있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희망의 거절을 유도해낸다. 그러나 포기의 몸짓으로서의 주장은 고정성을 무형식(절망으로 성격이 만들어진 무미, 무색, 단조)과 결합시킨다.²³⁴ 그러한 것은 단순한 연기자의 거부에 의해 유도된 극적 몸짓이다. 무대상에는 12개의 연기자가 있으므로, 우리는 존재자의 드라마를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마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가 그것을 임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가 결핍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자의 변증법적 개념으로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 의해 도입된 불확실성의 한계(margin)는 고찰해볼만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가치론에 의지하고 있는 특별한 함수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연기자의 문체론

234) grayness(회색)를 colorlessness(무색)로 번역한 것은 black과 white를 섞으면 무색, 즉 회색이 된다는 앞에서의 기술에 근거한다. (역주)

적 변화에 기인하지만, 그러나 또한 변증법적 알고리즘을 교묘히 다루도록 위탁된 두 행위주(진실과 허구)의 현존재에 기인하기도 한다.

e. 역사(history, 중기지속성)와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

따라서 변증법적 알고리즘은 변형적 모델의 가능한 형식화의 하나로 나타나며, 내용의 어떤 구조에 적용된 그것은 그들의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은 역사의 관입(貫入, intrusion)²³⁵⁾을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으로 구성한다.

의미작용의 구조가 통시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의미론의 과제 가운데 하나임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인간과 사회는 단기지속성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양쪽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구명적(究明的) 기술은 이러한 두 양상의 광경을 잃지 않고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만 아니라, 상상적이며 구조적인 변형이 세계를 정당화하는, 또는 미래를 탐색하는 인간의 조력과 함께 관념의 모든 유형(개인적 또는 집합적)으로 고찰해볼만한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형모델의 실험에 전념했던 상황에서 방해와 비통시적이며 통시적인 구조의 가능한 이중해석에 관한 실험의 문제는 이미 비교되는 텀으로 제공되었다. 내용의 어떤 구조에 변증법적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호 관계될 수 있는 2개의 이원범주 안에 그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베르나노스적인 세계에서, 이미 사용된 논리기호표기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 L = 삶의 조정적 정의
- 비L = 죽음의 부정적 정의
- D = 죽음의 조정적 정의
- 비D = 삶의 부정적 정의

우리는 비통시적이며 상호관계적인 구조를 보다 좋게 그리고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존재자의 복합구조에 대한 재형식화일 뿐이다.

²³⁵⁾ 관입(貫入, intrusion); ① 꿰뚫고 들어감. ② 관유(貫乳); 도자기의 겉에 나타난 아주 섬세한 금. ③ 깊은 땅속에 있는 마그마(magma)가 지각(地殼)을 뚫고 들어감. (역주)

$$\frac{L}{비L} \approx \frac{D}{비D}$$

이러한 비통시적구조로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의 경우, 변형의 변증법적 작용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L을 부정하면서 비L의 포즈를 취하는 것
2. 비D를 일시 중지시키면서 D의 포즈를 취하는 것
3. 비L + D 간 관계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것(affirming)

이 경우에 변형의 알고리즘은 허구로 불릴 것이며, 변형으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새로운 비통시적 구조(비L + D)는 죽음으로 지시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변증법적 작용은 다음과 같이 존재할 것이다.

1. D를 부정하면서 비D의 포즈를 취하는 것
2. 비L을 부정하면서 L의 포즈를 취하는 것
3. 비D + L 간 관계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것(affirming)

변형의 알고리즘은 진실이라는 명목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결과(비D + L)는 삶(비L + D)의 비통시적 구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장소에서 거부된 조정적 텀 L과 D를 성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으며, 그 변형의 알고리즘(AT, the algorithm of transformation)은 사전에 정의된 비통시적 구조로부터 2개의 새로운 양극구조를 일반화하는 그 정향(position) 안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left(\frac{L}{비L} \approx \frac{D}{비D} \right) \rightarrow AT \rightarrow \left(\frac{비L}{D} \right) \text{ vs } \left(\frac{비D}{L} \right)$$

존재자, 즉 변형 뒤에 획득된 2개의 새로운 비통시적 구조로의 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기적이며 비통시적인 구조는 죽음과 삶 바로 이것이다.

$$E \rightarrow AT \begin{array}{l} \nearrow D \\ \searrow L \end{array}$$

그러므로 이것은 통시적 변형의 관념론적 의미작용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즉 그것은 마치 관념적 삶이든지 또는 총체적 죽음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앞에서 말한 혼란, 즉 선언으로, 내용의 부여된 구조의 폭파로 그것을 변형하기 위하여,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소 간에 서로 뒤엎힌 것으로 명시된 것처럼, 존재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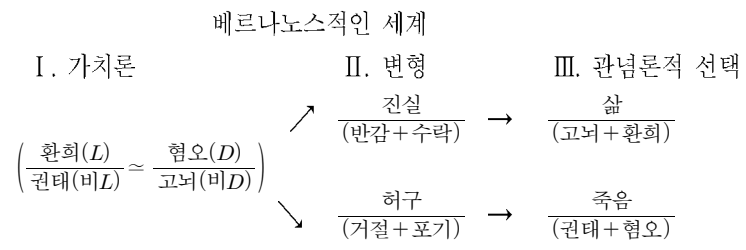
따라서 삶과 죽음이 이런 식으로 획득될지라도, 단순한 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종합이다, 즉 주장은 삶(비D + L)과 죽음(비L + D)을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텀 간의 상호전제를 확립하며,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의 개념은 다시 복합구조의 표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세계의 주요한 아티클레이션을 만드는 베르나노스적인 어휘소가 정의적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확립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어휘소의 어떤 것은 아직 기술로 사용되지 못했다. 그들의 지나치게 경솔한 도입은 방금 확립되어야만 했던 구조적 프레임 안에 그들을 정위시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정의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안에서 다음 방식으로 어휘화된다.

- L = 환희(Joy)
- 비L = 권태(Boredom)
- D = 혐오(Disgust)
- 비D = 고통(Pain)

따라서 통시적인 전후관계를 폭로하고 있는 총체로서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제12장 기술의 샘플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에 대하여

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²³⁶⁾

그레마스는(Algirdas Julien Greimas)는 언어학자이자 사회과학고등연구소(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와 관련된 기호학자였다. 그의 저서는 프랑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의 몇몇 논문만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뿐이다. 그는 사전편찬자의 경력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주요 저서는 「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 1966)」과 논문 선집인 「의미론(Du Sens, 1970)」, 「모파상(Maupassant, 1976)」, 그리고 「기호학과 랑가주(Semiotics and Language, 1982)」로 번역된, 쿠르테(Joseph Courtés)와의 공저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Séman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1979)」이 있다.²³⁷⁾ 구조의미론의 출판으로 그는 구조주의운동의 주

236) 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는 의과대학에서 영국의 George Lynn Cross를 연구하는 조교수이다. 1976년부터 2000년까지 “담화와 문화의 형식(Forms of Discourse and Culture)”의 장르 편집자로 근무했으며,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간행한, 북서 시리즈 담화와 이론을 위한 오클라호마 대학의 프로젝트의 공동편집자로 근무했다. 1999년,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개최된 문학과 과학을 위한·사회집단을 위한 년차 총회의 이사가 되었으며, 최근에,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발행한 전자학 시리즈인 대화식의 상호작용적인 표제,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치는, 즉 이분야(異分野) 제휴의 「DVD ROMS」, “Mariner 10”의 공동편집자가 되었다. 그는 17권의 책을 번역 또는 편집했다. 가장 최근의 저서는 만질 수 없고 불가해한 질료주의에 관한 것이다. 육체, 지식, 그리고 「시(poetry)의 힘(Minnesota, 2008)」에 관한 것, 즉 의학과 인도주의적인 이해(또는 悟性), 「DVD-ROM(Pennsylvania, 2005)」, Jerry Vannatta와의 공저인 「MD and Sheila Crow(Sheila; 남아프리카속어로서 젊은 여성, Crow; 크로 사람; Montana주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한 종족); 모더니즘과 시간」, 「1830~1930까지의 문학, 과학, 문화에서의 다수의 논리(Cambridge, 2000)」, 그리고 「유비(類比)적인 사고: 언어, 제휴, 해석의 후기계몽운동에 관한 이해(Michigan, 2000)」가 있다. 또한 그는 David Jobling과 Tina Pippin과의 공저인 「포스트모던 성서독자(Blackwell, 2001)」를 편집했고, 제4판의 Robert Con Davis와의 공저 「현대문학비평(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ongman, 1998)」을 집필했다. 그는 문학적인 모더니즘, 비평이론, 기호학(semiotics), 과학/의학, 그리고 문학과 음악의 문화적 연구에 관한 70대의 가장 학자다운 논제를 집필했다. 그의 최근의 논제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담화이론과 글쓰기의 교육(2007),” “월인진단의 논리: 피어스, 문학적인 내러티브, 현대발명의 역사(Jerry Vannatta와의 공저, 철학과 의학 2006),” “내러티브적인 담화와 가치의 새로운 의미: Alfred Marshall의 신고전경제학에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비틀즈, 포스트모더니즘, 단련되고 조화된 무지컬 형식: 권총을 닮으며; 또는 연발권총의 변화음,” “거기에는 모든 소리가 있다: 비틀즈의 연발권총과 Rock & Roll의 변형(AshGate, 2002)”을 포함한다. 근년에, 그는 스위스의 로잔, 모스크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한국에서 초청받아 강의했다. 그는 노르망디에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건강과학 센터에서 학부생과 졸업생들에게 20세기 문학과 문화이론을 가르치며, 문학과 의학을 탐색하고 추적한다. (역주)

요한 인물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독창성이 풍부한 논문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ts)”은 프랑스와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와 함께 썼던 것이며, 1968년 예일대학의 프랑스연구의 일환으로 출판되었고, 그의 저서는 영미문학작품 속에서 얼마간의 유통이 있었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²³⁸⁾의 「언어의 감옥(Prison-House of Language)」은 사실상 그레마스로 시작해서 그로 끝을 맺고,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²³⁹⁾의 「구조주의 시학(Structuralist Poetics)」은 주요한 장을 모두 의미론으로 충당한다.

이제 그레마스는 뜻대로 주목력거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구조주의 이론가 중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구조의미론은 난해하고 전문적인 저서인데, 그것의 마지막 장은 미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Georges Bernanos)에 관한 이스탄불 대학의 유셀(Tahsin Yücel)의 불명료한 학위논문이 기초하고 있으며, 그 부분들은 년지시 암시함으로써 난해한 문체로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의미론의 번역을 신뢰하는 바로 그러한 추세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출판된 후에, 구조주의에 대한 관심이 강력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그레마스에게 끼친 주요한 영향력(Ferdinand de Saussure, Louis Hjelmslev, Claude Lévi-Strauss, Roman Jakobson)이 20세기 지식생활 안에 중요한 형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출간된 후 시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조주의자들의 텍스트의 번역이 구조주의를 회고적으로 재독(再

237) 그레마스(A. J. Greimas), *Semiotics and Language: 해석학적 사전*, Larry Crist, Daniel Patte, James Lee, Edward McMahon II, Gary Phillips, Michael Renjstorf(Bloomington: 인디애나 대학, 1982). 이 번역은 우리의 서문과 번역이 완성된 뒤에 출판되었다. Edward McMahon에 의해 만들어진 그 서지학은 기호학연구자들에게 특히 A. J. Greimas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의 저서에 관해 명확한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238)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1934~));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출생. 헤이버포드(Haverford) 대학 졸업. 문학비평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그는 현대의 문화적인 경향의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직적인 자본주의의 압박 하의 문화의 파행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했다. 잘 알려진 그의 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Postmodernism: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 「마르크시즘과 형식(Marxism and Form)」을 포함한다. (역주)

239)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 1944~). 영문학, 비교문학자. 코르넬 대학의 교수. 그는 구조주의 문학이론과 비평의 주요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구조주의시학: 구조주의, 언어학, 그리고 문학연구(Structuralist Poetics: Structuralism, Linguistics, and the Study of Literature), 1975」, 「기호의 추적: 기호학, 문학, 탈구조주의(The Pursuit of Signs: Semiotics, Literature, Deconstruction), 1981」, 「탈구조주의론: 구조주의 이후의 이론과 비평(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1982」, 등이 있다. (역주)

讀)하고 그들의 기원과의 관계에 대한 직감과 함께 그것의 후계자(Claude Lévi-Strauss의 진보적인 저서, Roland Barthes의 새로운 심상, 그리고 Jacques Derrida의 구조주의자들의 기획에 대한 해체구축)로 이해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레마스는 이러한 재평가를 위한 기회와 함께 언어연구의 한 방법을 제공한다. 가늠자 안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구조주의운동의 과학적인 투기, 즉 논리·계산법·지식의 힘의 확산을 압도하는 최상위의 인식론적인 투기로 존재한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과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엄격함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있는 구조주의자들 중에서도 특히 탁월하며, 내가 입증할 것이지만, 그레마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그의 저서에 더 많이 은혜를 입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그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의미론은 방법적으로 시도하는 구조주의의 한 모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제 그것을 번역함으로써, 구조주의자들이 진행해 갔던 장소 그 위의 모델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구조주의의 의식적 통찰에 기여하고 있는 그 약점(Paul de Man은 “맹목; blindness”이라고 하고, Fredric Jameson은 “무의식; unconscious”이라고 한다)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조력하고 있는 분석방법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 이것은 내 논법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다. 구조의미론에서의 그레마스의 의도는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의미작용의 문법과 통사법의 윤곽을 그리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언어 그 자체의 텅 안에서의, 다시 말해서, 구조 그 자체의 텅 안에서의 화술적인 담화(narrative discourse)를 이해하는 언어의 다양성(민담, 사이코드라마, 철학 등)을 검토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의미론은 전혀 언어학적인 의미론이 아니며, 보편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고 밝히는 그 의미심장한 언어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담화 자체의 군집적인 용법과 함께, 오히려 보다 더 야심적인 투기를 겨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울만(Stephen Ullmann)이 그를 언어학적인 의미론보다 오히려 철학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Rudolf Carnap, C. K. Ogden, 그리고 I. A. Richards)의 강류(綱類, class)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²⁴⁰ 그레마스는 언어에서의 의미(of meaning; of significance) 논리의 탐색(즉, 철저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화를 실험함으로써, 그는 인간사

240) 울만(Stephen Ullmann), 「자유를 포함한 전체성의 언어학에서의, 의미론(Semantics, in Linguistics at Large)」, Novel Minnis(New York: Viking Press, 1971), p. 87.

건에서의 의미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의 목적은 언어논리에 대해 천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인간의미의 성질을 탐색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만약 그 최초의 투기가 기호학(semiotics)의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투기는 세미올로지(semiology)의 의미일 것이다.

노트: semiology와 semiotics 사이의 편차는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고, 그레마스의 투기의 성패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쉬르는 semiology를 “사회집단 안의 기호(sign)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즉 사회심리학의 일부”로 정의한다. 피어스(Charles S. Peirce)는 semiotics를 “보편의미의 논리”로 정의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인용해서 귀로(Pierre Guiraud)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단다. “소쉬르는 기호(sign)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피어스(Charles S. Peirce)는 논리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정의는 엄밀히 말해서 병치적이며, 오늘날 semiology와 semiotics는 동일분야를 떠맡는데, 유럽대륙인들은 전자의 텃을 영미인들은 후자의 텃을 선호할 뿐이다.” 또한 블랜차드(Marc Eli Blanchard)는 기술, 즉 기호(Sign), 대자(對自, 본성, Self), 욕망(Desire)을 통하여 그 편차를 표시하는데, 그는 semiology를 언어 안 언어의 원소들 사이의 내재관계를 지시하는데 통례적으로 사용하고, semiotics는 “내재관계를 억제하고, 게다가 그것을 목록로 분류하는 논리기호적인(구조적인) 변화과정의 기호(sign)와는 반대로, 욕망을 생성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조력하는 비-기호적인(non-sign), 비-논리기호적인(non-symbolic) 변화과정”을 지시하는데 사용한다.²⁴¹⁾ 비록 그것이 내가 만들고 있는 편차를 뒤집는다고 할지라도, 블랜차드(Marc Eli Blanchard)의 정의는 그레마스가 제5장에서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논리기호주의” 사이의 편차와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겪고 있는 그 지대한 고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의미론을 통해서 그레마스는 “심리학(II.10; VI.1.a; IX.1.b; X.14)”으로부터 구조의미론을 끊임없이 구별해내고 있지만(이런 식으로 그는 “사회심리학”으로부터 언어학을 구별해내려고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기는 의미작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의 논리적인 문법(관계의 기호학적인[semiotic] 투기)보다 더 애매한 것으로 존재한다. 대신에 그는 의미의 방법(의미의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cal] 투기)을 시도한다.

「구조주의 시학」에서, 조나단 킬러(Jonathan Culler)는, 그가 “그레마스의 실패”라고 외치는 것으로서의 설득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을 제기하고, “그가 기미(氣味)의 추측에 실패한 그 방식은 투기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것은 실천(또는 실행, practice)과 소인(素因; 원리, principle)을, 즉 텍스트의 의미 또는 어휘목록의 의미로부터 텍스트의 세트를 논리적

241)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 역(New York: McGraw-Hill, 1959), p. 16; 피어스(Charles S. Peirce), 「논문선집」, Charles Hart-shorne과 Paul Weiss, vol. 2(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227; Pierre Guiraud, 「La Sémiologi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1), p. 6(또한 Robert Scholes, 「Semiotics와 문학」,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 6을 보라), Marc Eli Blanchard, 「기술(Description): Sign, Self, Desire」(The Hague: Mouton, 1980), p. 246(또한 p. 59를 보라).

으로 도출해내는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창한다.²⁴²⁾ 그러나 그 실패를 그것의 분량(또는 척수, measure)으로서의 semiology(의미의 문제)보다 차라리 semiotics(sign의 논리)로 입증한다. 그레마스가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편차는 자연과학과 인간과학 간의 편차일 뿐이다. 그레마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만약 자연과학이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을 해온다면, 인간과학은 그들 양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소간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바로 그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존재한다(I.1.a).” 구조의미론에서의 모든 부제는 그 책이 사실상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이해의 인간적인 방법을 탐색할 것이라는, “방법상의 하나의 시도(An Attempt at a Method)”임을 지시한다. 또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관계(concern) 때문이며, 자명한 분야의 지위가 요구할는지 모르는, 기술 의미론적(descriptive semantics) 언어를 형식화하는 것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역으로, 적어도 최초의 단계에서, 영역의 가장 가능한 총계 안에서, 기술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형식화하기 때문이다(IX.1.a).”

그렇게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총계·총체의 관점 이것 때문에 그는 철학적인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는 의미작용의 성질과 함께 반드시 실행하여야만 하는 질문과 문제를 포함하는 그래서 그 분야를 밝혀내고 있는 다수의 프랑스 사상가들(인류학의 Claude Lévi-Strauss, 문학비평의 Roland Barthes, 역사의 Michel Foucault, 형이상학의 Jacques Derrida) 가운데 위치를 잡고 있다. 이 사상가들은 어떤 때는 “구조주의자,” 어떤 때는 “후기구조주의자”로 불리고(이 용어의 연결고리는 내가 되돌아갈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 한 확장 또는 다른 것으로서의 그들 모두는 인간과학을 정성들여 정교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그레마스는 그것들 모두가 “의미작용의 인간과학”이라고 한다(IX.1.a).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사물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차용해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미작용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결과 의미작용의 세계는 언어학에 의해 정교화 된 기술절차에 그 자신을 빌려준다(V.1.a).” 즉, 언어학

242)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 「구조주의 시학」(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p. 85.

과 언어의 구조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것은 의미의 구조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인간과학을 위한 모델로 받아들여진다.

언어학적 모델의 중심양상은(구조적인 모델) 소쉬르에 의해 진척된 언어의 원소의 “변별적인,” 또는 “편차적인” 정의로 존재한다. 언어의 원소(음소, 형태소 등)는 “실체(substance)”가 아니라, 단지 “형식(form)”일 뿐이며, 체계 또는 편차의 “구조” 안에서, 언어 안에서 또 다른 형식과 대당으로 생성된 것을 형성한다. 즉, cat은 음성 cat의 어떤 선천적인 자질 때문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음성 cat 안에 “실체”로 총당되고 있는 어느 시점의·어느 순간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편차가 있는 것의 그 가치에 의해 존재한다. 이러한 편차는 지주(pole) 없이 존재한다. cat은 부정적으로 대당이 된 cut의 조정(措定)적인 지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cat과 cut”은 편차의 체계(“구조”) 안에서 서로 구성하면서, 즉 변증법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에 소쉬르의 언급을 인용한다.

모든 것은 이러한 비등점이 이렇게 하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어 안에는 오직 편차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요하기까지 하다. 설치된 편차 간의 조정적인 텅을 보편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언어 안에는 조정적인 텅 없이 오로지 편차만 있을 뿐이다.²⁴³⁾

따라서 “cat과 cut” 간의 편차는 각각의 음성, 단어, 또는 체계 안에 또 다른 원소(caught, cot, sat)가 없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프레이즈(phrase)로 존재한다. 그들은 서로 관여하지만, 대당의 최초의 조정적인 텅이 존재한다고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그레마스가 “상호작용적인 전제의 관계(제2장, 이러한 개념에 관해 언급한 그레마스의 정교한 합성을 위한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보라)”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일찍이 구조의미론에서, 그레마스는, 변별적인 텅 안의 동정(同定)의 변덕에 대해 그가 재고(再考)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모든 의미경험의 구축하기에 관한 한) 소쉬르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학의 프랑수아파(1.2.a)”라고 하는

243)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p. 120. 또한 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 “「잉크의 해독: 모더니즘과 후기전쟁문학비평」 New Orleans Review 8(1981): 241~248, 소쉬르 이론의 문학적 암시의 개발(啓發)을 위하여”를 보라.

데, 그 이유를 그레마스의 생각으로는 그 학파의 리더로 레비스트로스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들의 변별적인 또는 구조적인 절차의 중심 진술로 그의 중요한 논문 “신화의 구조적 연구(The Structural Study of Myth)”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제2장에서 “구조”를 그들 사이의 관계와 편차가 지각될 수 있도록 두 개의 팀을 요구하는 어떤 무엇으로 정의한다. 그러한 정의는 소쉬르적인 것이며(그것은 Claude Lévi-Strauss의 신화읽기를 추종하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그의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그레마스는 레비스트로스와 그 밖의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의 저서와 자신의 저서를 의식적으로 포함시킨다. 도입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과학과 휴머니즘, 정확함, 그리고 “수학적 논리와 논리 그 자체”의 비-개성(개성불각, impersonality), 문학과 역사의 “정성(定性)적인 지시(qualitative reference)”와 교차될 것인 바로 그 체계적인 배려를 의미론에 가져와 비유케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 과학적 의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마스는 구조의미론 안에서 과학의 계발을 추구하고 있는데(사실 그는 인간과학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기술(description)과 발견의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s)”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는데 있다(IX.3.c). 야콥슨(Roman Jakobson)은 평생 동안 이렇게 반복했다. “의미(meaning)는 기호(sign)의 또 다른 체계로의 번역-전격(轉格)이며, 그레마스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의미작용을 기호(sign)의 과학적 체계, 과학적 언어, 즉 체계적인, 정확한, 그리고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s)과 발견이 합류하는 바로 그 생성적인 언어로 기술하고 초월부호로 만드는 그 과학적 방법을 계발하려고 시도한다.” 그의 투기의 과학적인 목표는 어느 것에서든지 나타난다. 이러한 전체 투기로서의 의미론은 그 자신이 자연과학과 병치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인간과학의 일부분이다. 「언어이론서설」에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그레마스의 작품에 대해 그가 이제까지 읽었던 가장 훌륭한 언어학적 텍스트”라고, 엄밀하게 그리고 웅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⁴⁴⁾ 마침내 나는 그 언급을 인용할 것이다.

244) 예를 들어, Roman Jakobson, “Peirce의 약간의 단평, 언어과학에서의 탐험자”를 보라. *Modern Language Notes* 92(1977): 1026~1032. A. J. Greimas, “Interview, Discussing Language,” Herman Parret(The Hague: Mouton, 1974), p. 58.

그렇게 집합하고 통합하는 상수(常數)의 탐색은 어떤 휴머니스트적인 전통에 의해 대당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연적인 것과 대당이 된 휴머니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현상은 비-순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판단력은 자연현상처럼 정확성에 종속될 수 없고, 논법으로 일반화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상의 범위에서는 다른 방법(즉, 정확한 과학보다 시에 더 가까우면서도 그저 단순한 기술)이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씩 스쳐지나가는 현상, 체계를 통하여 해석되는 것 없이...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전제로 이루어진 증명사(中名辭, means)에 의해 분석되고 기술될 수 있는 그 변화과정에 의해, 교감하고 있는 체계로서의 바로 그 모든 변화과정에 의해, 보편적으로 확실한 주제, 즉 아프리오리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어느 변화과정이 다양한 조합으로 순환하고 있는 최소의 원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간주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의 기초 위에서, 그것은 이러한 원소를 조합의 가능성에 따르고 있는 강류로(classes)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가능한 조합의 보편적인 그리고 총망라했으면서도 상관관계적인 결석(結石)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확립된 역사는 체계적인·정확한 그리고 보편적인 과학의 레벨을 극복하고 단지 야성적이고 소박하기만 한 기술의 레벨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이론 안에서 모든 사건은(원소의 가능한 조합) 확립된 그들의 실현화를 위한 예견과 조건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휴머니티가 이러한 주제를 실행되고 있는 가설로 판단하지 않는 한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 같으며, 휴머니스트들은 과학으로서의 휴머니스트적인 연구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은 것의 그 조합, 즉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방치했다.²⁴⁵⁾

그러한 경향도야와 함께, 그레마스는 제5장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것에 실패하고 있는 정신분석을 비판한다. 그는 정신분석이 과학적으로 확립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우 이질적인 정신분석에 의해 정교하게 설명된 조격개념(instrumental concepts)의 발화자료체” 때문이며, 구성적 모델보다(X.14) 오히려 질료적인 것을 그러모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그것의 개념화를 위해 은유적인 절차를 확립했기 때문이며, ...상수(항상성, constant)를 그리고 리얼리티를 위해 은유를 선택하는 그 ‘무의식적인’ 유혹” 때문이며, 그리고 “방법론적인 메타언어의 구성에 대한, 폐쇄적인 방법...”을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X.14).

물론 이러한 2가지 문제는 그들이 그레마스의 투기(“메타언어, 또는 메타언어의 계층”을 창조하는)를 정의하는 것과 함께 반복된다.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조건을 부여하는 그의 조격개념은 동차적으로 존재하고, 사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언급한 것처럼, 언어 안의 위치(place; 양수 또는 음수의 자리)로 기술

245)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 「언어이론서설(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Francis Whitfield(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pp. 8~9.

되고 예견되는 구성적인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의미론(Du Sens)」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만약 우리가 의미의 문제를 그 최소차원(즉, 의미작용의 초월부호)으로 환원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초월부호가 진짜 그대로 그러나 어스레하게 나타난다면, 그때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의 과학적인 연기가 인위적으로 그러나 명백하게 초월부호를 실행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치환의 정교한 기교로 존립하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지 어떤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의 기호학적(semiotic) 기술은 양의연동적인·적합한 인공언어의 구성으로 존재할 것이다.²⁴⁶⁾

그레마스에 의하면, 정신분석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것처럼 부당하게 간주된 것인데(X.14),” 왜냐하면 최소차원이 치환의 정교한 기교인 반면에, 정신분석은 조사보고의 그 대상과 조사보고의 언어를 적합하게 구별 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결국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전자에 대해 복합구조보다 오히려 어떤 상황을 은유적으로 기술했던, 그리고 후자에 대해 유형적인 성격으로 묘사했던, 그 오이디푸스의 신화처럼, 정신분석의 신화적 모델은 존재한다(X.14).”

이러한 특성으로서의 편차는 그레마스의 관록으로서, 그는 그것을 과학적 그리고 기호학적(semiotic) 형식 간의 보편적인 편차(difference)로 정의한다. 구조의미론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간에, 이것은 탐구의 레벨 간 특성으로서의 편차가 된다. 따라서 다음 제5장과 제6장은 의미론적 레벨(le niveau sémantique)과 세미올로지적인 레벨(le niveau sémiologique) 간의 편차로 충당된다. 그러나 레벨 그 자체는 그의 투기의 조격개념(매개자로서의 그것은 과학의 Louis Hjelmslev의 정의 안에 깊이 끼워져 있다)의 하나로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레벨의 개념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레벨의 개념은 “체계의 대당을 언어의 변화과정으로(IV.2.e)” 허락하기 때문이다.²⁴⁷⁾ 사실, 그는 언어의 표출을 “언어의 의미론적·세미올로지적인 두 레벨의 화해(reunion)”로 정의한다(VII.1.b).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체계의 원소를 변화과정의 레벨과 대당이 되게 함으로써 악보의 아티클레이션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의미론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작용의 최소단위”의

246) A. J. Greimas, 「의미론(Du Sens)」 (Paris: Seuil, 1970), p. 14.

247) 또한 A. J. Greimas, “화술문법: 단위와 레벨(Narrative Grammar: Unites and Levels),” Modern Language Notes 86(1971): 793~806.

상수적인(불변적인) 형식과 관계된다(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의미소라고 지시한다).

노트: 그레마스가, 세미올로지적인 모델이 semiotic과 semiological을 구별하는 언어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에 부치며 악보의 음표·아티클레이 선처럼 지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미론적 레벨은 의미소(eme)의 변수형식과 관계된다. 이러한 최소단위, 즉 의미소, 그리고 그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두 레벨은 언어 안에서 항상 내재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semiotic이라고 호칭하게 될 실체(substance)의 형식은 우리가 동일한 실체의 과학적 형식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다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과학으로서의 화학은 화학적 원소가 최소단위(즉, 변별적 특징), 우리가 보다 좋은 팀의 결핍·공통감각의 세계(즉, “감지할 수 있는 세계”; 구조의미론 I.2.b를 보라)라고 호칭하는 것의 상상적인 표출의 측면을 생산적인 것의 조합으로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여된 실체의 영역의 특별한 형식적 조직으로 존재한다. 표면적인 표출의 과학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는 그 화학이 새로운 용어법의 증명사에 의해 언어의 모든 종류와 교차하는 것이 틀림없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틀림없는 기호학적(semiotic) 형식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Du Sens, p. 42).

여기서 과학으로서의 의미론은 격리·분리된 의미작용의 최소단위의 조합(A. J. Greimas의 seme)이 언어의 공통감각을 표출의 측면에서 생산할 것인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의미작용의 영역을 만드는 그 조직이다. 그 기호학적(semiotic) 형식은 그것의 의미를 표현하는 논리적 “메타언어”가 될 것이다.

화학에서의 이러한 편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존재한다. 과학적 형식은 그 형식으로서의 기호학(semiotics), 즉 원소주기표의 논리의 새로운 용어법을 구성하는 그 원소의 조합형식(우리가 그들을 경험함으로써 화학적 합성을 생산하는)으로 존재한다. 화학에서의 원소주기표는 오로지 내재적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원소 간 관계의 언어(논리)로 존재한다. 음운론에서의 이러한 편차는 실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존재한다(위의 패시지에서의 Roman Jakobson의 표현 “변별적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A. J. Greimas는 우리의 고찰에 권위를 부여한다). 음소는 파들의 최소 원소이며, 음운론(phonology)은 그들의 상호적인 조합(phoneme+formant)을 고려한다. 그러나 음소 그 자체는 변별적 특징의 이원적 대상으로 만들어진 꾸러미(A. J. Greimas는 이것을 pheme이라고 호칭한다)의 증명

사에 의해 다른 것과의 상호관계로 존재한다. 반면에 이러한 특징은 결코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항상 내재하고 음운론의 기호학적(semiotic) 형식의 구성 안에서 원소를 구성한다.²⁴⁸⁾ “초월 랑가주에 관한 고찰(Considérations sur le langage)”에서, 그는 기호학(semiotics)을 “분석에 종속될 수 있는 계층으로, 그리고 그것의 원소가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를 부연설명하고 있다(Du Sens, p. 22). 그는 계속 이렇게 언급한다. “보다 더 면밀히 살펴보면, 엘름슬레우적인 정의는 기호학(semiotics)이 오로지 암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오로지 기술(description)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로 고찰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pp. 22~23).”

물론 이 모든 것은 대상이 조직하고 아티큘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기호학(semiotics)으로 존재하는 의미론의 과학에 의해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내가 먼저 분석에 착수했던 semiotics와 semiology 간의 편차는 그의 의미론의 과학 안에서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어는 화학의 방식이 할 수 있는, 의미론의 기호학(semiotics)적 형식이 semiology로 존재하는, 사회적 함수로부터 추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의미론적 레벨과의 관계 안에서 표출되고, 그들은 다 함께 기호학(semiotics)의 논리로, 즉 보다 상위의 인식론의 차원으로 초월한다. 구조의미론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가 시사했던 것처럼, 어휘소적 목록의 의미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원소주기표의 조합논리에 따르고 있는 화학적 원소의 방식에서와 같은 최소원소의 조합의 논리적 결과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착란적인(discursive) 의미는 그것의 어휘소적 목록과 함께 상호적인 전체의 관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레마스는 어휘소적 목록을 “이끌어내는” 주연분석을 사용하고, 동시에 구조의미론 제12장에서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발화자료체의 의미작용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목록을 사용한다.

즉, 언어학과 꼭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은 인간과학의 모델로 존재한다(V.I.d). 그러므로 의미론은 언어학의 모델이다. 구조의미론에서, 이것은 귀로

248) Roman Jakobson, Gunna Fant, 그리고 Morris Halle, 「파롤분석의 서문, 그 편차적인 특징과 그들의 상관현상(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Cambridge, Mass.: MIT Press, 1961).

(Pierre Guiraud)가 음소의 구조를 의미론으로, 통사론을 의미론으로 환원한, “형태-의미론연구”를 통해서도 그의 용법을 설명한 것이다(VIII.2.g). 그레마스는 “초월 랑가주에 관한 고찰(Considérations sur le langage)”에서, 인간 대상(Pierre Guiraud의 어원론 연구에서 기술된 민속식물학적 분류법)을 기술하는 “인류학적 기호학(semiotics)”과 자연 대상(그의 실례 안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개발된 식물학의 분류법)을 기술하는 “우주론적 기호학(semiotics)”을 비교한다. “기술의 두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 이 최상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이 분석하고 있는 대상의 아티클레이션으로 은근하게 존재하는 것의 단순한 상태와 함께 그 자체로 충족하고 있는 우주론적 기호학(semiotics)이라고 하는 사실로 존재하는 것 같으며, 반면에 인류학적 기호학(semiotics)은 이렇게 가능한 아티클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범주 안에 투사된 의미(meaning, 또는 sens) 상에 응집하는 것 같다. 판별력, 즉 편차의 기원이 “자연(natural)”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이러한 편차의 증명사로 파악된 의미는 “인간(human)”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언급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만 그것은 존재한다.

게다가 자연과학은 그 음운론적 체계가 그들의 단순판별적인 성격의 가치에 의해 다소 타당한 특징의 조력과 함께 구성될 수 있는 언어학적 표현측면에 제공된 기술과 그들의 절차 안에서 비교되고, 반면에 인간과학은 편차와 함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타당한 특징의 내용측면의 기술과 상응한다...

만약 아직 확립되지 못한 관습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명칭 “semiotics”를 우리는 손에 넣을 수 있는 텃, 그저 내용의 기술만을 위한 “semiology”의 그 생명이 없는 잔존물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 그러한 표현의 과학을 위해서만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Considérations sur le langage,” Du Sens, pp. 32~33)

게다가 그레마스는 과학이 “semiotics”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모든 언어와 같은 그 언어는 표현과 내용 측면의 동시 발생적 일치로 존재한다. Du Sens, p. 21을 보라), 그리고 “semiotics의 semiotics”가 의미론, 즉 의미작용의 과학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조의미론을 통해 그는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의미론적인 레벨을 구별한다.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그는 “Niveau(level)”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의미론에서, 내용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의 성질에 대한 고찰은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의미론적인 레벨(텃의 좁은 의미에서) 간의 의미작용의 우주(내용의 계열체로 고찰된 semiotic system)를 구별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표현의 최소단위로 고찰되고, 따라서 요약되고 함수 작용에 필연적인 그리고 모든 기호학(semiotic)의 구성에 필연적인 바로 그 의미론적인 레벨과 구별된다.

여기서 이것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그의 정의를, 그는 화학으로 사용하고, 구조의미론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이 최소단위를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최소단위의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그는 핵의미소(semic nucleus), 즉 아티클레이션 안에 “상수(invariant)”로 남아있는 어휘소(단어)의 “불변의 최소의미소”라 호칭하기 때문이다(III.5). 왜냐하면 최소단위의 의미론적 레벨은 강류의 미소(classemes), 즉 그가 어휘소의 초월을 다시 초월하는 담화단위로 정의하는(IV.3.c), “화맥으로부터만 초래될 수 있는,” 우리가 전에 관찰했던 그 ‘의미’의 변수로 운반되는 의미소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IV.1.c). 다시 말해서, 세미올로지적인 레벨(seme+classeme, 즉 귀납적)은 외부의 감각세계로 조직되고 외면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격상(figure)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며, 반면에 의미론적인 레벨(seme+classeme+substance, 즉 귀납적+연역적)은 다소 비격아강적인·추론적인 범주(그가 숙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범주화”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VII.2.a)로 제공되는 것에 의해 담화 그 자체가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함축적인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레마스가 제안한 것처럼,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이 “언어의 체계적 레벨(IV.2.c)”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의미론적 레벨이라고 한다면, 변수인 그 최소단위는 언어의 변화과정의 원소의 분석으로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가능한 언어의 착란적인 양상을 깊이 천착하고 있는 의미론적 레벨이 인간과학으로서의 의미론을 만드는 것으로 존재한다.

반면에 그레마스는 제5장에서 이러한 레벨의 상호관계적인 자율성을 장황하게 강조하고, 또한 그것은 그들이 상호적인 전제의 관계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강조한다(VII.2.a를 보라). 그의 정의가 지시하는 것처럼, 의미론적 레벨의 아티클레이션은 “함수 작용을 위해 그리고 모든 기호학(semiotics)의 구성을 위해 추론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상수는 의미론의 기술을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의 기술(제5장)이 의미론적 레벨의 기술(제6장)을 선행하는 우유성(偶有性)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학적 은유를 반추(反芻)하며, 그는 이렇게 언급한다.

신비롭지 않다고 해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밀랍조각”과 같은 것이 달의 상징 기호(symbol)보다 신비로움이 부족한 것 또한 아니다. 밀랍조각의 기본합성을 설명하는데 성과를 거둔 화학적 성질은 단순하다. 그것은 구조의미론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동일유형의 분석 쪽으로 향한다. 양쪽(밀랍과 달)의 경우에 효력이 있는 의미의 효과는 진리(true)이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적 측면의 그 실재성(화학 안에서이든지 또는 세미올로지 안에서이든지)이 신비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합리성이 부족한 것 또한 아니다(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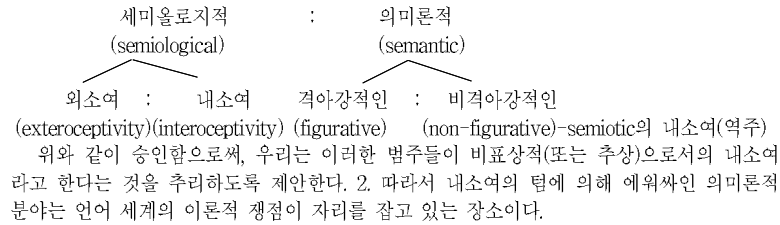
체계와 변화과정 사이의 이러한 “상호전제의 관계”는 소쉬르의 중심관록을 구조의미론에 다시 한 번 불러들인다. 그 전체구조의 목적은 랑그와 파롤의 범주, 즉 언어의 “체계”와 “변화과정,” 그 상호전제의 관계 사이의 소쉬르의 편차적인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레마스에 의하면,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체계와 변화과정 사이의, 또는 언어학에서의 계열체적인 것(paradigmatic)과 결합체적인 것(syntagmatic), 모든 과학적 접근법과 공통의 보편적 대당으로서의 랑그와 파롤 사이의 그 대당으로 해석된다(“Interview,” p. 57).

결국 이러한 “모든 과학적 접근법과 공통의 보편적 대당”으로 기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의미론이 강조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레마스의 의미론의 과학적 진의(眞意)로 되돌아간 것이며, 나중에 나는 그것을 “가치론(axiology)”이라고 부를 것이다. 파레트(Herman Parret)가 언어에 관한 토론에서 그레마스에게 질문형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의 “그 탁월한 독창성은,” “현대 언어학의 이러한 파노라마 안에서, 구조의미론이 어떤 하나의 기호학(a semiotics), 총체기호학(the semiotics)으로 존재한다는 바로 그것으로 관측되었다(“Interview, p. 79).” 그것은 과학을 음표의 아티클레이션처럼 만드는 “과학”이다. 이것이 그것의 존재이유이며, 나는 구조의미론의 그가 자연과학으로부터 충당된 텀을 격아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그 이유를, 다시 말해서 동류체(isotopy), 동차(homology), 알고리즘(algorithm), 외소여(exteroceptive), 내소여(interoceptive), 자기소여(proprioceptive), 등을 어렵듯이 알아챈다. 예를 들어, 그가 텀 의미소(seme)를 병치적인 격상소(pheme)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그는 “최소의미작용의 단위(=seme)를 표현측면의 변별적 특징(=pheme)과 상응한다.”고 언급한다(“La Structure sémantique,” Du sens, p. 40). 그는 물질(즉, 자연) 현상과 고립된 음운론에서의 용어법과 유사한 의미론의 용어법을 그렇게 창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단위를 우리는 의미소라 불렀고, 그 자신에게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작용의 구조의 일부로만 존재하는 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엇과의 관계 안에서만 상상되고 기술될 수 있다. VII.1.b”)

노트: 외소여(exteroceptive), 내소여(interoceptive), 그리고 자기소여(proprioceptive)는 외부자극(예를 들어, 약탈자의 시각)을, 내부자극(망상 속에서의 약탈자의 시각)을, 그리고 제귀적 자극(자기 자신의 시각)을, 수용하는 유기체의 능력을 지시한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이러한 용어를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외소여; exteroceptive)과 의미론적 레벨(내소여; interoceptive) 사이의 편차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그때 그들은 형태소적 구조로 고찰된다(VII.1.b).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interoceptive 아래).

interoceptivity(내소여); 1.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이 동연(同延)이 되는 의미세계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드는 의미소범주의 한 무리는 자연계의 기호체계 안의 원소와 상응하거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범주 외소여와 내소여(exteroceptivity/interoceptivity)의 범으로 분류될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이러한 범주의 명목은 “세미올로지적/의미론적”(semiological/semantic)으로 대체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어떤 애매성을 창조한다.



그리고 자기소여(proprioceptivity); 강류의미소적인 범주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범,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지각작용(perception)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론의 특성을 연역하는 의미소적인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는데 조력한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범은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언의지의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芳香; thymia)에 의해 반제된다.

외부자극과 내부자극을 조합하고 있는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그가 “복합 범”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형태소적 구조보다 오히려 관계 안의 체계적 구조로 사용한다. (역주)

이러한 이유로, 제5장에서 그레마스는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이 지각의 레벨에 정위된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범주의 총체(ensemble)와 의미소적 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로(Pierre Guiraud)의 “어근 T. K.의 형태-의미론적 연구(Morpho-semantic Study of root T. K.)”를 장황하게 인용한다

(VII.2.c; 이탈리아 체). 여기서 그는 십자적인 핵심의 편차를 구조적 분석과 과학적 투사로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내용의 형식의 개념이(“내용의 실체와 대당이 되므로써”) 형식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혁명적인 것인데 반하여, 그것은 언어의 레벨 사이의 실제적인 편차를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바처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단독 표출의 형식으로 고찰된 소쉬르적인 언어개념은 내용의 실체와 동화할 수 있는 의미효과와 출현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선은 의미론으로부터 세미올로지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지, 실체로부터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V.2.b).

이러한 편차는 프로프(Vladimir Propp)가 「민담의 신화학」의 교정본에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와 형식을 반복한다. “구조와 형식, 즉 프로프의 저서 상에 반영(구조의미론에 기초한 텍스트)”된, “그 형식은 그 자체보다 다른 질료와의 대당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나 구조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실체의 속성(property)으로 고찰된 그래서 논리적 조직으로 파악된 내용 그 자체로 존재한다.”²⁴⁹⁾ 이것은 “형식주의의 죽음”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형식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내용”과 함께 상호전체의 관계로 존재하는 구조로서의 “형식”을 재 정의하기 때문이다. “지각의 레벨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만들었으므로, 그레마스는 의미론적 레벨이 형식이 될는지 모르는, 그리고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이 레비스트로스가 “독단적인(arbitrary) 내용”이라고 호칭하는 바로 그것이 될는지 모르는, 형식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될는지 모르는(S & F, p. 131),” 그렇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형식주의를 피하고 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세미올로지적인 범주가 “감각세계의 성질(quality, 내포량, 명제의 질)을 동형체(同形體, isomorphs)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도록 유도한다(V.2.c). 그리고 제5장에서 그들이 언어학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으로(감각세계의 성질의 “자연적 논리기호”의 목록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황하게 계속한다.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의미론적인 레벨 사이의 편차가 의미소적 상수와 변수, “내용의 형식” 그 양극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구조의미론을 통해 주장한다.

249)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구조와 형식: 프로프의 저서에 관한 고찰,” 구조 인류학, vol. 2 Monique Layton(New York: Basic Books, 1976), p. 155. 이것은 S & F로서의 텍스트 안에 인용될 것이다.

귀로(Pierre Guiraud)의 연구에 대한 그의 다방면에 걸친 인용은 소쉬르의 기본 공준(公準), 즉 기호(sign)의 독단적인 성질의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미소적 체계가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어휘단계(vocabulary stage)”라고 호칭하는 것을 구조적인 것으로 독해하도록 제안하는, 그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음운론의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수용된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대개 문법의 레벨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납득되지만, 어휘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하고는 납득되지 않는다. 아마 어떤 특권이 부여된 영역을 제외하고, 우리는 어휘가 구조분석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의 그 시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S & F, p. 141).

구조의미론은 이러한 “실마리(handle)”를 창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귀로(Pierre Guiraud)의 저서의 특권이 부여된 영역을 인용한다.

귀로(Pierre Guiraud)의 연구는 프랑스어의 모든 시대를 통해 400여개의 어휘소 안에서 의미소적 편차와 결합체적으로(syntagmatically) 상응하는 음운론의 모음(음성 [t-i-k], [t-o-k], [t-a-k])의 변이(변수)를 분리해 낸다.

[t-i-k]	vs	[t-o-k]	vs	[t-a-k]
tiquer		toquer		taquer
(twitch)		(strike)		(plane down)
(쉴룩거리다)		(두드리다)		(높낮이를 고르게 하다)

위와 같은 대당 안에서 모음변이의 모음(matrix)은 다음처럼 변이의미소 coup(blow, 타격)와 상응한다.

[pəti]		[gro]		[pla]
petit(작은)	vs	gros(큰)	vs	plat(평평한)

그레마스의 관점(또한 Pierre Guiraud의 관점이다)은 “세미올로지적인 모델이 그들 스스로 과학의 측정법과 결합화를 지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각의 다양한 목록, 즉 촉각(tactile), 관자놀이-공간(spatial), 양상(aspectual)과 상응하는

의미소적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다(V.2.b).”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운론적 모음(matrix)의 변이 사이에 관측된 병존과, 한편으로는 세미올로지적인 원소의 변이, 다른 한편으로는 강류의미소적 변이를 취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병존의 부재가 강류의미소로부터 핵의미소, 다시 말해서 언어의 의미론적 레벨로부터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분리하고 있는 선을 첫눈에 우리에게 허락한다(V.2.b).

우리가 주장하는 그 선은 인간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귀로(Pierre Guiraud)가 “단순관계의 장” 그리고 “구조의 체계”라고 호칭한 것 사이의, 그 선을 말한다. 그는 “어휘목록(lexic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어휘목록은 형식의 수많은 성운(星雲)으로, 즉 어휘소적 합동자료의 일부를 밀접하게 통합하는, 그리고 음운론의 그것과 같이 타당한 대당의 매우 엄밀한 체계를 보편적으로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바로 그 힘의 단순한 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그들 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기껏해야 여기서 우리는 “장(field)”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론의 장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편찬을 위하여 장의 개념으로부터 체계의 개념으로, 단순관계의 변덕으로부터 체계의 변덕으로의 그 통로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전승한 그 단계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²⁵⁰⁾

게다가 이러한 통로는 체계와 변화과정, “형태소적 구조”와 “체계적 구조” 간 레벨 안에서의 편차를 표시하고(VII.1.d), 그리고 그레마스가 결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론적 레벨이 오히려 체계보다 그것의 대상을 장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이것은 의미론의 맹점이며(과학적 가치론을 배반하는 무식적인 몸짓이다), 귀로(Pierre Guiraud)가 그의 강류의미소적 범주(그의 의미론적 레벨) 안에서의 타당한 대당의 엄격한 체계라고 주창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레마스의 결핍에 대한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의 비평은 적절하다(구조주의 시학, pp. 79~87). 그러나 그 비평은 그레마스가, 강류의미소의 화맥적인 강류는 역사와 시간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는 그 사실의 중요성을, 구조의미론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변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 모드(축각, 관자놀이-공간, 양상)가 상수로 존재한다고 하는 인간지각작용의 레벨에 정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50) 귀로(Pierre Guiraud), “Étude du champ morpho-sémantique de la racine T. K.,”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47, no. 1(1962): 104.

또한 그 의미론적 레벨은 지각될 수 있지만, 변수를 다루며, 지각작용의 모드와 상응하지 못하는 지각작용의 레벨에 정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레마스는 인간이해의 “이중동류체적(bi-isotopic; VIII.2.b)” 사실이라고, 게다가 그 이해가 그 대상으로서의 통시적인 사건을 선택하는 공시적인 변화과정(구조의 이해)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호칭한다. 예이츠(W. B. Yeats)는 이렇게 언급한다. “그 이미지는 불멸의 행위이지만, 우리의 이해는 오로지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이며 동시에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²⁵¹⁾ 구조의미론에서 그레마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록 메시지가 의미작용의 아티클레이션이 된 연속으로서의 수용으로, 즉 통시적 지위로 나타날지라도, 그 수용은 연속을 단순·천진난만함으로 그리고 의사통시성을 공시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에 의하는 것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론적 우주는 반드시 지각될 수 있으며, 파지(把持)될 수 있으며, “생생해질 수 있는” 초미우주로 선회된다(VIII.2.c).

이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의 감각이 인간과학을 정의한다고 내가 주장할 때 되돌아올 어떤 질료이다. 이제 그것은 의미론적 레벨이 언어의 결합체적인 측면(즉, 담화의 측면)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반면에 그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계열체적인 측면을 구축한다. 그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의미소적인 격상(예를 들어, 그것은 담화의 “문체론적인 목록”을 보증한다. VI.3.h)의 일관성을 보증하고, 반면에 의미론적 레벨은 그레마스가 언급한 것처럼 “메시지와 텍스트의 동류체를 보증한다(IV.3.d).”

2. 과학의 가치론

여기서 나는 그레마스와 함께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텀 중의 하나에 도달했으며(자연과학 즉 화학으로부터 선택된 또 다른 은유), 그리고 그가 구조의미론에서 가장 긴 장, 즉 “담화의 동류체(isotopy of Discourse)”에 전념했던 것 중의 하나에 도달했다. 그러나 내가 그 텀을 고찰하기 전에, 아무튼 내친걸음에 나는

251) 예이츠(W. B. Yeats), “갈대 속의 바람에 관한 주해(Notes to The Wind Among the Reeds),” in Variorum Edition of the Poetry of W. B. Yeats, Peter Allt와 Russel K. Alspach(New York: Macmillan, 1971), p. 807.

또한 내가 그것의 가치론, 즉 과학적 투기의 엄격함이 사실 귀중한 그것의 가치론적 의미를 소유한 것으로 진척시켰던, 그의 과학적 의미론의 의미를 진척시키기 위해 주석을 달 것이다. 그 자신은 과학을 데이터의 환원으로, 즉 “가공되지 않은 낱것으로서의 표출(raw manifestation)”로(의미론의, 즉 담화의 이중동류체적인 성질의 경우로), 형식으로, 비-착란적인 목록으로(VIII.3.d),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s)과 발견으로, 나중에 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여 암합(暗合, coincide)하는 “지식(knowledge)”과 “힘(power)”이라고 호칭할 것인 바로 그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내가 가치와 과학적 투기의 원소의 목록을 분리할 수 있었던(어쨌든 그들 간의 분리를 확정하는), 그 발단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의 담화의 다른 레벨들과 함께 집단으로 거주한다. 동시대의 레비스트로스와 함께 그레마스는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연과학(특히 화학)의 모델을 빗대어 언급한다. 아마 이것은 내가 인용했던 일질 “밀랍조각” 안에서, 또는 “기호학적 강제와 상호작용”의 서언에서, 매우 명백할 것이다. 어쩌면 가해성(加解性)을 위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원소와 시작하고 있는, 그것이 복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제적 방식 위에서 조우하고 있는 그 복합행로에 따르고 있는, 문화적인 대상의 구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인간의 마음을 추측하고 횡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²⁵² 제8장의 끝에서 그는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의 증명이 실천(또는 실행)과 마찬가지로 소인(素因, 또는 원리)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주장을 보다 큰 종류의 바로 그 인식적인 차원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는 “우리 우주의 주된 가치론적 모델이 분석되고 기술된다고 가정하면, 또한 변이의 계열체와 관념론적 모델의 변화규칙이 충분히 인식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론적 구조를 향하여 개인과 집단을 동여댈 수 있는 함수적인 모델을 위치 안에 구성하고 세팅하는 어느 낱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VIII.3.e).”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비록 그의 과학적 텀·동류체 안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평가의 무의식적인 질차는 위치를 선택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동류체는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난해한 것으로 존재한다. “의미론(Du sens)”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한다. “동류체를, 보편적으로 우리는 고

²⁵² 그레마스(A. J. Greimas)와 프랑수와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 “기호학적 강제와 상호작용,” *Yale French Studies* 41(1968): 86~87.

찰 중의 담화의 밑에 깔려있는 여분의 의미론적 범주의 꾸러미의 의미로 이해한다. 두 담화는 동형체가 아니면서도 동류체가 될 수 있다(Du sens, p. 10). 동류체는 메시지에 의해 꾸며진 그래서 더 한 층 의미심장한 전체의 바로 그 막연한, 그러나 필연적인 개념이라고 그가 호칭하는 것을 허락한다(IV.3.d). 동류체는 담화의 안에서 그리고 밖의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관측했던 바와 같이, 의미론적 레벨의 어떤 것은 그것의 강류의미소가 텍스트의 동류체를 보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또한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은 “텍스트의 의미소적 격상의 선택 안에서” 동류체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VI.3.e). 게다가 동류체는 편차성과 유사성을, 그리고 의미작용의 원소적인 구조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아티큘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 의미론의 구조적 분석을 이룩해내고 있는 개념으로 존재한다(II.1).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그레마스는 “isotopie(동류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레마스는 물리학과 화학 분야로부터 용어 isotopy(동위원소; 이하 동류체로 번역한다)를 빌려왔으며, 새로운 응용분야의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작용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의미론적 분석에 전용되었다. 작용적 개념으로서, 먼저 동류체는 착란적인 발화(discursive utterance; discours=énoncé-확실한 발표·진술·기술로서의 담화)의 동차성을 보증하고 있는 강류의미소(classeme)의 결합체적(syntagmatic) 연쇄 고리를 통하여 반복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정의의 관점에서 그것은 동류체의 확립을 허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화맥으로 고찰될는지 모르는 적어도 두 개의 의미소 격상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결합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의미소 범주(semic category)의 관점에서는 두 개의 대당 텀을 포섭하는 것이다. 그들이 발생될 수 있는 궤도를 고찰할 때, 기호사각형의 네 개의 텀은 동류체라고 일컬어진다.

게다가 동류체는 그가 “부동(不同) 단위의 동치의 원리”라고 호칭하는 것의 형식으로 존재한다(VI.2.b). 구조의미론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문장의 한계를 초월한 담화의 의미론적 분석을 허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자의 특별한 저서의 작용적인 정의와 함께 그가 제공하는 것에 의해 그렇게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문학비평에 중요한 것으로 존재한다. 최근의 문학비평은(프랑스에서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선도를 추종하고 있는) 어떤 문제로서의 말없음의 말

로서의 작품의 지시(또는 언외지의, designation)와 그 한계, 즉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생산의 연기로만 경험된 텍스트...”라고 호칭한 것으로부터 말없음의 말로서의 독단적인 작품의 지시와 그 한계를 관측하게 되었다. 단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특별한 작품은 언어 안에 전개된, 그리고 오로지 담화의 동기 안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독단적으로 잘라낸다.²⁵³⁾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 특별한 작품이(Lord Jim, 또는 Georges Bernanos의 소설을 말한다) 현대비평(contemporary criticism)의 우월로, 즉 천착의 대상이 아니라, 천착을 필요로 하는 말없음의 말로서의 작품의 지시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한다. 인정된 이 새로운 비평은(즉,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완전성, integrity) 어떤 단어 안에서, 축어성(逐語性) 그 자체의 바로 그 텅 안에서, 텍스트간의 관련성·독자의 반응·현상학(phenomenology), 등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더 길게 존재할 수 없는 그 작품은(어휘소, 음소, 또는 문장과 같은) 문학연구를 위한 최소단위인 것처럼 짐짓 가장된다.

동류체의 개념은 이러한 정당화를 창조한다. 본래 모습의 완전성(부여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 귀납적이지 않은)을 입증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고찰의 장으로서의 그 특별한 작품을 복위시킨다. 따라서 그레마스는 다음과 쓰고 있다. “텍스트의 동류체적 성격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 폐포하는 경향에 의해 의미세계를 탐구하는데 제공된 가능성은 실어증 환자들의 파롤의 전개와 관계가 있는 뒤부아(Jean Dubois)의 관찰에 의해 확립된다. 낸시 연구소 주최 국제응용언어학 세미나(1964)에서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 그는 결합체적 다의(多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속된 텍스트의 관찰된 특이성을 주장한다. 확장됨으로써, 텍스트는 더욱 더 과분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를 차츰 줄여나간다. 그러나 선취권이 있는 구조의 중복으로 인하여, 그것은 동시에 자율적 하위부호를 발전시킨다(VI.3.c).” 동류체의 개념은 항상 가장하고 사칭했던 것(비록 가장 최근의 경향도야로 인식되고 있을지라도)을, 즉 작품의 또는 그가 구조의미론의 마지막 장에서 증명한 것으로서의 발화자료체의 본래 모습의 완전성을 합리화하고(rationalizes), 실체화한다(substantiates).

더 나아가(이것은 과학적 투기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것은 저자의 권위로 복귀하

253)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작품으로부터 텍스트까지(From Work to Text,” *Image-Music-Text*, Stephen Heath(London: Fontana, 1977). pp. 157, 161. 이것은 텍스트 안에서 IMT로 인용될 것이다.

는 것이다. “저자의 죽음(1968)”에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언어에 대한 것을 문학의 감응으로 입증한다. “그것은 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음의 말로 말하는 언어로 존재한다. 내가 아니라 오로지 언어만이 행동하는, 즉 ‘연기’하는(perform) 그 찰나에 도착하는, 없어서는 안 될 개성물각(즉, 객관성)일지라도, 그러면서도 리얼리즘 소설가의 거세된 객관성(즉, 주관성)과 함께 하는데도 전혀 혼동되지 않은, 글쓰기로 존재한다.”라고(IMT, P. 143). 새로운 비평은 그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서의 작품의 한계를 만들음으로써 저자를 거부하는 몸짓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의적인 오류”와 같은 비평 상태 안에서), 저자의 권위를 떠맡는다. 작품의 본래 모습의 완전성을 가장함으로써, 또한 그것은 대자(對自, 즉자 또는 타자의 대당으로서의; the self)와 동일성(the selfsame)의 형이상학(Jacques Derrida “presense”라고 하는 것의 형이상학)을, 비평의 중점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상도야를 만든다.

노트: 여기서 우리는 데리다(Jacques Derrida)가 틀림없이 후기구조주의자로서의 최선의 성격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는 구조주의의 과학적 투기 없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구조주의 그 자체가 구조의 바로 그 개념 안에, “현존재(presence)” 안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투기는 저자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한다.²⁵⁴⁾

동류체(A. J. Greimas는 물질적 화학의 영역으로부터 텀을 차용했다)는 저자를 떠맡지 않고 독해하려고 시도하며, 물질적 실체 또는 자연적 지시 없이 언어를 독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담화의 이러한 의미론적 속성은 종결된 텍스트와 폐포된 의미세계 사이의 방정식의 유형을 확립하면서, 그러면서도 분할적인 기술을 합리화시킨다.”라고 쓰고 있다(VI.3.c). “방정식의 유형”이 동류체의 유형이든지, 또는 동류체가 가능할 수 있는 “완성 텍스트”의 비-권위를 천착하고 있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그의 “베르나노스의 몽상”은(예를 들어, J. Hillis Miller의 “디킨슨의 세계” 정도의 것도 아니지만, 전혀 유사하지도 않은) 전혀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존재

254) 데리다의 구조주의의 해체구축을 위해, 다음 Jacques Derrida의 논문을 보라. “힘과 의미작용(Force and Signification),” 그리고 “인간과학의 담화에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연기(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Human sciences),” 「글쓰기와 차이(Writing and Difference)」, Alan Bass 역(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그라마톨로지에 대한 데리다의 주요한 요점(A major thrust of Derrida’s Of Grammatology),” G. C. Spivak 역(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해체구축이다.

한다. 그는 폴레(Georges Poulet)²⁵⁵가 또 다른 의식과의, 저자와의, 그러나 오히려 “그 자체로 폐포된 의미론적 초미우주”와의 조우를 “독해의 현상학”이라고 언급한 것처럼,²⁵⁶ 탐색하지 않는다(VL3.c).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류체와 동형성(isomorphism)과의 편차는 그레마스에게는 중요하다. 그가 구조의미론에서 동형성을 결코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대신에, 그것은 그의 구조적 투기가 기초된 것 상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구조의미론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따라서 소쉬르적인 개념 안에서의 두 측면(소쉬르적인 개념 안에서 “of language/of language”—“표현의 language와 내용의 langage”) 간 동형성의 가정은 표현측면 상의 (=pheme) 편차적인 특징과 상응하는 최소의미작용의 단위(=seme)로 의미론적 우주를 아티클레이션으로서의 의미론적 구조를 마음속에 그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단위는 이원미소적 범주(구성의 규칙으로 마음속에 그려진 이원성인, 그리고 필시 그들의 경험의 모드로부터 규정된 것이 아닌, 즉 귀납적인 것이 아닌) 안에서의 표현의 편차적인 특징처럼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Du sens, p. 40).

동형성은 서로 다른 레벨 또는 언어의 측면 간 형식적인 상응으로 존재한다.

동형성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적 네트워크의 가능한 동차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기호학적(semiotic) 측면과 또는 레벨과 관계된 둘 또는 몇몇 구조의 형식적인 동정(同定)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동형성은 동차성 안에서 표현측면의 아티클레이션과 내용의 아티클레이션으로 인식될 수 있다.

255) Georges Poulet: 벨기에 세네 출생. 리에지대학교에서 법률과 문학을 전공, 에든버러대학교 강사를 거쳐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교(1952~1957), 이어 쾰리히대학교(1957)의 프랑스 문학 교수를 지냈다. 그는 시간·공간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의를 철학적 시점에서 추구하였다. 주요저서에는 「인간적 시간의 연구(1950~1964)」, 「원(圓)의 변용 Les Métamorphoses du cercle(1961)」, 「프루스트적 공간 L'Espace proustien(1963)」, 등이 있다. (역주)

256) 폴레(Georges Poulet), “독해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Reading),” in Issues in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Georges Poulet 역(Boston: Little B개주, 1975), p. 104.

phemes : sense :: phonemes : sememes

:: syllables : semantic utterances

(Dictionnaire raisonné)

노트: 구조의미론을 통해 그레마스는 레벨(level; niveau)과 측면(plane; plan)의 두 텀을 구별하고, 우리는 번역을 통해 이러한 정의를 엄밀하게 유지한다.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측면은 “소쉬르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진척된 이분법 signifiant/signifié의 두 텀”을 구별한다. 따라서 측면은 이원대당의 한 원소를 지시하고, “상호전제”에 의해 함께 연결된 그것의 대당을, 또는 그가 “반대(contrary)”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함축한다(X.14). 반면에 레벨은 부재(absence)가 함축된 영역을, 즉 “모순(contradictory)”과의 “상호작용”을 함축한다. “정치적 무의식”에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텀 “모순”과 “이율배반(antinomy)”을 이들로부터 구별해낸다.²⁵⁷⁾

그때 동형성은 착란적인(discursive) 발화를 그들의 동차성으로 확증하고 있는 담화의 동류체적 “반복상(iterativity)”으로부터 구별해냄으로써, “형식적인 동정”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결합체적인(syntagmatic) 축과 대당이 됨으로써 계열체적인(paradigmatic) 것으로 존재한다. 결국 동류체는 그의 기호사각형으로 존재하고, 동형성은 그들의 가능한 동차성을 보증한다. 그는 또 이렇게 쓰고 있다. “담화의 이러한 의미론적 속성(그것의 동류성)은 종결된 텍스트와 폐포된 의미세계 사이의 방정식의 유형(즉, 동형성)을 확립하면서, 그러면서도 분할적인 기술을 합리화시킨다.”라고(VI.3.c). 동류체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론 안에서 전체를 위한 부분을 선택하도록 허락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체를 동형적인 것으로서의 부분으로 마음속에 그리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의 서로 다른 측면과 레벨(음운론과 의미론에 의해 천착된 표현과 내용,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의미론적 레벨)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함께 동류체의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허락한다. 그 관계는 담화의 동차성으로(동류체로) 존재하는 원소(syntagm/paradigm, part/whole, isotopy/isomorph)로 만들어진 언어의 결합체적인 그리고 계열체적인 양상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사하게(즉, 동형체적으로) 만들어 그렇게 존재한다. 그것은 상호전제의 관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구조

257)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 82.

의미론에서 그는 사전에서 서로 동형체적인 크로스워드퍼즐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담화의 동류체의 정의를 진척시킨다.

「기호학: 랑카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의 양측 정의의 공통점은 기호사각형의 “동차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차(homology; 위상공간의 상동·화학의 동족; 자연과학으로부터 A. J. Greimas가 차용한 또 다른 텀)는 구조의미론 안에서 진척된 텀이다. 그레마스는 몇 년 후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이 나올 때까지 그의 기호사각형의 개념을 진척시키지 않았었다.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에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언급한 것처럼, 동차는 “동형성 또는 구조적 병치법(parallelism)”에 주석을 단다(p. 43). 구조의미론에서 그레마스는, 동차성은 “환원(reduction)과 구조의 상보적 절차”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만약 조정적인 텀으로 고찰된 의미소적 내용 S(즉 적어도 어느 한 의미소)를 공동으로 갖고 있는 그들이 어의소 비S와 비S' 안에서 그것의 부정적인 형식 비s 아래 나타나게 된다면, 두 어의소(의미의 특별한 효과의, 즉 특별한, 일의적인, 표출된 의미작용의 음소와 유사한 다시 말해서 동형체적인, 그의 개념) S와 S'는, 비S와 비S'에 대하여 동차적인 것이라고 호칭될 것이다(IX.3.f).” 따라서 그는 동차성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단다.

$$S_{(s)} \quad \text{VS} \quad \text{비}S_{(\text{비}s)}$$

$$S'_{(s)} \quad \text{VS} \quad \text{비}S'_{(\text{비}s)}$$

노트: 이것은 그레마스가 수학의 동차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상공간의 상동(相同)의 개념으로 대치하여 생각하면 오히려 쉽다.

$$\left\{ \begin{array}{l} S_{(s)} \\ S'_{(s)} \end{array} \right\} (\text{지도상의 한반도}) \quad \text{vs} \quad \left\{ \begin{array}{l} \text{비}S_{(\text{비}s)} \\ \text{비}S'_{(\text{비}s)} \end{array} \right\} (\text{지구상의 한반도})$$

계층의 하위개념적(hyponymic) 관계는 s_1, s_2 , 그리고 S 사이에서 확립되고, 다른 것들은 \bar{s}_1, \bar{s}_2 , 그리고 \bar{S} 사이에서 확립된다. —“의미론 제3장 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참조.

$$\begin{array}{cc} S & \bar{S} \\ \wedge & \wedge \\ s_1 \quad s_2 & \bar{s}_2 \quad \bar{s}_1 \end{array}$$

그리고 “제9장 기술의 절차, f. 동차와 생성,”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만약 어의소 비S와 비S' 안에 비s의 부정적 형식 아래 동시에 출현된 정위의 텀으로 고찰된 의미

소적 내용 s(즉 적어도 어느 한 의미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두 어의소 S와 S'는 비S와 비S'에 대하여 동차적이라고 호칭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 기술적 어의소에 대한 어의소-발현 S와 S'의 환원은 이러한 환원이 부정적 범주형식 아래, 발현 비S와 비S'의 병치적 목록으로 환원될만한, 그리고 동시에 다른 기술적 어의소에 출현되지만 하면 타당하게 되며, 그것은 첫 번째 것에 대하여 동차적이다. 따라서 인식된 동차는 환원과 구조화를 잇달아 포섭한다.”를 참조하라. (역주)

우리는 그가 제6장에서 실례와 함께 사용한 이러한 동차성을 고쳐 쓸 수 있는데, 거기서 그는 어의소 tête(head)의 핵을 정교하게 만든다. 실례에서의 의미소적 내용 s는 “연속성(continuity)”으로 존재하며, 비s는 “불연속성(uncontinuity)”으로 존재한다.

S (s: 연속성)	VS	비S (비s: 불연속성)
tête d'un canal(entrance of a canal) (운하의 머리, 운하의 기점)		fourgon de tête(the lead car of a train) (화물차의 머리)
S' (s: 연속성)	VS	비S' (비s: 불연속성)
tête de ligne(head of line) (선의 머리, 기점)		tête de cortège(head of a procession) (행렬의 선두) (VI.2.a)

이러한 동차성은 그레마스가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안에 제공한 정의상에 기초한다. 그 기본구조는 우리가 시작과 함께 소쉬르로부터 전수받은 패시지 안에 암시되어 있다. 즉, 그것은 조정적인 텀 없이 이원적인 대당의 구조(A. J. Greimas가 이원적·의미소적인 범주라고 호칭하는 것)로 존재한다. 이미 그가 제2장에서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의미소가 내용의 최소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비s는 부재(absence)가 아니라 “반대(contrary)”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연속성”은 선에 대한 점으로서 “연속성”과 대당으로 존재한다(IV.2.c). 이것은 그레마스가 발아시키고 있는 것, 즉 야콥슨(Roman Jakobson)의 “무표의(unmarked),” 또는 부재의(absent) 특징과 다른 그래서 편차적인 특징으로, 따라서 야콥슨(Roman Jakobson)의 모델과 다른 편차로 존재한다.

의미소의 비존재는 의미소가 아니며 오로지 표출의미작용의 레벨에 등록될 수 있을 뿐이다. 2개의 일치하거나 편차 있는 의미소의 화맥은 제1의 화맥에서 의미소 s의 현존재에

의해 해석될 수 있고, 제2의 화맥에서 동일한 의미소 s의 부재(the absence)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그 부재를 관습적으로 우리는 \bar{s} 라고 부른다(II.8).

이것은 내 논법에서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이유는 음운론(또는 화학, 또는 “수학적 논리 또는 논리 그 자체”)이 그렇게 정위되지 않는 방식 안에서 담화의 함수로 때 맞춰 의미론을 정위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미론적 레벨의 중추적인 망상을 보강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실은 그레마스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3가지 기본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야콥슨(Roman Jakobson)의 편차적인 특징을 창조하고 있는 “연언(conjunction)/선언(disjunction),” 그리고 그의 의미소(이원적인 관계, 즉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 의미소적 범주(II.12)로 선택된 각각의 의미소 간, 부분과 전체 사이의 “하위개념적(hyponymic)/상위개념적(hyperonymic),” 그리고 또 다른 범주의 원소 사이의 관계 “하위계열적(hypotactic)/상위계열적(hyperotactic)”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창조한다(VI.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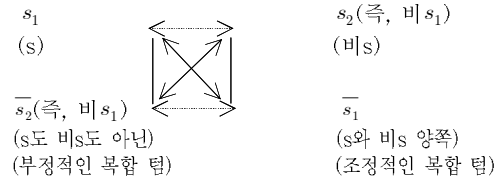
그가 셋 중에서 통사적인 것으로서의, 그리고 그들과 다른 범주의 둘과 구별하는 이 마지막의 관계(hypotactic/hyperotactic)는 부재와 대당이 된 의미소s를, s도 비s도 아닌 것을 허락한다.

$$\frac{\text{명령법}}{s} \text{ vs } \frac{\text{직설법}}{s\text{도 비}s\text{도 아닌}} \text{ vs } \frac{\text{가정법}}{\text{비}s} \quad (\text{I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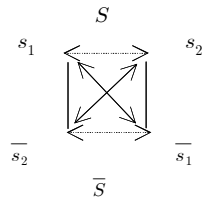
그것은 여기 그레마스의 실례가 언어의 착란적인 레벨로부터 나온, 그리고 그가 구조의미론의 동차성을 기호사각형으로, “연언과 선언의 이중관계(“상호작용,” p. 88)”로 진척시킨(또는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개작하여 적용시킨”),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안에서 나온, 의미작용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그는 내가 구조의미론으로부터 추론했던 동차성의 실례의 어의소를 위한 “기호학적(semiotic) 체계”로 치환하여 실행한다. 이렇게 개작함으로써 s_2 는 s_1 (즉, 비 s_1)과 이원대당으로 존재하고, 반면에 \bar{s}_1 (즉, 구조의미론의 $-s_1$)은 s_1 의 부정(또는 “모순; contradictory” 또는 “이율배반; antinomy”)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동차화된 모순 관계”를 추종하고 있는 표기법은 구조의미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frac{s_1}{s_1} \approx \frac{s_2}{s_2}$$

이것은 기호사각형이 된다.



노트: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반대관계(relation between contraries), 모순관계(relation between contradictories), 함축관계(relation between implication)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알지라스 켈리엔 그레마스, 폴 J. 페롱(Paul J. Perron), 프랑크 H. 콜린스(Frank H. Collins) 역, 『On Meaning-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1987)』, pp. 49~53.



- $\langle \text{-----} \rangle$: 반대관계(relation between contraries)
- $\langle \text{====} \rangle$: 모순관계(relation between contradictories)
- : 함축관계(relation between implication)

기호학적 체계의 구조

따라서 만약 연역적 고찰이 귀납적 기술과 조우한다면, 그것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가 체계로서의 총체로 획득된 의미론적 세계를 형식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의미론적 축으로서의 그것이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은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은 계층에서의 상위구조와 동형적인 구조로 조직된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기본구조는 의미소와 기호학적 체계의 구성체계적 실례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내용 삶과 죽음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작품의 총체로서의 의미론적 세계를 예위싼다. 즉 s_1 vs s_2 의 각각은 각기 s_1 vs $\overline{s_2}$, s_2 vs $\overline{s_1}$ 로 전사(轉寫)된 2개의 체계적 실례(부정적 그리고 조정적 정의)의 아티클레이션을 만든다..

먼저 구성모델의 형식적 속성을 정의하기로 하자. 그때 우리는 투자의 예를 제공할 것이다.

모델의 텃: 각각의 4개의 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작용(모순과 반대)의 증명사에 의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는 형식적이고 어떤 투자에 선행한다.

관계:

1. 계층적 관계:

하위개념적(hyponymic) 관계는 s_1 , s_2 , 그리고 S 사이에서 확립되고, 다른 것들은 \bar{s}_1 , \bar{s}_2 , 그리고 \bar{S} 사이에서 확립된다.

2. 범주적 관계:

모순관계는 S 와 \bar{S} 사이에서 확립되고, 계층적으로 보다 낮은 레벨에서, s_1 와 \bar{s}_1 사이에, s_2 와 \bar{s}_2 사이에 확립된다.

반대관계는 한편으로는 s_1 과 s_2 로, 다른 한편으로는 \bar{s}_1 과 \bar{s}_2 로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 자신의 용어에 의하면, 그것은 결속 또는 이중전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는지 모른다.

노트: 모순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반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두 작용은 다음과 같이 밀려들게 된다. 즉 s 의 반대의 반대는 s 이며, s 의 모순의 모순은 s 이다.

함축관계는 한편으로는 s_1 과 \bar{s}_2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s_2 와 \bar{s}_1 사이에 확립된다. 즉 s_2 는 \bar{s}_1 을 함축하고, s_1 은 \bar{s}_2 를 함축하며, 또는 그 역으로 함축한다.

차원: 관계적 정의에 의해, 의미소적 텃은 6개의 체계적 차원 안에서 짝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2개의 축(axes) S 와 \bar{S} : 그들의 관계는 모순 중의 하나이다. S 는 복합 축으로 호칭될는지 모른다. 그것은 s_1 과 s_2 를 포섭한다. \bar{S} 는 모순 \bar{s}_1 과 \bar{s}_2 (s_2 와 s_1 의)의 축이다. 따라서 그것은 s_1 과 s_2 와의 관계에서 중립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 s_1 으로도 또는 s_2 로도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2개의 도식(schemata); $s_1+\bar{s}_1$ 는 도식1로 정의되고, $s_2+\bar{s}_2$ 는 도식2로 정의된다. 각각의 도식은 모순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3. 2개의 직시(deixes); 첫 번째는 s_1 과 “ s_1 과 \bar{s}_2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두 번째는 “ s_2 와 \bar{s}_1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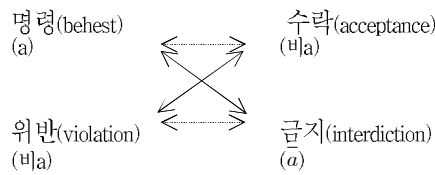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동반하는 도표를 갖게 된다.

구성적 관계	구조적 차원	의미소적 구조
반대	S 축(복합적) \bar{S} 축(중립적)	$s_1 + s_2$ $\bar{s}_1 + \bar{s}_2$
모순	도식1 도식2	$s_1 + \bar{s}_1$ $s_2 + \bar{s}_2$
단순함축	직시1 직시2	$s_1 + \bar{s}_2$ $s_2 + \bar{s}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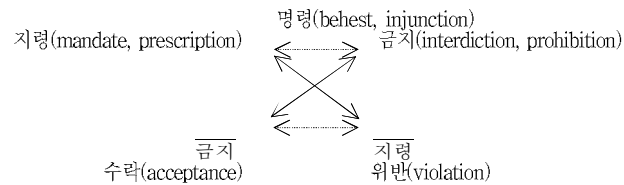
우리는 다양한 체계적 차원 사이의 관계를 예견할 수 있다. 반대관계에 의해 구성된 2개의 축은 모순관계 안에 그 자신을 존재케 한다. 모순관계에 의해 정의된 2개의 도식은 반대관계 안에 그 자신을 존재케 한다.

우리는 두 도식의 이중전체를 기호현상(semiosis)이라고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원전체가 단순모델의 두 도식으로 고찰된 언어학적 내용과 표현의 그것과 상응할는지 여멸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연구하기 위하여 비축해둔다. (역주)

그레마스는 기호사각형의 동차성을 매우 명백하게 기술하고, 의미소적 원소 “명령(behest)”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계약·응축(contract)”의 범주를 고찰한다(VI.2.e).



노트: 아래 도표와 비교가 필요하다. Ibid., pp. 52~54. 참조. (역주)



그레마스는 금지(interdiction)가 “지령(behest; 명령의 하위개념인 mandate 또는 prescription이어야 할 것이다. -역주)”의 “부정적 변형”이며, “위반(violation)···그것이 수락(acceptance)의 부정의 형식이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완전히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act)에 대한 의지(will)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금지(interdiction)와의 대당 속에서, 그것은 연기(action)의 금지(prohibition)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낸시 암스트롱(Nancy Amstrong)은 최근에 이러한 도식(scheme)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일단 의미의 어느 단위(s_1)가 마음속에 그려지면, 우리는 그 의미의 부재(\bar{s}_1)를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그리며, 마찬가지로 의미의 대당체계(s_2)도 그 자신의 부재(\bar{s}_2)를 상응적으로 포

함한다.”²⁵⁸⁾

노트: 현대논리학은 처음에 반대의, 즉 동등하거나 대등적인 것(대당 “남자다움” vs “여자다움”과 같은. II.7) 중에서 대당의 동치(equipollent) 관계(s_1 과 s_2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한 \bar{s}_2 와 \bar{s}_1 사이의 관계)를 지시한다. 두 번째로 그것은 모순의, 즉 s_1 과 \bar{s}_1 , 그리고 또한 s_2 와 \bar{s}_2 사이의 결성적인(缺性, privative) 관계를 지시한다. 즉 현존재 또는 어떤 성질(quality; “충만 vs 공허, 유표 vs 무표”와 같은)의 부재에 의해 형성된 대당관계를 말한다. 세 번째, 논리적 대당(대당의 논리적 가능성을 자세하게 구명)은 독단적인(또는 층계송적인) 관계(s_1 과 \bar{s}_2 , 그리고 또한 s_2 와 \bar{s}_1 사이의 관계)를 지시한다. 즉, 문화적인 것(그러므로 독단적인)에 의해 형성된 그 대당은 “금발” vs “브루넷(살갭·머리·눈이 거무스름함)”과 같은 범주를 만들어낸다.²⁵⁹⁾

기호사각형은 논리적 가능성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지도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원대당(S 와 \bar{S} , 즉 S 와 \bar{S})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즉 반복되고 겹쳐진 그 사각형은 그들 최소원소 사이의 논리적·구조적 관계를 자세하게 구명(究明)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호사각형은 문학비평에 제공했던 가장 유용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이렇게 말한다.

그레마스의 도식에서 의미론 또는 기호학적(semiotic) 구조는 그가 리얼리티 그 자체의 논리적인 구조로 선택한,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역사적인 형식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간 그 리얼리티의 기본적인 범주로 설립된 것을 상세하게 지도로 나타내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게다가 에코(Umberto Eco)가 존재론적 구조주의(ontological structuralism)라고 이름 지었던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위해 그것은 어쨌든 논리적 또는 수학적 사고의 범주의 존재(being)와 단기지속성(permanence)을 타고났으면서도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레벨”은 그레마스의 도식 안에서 동차성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동일 원소적인 개념 또는 기호학적(semiotic) 범주에 의해, “의미 작용의 기본구조” 또는 기호학적(semiotic) 사각형(또는 육변형)의 범주에 의해, 열심자로 교차되어 조직되기 때문이다.

258)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의 입장에서: 문학적 성격과 문화적 구속(Inside Greimas’s Square: Literary Characters and Cultural Restraint),” in *The Sign in Music and Literature*, Wendy Steiner(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p. 54.

259) 이러한 편차를 위하여(특히 “층계송(層階頌, gradual),” see N. S. Trubetzkoy, *Principles of Phonology*, Christiane A. M. Valtaxe(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p. 74~77. 층계송(層階頌); 가톨릭 미사 때에, 제1독서 후에 그 응답으로 읽는 경문. 성경을 낭독하는 층대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생긴 말이며, 주로 시편으로 이루어진다. (역주)

“정치적 무의식”에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기싱(George Robert Gissing, 1857~1903, 영국의 소설가),²⁶⁰⁾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 폴란드 태생의 영국 해양 소설가), 발자크(Honore de Balzac, 1799~1850, 프랑스의 소설가) 등에 대하여 으스스하며 쓴 독해에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호사각형의 문학적 유용성을 매우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언어의 감옥(The Prison-House of Language)」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적 실천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정향(position) 가운데 오로지 3개만 부여된 개념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을 빈번히 생산한다. 그 중에서 최후의 s_2 은 마음속의 자리수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cipher) 같은 것 또는 불가해한 사물(enigma) 같은 것으로 잔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델의 진척은 2개의 다른 지시(direction)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내용과 함께 추론된 용어법의 대치를 수반할는지 모르며, ...또는 행방불명의 틈을 탐색하는 그 형식을 선택할지도 모르며, ...우리는 이제 변증법적(dialectical) 철학으로 잘 알려진 “부정의 부정(negation of negation)”보다 더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동정할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정적인 도약이며, 우리가 체계를 불완전한 상태(...부여된 4개를 반드시 3개로 만드는)로 매우 종종 진척시키고 있는 바로 그렇게 새로운 의미의 생산 또는 생성이기 때문인 것이다.²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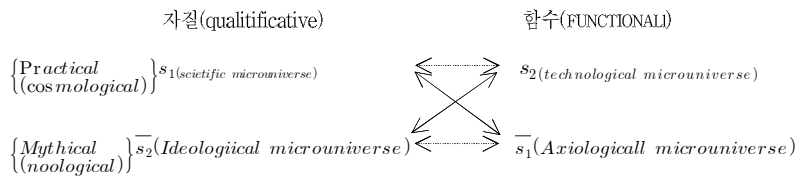
260) 기싱(George Robert Gissing, 1857~1903). 영국의 소설가. 중하류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쓴 대담한 사실주의 소설로 유명하다. 유난히 조숙했던 그는 케이커 기숙학교와 맨체스터에 있는 오웬스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학교성적이 뛰어났다. 죽기 전 몇 년을 빼고는 그의 삶은 대부분 불행했다. 처음에는 창녀, 2번째는 하녀와 결혼했는데, 이 2번의 결혼은 비참하고 궁핍한 삶과 생계유지를 위해 읽고 쓰고 가르치는 변화 없이 단조로운 생활만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이 <새로운 그러브 스트리트 New Grub Street> (1981)와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수기 The Private Papers of Henry Ryecroft> (1903)에 잘 묘사되어 있다. 21세가 되기 전에 자기가 존경했던 발자크 풍의 연작장편소설을 쓰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다. 첫 번째 소설은 1880년에 출판한 <새벽 노동자들 Workers in the Dawn> 이고 이어서 21편의 소설들을 펴냈다. 1886~95년에 해마다 1편 이상의 소설을 발표했다. 또한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문학비평서 <찰스 디킨스 평론 Charles Dickens: A Critical Study> (1898)도 썼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회극적 시각에서 씌어져 진지하고 재미있으며, 매우 솔직하면서 다소 평이하다. 중하류계층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특히 여성심리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했다. 인간적인 연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함으로써 예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어서 당시 사회상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비판했다. 그의 작품에는 저속함과 추함, 삶의 절망 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인물묘사나 개인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묘사는 진한 호소력이 있지만 전체 효과 면에서는 예술적 활력이 부족한 편이다. 몇몇 비평가들이 유일한 결작이라고 평했던 <새로운 그러브 스트리트>는 문단생활을 지나칠 정도로 냉혹하게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말년에는 프랑스 여자 가브리엘 플뢰리와 행복하게 살았다. (역주)

261)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언어의 감옥(The Prison-House of Language)」(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 166.

만약 우리가 “기호사각형”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텀으로 끝내고 있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독해의 최초의 양상에 따른다면, 그것은 그레마스가 구성적 모델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일 것이다. 잔존하고 있는 “추상(abstract)”은 부정의 부정을 유도하는 것일 것이며, 그레마스가 변형 모델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일 것이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변형모델은 “역사의 관입(貫入, intrusion)이 단기지속성(permanence)으로” 존재하는 것이다(VII.5.e). 그것은 부정적인 복합 텀(s도 비s도 아닌)을 원소적인·조정적인 텀(s)과 대당시키는 것에 의해 독단적인 관계를 동치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인 텀(비s)을 복합구조로 뒤집어 실행하는 것이다(이것은 A. J. Greimas의 은유). 그때 복합구조는 또 다른 기호사각형을 생성하는 선언적인 범주로 분리된다. “위반(hehest, 즉 지령과 대당이 됨으로써)”은, 아직 반응이 필요치 않고, 필연적으로 “지령(hehest; 명령의 하위개념인 mandate 또는 prescription이어야 할 것이다. -역주)”에 따르지도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행되면, 관자놀이-시간적인 연속을 창조하는 그것은 “순수 연속성도 아니고 논리적 함축도 아닐 것이라고,” 그는 쓰고 있다(VI.2.f). 그것은 대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행된다. “위반은 사실 지령이며, 그것은 발신자의 부정을 포함하고, 그를 위해 수신자들로 대치된다(VI.2.e).” 게다가 변형은 계열체적 긍정(affirmation)을 결합체적인 그리고 대화적인 주장(assertion)으로 변형한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에 의하면, 추론된 텀은 추상의 가치(virtue)에 의해, 그리고 추론된 것이 그것의 역사적 상황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 복합 텀으로 포섭된다. 위에서 인용된 그레마스의 양태적인 실례(II.11)는 부정적인 복합 텀을 “가정법”과 “명령법”의 그 “시간을 역행하는 범주”와 대당이 되어 나타난 바로 그러한 우연성이 아니다. 그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그 조정적인 복합 텀은 “의문문(interrogative)”이 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기호사각형의 모델을 문학작품의 독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으며, 이제 이 서언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지만, 나는 그의 기호사각형의 텀 안에서 그레마스 자신의 초미우주를 검토하였다(VII.2.d). 제8장에서 그는 기호사각형으로 쉽게 그리고 스스로 분해되고 있는 “초미우주의 유형학”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과학적인 것과 가치론적인 것은 동차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함수적인·분석적인 것과 대당이 되는 것으로서의 자질의 원소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게다가 그들은 세계에 접근하는 “실제적인 것 vs 신화적인 것”의 범주와 대당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후의 대당은 독단적이고,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층계송(層階頌)적인 것이라고 호칭된 그 이유를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레마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색깔의 변화 같은 그 편차(Π.9)는 그가 내용의 실체(substance)의 의미론적 축이라고 하는 “연속체(continuum)” 위에서 독단적인 것으로 지시된다(Π.9).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의 “실제적인(또는 우주론적인, cosmological) 동류체,” “외부세계의 지식(VIII.1.a),” 그리고 “신화적인(또는 정신론적인, noological)” 동류체, “내부세계의 지식(VIII.1.a)” 사이의 그 편차는 층계송적인 연속체 상에 독단적으로 표지된다. 그것은 “행동적인” vs “심층적인” 범주 안에서 대당으로 존재하며, 로이 셰이퍼(Roy Schafer)가 프로이트(Sigmund Freud) 연구에서 기술한 그 “기계적인 모델과 원형적인 모델” 사이의 대당으로 발견될 수 있기까지 한다.²⁶²⁾ 다시 말해서, 독단적인 대당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언급하는 추상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문화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며, 기호학적인 것(semiotic)보다 오히려 세미올로지적인 것으로서의 체계로 다시 표지되기 때문이다.

내가 제공한 이 도식에서, 가치론적인 초미우주는 “조정적인 복합 텀”이다. 그것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가치이며, 자질적인 것과 함수적인 것 양쪽의 배후에 숨어서 몸에 배어있는 논리가 세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관념론적인 초미우주는 “부정적인 복합 텀”이다. 그 자신의 해석적인 합

²⁶²⁾ 로이 셰이퍼(Roy Schafer), “정신분석적인 대화에서의 화술(Narration in the Psychoanalytic Dialogue),” *Critical Inquiry* 7(1980): 31~32.

수의 지시를 통해서, 그것은 그것과 관련된 대상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논리의 가치론적인 경상도야, 다시 말해서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에서 그레마스가 언급한 가해성(加解性)의 경상도야를 거부한다. 그것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부정의 부정”이다. 더 나아가 과학적 초미우주(가치론적인 것이 전문적[기술적·기교적] 초미우주와의 총계송적인 관계로 존재하는)와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그것은 과학적인 투기의 관념론적인 기초를 폭로하는—즉,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언급한 것처럼, 서구 형이상학의 기초 경상도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나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 관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그 이유는 그것이 구조의미론의 진척(어쨌든 내 독해 안에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마지막 3개의 장 안에 제공된, 따라서 그레마스가 언급한 그것은 분명히 “가정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을 것인 보편화...”의 “추측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의미론의 그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iques) 초미우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IX.3.g). 기호사각형의 성질은 추측적이고 가정적이다.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²⁶³는 그레마스의 투기에 관해 언급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에 관해(그의 저서는 Louis Hjelmslev가 구조의미론을 위한 “가치론적인” 모델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기초적인 “전문적[기술적·기교적]” 모델을 제공한다)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분석의 보편적인 대상”은 무의식적인 “인간의 마음” 안에 정위된 치환과 조합의 가능성이 농후한 대수의 행렬(matrix)²⁶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그 경험적인 형적은 단지 가

263)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 1910~1989): 영국 케임브리지의 말보로대학과 클레어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2차대전 중에는 버마(현재는 미얀마)에서 군복무를 하기도 한 리치는 초창기에는 런던경제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고, 이어 케임브리지대학교의 교수에 취임했다. 1972~1978년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사회인류학 교수로 재직했고, 1966~1979년에는 케임브리지 킹스대학의 학장을 지냈으며, 영국 국립인류학회의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리치는 주로 버마, 타이완, 쿠르디스탄, 스리랑카 등지에서 인류학 답사작업을 해 오면서 전문적인 인류학 저서 이외에도 일반적인 기고문, 서평, 강연, 라디오 방송 등 폭넓게 활동을 하여 당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학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버마 고원의 정치제도(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1954)」, 「폴 엘리야 실론의 한마을(Pul Eliya: A Village in Ceylon, 1969)」, 「인류학재고(Rethinking Anthropology, 1961)」, 「신화로 본 창세기(Genesis in Myth, 1969)」, 「달아나는 세계?(A Runaway World?, 1968;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그의 레이스 강연을 책자로 펴낸 것)」, 「문화와 커뮤니케이션(Culture and Communication, 1976)」,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 1982)」, 그리고 D. 앨런 에이콕(D. Alan Aycock)과 공저한 「성서 신화의 구조 분석(Structuralist Analysis of Biblical, 1983)」 등이 있다. (역주)

264) 행렬식: G. W. 라이프니츠가 연립방정식의 해법의 연구에서 고안한 것으로 다음의 과

능성이 있는 것의 실례일 뿐이다. 경험적인 사실과 비교됨으로써 보편화된 추상을 위한 이 동일한 특혜의 선취권(preference)은 레비스트로스의 글을 통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일어난다. 이제 그것은 레비스트로스 그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대상적인 존재자를 갖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임신한 것처럼 고찰한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의 속성(attribute; 귀속된 것으로서의)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의 문화적인 생산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속성을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인 현상”에 관한 연구는 발견과정의 본질적인 일부분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말에 증명사에 의해서만 존재할 뿐이다.²⁶⁵⁾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 그 자신은 이러한 구조주의자의 투기를 위한 감응의 결핍으로 분명히 나타내며,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패시지 안에 나타나든지 어떻든지 하여간 단어 “언어”를 대치하는 것에 의해 그레마스의 목표의 보다 더 좋은 의미를 얻게 될는지 모르며, 따라서 그것은 가능한 “치환과 조합의 행렬”에 의해 좌우된 인간의 두뇌로 존재한다.”고 단언할지도 모른다. 사실, 내가 제안함으로써, 그것은 그레마스가 그의 절차에 많은 것을 채택하는 심령현상적인 실체를 분명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는 그레마스를 독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그의 담화가 엄청나게 추상적인 레벨(Jonathan Culler[Structuralist Poetics, p. 83]와 Marc Eli Blanchard[Description, p. 3]은 Georges Bernanos가 그에게 충당된 마지막 제12장에서 결코 인용되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투기의 중심과학적인 양상, 즉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모든 사건은 확립된 그들의 실현화를 위한 조건(Prolegomena, p. 9)”으로 예견되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서의 이론이라고 한 것에 이르고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분석의 보편적인 대상”이 “가능한 치환과 조합(조합적인 원소의 Louis Hjelmslev의 목류를 조합 가능성에 따르고 있는 보다 상위의 강류로)”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 포함된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비인격 즉 개성물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언어의 어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레마스가 물질과학으로부터 그의 팀에 차용한 많

정을 거쳐 계산한다. ① 행렬식 D의 어떤 행(열)의 각 원소에 동일한 수 t를 곱하면 행렬식은 tD가 된다. ② D의 두 임의의 행 또는 열을 바꿔 놓으면 -D가 된다. ③ 하나의 행(열)에 t를 곱하여 다른 행(열)에 더하여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④ 행과 열을 바꿔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⑤ D의 i행(열)이 aik=aik'+aik'' (k=1,2,...,n)이고, D의 aik 대신 aik' 또는 aik''로 놓은 행렬식을 D', D''라고 하면 D=D'+D''가 된다. (역주)

²⁶⁵⁾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 Claude Lévi-Strauss(New York: Viking, 1970)), p. 40.

은 것을 그대로 믿는다. 조합과 개성물각의 융합이라고 하는 능동성은 수학과 물질적인 화학을 사실상 그를 위한 뒷받침과 확증으로 이루어진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미의 효과(l'effet de sens), 즉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이탈리아 체로 썼던 어떤 프레이즈는 특별하게 파악된 의미를 그저 단순하게 의미할 뿐이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그것을 “의미-효과(meaning-effect)”로 번역하고, 그것을 그레마스의 진취적인 정신의 본질적인·추상적인 성질의 유표로 바라본다. 마치 우리가 대상을 위해 모든 의미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의미작용 그 자체 만으로의 텀 안의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으며, 내용과 관계없는 그들 모두가 서로 공통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의미의 영역 밖의 정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하도록 강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Prison-House, p. 8). 우리가 이탈리아 체로 썼던 또 다른 텀 포르만트(formant)를, 우리는 음운론적·형성적 원소로 번역했다. 반면에 그레마스는, 포르만트는 “음소적 조합”이라고 주장하며, 어의소(sememe)는 “의미소(eme)의 조합”이며, 특별한 어휘소 안의 그들의 연합은 언어의 두 측면의 정상적인 통합으로 고찰되는 게다가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VIII.3.a). 포르만트는 또 다른 추상이다. 그가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어떤 무엇의 포르만트...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며,” 그리고 용법에 속하는 것이지 구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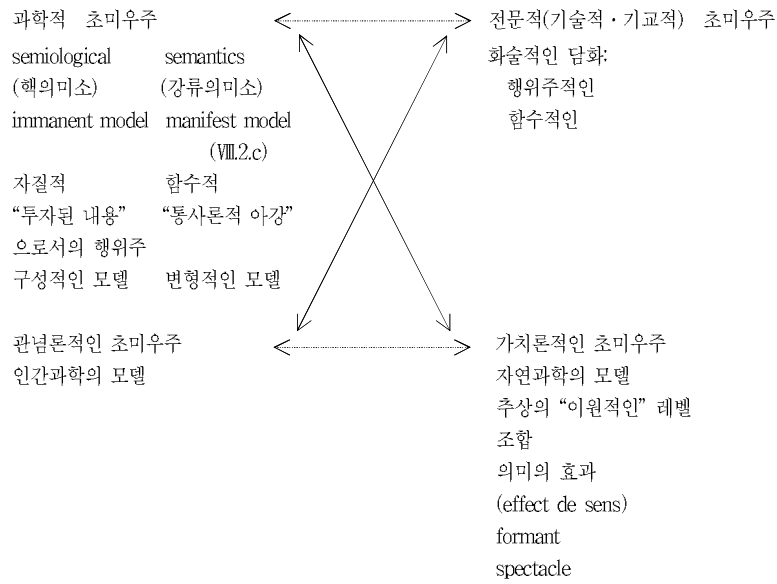
이렇게 기술적인 텀과 마찬가지로, 그레마스는 몇몇 질차적인 텀을 진척시킨다. 여기서 소개할 가장 중요한 것(그가 과학적 투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며, 그 명사는 우리가 가능한 조합, 조합적인, 조합으로 다양하게 번역했던 그 가능한 조합의 장소(locus)를 의미한다. 「기호학: 랑가주에 관한 이론의 설명사전」에서 그는 “중세의 'combinatoria'로부터 유래된 'la combinatoire'가 학문의 한 분야로, 오리려 아주 적은 단순원소로부터 아주 많은 것으로 조합된 원소를 찾아내는, 수학적 계산법으로,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언급한다. 우리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로부터 과학의 최초의 정의와 레비스트로스와 그레마스의 투기의 나중의 정의, 양쪽을 관찰했던 것처럼, 그것은 구조의미론을 이해하는데 중심적인 조합의 이러한 의미로 존재한다.

노트: 이러한 추상의 레벨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텀은 spectacle이며, 그것을 우리는

망설이며 “drama(번역과 함께 항상 spectacle을 주석으로 달며)”로 번역했다. 그레마스, drama가 암시하는 관계의 “조합”의 의미와, 또한 spectacle이 암시하는 관자놀이-공간적인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의 의미 양쪽을 욕망한다. 그것은 레비스트로스가 무시간의 모체구조라고 하는 것을 지시한다(S&F, p. 138).

그러나 추상명사 combinatoire(그것은 어쩌든 “form”으로서의 변화과정으로 정위된다. VII.2.b)의 사용은, 우리의 이해(또는 오성[悟性], understanding) 그 자체에 암시적으로 부언하는 것 없이 의미론의 구조적·형식적 투기(그리고 침언하면, Edmund Leach의 구조주의에서의 감응의 결핍)를 수사학적으로 조합하는 것이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그것에 대해 정의한 것처럼, 과학은 그것이 가능한 조합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내포하고 있는 “조합적인(combinatory)”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물화(tréification)와 장소(location) 없이 이러한 가능성의 성취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위되는 것은 구조의미론의 중심 성향(性向, 또는 엇갈림, bias; 내가 그 텀 안에 포함된 “가치론”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배반하는 것이다. 물리화학으로부터 차용된 텀과 같은 그 은유(“level,” “plane,”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stage”로 번역한 “palier; 층계참,”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문학적으로 “level” 또는 계단의 “landing; 층계참”을 의미한다)는, 그레마스가 과학적 초미우주, 즉 자질적인 분석의 생산, 변화과정을 초월하는 체계, 경험적인 연기를 초월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 항상 실행되고 있는 과학을 포함하는 것처럼,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 관자놀이-공간의 그 은유 안의 우주를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서 나는 1개의 구조 안을 구조의미론적 초미우주의 범주 2개로 채웠다. 나는 과학적 초미우주의 목록을 제공하려고, 그리고 그 메타포 안에 가치론적인 초미우주의 목록을 제안하려고 시도했다. 다음에 나는 화술적인 담화의 행위주적인 그리고 함수적인 독해로 존재하는(일반적인 방식으로 내재적인·세미올로지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 레벨과 상응하는), 그 전문적(기술적·기교적) 초미우주에 손을 댈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레마스가 발견을 환기해내고 있는 실례의 성찬의 빵(또는 포도주)을, 그의 관념론적인 초미우주를, 인간과학의 의미를, 나는 고찰하게 될 것이다.



노트: 그레마스, Structural Semantics, p. 145를 참조하라. —초미우주의 유형학; 잠시 초미우주의 내적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쳐놓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먼저 표출의 특성상에서 발견된 초미우주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제안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표출의 다른 형식과 관련하고 있는 정보를 지금 곧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개의 분리된 목록, 즉 함수적인 메시지와 자질적인 메시지로 분류되어야만 하는 어떤 동류체 안에 정위된 메시지를 관측한다. 우리는 함수적인 모델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목록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조직의 이러한 모드를 고찰하고 있는 분석을 함수적인 분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의 두 번째 목록과 동일하다. 초미우주의 착란적인 표출로서 그것은 자질적인 모델의 조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 사용된 기술절차는 자질적인 분석의 명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 표출로부터 만들어질 때,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ological) 초미우주로 고찰하게 될 그 함수적인 모델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석에 대해 상술할 수 있다. 그것이 신화적 표출을 기술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나타나는 관념론적²⁶⁶⁾ 초미우주의 원인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그들이 실제적 표출을 내재할 것인 만큼 자질적인 모델은 과학적 초미우주로 고찰된다. 신화적 표출로부터 개시됨으로써, 그들은 가치론적 초미우주를 명백하게 한다. 따라서 내재로든지 표출로든지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고찰함으로써, 표출의 소인(素因)적 두 유형과 그들 조직의 예견할

266) 관념론(idealism); 인식론에 있어서는 관념론,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는 유심론, 인생관·세계관에 있어서는 이상주의로 해석한다. 여기서의 관념론은 칸트, 피히테, 헤겔로 이어지는 인식론적 관념론을 지시한다. (역주)

수 있는 두 형식(form)을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첫 번째 유형학을 상상할 수 있다. (역주)

모델	함수(functional)	자질(qualification)
표출		
실제적(practical)	전문적(기술적·기교적, technological)	과학적(scientific)
신화적(mythical)	관념론적(ideological)	가치론적(axiological)

3. 전문적(기술적·기교적) 의미론

과학과 전문성(기술·기교, technology), 자질(qualities)과 함수(functions)의 편차는 소쉬르의 위대한 공헌을 두 번째로 반복하는 것인데, 그 편차를 그는 언어의 공식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끌어낸다.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통시적으로 역사를 통해 진화시키는 것으로 관측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음소는 시간을 통해 변하는 것으로, 화맥에 의지하는 것으로 관측될 수 있다. 또는 어느 일순간에, 완벽한 구조, 즉 부분들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들 서로가 대당적으로 화해된 전체(whole, “구조”)에 의해 자체된 부분 스스로 사이의 대당에 의지하는, 부분 그들 스스로 사이의 관계에 의지하는, 전체 안의 통시적인 구조로 관측될 수 있다(이렇게 상호전제적인 관계는 원자의 변화된 미립자의 관계, 또는 Buckminster fuller의 지오데식 돔과 같은 구조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²⁶⁷⁾ 우리가 관측한 것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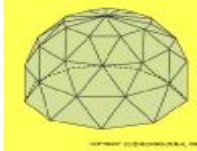
267) buckminster fullerene; 1. 순수한 탄소의 또 다른 존재 형태를 알려진, 새장같이 생긴 탄소 분자들의 총칭. 탄소의 다른 동소체(同素體)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 고체인 데 반해 탄소의 3번째 동소체로 알려진 풀러린은 유한한 분자로 분자식은 C_{60} 이다. 1985년 리처드 스몰리 등이 C_{60} 를 발견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이들이 얻을 수 있었던 C_{60} 의 양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구조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1990년 크레치머와 후프만이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양의 C_{60} 를 만들면서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C_{60} 는 20개의 6각형과 서로 접하지 않는 12개의 5각형으로 이루어진 축구공같이 생긴 분자로서 각 탄소는 이들의 꼭짓점에 위치한다. 실험을 통하여 C_{60} 를 이루는 60개의 탄소 원자는 모두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로부터 C_{60} 는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대칭성이 좋은 분자가 된다. 서로 접하지 않는 12개의 5각형과 25개의 6각형으로 이루어진 C_{70} 도 발견되었다. 32개 이상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탄소 덩어리 중 짝수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 특별히 안정하고 돔 형태의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와 비슷한 돔 구조를 설계한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총칭하여 풀러린이라고 부른다. 풀러린에는 돔 형태의 버키 볼(bucky ball: 풀러린의 애칭), 공이 아닌 튜브 모양의 버키 튜브, 동지 모양의 동지형 풀러린, 버키 볼에 추가된 탄소 원자로 인해 토끼의 귀같이 생긴 모양이 2개 달려 있는 버니 볼 등이 있다. 풀러린 중 특별히 안정한 것은 C_{60} 와 C_{70} 인데, 이중 C_{60} 는 완전한 대칭성으로 더욱 안정하다. 이들 풀러린의 안정성은 화학이론으로 설명되며, 이들로부터 C_{240} · C_{540} · C_{960} 등의 거대한 풀러린의 존재도 예측된다. 칼륨이나 루비듐 같은 다른 금속 원자가 C_{60} 의 격자 사이에 들어가 이루어진 K_3C_{60} 나 Rb_3C_{60} 같은 고체는 초전도성이 있으며, 또한 엄청난 압력에도 견딜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로켓 연료의 주성

러한 편차는 범주 “의미론적인 레벨 vs 세미올로지적인 레벨”을 통제하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관측한 것과 같이 메시지 표현의 통시적인 지위를, 그리고 지각의 “연속성이 동시성으로 그리고 의사통시성이 공시대로” 변형하는 것을 통제한다(VIII.2.c). 야콥슨(Roman Jakobson)은 언어의 두 양상 안의 이러한 편차를, 다시 말해서 언어 안에서 의미작용의 2가지 지배 모드가 서로 다른 단어 안에서 의미의 유사성에 기초된 치환으로 존재하는 실어증연구로, 그것을 그가 입증할 때, 우리가 이미 조우했던 바로 그 팀으로(즉, 사전의 유의어에 의해 최적으로 재현된 언어의 계열체적인 축—그리고 화맥에 의해 증여된 의미상에, —즉 담화 안에 창조된 그 결합체적인 축 상에 기초된 인접)²⁶⁸ 확장한다. 이러한 대당은 그레마스의 “차질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노트: 전에 언급된 편차적인 특징의 “꾸러미”는 소쉬르의 철학적 언어학상에 기초된 언어학에 대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공헌으로 존재한다. 즉, “언어의 두 양상”은 소쉬르의 공시성과 통시성에 관한 보다 더 순수한 언어학적 토론에 기초된 언어학에 관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철학적 공헌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관측했던 것처럼, 편차적인 특징에 관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공시적인 모델은 구조의미론의 과학적 초미우주를 지배한다. “신화의 구조적 연구” 안의 “신화소(mythemes)”를 진척시키고 있는 그 모델에 관한 레비스트로스의 용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레마스는 그것을 의미소, 그리고 그들의 “함수적인,” 또는 착란적인, 동치적인 행위주(actant, “행위주는 함수의 꾸러미로 구성된

분이 될 수도 있으며, 버키 볼의 탄소 원자와 플루오르 원자를 결합시켜 작은 테플론 공 형태로 만들어 품질이 우수한 윤활유나 불 베어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폴러린을 공이 아닌 튜브 모양으로 하면 버키 튜브가 되는데 이것은 탄소섬유보다 강하며, 극도로 얇은 버키 튜브는 칩을 연결하는 구리선을 대체함으로써 프로세서의 개발을 앞당길지도 모른다. C₆₀를 비롯한 폴러린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화학계의 쟁점으로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측지선(測地線); 어떤 공간 안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곡선. 평면 위에서는 직선, 구면(球面) 위에서는 대원(大圓)의 호(弧)를 이룬다. 3. geodesic domes; 측지선(測地線)을 따라 서로 장력이 작용하는 경량의 직선구조체를 연결시켜 만든 돔형 구조물. 이것은 20세기 미국의 R.B. 풀러에 의해 개발되었다. 지오데식 돔은 경량의 벽에 의해 지지되나, 또한 다른 대형 돔과 달리 일체식으로 지면 위에 세울 수 있다. 1967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67엑스포에서 미국은 전람회장으로 대형 지오데식 돔을 사용했다. 지오데식 돔은 주로 경기장·극장·온실·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엠펜스 백과사전. (역주)



268) Roman Jakobson과 Morris Hille, *fundamentals of Language*(The Hague: Mouton, 1956)을 보라. 또한 Roman Jakobson, “Linguistics and Poetics,” in *Style in Language*, T. A. Sebeok(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p. 350~377.을 보라.

다.” X. 14)로 진척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세계를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와 형식으로 쓰고 있다.” 프로프의 저서에 관한 고찰은 야콥슨(Roman Jakobson)에 의해 고찰된 음소의 방식 안에서 각기 다른 원소의 꾸러미로 존재하는 각자의 성격으로 다양하게 조합된 대당의 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단순 실재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그렇게 진보적으로 정의될 것이다(p. 135).

그레마스에 관한 대부분의 주석자들(예를 들어, 문학의 구조주의에서의 Robert Scholes 또는 구조주의와 기호학에서의 Terence Hawkes)은 그의 담화의 의미론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그레마스의 행위주적 분석을 선택했다. 게다가 이것은 정확하며, 행위주적인 분석의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을, 즉 이원왕권구조와 같이 그것을 적당한 정향(定向, position)에 배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레마스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s)의 인접구조를 지원한다. 로버트 스킨스(Robert Schole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레마스는 언어 이전의 상상력의 레벨을 공리로 간주한다. 이렇게 조직적인 대당(의미 작용의 기본구조)은 신인동형동성적인 형상이 부여된다. 그것을 통하여 순수논리 또는 신개념적인 대당은 신학상의 논증법적 상황 안의 행위주가 되며, 한 쪽의 관자놀이-시간과 같이 진척되는 것을 허락한 그때 그것은 설화(story)가 된다.²⁶⁹⁾

그레마스가 “언어 이전의 상상력의 레벨”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고심하는 것은 그의 목표(또는 그것에 대해 내가 “base”라고 한 은유는 계속 존속된다)가 아니며, 행위주의 특권은 그가 언어학적 분석의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호칭하는 것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말하려고 입을 벌릴 때마다, 그들은 마치 마술처럼, 실명사로(into substantive), 즉 우리가 새로운 관계 등을 공리로 간주함으로써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의미의 텅으로 변형된다. 우리가 의미에 대해 언급하려고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어떤 페타 언어는 지각차원의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언어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의성의 약동을 신개념적인 용어법으로 동결시키고, 실명사화 한다(이러한 변화과정에 관한 그레마스의 의미론적인 기술을 위해, Du Sens, p. 8; VIII.L.c.를 보라).

269) Robert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74), p. 103. 또한 Terence Hawkes, *Structuralism and Semiotics*(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를 보라.

사실, 그레마스에 의하면, 행위주의 선택은 착란적인 분석과 상보적인 변화 과정을 구성한다고 한다. 비밀의 기원의 관점에서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는 그레마스의 이러한 관점을 추종하고 있는 팀 안의 화술의 기원으로 정의한다. 즉 “함수는 고유명목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그것은 개성이 되고, 그것의 생사는 화술을 소유한다. 그때 그 함수는 개성 속에 잠겨버린다.”고 정의한다.²⁷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은 행위주에 관한 로버트 스킨스(Robert Scholes)의 분석을 기술한다.

다시 말해서 행위주는 실명사의 범주보다 더 작용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가 “이산단위”와 “통합단위”로서의 행위주와 빈사를 식별하고 있을 때 (VIII.1.c), 그는 핵의미소와 강류의미소, 내재세계와 표출세계 사이의 편차를 즉각 병치적인 방식으로 식별한다(VIII.2.c).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미우주의 유형학에서, 그레마스는 빈사를 “함수”와 “자질”로 나누고(VIII.1.c), “행위주의 이중지위로 표시한다. 즉 투자된 내용으로서, 사실, 그 행위주는 빈사에 의해 설립되고…; 그러나 통사론적 아강으로서의 그들은 당연히 빈사에 앞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착란적인 연기가 이러한 실체물들의 속성의 귀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VIII.2.e). 사실 그레마스는 통사론적 범주로서의 행위주적인 모델을, 다시 말해서 의미론을 철저히 언어과학으로 정위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미지의 사실을 기지의 사실로 추정한다(같은 방식으로, 그는 의미소적 모델을 현상학적 범주로부터 외삽한다. X. 12). 그는 6개의 행위주가 통사론적 범주와 거의 상응한다고 제안한다(X. 7).

행위주	통사론적 범주
주체 vs 대상	(주체 vs 직접적인 대상)
발신자 vs 수신자	(주체 vs 간접적인 대상)
보조자 vs 반대자	(부사적 변경자[變更者, mod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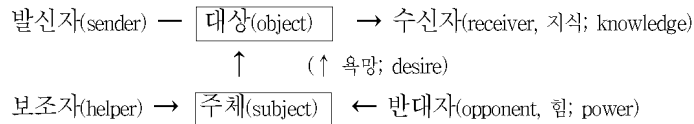
그레마스는 최종범주(보조자 vs 반대자)를 2차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270) Frank Kermode, *The Genesis of Secrecy*(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esp. pp. 105~108.

는 그들이 “통사론적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통사론의 바깥쪽 그들의 상태가 변형모델이라고 하는 그레마스의 진화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사론적 “주체”로서의 주체와 발신자 양쪽을 범주화함으로써, 나는 그레마스가, 행위주적 범주의 “혼합주의”를(X.6) 하나의 연극자가 두 개의 행위적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최초의 실례의 바깥쪽 무대에서(VII.2.f), 그레마스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역할을 공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의미론에 위치함으로써 그렇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존재한다. 비록 발신자의 메시지와 주체의 메시지의 그러한 동시발생이 보통 제1인칭의 메시지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혼합주의는 내가 나중에 검토할 것인 그 담화의 특색을 만들고 있는 “두 메시지의 보다 보편적인 이중노출”을 표시한다(VII.4.d). 그레마스는 “행위주에 대한 역할의 주연이 대상화하고 있는 투기로서의 메시지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즉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배척된 세계의 시뮬레이터(simulator)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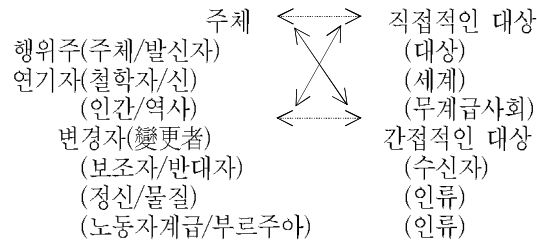
어떤 경우에, 6개의 행위주는 제11장에서 그레마스가 프로프(Vladimire Propp)를 재가공함으로써, 진화하는 그들과 상응하는 3가지의 관계를 표시한다. 제10장에서 그는 “의미론적 투자”를 행위주적 주체와 대상이 욕망하는 관계로 주석을 단다(X.5). 발신자와 수신자 간 관계의 의미론적 투자는 “커뮤니케이션”이며(X.6), 나중에 그는 “지식(knowledge)”이라고 호칭한다. 또 나중에 그는 행위주적 주체와 2차적인 것 사이의 관계 안 의미론적 투자가 힘(power)”이라고 제안한다(XI.2.e). 제10장에서 그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낸다.



나는 의미론적 투자를 화술이론(전문성·기술·기교, technology)의 함축적인 관념론(ideology)을 발휘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그레마스의 도표에 추가해서 그렸다. 마지막 3개의 장에서 그레마스의 화술분석의 목표는 행위주 간의 관계의 논리, 즉 “지식, 힘, 욕망”의 범주 안에서 순환하는 조화균형(regularity)을 도표로

나타내는 화술문법의 논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합일의 그러한 조화균형(그것의 합일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나는 서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되돌아갈 것이다)은 본질적으로 담화의 “이중동류체(bi-isotopy),” 즉 두 메시지의 이중노출이다. 이것은 어느 메시지가 “지식”의 통사론을 표현하는, 그리고 “힘”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그 사실(그레마스의 행위주적 도표의 두 레벨 안에 재현된) 안에서 관찰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동시에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목표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파롤적인 행위로서의 “전체(whole)”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 변경자(變更者, modifier)에 의해 결정된 주체와 대상 사이에 표출된 관계로서의 그 부분들의 덩어리로 이해될 수 있다. 지식과 힘은 과학적인 투기, 기술, 그리고 발견의 이중동류체적 성질로 병치된다. 그러나 “욕망”의 공간 안에서, 어느 다른 것과 그들의 거리는 또한 투기 안에서의 파괴를 표시한다.

어떤 경우에, 4개의 문법적 범주와 그레마스의 6개의 행위주의 환원은 주체와 발신자뿐만 아니라 대상의 접어겹치기(the doubling)를 분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화맥 안에서 욕망의 대상과 지식의 대상 양쪽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환원은 그레마스가 프로프의 저서를 구조화하려고 연기하는 “필요 불가결의 동차성” 안의 한 단계이다. 즉, “우리는 행위주가 프로프에 의해, 수리외(Etienne Souriau)를 언급함이 없이, 연기의 영역에서, 즉 단일 함수의 환원의 조력으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동차화로 간주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확립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x.7).” 이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레마스의 6개의 행위주와, 그가 “통사론적” 사각형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철학적”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적” 실례의 6개의 “주체적” 연기자를 설정했다.



주체(주체/발신자)의 접어겹치기는 담화를 “이중동류체적” 담화로 접어 겹치는 것인데, 레비스트로스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형식화는 모든 신화적인 체계 안에 시간의 접어 겹친 양상·표상의 근거를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공한다. 그 화술은 ‘박자가 맞는 것과(in time, 그것은 사건의 연속으로 존재한다), ‘박자가 엇갈린 것(out of time, 그 의미작용의[significant] 가치는 항상 널리 유효되고 있다),’ 양쪽을 하나로 움켜쥐고 존재하며... 만약 우리의 그 신개념이 채택된다면, 연대기적 연속의 그 목류는 무시간의 모체구조 안으로 재 흡수될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의 형식은 상수로도 존재할 것이다(S & F, pp. 137~138).”

그레마스의 6개의 텀·행위주적 모델은 발신자의 초월적인(즉, “박자가 엇갈린 것”) 의미작용(significance)의 직관으로 고찰된다. 더 나아가 프로프 안에서, 그 발신자(왕, 연장자, 등)는 대개 사회적 목류를 표현한다. 그것은 연기의 레벨에서 우주론적 동류체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 그 영웅은 주체로서 연기하고, 정신론적 동류체 안에서 그는 대상으로 연기하게 된다. 즉, 그 6개의 텀은 그레마스가 나중에 “빈사들 사이에서가 아닌, 그러나 또 다른 메시지인, 두 메시지의 이중노출인, 그래서 하나의 가능한 상호관계(Claude Lévi-Strauss의 “시간의 접어 겹친 양상·표상”처럼)”라고 호칭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레마스의 문장의 모델(VII.4.d)을 마르크스주의자적 주체의 문장으로 바꾸면, 가혹한 역사적 변화과정의 증명사에 의해, 그 문장은 인간이 무계급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A

B

/역사는 연기한다. (그래서)/ +/인간은 무계급사회를 구축한다./

“최초의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술된 내용의 형식화로 존재한다.”고 그레마스는 쓰고 있다. 그는 계속한다.

내용의 이러한 기술은 이 내용의 조직체제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된 내용과 상대적으로 베타언어학적 레벨에서 위치가 잡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타언어학적 모델의 2개의 독특한 유형은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구성적이라고 부르기로 제안했던 첫 번째 모델은 어의소의 형식으로 기술된 내용을 통제하며, 그리고 그것을 비통시적 상호관계의 구조로 조직한다. 마치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은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실제로 함수적인 모델이 아니지만, 양태적인 모델이다. 그것은 그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을 가능한 변형으로 고찰하기 위

하여 구성된 내용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애써 풀어내려고 했던 구조적 속성인 그 모델은 앞장에서 시련(시험)으로서의 격아강적인 표출로 이미 연구했던 것이며, 여기 비격아강적인 형식 하에 나타난 변형적 모델보다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다(XIII.4.d).

따라서 이러한 비격상의 변형모델은 6개의 탐·행위주적 모델 안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격아강적이면서도 비격아강적인 그것은 주체(Claude Lévi-Strauss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신화의 주체뿐만 아니라, 담화의 주체)가 항상 보다 큰 화맥 안에 이미 끼워져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락한다.

메타언어학적 기술은 통사론적 주체의 메시지가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발신자(즉, 역사)로 존재하는 지식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메타언어학적 변형은 통사론적 주체의 메시지가 존재하는 무언가를 재조직하는 행위주적 주체(즉, 인간)로 존재하는 힘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A는 필연성을 명시하고, B는 자유를 명시한다. 어느 메시지는 유형학적인, 그리고 직시적인, 즉 통사론적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2개의 메시지로 존재한다(그것의 전체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화해로 선택된 파롤행위). 그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그레마스가 행위주적 분석이 함수적 분석을 초월하는 것에 특권을 부여한다.

동일 내용의 이중형식화(위상적 그리고 직시적)는 표출된 의미작용의 일반 모드의 실제일 뿐이다. 함수적인 자질적인 분석이 행위주를 설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무엇을, 다시 말해서 그 행위주에 빈사가 속하는 강류의 의미론적 내용을 운반할 뿐이다. 따라서 만약 바로 그 일반적 성격의 행위주적 범주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행위주의 레벨에서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레벨에서 표출된다면, 그들에게 행위주적 형식화를 그리고 함수적인 것이 아닌 것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사전에 기술된 의미론적 초미우주의 내용은 하나의 “드라마(drama, spectacle)” 그리고 이제는 일련의 보통 사건이 아닌 것으로서의 그 형식 아래 그 자신을 나타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VIII.2.g).

이러한 드라마는 연기보다 차라리 형태(조미-화술, configuration)의 광경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전체 과학적 투기의 일부로 잔존한다. 즉, 그는 담화를 그것의 표출로 고찰하는 관계의 목록으로 환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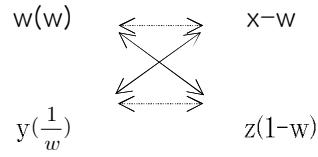
확실히 이것은 구조의미론의 가장 정교한 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1장에서 그레마스는(Claude Lévi-Strauss를 추종하고 있는) 지식, 힘, 욕

망의 드라마(광경)를 증명하고 있는 행위주적 텀 안 러시아 민담에 관한 프로프의 분석을 다시 쓰고 있다. “구조와 형식 안에서,” 프로프에 관한 반성은, 레비스트로스가 프로프의 분석이 충분하거나 정확하거나 엄밀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를 그레마스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레비스트로스는 프로프가 민담에 엄밀성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그 자신은 “신화의 구조적 연구”에서 구조적 분석에 신화를 느끼게 했다. 따라서 그는 프로프가 분석을 너무 빨리, 경험적 관찰과 매우 밀접한 그것의 형식에 관한 탐색을 중단했다고 불평한다(S & F, p. 136). “단 하나 그대로의 형태론적 레벨”은 함수의 신화로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민담과 신화가 “텍스트와 의미작용(signification, 즉 그레마스의 행위주)의 시니피에로 존재하는 것과의 관계로, 또 다른 레벨에 정위된 보충 의미작용(signifying)의 체계와의 관계로 존재하는, 하여간 양쪽 모두의 ‘표준적인(normal, 즉 착란적인)’ 시니피에오로 존재하는 이미지와 연기를 구축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무시한다(S & F, p. 142). 레비스트로스가 호칭하는 것은 프로프의 31가지 연대기적 함수(w, x, y, z, 등)의 구조를 동차화의 모체로 보는 “무시간의 모체구조”이다. 그는, “이러한 형식화는 모든 신화체계 안 시간표상의 이중양상의 고찰을 제공할 뿐이다. ...만약 우리의 신개념이 채택된다면, 연대기적 연속의 목표는 무시간의 모체구조로 흡수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의 형식은 상수로 존재한다.”고 기술한다(S & F, pp. 137~138). 레비스트로스가 언급하고 있는 형식화는 다음과 같은 모체로 존재한다.

$$\begin{array}{cccccc}
 w & -x & \frac{1}{y} & 1-z & \cdots \\
 -w & \frac{1}{x} & 1-y & z & \cdots \\
 \frac{1}{w} & 1-x & y & -z & \cdots \\
 1-w & x & -y & \frac{1}{z} & \cdots
 \end{array}$$

이러한 함수의 모체는(즉, 화술적인 사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w, x, y, z, 등) 서로 상대적으로 화술의 편차를 구성하는 그들의 동차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상에, 서로 논리적인 관계 안에서 파악된 불연속의 사

건 상에 정위될 수 있다.



제11장에서, 그레마스는 이러한 구조를, 최초의 프로프의 31개의 함수를 20개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행위주 또는 모체를 연기로(기술, p. 29와 p. 75를 보라), 즉 지식(또는 커뮤니케이션), 힘(또는 contest, 투쟁), 그리고 욕망(또는 quest, 주객치환응집)의 드라마로 알려진 통사론적·의미론적 작용인자(作用因子, operator)의 세 짝으로” 블랜차드(Marc Eli Blanchard)가 호칭하는 것으로 더한층 진진시키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환원하고 있는 기호사각형으로서의 이러한 함수를 동차화하는 것의 힘든 변화과정으로, 성취하고 있다.

노트: “제11장 1. g”에서, 그레마스는 프로프의 함수의 동차화의 추상적인 기호표기법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도표는 그의 논리기호 표기법(Symbolic notation)이 그의 논법을 명료하게 하는데 조력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begin{aligned} \overline{C_1} &= \frac{c_1}{\overline{bi}_{c_1}} \left(\frac{\text{조사}}{\text{정보}} \right) & C_1 &= \frac{c_1}{bi_{c_1}} \left(\frac{\text{표지}}{\text{인지, 메시지의 수량}} \right) \\ \text{{메시지(지식)-대상}} \\ \overline{C_2} &= \frac{c_2}{\overline{bi}_{c_2}} \left(\frac{\text{기만}}{\text{굴복}} \right) & C_2 &= \frac{c_2}{bi_{c_2}} \left(\frac{\text{반역자의 폭로}}{\text{주인공의 폭로/보조자의 수량}} \right) \\ \text{{합-대상}} \\ \overline{C_3} &= \frac{c_3}{\overline{bi}_{c_3}} \left(\frac{\text{악행}}{\text{결핍}} \right) & C_3 &= \frac{c_3}{bi_{c_3}} \left(\frac{\text{반역자의 형벌}}{\text{결혼/결핍의 제거}} \right) \\ \text{{선행(욕망)-대상}} \end{aligned}$$

비_{c2}(주인공의 폭로)와 비_{c3}(결혼/결핍의 제거)의 접어겹치기는 2차적인 변경이 “욕망”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을 수정하는 그 사실을 추종한다.

비록 그레마스가 그것을 강조했다 할지라도, 제11장에서의 화술적인 함수의 동차성은 그들이 3개의 통사론적인 관계로 환원된 제10장에서의 행위주의 동차성과 병치된다. 이렇게 통사론적인 관계는 의미론적 관계(의미론은

관계 안에 구조적으로 마음 깊이 새겨진다)와 제11장에서 프로프의 화술적인 함수로 되돌아가는 지식, 힘, 그리고 욕망의 관계를 함축한다. 이것은 그레마스가 화술문법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창조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언어학자는 화술구조가 매우 회귀성이 강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회귀성은 두드러진 일정불변의 조화의 리코딩을 허락한다. 따라서 그들은 화술문법의 구조를 유도한다.” 이 경우에, 그것은 그가 가장 보편적이며, 화술단위의 구조적인 조직의 제한된 원리로 존재하는, 조합과 이러한 단위의 함수를 위한 규칙을 완성하고 있는, 화술대상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비-은유적인 의미의 문법의 개념을 활용할 것임이 명백하다(“화술문법,” p. 794).

이러한 방식으로 그레마스는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와 형식”으로 호칭했던 프로프의 교정본을 이해했다. 거기서 레비스트로스는 그레마스의 분석뿐만 아니라 그의 의미론의 전체 메타언어학적 투기의 정의로 선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다.

어휘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언어와 대당이 됨으로써, 메타언어는 원소가 잘 결정된 작용으로부터 초래되지 못한, 규칙에 따라 초래된, 레벨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안의 모든 것은 통사론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안의 모든 것은 어휘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 편차적인 기본요가 단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화소는 여전히 단어로 존재한다(이러한 관점에서, 그레마스는 행위주를 “고유명목”이라고 호칭한다. VIII.2.g). 함수(이러한 신화소는 제2의 힘이다)는 단어의 확장으로 표시된다(Vladimir Propp가 아주 잘 지각하고 있는 것처럼. S & F, P. 144).

레비스트로스가 언급한 것처럼, 만약 그의 분석이 “민담을 신화로 간주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전자가 무력한 신화의 치환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S & F, P. 128),” 그리고 “역사적인 또는 로맨틱한 화술보다 더 쉽사리 양쪽을 폭로한다면(S & F, P. 142),” 그때 그레마스의 행위주적 분석의 투기는 모든 담화를, 즉 철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프로프 자신의 분석, 사이코 드라마적인 담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우주”를 이러한 방식으로 읽게 된다. 여기서 그레마스가 제공하는 것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안에서 단순하게 행위주적 팀의 2차적인 주연분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통사론적인 행위주를 만들음으로써(그가 “통사론을 초월하는 의미론상의 논리적 선행을 부여하는 우리 자신의 기초 전제라고 호칭하는 것에 의해,” “화술문법,” p. 800), 그레마스는 담화 자체를 구조화하는, 공시대 그 자체로서의 담화의 통시성(diachrony,

또는 의사통시성; pseudodiachrony)²⁷¹⁾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은 타고나 특권이 부여된 신화가 아니다. 구조인류학이 아니라 구조의미론이 되었다.

4. 관념론적 해법(또는 이산): 인간과학

그러나 물론, 그레마스의 행위주의 모든 것이 통사론적인 것은 아니다. 범주 “보조자 vs 반대자”의 함수는 부사와 같다(그레마스는 “함수의 하위계열적인 [hypotactic] 아강을 구성하고 있는 양상”으로 지시한다. X.7). 행위주보다 오히려 2차적인 것으로 존재함으로써(하위계열적인[hyponymic] 강류보다 오히려 하위계열적인 아강으로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범주는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의 비격아강적인(즉, 과학적)²⁷²⁾ 목표에 의문을 삽입한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주의 원소와 관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자는 변형모델의 가능성을 창조하지만(즉, 확장된 담화로 고찰될 수 있는 그 모델은 문장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들은 오로지 격상으로만 실행된다. “우리와 관련된 신화적 표출 안에서, 그것은 보조자와 반대자가 연기하는 의지의 투기, 그리고 그것의 욕망과 상대적으로 유익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판단된, 주체 그 자체의 이미지리의 저항으로만 존재한다(X.7).” 이러한 관점에서 그레마스는 그들의 대당 그 자체를 변형 “드라마”로 만든다.

271) achrony: 비통시성; 용어 비통시성(achrony)은 소쉬르가 언어학적 탐구의 두 개의 거의 자율적인 차원을 의미했던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의 두 개념과 대당이 된다. 비통시성은 논리 폭탄(logic time bomb;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실행되도록 몰래 장치된, 보통 컴퓨터 시스템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케 하는 명령군)적 구조의 관자놀이-시간적인 성격을 긍정(affirm)하며, 동시에 그것은 소쉬르의 이분법(dichotomy)의 비타당성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사실, 한편 모든 것은 기호학(semiotics) 안에서 관자놀이-시간적(랑가주적 행위와 함께 시작하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에 지속은 조금도 연기되지 않는다. 오직 두 번째만이 “자의적(spontaneous),” 개인적 은유의 생성을 위해 필요해지며, 반면에 동일 은유는 “랑가주 안에서” 느꼈던 현존재(presence)를 만들기 위하여 약간의 대가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후기 라틴어의 *testa*(토기)로부터 프랑스어 *tête*(머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다른 한편, 논리적 추정은 시간 안에서 위치가 정해지지만, 시간은 그것이 성취된 하위위치의 작용 안에서 조금도 연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호학(semiotics)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심층기호학적 구조가 비통시성적인 것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반면에 표층의 담화구조는 보다 더 관자놀이-시간성을 필요로 한다. (역주)

272) ...the non-figurative(that is, the scientific)=그러나 절망, 망상, 오만, 경멸, 인색, 이기심, 욕구, 증오, 냉담 등의 본질적인 허구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상위의 인식론 차원의 semiotics일 때 인간과학이 만들어진다. (역주)

먼저 투쟁은 보조자와 반대자의 조우로, 즉 의미작용의 복합구조인 2개의 텀(조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것의, 동시에 일어나는 함수적인·약동적인 그리고 신인동형동성적인 표출로 나타난다. 그 조우는 반대자에 대한 보조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즉 단순한 조정적 텀의 이득에 부정적 텀의 과멸을 의미하는 함수 “성취(success)”에 의해 즉각 추구된다.

따라서 해석된 투쟁은 복합구조의 폭발의, 즉 부정적 텀의 부정이 기본 구조적 좌대(座臺)의 조정적인 텀단을 오로지 허락할 뿐인 메타언어학적 작용의, 신화적 표상이 쉽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XI.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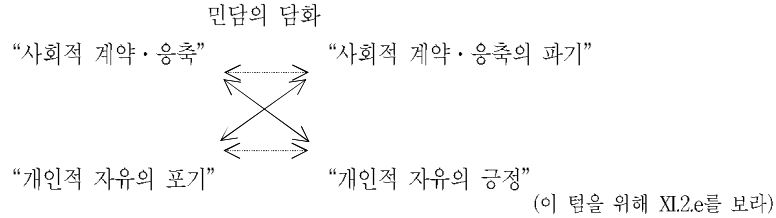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담화의 격아강적인 알레고리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그레마스가 제1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함수적인 모델의 본질적인 특색을 생각나게 한다. 그 가능성은 함수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형식 ‘언기의 힘’ 안에 명시된, 약동성이 행위주 상에 전승하는 것을 야기한다(XII.4.a).

즉, 2차적인 것은 요약된(Dictionnaire raisonné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기술한, 난해하고 파생 언어적인 변형을 느끼기 쉬운, 단위의 의미론적 레벨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미론 상의 동류체 사이의 대당은 독단적이기 때문에 또는 점진적이기 때문에(즉, 자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결정된), 변형모델의 발견은(“기술과 발견”의 과학적 연인 안에서) 오로지 격아강적인 발견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저쪽의(투쟁의, 엇박자의) 어떤 무엇이 아닌, 그러면서도 담화의 자유롭게(“독단적으로”) 선택된 동류체, 박자가 맞는 것(in time) 안에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를 인용하는, 즉 “매우 정확하게 종속된 그래서 트리트먼트(treatment: 동작·카메라 앵글 따위의 장면 변화 방식을 추가해서 써 넣은 대본,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있는 자연현상처럼, 비회귀성과 바로 그 지성(reason, 판단력)이 결코 할 수 없는(Prolegomena, p. 8),” 그렇게 특별한 시간 안에서, 선택된 발견으로 존재한다.

프로포에 관한 그의 교정본 말미에서, 그레마스는 민담의 이중해석을 느끼게 한다. 그 첫 번째는 “그 텀의 비통시적(achronic) 해석으로 존재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 텀의 한 쪽의 관자놀이-시간(temporal)과 같이 간주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X.2.d).” 그러나 텀 그 자체는 그레마스가 마지막 제12장에서 “역사와 단기지속성(permanence)”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관계되는

그래서 다른 모든 레벨에 도전하고자 기도하는 구조의미론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회귀적인 그 텀 안에 그들의 위치를 확보한다.



구조의미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레벨 상에서, 그레마스는 자유와 속박 사이의 관계를 형식화하려고 시도했다(어쨌든 위치가 정해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는 확신의 발휘이지만, 제한된 자유이다(III.4).” 담화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속박의 모순적 급박성에 기인한, 타성과 역사로 분기하고 있는 힘의 상반에 기인한, 의미작용의 왜곡의 장소이다(IV.1.a).” 파롤의 자유 안 “유사-소쉬르적인 전통”은 언어의 폐포를 마치 임신한 것 같은 대당으로 이해한다(VI.2.b). 즉, 프로프의 행위주적 독해의 양상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만약 그것이 연속으로 설화의 성격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련(시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프(Vladimir Propp)가 좋아했던 것처럼 그 연속을 필연적으로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반대로, 시련(시험)은 이러한 의미 안에서 자유의 어떤 표출을 구성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시퀀스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성의 내적관계 때문이 아닐 것이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긍정적 의미를 보충적이며 신화적인 인외지의(言外之意, connotation)로, 증여함으로써, 형식으로 그것을 고정시키는 과장 때문일 것이다(XI.2.b).

“삶 vs 죽음”을, 그리고 삶과 “변화,” 죽음과 “부동성”을 연결하면서 그 대당을 선택하고 있는,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우주의 분석은, 곧 대당 “자유 vs 속박”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류체적 레벨은 우연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미론은 인간 과학이기 때문이며, 그레마스는 그의 저서 도처에 자유의 이러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리고 그는 실행한다). 그러한 기술

의 필연성은 2차적인 것 그 자체의 정의 안에 함축되며, 그것은 “2개의 대당적인 커플, 즉 “자진해서(willingly) vs 마지못해서(unwillingly)”와 “능숙하게(well) vs 서투르게(badly)”의 형식으로 표현된 성질(quality, 내포량, 명제의 질)의 부사”와 상응한다(X.7). 이러한 짝의 첫 번째는 자유의 문제를 함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행위주는 언제나 그 이상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는 오로지 격아강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 도처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는 그가 또 다른 실례로 사용했던 편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의 기술이 아니다. 그 실례는 과학적·대상적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담화의 본질(인간과학에 관한 연구의)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비격아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화학반응의 기술의 방식 안에서 결코 “비격아강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울의 자유”는 격상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확실성의 발취로 그러면서도 제한된 자유”로 기술될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실례에서, “자유”는 자유로이 부사의 비-최소화도성(nonminimization; substantifying)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의미론적 레벨이 추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즉 하나의 단어 안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선택(동류체의 선택과 같은)을 구체화하고 입증한다. 양쪽(구조의미론에서의 의미론적 레벨의 추출, 그리고 그 회귀적 추출의 “자유”)은 담화의 2차성이 “회귀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만들고 있는, 따라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정확하게 종속된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생성하고 있는,” 격상으로 추출되고 있다. 그들은 “실체적(practical, 우주론적)” 동류체 상의 “신화적(또는 정신론적)” 동류체를 투기한다.

대당 “자유 vs 속박”은 우연성이 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담화의 그레마스의 정의와 분석에 본질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자유의 그 동류체적인 레벨은 우리가 삽입했던 그 행위주적 도표 안에 삽입된다. 그것은 “힘”의 레벨로 존재한다. 사실, 범주 “자유 vs 속박”은 “힘 vs 지식” 사이의 편차 안에서 도표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고도의 이율배반(antinomy)으로 존재하며, 할렌 벤들러(Halen Vendler)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이츠(W. B. Yeats)의 작품을 지배한다.²⁷³⁾ 그러나 그레마스가 여기에 함축함으로써, 보다

273) 할렌 벤들러(Halen Vendler), *Yeats's and the Later Play*(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94.

더 중요하게 그것이 담화를 전체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레벨이 “욕망”에 의해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레마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주체와 발신자의 역할의 접합 속에서의,” 즉 사이코드라마의 행위주적 분석에서의 “텍스트는 자질을 만들고 있는 에너지(주체)로 더 이상 추정하지 않는다(XI.3.d).” 그는 계속 언급한다. “임상치료사의 중재는 ‘주체+발신자’의 혼합주의 불가능성, 그 자신이 발신자인 영웅을 위한 불가능성의 명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인 발신자의 부재(표출의 측면에서)는 영웅으로서의 영웅의 인식을 방해한다. 따라서 욕망은 블랜차드(Marc Eli Blanchard)가 주장하는 것처럼(Discription, p. 244) “상징기호적 의미작용(significance)”의 대상을 모두 발라내지 못한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상징적기호적인·격아강적인 의미작용의 거절하기…”의 양쪽의 종합에 의지한다(p. 272). 욕망은 담화의 공간을 창조하며, 그 “에너지”는 지식과 힘, 기호(sign)와 대자(self), 자유와 속박 간의 편차를 구별하여 마음속에 명시한다.

노트: 여기서 우리는 블랜차드의 기술-기호(sign)와 대자(self), 즉 욕망이 그레마스의 행위주적 범주에 의지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욕망(또는 quest, 주객치환응집)에 의해 창조된 변별적 분절(分綴, separation) 없이, 그것의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moral),” “포인트”로 환원된, 즉 억제된(비격아강적인 알레고리의 불가능한 극단, 그리고 “무의미[nonsense]”로, 칠 없는 소리[drivel]와 허튼소리[twaddle]로 구속된, 즉 자유로 구속된), 화술의 은밀한 계략(plot) 안에서, 순수한 우의(寓意, affabulation; afabyllasjö)로 뒤엎인 담화는, 그리고 하위계열적(hypotactic) 연결이 결핍되어 있는 언어의 또 다른 극단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없는 글자 그대로 존재한다. 여기서 라캉(Jacques Lacan)이 언급한 것처럼, 알레고리의 격상이 글자 그대로의 조짐이 된, 말하자면 노이로제의 알레고리로서의, 담화의 이미지리적인 환원은, 언어의 원소가 연결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정신분열현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기여 받는 것이다(III.4를 보라).

그때 욕망은 가능한 담화를 만든다. 그것은 알레고리를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우화의 속박 사이의 담화와 화술의 관자놀이-시간의 성향(性向, disposition)을, 그리고 비-착란적인 무의미의 자유를 창조한다. 담

화의 동류체 사이의 “간격(space; 편차)”으로서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중동류체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동류체를 거절하면서도 의지하는, 그 사실의 가치에 의해 그렇게 실행된다.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그것은 격상의 가능성을 창조한다(그 안에 깊이 새겨진다). 민담의 담화의 기호사각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사회적인 그 축은 무언가 존재하는 것의 “실제적인” 축이 되며, 반면에 개인적인 축은 자유의 “신화적인” 축이 된다. 동차성을 나는 먼저 설화의 비통시적인 해석으로 기술했고, 또한 “관자놀이-시간적인 성향”으로 고찰했던 두 번째의 해석으로 투기했다. 이러한 투기(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레벨의 점차적인 대당)는 욕망의 공간이다. 구조의미론을 통해 그레마스는 집합적 목록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목록 안에 관여했다(IX.1.f을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구조의미론을 확장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신화의 구조연구”에서 기술한 신화의 “역사적이면서도 비-역사적인 것 모두의 이중구조”의 역사적인 양상과 “반성”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두 언어의 이중성을 강조한다.²⁷⁴ 그런 방식으로 강조함으로써,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자유의 개념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실행한다.

그 신개념은 격상(모든 격상의 성질이 존재하는 접어겹치기의 몸짓을 담고 있다)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의미론의 모든 레벨을 통해, 즉 세미올로지적인 레벨과 기호학적인 레벨 등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두 행위주적인 모델, 구성적 모델과 변형모델의 발전 사이의 대당으로부터, 그레마스가 그의 범주의 밀도 있고 일관성 있는 접어겹치기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착란적인 표출 안에서의 함수 간 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려고 하는 함수적인 분석에 종속된 화술(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민담)이 민감하여 움직이기 쉽고, 결국 내재모델 출현의 두 유형의 존재자를 만들고 있는 이중해석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구성적 모델을 시사하며, 그것은 교란(disturbing)과 필연(inevitable) 양쪽으로 나타난 모순적 가치론적 내용의 조직화를 위해 고도의, 카드놀이에서 파트너에게 자기패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암호나 약속과 같은(conventional) 형식이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역으로 관념적 해법(또는 이산)을 제공하고 있는 변형모델, 즉 투자된 내용의 변형가능성을 명백하게 한다.

274)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Structural Anthropology*, vol. 1. trans. Claire Jakobson and Brook G. Schoef(New York: Basic Book, 1968), p. 210.)

오로지 이중해석의 가능성만이 화술이 담을 수 있는 다수의 모순을 강조한다. 그것은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의 그리고 변화 가능성의 긍정과 필연적 목표의 그리고 그 목표를 파괴하고 재확립하는 자유의 긍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때 변형모델은 자유를 “비격상”의 격상으로 지시함으로써 의미론의 과학으로 구축한다. 그것은 “프로프가 좋아할는지 모르는,” 필연성의 논리적 연속(또는 시제·어법의 일치, consecution)으로 마음속에 그리게 된 것이 아닌, 그러나 임신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게 된, 다시 말해서 불가변성(비가역성, irreversibility)과 선택(choice)으로서의 이중적인, 역사를 위한 위치를 만든다. “그때 화술의 원소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시퀀스는, 그 정의 안에, 역행할 수 없는 자유와 신뢰성이 있는 인간의 역사적 활동의 모든 속성을 시사(示唆)한다(XI.2.f).” 그 변형모델은 모순을 명기하고,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정치적 무의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정적인 기호사각형을 뒤엎는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의 형식으로서의 격아강적인 몸짓과 함께 실행한다. 구조의미론의 도처에서 위치를 선택하고 있는 그 접어겹치기는 우리가 기술과 발견의 그것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 목표를 반복한다. 그러나 여기서 위치를 선택하는 그 발견은 레비스트로스가 “사라진 변수의 또는 불가지(不可知)의 그것을 천문학의 법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의 존재자를 추찰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 계산된 발견과 같은 것이 아니다(S & F, p. 127). 오히려 그것은 세계 안에서, 인간과학의 관념론 안에서, 인간의 역사적 상황의 투기와 동시에 존재한다.

1966년 구조의미론의 출간으로 인해, 인간과학의 이러한 강류의 관념론적 독해는 후기구조주의자들로 알려진 그룹(Barthes, Derrida, Foucault, 등)에 의해 구조주의의 과학적 투기로 발휘하게 되었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내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문학적 독해의 성질을 위해 매우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1968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과학이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 과학적 언어의 실제적인 전복현상을 안치시키려고 조종하지 않는다면, 구조주의는 보다 더 고양된 과학(몇 가지는 모든 세기에 탄생되었고, 그중 어떤 것은 극히 단명했다)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에 대해 탐구하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구조주의의 논리적으로 이어진 부분(continuation)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닌 그러나 글쓰기의 능동성으로서, 작품 그 자체를 언어-대상과 과학으로, 그리고 메타언어로 변전(變轉)시키는, 논리로부터

터 이끌어낸 그 편차를 없애버리는, 따라서 과학이 유폐된 언어의 속령에 부착시키는 환영의(illusory) 특권을 보류하는, 문학과 재 접합할 수 있을 뿐이다.²⁷⁵⁾

여기서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과학의 함현적인 모델의 폭발을, 즉 초월-역사적인 기호사각형의 폭발을 과학 안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역사 측면의 독해의 이중동류체로, 불러들인다. 그가 불러들인 것은,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 안에 위치를, 담화 안에 욕망의 위치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그레마스가 인간과학의 자유와 속박을 정의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²⁷⁵⁾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Science versus Literature," in Introduction to Structuralism, ed. Mark Lane(New York: Basic Books, 1970), p. 413.

발표지면

서언/주근옥

다시올문학 통권 10호(2010. 여름호)

제1장 과학적 의미론의 조건

시문학 통권 399호(2004. 10. 01)

시문학 통권 400호(2004. 11. 01)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시문학 통권 401호(2004. 12. 01)

시문학 통권 402호(2005. 01. 01)

제3장 언어와 담화

시문학 통권 403호(2005. 02. 01)

제4장 표출된 의미작용

시문학 통권 404호(2005. 03. 01)

제5장 세미올로지적 레벨(Semiological Level)

시문학 통권 405호(2005. 04. 01)

시문학 통권 406호(2005. 05. 01)

제6장 담화의 동류체

시문학 통권 407호(2005. 06. 01)

시문학 통권 408호(2005. 07. 01)

시문학 통권 409호(2005. 08. 01)

시문학 통권 410호(2005. 09. 01)

시문학 통권 411호(2005. 10. 01)

제7장 의미세계의 조직

조선문학 통권 181호(2006. 05. 01)

조선문학 통권 182호(2006. 06. 01)

조선문학 통권 183호(2006.07.01)

제8장 의미작용의 기술

조선문학 통권 184호(2006. 08. 01)

조선문학 통권 185호(2006. 09. 01)

조선문학 통권 186호(2006. 10. 01)

제9장 기술의 절차

문학저널 통권 45호(2007. 05. 01)

문학저널 통권 46호(2007. 06. 01)

문학저널 통권 47호(2007. 07. 01)

문학저널 통권 48호(2007. 08. 01)

제10장 행위주적 모델에 관한 반성

문학저널 통권 49호(2007. 09. 01)

문학저널 통권 50호(2007. 10. 01)

문학저널 통권 51호(2007. 11. 01)

제11장 변형 모델의 탐색

문학저널 통권 52호(2007. 12. 01)

문학저널 통권 53호(2008. 01. 01)

문학저널 통권 54호(2008. 03. 01)

문학저널 통권 56호(2008. 05. 01)

문학저널 통권 57호(2008. 06. 01)

제12장 기술의 샘플

문학저널 통권 58호(2008. 07. 01)

문학저널 통권 59호(2008. 08. 01)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에 대하여-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

문학저널 통권 60호(2008. 09. 01)

문학저널 통권 62호(2008. 11. 01)

문학저널 통권 64호(2009. 01. 01)

문학저널 통권 65호(2009. 02. 01)

문학저널 통권 66호(2009. 03. 01)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에 대하여/로널드 슬라이퍼(Ronald Schleifer)

조선문학 통권 237호(2011. 01. 01)

조선문학 통권 238호(2011. 02. 01)